

東北亞歷史論叢

동북아역사논총

80호 2023. 6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차 례

논문

- 이준성 ■ 중국 대학교재의 동아시아 고대사 서술과 인식
- ‘문화교류 및 전파’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7
- 한상준 ■ 중국의 한국전쟁 인식, 서술, 활용 43
- 이종록 ■ 3세기 이전 고구려와 동부여의 관계에 대한 재검토 77
- 최진열 ■ 후한(後漢) 중기(中期) 자연재해·내란과 재정 위기 121
- 문윤수 ■ 732~733년 발해(渤海)와 당(唐) 전쟁의 전개 과정과 군사력 163
- 박유미 ■ 고대 및 고려시대의 장 문화 발달과 그 실제 209
- 정희정 ■ 삼계탕(蔘鷄湯)의 연원과 발달 배경에 관한 연구 253
- 정형아 ■ 중일전쟁시기 소련의 대(對)중국 신용차관과 ‘역화(易貨)’교역 289
- 고광의 ■ 고구려연구재단과 동북아역사재단의 남·북 역사문화 교류와 성과 319

자료소개

- 박정애 ■ 네 번째 식민지 조선과 일본군‘위안부’ 문제 자료집 시리즈
- 『국제연맹 동양여성아동매매 실지조사단과 일제의 인신매매 문제』 387

서평

- 권용철 ■ 고려시대 한중관계사 연구의 진전
- 『고려시대 외교문서 연구』(정동훈, 혜안, 2022) 413
- 이승희 ■ 흩어진 퍼즐 조각을 모아 완성한 일본군 위안소의 실태
- 『진중일지로 본 일본군 위안소』(하종문, 휴머니스트, 2023) 431

동북아역사논총 규정 및 규칙 441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Contents

Articles

- Lee Junsung ■ Narratives and Perceptions of East Asian Ancient History in Chinese University Texts 7
- Han Sangjun ■ Perception, Narrative, and Utilization of the Korean War in China 43
- Lee Jongrok ■ Reconsideration of the Relationship between Koguryo and East Buyeo before the 3rd Century 77
- Choi Jinyeoul ■ The Natural Disaster, the Rebellion of the Qiangs, and Financial Bankruptcy in the Mid-to-late Period of the Later Han Dynasty 121
- Moon Yunsoo ■ 732~733 Development Process and Military Power of Balhae and Tang War 163
- Park Yumi ■ The Development and Actuality of Fermented Soybean Products Culture in Ancient and Goryeo Dynasty 209
- Chung Heechung ■ Research on the Origin and Background of Samgyetang 253
- Jung Hyungah ■ The Soviet Union's Credit Loans to China and the 'Barter' Trade during the Sino-Japanese War 289
- Ko Kwangeui ■ Historical and Cultural Exchanges and Achievements of the Koguryo Research Foundation and the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between South Korea and North Korea 319

Introduction to Documen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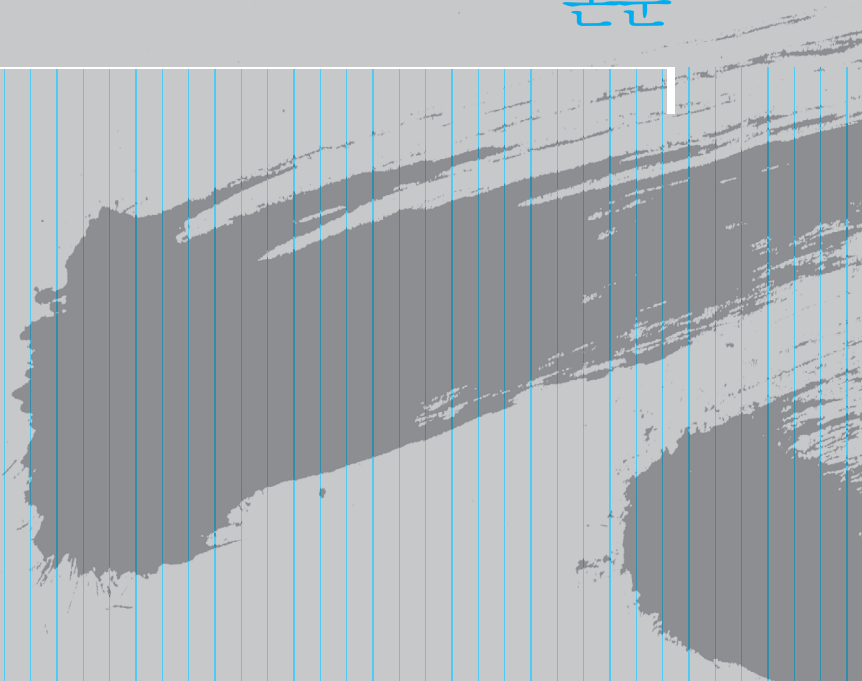
- Park Jungae ■ The Fourth Series of Sourcebook on Colonial Korea and the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Issue: The League of Nations' Commission of Enquiry into Traffic in Women and Children in the East and Japan's Human Trafficking Issue 387

Book Review

- Kwon Yongcheol ■ A Leap in the Study of Korea-China Relations in the Goryeo Period 413
- Lee Sunghye ■ The Actual Situation of Japanese Military Brothels Completed by Collecting Puzzle Pieces 431



논문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중국 대학교재의 동아시아 고대사 서술과 인식

— ‘문화교류 및 전파’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이준성 | 국사편찬위원회 편사연구사

- I. 머리말
- II. 마공정 교재, 『세계고대사』의 구성과 특징
- III. 동아시아 문화 교류 및 전파 관련 서술 분석
- IV. 맺음말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I. 머리말

동아시아에 속해 있는 국가들은 주변국의 역사교과서가 바뀔 때마다 그것을 ‘문제’로 여기는 상황을 마주하고 있다. 이는 해당 지역 내 국가들이 오랜 기간 겪어온 역사의 굴곡에 기인하는 측면도 있지만, 현재 이 지역의 질서 체제가 끊임없이 변동하며 재편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¹

지난 2017년 중국에서는 중·고등학교 역사교과서를 다시 국정화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지난 1980년대 후반부터 오랜 기간 검정제도를 통해 교과서를 편찬해오던 경험이 축적되어 있었기에 갑작스러운 국정화에 반대하는 내부의 목소리도 있었으나,² 국정화 추진이 민족갈등과 사회주의 체제의 이완 등 현실적인 문제를 봉합하기 위한 대책이었기에 국가에 의한 통제가 강화되는 방향으로 결론날 수밖에 없었다.³ 당시 발표한 『보통고중 역사 과정 표준(普通高中歷史課

* 투고: 2023년 4월 7일, 심사 완료: 2023년 5월 7일, 게재 확정: 2023년 5월 12일

- 1 오병수, 2016, 「국내 학계의 중국 역사 교과서 연구 경향과 과제」, 『동북아역사논총』 53, 동북아역사재단.
- 2 윤세병, 2019, 「중국의 역사 교과서 논쟁과 국정화」, 『역사교육연구』 31.
- 3 중국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시도 이전의 한국 고대사 관련 인식에 대한 분석으로는 다음의 논고들이 참고된다. 먼저 대학 교재와 관련하여서는 유용태, 2005, 「중국 대학 역사교재의 한국사 인식과 중화사관-고·중세사를 중심으로」, 『중국의 동북공정과 중화주의』(연구총서 12), 고구려역사재단; 김현숙, 2006, 「중국 대학교재에 서술된 삼국 관련 내용 검토」, 『중국 역사교과서의 한국고대사 서술 문제』(기획연구 7), 동북아역사재단; 김은국, 2006, 「중국 대학교재에 보이는 발해사 서술 내용 검토」, 『중국 역사교과서의 한국고대사 서술 문제』, 동북아역사재단(기획연구 7); 채미하, 2008, 「고대사」, 『중국대학 역사교재 속의 한국·한국사』(기획연구 17), 동북아역사재단; 조이옥, 2008, 「발해사」, 『중국대학 역사교재 속의 한국·한국사』(기획연구 17), 동북아역사재단. 다음으로 중·고등학교 역사교과서에 대한 분석으로는 고광의, 2006, 「중국 역사교과서의 고대 문화사 서술 검토」, 『중국 역사교과서의 한국고대사 서술문제』(기획연구 7), 동북아역사재단; 금경숙, 2006, 「중국 중·고 역사교과서에 보이는 한국고대사 관련 내용 검토」, 『중국 역사교과서

程標準』의 내용을 살펴보면 필수 교과인 『중외역사강요(中外歷史綱要)』를 비롯해 총 6종의 교과서를 국정화한다는 사안이 대강을 이룬다. 그중 필수 교과인 『중외역사강요』는 총 2권으로 구성되었는데, 상권 자국사는 2019년 8월 발간되어 시범적으로 사용해왔고, 하권 외국사는 2020년 2월 발간되어 일부 지역에서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지난 2022년부터는 전국에 배포되어 국정교과서를 통한 역사교육이 진행되고 있다.

중국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소식이 알려지면서 국내에서는 이에 대한 분석이 진행되었다.⁴ 그 결과 시진핑(習近平) 집권 이후 역사 허무주의 극복과 애국주

의 한국고대사 서술문제』(기획연구 7), 동북아역사재단; 김진순, 2006, 「중국 중·고등학교 역사교과서의 중국 문화관련 서술 검토」, 『중국 역사교과서의 한국고대사 서술문제』(기획연구 7), 동북아역사재단; 장석호, 2006, 「중국 역사교과서의 부여 서술 분석」, 『중국 역사교과서의 한국고대사 서술문제』(기획연구 7), 동북아역사재단; 임상선, 2006, 「중국 역사교과서의 발해사 내용 비판」, 『중국 역사교과서의 한국고대사 서술문제』(기획연구 7), 동북아역사재단; 구한희, 2006, 「중국 역사교육에서의 「민족문제」와 고구려·발해 서술 변화에 대한 고찰」, 『중국의 역사교육과 교과서』(연구총서 18), 고구려연구재단; 안병우, 2006, 「중국 역사교과서의 한국 전 근대사 서술 추이」, 『白山學報』 75.

- 4 우성민, 2018, 「신간 중국 중등 역사 교과서 개편 동향과 한국사 관련 서술 검토」, 『중국학연구』 86; 윤세병, 2019, 「중국의 역사 교과서 논쟁과 국정화」, 『역사교육연구』 31; 양승훈·박현숙, 2019, 「초급중학교 『중국역사』 교과서(2016년 판)의 한국고대사 서술내용과 특징」, 『선사와 고대』 59; 정동준, 2019, 「중국 역사 교과서의 고대사 서술 분석-2016년판 중학교 국정교과서의 특징과 문제점을 중심으로-」, 『중국고중세사연구』 52; 권은주, 2020, 「『중외역사강요』의 한국고대사·동아시아사 서술 내용과 역사인식 분석」, 『동북아역사논총』 70, 동북아역사재단; 오병수, 2020, 「시진핑 시대 중국의 역사정책과 자국사의 재구성-『歷史 中外歷史綱要』과목의 개설 배경과 이데올로기-」, 『역사교육』 156; 우성민, 2020, 「『중외역사강요』 속의 중국식 글로벌 가치관 ‘인류운명공동체’의 서술과 시사점」, 『동북아역사논총』 70; 이유표, 2020, 「중국 고등학교 국정 교과서 『중외역사강요』의 고대문명사 서술 특징」, 『동북아역사논총』 70; 우성민·허은진, 2021, 「2020년판 중국 역사교과서 속의 문화유산 서술 고찰」, 『문화와융합』 43-1; 손성욱, 2021, 「『중외역사강요』의 전근대 대외관계 인식-두 차례 등장한 ‘중변관계’를 중심으로-」, 『사림』 78, 수선사학회; 이정빈, 2021, 「중국 개정 중등 역사교과서(2016~2018)의 한국고대사상」, 『중국 시진핑시대 교과서 국정화와 역사담론』, 동북아역사재단; 김중학, 2021, 「중국의 국사교육과 ‘중화민족’의 의미-고중 통편교

의의 강화, 그리고 소위 ‘중국몽’에 기반한 ‘일대일로(一帶一路)’ 추진 및 ‘인류운명공동체론’의 제기 등이 국정화의 원인으로 지목되었다. 특히 ‘동북공정’을 비롯하여 오랜 기간에 걸쳐 진행된 정부 주도의 여러 역사공정을 통해 민족 통합과 자국사 중심의 역사 재해석 논리를 확립되었고, 그 결과물이 곧바로 교육과정 및 교과서에 적극적으로 반영되는 현상이 확인되었다. 그것은 역사상 한국을 비롯한 인접 국가와의 다양한 정치적·문화적 관계를 오히려 이전보다 일원적으로 파악하고, 결국 주변국 및 주변 민족을 피동적인 대상으로만 설명하는 흐름을 강화하는 것이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움직임은 대학 교재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중·고등학교 교과서를 국정화한 이상 대학에서 사용하는 교재와 내용상 간극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기에, 중국 내에서 대학교재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통제하려는 현상은 오히려 자연스럽다. 실제 지난 2019년 10월 31일, 각 출판 기관에 ‘전국 대학, 초·중고교 교재 조사 통계 작업에 관한 공지(국가 교재 판공실 2019-44호)’ 공문을 발송했는데, 여기에는 중국 내에서 정식 출판되어 사용 중인 교재를 ‘교재정보관리시스템’에 등록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초·중고교 교재 뿐 아니라 대학 교재에까지 국가의 통제를 확대하고자 하는 움직임으로, 그것이 기존 중·고등학교 교재의 국정화 시도와 같은 목적을 지닌 것임은 어렵지 않게 간취해볼 수 있다.

이러한 시도가 차후 어느 정도까지 확장되고 구체화될지는 여전히 예측하기 어렵지만, 이와 관련하여 중국 교육부에서 추진 중인 ‘마르크스주의 이론 연구와 건설 공정 중점교재(马克思主义理论研究和建设工程重点教材, 이하 마공정 교재)’ 사업이 주목된다. 마공정 교재 사업은 대학에서 사용 중인 각 학문분야의 대표 교재를 지정하고 해당 교재에 대한 활용을 유도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

재 중외역사강요의 사례』, 『주요국제문제분석』 26,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임상훈, 2022, 「中國 國定 歷史教科書『中外歷史綱要』의 導入과 그 性格」, 『역사문화연구』 82, 한국외대 역사문화연구소 등

러한 움직임이 더욱 강화된다면 사실상 대학 교재에서도 국정화와 같은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기에 이에 대한 구체적이고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 글에서는 지난 2018년 마공정 교재로 출간된 쑤환(朱實) 주편의 『세계고대사』 내용 구성을 살핀다(Ⅱ장). 또한 중국 정부의 역사인식에서 뚜렷한 변화가 감지되는 ‘문화교류 및 전파’ 부분을 중심으로 이전 대학교재들과의 비교를 통한 분석을 진행한다(Ⅲ장).

Ⅱ. 마공정 교재, 『세계고대사』의 구성과 특징

중국 교육부는 몇 년 전부터 소위 마공정 교재를 지정하여 배포하는 사업을 진행 중이다. 중국 교육부가 지난 해 초인 2022년 2월 19일 배포한 「신시대 마르크스주의 이론 연구와 건설공정 교육부 중점교재 건설 추진방안(新时代马克思主义理论研究和建设工程教育部重点教材建设推进方案)」(이하 추진방안) 문건을 보면 이 사업이 「전국 대·중·소학교 교재 건설 계획(2019-2022)(全国大中小学教材建设规划)」에 의거하여 추진 중이며, 학군별·유형별로 관련 학과의 과목별 전문 교재를 지정하기 위한 것임이 확인된다. 5년에 걸쳐 200종의 우수교재를 지정하여 마르크스주의를 지도하고 중국적 특성을 살린 역사, 철학 및 사회과학 교재 시리즈를 구성한다는 것이다. 이미 80종의 교재를 출판하여 대학에서 널리 사용하고 있다는 점도 언급되어 있다. 또한 우수한 결과물을 제작하기 위해 성(省)급의 지도 책임을 강화하고, 이행 상황을 작성하여 보고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이 사업의 추진 의의에 대해서는 ‘새로운 시대의 특성을 결합하고 새로운 시대의 인재 양성 요구 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한 것임을 언급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새로운 시대의 특성’이란, 시진핑 시대에 강조하고 있는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자신감’을 의도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의의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교재 편찬 과정에서 국가가 통합하여 검토 및 편집을 담당하고, 관련 출판

기관 등록 시스템을 구현하여 정기적으로 그 요건을 평가하도록 설계해놓았다. 아울러, 지난 2017년 7월 설립된 ‘국가교재위원회(国家教材委员会)’⁵에 ‘국무원 교육행정부서(国务院 教育行政部门)’에 대해 조정과 지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다.

이미 출간된 마공정 교재 중 역사학 분야에는 『사학개론(제2판)』, 『박물관학 개론』, 『중국사학사』, 『외국사학사』, 『세계고대사(제2판)』, 『세계현대사(제2판)』, 『중화문명사』, 『중국근대사(제2판)』, 『중화인민공화국사』, 『중국사상사(제2판)』 등 10종이 넘는 교재가 등록되어 있다. 그중 2018년 고등교육출판사에서 출간된 『세계고대사(제2판)』가 이 글의 주제와 관련하여 주목된다.⁶

□ 朱寶 主編, 2018, 『세계고대사(世界古代史)』 목차

[상권]

서론

제1장 원시사회

제2장 상고 서아시아(上古西亞) (기원전 5000년~기원전 4세기)

제3장 상고 이집트(上古埃及) (기원전 6000년~기원전 1세기)

제4장 상고 남아시아(上古南亞) (기원전 4000년~5세기)

제5장 상고 중국(上古中國) (기원전 3000년~5세기)

제6장 고대 그리스(古代希臘) (기원전 2000년~기원전 2세기)

5 ‘국가교재위원회’는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이후 전국의 교과서 업무를 지도하고 관리하는 최초의 기구이다. 김지훈, 2021, 「국가의지와 역사교과서의 정치화」, 『중국 시진핑시대 교과서 국정화와 역사담론』, 동북아역사재단, 113쪽.

6 이 책의 1판은 2016년 6월, 2판은 2018년 8월 출판되었다. ‘세계고대사’, ‘세계고대사통론’, ‘세계고대중세사’, ‘세계상고사’, ‘세계중고사개론’ 등의 수업에서 활용될 수 있다고 제시해놓았다.

[하권]

제8장 문명의 충돌과 융합(文明的冲撞与融合) (3~6세기)

제9장 동아시아 사회의 발전(东亚社会的发展) (6~13세기)

제10장 남아시아 사회의 변천(南亚社会的变迁) (6~13세기)

제11장 아랍 제국(阿拉伯帝国) (7~13세기)

제12장 비잔티움 제국(章拜占庭帝国) (4~15세기)

제13장 중세 전기의 서구(中世纪前期的西欧) (5~14세기)

제14장 동유럽, 북유럽 제국(东欧, 北欧诸国) (6~12세기)

제15장 몽골제국(蒙古帝国) (13~14세기)

제16장 아시아 사회의 진화(亚洲社会的演进) (14~16세기)

제17장 러시아와 중앙유럽 봉건사회의 발전(俄罗斯和中欧封建社会的发展) (12~15세기)

제18장 중세 후기의 서구(中世纪后期的西欧) (14~15세기)

제19장 아프리카와 아메리카(非洲与美洲) (기원전후~16세기)

먼저 『세계고대사』의 집필자를 살펴보면, 편찬 책임자인 주환(朱實)은 동북사범대 교수로 재직하며 세계문명사연구중심을 설립한 세계사 연구자이다. 주로 봉건제도의 기원과 해체, 자본주의로의 전환 등에 대한 연구 성과를 발표했으며, 『세계통사』, 『세계사』, 『세계고대중세기사』 등의 주편을 맡은 바 있다.⁷⁾

7) 朱實(1926년 1월 12일~2020년 8월 8일)은 1946년 장춘대학 문학원 외문계에서 러시아어를 전공한 이후 1948년 동북사범대에서 역사학을 공부하였다. 『세계고대사』의 도론을 집필하였다. 그는 중화인민공화국의 건국 직후인 1950년대 초반 국가교육부에서 각 대학 역사학과에 세계사 과정을 개설하라는 지시가 있던 당시부터 동북사범대의 세계사학과를 맡아왔다. 王晋新과 朱實의 대담(王晋新, 「朱實教授访谈录」, 『史学史研究』 2008年第2期)을 살펴보면, 동북사범대에 세계사학과가 만들어지던 당시에는 “소련 교재를 사용하는 토대 위에서 선진국의 최신 과학 성과와 조국의 과학 유산을 흡수해 중국 전역의 현실에 맞는 교재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주된 목표로 제시되었다고 한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동북사범대 세계사교연구실에서는 1955년 『세계통사』 통신교재 1권(상고·중고·근대·현대 각

문명교류 및 동아시아 역사를 서술한 8장과 9장은 주환과 함께 동북사범대에 재직 중이던 왕진신(王晋新)⁸과 저우송륜(周颂伦)⁹이 집필을 분담하였다. 왕진신(王晋新)은 동북사범대 세계상고중고사교연실 주임으로 근대 초기 영국사를 주 전공으로 하면서 문명의 다원성 등에도 관심을 두고 있는 연구자로, 제8장과 제9장의 제1절(중국), 제2절[조선반도(한반도)], 제4절(유교와 불교)을 담당하였다. 저우송륜(周颂伦) 역시 같은 동북사범대에 재직 중인 일본 근대정치사 전공자로, 제9장 제3절(일본)을 담당하였다.

목차 구성을 살펴보면, 『세계고대사』는 상권과 하권으로 나뉘져 있다. 「서론」에서는 목차 구성과 관련한 설명을 확인할 수 있는데, 상권에서 서아시아, 이집트, 남아시아, 중국, 그리스, 로마로 지역을 분류한 후 ‘인류의 기원, 원시 씨족제 사회, 노예제 사회’ 단계의 역사를 다루고, 하권에서 동아시아, 남아시아, 아랍, 비잔틴 제국 등으로 지역을 구분하여 ‘봉건사회 역사’를 다룬다고 밝

1권)을 간행했고, 1958년에는 학부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재인 『세계역사』를 완성했다고 한다. 같은 대담에서 “(현재 중국의) 중·청년 학자들에 대한 평가를 듣고 싶다”라는 王晋新의 질문에 朱實은 “나는 세계사학자가 신흥 강대국에 특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우리 국민들이 세계를 이해하고, 배우고, 소통하고, 세계에 통합되는 하나의 창구이며, 동시에 세계인들이 중국을 이해하는 중개자이기도 하다”면서 “우리 세계사학과는 건국 이래 지난 60여 년 동안 큰 성과를 이루었지만 여전히 당과 조국의 요구 및 시대가 위임한 사명과는 거리가 멀다”고 평가하였다.

- 8 王晋新(1957년 6월~)은 1978년 동북사범대 역사학과에 입학하여 1991년 같은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영국 버밍엄 역사아카데미 방문학자, 영국 킹스칼리지 런던 역사학과 석좌교수, 런던대학 역사연구소 석좌연구원 등을 역임하였다. 그는 2000년대 중반 「多元性, 多样性, 拓展化与开放性-西方学术界“17世纪普遍危机”论争及其启示」, 『安徽史学』 2006年第1期; 「多元, 多维与多向: 重新审视1500年以来世界文明」, 『学海』 2007年第3期; 「别一种的解说-评〈文明的冲突-战争与欧洲国家体制的形成〉」, 『新史学』 2007年第3期 등의 논문을 집중적으로 발표하였다. 『세계고대사』 하권의引言 및 제8장, 제9장 제1절, 제2절, 제4절을 비롯하여 제10장, 제15장, 제16장의 제1절, 제2절, 제4절 집필을 담당하였다.
- 9 周颂伦(1952년 3월 22일~2022년 8월 26일)은 절강성 출신으로 일본 호세이대학(法政大学)에서 유학하며 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고, 동북사범대학 역사문화학원에 재직 중이다. 『세계고대사』 하권의 제9장 제3절 및 제16장 제3절을 집필하였다.

히고 있다. 기본적으로 마르크스주의의 변증법적 유물사관을 따라 시대를 구분하고, 지역별로 설명하는 목차 배치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서론」에서는 이 책이 이론적 관점에서 문명의 교류를 강조한다고 설명한다. “각 지역의 문명 교류의 성과는 고대 세계 지역 교류의 네트워크 형성을 강력하게 촉진”했으며, 이를 통해 “근대 이후 진정한 ‘세계 역사’ 형성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었다는 서술은 그러한 의도를 잘 드러내고 있다. 이어서 문명의 교류를 현실적인 문제와도 연결하는데, “2013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중앙아시아와 동남아시아를 방문해 실크로드 경제벨트와 21세기 해상 실크로드 건설을 제안”했다는 언급이 대표적이다. 소위 ‘일대일로’ 건설이 현대 문명 교류와 상호 이해를 강화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이 책의 강조점과 연결시킨 것이다. ‘서론’을 마무리하면서는 ‘세계사에서 중국의 중요한 위치를 정확하게 분석’하고, ‘새로운 시대에 청년들에게 부여된 역사적 사명을 감당’할 것을 독려한다.

□ 朱實 主編, 1986, 『세계상고고사』 목차

[상권] 제1편 세계상고사

제1장 원시사회(原始社会)

제2장 고대 이집트(古代埃及)

제3장 고대 서아시아 제국(古代西亚诸国)

제4장 고대 인도(古代印度)

제5장 고대 그리스(古代希腊)

제6장 고대 로마(古代罗马)

[하권] 제2편 세계중고사

제7장 유라시아 민족 대이동과 유럽의 프랑크 국가

제8장 서구 봉건 도시의 흥기와 십자군 동침

제9장 서구 각국의 봉건 제도의 발전

제10장 중고기의 동유럽과 동남유럽 국가

제11장 중고기의 서아시아 제국

제12장 중고기의 남아시아와 동남아시아

제13장 중고기의 조선과 일본

제1절 조선 제2절 일본

제14장 중고기의 북아프리카와 중남미

제15장 서구 봉건 제도의 해체

제16장 봉건 전제 시대의 영국과 프랑스

제17장 유럽 르네상스

제18장 종교개혁과 독일 농민전쟁

제19장 중고 후기의 스페인과 네덜란드

□ **쑨샹민, 2006, 『세계중고사』 목차**

전언

제1장 서구 봉건제도의 발생

제2장 서구 도시의 대두와 십자군 동침

제3장 서구 봉건제도의 발전

제4장 동유럽의 봉건국가

제5장 서아시아의 봉건 제국

제6장 중고의 조선, 일본, 남아시아 대륙

제7장 신헌로의 개척과 서구 자본주의의 대두

제8장 서유럽 문화와 르네상스

제9장 종교개혁과 독일 농민전쟁

제10장 봉건제도 해체 시기의 서구 제국



그림 1 朱寰 主編, 2018, 『세계고대사(世界古代史)』



그림 2 朱寰 主編, 1986, 『세계상고중고사(世界上古中古史)』(초판)



그림 3 孫祥民 主編, 2006, 『세계중고사(世界中古史)』(초판 1994)

그런데 『세계고대사』의 구성은 주환이 주편으로 참여했던 『세계상고중고사(世界上古中古史)』 등 이전 저서와 비교해보았을 때 차이를 보인다. 이 책의 출간 이전 대학교재로 널리 사용되던 쑨상민(孫祥民) 주편, 『세계중고사(世界中古史)』(북경사범대학출판사)와의 차이도 확인된다.

먼저 눈에 띄는 변화는 장의 제목에서 ‘조선’과 ‘일본’이 나란히 빠지고, ‘동아시아’라는 표제어가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된 것이다. 1986년판 『세계상고중고사』에서는 ‘제13장: 중고기의 조선과 일본’, 2006년판 『세계중고사』에서는 ‘제6장: 중고기의 조선, 일본, 남아시아 대륙’을 배치하여 한국사와 일본사를 다룬 반면, 『세계고대사』에서는 ‘제9장: 동아시아 사회의 발전’에서 중국 당송 시대의 사회, 경제, 사상, 문화를 개괄한 후 한국사와 일본사 관련 내용을 살피고 있다. 목차상으로 중국사의 맥락 속에서 한국과 일본의 역사를 설명하려는 의도를 엿볼 수 있으며, 후술하는 바와 같이 실제 서술에서도 그러한 의도가 반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른 하나는 『세계고대사』 하권의 앞부분에 ‘8장: 문명의 융합과 충돌’을 배

치하고 있다는 점이다. 서론에서부터 강조하던 문화교류 및 전파 관련 내용을 적극 반영한 것이다. 8장의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인류 교류의 역사를 설명하기 위해 농경문명과 유목문명의 두 세계를 상정한 후 양자 사이의 ‘평화적 왕래와 폭력적 충돌(제1절)’을 대비시킨다. 이어 ‘유라시아 대륙의 민족 대이동(제2절)’을 통해 ‘아시아-유럽 대륙의 역사 구도의 변화(제3절)’가 진행되는 과정과 의의를 설명한다. 그런데 좀 더 구체적으로 서술의 맥락을 살펴보면, 기원을 전후한 시기 한나라와 흉노의 대립에서 한나라가 승리하고 흉노의 일부가 서쪽으로 이동하게 되면서 일련의 연쇄 반응이 일어났음을 강조한다. 이러한 움직임은 점차 지역, 민족, 국가를 초월하여 3세기 이후까지 지속되면서 결국 ‘고대 사회’가 마무리되고 소위 ‘중고사회’가 시작되었다는 것으로 귀결된다.¹⁰ 이를 통해 하권의 도입부에 ‘8장: 문명의 융합과 충돌’을 배치한 이유가 중국 중심으로 역사 흐름을 설명하고 시대구분의 기준으로 제시하기 위한 의도였다고 파악할 수 있다.

Ⅲ. 동아시아 문화 교류 및 전파 관련 서술 분석

1. 민족의 이동과 동아시아 역사 구도 변화

중국은 시진핑 집권 이후 소위 ‘중국몽’¹¹을 표상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일대

10 한편, 『세계고대사』와 『세계상고중고사』 사이에는 시기구분과 관련하여 용어의 차이도 있다. 『세계고대사』 상권에서는 ‘상고’와 ‘고대’를 구분하여 ‘상고’에서는 서아시아, 이집트, 남아시아, 중국을 다루고, ‘고대’에서는 그리스와 로마를 다루고 있다. 이는 『세계상고중고사』에서 모든 장에 걸쳐 ‘고대’로 서술한 것과 다른 점이다. 다만, 『세계고대사』의 서론 및 이후 서술에서는 ‘상고’와 ‘고대’ 양자를 혼용하고 있음이 확인되기에 시기구분의 문제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한 검토를 통해 그 차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11 ‘중국몽’이라는 단어는 지난 2013년 3월 ‘전국민민대표대회’와 ‘전국민정치협상

일로¹²를 추진하는 한편, 거시적인 측면에서 ‘인류운명공동체론’¹³을 제기해 왔다.¹⁴ 특히 문화적으로 ‘유일한 보편’임을 자부해온 중국은 ‘문화자신(文化自信)’의 배양을 통한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문화 건설을 목표로 내세우며 이를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과 결합시키고 있다.

또한 중국은 점차 중국적인 목소리를 국제 사회에 전파해야 한다는 명분을 만들며 그 중요성을 강조해왔다. 대표적인 예로 지난 2019년 5월에 개최된 ‘아시아문명대화’에서 시진핑은 “오만과 편견을 버리고 자신의 문명과 다른 문명의 차이에 대한 이해를 강화해야 한다”고 하면서, “문명교류로 문명장벽을 초월하고, 문명상호 참조로 문명충돌을 극복하며, 문명공존으로 문명우월을 넘어서자”고 강조하였다.¹⁵

회의’ 이후 다양한 주석과 해설이 이어지면서 ‘13억 4,000만 인민의 개인적 꿈의 결집체’로서 “모든 개인에게 기회가 공평하게 주어져 있으니 개인이 노력하기만 하면 국가는 정책적 조건을 제공한다”는 의미로 정리되었다.

- 12 지난 2015년 3월 ‘전국인민대표대회’ 제3차 회의 이후 새로운 아젠다로 ‘실크로드 경제벨트 및 21세기 해상 실크로드 공동 건설 계획(建設絲綢之路經濟帶和21世紀海上絲綢之路)’, 이른바 ‘일대일로(一帶一路, One Belt, One Road)’가 제시되었다. 다만, 그 이전인 2013년 9월 중앙아시아와 동남아 여러 국가를 방문 중이던 시진핑이 이미 ‘실크로드 경제벨트 및 21세기 해상 실크로드 구축’을 제안한 바 있다.
- 13 “인류운명공동체 구축”은 2017년에 개최된 제19기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향후 14개 국가발전 전략 목표 중의 하나로 제시되었다.
- 14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김태만, 2013, 「시진핑의 ‘중국몽(中國夢)’과 문화강대국의 길」, 『동북아시아문화연구』 37, 동북아시아문화학회; 김태만, 2015, 「시진핑(習近平)의 문화정책과 ‘일대일로(一帶一路)’의 문화전략」, 『동북아시아문화연구』 44, 동북아시아문화학회; 김현주, 2017, 「문화소프트파워의 강화를 통한 신중화주의 질서의 세계화」, 『동북아시아사논총』 57, 동북아시아사재단; 김진호·배은한, 2018, 「시진핑 시대의 중국 전통 정치사상과 정치문화 연구」, 『중국학논총』 57; 정보은, 2019, 「시진핑(習近平) 시대, 중국 문화정책과 그 의미에 대한 고찰」, 『한중사회과학연구』 51, 한중사회과학학회; 장윤미, 2020, 「‘신시대’ 중국의 문화담론과 문화전략 분석」, 『중소연구』 44,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 등 참조.
- 15 “习近平在亚洲文明对话大会开幕式上的主旨演讲”, 「新华网」 2019-05-15, 장윤미, 2020, 위의 글, 81쪽에서 재인용.

이러한 움직임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새로운 고등학교 국정 역사교과서의 선택과목 중 하나로 『문화교류와 전파』를 포함한 것이다. 이 과목의 학습 내용을 살펴보면, <표 1>에 보이는 바와 같이 ‘유구한 역사의 중화 문화’로부터 ‘정보 혁명과 인류문화 공유’에 이르기까지 총 7개의 주제를 학습하도록 편성하였다. 이를 통해 인류문명의 발전과 세계문화 교류의 관점에서 중화의 우수한 전통문화의 특징과 가치 및 중화문화의 세계적 의의를 이해하도록 하며, 결

〈표 1〉 『문화교류와 전파』 주제 및 학습 내용

연번	주제	학습 내용
1	유구한 역사의 중화 문화	중화의 우수한 전통문화의 내용을 이해한다. 인류문명의 발전과 세계문화 교류의 시각으로부터, 중화의 우수한 전통문화의 특징과 가치를 이해하고, 중화문화의 세계적 의의를 이해한다.
2	다양한 발전의 세계문화	세계 각지의 주요한 지역문화의 이해를 통해 세계문화의 다양성을 이해한다. 세계 각국, 각지역, 각민족의 인류문화 발전에 대한 기여를 이해한다.
3	인구 이동과 문화 정체성	역사상 대륙, 국가, 지역을 뛰어넘는 서로 다른 규모의 인구 이동 및 이민자들이 직면한 기회와 도전의 이해를 통하여 현지사회로의 이동과 융합의 과정 중 나타난 문화 정체성을 이해한다.
4	상로(商路) 무역과 문화교류	다른 시대, 다른 종류의 상로 개척을 이해한다. 상품이 구현한 문화 특색의 이해를 통하여 무역 활동이 문화교류 중 담당한 중요한 역할을 이해한다.
5	전쟁과 문화 충돌	역사상의 유명한 전쟁의 이해를 통하여 전쟁이 인류 문화에 대한 파괴 및 문화 단절의 조성을 이해한다. 전쟁이 객관적으로 서로 다른 문화의 충돌의 계기를 제공한 것을 이해한다.
6	문화의 전승과 보호	역사상 학교 교육, 유학, 도서 출판, 번역사업 및 도서관, 박물관의 문화전승과 전파에 미친 영향을 이해한다. 만리장성, 고궁, 경극 등을 통하여 문화유산 보호가 민족문화전승, 문화의 다양성과 창조성의 수호에 대하여 갖는 중요한 의의를 이해한다.
7	정보 혁명과 인류문화 공유	현대 정보 기술의 문화 전파의 방식, 내용, 규모, 효과 방면 등에 대한 거대한 영향을 이해한다. 현대 정보 기술의 인류문화 공유에 일으킨 역사상 유례가 없는 영향과 인류문화의 발전에 대하여 제기한 새로운 주제를 이해한다.

출처: 李卿 編輯, 2018, 『普通高中歷史課程標準(2017)』, 人民教育出版社, 30~31쪽; 우성민·허은진, 2021, 『2020년판 중국 역사교과서 속의 문화유산 서술 고찰』, 『문화와융합』 43-1에서 재인용.

과적으로 문화자신감을 가지도록 이끄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혀놓았다.

또한 『문화교류와 전파』에서는 중국이 자신의 사상문화를 소중히 여겨야 하며, 중국식의 사회주의 제도에 대한 자신감과 더불어 우수한 전통문화에 대한 국민적인 자신감을 가질 것을 강조하고 있다.¹⁶ 중국 고유의 전통을 반성하는 동시에 서구의 근대를 비판적으로 수용함으로써 전통문화와 서구문화의 융합 추구하고자 하는 의도가 엿보이지만, 실상은 해외에서 유입되는 여러 사조의 영향으로부터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사상이 변질되는 것을 막기 위한 고민의 발로로 해석된다. 이는 역사 허무주의 극복과 애국주의의 강화라는 슬로건을 통해서도 알 수 있으며, 최근 더욱 강조되고 있는 ‘통식교육’의 핵심적인 목표로 ‘중국 문화의 주체성’ 수립이 강조되고 있는 점을 통해서도 재차 확인할 수 있다.

□ 朱寰 主編, 2018, 『세계고대사』

제8장 문명의 충돌과 융합(文明的冲撞与融合) (3~6세기)

제1절 농경, 유목, 고대 문명의 양대 세계

- 1) 평화 왕래와 폭력의 충돌
- 2) 문명의 확장

제2절 유라시아 민족 대이동

- 1) 유목민족의 분포
- 2) 제 유목민족의 남하
- 3) 제 유목민족의 서천

제3절 아시아 대륙의 역사 구도의 변화

- 1) 중국 사회의 불안과 융합
- 2) 인도 사회의 조정
- 3) 지중해 핵분열과 서구 역사의 새로운 판도

문화교류와 전파에 대한 강조는 대학 교재에서도 엿볼 수 있다. 앞서 Ⅱ 장에

16 우성민·허은진, 2021, 앞의 글, 871쪽.

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세계고대사』 하권의 도입 부분에 ‘제8장: 문명의 충돌과 융합’을 다룬다. 그런데 제8장의 시대적 범위는 16세기까지를 설명하는 하권 전체를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3~6세기에 한정된다. 그것은 이 장이 하권 전체의 도입이라는 측면보다는 바로 이어지는 ‘제9장: 동아시아 사회의 발전(6~13세기)’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는 의문을 갖게 한다.

제8장 문명의 충돌과 융합 (3~6세기)

제3절 아시아-유럽 대륙의 역사 구도의 변화

1) 중국 사회의 동요와 융합

(2) 사회 변혁과 민족 융합

그러나 민족적 증오와 억압의 과정에서 여러 민족의 문화적 교류도 나날이 발전하였다. 낙후된 소수민족은 선진 한족 문화에 매료되어 점차 자신의 정권을 공고히 하려면 선진 한족 문화를 배워야 하며 한족 정권의 효과적인 통치 모델을 구현해야 함을 깨닫게 되었다. ... 다양한 소수민족의 중국화가 심화됨에 따라 민족 통합의 과정이 크게 가속화되었으며, 한족 문화를 주체로 하는 중국 문명이 더욱 발전하였다. 6세기 말까지 수나라가 중국을 통일하면서 민족대통합의 과정이 기본적으로 완성되었고, 다민족 통일국가를 기본틀로 하는 응집적 문명의 통합이 정착되었다. 이것은 수·당 왕조를 중국 중세와 고대 전성시대로 이끈 중요한 역사적 전제 중 하나일 뿐만 아니라 이후 중화문화 발전의 매우 뚜렷한 기본 특징이 되었다.

위의 인용 부분에서는 낙후된 소수민족 문화와 선진의 한족 문화를 대비시킨다. 이후 소수민족 정권이 자발적으로 한족의 문화와 통치 모델을 습득하기 위해 노력하면서 여러 민족의 문화적 교류가 활발해졌고, 그 결과 소수민족의 중국화로 인해 민족 통합이 가속화되었다고 설명한다. 이러한 서사는 고등학교 국정 교과서인 『중외역사강요』에서 확인되는 것처럼 선진 시기부터 이미 ‘중화 민족공동체’ 의식이 존재했다거나, 혹은 다원적 ‘중화문화’가 형성되었다는 인식과 맥을 같이한다. 즉, 고대부터 민족 ‘교용’에 따라 중화민족의 강역이 마련

되었다는 것이다.¹⁷⁾

위의 서술에 이어서는 4세기부터 5세기까지 유목세계와 농업세계의 교류를 설명한다. 이 시기 유라시아 대륙에서 유목세계의 여러 민족이 농업세계로 대규모 이주를 하게 되는데, 그러한 현상은 두 세계의 ‘장기적인 교류와 사회경제적 발전에 따른 필연적인 결과’로 파악한다. 마지막으로 8장의 ‘소결’에서는 ‘동아시아 문명이 격동, 조정을 겪으면서 유라시아 대륙의 서쪽 끝에 위치한 지중해를 중심으로 한 농경 문명세계도 같은 역사적 격변’을 겪었음을 재차 부각한다. 즉, 유라시아 대륙 전체의 변화 원인을 중국을 중심으로 한 동아시아 문명의 격동으로부터 찾은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설명의 도식은 9장에서 한국과 일본 등 동아시아 역사를 서술하는 과정에서도 적극적으로 활용된다.

2. 한·일 고대사의 전개와 문화 전파

『세계고대사』의 ‘제9장: 동아시아 사회의 발전’에서는 제1절 중국, 제2절 조선반도(한반도), 제3절 일본의 순서로 배치하여 6~13세기의 역사를 다룬다. 그리고 이어서 제4절에서 이 지역의 유학과 불교를 중심으로 한 문화 전파에 대해 별도로 재차 서술한다.

□ 朱寶 主編, 2018, 『세계고대사』

제9장 동아시아 사회의 발전(东亚社会的发展) (6~13세기)

제1절 중국

- 1) 당송 시대 2) 사회 경제 3) 사상 문화

제2절 조선반도(한반도)

- 1) 고대 조선 2) 신라 통일 3) 고려 왕조

17 권은주, 2020, 앞의 글.

제3절 일본

- 1) 고대 일본 2) 율령제 국가 3) 공무 정치와 막부 통치

제4절 유학과 불교

- 1) 유가학설의 발전과 전파 2) 불교의 중국화와 그 전파

위의 목차 구성은 중국의 당송시대를 중심에 배치하여 대강을 설명한 후, 그 주변에 있던 국가들에게 앞서 설명한 ‘중국적인 것’들이 어떻게 전파되고 수용되었는지를 설명하는 방식이다. 그런데 제2절과 제3절에 나오는 한국사와 일본사의 경우 상권에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하권의 제9장에서 처음으로 등장한다. 이로 인해 한국과 일본의 선사시대로부터의 내용을 기술할 수밖에 없었고, 결과적으로 제1절에서 다룬 6~13세기의 시간적 범위에서 많이 벗어나는 구성이 될 수밖에 없었다. ‘동아시아’라는 용어를 장 제목에 배치했음에도 실제 설명의 중심 틀을 중국에 맞추려는 과정에서 나온 문제라 볼 수 있다. 이 역시 중국이라는 하나의 국가 단위와 동아시아라는 지역 단위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지 못하는 최근 중국 역사 인식의 난맥이라 하겠다.¹⁸

중심과 주변의 구분, 전파와 수용의 논리가 중국의 역사인식에서 강조되어 온 것은 오래전부터의 일이지만, 최근에는 이에 더하여 서구 중심의 세계사 서술을 대체하는 중국식 세계사를 수립하기 위해 용어와 개념의 재정립을 시도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된다.¹⁹ 중화문명을 내세운 중화주의적 인식을 동심원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서술이 소위 ‘세계사’를 표제로 달고 있는 교재에서도 보인다는 것은 더 큰 문제로 지적할 수밖에 없다. 아래 인용문을 통해 그 구체적인 양상을 확인해보고자 한다.

18 이정일, 2021, 「탈중심의 역사와 『중외역사강요(하)』의 중국중심주의」, 『중국 시진핑시대 교과서 국정화와 역사담론』, 동북아역사재단, 344~345쪽.

19 전인갑, 2018, 「비대칭적 국제질서: 천하질서, 그 변용과 현대적 재구성(Ⅰ)-‘세력균형의 질서’에서 ‘제국의 질서’로-」, 『서강인문논총』 51; 이정일, 2021, 위의 글, 340쪽.

제9장 동아시아 사회의 발전 (6~13세기)

서론

단명한 진나라와 4세기 동안 통치했던 한나라는 수천 년 동안 지속된 중화문명의 기본적 요소를 확립하여 인류 역사상 가장 창조적이고 영향력 있는 문명 중 하나가 되었다. 그러나 동한 왕조가 명목상으로만 존재했던 2세기 말부터 6세기 수 문제가 중국을 통일하기까지 4세기 동안 중국 사회는 정치적으로 혼란스럽고 분열되어 있었으며, 첨예하고 복잡한 민족적 긴장, 수많은 유목민 침략, 여러 지배 체제 간의 전쟁으로 인해 진나라와 한나라 시대에 구축된 많은 선진적인 제도가 파괴되었다. 이러한 상황에 직면하여 중화 문명은 일련의 조정과 변혁을 거쳤다. 주변의 많은 유목 민족과 반유목 민족이 중국 문명의 핵심을 향해 지속적으로 내부로 이동하면서 객관적으로 민족의 통합을 촉진하고 통일된 다민족 국가를 기본 골격으로 하는 응집력 있는 문명이 점차 구체화되었다. 동시에 각 지역과 민족은 국가 시스템, 정치 조직, 생산 기술, 문학과 예술, 종교적 신념 측면에서 다양한 지역과 민족의 선구적인 성격도 발전의 여지가 더 많아져 중국 문명의 발전에 깊은 영향을 미치고 더 큰 통일의 여건을 조성하였다. 수나라가 통일된 후 중국 문명의 전체적인 지역적 일관성이 강화되었다. 당송시대의 중화문명은 사회발전, 국력강성, 민족융합, 문화발전으로 특징 지어졌으며, 중국은 동아시아 및 세계 문명사에서 크게 빛을 발하는 개방시대를 열었다. 또한 중국 내뿐만 아니라 주변 지역과 국가에서도 문화적 통합을 향한 강한 경향을 보였다.

중국 학계에서는 2010년대 이후 차츰 ‘동아시아’를 시야에 넣는 연구들이 등장하고 있는데,²⁰ 제9장의 제목을 ‘동아시아 사회의 발전’으로 잡은 것도 이러

20 존 페어뱅크(John King Fairbank)가 1968년 출간한 *Chinese world order: traditional china's foreign relations*는 2010년 중국에서 『中國的世界秩序：中國傳統的對外關係』라는 제목으로 번역·출간되었다. 또한 니시지마 사다오(西嶋定生)의 ‘동아시아 세계론’과 관련되는 논의가 다양하게 인용되고 있다는 사실 등도 참고된다. 홍승현, 2012, 「중국학계의 동아시아사 인식과 국제관계사 서술」, 『중국

한 흐름을 반영한다. 다만, 이때의 ‘동아시아 세계’는 일본 학계를 중심으로 논의되던 ‘동아시아 세계론’의 그것과는 많은 차이를 보인다. ‘동아시아 세계론’이 중국을 중심에 놓고 일본의 역사를 상대화하기 위한 것이라 한다면, 중국의 경우 ‘동아시아’라는 범주와 개념을 일부 받아들이면서도 동아시아 세계가 성립되고 발전하는 과정을 오직 한화(漢化)의 입장으로만 설명하는 중국 중심사관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²¹

실제로 위 인용문으로 제시한 제9장의 서론에서는 처음부터 중국 중심의 서술이 등장한다. 진·한에 의해 구축된 중화문명의 요소들이 이후 중국이 분열되는 4세기 동안 무너졌지만, 6세기 수나라의 통일에 의해 다시 회복되었다는 내용이 이야기의 큰 틀로 제시된다. 중국 통일 이전 시기는 ‘정치적 분열과 할거, 침략하고 복잡한 민족 갈등’의 시기로 설정되어 있는 반면, 이 장의 시기적 범주에 해당하는 당송시기는 ‘동아시아와 세계문명사에서 중국이 크게 빛을 발하는 개방시대’로 그려진다. 특히 ‘민족융합’, ‘문화발달’이라는 측면이 그 증거로 나열되었다. 또한 중국의 선진문명은 한반도의 통일과 일본 열도의 정치개혁을 이루는 역사발전의 요인으로 설명된다. ‘동아시아’라는 지역적 범위는 다른 아닌 ‘중국을 핵심으로 하는 문명 지역’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제9장의 제2절과 제3절에서는 한국과 일본의 역사를 개략적으로 서술한다. 먼저 ‘제2절 조선반도(한반도)’에서 구석기시대로부터 기술을 시작하여 삼국과 통일신라, 고려왕조의 역사를 다룬다.

의 동북공정과 한국고대사』, 주류성, 389쪽.

- 21 존 페어뱅크와 니시지마 사다오의 연구에 대해서 한국 및 일본 학계에서는 이미 중국 중심의 동심원적 세계를 구상한다는 비판 혹은 반대로 중국을 제외한 개별 국가의 독자성을 지나치게 강조한 점 등에 대한 비판이 있었다. 피터 윤, 2002, 「서구 학계 조공제도 이론의 중국 중심적 문화론 비판」, 『아세아연구』 45권 3호; 박대재, 2007, 「고대 ‘동아시아 세계론’과 고구려사」, 『고대 동아시아 세계론과 고구려의 정체성』, 동북아역사재단.

□ 朱寶 主編, 2018, 『세계고대사』

제8장 문명의 충돌과 융합(3~6세기)

제2절 고대조선 / 1) 고대조선 / (1) 초기 국가

먼 옛날 구석기 시대 이래로 한반도와 대륙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반도에 나타난 신석기 시대의 거대한 바위 문화는 기본적으로 중국 랴오둥, 산둥 및 기타 지역의 유사한 문화와 일치한다. 기원전 5세기 조선에 청동기가 등장했고, 이윽고 철기가 등장하면서 금석병용시대가 시작됐다. 원시 사회가 점차 해체되면서 반도에는 몇 개의 비교적 큰 부족 연합이 생겨났다. 동쪽과 북동쪽에는 옥저와 예가, 남쪽에는 마한·변한·진한이, 북쪽에는 대륙문명의 영향을 깊이 받은 최초의 국가로서 고조선이 출현하였다. ...

기원 전후에 삼한부락연합을 기반으로 한반도 남부에는 각각 백제와 신라의 노예제 국가정권이 수립되었다. 이와 함께 중국 동북지방에 살던 소수민족인 고구려부락연합도 요동에서 압록강 양안으로 옮겨 지금의 지린지안을 도읍으로 삼아 고구려 정권을 수립하였다. ...

위 인용문에서는 구석기 및 신석기 시대부터 한반도와 대륙의 밀접한 관계를 설정한다. 한반도의 선사 시대 문화가 중국 랴오둥, 산둥 지역과 일치한다는 것이다. 이어서 한반도의 고대국가 건설에 대해 서술하고 있는데, “북쪽에는 대륙문명의 영향을 깊이 받은 국가의 모태인 고조선이 최초로 출현했다”거나 “중국 동북지방에 살던 소수민족인 고구려 부락 연합도 요동에서 압록강 양안으로 옮겨 지금의 지린 지안을 도읍으로 삼아 고구려 정권을 수립하였다”고 언급한다. 고조선·고구려의 건국에서부터 중국의 영향력을 강조하거나, 혹은 중국의 ‘소수민족’이 세운 지방정권으로서의 정체성을 의도하는 것이다.

이를 기준에 많이 활용되어오던 대학 교재들과 비교해보면 『세계고대사』에서 새롭게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쑨상민의 『세계중고사』에서는 한반도에서 최초의 노예제국가로 고조선이 건국되었음을 언급한 후, 8조 범금, 연인 위만에 의한 위만조선의 건국, 한 무제의 위만조선 정

별, 한사군 설치 등을 다루었다. 이후 한 군현 관련 사안들을 보다 상세하게 전하면서 “한사군의 설치에 조선의 정치·경제와 문화 발전에 대해 거대한 영향을 주었고, 낙랑군은 위씨 정권 통치의 중심지대에 있었다”고 서술하였다. 화동사범대학교 출판사의 『세계통사』에서는 고조선의 건국에 대해 “조선 북부에는 비교적 일찍 국가가 형성되었는데 고조선으로 칭하는 지역은 크지 않고 구체적인 정황은 상세하지 않다”고 했으며, 북경대학교 출판부에서 출간한 『간명세계사』에서는 “연인 위만이 기씨 조선을 뒤집고 스스로 왕이 되어 평양 일대를 통치하였다. 한 무제가 한반도 북부에 한사군을 설치하고, 4세기 초 낙랑군이 고구려·백제에 의해 점령당하였다”며, “낙랑 등 4군이 설치된 후, 한반도와 중국 내지의 광범위한 무역왕래와 문화교류가 진행되어, 한반도는 사회·경제적 발전과 국가형성의 과정이 가속화되었다”고 서술하였다.

기존 대학 교재들과 비교할 때 『세계고대사』의 서술은 고대국가의 건국 과정에서 중국의 영향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 확인된다. 과거 교재에서는 “구체적인 정황이 상세하지 않다”는 식으로 설명하던 것을 『세계고대사』에서는 기존 교재에 비해 오히려 서술 분량이 줄어들었음에도 ‘대륙문화의 영향’을 받거나 ‘소수민족’으로서 정권을 수립한 것으로 구체화한 것이다. 반면 한사군 관련 서술은 대폭 줄어들어 설치 사실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언급하고 있을 뿐 그 성격이나 의의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 변화가 보인다.

□ 朱寶 主編, 2018, 『세계고대사』

제8장 문명의 충돌과 융합(3~6세기)

제2절 고대조선 / 1) 고대조선 / (2) 삼국 시대

삼국 중 신라는 빠르게 발전하여 국세가 강해져 반도 남단 왜인(일본)들이 오랫동안 점령하고 있던 임나 지역을 탈환하였고, 고구려·백제와의 전쟁에서도 많이 승리하였다. 고구려와 백제는 점차 동맹을 맺고 일본과 연합하여 신라를 견제하려 하였다. 신라는 강적에 맞서기 위해 중국 대륙의 정권과 동맹을 강화하였다. 6세기 말부터 중국의 수·당 왕조는 여러 차례 고구려를 침략했지만, 군사와 백성을

희생시키고 패전을 거듭하였다. 당 고종(高宗) 때 중국 정권은 정세를 파악하고 신라와 동맹을 맺어 백제를 먼저 멸망시킨 다음 고구려를 공격하는 전략을 취하였다. 660년 당군은 신라군과 연합하여 백제를 일거에 멸망시켰다. 667년 연합군은 고구려의 내란을 틈타 남북에서 공격하여 이듬해 고구려를 멸망시켰다. 당 왕조는 한반도에 안동도호부를 설치하여 직접적인 봉건통치를 하려고 하였으나 조선 군민[고구려 군민]의 단호한 저항을 받았다. 676년 당나라는 어쩔 수 없이 안동도호부를 옮겼다. 신라는 한반도 전체를 통일하였다.

『세계고대사』의 삼국 시대 관련 서술은 위에서 인용한 단 한 문단에 그친다. 이에 포함된 내용 요소는 신라의 임나지역 탈환과 수·당의 고구려 침략, 나당 연합과 백제·고구려의 멸망, 신라의 한반도 통일이 전부다. 먼저 신라의 성장과 관련하여 ‘삼국 중 신라는 빠르게 발전하여 국세가 강해져 반도 남단이 왜인(일본)이 오랫동안 점령하고 있던 임나 지역을 탈환’하였다고 기술한다. 임나일본부설을 긍정하면서 신라의 성장과 연계하여 기술하고 있는 것이다.²²

다음으로 고구려와 백제의 성장 등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은 채 삼국의 각축과 신라의 삼국 통일에 대한 서술로 이어진다. 기존 교재들에 비해 서술 분량이 매우 적은 것은 한국사 관련 내용들을 점차 축소해가는 기조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²³ 기존 교재에 보이던, 수양제가 세 차례에 걸쳐 고구려를 공격하는 대규모의 전쟁을 일으킨 것이 ‘고구려가 여전히 낙랑, 현도군 지역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거나, 당나라가 삼국의 분쟁에 개입하게 된 계기가 ‘고구려

22 권은주, 2021, 「중국 대학 역사교재의 고조선(한4군)과 임나일본부에 대한 서술 변화-식민사학의 영향과 중화주의가 결합한 한국고대사상(像)」, 『동북아역사논총』 74, 동북아역사재단.

23 역사에서 ‘삭제’는 곧 역사의 ‘망각’을 의미한다. 남만주 지역에서 활동한 우리 고대 국가의 역사를 지역 박물관이나 교재에서 언급하지 않는다는 것은 ‘조선족’의 고대사가 사라지는 것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박선미, 2022, 「역사의 망각은 역사 갈등보다 무섭다!」, 『동북아역사재단뉴스』 Vol.193.

가 조공입조를 가로막는다’는 신라·백제의 호소 때문이라는 설명²⁴ 등 중국 중심으로 당시 국제관계를 해석하던 요소들까지도 모두 제외되었다.²⁵ 앞서 초기 국가 관련 설명이 중국 중심의 역사 해석 강화 경향을 보이고 있다면, 삼국시대 관련 설명의 경우 내용을 제외하는 방식으로 변화한 것이다. 이로 인해 삼국의 역사를 설명하면서 당군과 신라군에 의한 동맹의 결과 백제와 고구려가 차례로 멸망하게 되었다는 내용만 남게 되었다.

□ 朱寰 主編, 2018, 『세계고대사』

제8장 문명의 충돌과 융합(3~6세기)

제2절 고대조선 / 2) 통일 신라 / (1) 사회 제도와 경제

… 6세기경 우경 및 철제 농기구의 보급으로 사회적 생산성이 크게 향상되었고 개인 소농경제가 나날이 발전하여 아직 발전이 불충분한 노예제도가 해체되고 봉건 사회로 이행되기 시작하였다. 통일 이후 신라 왕조는 중국 대륙의 선진적인 정치·문화·경제 체제를 대대적으로 도입·흡수하여 조선에 봉건제도를 전면적으로 확립하였다. … 이후 신라 통치자들은 중국 수·당 왕조의 중앙집권적 정치모델을 모

24 張國剛·楊樹森 主編, 2005, 『中國歷史：隋唐遼宋金卷』, 高等教育出版社 141쪽.

25 한편, 삼국 통일 과정에 대해서는 서구학계 서술과의 비교를 통해 차이점을 보다 면밀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케임브리지 중국사』에서는 ‘[당과 고구려 사이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이러한 모순은 끊임없이 커져 마침내 수당과 고구려의 전쟁으로 표출되었다. 수당의 고구려 정벌은 중국 중앙정부가 독립을 시도하는 지방 정권에 대한 토벌로써 중국이 국가의 통일을 유지하고 영토를 정비하려는 투쟁이지 나라와 나라 사이의 침략전쟁이 아니다(제4장 동아시아 기타 국가의 형성, 제5절 각국과 중국의 관계)’라고 하였다. 『하버드 중국사(당-열린 세계제국)』에서도 ‘670년대에 새롭게 중국화된 신라는 한반도의 대부분을 통일하는 데 성공하였고, 당나라는 티베트로부터의 증가하는 위협에 집중하여 더 이상 한반도의 정복 사업을 지속할 수 없게 되었다. 한국은 여전히 명목상 중국의 국가체제를 모방한 당나라의 종속국가로 남아 있게 되었다(제6장 외부세계, 제2절 동아시아의 등장)’라고 서술하고 있다. 최근 서구 학계의 한국사 서술에 대한 분석은 동북아역사재단 한국고중세사연구소 편, 2021, 『구미학계의 중국사 인식과 한국사 서술 연구』, 동북아역사재단 참고.

방하여 8세기 중엽에 상당한 관료적 통치체제를 구축하였다.

통일신라에 대해서는 앞서 삼국시대에 대한 설명과 달리 사회 제도와 통치 체제 등의 내용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 다만 위 인용한 부분을 중심으로 실제 서술을 살펴보면, 사회 제도 등의 설명을 포함한 이유가 중국 대륙의 선진적인 체제를 도입, 흡수, 모방하였기 때문이라는 점을 부각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을까 추측해볼 수 있다. 삼국 사이의 관계 등에 대해서는 관심을 두지 않았던 것에 반해, 중국 왕조와의 관계에서 문화 교류와 전파를 설명할 수 있는 시기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기술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같은 시기 존재했던 발해에 대한 설명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발해의 경우 당나라의 여러 요소를 국가 운영에 활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왜 서술에서 빠지게 되었는지 의문이다. 아마도 한국사 관련 내용들을 점차 축소해가는 기조를 반영한 것일 가능성이 높지만, 집필을 담당한 왕진신(王晋新)이 한국사 전공자가 아닌 것에 기인한 결과로 볼 여지도 있다.²⁶

□ 朱寰 主編, 2018, 『세계고대사』

제8장 문명의 충돌과 융합(3~6세기)

제3절 일본 / 1) 고대 일본 / (1) 야마토 국

… 통일과 안정은 야마토 국이 적극적으로 외교 활동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되었다.

4세기 중반 이후 한반도 고구려·신라·백제의 분쟁을 틈타 야마토국은 한반도에 발을 들여 백제와 동맹을 맺고 신라의 가야를 임나로 삼았다. … 5세기 중반 이후 고구려는 대대적으로 남하하여 백제의 수도 서울을 점령하고 백제군을 남하하게 하여 일본의 임나 지배를 위협하였다. 512년 백제의 요구로 야마토 조정은 임나

26 기존 중국 중·고등학교 교과서 및 대학 역사교재의 발해사 서술에 대한 분석은 김은국, 2006, 앞의 글; 임상선, 2006, 앞의 글; 조이옥, 2008, 앞의 글; 구난희, 2006, 앞의 글 등 참조.

서쪽 4군을 백제에 할양하였다. 동시에 신라도 백제를 압박하였다. 줄곧 백제와 동맹을 맺어온 일본은 백제를 구하기 위해 527년에 백제를 돕기 위해 군대를 보냈고, 그 반대급부로 신라로부터 뇌물을 받은 쓰쿠시국(筑紫国)이 반란을 일으켜 이를 진압하는 데 2년이 걸렸다. 백제를 돕기 위한 군사 작전은 허사로 끝났고 결국 임나를 잃게 되었다. 562년 일본의 한반도 침략과 점령이 종식되었다.

다음으로 ‘제3절 일본’의 경우 ‘1항: 고대 일본’을 통해 선사시대, 야마토국(大和國家), 쇼토쿠 태자의 개혁(聖德太子改革), 다이카 개신(大化改新) 등을 설명하고 있으며, 이어서 ‘2항: 울령제국가’에서 7세기 말 이후 울령제도에 대한 설명, 반전제(班田制) 동요와 이 시기의 사회문화적 특징 등을 서술한다. 서술 분량은 한반도의 역사를 설명하면서 구석기부터 후삼국시기까지 약 2쪽을 할애한 것에 비해 일본 고대사에 대한 서술은 5쪽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내용 요소에서도 주요 정치 사건뿐 아니라 경제제도 및 사회문화적 특징에 대한 설명이 포함된다. 좀 더 많은 분량으로 여러 내용 요소가 포함될 수 있었던 것은 집필자인 저우송륜(周頌倫)이 비록 근대정치사 중심이지만 일본사를 전공하고 있는 연구자이기 때문이라고 추측된다.

일본 관련 서술에서 주목되는 또 하나의 요소는 앞서 언급한 ‘제2절 조선반도(한반도)’에서 언급하지 않았던 삼국시대의 국제관계 관련 내용이 오히려 많이 보인다는 것이다. 즉, 4세기 중반 야마토국이 한반도 지역에 들어왔고, 5세기 중반 고구려의 남하 이후 6세기 중반에 이르러 점차 한반도에서 세력을 잃어가는 과정, 소위 임나일본부설에 대한 서술 과정에서 부가적이고 주변적인 요소로 삼국의 동향이 설명되는 것이다. 중국 학계가 임나일본부를 긍정적으로 인식한 것은 20세기 초 청말 민국시기부터였는데, 그러한 인식이 여전히 견지되고 있음을 재차 확인할 수 있다.²⁷⁾

한편, 일본사의 주요 흐름을 설명하는 과정에서도 한국사를 설명했던 것과

27 권은주, 2021, 앞의 글.

마찬가지로 중국 중심의 역사 전개 방식이 주를 이룬다. 3세기 이후 기존 조문 문화에 비해 훨씬 우수한 야요이 문화가 출현하게 되었음을 언급하면서, 그 이유와 관련하여서는 ‘당시 중국은 이미 철기 시대에 접어들었고 농경 문명이 이미 잘 확립되어 있었기 때문에, 야요이 시대의 새로운 문화는 대륙 문화의 직접적인 작용 결과로 발생하고 발전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또한 대륙의 선진문화를 받아들이기 위해 조정에서 도래인과 도래문화의 수용에 적극적이었고, 도래인의 수가 급격히 증가했음을 말한다. 7세기 이후 ‘율령 제국가’에 대해서도 율령제도가 당의 영향 하에 도입된 사실 뿐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로 당의 문화를 대량으로 받아들이면서 일본문명에 큰 발전이 있었다고 설명한다.

이어서 ‘제4절 유학과 불교’에서는 이 지역 내에 이들 종교와 문화가 어떻게 전파되었는지를 재차 설명하고 있다. 유학의 경우, 1세기 초부터 『시경』과 『춘추』 등이 한반도로 전래되었다는 점과 함께 고구려와 백제에서의 유학 교육제도 확립, 6세기 이후 신라의 유학 열풍 등을 서술한다. 일본으로의 유학 전파와 관련하여서도 상류층 중심으로 기본적인 문화 규범으로 자리 잡는 과정을 기술하였다. 불교의 경우, 신라 승려 의상과 심상 등의 활동에 의해 중국의 불교 유파가 한반도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고, 일본으로도 건너가게 되었음을 언급한다. 특히 전반적인 서술의 기초에서 유학과 불교의 전파 결과 한반도와 일본의 사상·문화·정치·사회생활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고 깊은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부각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제9장의 소결에서는 앞서의 서술들을 요약하면서 6~13세기에 걸쳐 이전보다 강대하고 통일된 봉건 왕조가 중국에 들어섰고, 유학과 불교를 위시한 ‘중화문명의 눈부신 성과가 동아시아 이웃나라로 급속히 확산될 수 있었다는 점을 재차 강조한다. 아울러 ‘조선과 일본 역대 왕조는 문명 발전의 모범인 중화문명을 끊임없이 모방’했으며, 결과적으로 ‘중국을 핵심으로 하는 유사한 내부 구조적 특성을 가진 문명 지역이 점차 형성’되면서 한반도는 ‘당송 왕조의 축소판처럼 되다시피 했고, 조선 문화도 사상 첫 번영을 누렸다’고 결론 맺고

있다. 이러한 서술의 강화는 결국 중국학계가 질서정연한 동심원의 세계를 꿈꾸며 중심과 주변을 끊임없이 구분하는 자기중심적 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케 한다.

IV. 맺음말

이상에서 지난 2018년 마공정 교재 중 하나로 출간된 쑤환 주편 『세계고대사』의 구성과 내용을 중심으로 중국 대학 역사교재에 보이는 동아시아 서술의 특징과 변화를 살펴보았다. 마공정 교재의 출간은 시진핑 집권 이후 새로운 시대의 중국 특색을 보여줌으로써 역사허무주의에서 벗어나 자신감을 심어주고 애국주의를 강화하려는 의도를 지닌 것이었다. 이와 함께 최근 중국 학계에서는 전 근대 중국과 주변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비대칭성과 위계성을 더욱 강조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고 한다.²⁸ 그러한 양상이 『세계고대사』의 서술 상에도 반영되고 있음이 확인되는데, 특히 개별 국가들의 특성을 세심하게 살피려는 노력 대신 그것을 중국사의 틀 안에 일방적으로 흡수해버리는 방식을 택하고 있는 점에서 그렇다.²⁹ 아울러 기존 대학 교재들과 비교해보았을 때 문명의 교류와 전파, 충돌과 융합에 대한 서술이 강조되고 있다는 것도 변화된 점으로 지적할 수 있다.

시진핑 집권 이후 추진되고 있는 ‘일대일로’ 구상은 다분히 중국 중심적이다. 그것은 전근대사회 중국이 황제를 중심에 둔 질서정연한 동심원의 세계를 꿈꾸던 모습과 닮아 있다. 최근 중국 학계에서 ‘동아시아’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빈도가 늘고 있음에도 여전히 동아시아 세계를 함께 구성했던 주변 국가 및 민

28 손성욱, 2021, 앞의 글.

29 이정일, 2021, 앞의 글, 354쪽. 다만 중국 학계의 방식은 일본 학계가 자국사의 특수성을 통해서 동아시아 이웃 국가들의 역사와 자국의 역사를 구별했던 방식과 정 반대라고 할 수 있다.

족의 자발성이나 이들의 선택에는 주목하지 못하는 점에서도 강고한 중국 중심의 역사 인식을 엿볼 수 있다.³⁰ 그리고 이러한 중국 중심적 서술이 앞으로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측된다는 점에서 고민은 더욱 깊어질 수밖에 없다. 마공정 교재 목록에 포함되어 있는 『중국고대사』, 『중국민족사』 등에 대한 출간이 완료된다면 이에 대한 비교 분석을 통해 그 차이를 규명할 때 더 명확한 변화를 감지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이를 추후 과제로 남긴다.

30 이준성, 2017, 「동북공정 종료 후 중국학계의 고구려 ‘대외관계사’ 연구 동향」, 『선사와 고대』 53, 한국고대학회.

참고문헌

단행본

- 윤세병, 2018, 『중국 역사교과서의 서사구조와 이데올로기』, 경인문화사.
- 孫祥民 主編, 2006, 『世界中古史』, 北京師範大學出版社.
- 楊君·張乃和 主編, 2006, 『東亞史：從史前至20世紀末』, 長春出版社.
- 李卿 編輯, 2018, 『普通高中歷史課程標準(2017)』, 人民教育出版社.
- 張國剛, 楊樹森 主編, 2005, 『中國歷史：隋唐遼宋金卷』, 高等教育出版社.
- 朱寶 主編, 1986, 『世界上古中古史』, 高等教育出版社.
- _____, 2018, 『世界古代史』(第2版), 高等教育出版社.
- 翦伯贊 主編, 2006, 『中國史綱要』增訂本, 北京大学出版社.
- 고광의, 2006, 「중국 역사교과서의 고대 문화사 서술 검토」, 『중국 역사교과서의 한국 고대사 서술문제』(기획연구 7), 동북아역사재단.
- 구난희, 2006, 「중국 역사교육에서의 ‘민족문제’와 고구려·발해 서술 변화에 대한 고찰」, 『중국의 역사교육과 교과서』(연구총서 18), 고구려연구재단.
- 권은주, 2020, 「『중외역사강요』의 한국고대사·동아시아사 서술 내용과 역사인식 분석」, 『동북아역사논총』 70.
- _____, 2021, 「중국 대학 역사교재의 고조선(한4군)과 임나일본부에 대한 서술 변화- 식민사학의 영향과 중화주의가 결합한 한국고대사상(像)」, 『동북아역사재단』 74.
- 금경숙, 2006, 「중국 중·고 역사교과서에 보이는 한국고대사 관련 내용 검토」, 『중국 역사교과서의 한국고대사 서술문제』(기획연구 7), 동북아역사재단.
- 김은국, 2006, 「중국 대학교재에 보이는 발해사 서술 내용 검토」, 『중국 역사교과서의 한국고대사 서술 문제』(기획연구 7), 동북아역사재단.
- 김중학, 2021, 「중국의 국사교육과 ‘중화민족’의 의미-고종 통편교재 중외역사강요의 사례」, 『주요국제문제분석』 26,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 김지훈, 2007, 「한·중 역사갈등 줄이기-동북공정과 중국의 역사교과서-」, 『역사문제 연구』 17.

- _____, 2021, 「국가의지와 역사교과서의 정치화」, 『중국 시진핑시대 교과서 국정화와 역사담론』, 동북아역사재단.
- 김진순, 2006, 「중국 중·고등학교 역사교과서의 중국 문화관련 서술 검토」, 『중국 역사교과서의 한국고대사 서술문제』(기획연구 7), 동북아역사재단.
- 김진호·배은한, 2018, 「시진핑 시대의 중국 전통 정치사상과 정치문화 연구」, 『중국학논총』 57.
- 김태만, 2013, 「시진핑의 ‘중국몽(中國夢)’과 문화강대국의 길」, 『동북아문화연구』 37, 동북아시아문화학회.
- _____, 2015, 「시진핑(習近平)의 문화정책과 ‘일대일로(一帶一路)’의 문화전략」, 『동북아문화연구』 44, 동북아시아문화학회.
- 김현숙, 2006, 「중국 대학교재에 서술된 삼국 관련 내용 검토」, 『중국 역사교과서의 한국고대사 서술 문제』(기획연구 7), 동북아역사재단.
- 김현주, 2017, 「문화소프트파워의 강화를 통한 신중화주의 질서의 세계화」, 『동북아역사논총』 57, 동북아역사재단.
- 박대재, 2007, 「고대 ‘동아시아 세계론’과 고구려사」, 『고대 동아시아 세계론과 고구려의 정체성』, 동북아역사재단.
- 박선미, 2022, 「역사의 망각은 역사 갈등보다 무섭다!」, 『동북아역사재단뉴스』 Vol. 193.
- 손성욱, 2021, 「『중외역사강요』의 전근대 대외관계 인식-두 차례 등장한 ‘중변관계’를 중심으로-」, 『사림』 78, 수선사학회.
- 안병우, 2006, 「중국 역사교과서의 한국 전근대사 서술 추이」, 『白山學報』 75.
- 양승훈·박현숙, 2019, 「초급중학교 『중국역사』 교과서(2016년 판)의 한국고대사 서술내용과 특징」, 『선사와 고대』 59.
- 오병수, 2014, 「중국 근대 역사교과서의 자국사 구축과정과 ‘중화민족」, 『역사교육』 132.
- _____, 2016, 「국내학계의 중국 역사교과서 연구 경향과 과제」, 『동북아역사논총』 53.
- _____, 2020, 「시진핑 시대 중국의 역사정책과 자국사의 재구성-『歷史 中外歷史綱要』과목의 개설 배경과 이데올로기-」, 『역사교육』 156.
- 우성민, 2018, 「신간 중국 중등 역사 교과서 개편 동향과 한국사 관련 서술 검토」, 『중국학연구』 86.
- _____, 2020, 「『중외역사강요』 속의 중국식 글로벌 가치관 ‘인류운명공동체’의 서술과

- 시사점」, 『동북아역사논총』 70.
- 우성민·허은진, 2021, 「2020년판 중국 역사교과서 속의 문화유산 서술 고찰」, 『문화와 융합』 43-1.
- 유용태, 2005, 「중국 대학 역사교재의 한국사 인식과 중화사관 - 고·중세를 중심으로」, 『중국의 동북공정과 중화주의』(연구총서 12), 고구려역사재단.
- 윤세병, 2019, 「중국의 역사 교과서 논쟁과 국정화」, 『역사교육연구』 31.
- 윤희탁, 2006, 「중국 중·고교 역사교과서에 반영된 ‘中華意識」, 『중국사연구』 45.
- 이유표, 2020, 「중국 고등학교 국정 교과서 『중외역사강요』의 고대문명사 서술 특징」, 『동북아역사논총』 70.
- 이정빈, 2021, 「중국 개정 중등 역사교과서(2016~2018)의 한국고대사상」, 『중국 시진핑시대 교과서 국정화와 역사담론』, 동북아역사재단.
- 이정일, 2021, 「탈중심의 역사와 『중외역사강요(하)』의 중국중심주의」, 『중국 시진핑시대 교과서 국정화와 역사담론』, 동북아역사재단.
- 이준성, 2017, 「동북공정 종료 후 중국학 계의 고구려 ‘대외관계사’ 연구 동향」, 『선사와 고대』 53, 한국고대학회.
- 임상선, 2006, 「중국 역사교과서의 발해사 내용 비판」, 『중국 역사교과서의 한국고대사 서술문제』(기획연구 7), 동북아역사재단.
- 임상훈, 2022, 「中國 國定 歷史教科書 『中外歷史綱要』의 導入과 그 性格」, 『역사문화연구』 82, 한국외대 역사문화연구소.
- 장석호, 2006, 「중국 역사교과서의 부여 서술 분석」, 『중국 역사교과서의 한국고대사 서술문제』(기획연구 7), 동북아역사재단.
- 장윤미, 2020, 「‘신시대’ 중국의 문화담론과 문화전략 분석」, 『중소연구』 44, 한양대 아태지역연구센터.
- 전인갑, 2018, 「비대칭적 국제질서: 천하질서, 그 변용과 현대적 재구성(I)-‘세력균형의 질서’에서 ‘제국의 질서’로-」, 『서강인문논총』 51.
- 정동준, 2019, 「중국 역사 교과서의 고대사 서술 분석-2016년판 중학교 국정교과서의 특징과 문제점을 중심으로-」, 『중국고중세사연구』 52.
- 정보은, 2019, 「시진핑(習近平) 시대, 중국 문화정책과 그 의미에 대한 고찰」, 『한중사회과학연구』 51, 한중사회과학학회.
- 조이욱, 2008, 「발해사」, 『중국대학 역사교재 속의 한국·한국사』(기획연구 17), 동북아

역사재단.

채미하, 2008, 「고대사」, 『중국대학 역사교재 속의 한국·한국사』(기획연구 17), 동북아
역사재단.

피터 윤, 2002, 「서구 학계 조공제도 이론의 중국 중심적 문화론 비판」, 『아세아연구』
45권 3호.

홍승현, 2012, 「중국학계의 동아시아사 인식과 국제관계사 서술」, 『중국의 동북공정과
한국고대사』, 주류성.

황유진, 2017, 「중국 중등 역사 교과서의 한국사 서술 양상과 문제점: 통일적 다민족 국
가론을 중심으로」,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중국 대학교재의 동아시아 고대사 서술과 인식

— ‘문화교류 및 전파’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

이준성

이 글은 지난 2018년 마공정 교재 중 하나로 출간된 주환 주편 『세계고대사』의 구성과 내용을 중심으로 중국 대학 역사교재에 보이는 동아시아 서술의 특징과 변화를 살펴보았다. 최근 중국 학계에서는 전근대 중국과 주변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비대칭성과 위계성을 더욱 강조하고 있는데, 『세계고대사』에서도 이러한 양상을 반영하여 개별 국가들의 특성을 세심하게 살피려는 노력 대신 그것을 중국사의 틀 안에 일방적으로 흡수해버리는 방식을 택하고 있었다. 아울러 기존에 많이 사용되던 대학 역사교재들과 비교해 보았을 때 문명의 교류와 전파, 충돌과 융합에 대한 서술이 강조되는 변화도 감지되었다.

시진핑 집권 이후 추진되고 있는 ‘일대일로’ 구상은 전근대사회 중국이 천자를 중심으로 하는 질서정연한 동심원의 세계를 꿈꾸던 모습과 닮아 있다. 최근 중국 학계에서 ‘동아시아’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빈도가 늘고 있음에도 여전히 동아시아 세계를 함께 만들었던 주변 민족의 자발성이나 선택에는 주목하지 못하고 있는 점에서도 강고한 중국 중심의 역사 인식을 엿볼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중국 중심적 서술이 앞으로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측된다는 점에서 고민은

더욱 깊어질 수밖에 없다. 추후 마공정 교재 목록에 포함되어 있는 『중국고대사』, 『중국민족사』 등에 대한 출간이 완료된다면 이에 대한 비교 분석을 통해 그 차이를 규명할 때 더 명확한 변화를 감지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세계고대사, 동아시아, 문화교류, 일대일로, 중국 중심 서술

ABSTRACT

Narratives and Perceptions of East Asian Ancient History in Chinese University Texts

Lee Junsung

This paper studies the organization and content of *World Ancient History*(『世界古代史』) published by Zhu Huan in 2018. It identifies the characteristics and changes of East Asian narratives in Chinese university history textbooks. In recent years, Chinese academics have increasingly emphasized the asymmetry and hierarchy between China and its neighbors in premodern history. This is also true for *World Ancient History*. In addition, the narrative of the exchange and transmission of civilizations has been emphasized. And the fact that this China-centric narrative is only expected to intensify in the future only deepens the problem. If comparisons and analyses of upcoming publications such as *Chinese Ancient History*(『中國古代史』) and *Chinese Ethnic History*(『中國民族史』) are made, it is expected that we will be able to detect clearer changes.

Keywords: University textbook, World Ancient History, East Asia, China-centric narrative

중국의 한국전쟁 인식, 서술, 활용

한상준 | 아주대학교 사학과 부교수

- I. 머리말
- II. 중국의 한국전쟁 인식: 개전 동의와 출병 결정
- III. 중국의 '항미원조전쟁사' 서술
- IV. 중국의 전쟁 기억 소환과 활용
- V. 맺음말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I. 머리말

역사학은 해석의 학문이다. 사건을 바라보는 입장과 관점에 따라 역사의 해석은 달라지며, 그런 이유로 동일한 사건에 대한 서로 다른 복수의 해석이 역사학에 서는 공존한다. 그렇기 때문에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주체에 의해 발생한 ‘동일한’ 사건임에도 그 해석에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다.¹

한국전쟁도 복수의 해석과 기억이 존재한다. 북한의 남침에 따른 내전으로 시작됐던 한국전쟁은 미군과 중국군이 참전하면서 동아시아 국제전으로 확대 되었다. 전쟁의 당사자는 남한과 북한이었지만 중국도 전쟁의 참전국이었고, 오늘날 동아시아 3국은 자신들의 입장과 상황에 맞춰 한국전쟁을 규정하고 정의한다. 우선 한국전쟁을 부르는 명칭을 통해 각국이 전쟁을 어떻게 인식, 서술, 활용하고 있는가를 확인할 수 있다.

한국은 국제사회의 통상적인 명칭을 받아들여 한국전쟁이란 용어를 사용하며, 전쟁이 발발한 날짜에 주목하여 6·25 전쟁이라고 부르기도 한다.² 반면에 북한은 전쟁을 ‘조국해방전쟁’이라고 하였다. 북한의 주장에 따르면, 한국전쟁은 한반도를 ‘식민 지배’하려는 ‘미국 제국주의’의 위협을 막아내고 ‘조국의 해방’을 지켜냈던 ‘해방전쟁’이다. 그 속에는 미국이 ‘조국’을 침략했고 북한이 미국에 맞서 ‘조국의 해방’을 지켰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한편, 중국은 한국전쟁을 ‘항미원조전쟁(抗美援朝戰爭)’이라고 부른다. 이는 ‘미국에 대항하여 북한을

* 투고: 2023년 4월 15일, 심사 완료: 2023년 5월 10일, 게재 확정: 2023년 5월 12일

1 1909년 10월 26일 안중근은 하얼빈역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하였다. 이 사건을 바라보는 입장과 시각에 따라 일각에서는 안중근을 의사(義士)로 기억하지만 다른 일각에서는 테러리스트라고 기억하며, 이에 따라 역사 해석도 차이가 난다.

2 ‘6·25 전쟁’이라는 역사 용어가 정착되기 전까지 ‘6·25 동란’, ‘6·25 사변’, ‘6·25 남침’ 등이 사용되었다.

원조하는 전쟁'이었다는 것으로서, 기본적으로 중국이 한국전쟁을 미국과 대결을 벌였던 전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³ 특히 북중이 한국전쟁에서 공동의 적과 어깨를 맞대고 함께 싸웠다는 사실과 기억은 북중 '혈맹관계'의 신화를 생산, 유통, 강화시키는 원천적인 배경이 되었다.⁴

그런데 중국이 한국전쟁을 활용하는 방식은 중국이 처한 작금의 국제정치적 상황과 관련된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 중국은 한국전쟁이라는 역사적 사실에 대한 인식과 서술을 현실 정치에 활용하고 있다. 또한 그것은 미중 간의 패권경쟁이라는 현실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중국의 부상과 그것을 억제하려는 미국의 견제로부터 촉발된 미중 간의 패권경쟁이 심화될수록 미중 간의 디커플링(decoupling), 곧 '탈동조화(脫同調化)' 현상도 가속화되고 있다. 미국의 공격이 거세질수록 중국의 반격도 거세지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중국은 가용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고 있으며 거기에는 역사도 포함된다.⁵

이 글에서는 중국의 한국전쟁에 대한 인식, 서술, 활용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I장에서는 한국전쟁 발발 당시 중공정권이 한국전쟁을 어떻게 인식했는가 하는 문제를 중국의 전쟁 발발 동의와 출범 결정에 대한 최근의 연구성과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II장에서는 중국정부의 의견을 대변하는 중국공산당사 연구실과 중국군사과학원 등의 연구 성과를 분석하여 중국의 한국전쟁 역사 서술의 내용과 논조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고, 이를 통해 중국의 한국전쟁에

3 김은정, 2023, 「승리의 기억: 남·북·중이 한국전쟁을 기억하는 방식」, 『외국문학연구』 제89호, 78쪽.

4 북중관계를 설명할 때 자주 사용되는 '혈맹관계'라는 표현에 관하여 한번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혈맹'이라는 용어는 과연 현실적인 국가관계를 설명해줄 수 있는 적절한 용어인가? 다시 말해 냉혹한 국제질서의 현실 속에서 정말로 '혈맹'이라는 것이 존재할 수 있을까? '혈맹'이라는 표현은 현실적인 국가관계를 설명하는 학술적 용어라기보다는 특정한 목적을 가진 정치적 선전 구호에 더 가깝다고 봐야 할 것이다.

5 김은정, 2023, 앞의 글, 85~86쪽; 金震共, 2021, 「중국의 한국전쟁 서사는 언제 정전(canon)이 되었는가?」, 『中國語文論譯叢刊』第50輯, 66~71쪽.

대한 공식적인 서술의 특징을 파악하고자 한다. Ⅲ장에서는 미중 패권경쟁의 상황 속에서 중국이 ‘항미원조전쟁’의 기억을 소환하여 그것을 현실 정치의 목적에 맞춰 활용하고 있는 실태를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분석하고자 한다.

Ⅱ. 중국의 한국전쟁 인식: 개전 동의와 출병 결정

오늘날 중국정부가 한국전쟁을 중국이 미국에 대항하여 승리를 거둔 위대한 전쟁이라고 규정하면서 국내외적으로 광범위한 정치적 선전에 활용하고 있지만, 한국전쟁 발발 당시 중공은 이 전쟁에 관하여 과연 어느 정도까지 정당성과 필요성을 부여하고 있었고, 또한 중국의 한국전쟁에 대한 출병 의지는 실제로 어땠을까? 이미 많은 연구를 통해 밝혀진 바와 같이 사실 마오쩌둥 등 중공지도부는 김일성이 전쟁을 선불리 일으킨 것에 대해 원망과 불만을 품고 있었고, 김일성의 전쟁 도발 계획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동의한 측면이 강했으며, 중국군이 출병하여 북한을 돕는 문제에 관해서는 주저하거나 소극적인 입장과 태도를 드러내는 등 중공 지도부 내부의 의견이 분열되었다.⁶

1949년 4월 김일성은 조선노동당 중앙위원 김일을 중국에 파견하였고, 김일은 베이징에서 마오쩌둥을 만났다. 마오쩌둥은 북한이 군사적 행동을 취하는 것, 즉 현 시점에서 남한을 공격하지 말고 더욱 유리한 정세를 기다려야 한다고 권고하였다. 그는 북한이 남한을 공격하는 과정에서 미국이 일본군과 무기를 한 반도로 신속히 이동시킬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였다. 그러면서 남쪽에 대한 북한의 공격은 지금보다 국제정세가 보다 유리해지는 1950년 초 이후 가능할 것

6 김동길, 2014, 「한국전쟁초기 중국군 조기파병을 둘러싼 스탈린, 모택동, 김일성의 동상이몽」, 『한국과 국제정치』 30권 2호; 김동길·박다정, 2015,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전후 및 한국전쟁 초기, 중국의 한국전쟁과 참전에 대한 태도 변화와 배경」, 『역사학보』 제225집; 김동길, 2016, 「중국의 한국전쟁 참전원인 연구: “국방선(國防線)”의 무혈확장」, 『韓國政治外交史論叢』 제37집 2호 등.

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⁷ 마오쩌둥과 김일이 회담을 했던 때는 국공내전이 아직 진행 중이던 시점이었기 때문에 중국은 북한의 군사행동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1950년 초가 군사행동을 실천하기에 적절한 시기라고 언급했던 마오쩌둥의 발언에서도 알 수 있듯이, 중국이 북한의 남한 공격에 원론적으로 반대했던 것은 아니었다. 다만 1949년 4월 시점에 중국은 북한의 군사행동을 지지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중국공산당이 국공내전에서 승리하면서 1949년 10월 1일 중화인민공화국이 수립되었다. 중국혁명의 성공은 무력통일에 대한 김일성의 열망을 더욱 고무시켰다. 하지만 중국혁명의 성공은 중국공산당의 성격이 ‘혁명정당’에서 ‘집권정당’으로 변모했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였다. 사실 중공정권이 당면한 최우선적인 국가적 과제는 장기간의 전란으로 파폐해진 인민경제를 회복하고 신중국의 경제건설을 신속하게 추진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신중국이 경제건설을 성공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는 주변 국제환경의 안정과 평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하였다. 그런 맥락에서 마오쩌둥은 여전히 김일성이 전쟁을 일으키려는 것에 대해 소극적인 입장을 견지하였다.⁸

신중국 수립 직후 한국전쟁 발발에 대한 중소의 입장은 일치하였다. 1949년 10월 26일 스탈린은 마오쩌둥에게 보낸 전보에서 북한이 남한을 공격해서는 안 된다는 마오쩌둥의 의견에 동의하였고,⁹ 12월 16일 스탈린과 마오쩌둥의 모스크바 회담에서도 중소는 현재 중국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는 평화를 보장하는 것이며 경제를 전쟁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고 국내 정세를 안정시키기 위하여 휴식

7 「科瓦廖夫關於毛澤東與金一會談的情況致斯大林電(1949年5月18日)」, 沈志華 主編, 2003, 『朝鮮戰爭: 俄國檔案館的解密文件』(上冊), 臺北: 中央研究院近代史研究所, 189~190쪽.

8 김동길, 2020, 「개혁개방 이전 냉전시기(1949~1980), 중국의 한반도 정책 연구」, 『歷史學報』第245輯, 285~286쪽.

9 「斯大林致毛澤東電: 關於朝鮮問題的答復(1949年10月26日)」, 沈志華 主編, 2015, 『俄羅斯解密檔案選編: 中蘇關係』第二卷(1949.3~1950.7), 上海: 東方出版中心, 139쪽.

기가 필요하다는 것에 합의하였다.¹⁰ 하지만 1950년 1월 이후 소련이 기존의 입장을 바꾸면서 한국전쟁에 대한 북한과 소련의 입장이 합치되기 시작하였다. 1950년 1월 30일, 스탈린은 북한주재 소련대사관에게 전보를 보내어, 소련은 김일성의 모스크바 방문을 환영하며 구체적인 정세를 살핀 후 북한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¹¹

1950년 4월 10일, 김일성과 박헌영이 모스크바에서 스탈린을 만났다. 회담에서 양측은 전쟁개시에 대한 중국의 동의를 얻는다는 것을 전제로 북한이 군사행동을 취하는 것에 대해 합의하였다.¹² 이후 김일성과 박헌영은 5월 13일 베이징을 방문하여 마오쩌둥을 만났다. 김일성은 모스크바 방문에서 스탈린과 나눴던 내용을 전달하고, 전쟁에 관한 중국의 원조는 필요 없다고 하면서 전쟁개시에 대한 중국의 동의와 지지를 구하였다. 중국은 중국주재 소련대사관을 통해 김일성의 전언을 확인하고 소련이 북한의 전쟁개시에 동의했다는 사실을 인지하였다.¹³ 하지만 스탈린과 김일성이 이미 한국전쟁 개전에 관하여 합의한 상황에서 마오쩌둥만 홀로 반대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결국 마오쩌둥도 김일성의 남한 공격에 동의할 수밖에 없었고, 그런 면에서 중국의 한국전쟁 개전 동의는 주도적인 측면보다는 강요받은 측면이 더 컸다고 하겠다. 말하자면 한국전쟁 시

10 「斯大林與毛澤東會談記錄：中蘇條約和臺灣問題(1949年12月16日)」, 沈志華主編, 2015, 『俄羅斯解密檔案選編：中蘇關係』第二卷(1949.3~1950.7), 上海：東方出版中心, 175쪽.

11 「史達林關於同意會晤金日成討論統一問題致什特科夫電(1950年1月30日)」, 沈志華主編, 2003, 『朝鮮戰爭：俄國檔案館的解密文件』(上冊), 臺北：中央研究院近代史研究所, 309쪽.

12 「史達林與金日成, 朴憲永的會談記錄(1950年4月10日)」, 沈志華主編, 2003, 『朝鮮戰爭：俄國檔案館的解密文件』(上冊), 臺北：中央研究院近代史研究所, 332~335쪽.

13 「羅申關於金日成與毛澤東會談情況的電報(1950年5月13日)」, 沈志華主編, 2003, 『朝鮮戰爭：俄國檔案館的解密文件』(上冊), 臺北：中央研究院近代史研究所, 383쪽; 「史達林關於同意朝鮮同志建議致毛澤東電(1950年5月14日)」, 沈志華主編, 2003, 『朝鮮戰爭：俄國檔案館的解密文件』(上冊), 臺北：中央研究院近代史研究所, 384쪽.

작에 관한 북한과 소련의 결정 과정에서 중국은 소외되어 있었다.

1950년 6월 25일 북한이 남한을 공격하면서 한국전쟁이 시작되었다. 개전 초기 중국의 한국전쟁에 대한 인식은 중국군 출병을 둘러싼 중공지도부의 논의 과정 속에서 표출되었고, 9월 15일 미군의 인천상륙작전을 전후로 상반되게 구분된다. 한국전쟁 개전 초기 북한군이 전황에서 우세를 점했을 때 중국은 출병을 적극적으로 고려했지만, 인천상륙작전 이후 전세가 역전되었을 때 중국은 출병을 주저하였다.

1950년 7월 7일 중국은 제1차 국방회의를 통해 동북변방군을 조직하여 8월 5일까지 북중국경 지역에 집결할 것을 결정하였다.¹⁴ 또한 차이청원(柴成文)을 평양에 특사로 파견하여 7월 10일 김일성과의 면담을 진행하면서 중국의 파병 준비 계획을 전달하였다.¹⁵ 7월 12일 마오쩌둥은 북한이 보낸 특사 이상조를 접견하고, 만약 북한이 원한다면 중국은 4개 군단 32만 명의 파병이 가능하며 대략 한 달 후인 8월 10일까지 중국군 파병에 대한 북한의 입장을 밝혀달라고 하였다.¹⁶

1950년 8월 4일 마오쩌둥은 정치국회의에서 미국의 승리는 중국에게 위협이 된다고 지적하면서 북한을 돕기 위한 중국군 출병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동북변방군 사령관 가오강(高崗)도 8월 13~14일 개최된 동북변방군 고급간부회의를 통해 지금 주도권을 쥐고 출병하여 중국 영토 밖에서 미군을 섬멸하는 것이 중국의 국익에 유리하다는 점을 역설하였다. 8월 19일 마오쩌둥은 훗날 중국 주재 소련대사를 역임하는 소련 철학자 유딘(Pavel F. Yudin)과의 대화에서,

14 「關於保衛東北邊防的批語(1950年7月7,8,13日)」, 中共中央文獻研究室, 中國人民解放軍軍事科學院編, 2010, 『建國以來毛澤東軍事文稿』(上卷), 北京: 軍事科學出版社, 中央文獻出版社, 158~159쪽.

15 김동길, 2016, 앞의 글, 10쪽.

16 「什特科夫致斯大林電:戰線狀況和中國參戰問題(1950.7.20.)」, 沈志華 主編, 2015, 『俄羅斯解密檔案選編: 中蘇關係』第二卷(1949.3-1950.7), 上海: 東方出版中心, 435~437쪽.

만약 중국의 파병이 실현된다면 미군을 제압할 수 있고 동시에 제3차 세계대전의 발발도 연기될 수 있는데, 이는 중국과 소련 모두에게 유리하다고 언급하였다.¹⁷

중국군의 조기 출병은 북한에게도 나쁠 것이 없었지만 결국 스탈린의 반대로 실현되지는 못하였다. 그렇다면 왜 중국은 한국전쟁 초기 중국군의 조기출병을 서둘러 추진했던 것일까? 이 점에 관해서는 기존 연구가 설명하고 있듯이, 조기출병은 타이완 문제를 포함한 중국의 국내문제 해결, 중국공산당의 통치기반 강화, 사회주의 진영 내에서 중국의 지위를 향상시킬 수 있는 ‘일석삼조(一石三鳥)’의 카드였다고 생각된다.¹⁸

이 중에서도 중국이 고려했던 핵심적인 사안은 중공정권의 안정과 신중국의 안전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사실 한국전쟁 발발 직후 중국 국내는 정치적·경제적·사상적 혼란에 빠져들었다. 한국전쟁이 발발하면서 중공정권이 붕괴되고 장제스(蔣介石) 정권이 돌아올 것이라고 하는 소위 ‘변천사상(變天思想)’이 전국에 확산되었고,¹⁹ 주요 대도시에서는 대량의 현금 인출 사태 발생, 시장에서 금과 은 가격의 폭등, 생필품 사재기 현상 등의 혼란이 발생하였다.²⁰ 결국 중국은 조기출병을 통해 북한이 전쟁에서 유리할 때 승리를 확정지음으로써 중국의 국익을 극대화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1950년 9월 15일 인천상륙작전의 성공으로 전세가 역전되면서 중

17 軍事科學院軍事歷史研究部, 2000, 『抗美援朝戰爭史』第1卷, 北京:軍事科學出版社, 90~91쪽; 김동길, 2016, 앞의 글, 10쪽.

18 김동길, 2014, 앞의 글, 63쪽.

19 新華社 編, 1950, 「天津市商人議論朝鮮戰事將有引起第三次大戰的可能(7月10日)」, 『內參參考』第175期, 24~25쪽; 新華社 編, 1950, 「無錫幹部, 工人, 學生對目前時局的反映(7月11日)」, 『內參參考』第176期, 31~32쪽.

20 新華社 編, 1950b, 「天津出現世界大戰謠言:津市民對朝鮮戰事有疑問(7月1日)」, 『內參參考』第171期, 3쪽; 新華社 編, 1950a, 「杜魯門聲明發表後上海市場情況(7月1日)」, 『內參參考』第171期, 1~2쪽; 新華社 編, 1950, 「上海工人, 學生, 教授對杜魯門聲明的反應(7月4日)」, 『內參參考』第172期, 1~2쪽.

국군 출병에 유리한 시기는 사라졌으며 중국의 참전 의지는 약화되었다. 북한과 소련으로부터 출병 요청을 받은 중국은 1950년 10월 1일 긴급회의를 소집하여 참전문제를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는 못했고, 10월 2일 속개된 회의에서는 출병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하였다. 10월 4일 개최된 정치국 확대회의에서도 다수가 출병에 반대하였다.

김일성은 북한 내무상 박일우를 중국에 파견하였다. 박일우는 김일성과 박헌영이 작성한 군사지원요청 서신을 휴대하고 10월 2일 심양에 도착한 뒤 다음 날 북경에 도착하였다. 10월 3일 마오쩌둥은 두 차례 박일우를 접견하고 총 10시간가량 대화를 나누었다. 이 자리에서 마오쩌둥은 중국이 전력을 다해 북한을 도울 수 있지만 출병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마오쩌둥이 제시한 중공군 출병 불가의 근거는, 중국의 참전은 소련을 전쟁에 끌어들이 수 있고 3차 세계대전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으며 중공군의 병력 수는 많지만 현대화된 장비와 무기가 부족하고 더욱이 공군과 해군을 보유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었다. 대신 마오쩌둥은 중국 동북지역을 북한이 후방 근거지로 활용하여 유격전을 전개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박일우는 귀국 후 10월 6일 조선노동당 정치국회의에 참석하여 중공중앙의 의견을 전달하였다. 결국 북한지도부는 회의를 통해 외부의 군사지원이 없는 상황을 감안하여 일부는 산악지대에서 유격전을 전개하고, 다른 일부는 중국 동북에서 새로운 병력을 조직하여 전쟁에 대비하기로 결정하였다.²¹

그럼에도 마오쩌둥은 여전히 참전의 입장을 견지하고 있었다. 10월 5일 오전, 마오쩌둥은 우선 평터화이를 설득하여 출병의 동의를 얻고 출병부대의 사령관직도 맡아줄 것을 요청하였다. 10월 5일 오후에 진행된 회의에서 평터화이는 출병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양상쿤(楊尙昆)의 회고에 따르면, 마오쩌둥은 북한, 소련, 중국을 마차를 끄는 3마리 말에 비유하면서 2마리의 말이, 즉 소련과

21 沈志華, 2013, 『毛澤東, 斯大林與朝鮮戰爭』, 廣州: 廣東人民出版社, 296~297쪽.

북한이 앞으로 달리고자 하는데 나머지 한 마리의 말, 곧 중국이 무슨 수로 달리지 않을 수 있겠는가라고 하며 출병의 부득이함을 강조하였다.²² 결국 정치국 회의는 중국의 참전을 의결하였고 평터화이를 중국군 사령관으로 결정하였다.

중국이 참전을 결정했지만 실질적인 전투를 진행할 때 소련의 무기제공과 공군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였다. 10월 8일 마오쩌둥은 스탈린에게 전보를 보내 중국의 참전 결정을 알리고 소련의 군사적 지원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저우언라이와 린바오가 소련으로 출발했다는 사실을 전달하였다. 하지만 10월 11일 진행된 스탈린과의 회담 결과는 중국을 당혹스럽게 만들었다. 스탈린이 저우언라이와 린바오가 제기했던 요구, 즉 중국 지상군과 소련공군의 동시 출동 주장을 거부했던 것이다. 10월 12일, 마오쩌둥은 회담 결과를 확인하고 이 결정에 일단 동의하였다.²³

한편, 10월 13일 마오쩌둥은 중앙정치국 긴급회의를 소집하여 출병 문제를 최종적으로 토론하였다. 마오쩌둥은 소련 공군 지원이 불가함에도 스탈린이 중국 영토에 대한 공중엄호와 중국에 대한 군사장비 제공을 약속했다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출병을 주장했고, 결국 중공은 소련의 공군지원이 없더라도 출병을 단행한다는 최종적인 방침을 결정하였다. 이로써 중국군은 1950년 10월 19일 압록강을 도하하여 한반도로 진입하였고, 10월 25일 첫 전투를 시작으로 ‘항미원조전쟁’의 막이 올랐다.²⁴

중국의 참전 결정은 소련의 공군지원이 없는 상황에서도 북한을 구하기 위해 미국과 전쟁을 벌인 결단처럼 보이지만, 중국은 참전 초기 미군과의 전면전을 피하려고 하였다. 중국은 1개 군을 평양의 동북쪽 덕천(德川) 산악지대에 주둔시키고, 나머지 3개 군과 3개 포병사단을 덕천 이북 지역에 주둔시켜 미군과 한국군의 북진을 중지시키려고 했으며, 만약 미군과 한국군이 진격을 멈춘다면

22 蘇維民, 2009, 「楊尙昆談抗美援朝戰爭」, 『百年潮』 4, 12쪽.

23 沈志華, 2013, 앞의 책, 298~299쪽; 김동길, 앞의 글, 28~32쪽.

24 沈志華, 2013, 위의 책, 310~315쪽.

중국군도 평양과 원산을 공격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수립하였다. 이렇게 한다면 ‘중국의 국가방위선을 압록강에서 덕천, 영원 또는 이남지역으로 확대’할 수 있고, 이는 중국에게 ‘매우 유리하다’고 판단하였다.²⁵ 즉, 중국은 미군과 한국군에 대한 선제공격 계획이나 의도가 없었고, 중국이 출병하면 미군과 한국군이 진격을 중지할 것이라고 예측했기 때문에 참전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해석해야 한다.²⁶

Ⅲ. 중국의 ‘항미원조전쟁사’ 서술

중국은 한국전쟁을 ‘미국에 대항하여 북한을 원조하는 전쟁’이었다는 의미에서 ‘항미원조전쟁’이라고 명명한다. ‘항미원조전쟁’이라는 명칭의 이면에는 ‘한국전쟁은 미중전쟁이었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 하지만 중국이 한국전쟁 전체를, 즉 전쟁의 시작부터 정전까지의 기간 전부를 ‘항미원조전쟁’으로 규정하는 것은 아니다. 중국은 한국전쟁을 ‘조선전쟁’과 ‘항미원조전쟁’의 두 단계로 나눈다. 중국은 전쟁이 남북 간 내전의 단계인 ‘조선전쟁’에서 중국과 미국이 충돌했던 ‘항미원조전쟁’의 단계로 이행되었다고 서술한다.

중국은 중국군이 한국전쟁에 참전하면서 중미 간의 전쟁으로 확대되었다고 주장한다. 이런 측면에서 ‘조선전쟁’은 1950년 6월 25일 발발했지만, ‘항미원조전쟁’은 10월 25일 시작되었다고 서술한다. 중국이 한반도에 진입한 것은 1950년 10월 19일이지만, 10월 25일 중국군의 첫 번째 교전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요컨대 한국전쟁은 6월 25일 내전이 발발했고, 6월 27일 미국의 개입으로 내전이 국제전으로 전환되었으며, 10월 25일 중국이 미국과 직접 무력 충돌

25 「關於朝鮮情況和我軍入朝參戰意見給周恩來的電報(1950年10月14日)」, 中共中央文獻研究室 編, 1987, 『建國以來毛澤東文稿』第一冊, 北京: 中央文獻出版社, 558~559쪽.

26 김동길, 2016, 앞의 글, 35~36쪽.

을 벌이면서 ‘항미원조전쟁’의 단계로 전환되었다. 한국전쟁 기간 중국이 내세웠던 구호는 ‘항미원조, 보가위국(抗美援朝, 保家衛國)’이었는데, 이를 통해서도 중국이 미국을 중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존재로 인식했고, 한국전쟁을 미국과 대결했던 전쟁으로 기억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중국의 대표적인 한국전쟁 연구자 쉬옌(徐焰)의 발언은 한국전쟁을 바라보는 중국의 인식과 속내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1950년 6월 25일 ‘조선내전’이 발발했고, 미국이 ‘조선내전’에 개입하면서 6월 27일 전쟁은 국제전쟁으로 변했다. 4개월 후인 10월 25일 중국이 정식으로 참전했고 이때부터 중국인민의 항미원조전쟁이 시작되었다”, “‘조선전쟁’은 무승부로 끝났지만, ‘항미원조전쟁’은 위대한 승리를 거두었다. 곧, ‘항미원조전쟁’은 중국이 승리한 전쟁이다”, “미국은 조선내전을 구실로, 즉 이 기회를 이용하여 조선에 출병하고 타이완을 점령하였다. 미국의 개입으로 전쟁의 성질이 변했고, 이는 ‘조선 침략 전쟁’이라고 말할 수 있다. 조선전쟁은 내전에서 국제전으로 바뀌었는데, 미국의 타국에 간섭하는 패권주의적 태도가 조선전쟁을 확대하는 원인이 되었다”, “6월 25일 조선에서 내전이 발생하자, ① 미국은 조선에 파병하고, ② 타이완에 미국 해군 제7함대를 파견했으며, ③ 인도차이나반도의 프랑스 군대에 군사고문단을 파견하여 프랑스군에게 전면적인 군사원조를 제공하였다. 결국 중국의 국가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았고, 중국은 자위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중국은 미국과의 대결 장소로서 한반도를 선택했던 것이다.”²⁷

한국전쟁에 관한 중국의 입장은 정부가 관여하여 편찬하는 역사서술에 일률적으로 적용되고 있으며, 서술 과정에서 드러나는 몇 가지 특징이 존재한다.

첫째, 한국전쟁의 발발에 관한 서술에서 북한이 남한을 공격하면서 전쟁이 시작됐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지는 않는다. 전쟁은 내전으로서 그 성격이 규정되며, 남북 간의 긴장과 군사적 충돌에 대한 서술이 강조된다. “미·소

27 「신경진의 서핑차이나」 6·25 전쟁을 보는 중국의 속내, 『중앙일보』, 2010. 7. 19, <https://www.joongang.co.kr/article/4321773#home> 검색일: 2023. 4. 19.

양국 군대가 한반도에서 철수한 이후, 남북한 정부는 남북통일을 실현하는 문제를 둘러싸고 첨예한 대립과 투쟁을 지속하였다. 이러한 대립과 투쟁이 훗날 발발한 한국전쟁의 근본적인 원인이다”, “1949년 초부터 남북한 군대는 삼팔선 지역에서 빈번하게 무력 충돌을 일으켰다”, “1950년 한반도 정세는 더욱 긴장되었다. 1950년 초 남한은 삼팔선 지역에 대규모 무장 부대를 집결시키기 시작했고, 한반도 전역에 전쟁의 먹구름이 짙게 드리워지면서 내전은 피할 수 없게 되었다”, “1950년 6월 25일 새벽, 삼팔선을 둘러싸고 끊임없이 진행되던 소규모 무장투쟁과 마찰은 마침내 대규모 내전의 형태로 그 모습을 드러내었다.”²⁸

한국전쟁은 명백하게 북한의 남침으로 시작되었음에도 중국은 이를 정확하게 서술하지 않는다. 중국도 전쟁이 북한의 선제공격으로 발발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북한과의 현실적인 정치적·외교적 관계를 고려하여 이를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김일성의 언급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는 듯 서술하고 있다. “6월 25일 오전, 김일성은 긴급 내각회의를 소집하여 전쟁 상황을 논의하였다. 김일성은 회의를 통해 북한군에게 ‘즉각 결정적인 반격을 개시하여 침략자를 섬멸하자’고 요구했으며”, “6월 26일, 김일성은 라디오 연설을 발표하여 전체 인민들에게 다음과 같이 호소하였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과 헌법을 굳건히 지키고 인민의 적 이승만 괴뢰정권을 전복시켜 남한을 이승만 도당의 통치에서 해방시켜 남한의 진정한 인민정권인 인민위원회를 회복시키겠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지도 아래 조국 통일을 완성하고 강대한 민주독립 국가를 건설하겠다. 이승만 매국 도당이 일으킨 내전에 반대하기 위해 진행된 이 전쟁은 조국의 통일, 독립, 자유, 민주를 쟁취하는 정의로운 전쟁이다.’”²⁹ 그런데 ‘반격을 개시’, ‘침략자를 소멸’, ‘이승만 매국 도당이 일으킨 전쟁’ 따위의 서술은 올바른 설명이 아니며 역사적 사실을 호도하는 것이다.

둘째, 한국전쟁 발발 직후 한반도에 대한 미국의 ‘무장간섭’과 타이완에 대

28 軍事科學院軍事歷史研究部, 2000, 앞의 책, 21, 23, 25쪽.

29 軍事科學院軍事歷史研究部, 2000, 위의 책, 25~26쪽.

한 미국의 ‘무장침략’을 비판하는 서술이 강조된다. 미국의 한국전쟁 관련 정책과 행보는 한반도 내전에 대한 간섭인 동시에 중국 주권에 대한 도전이라는 맥락에서 기술된다.

“트루먼은 정식으로 미 해군 제7함대를 타이완 해협에 파견할 것을 비준하여 중국인민해방군이 타이완을 해방시키는 것을 무력으로 저지하고 타이완 해협에서 ‘분리’ 정책을 실행하였다”, “미국 당국의 이러한 정책 결정으로 한반도 내전에 대한 무력개입과 구체적인 실행 방법이 확정되었다. 동시에 침략의 범위를 중국의 타이완까지 확대하여 타이완을 둘러싼 중국의 내정문제에 대하여 군사적으로 간섭하고 한국 내전을 기회로 활용하여 침략 행동을 극동지역 전체로 확장하여 이미 계획하고 있던 극동 지역 침략 계획의 전면적인 실시를 결정하였다”, “미국은 공공연하게 한국 내전에 군사적으로 개입하였다. 미군의 군사적 침략으로 인하여 한국전쟁의 성격은 내전에서 미군 침략에 대한 북한인민의 반침략 전쟁으로 변화되었다. 미국의 타이완 침략은 미국이 한국 내전에 무장간섭을 시작하자마자 한국 문제와 중국의 주권 문제를 하나로 연결시키기 위한 조치였다”, “미국 정부는 세계적인 패권적 지위 유지와 극동 지역에 대한 영향력 확대라는 전략적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 미국이 지지하는 한국의 이승만 정권을 보호한다는 정치적 결정을 내린 것이다”, “북한을 침략하기 위해 유엔군을 결성함으로써 미국은 북한 침략이라는 자국의 목적에 유엔군이라는 외피를 덧씌우게 되었다. 한국전쟁은 이때부터 국제화되고 확대되어 본래 통일문제 해결을 위해 발생한 한국내전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발생한 최초의 대규모 국제적 국지전으로 변화였다.”³⁰

중국은 한국전쟁이 기본적으로 남북 간에 발생한 내전이며, 따라서 외부세력이 간섭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중국공산당과 중국 정부는 조선노동당과 북한 정부가 조국 통일을 위해 노력하는 것을 일관되게 이해하고 지지하였다. 또한 한반도 통일 문제는 한반도 내부 사안이므로 어떤 방식으로

30 軍事科學院軍事歷史研究部, 2000, 위의 책, 35~36, 38, 44쪽.

어느 시기에 통일을 실현할 것인지는 남북한 국민이 스스로 선택할 문제이며 외부세력은 한국 내정에 간섭해서는 안 된다고 일관되게 주장하였다. 따라서 한국전쟁 발발 이후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와 중국 정부는 한국전쟁의 성격이 내전임을 인정하고 북한을 지지하는 입장을 분명하게 밝혔다.” 그런데 미국이 한국전쟁에 개입하면서 전쟁의 성격이 변했을 뿐만 아니라 중국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게 되었다. “그러나 미국 정부는 신속하게 무장간섭을 실시하여 한반도와 중국의 영토인 타이완에 파병함으로써 한국전쟁의 성격은 내전에서 침략과 반(反)침략 전쟁으로 그 성격이 근본적으로 변질되었다. 게다가 미국은 타이완을 침략하고, 일본과 필리핀에 주둔한 군사력을 강화하고, 프랑스의 인도차이나 식민지 전쟁에 대한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태평양 지역의 군사 전초기지를 아시아 대륙으로 이동시켰다. 따라서 아시아 지역의 긴장이 급격하게 조성되었고, 한국전쟁의 불씨는 주변 지역으로 번져나가 새로운 전쟁이 언제라도 터질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져 중화인민공화국의 안전은 극도로 위협받게 되었다. 이에 따라 중국 정부는 신속하고 강력하게 반응하지 않을 수 없었다.”³¹

셋째, 중국의 ‘항미원조전쟁’ 서술에서 중국군의 참전은 미국의 침략에 대항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으며, 세계 최강대국 미국과의 결전에서 승리함으로써 북한을 패망의 위기에서 구하고 신중국의 국가안전을 확보했을 뿐만 아니라 신중국의 위상과 민족적 자긍심을 드높였다는 점이 강조된다.

“중국군이 출병해도 승리를 달성할 가능성은 있었다. 중국은 침략에 반대하는 정의의 전쟁을 수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곳에서 지원할 것이며 사기가 드높고 병력이 충분했다. 중국군은 열악한 장비로 우수한 무기를 가진 적에게 승리를 거둔 풍부한 전투 경험과 전략 전술이 있었다”, “항미원조전쟁의 승리는 전국 인민들의 마음속에서 중국공산당의 위신을 크게 높여 주었다”, “항미원조전쟁의 승리는 중국인민의 민족적 자신감과 민족적 긍지를 높여주었으며 미제국주주의에 대해 두려움과 환상을 가지고 있던 일부 사람들을 깊이 교육하고 각성

31 軍事科學院軍事歷史研究部, 2000, 위의 책, 45~46쪽.

〈표 1〉 『중외역사강요』(상) 2019년판과 2022년판의 '항미원조전쟁론' 서술 비교

2019년판(158쪽)	2022년판(168쪽)
1950년 6월 25일 조선 내전이 폭발하였다. ① 미국은 곧 무장간섭을 하며, 동시에 제7함대를 대만해협에 파견하여 중국의 통일대업을 방해하였다. 미국은 또 UN 안전보장이사회를 조종하여 결의를 통과시키고, 미국을 수반으로 하는 UN군을 조직하여 “38선”을 넘어서 곧바로 중조변경인 압록강과 도문강을 압박하고, 조선 침략전쟁을 확대하여 중국의 국가안보를 엄중히 위협하였다. 1950년 10월 ② 조선 정부의 요구에 응해서, 당은 조선에 들어가 전쟁할 것을 결정하였다. 마오쩌둥은 ③ 평터화이를 사령원으로 하는 중국인민지원군을 ④ 조선에 파견하여, 미국에 항거해 조선을 지원하며 가정과 나라를 지키고, 조선의 군민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싸웠다. 5차례의 전투를 거치며 중·조 군대가 전선을 “38선” 부근으로 안정시키자, 미국은 하는 수 없이 담판에 동의하였다. 지원군이 조선에 들어간 후 중국 국내에서는 매우 활발한 항미원조운동이 전개되어, 항미원조전쟁을 힘차게 지원하였다. 한편으로 담판하면서 한편으로 전투하는 것을 여러 차례 반복하자, 1953년 7월, 미국은 어쩔 수 없이 ⑤ “조선정전협정”에 서명하였으며, 중국인민은 ⑥ 항미원조전쟁의 승리를 거두었다. 항미원조전쟁은 국위와 군위를 드러내고, 신중국의 국제적 지위를 향상시켰다. 지원군에서는 양건스(楊根思), 황지광(黃繼光), 추소우원(邱少雲), 귀성조우(羅盛教) 등 30여 만 명의 ⑦ 영웅 모범과 공신들을 배출하였으며, 이들의 감동적인 영웅의 사연은 강대한 민족적 응집력이 되었고, 전국 인민들이 조국수호와 건설을 위해 단결하고 분투하도록 크게 고무시켰다.	1950년 6월 25일 조선 내전이 폭발하였다. ① 미국 정부는 그 세계전략과 냉전적 사고에서 출발하여 무장간섭을 하기로 결정하고, 아울러 제7함대를 대만해협에 파견하여 중국의 통일대업을 방해하였다. 미국은 또 UN 안전보장이사회를 조종하여 결의를 통과시키고, 미국을 수반으로 하는 UN군을 조직하여 “38선”을 넘어서 곧바로 중조변경인 압록강과 도문강을 압박하고, 조선침략전쟁을 확대하여 중국의 국가안보를 엄중히 위협하였다. 1950년 10월 ② 조선 당과 정부의 요구에 응해서, 중국 당과 정부는 조선에 들어가 전쟁할 것을 결정하였다. 마오쩌둥은 ③ 평터화이를 사령원 겸 정치위원으로 하는 중국인민지원군을 ④ 조선전장에 파견하여, 미국에 항거해 조선을 지원하며 가정과 나라를 지키고, 조선의 군민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싸웠다. 5차례의 전투를 거치며 중·조 군대가 전선을 “38선” 부근으로 안정시키자, 미국은 하는 수 없이 담판에 동의하였다. 지원군이 조선에 들어간 후 중국 국내에서는 매우 활발한 항미원조운동이 전개되어, 항미원조전쟁을 힘차게 지원하였다. 한편으로 담판하면서 한편으로 전투하는 것을 여러 차례 반복하자, 1953년 7월, 미국은 어쩔 수 없이 ⑤ 정전협정에 서명하였으며, 중국인민은 ⑥ 항미원조전쟁의 위대한 승리를 거두었다. 항미원조전쟁은 국위와 군위를 드러내고, 신중국의 국제적 지위를 향상시켰다. 지원군에서는 양건스(楊根思), 황지광(黃繼光), 추소우원(邱少雲), 귀성조우(羅盛教) 등 30여 만 명의 ⑦ 영웅 공신과 약 6,000개 공신 집단을 배출하였으며, 이들의 감동적인 영웅의 사연은 강대한 민족적 응집력이 되었고, ⑧ 위대한 항미원조정신을 단련하였으며, 전국 인민들이 조국수호와 건설을 위해 단결하고 분투하도록 크게 고무시켰다. ⑨ 항미원조전쟁의 위대한 승리는 중국인민이 일어서서 세계 동방에 우뚝 서는 선언서와 같고, 중화민족이 위대한 부흥으로 달려가는 중요한 이정비이다.

시켰다. 항미원조운동에서 중국인민은 높은 애국주의 정신과 국제주의 정신을 발휘하였다”, “항미원조전쟁의 승리는 미국의 침략 확장의 기세를 막아내고 아시아와 세계의 평화를 수호함으로써 신중국의 국제적 위상을 전례 없이 드높였다. 미국과 소련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서는 아시아와 국제적 문제에서 차지하는 중국의 지위와 위신을 새롭게 평가해야 한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³²

한국전쟁에 관한 중국 정부의 공인된 인식과 서술은 중국의 역사교재에도 그대로 반영되고 있으며, 그런 맥락에서 한국전쟁에 대한 중국 역사교재의 서술 내용과 방향은 기본적으로 동일한 시각과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다만 세부적인 서술에서 강조와 보강이 덧붙여지는 정도의 차이와 변화가 감지된다. 일례로 『중외 역사강요(中外歷史綱要)』 2019년 판본과 2022년 판본에 기재되어 있는 ‘항미 원조전쟁’에 관한 서술에서 나타나는 변화를 정리하면 <표 1>과 같다.³³

IV. 중국의 전쟁 기억 소환과 활용

1979년 미중수교 이래 양국은 상호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였고, 특히 중국이 개혁개방 정책을 통해 고도의 경제적 성장을 이룩하면서 미중의 경제적 상호 의존성이 강화되었다. 그런 흐름 속에서 등장한 차이나와 아메리카를 합친 ‘차이메리카(Chimerica)’라는 표현은 미중 간의 경제 상호 의존성이 깊어져 2개의 경제를 하나로 보아야 된다는 커플링(coupling, 즉 동조화)을 상징적으로 의미하는 것이었다.³⁴ 그런데 2010년 중국의 GDP 경제 규모가 일

32 中共中央黨史研究室, 2011, 『中國共產黨歷史』第2卷, 北京: 中共黨史出版社, 72, 88~89쪽.

33 唐益才·唐守國·錢志東 主編, 2019·2022, 『中外歷史綱要』(上, 下), 延吉: 延吉教育出版社. 『中外歷史綱要』의 내용을 정리한 해당 자료 <표 1>은 동북아역사재단 권은주 연구위원으로부터 받았음.

34 주용식, 2021, 「바이든 시대의 대중국 통상무역전략: 미중패권경쟁의 정치경제적

본을 제치며 세계 2위로 올라서고, 중국의 경제성장이 미국의 패권을 위협할 정도로 커지자 미중관계는 점차 디커플링(decoupling, 즉 탈동조화)에 들어서기 시작하였다.

중국의 시진핑(習近平) 정권은 미국과 패권경쟁을 벌이며 중화민족의 부흥과 중국의 ‘대국굴기(大國屈起)’를 이끌고 있다. 시진핑은 2012년 11월 중국공산당 제18차 대회에서 중국공산당 총서기에 선출되었고, 2013년 3월 후진타오(胡錦濤)의 후임으로서 중화인민공화국 주석의 자리에 올랐다. 2018년 3월 전국인민대표대회를 통해 헌법에 명시된 국가주석직 2연임 초과 금지 조항을 삭제하면서 시진핑은 장기집권을 위한 법적 기틀을 마련하였고, 2022년 10월 중국공산당 제20차 당대회 폐막식에서는 자신의 3연임을 공식적으로 확정지었다.

2012년 11월 29일 시진핑 주석은 중국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 6명과 함께 중국역사박물관에서 전시 중인 ‘부흥의 길’을 참관하면서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는 것은 바로 중화민족의 근대 이래로의 가장 큰 꿈이다”라고 언급했는데, 이것은 소위 ‘중국몽(中國夢)’ 담론의 본격적인 등장과 출발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시진핑은 2013년 3월에 개최됐던 제12기 제1차 전국인민대표대회의 폐막 연설에서도 9차례나 ‘중국몽’을 언급하면서,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중국몽의 실현은 국가부강, 민족진흥, 인민행복이다”라고 강조하였다.³⁵

시진핑 정부는 2017년 10월 개최된 제19차 중국공산당 전국대표대회를 통해 집권 2기를 시작하였다. 특히 제19차 당대회에서는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사상(習近平新時代中國特色社會主義思想)’이라는 표현이 중국공산당 당장(黨章)에 삽입되었는데, 시진핑은 집권 2기를 시작하면서 ‘신시대

시각에서」, 『국제통상연구』 제26권 제1호, 45쪽.

35 이경남, 「시진핑(習近平)의 중국몽(中國夢)-팍스시니카(Pax-Sinica) 구상과 그 한계」, 『아세아연구』 제61권 4호, 166쪽.

중국 특색 사회주의’ 69회,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 32회, ‘샤오강 사회(小康社會)’를 17회 언급하면서, 2050년까지 미국을 제치고 세계 최강국을 실현하겠다는 ‘중국몽’의 위대한 목표와 포부를 제시하였다.³⁶

그런데 2017년 출범한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의 부상을 억제하기 위한 실질적인 행동에 나서면서 미중 간의 패권경쟁이 불거지기 시작하였다. 2018년 3월 트럼프 행정부가 5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의 미국에 대한 투자 제한 등의 내용을 담은 행정명령을 발동하면서, 미중 간의 무역전쟁과 디커플링이 본격적으로 가시화되었다.³⁷ 2018년 3월 미중 무역 분쟁으로 촉발되었던 미중 패권경쟁은 이후 코로나 팬데믹 시기를 거치면서 경제 문제를 넘어 군사와 안보, 이념과 체제의 영역을 아우르는 전방위적인 대결로 확산되어갔다.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는 2017년 12월 국가안보전략보고서(NSS), 2018년 1월 국방전략보고서(NDS), 2018년 핵태세검토보고서(NPR), 2019년 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 등을 통해 중국의 부상을 막으려는 전략적 목표와 입장을 명확히 하였고, 2019년 6월 인도-태평양 전략보고서(IPSR)에서는 중국을 보편적인 국제질서를 파괴하는 국가로 규정하면서 더 날카로운 대립각을 세웠다.³⁸

2021년 출범한 바이든 행정부에 들어서도 미국은 중국에 대한 공세를 계속하였다. 바이든은 “미국의 번영, 안보, 민주주의 가치에 도전하는 가장 심각한 경쟁자”로 중국을 규정하였고, 2021년 3월 발표된 바이든 정부의 ‘국가안보전략 중간지침(INSSG)’은 중국을 자유주의 국제질서에 지속적으로 도전할 수 있

36 홍건식, 「시진핑의 중국몽과 정체성 정치: 일대일로, AIIB 그리고 패권정체성」, 『국제정치논총』 제58집 1호, 100~101쪽.

37 2018~2020년까지 미중무역 전쟁 전개과정에 관해서는, 주용식, 2021, 앞의 글, 46쪽; <https://www.yna.co.kr/view/GYH20200116000100044?input=1363m>(검색일: 2023.4.13)을 참고.

38 최재덕·안문석, 2021, 「공격적 현실주의 관점에서 본 미중패권경쟁 양상 연구」, 『인문사회 21』 제12권 3호, 2982쪽.

는 유일한 경쟁자인 패권도전자로 지목하였다.³⁹ 그리고 그러한 미중 양국 간의 대립과 충돌은 현재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한편, 중국은 미국과의 패권경쟁이 심화되는 과정에서 과거의 역사적 사실이나 그것에 대한 인식을 소환하여 현실 정치 문제에 활용하고 있다. 2017년 4월 6일에서 7일까지 미국 플로리다 마라라고(Mar-a-Lago)에서 미중 정상회담이 진행되었다. 회담이 끝난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 4월 12일 『월스트리트저널』과 인터뷰를 진행하면서,⁴⁰ “시 주석이 북한이 아닌, 중국과 한국(Korea) 역사에 대해 말했다”며 “한국은 사실 중국의 일부이곤 했다(Korea actually used to be a part of China)고 발언하였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10분간 시 주석의 설명을 들은 후 북한 문제가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며 “내가 생각하던 것과는 다를 수 있다”고 말하였다.⁴¹ 한국과 중국 관계와 그 역사에 관한 설명에서 나온 말이라고 보이긴 하지만 현재 중국의 최고 지도자의 왜곡되고 부적절한 인식이 그대로 드러난 상징적인 사례라고 하겠다.⁴²

사실 보도는 트럼프의 입을 통해 전달되었기 때문에 정확한 진위를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 시진핑이 중국과 한반도 관계사에 대해 설명한 것을 트럼프가 언론에 전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단순한 헤프닝일 수도 있지만, 몇 가지 점

39 Joseph, Jr. Biden, 2020, “Why America Must Lead Again: Rescuing U.S. Foreign Policy After Trump”, *Foreign Affairs*, Vol. 99, No. 2, pp. 64~76; Joseph, Jr. Biden, 2021, “Interim National Security Strategic Guidance,” March, Washington D. C.: The White House(<https://www.whitehouse.gov/wp-content/uploads/2021/03/NSC-1v2.pdf>(검색일: 2021.3.15); 주용식, 2021, 앞의 글, 65쪽.

40 <https://blogs.wsj.com/washwire/2017/04/12/ws-j-trump-interview-excerpts-china-north-korea-ex-im-bank-obamacare-bannon/>(검색일: 2023.4.20)

41 「트럼프, 시진핑과 회담 뒤 “한국은 실제로 중국의 일부였다더라”」, 『한겨레』, 2017. 4. 19(<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america/791367.html> 검색일: 2023. 4. 20).

42 현인택, 2012, 「미-중 패권전쟁과 한국의 생존전략」, 『신아세아』 제28권 제2호, 65쪽.

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첫째, 중국이 한국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시진핑 중국 주석이 미중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문제, 즉 북핵 문제를 논의하면서 한국을 언급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한국(한반도)은 과거 중국의 일부였다’는 내용일 필요와 이유는 없다. 그러한 언급이 북핵 문제를 포함한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는 데 과연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도 의문이다. 둘째, 트럼프의 발언은 단순한 실언이 아니라 계산된 행동일 수도 있다. 트럼프가 시진핑의 언급을 맥락 없이 전달하면서 중국에 대한 한국의 감정은 악화되었고, 한중 간의 거리는 그만큼 더 멀어졌다. 아마도 트럼프는 한국이 중국에서 떨어진 거리만큼 미국 쪽에 가까워졌다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중국은 한국전쟁에 관한 역사적 경험도 현실 정치를 위한 도구로 활용하고 있다. 2020년은 한국전쟁 발발 70주년이 되는 해였다. 10월 19일 시진핑 국가주석은 중국인민혁명군사박물관에서 열린 ‘중국인민지원군 항미원조작전 70주년 전시’를 관람하였고, 10월 23일에는 베이징의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한국전쟁 참전 70주년 기념대회에 참석하였다. 그 자리에서 시진핑은 한국전쟁을 미국의 침략에 맞서 신중국을 지켜낸 ‘위대한 승리’로 규정하였다. 또한 미국의 일방주의적 행태를 강도 높게 비판하면서 “주권과 국익이 훼손되는 것을 두고 보지 않을 것”이라고도 경고하였다. 특히 시진핑은 ‘중국인민지원군 항미원조 출국 작전 70주년 기념대회’ 연설에서도 “위대한 항미원조전쟁은 제국주의 침략이 확장되는 것을 막고, 신중국의 안전을 지켰으며, 중국 인민의 평화로운 생활을 보위하였다”, “신중국 성립 초기 중국 인민들은 평화와 안정을 갈망했지만, 제국주의 침략자들은 중국 인민들에게 전쟁을 강요하였다”, “미국은 중국 정부의 거듭된 경고에도 조중 국경까지 불을 질렀고, 동북지방을 폭격해 국경 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심각하게 위협하였다”, “중조 양국 인민과 군대는 생사를 같이하며 피로써 위대한 우의를 맺었고, 힘겨운 전투를 통해 미군의 불패신화를 깨뜨렸다”,⁴³ “중국군은 위대한 애국정신과 영웅주의 정신을 발양해 북한

43 「시진핑, 한국전쟁 참전 70주년 기념식 연설 “항미원조는 위대한 승리”」, 『한겨레』,

인민군과 손잡고 2년 9개월 동안 목숨을 걸고 싸웠으며, 전쟁의 위대한 승리를 이루었다”, “위대한 항미원조전쟁은 제국주의의 침략 확장을 억제하였다” 등의 언설을 쏟아내었다.⁴⁴

이에 대해 한국의 대중과 일부 지식인은 격한 반응을 보이며 중국의 행태를 성토했다. 심지어 시진핑의 5,060자 연설에서 ‘한국’은 단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았음을 지적하며, “중국의 이웃이며 한국전쟁 당사자인 한국에 대한 배려는 전혀 없었다”고 불만을 표시하였다.⁴⁵ 한국의 이러한 반응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 보다 냉정하게 사안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중국이 이처럼 자극적이고 선동적인 언설을 강하게 쏟아냈던 배경에는 미중 패권경쟁이라는 상황이 존재한다. 즉, 한국전쟁 70주년을 맞아 시진핑이 언급한 내용들은 중국이 미국을 향해 보내는 일종의 정치적인 경고성 메시지라고 할 수 있다. 시진핑 정권은 미중 패권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던 시점에서 과거의 기억을, 즉 한국전쟁에서 중국이 미국과 맞서 싸웠던 ‘투쟁과 대결의 역사’를 소환시켜 활용하는 것이다. 미중 패권경쟁의 상황 속에서 중국은 ‘항미원조전쟁’의 경험을 끄집어내어 미국에게 경고를 보내는 셈이니, 그곳에 ‘한국에 대한 배려’가 들어갈 자리는 애초부터 있기 힘든 것이었다.

미중 패권경쟁 상황에서 중국의 민족주의 정서를 자극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항미원조전쟁’의 기억을 호출하는 것이다. 2019년 10월 중국 국경절에 맞춰 재개관할 예정이던 항미원조기념관은 항미원조기념 70주년인 2020년

2020. 10. 23, <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china/966998.html>

44 「시진핑 “항미원조 승리, 인류 역사에 기록될 것」, 『동아일보』, 2020. 10. 23.; 「시진핑, 담화에서 항미원조 전쟁의 의미 밝혀」, 『人民网(인민망한국어판)』, 2020. 10. 23, <https://www.donga.com/news/Inter/article/all/20201023/103595940/1>

45 「시진핑 5,060자 항미원조 연설에 ‘한국’ 배려는 한 글자도 없었다」, 『한국일보』, 2020. 10. 28,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0102713490000218>

10월 19일 갑작스레 재개관식을 진행하였다. 새롭게 개관한 항미원조기념관의 건축 면적은 2만 3,800㎡로 기존보다 4배 커졌고, ‘미국의 침략에 저항하고 북한을 수호한다’, ‘미국의 침략에 저항하는 전쟁’ 등을 주제로 전시장을 구성하였다. 또한 2020년에는 기록영화 〈항미원조, 보가위국(抗美援朝, 保家衛國)〉과 70주년 기념 20부작 다큐멘터리 〈항미원조 나라를 지켜라〉가 방영되었고, 2021년에는 ‘항미원조’ 영화 〈장진호(長津湖)〉가 흥행 신기록을 세우기도 하였다.⁴⁶

그런데 중국이 개혁개방과 경제발전이 본격화되었던 1990년대 중후반부터 시진핑 집권 이전까지 ‘항미원조’ 문제를 특별히 강조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주목된다. 2001년 중국 CCTV는 1996년부터 5년 동안 제작한 드라마 〈항미원조〉를 방영하려 했지만 중국 당국은 방영금지조치를 내렸으며, 중국에서 ‘항미원조’는 ‘조선전쟁’이라는 용어로 대체되곤 하였다. 이 시기 중국은 항미원조를 언급하는 것을 ‘회피’하였을 뿐만 아니라 미국에 대한 비판도 자제하였다. 이는 중국의 경제성장에 미국과의 관계가 필요했기 때문이며 한편으로는 강화된 중미관계를 반영하는 것이었다.⁴⁷

V. 맺음말

중국의 ‘항미원조전쟁’에 대한 강조와 활용이 미중 패권경쟁 구도 속에서 생산, 유통, 보급되고 있다는 사실은 한국전쟁에 대한 중국의 인식, 서술, 활용을 분석

46 김은정, 앞의 글, 86쪽; 양승진, 2020, 「중국은 언제까지 ‘항미원조’를 우려먹을까?」, 『군사저널』 12월호, 38쪽; 우성민, 2022, 「중국 정부의 ‘항미원조’ 참전군 보호 관련 보도 현황과 교과서 서술 검토」, 『역사와 교육』 제34집, 432쪽; 金震共, 2021, 앞의 글, 66~67쪽.

47 김란, 2017, 「중국 영화와 드라마의 ‘항미원조’ 기억과 재현」, 『역사비평』 봄호, 역사비평사, 227~228, 237쪽.

하는 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해준다. 이런 측면에서 한국전쟁에 대한 중국의 인식, 서술, 활용은 비(非)학술적 목적 달성, 즉 현실 정치의 목적을 위해 역사를 의도적으로 활용하고 해석한다는 경향이 농후하다.

중국이 사용하는 ‘항미원조전쟁’이라는 용어의 뜻은 ‘미국에 대항하여 북한을 도와준 전쟁’이라는 의미이다. 중국이 사용하는 ‘항미원조전쟁’이라는 용어 자체가 한국전쟁을 두 단계로 나누어 인식하고 있는 중국의 입장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즉, ‘조선전쟁’과 ‘항미원조전쟁’은 분리된 전쟁인 것이다. 말하자면 중국이 이해하는 한국전쟁은 남북 간 내전의 단계인 ‘조선전쟁’에서 중국과 미국이 충돌한 전쟁인 ‘항미원조전쟁’의 단계로 이행했던 것이고, 결국 내전으로 시작된 전쟁이 중미 간의 전쟁으로 확대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중국은 ‘조선전쟁’은 1950년 6월 25일 발발했지만 ‘항미원조전쟁’은 1950년 10월 25일 시작되었다고 규정한다.

중국이 한국전쟁에 참전하면서 북한을 도와 미국과 대적하여 싸웠다는 ‘항미원조전쟁’의 서사가 만들어졌다. 특히 한국전쟁 발발 직후 미국이 제7함대를 타이완 해협에 파견했던 것은 신중국의 주권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것이었다. 중국은 신중국의 국가안전과 중국인민의 생존을 지키기 위해 미국과의 대결에 나서지 않을 수 없었다고 주장한다. 또한 중국은 한국전쟁을 반(反)침략 전쟁, 정의로운 전쟁, 승리한 전쟁으로 정의한다. 한국전쟁에 관한 중국 정부의 인식과 서술은 하나의 정전(正典, Canon)으로 규정되어 중국에서 편찬되는 역사서적, 언론, 교육기관의 교재에도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

중국공산당은 정치적 목적과 현실적인 필요에 의해 한국전쟁에 관한 중국의 집단적 기억을 소환하고 활용한다. 중국이 한국전쟁에 참전하면서 세계 최대 강국 미국과 대적하였고, 결국 최종적인 승리를 쟁취하였다는 ‘항미원조전쟁’의 결론은 중국의 문학, 영화, 드라마, 역사 서적, 역사 교재 등을 통해 끊임없이 생산, 유통, 보급되었다. 그런데 중국 정부의 ‘항미원조전쟁’ 기억에 대한 소환과 활용은 중국이 처한 정치적·시대적·국제적 상황에 따라 약간씩 변화되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중국과 미국이 경쟁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하는 시기

에는 ‘항미원조전쟁’에 관한 서사를 크게 강조하지 않지만, 미중 간의 갈등과 긴장이 고조되는 시기에는 ‘항미원조전쟁’의 집단기억을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활용한다. 이런 맥락에서 시진핑 집권 시기 ‘항미원조전쟁’에 대한 적극적인 강조는 미중 간의 패권경쟁의 심화라는 상황과 깊은 관련이 있다.

참고문헌

단행본

- 동북아역사재단, 2020, 『중국 국정 고등학교 역사교과서에 투영된 역사인식과 문제점 분석 및 대응 방안 모색: 「중외역사강요」를 중심으로』, 동북아역사재단.
- _____, 2021, 『중국 시진핑시대 교과서 국정화와 역사담론』, 동북아역사재단.
- 성균중국연구소, 2018, 『중국공산당 제19차 전국대표대회 보고』, 지식공작소.
- 성균중국연구소 엮음, 조영남 책임편집, 2018, 『시진핑 사상과 중국의 미래-중국 공산당 제19차 전국대표대회 분석』, 지식공작소.
- 선즈화 저, 김동길 역, 2014, 『조선전쟁의 재탐구: 중국·소련·조선의 협력과 갈등』, 선인.
- 선즈화 저, 김동길 외 역, 2017, 『최후의 천조-모택동 김일성 시대의 중국과 북한』, 선인.
- 시진핑 지음, 차혜정 옮김, 2015, 『시진핑, 국정운명을 말하다』, 와이즈베리.
- 오병수, 2021, 『한중 역사 교과서 대화: 근대의 서사와 이데올로기』, 동북아역사재단.
- 윤세병, 2018, 『중국 역사교과서의 서사구조와 이데올로기』, 경인문화사.
- 이종석, 2004, 『북한-중국관계 1945~2000』, 도서출판 중심.
- 조영남, 2019, 『중국의 엘리트 정치: 마오쩌둥에서 시진핑까지』, 민음사.
- 케리 브라운 지음, 권은하 옮김, 2019, 『시진핑의 중국몽: 시진핑의 중국은 어디로 가는가』, 시그마북스.
- 軍事科學院軍事歷史研究部, 2000, 『抗美援朝戰爭史』第1~3卷, 北京: 軍事科學出版社.
- 唐益才·唐守國·錢志東 主編, 2019~2022, 『中外歷史綱要』(上,下), 延吉: 延吉教育出版社.
- 沈志華, 2013, 『毛澤東, 斯大林與朝鮮戰爭』, 廣州: 廣東人民出版社.
- 沈志華 主編, 2003, 『朝鮮戰爭: 俄國檔案館的解密文件』(上冊), 臺北: 中央研究院近代史研究所.
- _____, 2015, 『俄羅斯解密檔案選編: 中蘇關係』第二卷(1949.3~1950.7), 上海: 東方出版中心.

中共中央黨史研究室, 2011, 『中國共產黨歷史』第2卷, 北京: 中共黨史出版社.
 中共中央文獻研究室 編, 1987, 『建國以來毛澤東文稿』第一冊, 北京: 中央文獻出版社.
 中共中央文獻研究室·中國人民解放軍軍事科學院編, 2010, 『建國以來毛澤東軍事文稿』(上卷), 北京: 軍事科學出版社·中央文獻出版社.

논문

- 김동길, 2014, 「한국전쟁초기 중국군 조기파병을 둘러싼 스탈린, 모택동, 김일성의 동상이몽」, 『한국과 국제정치』 30권 2호.
- , 2016, 「중국의 한국전쟁 참전원인 연구: “국방선(國防線)”의 무혈확장」, 『韓國政治外交史論叢』 제37집 2호.
- , 2019, 「중국의 한국전쟁 개입 결정과 원인으로 본 중국의 북한 정책」, 『성균학이나』.
- , 2020, 「개혁개방 이전 냉전시기(1949~1980), 중국의 한반도 정책 연구」, 『歷史學報』第245輯.
- 김동길·박다정, 2015,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전후 및 한국전쟁 초기, 중국의 한국전쟁과 참전에 대한 태도 변화와 배경」, 『역사학보』 제225집.
- 김란, 2017, 「중국 영화와 드라마의 ‘항미원조’ 기억과 재현」, 『역사비평』 봄호, 역사비평사.
- 金裕利, 2018, 「국정제로 회귀한 중국의 중학교 역사교과서 분석」, 『歷史教育』 148輯.
- 김은정, 2023, 「승리의 기억: 남·북·중이 한국전쟁을 기억하는 방식」, 『외국문학연구』 제89호.
- 김재관, 2019, 「시진핑 집권기 미중 패권경쟁과 ‘중국몽’의 길」, 『Acta Eurasiatica』 10권 2호.
- 김정현, 2013, 「중국의抗美援朝戰爭 기억과 기념-항미원조기념관과 열사능원을 중심으로-」, 『사림』 제46호.
- 김지훈, 2018, 「현대 중국의 한국전쟁 인식 변화-역사 교과서의 서술 변화를 중심으로」, 『사림』 제64호.
- , 2019, 「국가의지(國家意志)와 역사교과서의 정치화-2018년 중국 중학교 역사교과서의 현대사 서술-」, 『역사와 교육』 제33집.

- 金震共, 2021, 「중국의 한국전쟁 서사는 언제 정전(canon)이 되었는가?」, 『中國語文論譯叢刊』 第50輯.
- 양승진, 2020, 「중국은 언제까지 ‘항미원조’를 우려먹을까?」, 『군사저널』 12월호.
- 오병수, 2016, 「국내 학계의 중국 역사교과서 연구 경향과 과제」, 『동북아역사논총』 53호.
- 우성민, 2020, 「중국 역사교과서의 개편과 자국사 및 세계사의 ‘현대’ 서술」, 『역사와 교육』 제30집.
- _____, 2022, 「중국 정부의 ‘항미원조’ 참전군 보훈 관련 보도 현황과 교과서 서술 검토」, 『역사와 교육』 제34집.
- 윤세병, 2019, 「중국의 역사 교과서 논쟁과 국정화」, 『역사교육연구』 제33호.
- 이승희, 2014, 「전쟁의 정치적 변용-50~60년대 ‘항미원조’ 전쟁영화를 중심으로-」, 『사이間SAI』 제17호.
- 林常薰, 2022, 「中國 國定 歷史教科書『中外歷史綱要』의 導入과 그 性格」, 『역사문화연구』 제82집.
- 조복현, 2018, 「중국 중학교 역사 교과서의 변천과 그에 대한 중국학계의 연구」, 『역사문화연구』 제68집.
- 이정남, 「시진핑(習近平) 중국몽(中國夢)-팍스시니카(Pax-Sinica) 구상과 그 한계」, 『아세아연구』 제61권 4호.
- 주용식, 2021, 「바이든 시대의 대중국 통상무역전략: 미중패권경쟁의 정치경제적 시각에서」, 『국제통상연구』 제26권 제1호.
- 차정미, 2022, 「시진핑 시대 중국의 대전략: ‘세기의 대변화론-중국몽-일대일로’ 연계 분석을 중심으로」, 『국가안보와 전략』 제22권 2호.
- 최재덕·안문석, 2021, 「공격적 현실주의의 관점에서 본 미중패권경쟁 양상 연구」, 『인문사회』 제21집 제12권 3호.
- 태지호·정현주, 2014, 「중국의 항미원조기념관을 통해서 본 한국전쟁의 기억과 정치적 함의」, 『한국정치학회보』 제48집 제4호.
- 한담, 2019, 「1958년 중국 ‘항미원조’ 전쟁 기억의 정치성과 문화적 재현의 다층성」, 『中國文化研究』 第43輯.
- 한상준, 2020, 「중국의 한국전쟁 동 의와 참전 결정-‘진영론’과 ‘안전론’ 사이-」, 『중국근현대사연구』 제87집.
- 현인택, 2012, 「미-중 패권전쟁과 한국의 생존전략」, 『신아세아』 제28권 제2호.

홍건식, 「시진핑의 중국몽과 정체성 정치: 일대일로, AIIB 그리고 패권정체성」, 『국제정치논총』 제58집 1호.

蘇維民, 2009, 「楊尚昆談抗美援朝戰爭」, 『百年潮』 4.

Joseph, Jr. Biden, 2020, “Why America Must Lead Again: Rescuing U.S. Foreign Policy After Trump,” *Foreign Affairs*, Vol. 99, No. 2.

기타 자료

「시진핑, 담화에서 항미원조 전쟁의 의미 밝혀」, 『人民网(인민망한국어판)』 2020.10.23,
<https://www.donga.com/news/Inter/article/all/20201023/103595940/1>

「시진핑 5,060자 항미원조 연설에 ‘한국’ 배려는 한 글자도 없었다」, 『한국일보』, 2020.
10.28,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0102713490000218>

「시진핑, 한국전쟁 참전 70주년 기념식 연설 “항미원조는 위대한 승리”」, 『한겨레』,
2020. 10. 23. <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china/966998.html>

「시진핑 “항미원조 승리, 인류 역사에 기록될 것”」, 『동아일보』, 2020.10.23.

「[신경진의 서핑차이나] 6·25 전쟁을 보는 중국의 속내」, 『중앙일보』, 2010.7.19,
<https://www.joongang.co.kr/article/4321773#home>

「트럼프, 시진핑과 회담 뒤 “한국은 실제로 중국의 일부였다더라”」, 『한겨레』, 2017.4.19,
<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america/791367.html>

新華社 編, 1950a, 「杜魯門聲明發表後上海市場情況(7月1日)」, 『內參參考』 第171期.

_____, 1950b, 「天津出現世界大戰謠言:津市民對朝鮮戰事有疑問(7月1日)」, 『內參參考』 第171期.

_____, 1950, 「上海工人,學生,教授對杜魯門聲明的反應(7月4日)」, 『內參參考』 第172期.

_____, 1950, 「津市商人議論朝鮮戰事將有引起第三次大戰的可能(7月10日)」, 『內參參考』 第175期.

_____, 1950, 「無錫幹部,工人,學生對目前時局的反映(7月11日)」, 『內參參考』 第176期.

<https://blogs.wsj.com/washwire/2017/04/12/wsj-trump-interview-excerpts-china-north-korea-ex-im-bank-obamacare-bannon/>

<https://www.yna.co.kr/view/GYH20200116000100044?input=1363m>

Washington D. C.: The White House, <https://www.whitehouse.gov/wp-content/uploads/2021/03/NSC-1v2.pdf>

중국의 한국전쟁 인식, 서술, 활용

한상준

중국은 한국전쟁을 반(反)침략 전쟁, 정의로운 전쟁, 승리한 전쟁으로 정의한다. 한국전쟁에 관한 중국 정부의 서술은 하나의 정전(正典, Canon)으로 규정되어 중국에서 편찬되는 역사서적, 언론, 교육기관의 교재에도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

중국이 한국전쟁에 참전하면서 북한을 도와 미국과 대적하여 싸웠다는 ‘항미원조전쟁’의 서사가 만들어졌다. 중국은 한국전쟁을 ‘조선내전’과 ‘항미원조전쟁’으로 구분하여 인식한다. 중국의 설명에 따르면, 한국전쟁은 한반도 내부에서 발생한 내전(內戰)으로 시작되었지만 미국이 한국전쟁에 개입하면서 국제전(國際戰)으로 전쟁의 성격이 변질되었다. 특히 한국전쟁 발발 직후 미국이 제7함대를 타이완 해협에 파견한 것은 신중국의 주권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것이었다. 중국은 신중국의 국가안전과 중국인민의 생존을 지키기 위해 미국과의 대결에 나서지 않을 수 없었고, 중국군이 한국전쟁에 참전하면서 ‘항미원조전쟁’이 시작되었다.

중국공산당은 정치적 목적과 현실적인 필요에 의해 한국전쟁에 관한 중국의 집단적 기억을 소환하고 활용한다. 중국이 한국전쟁에 참전하면서 세계 최대 강

국 미국과 대적하였고, 결국 최종적인 승리를 쟁취하였다는 ‘항미원조전쟁’의 결론은 중국의 문학, 영화, 드라마, 역사 서적, 역사 교재 등을 통해 끊임없이 생산, 유통, 보급되었다. 그런데 중국정부의 ‘항미원조전쟁’ 기억에 대한 소환과 활용은 중국이 처한 정치적·시대적·국제적 상황에 따라 약간씩 변화되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중국과 미국이 경쟁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하는 시기에는 ‘항미원조전쟁’에 관한 서사를 크게 강조하지 않지만, 미중 간의 갈등과 긴장이 고조되는 시기에는 ‘항미원조전쟁’의 집단기억을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활용한다. 이런 맥락에서 시진핑 집권 시기 ‘항미원조전쟁’에 대한 적극적인 강조는 미중 간의 패권경쟁의 심화라는 상황과 깊은 관련이 있다.

주제어: 한국전쟁, 역사인식, 역사서술, 미중패권경쟁, 항미원조전쟁

ABSTRACT

Perception, Narrative, and Utilization of the Korean War in China

Han Sangjun

China defines the Korean War as a war of anti-aggression, a just war, and a victorious war. The Chinese government's narrative about the Korean War is enshrined as the canonical version and is reflected in historical publications, media, and educational materials in China.

As China participated in the Korean War, the narrative of the “War to Resist U.S. Aggression and Aid Korea” emerged, according to which China helped North Korea in their opposition to the United States. China distinguishes the Korean War as a “civil war in Korea” and a “war to resist U.S. aggression and aid Korea.” According to China’s explanation, the Korean War initially began as an internal conflict within the Korean Peninsula, but it transformed into an international war when the United States intervened. Particularly, the dispatch of the U.S. Seventh Fleet to the Taiwan Strait immediately after the outbreak of the Korean War posed a serious threat to the sovereignty and security of the newly established People’s Republic of China. To safeguard the

national security of the new China and the survival of the Chinese people, China had no choice but to confront the United States, leading to the start of the “War to Resist U.S. Aggression and Aid Korea.”

The Communist Party of China summons and utilizes the collective memory of China regarding the Korean War for political purposes and practical needs. As China participated in the Korean War, confronting the world’s leading superpower, the United States, and ultimately achieving a decisive victory, the conclusion of the “War to Resist U.S. Aggression and Aid Korea” has been constantly produced, disseminated, and popularized through China’s literature, films, dramas, historical books, and textbooks. However, it is important to note that the invocation and utilization of the Chinese government’s memory of the “War to Resist U.S. Aggression and Aid Korea” have slightly changed depending on the political, temporal, and international situations China has faced. During periods when China and the United States maintained a competitive cooperative relationship, the narrative of the “War to Resist U.S. Aggression and Aid Korea” was not heavily emphasized. However, during times of heightened tensions and conflicts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China, there was extensive promotion and utilization of the collective memory of the “War to Resist U.S. Aggression and Aid Korea.” In this context, the active emphasis on the “War to Resist U.S. Aggression and Aid Korea” during Xi Jinping’s tenure is deeply related to the intensification of the power competition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China.

Keywords: Korean War, historical perception, historical narrative, US-China power competition, War to Resist U.S. Aggression and Aid Korea

3세기 이전 고구려와 동부여의 관계에 대한 재검토

이종록 | 고려대학교 한국사학과 강사

- I. 머리말
- II. 고구려본기와『위서』의 동부여 기록
- III. 동부여의 위치와 고구려의 두만강 유역 진출
- IV. 고구려 초기 동부여 지배의 양상
- V. 맺음말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I. 머리말

고구려 시조 주몽의 출자지는 잘 알려진 것처럼 『삼국사기(三國史記)』의 동부여 출자와 「광개토왕비(廣開土王碑)」에서 전하는 북부여출자 설화로 사료마다 다르게 나타나며, 세부적인 내용도 차이를 보인다. 또 『제왕운기(帝王韻紀)』에서 전하는 「동명왕편」의 전승이나 「모두루묘지(牟頭婁墓誌)」에서 나타나는 시조 출자지에 대한 인식, 그리고 『위서(魏書)』와 같은 중국 정사류 등 다양한 형태로 전승이 전해지고 있다. 이러한 다종의 건국 설화에서 등장하는 ‘동부여’라는 정치집단은 이른 시기부터 여러 연구에서 주목을 받아왔지만, 그것이 지시하는 실체나 초기 고구려와의 관계는 연구자 간에 여전히 의견 차이가 크다. 특히 의견 차이가 가장 큰 사항 중 하나는 동부여가 3세기 이전부터의 역사적 실체로 존재했는지의 여부이다.

『삼국사기』 고구려본기에서 동부여는 시조의 출자지였을 뿐만 아니라 시조 설화의 연장선상에 있는 유리왕(瑠璃王)-대무신왕(大武神王)조의 기록에서 여러 차례 등장하며, 건국 초 고구려를 위협하는 북방의 대적으로서 묘사되고 있다. 그렇지만 이들 기록은 본래 북부여 관련 기록이며, 이후 시조의 출자지가 동부여로 변경되는 과정에서 모두 동부여로 일괄 변경되었다는 견해¹가 제시된 이래 지금까지 여러 연구가 이를 취신하고 있다. 그리고 그 연장선상에서 「광개토왕비」에 언급되는 ‘동부여(東夫餘)’는 3세기 이후에 성립된 실체이며, 고구려 본기 초기 기사의 동부여와는 무관한 것이라는 관점이 다수를 차지한다.²

* 투고: 2023년 4월 15일, 심사 완료: 2023년 5월 8일, 게재 확정: 2023년 5월 12일

1 노태돈, 1989, 「夫餘國의 境域과 그 變遷」, 『국사관논총』 4; 노태돈, 1999, 『고구려사 연구』, 사계절, 34~44쪽.

2 관련 연구사는 본문에서 서술한다. 2000년까지의 연구사에 대한 정리는 박경철, 1992, 「扶餘史 展開에 關한 再認識 試論」, 『백산학보』 40, 62~71쪽; 송기호,

반면 동부여란 광개토왕 이전 시기부터 존재했으며, 비문에서 전하는 것처럼 고구려와 전기부터 일정한 연속관계가 있었다고 보는 연구들도 지금까지 꾸준히 제출되었다. 그렇지만 이들 연구들 중에서도 『삼국사기』 고구려본기 초기 기록의 전쟁 기사가 실제 동부여에 관한 기록이었을 것으로 보며 이에 따라 양자의 관계를 논하는 경우도 있는 반면,³ 『위략(魏略)』의 색리국(索離國)을 북부여로, 길림 일대의 부여를 동부여로 보기도 한다.⁴ 곧 ‘동부여’라는 정치집단이 1세기 무렵에 존재했다고 해도, 고구려본기에서 전하는 시조의 출자지이자 유리왕-대무신왕대에 고구려와 각축한 집단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는 논자마다 의견 차이가 있는 것이다.

이처럼 동부여에 관한 논쟁은 그 존속 시기조차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에, 역사상의 실체로 동부여를 논의하기에 현 단계에서는 많은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다. 나아가 고구려 초기사의 또 다른 쟁점 중 하나인 고구려의 시조 건국 설화의 문제와도 분리할 수 없기 때문에 논란을 더욱 심화시킨다.⁵ 따라서 동부여에 대해서는 보다 다양한 자료가 축적되고, 이에 따른 학계의 논의 진전을 기다리는 것이 최선일 수도 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관련 자료의 증대를 막연히 기다릴 수만 없으므로 현존 자료만으로 여러 각도에서 해석을 제기하는 것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곧 「광개토왕비」의 동부여가 3세기 이전에도 존재했을 가능성도 재고의 여지가 있지 않을까 싶은 것이다. 오히려 비문의 ‘동부여’가

2005, 「扶餘史 연구의 쟁점과 자료 해석」, 『한국고대사연구』 37, 18~35쪽을 참조할 수 있다.

3 임기환, 1987, 「고구려 초기의 지방통치체제」, 『경희사학』 14, 27~29쪽.

4 송호정, 1997, 「부여의 성장과 대외관계」, 『한국사』 4, 국사편찬위원회, 199쪽.

5 이를 감안하여 이 글에서는 고구려의 시조 출자에 대한 문제와 전승의 기원 문제에 관해서는 필요할 경우에만 다루기로 한다. 관련 문제에 대한 주요 쟁점은 노태돈, 1999, 앞의 책, 34~44쪽; 김기홍, 2001, 「高句麗 建國神話의 검토」, 『韓國史研究』 113; 이도하, 2007, 「高句麗의 夫餘 出源에 관한 認識의 變遷」, 『고구려발해연구』 27; 이도하, 2006, 『고구려 광개토왕릉비문 연구』, 서경문화사, 36~41쪽을 참조할 수 있다.

『진서(晉書)』에서 전하는 부여 왕족의 옥저 도피와 어떠한 관계가 있다면, 부여 왕족들이 도피처로 이 지역을 선택했다는 것은 이전 시기부터 부여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지역이었음을 나타낸다고 생각한다. 나아가 비문에서 시조 때부터 고구려와 관계를 맺었다고 적시했던 것은 동부여를 보다 오래전부터 존재했던 집단으로 인식한 결과로 볼 수 있다. 비록 수사적인 요소가 다분한 비문을 액면 그대로 신뢰할 수 없다고 해도, 그 인식의 근원 자체는 오래전의 역사적 사실에 기반을 두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이 글에서는 3세기 이전 동부여의 존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고구려본기 초기 기사의 동부여 관계 기록을 재검토하고 의견을 개진해보고자 한다. 특히 북부여 혹은 동부여 관계 기록의 여부로 논란이 있었던 유리왕-대무신왕대의 대부여 전쟁 기록의 형성 과정과 그 저변에 존재하였던 인식 문제를 중심으로 살펴볼 것이다. 비록 고구려본기 초기기사의 ‘부여’가 모두 동부여의 실체를 반영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해도, 이는 중기 고구려에서 병존하던 시조의 동부여출자설과 실제 동부여의 인식이 혼재된 결과였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를 통하여 동부여를 ‘추모왕대의 속민’이라고 표현하였던 「광개토왕비」의 인식과 그 기원이 된 3세기 이전의 고구려와 동부여 간의 관계를 추적하고자 한다.

II. 고구려본기와 『위서』의 동부여 기록

주지하다시피 ‘東扶餘’ 내지 ‘東夫餘’는 표기에 차이가 있다고 해도 국내 사료에서만 확인되는 명칭이다. 4세기 당시 고구려 왕실의 공식적인 입장이었던 것으로 여겨지는 「광개토왕비」에서는 추모왕(주몽)의 출자지를 북부여로 명시하며, 동부여는 이와 병존하였던 정치집단으로 나타난다. 반면 『삼국사기』 고구려본기에서는 시조 주몽의 출자지는 동부여이며, 그 기원도 비교적 상세하게 설화 형태로 전하고 있다.

A-1) 後其相阿蘭弗曰 日者天降我曰 將使吾子孫 立國於此 汝其避之 ①東海之濱有地 號曰迦葉原 土壤膏腴宜五穀 可都也 阿蘭弗遂勸王 移都於彼 國號②東扶餘 ③其舊都有人 不知所從來 自稱天帝子解慕漱 來都焉.⁶

A-2) 廿年庚戌 ①東扶餘舊是鄒牟王屬民 ②中叛不貢 王躬率往討.⁷

A-3) 古記云 前漢書宣帝神爵三年壬戌四月八日天帝 降于訖升骨城 乘五龍車立都 稱王國號①北扶餘自稱名解慕漱 生子名扶婁以解爲氏焉 王後因上帝之命移都于②東扶餘 東明帝繼北扶餘而興立都于卒本州 爲卒本扶餘 即高句麗之始 見下.

A-1)의 고구려본기에서는 본래의 부여가 상(相)인 아란불(阿蘭佛)의 조언을 따라 “동쪽 바닷가(東海之濱)(①)”의 땅으로 나라를 옮길 것으로 조언하여, 이를 받아들인 국왕 해부루(解夫婁)가 나라를 옮기고 이름을 동부여(東扶餘)(②)로 칭하였다고 한다. 반면 A-2) ①에서의 ‘동부여(東扶餘)’는 그 기원에 대한 특별한 서술은 없으며, 단지 “옛날부터 추모왕의 속민(舊是鄒牟王屬民)”이라고 하여 시조 당시부터 고구려의 지배대상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고구려본기 동명성왕조에 이와 대응될 만한 기록은 찾을 수 없으며, 동명성왕조에서 부여는 이후 모친인 유화의 사망과 장례에 대한 사례와, 같은 부여에서 아들인 유리가 찾아왔다는 기록들 뿐 종속관계로 볼 수 있는 정황은 나타나지 않는다.⁸

한편 A-3)의 『삼국유사(三國遺事)』에서 인용한 ‘고기(古記)’의 기록에서는 ‘북부여’의 기원을 별개의 조로 서술하며 A-2)의 고구려본기와 유사한 전승을 전하고 있다. 비록 세부적으로는 동부여의 해부루가 해모수의 아들이며 그의 명

6 『三國史記』卷13 高句麗本紀1 東明聖王 元年.

7 「廣開土王碑」永樂 20年. 판독문은 노태돈, 1992a, 「廣開土王陵碑」, 『譯註 韓國古代金石文』1, 駕洛國史蹟開發研究院의 판독안을 따랐다.

8 『三國史記』卷13 高句麗本紀1 東明聖王 14年 8月條와 9月條, 19年條 참조.

으로 동부여를 건국했다는 등의 차이가 있지만, 해모수-북부여와 해부루-동부여로 대응되며 동부여를 북부여의 분파로 설정하는 기본 구조는 동일하다. 『삼국유사』에서 전하는 ‘고기’의 실체나 고구려본기에서 전하는 시조 전승 및 동부여의 기원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향후 논의가 더 필요하겠으나, 이 기록 또한 동부여가 고구려의 건국 시점으로부터 존재했다는 인식하에서 작성된 것은 분명하다.

이처럼 ‘동부여’의 존재를 전하는 기록들은 공통적으로 고구려의 건국 시점부터 북부여와 병존했던 집단으로 서술하는 것이 특징이다. 시조 주몽의 출자를 어떤 부여로 보든 별개의 부여가 같은 시기 존재했다고 서술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종래 다수의 연구는 이를 회의적으로 보며, 「광개토왕비」의 동부여란 3세기 말 북부여로부터 분리되어 성립된 집단으로 보곤 하였다. 그리고 그 기원에 대해 『진서』 부여열전에서 285년 모용씨 세력의 침공으로 인해 국왕이 피살되고, 그 자제들이 옥저로 도주하였다는 기록에 주목한다.⁹ 즉, 이 시기 옥저로 도피하였던 부여의 왕족들이 이 지역에 새로운 정치집단을 형성하였으며, 이것이 상기 기록에서 전하는 동부여였다는 것이다. 그리고 『삼국사기』 등에서 전하는 유리왕-대무신왕대에 고구려와 각축을 벌인 기사들은 실제로는 북부여에 관한 기사이며, 「광개토왕비」 이후 고구려가 시조의 출자지를 동부여로 새롭게 설정하면서, 그 내용을 동부여로 개수하였다고 본다. 연구에 따라서는 동부여가 285년 모용씨 세력의 침공이 아닌 이후 4세기 전연의 침입으로 일시적으로 분리됨으로서 성립되었다는 견해를 제기하기도 하지만¹⁰ 고구려 초기부터 고구려와 북부여와 병존한 집단이라는 관점에 부정적인 것은 마찬가지다.

반면 동부여에 관한 위의 기록들을 일부 신뢰할 수 있는 동시에 3세기 이전에 동부여가 존재했다고 추정하면서도, 부여 왕족의 피신-동부여의 건국이라

9 『晉書』卷97 列傳67 東夷 夫餘國, “至太康六年 爲慕容廆所襲破 其王依慮自殺 子弟走保沃沮.”

10 李健才, 1982, 「扶餘的疆域和王城」, 『社會科學戰線』1982-4.

는 관점과 함께 이해하는 견해들도 있다. 이 연구들에서는 고구려본기의 동부여와 「광개토왕비」의 동부여를 별개의 존재로 보며, 이들이 각각 별개의 과정으로 성립·소멸되었다고 보았던 것이다. 이에 따르면 전자의 동부여는 함흥 일대에 위치하였으며 『삼국사기』에 전하는 것처럼 대무신왕대에 정복당하였지만, 후자의 동부여는 285년 모용씨 세력의 침략으로 인해 그 왕족이 옥저 방면으로 이주하여 건국한 나라로 추정하였다.¹¹

이처럼 복수의 사료에서 3세기 이전 동부여의 존재를 언급하고 있음에도 종래 학계의 다수가 3세기 이후 성립설을 취신하였던 이유는 기원 전후 고구려의 역사상과 비정합적인 요소 때문이었던 것으로 생각한다. 동부여에 대한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의 기록들은 후대에 작성된, 그것도 설화적 색채가 강한 기록들이다. 때문에 그 기년은 물론이고 구체적인 내용까지 그대로 역사적 사실로서 취신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또 「광개토왕비」의 ‘추모왕대부터 속민’이라는 기록도 건국 직후부터, 그것도 상당한 거리가 있었을 동부여를 고구려가 ‘속민’으로서 지배했다는 것도 믿기 어려운 일이다. 나아가 동부여가 설령 존재했다 한들 『삼국사기』와 같은 사료에서 초기 3대왕 이후 후술할 태조왕대의 짧은 기사 외에는 언급이 드물어지는 점도 이해하기 쉬운 현상이 아니다. 즉, 「광개토왕비」의 “추모왕대부터 속민”이라는 구절은 어디까지나 수사적인 표현일 뿐이며, 이를 역사적 사실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분명히 논리적인 결론인 것이다.

그런데 「광개토왕비」의 이 구절이 사실이 아니라고 해도 당대 고구려인들의 동부여에 대한 인식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다고 여긴다. 만약 동부여가 3세기에 새롭게 성립된 정치집단이라면 4세기 고구려인들이 이들을 300년이나 이전의

11 孫正甲, 1984, 「夫余源流辨析」, 『學習與探索』 1984-6, 139~143쪽; 魏國忠, 1995, 『東北民族史研究』 2, 中州古籍出版社. 또 서영수도 동부여는 계루부의故地인 두만강 유역에 존재하였던 실제로 대무신왕대에 고구려에게 정복되었지만, 285년 부여 멸망 후 친연관계에 있었던 이 지역으로 부여 왕족이 도피하여 동부여를 새롭게 건국하였다고 보았다(서영수, 1988, 「廣開土王陵碑文의 征服記事의 再檢討(中)」, 『역사학보』 119, 104~108쪽).

추모왕대부터 존속하였던 집단으로 설정했다는 것이지만, 이는 기존 연구에서 지적한 것처럼 지나친 윤색이다.¹² 또 고구려본기의 유리왕-대무신왕조의 대부여 전쟁 기사를 모두 북부여에 대한 기록으로 본다면, 이는 『삼국지(三國志)』에서 인용된 『위략』에서 전하는 것처럼 부여가 적국에게 파괴된 적이 없었다는 기록과 상충된다.¹³ 해당 전쟁 기록은 단순히 후대에 만들어진 설화이며, 이후 동부여로 이름만 변경한 것으로 보면 문제가 되지 않겠으나, 그 가능성 또한 다 음 『위서』 고구려전의 기록을 감안하면 의문이 든다.

B-1) 初 ①朱蒙在夫餘時 妻懷孕 朱蒙逃後生一子 字始閭譖 及長 知朱蒙爲國主 卽與母亡而歸之 名之曰閭達 委之國事 朱蒙死 閭達代立 閭達死 子如栗代立 如栗死 ②子莫來代立 乃征夫餘 夫餘大敗 遂統屬焉 莫來子孫相傳 至裔孫宮 生而開目能視 國人惡之 及長凶虐 國以殘破¹⁴

위에서 전하는 고구려 시조 전승은 435년 북위의 사신 이오(李敖)가 책봉의 사절로 고구려를 방문하여 수집한 자료를 근거로 작성되었다고 보거나,¹⁵ 『주서(周書)』 열전에 입전된 고림(高琳)과 같은 북조의 고구려 출신 관인층의 가보 자료 등을 토대로 작성되었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¹⁶ 그러나 어느 쪽으로 보든 이들은 5세기 중반까지 고구려 내에서 형성된 시조 출자 설화와 그에 대응되는 ‘부여’에 관한 전승을 전하고 있음은 분명할 것이다. 그런데 주목되는 부분은

12 이도학, 2006, 앞의 책, 46~47쪽; 이승호, 2018, 『『광개토왕비문』에 보이는 東扶餘에 대한 재검토』, 『소장학자들이 본 고구려사』, 해안, 285~286쪽.

13 장병진, 2019, 「고구려본기의 부여 관계 기사와 ‘동부여’의 실체」, 『사학연구』 136, 63~64쪽.

14 『魏書』 卷100 列傳88 高句麗.

15 武田幸男, 1989, 『高句麗史と東アジア』, 岩波書店, 340쪽; 임기환, 1998, 「4~6세기 중국사서에 나타난 한국고대사상」, 『한국고대사연구』 14, 171쪽.

16 박기범, 2011, 「부여, 고구려 건국신화의 계통과 형성과정」, 『동북아역사논총』 43, 224쪽.

4대째의 왕인 막래(莫來)가 “부여를 정벌하여 부여가 대패하니, 마침내 (고구려에게) 통속되었다(乃征夫餘 夫餘大敗 遂統屬焉)”라는 서술이다(②). 이 기록은 맥락상 『삼국사기』 고구려본기 대무신왕조에서 전하는 부여왕 대소와의 전쟁 기록과 『삼국유사』 동부여조에서 무휼(대무신왕)이 동부여를 멸망시켰다는 서술과 연결되는 인식이라는 것에는 대부분의 연구자들이 의견을 모은다.

위의 기사에서 시조 주몽에서부터 이어지는 초기 왕대의 계보는 주몽-여해(閭譙)[여달(閭達)]-여율(如栗)-막래(莫來)로 전하여 막래는 3대째에 해당한다. 반면 고구려본기에서 대무신왕은 3대째의 왕으로 나타나기에, 이른 시기 일본 학자들의 연구에서부터 최근까지 『위서』 고구려전의 왕들을 고구려본기의 어떤 왕들에 대입해야 하는지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었다.¹⁷ 그렇지만 막래가 고구려본기의 어떤 왕이었는지는 별개로 『위서』에서 나타나는 고구려-부여의 전쟁과 이로 인한 부여의 패망과 같은 인식이 『삼국사기』 고구려본기의 그것과 궤를 이루고 있었음은 분명하다. 곧 『삼국사기』에서 전하는 대부여 전쟁 기사는 『위서』에서 전하는 ‘막래의 부여 정벌’은 모두 동일한 역사적 사실, 혹은 인식을 기초로 하여 만들어진 전승이라고 보아야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전승에서 막래가 멸망시켰다는 “부여(夫餘)”가 고구려인들이 동부여 혹은 북부여 중 어느 쪽에 해당했는지가 문제가 된다. 『삼국지』 동이전에 입전된 부여를 포함하여 중국 정사류에서 등장하는 부여는 대부분 북부여를 지칭하고 있었으며, 위의 부여도 같은 맥락에서 북부여로 이해하는 견해¹⁸는 지금도 통설의 위치에 있다.¹⁹ 반면 최근에는 『위서』 고구려전에서 전하는 시조

17 『魏書』 고구려전과 고구려본기 왕계에 관한 기존 논의와 각 설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여호규, 2014, 『고구려 초기 정치사 연구』, 신서원, 228~230쪽 참조. 여기에서 막래가 어떤 왕에 해당하거나 계보의 차이 문제에 대해서는 자세히 논의하기 어렵지만, 고구려본기의 대무신왕과 『위서』의 막래가 동일한 실존 인물, 혹은 모티브를 두고 있었다는 점을 전제로 논의한다.

18 노태돈, 1999, 앞의 책, 29~30쪽.

19 임기환, 2016, 「고구려 건국전승의 始祖 出自와 北夫餘, 東夫餘」, 『고구려발해연구』 54, 164~165쪽 참조.

출자지인 부여가 동부여이며, 막래의 부여 정복도 고구려본기 대무신왕의 정복 기사와 동일한 인식을 전하고 있다는 견해들이 제기되었다.²⁰ 『위서』에서 막래가 정복한 부여란 동부여를 의미했던 것이며, 이는 「광개토왕비」가 전하는 것처럼 동부여가 오래전부터 고구려와 어떤 종류의 지배-복속관계를 맺고 있던 집단이었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위서』의 기록이 북부여출자설에서 작성된 전승이라면 막래가 정복한 대상도 고구려인들이 ‘북부여’로 인식한 존재였던 것이 된다. 위의 전승에서는 주몽의 출자지에서부터 막래의 부여 정복까지 별도의 부여가 언급되지 않은 채, 일관되게 하나의 부여를 대상으로 서술하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그랬다면 유사한 시기 북부여출자설을 취한 「광개토왕비」나 「모두루묘지」에서는 북부여에 대해 이러한 언급이 없는 현상은 의문이 들게 된다. 「광개토왕비」의 경우 단순한 생략이었을 수도 있으나, 「모두루묘지」에서는 북부여수사(北夫餘守事)를 지낸 모두루의 조상인 대형(大兄) 염모에 대해서 서술하면서 북부여를 여러 차례 언급한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염모가 모용선비가 북부여로 침공하였을 당시 어떤 공훈을 세웠음을 전하면서, 이후 광개토왕대에 모두루가 북부여수사로 파견되는 당위를 제공하고 있다.²¹ 묘지상에서, 나아가 여기에서 취한 인식상에서 서술하는 북부여란 관념적인 존재가 아니라 역사상의 실체이자 4~5세기에 고구려의 영역으로 포괄되었던 존재인 것이다.²² 이를 보면 북부여출자설상에서

20 이승호, 2011, 「광개토왕비문에 보이는 천제지자(天帝之子) 관념의 형성의 史的 배경」, 『역사와 현실』 81, 123쪽; 임기환, 2016, 위의 글, 176쪽.

21 「모두루묘지명」상에서 염모의 행적과 모용선비 관련 기록에 대해서는 자료가 불분명하여 판독이 어려운 부분이 많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알기 어렵다. 그렇지만 관련 문제를 다루는 다수의 연구에서 이때 모용선비의 언급은 북부여의 땅을 둔 고구려와 모용선비 간의 각축 과정에서 염모가 어떤 공훈을 세운 내용이라고 보고 있다. 노태돈, 1992b, 「牟頭婁墓誌」, 『譯註 韓國古代金石文』 1, 駕洛國史蹟開發研究院, 99쪽; 최일례, 2017, 「牟頭婁墓誌銘에 투영된 5세기 고구려의 정치세력」, 『한국고대사연구』 85, 239~240쪽; 이준성, 2020, 「牟頭婁墓誌」의 판독과 역주 재검토, 『목간과 문자』 25, 336쪽.

22 임기환, 2016, 앞의 글, 172쪽.

북부여를 막래 혹은 대무신왕과 같은 이른 시기의 왕이 정복한 지역으로 설정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즉, 『위서』 고구려전의 전승이 북부여출자설을 취했다면, 북부여를 막래에 의해 정복한 지역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아야 한다.

또 「모두루묘지」의 문제와는 별개로 고구려는 이전부터 중국 군현과 연합한 부여(=북부여)와 각축을 벌이기도 하였으며, 이후 모용선비의 침입-북부여 멸망이라는 과정을 가까이에서 목도하였다. 이로부터 시기 차이가 크지 않은 5세기 무렵 고구려인들 사이에서 북부여를 기원후 1세기부터 자신들에게 복속된 집단으로 설정하는 설화가 형성되었을지도 의문이 드는 것이다. 물론 「광개토왕비」에 전하는 동부여에 대한 인식이나 『위서』에서 막래에 의해 정복되었다는 기록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설령 허구라고 해도 일찍부터 고구려가 우위를 취하고 있었다고 자부하던 ‘동부여’와 길림 일대의 북부여 사이에는 인식의 차이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다시 말해서 『위서』 고구려전의 부여 관계 기사는 처음부터 동부여출자설을 취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막래의 부여 정복 기사 등도 자연스럽게 그 맥락이 이해될 수 있는 것이다.

종합하자면 고구려본기의 동부여 또한 고구려의 공식 시조 출자 인식이 동부여출자설로 변개되는 과정에서 단지 이름만 변경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워진다. 5세기 시점에서 존재한 동부여출자설상에서 동부여를 시조로부터 몇 대 지나지 않는 시기부터 고구려에게 복속한 집단으로 설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북부여출자설과는 별도의 전승 속에서 동부여란 이른 시기부터 고구려에 복속된 집단이라는 홍망설화를 갖추고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동부여는 이후에 등장하면서 북부여 관련 초기기사에 이름만 덧씌워진 존재가 아니라, 오래 전부터 북부여와 병존하면서 전승을 가진 역사상의 존재로 보는 것이 더 적절하지 않을까 싶다.

물론 위의 추정이 허용된다고 해도 동부여가 3세기 이전부터 존재했다고 단언하기에는 여러 문제가 남는다. 가장 큰 문제는 3세기 이전에 동부여가 존재했다고 볼 경우 사서상에서, 특히 『삼국지』 동이전과 같이 이 지역의 주민집단에

대해 비교적 상세한 정보를 전하는 기록상에서 이들에 대한 언급이 전무하다는 점이다. 동이전의 동옥저(東沃沮)·예(濊)·읍루(挹婁) 등의 종족집단에 대해서는 3세기 위나라 관구검의 고구려 정벌 당시 이 지역으로 직접 위군이 진입하여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하고 있었으며, 북옥저의 경우 왕기(王頎)의 부대가 “동쪽 경계까지 다다랐다(盡其東界)”²³고 하여 두만강 유역이나 이와 인접한 지역까지 진출하여 직접 점선하였던 것이다. 그럼에도 동부여가 이 시기까지 존속하고 있었다면 그 존재에 대해 아무 언급이 없다는 것은 역시 이질적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삼국지』 동이전상에서도 동부여의 존재를 시사하는 요소가 없던 것은 아니다. 예컨대 동이전 동옥저조에서는 옥저 주변의 집단에 대하여 “북쪽은 읍루·부여와 남쪽으로는 예맥과 접해 있다(北與挹婁夫餘 南與濊貊接)”²⁴고 서술하고 있다. 그러나 북쪽의 읍루와 남쪽의 예맥, 곧 예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지만, 북쪽에 부여가 있다고 서술하는 것은 현재까지의 부여에 대한 지리적 비정으로는 이해하기가 어렵다. 이 기록은 같은 동이전상에서 예가 북쪽으로 고구려·옥저와 접하고 있다는 서술²⁵과 일견 유사성이 있다. 이 시기 고구려가 예와 접하고 있었다는 기록이 고구려가 이미 옥저 지역의 지배자로서 위치하고 있었다는 인식으로부터 서술된 내용임을 감안하면, 옥저와 부여가 접하고 있었다는 서술도 이 시기 북쪽으로 접하고 있던 읍루와 그 지배자의 입장인 부여를 감안한 서술일 수도 있다. 그러나 동이전 읍루조에서는 황초(黃初) 연간(220~226)에 읍루가 이미 부여로부터 이탈하였다고 하여,²⁶ 이 시기에도 읍루를 부여에 복속된 세력이라고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 때문에 기존 연구에서는 여기에서의 부여는 길림 일대의 부여와는 구별되며, 곧 동부여를 의미했다고 추정하기

23 『三國志』卷30 魏書 東夷傳 東沃沮, “王頎別遣追討宮 盡其東界.”

24 『三國志』卷30 魏書 東夷傳 東沃沮, “北與挹婁夫餘 南與濊貊接.”

25 『三國志』卷30 魏書 東夷傳 濊, “南與辰韓 北與高句麗沃沮接 東窮大海.”

26 『三國志』卷30 魏書 東夷傳 挹婁, “自漢已來 臣屬夫餘 夫餘責其租賦重 以黃初中叛之 夫餘數伐之 其人衆雖少 所在山險 鄰國人畏其弓矢 卒不能服也 其國便乘船寇盜 鄰國患之 東夷飲食類皆用俎豆 唯挹婁不 法俗最無綱紀也.”

도 하였다.²⁷ 즉, 이 시기 북옥저로 진출한 위군이 북옥저에 인접한 ‘부여’가 존재했던 것으로 인식한 것이며, 이것이 곧 길림 일대의 북부여와 구별되는 동부여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이 기록 또한 동이전 내에서 동부여가 실존했다고 단언할 증거로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설령 위의 관점을 취신한다고 해도 오랜 기간 중국 정권과 교류가 있었던 길림 일대의 부여와 구분되는 정치집단을 인지하지 못한 채 같은 부여로 취급했다는 것도 해명이 필요할 것이다. 그렇지만 위의 기사는 적어도 3세기 이전까지 ‘부여’라는 정체성을 가진 주민집단이 북옥저와 인접한 지역에 존재하고 있었으며, 이것이 이 지역으로 진입하였던 위군에게 인식되어 사료상에 기록된 결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싶다.²⁸

그렇다면 동부여가 3세기 이전부터 실존하였던 정치집단으로 가정할 경우, 이들 기사에서 전하는 동부여가 고구려에게 이른 시기 복속된 집단으로 나타나는 기록은 어떻게 성립된 것일까? 만약 3세기 이전부터 동부여가 실존했다면, 고구려본기의 관련 기록도 역사적 사실을 반영하고 있으며, 곧 이들이 “추모왕대의 속민” 내지 막래 혹은 대무신왕의 동부여 정복 과정을 상세하게 전하는 것이라고 볼 여지도 있다. 그런데 해당 기록의 설화적인 요소를 배제한다고 해도 이를 온전히 동부여 관계 기사로 보기에는 다음 두 가지 사항이 문제가 된다. 첫째, 고구려본기 동부여 관계 기사들에서는 고구려가 동부여와 어떤 연속관계를 맺은 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C-1) (五年 春二月) …王既至國 ①乃會羣臣飲至曰 孤以不德 輕伐扶餘 雖殺其王 未滅其國 而又多失我軍資 此孤之過也 遂親吊死問疾 以存慰

27 이도학, 2006, 앞의 책, 46~47쪽.

28 이승호도 상기한 이도학의 견해를 받아들이며 북옥저 일대에 포진한 여러 읍락정치체 가운데 부여와 동일계통으로 인식될 만한 세력이 존재하였으며, 그것이 동이전 북옥저조에서 노출된 것으로 파악하였다. 이승호, 2018, 앞의 글, 288쪽.

百姓 是以國人感王德義 皆許殺身於國事矣²⁹

C-2) (夏四月) 扶餘王帶素弟 至曷思水濱 立國稱王 是扶餘王金蛙季子 史

失其名 ①初帶素之見殺也 知國之將亡 與從者百餘人 至鴨綠谷 見海

頭王出獵 遂殺之 取其百姓 至此始都 是爲曷思王³⁰

C-3) (秋七月) 扶餘王從弟謂國人曰 我先王身亡 ①國滅民無所依 王弟逃竄

都於曷思 吾亦不肖 無以興復 乃與萬餘人來投 王封爲王 安置掾那部

以其背有絡文 賜姓絡氏³¹

C-4) 曷思王孫都頭 以國來降 以都頭爲于台³²

위의 『삼국사기』 기사에서는 대무신왕 4년 12월부터 진행된 동부여 정벌과 갈사국의 성립, 그리고 부여왕의 종제의 고구려 내투 과정 등을 전하고 있다. 이들은 유리왕대부터 진행된 고구려와 동부여 간의 대립과 그 결말에 해당하는 기록이다. 이에 따르면 고구려는 대무신왕 5년 2월의 전투로 부여왕 대소를 살해하며 그 수도를 공격하는 등 일정한 군사적 성공을 거두었다. 그리고 C-2)에서는 대소의 아우가 장차 나라가 망할 것을 알고 도피하여 압록곡(鴨綠谷)에 이르렀는데, 그곳에서 해두왕(海頭王)을 죽이고 갈사수(曷思水)에 나라를 세웠다고 한다. 그리고 이들 갈사국은 태조왕대에 고구려에게 복속되었다(C-4). 또 C-3)에서는 대소의 종제가 부여로부터 이탈하여 고구려에 내투하였으며, 고구려에서는 그들을 연나부(掾那部)에 안치시켰다고 전한다.

그런데 대무신왕조의 고구려의 동부여 침공 기록에서는 대무신왕 본인이 토로한 것처럼 결과적으로 “부여가 아직 멸망하지 않았다”고 하였기 때문에³³ 고

29 『三國史記』卷14 高句麗本紀2 大武神王 5年 春 2月.

30 『三國史記』卷14 高句麗本紀2 大武神王 5年 夏 4月.

31 『三國史記』卷14 高句麗本紀2 大武神王 5年 7月.

32 『三國史記』卷15 高句麗本紀3 太祖大王 16年 秋 8月.

33 『三國史記』卷14 高句麗本紀2 大武神王 5年 春 2月.

구려본기의 서술상에서 이 시점에서 동부여가 멸망했다거나 고구려와 어떤 지배-복속관계가 성립된 것이 아니다. 실제 동부여의 멸망을 암시하는 사료들은 C-2)와 C-3)에 해당하는 기록들이지만, 이 기사들은 결국 동부여에서 분열된 세력의 투항이지 동부여의 고구려 복속을 전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나아가 「광개토왕비」의 기록상으로도 동부여는 5세기까지 어떤 식으로든 존속하고 있었기 때문에, 고구려에 의해 완전히 멸망하거나 지배권을 가지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오히려 이에 부합된다.

때문에 3세기 이전부터 동부여가 존속하였다고 보는 연구들에서는 뒤에서 더 자세히 살펴볼 태조왕조에서 나타나는 부여 관계 기사에 주목하며, 이 시기까지 대무신왕조에 명시되지 않았던 고구려와 동부여 간의 지배-복속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보기도 한다.³⁴ 특히 대무신왕조의 전쟁 기록에 대해서는 동부여에 대한 정복전쟁이 수행되고 일정한 우위를 차지했으며, 이후 태조왕대는 이 우위를 바탕으로 하여 동부여에 대한 예속관계를 형성하였다고 추정한 것이다.³⁵

그런데 태조왕대의 동부여 관계 기록이 고구려의 지배-복속관계를 나타낸다고 보고 대무신왕조의 기록을 배제한다면, 반대로 『위서』나 『삼국유사』에서 동부여 정복의 주체를 막래 혹은 대무신왕으로 설정한 이유를 이해하기 어려워진다. 물론 이는 고구려본기에서 전하는 전쟁처럼 대무신왕 혹은 막래가 동부여에 일정한 타격을 주었으며, 이를 동부여의 고구려에 대한 복속으로 이해한 기록일 수도 있다. 그렇지만 『위서』의 계보상에서 태조왕은 유리왕의 손자로 나타나는 고구려본기의 계보와는 달리, 막래의 “예손(裔孫)”으로 표현하여 보다 먼 시기의 인물로 비정하고 있다. 이는 동부여의 멸망으로부터 성립한 갈사국의 왕손이 태조왕대에 내투했다고 하여 두 시기에 큰 단절이 나타나지 않는 고구려본기의 인식에 비추어 눈에 띄는 부분이다. 즉, 『위서』의 전승상에서 막래-궁

34 임기환, 1987, 앞의 글, 27~29쪽; 이승호, 2018, 앞의 책, 94~98쪽.

35 임기환, 1987, 위의 글, 27~29쪽.

(태조왕) 사이에 큰 단층이 있었다면, 고구려본기에서 태조왕조까지 이어지는 동부여 관련 기록이 『위서』의 그것과 연계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이다.

둘째, 고구려본기 기록들에서 묘사되는 부여의 성격이다. 이들 기사에서는 일관되게 부여를 북방의 강대한 세력으로 묘사되며, 기사 전반의 성격도 부여의 억압과 이에 저항하는 고구려라는 서사가 분명하다. 물론 3세기 이전 동부여가 실존했다고 해도 건국 초기에는 고구려가 동부여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소하였고, 이에 따라 동부여를 고구려인들이 극복 대상이라는 인식이 발생했을 수도 있다. 그렇지만 일반적인 동부여의 위치 비정이나 이후의 관계를 감안한다면, 과연 동부여가 고구려에게 ‘북쪽의 강대한 국가’로 인식되었을지 의문이다.³⁶

또 이들 기사에서는 부여를 ‘북부여(北扶餘)’로 칭하거나,³⁷ 유리왕 29년조에서의 검은 개구리와 붉은 개구리의 싸움과 같이³⁸ 그 방위를 북쪽으로 인식했던 기록들을 전적으로 무시하기 어렵다. 대무신왕대의 전쟁 대상을 동부여로 보는 견해상에서는 동부여도 결국 방위상 북쪽으로 볼 수 있다고 하거나³⁹ 이 전

36 이귀숙은 추모왕대부터 속민이었던 동부여를 유리왕대의 고구려가 그 강대함을 두려워하여 전쟁을 피했다는 것은 모순이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 기사를 동부여로 보기 어렵다고 하였다. 이귀숙, 2007, 「고구려 초기의 왕통변화와 주몽 시조의식의 성립」, 『역사교육논집』 39, 137~138쪽 주 32 참조. “추모왕대의 속민”은 어디까지나 후대의 수사적인 표현에 지나지 않는다고 가정하면 그 자체가 모순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고구려본기 내의 서사에서 이질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은 분명하다고 생각한다.

37 『三國史記』卷13 高句麗本紀1 琉璃王 29年 夏 6月, “矛川上有黑蛙 與赤蛙羣鬪 黑蛙不勝死 議者曰 黑北方之色 北扶餘破滅之徵也.” 다만 여기에서의 ‘북부여’란 ‘북쪽에 (있는) 부여’라고 해석할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길림 일대의 ‘북부여’를 지칭한다고 단언할 수는 없다.

38 『三國史記』卷14 高句麗本紀2 大武神王 3年 冬 10月, “扶餘王帶素遣使 送赤烏 一頭二身 初扶餘人得此烏獻之 王或曰 烏者黑也 今變而爲赤 又一頭二身并二國之徵也 王其兼高句麗乎 帶素喜送之 兼示或者之言 王與羣臣議答曰 黑者北方之色 今變而爲南方之色 又赤烏瑞物也 君得而不有之 以送於我 兩國存亡 未可知也 帶素聞之 驚悔.”

39 임기환, 2016, 앞의 글, 174쪽.

쟁에서 북부여가 개입한 흔적으로 보는 견해도 제시되었다.⁴⁰ 그렇지만 전자의 경우 방위에 대해서도 ‘동부여’나 ‘북부여’라고 고구려를 기준으로 한 사방관념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상황에서,⁴¹ 동쪽의 부여에 굳이 실제 방위를 적용시켜 북쪽의 존재로 인식한다는 것은 역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일 것이다.

종합하자면 비록 동부여가 3세기 이전부터 존재하였다고 볼 수 있다고 해도, 그 이상으로 고구려본기의 세부 내용까지 모두 수용하여 고구려-동부여 간의 관계로 이해하기에는 여전히 어려운 부분이 많다. 즉, C군의 사료들이 모두 동부여에 관한 기록이었던지의 여부가 불분명한 점, 그리고 고구려-동부여 간의 지배-복속관계를 명확하게 적시하지 않고 있다는 문제는 유념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이들 기록의 문제점이 동부여의 3세기 이전 실존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이와 같이 상충되는 기록은 동부여가 장기간 북부여와 병존하면서, 관련 기록들이 북부여 관계 설화나 인식과 혼재되었던 것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싶다. 다만 이에 대해서는 IV장에서 다시 상론하도록 하며, 다음 장에서는 먼저 3세기 이전 동부여의 실제 위치와 고구려의 이 지역 복속 과정을 추정해보고자 한다.

III. 동부여의 위치와 고구려의 두만강 유역 진출

기존 연구에서 동부여에 관해 논란이 많았던 또 다른 문제는 그 위치 비정으로, 3세기 이전 존재 여부나 고구려본기의 관계 기록의 신빙성 문제와는 다른 맥락에서 논의되어온 사항이다. 동부여의 위치에 관한 기존 견해는 크게 송화강 일대설과 동해안설로 나눌 수 있는데, 송화강 일대설의 경우 세부적으로는 『위략』

40 이승호, 2018, 앞의 책, 90쪽.

41 池内宏, 1978, 『滿鮮史研究』上世1冊, 吉川弘文館; 武田幸男, 1989, 앞의 책, 343쪽; 노태돈, 1999, 앞의 책, 31쪽.

에 등장하는 부여의 시조 동명의 출자지인 색리국을 북부여로, 길림 일대의 부여를 동부여로 보는 견해가 있으며,⁴² 「광개토왕비」 시조 설화의 서술을 근거로 하여 송화강 이남에 별개의 부여가 존재했다고 추정하거나,⁴³ 4세기 전연의 침입으로 일시적으로 분리되어 성립된 것으로 보기도 한다.⁴⁴ 이들 견해는 곧 동부여가 북부여의 주 무대인 길림-장춘 지역과 인접한 지역에 위치한 같은 계통의 집단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그런데 A-1)의 ①에 따르면 동부여가 “동쪽 바닷가(東海之濱)”에서 성립되었다고 하였으므로, 그 위치는 동해안지역이나 적어도 이와 인접한 곳에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물론 이 기록은 『삼국사기』나 『제왕운기』의 「동명왕편」과 같은 후대의 사서에서 전하는 내용일 뿐만 아니라, 해당 전승의 설화적 색채로 인해 동부여의 위치를 비정할 결정적인 단서가 되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후대의 윤색을 감안한다고 해도 설화상에서 그 위치가 완전히 다른 지역의 존재로 변개되었을 것으로 보기는 힘들다. 게다가 동부여는 「광개토왕비」에서 전하는 것처럼 적어도 410년 전후까지 실제로 존재하고 있었는데, 이 시기 송화강 유역에 위치했던 나라가 이후 설화상에 전혀 접점이 없는 지역으로 위치를 변경하는 것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변화가 아니다.

즉, 4세기 고구려인들에게도 동부여란 동해안이나 그와 인접한 지역의 집단으로 인지되고 있었으며, 건국설화의 “동쪽 바닷가”에 동부여가 성립되었다는 전승도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형성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때문에 국내와 일본 학계 연구자들 다수는 동부여를 동해안지역, 혹은 그와 인접한 지역으로 비정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구체적인 위치에 대해서는 전통시기 유학자들부터 의견이 분분하며,⁴⁵ 오늘날까지 혼춘(琿春),⁴⁶ 화룡(和龍),⁴⁷ 돈화(敦化),⁴⁸ 동

42 송호정, 1997, 앞의 글, 199쪽.

43 이도학, 2005, 앞의 글; 이도학, 2006, 앞의 책, 36~41쪽.

44 李健才, 1982, 앞의 글.

45 전통시대 유학자들의 견해를 포함하여 좀 더 자세한 동부여의 위치 비정에 관한 연구사는 공석구, 1998, 앞의 책, 252~253쪽을 참조.

해 예족(僞靺鞨),⁴⁹ 용정(龍井)-연길(延吉)을 포괄하는 영역,⁵⁰ 연길(延吉)-돈화(敦化) 일대⁵¹등으로 다양하게 제시되었다.

그런데 사료상에서는 A-1)에서 동해안가에 있었다는 언급을 제외한다면 그 위치에 대한 단서는 찾을 수 없는 데다가, 그 실체가 불분명한 이상 고고학적 자료를 통한 추정도 용이하지 않다. 그렇지만 북부여와 ‘부여’라는 명칭을 공유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동부여는 적어도 그 정체성이 스스로든 타자에게든 길림 일대의 부여와 동일한 것으로 인지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동부여의 ‘동’의 경우 고구려의 입장에서 방위라고 해도, 부여라는 명칭은 자칭이거나 적어도 고구려인들이 북부여와의 친연성을 인지한 결과일 것이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3세기 이후 동부여 성립설에서 주목한 것처럼 『진서』의 기록에서 부여의 왕족이 도피한 지역인 옥저이자, 고고학적으로도 그 연관성을 찾을 수 있는 연변 일대가 동부여가 위치한 지역으로 주목된다. 기존 연구 중에서는 고고학 자료를 통해 그 위치를 검토한 연구에서는 화룡 일대에 발해시기까지 이 지역에 남아 있던 부여의 문화적 요소를 주목하여 이를 동부여의 위치로 비정하기도 하였다.⁵² 이에 따르면 이 지역에서 발해 정효공주(貞孝公主)의 묘지에서 출토된 묘지명에 따르면 정효공주는 사망으로부터 5개월 이후에 매장했다고 하여 5월장을 치른 것으로 나타난다. 반면 거의 비슷한 시기에 치러진 돈화 일대의 정혜공주(貞惠公主)의 묘지명에서는 고구려식 3년장을 치른 것으로 전하고

46 노태돈, 1989, 앞의 글.

47 박경철, 1989, 「高句麗軍事戰略考察을 위한 一試論」, 『사학연구』 40.

48 임기환, 2012, 「고구려의 연변 지역 경영-柵城과 新城을 중심으로」, 『동북아역사논총』 38, 69~70쪽.

49 공석구, 1998, 『高句麗 領域擴張史 研究』, 書景文化社, 267~268쪽.

50 김현숙, 2005, 『고구려 영역지배방식 연구』, 모시는사람들, 431쪽.

51 이승호, 2018, 앞의 글. 장병진 또한 해당 연구의 논지에 대체로 동의한다고 하여 고구려의 책성이 위치한 혼춘 일대에서부터 멀지 않은 지역으로 추정하였다. 장병진, 2019, 앞의 글, 66쪽.

52 박경철, 1989, 앞의 글, 16~17쪽.

있기 때문에, 장례 양식에서 차이를 보이는 것이다.⁵³ 때문에 해당 연구는 이것이 『위략』에서 전하는 부여의 장례로서,⁵⁴ 곧 이 지역에서 부여의 문화가 잔존한 결과로 보기도 한다.⁵⁵ 나아가 이를 근거로 하여 이 지역은 길림 일대와는 공간적으로 격절된 또 다른 부여로서, 곧 동부여로 볼 수 있다고 비정하였다.

다만 정효공주의 사례를 부여의 풍속으로 인정한다고 해도 동부여와는 차이가 매우 크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 동부여의 존재까지 확정하기는 어려우며, 이외에는 사실 동부여의 존재를 확인할 만한 직접적인 증거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 문제는 동해안지역에 동부여를 비정하는 연구에 공통적으로 지적될 수 있는 문제로, 다른 지역의 경우에도 동부여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는 고고학적 자료는 확인할 수 없다.⁵⁶ 물론 동부여가 3세기 이후 왕족들의 이주로 성립되었다고 본다면 한시적으로 이주된 정권이기에 현지의 부여 관계 고고학 자료가 빈약함은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3세기 이전에 동부여가 존재했었다는 전제하에서라면 이 고고학 자료의 결여는 향후 보완이 필요한 사항이다.

그렇지만 이 문제는 ‘동부여’라는 사료상의 존재를 어떤 집단으로 이해하느냐에 따라 일부나마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앞의 『삼국사기』나 『삼국유사』에서 전하는 동부여의 기원은 비록 세부 사항에 차이가 있다고 해도, 동부여가 북부여의 지배계층이 이주하여 형성된 집단으로 나타난다. 이것이 역사적 사실성을 담보하고 있다면, ‘동부여’의 기층문화는 본래 현지 주민들의 그것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었다고 해도 이상한 일은 아니다. 즉, 동부여는 북부여처럼 현지의 독자적인 문화를 형성한 집단보다는 별개의 문화권 내에서 문화된 지배계층

53 논자에 따라서는 이 차이가 발해의 당나라식 葬制의 도입의 결과로 이해하기도 한다. 정효공주와 정해공주묘 묘지명의 차이와 관련 문제는 윤선태, 2007, 「渤海文字資料의 現況과 課題」, 『大東漢文學』 26, 146~148쪽 참조.

54 『三國志』 卷30 魏書30 東夷傳 夫餘, “魏略曰 其俗停喪五月 以久爲榮 其祭亡者 有生有熟.”

55 송기호, 1984, 「渤海「多人葬」制에 대한 研究」, 『韓國史論』 11, 76쪽.

56 송기호, 2005, 앞의 글, 34쪽; 임기환, 2012, 앞의 글, 69~70쪽.

일부가 부여의 출자 인식을 표방했던 것이다.

이 점에서 추모왕 때부터 고구려의 속민이었다는 기록의 기원을 『삼국사기』의 동명성왕조에서 전하는 북옥저 정벌 기록으로부터 파생된 인식이었다고 보는 연구들이 주목된다. 해당 연구에서는 고구려인들에게 북옥저란 동명성왕대에 복속시킨 지역으로서 인식되고 있었으며, 이에 따라 북옥저 지역에 위치한 동부여를 추모왕(동명성왕)대부터 속민으로서 존재하였다는 「광개토왕비」의 인식이 나타났다고 보았다.⁵⁷ 이 견해는 지금까지 물질자료상의 박약함으로 인해 여러 난점을 주었던 동부여의 실체 문제를 이해하는 데 여러 단서를 준다. 즉, 이들은 북부여로부터 이주한 정권이었지만 그 하위의 주민집단은 북옥저의 기층문화로 비정되는 단결-크로우노프카 문화를 기저로 했던 집단으로, 이것이 북옥저 관련 고구려의 인식과 맞물리는 계기가 되었던 것이다. 이 견해를 받아들인다면 동부여는 고구려가 책성 일대로 점선하던 두만강 유역, 혹은 단결-크로우노프카 문화를 보유한 주민집단의 거주지에 형성된 정치체로서, 이는 이후 “추모왕대부터 속민”이라는 인식의 기원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또 이 지역이 길림 일대의 북부여로부터 같은 문화를 보유한 지배계층, 혹은 주민집단의 이주가 가능한 환경이 마련되어 있었다는 점도 이를 뒷받침한다. 최근 고고학 연구에서는 단결-크로우노프카 문화의 주민집단이 이른 시기부터 송화강 일대의 주민집단(북부여)과의 문화 교류가 있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단결-크로우노프카 문화에 속하는 러시아 니콜라예프카에서는 쌍조형 축각식동검이 출토되고 있으며, 이들은 부여의 외각 지역에 집중적으로 출토되는 유물이다.⁵⁸ 이를 들어 부여와 연해주 일대의 교류 가능성을 검토하면서 길림에서 연해주로 이어지는 교류의 네트워크가 존재하였고, 길림의 부여 문화와 단결-크로우노프카 문화가 상호 밀접한 관련 속에서 발전하였을 가능성이 제

57 이승호, 2018, 앞의 글, 285~286쪽.

58 축각식동검의 분포에 대한 검토는 박선미, 2016, 「한반도 축각식검을 통해 본 동서 교류」, 『아시아문화연구』 41 참조.

기되었다.⁵⁹ 곧, 이 시기 부여의 정체성을 가진 주민집단이 두만강 유역에 형성되며 길림과 교류하고 있었고, 이들이 동해안지역에 거주하는 동시에 이를 또 다른 부여로 보는 인식은 이를 기반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이다.⁶⁰

부여의 중심지인 길림과 연해주 남부 해안인 니콜라예프 사이의 교통로로는 발해시기 발해의 ‘일본도(日本道)’였던 길림-돈화-연길-혼춘을 거치는 경로였다.⁶¹ 곧, 연길 지역과 그와 인접한 화룡 일대에도 부여계 문화가 유입되었으며, 이 지역 주민집단 중에서 부여와의 친연성을 가진 집단이 존재하였을 가능성은 높은 것이다. 또 축각식동검과 같은 유물은 위세품의 성격이 강했다는 점을 보면 북부여의 문화를 수용한 주체는 주민집단보다는 그 지배계층에게 찾아야 할 것이다. 곧 이전 시기부터 이 경로상에서는 다양한 집단들이 길림 일대의 북부여와 관계를 맺고 있었던 것이다. 만약 그렇다면 고구려본기에서 해부루가 동해안지역으로 이주하여 동부여를 건국하였다는 전승도 이를 바탕으로 형성되었다고 볼 수도 있다. 곧, 실제로 이 지역과 본래 부여와의 친연성을 기반으로 하여 부여계 지배자집단이 이주하거나 혹은 자체적으로 부여의 정체성을 표방하였으며, 이들이 고구려에게 또 하나의 부여로 인식되어 ‘동부여’로 칭했던 것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싶다.

이상의 사항을 감안하여 동부여의 위치는 이 경로상에서 북옥저의 기층문화가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는 연길 일대에서부터 앞서 부여계 문화의 요소들이 간

59 강인옥, 2015, 「三江平原 滾兔嶺·鳳林문화의 형성과 勿吉·豆莫婁·靺鞨의 출현」, 『고구려발해연구』 52, 131~132쪽.

60 이승호는 길림 일대의 (북)부여 세력이 동쪽의 돈화-연길-혼춘 일대의 경로를 통해서 점차 확장하면서 동부여가 성립되었으며, 책성인 혼춘을 제외한 돈화-연길 일대에 동부여의 위치를 비정하였다(이승호, 2018, 앞의 글). 동부여의 성립 과정과 상기한 북옥저와의 관련성을 감안하면 설득력이 높은 견해이다. 다만 돈화 일대는 동해로부터의 거리 문제나 북옥저의 기층문화로 비정되는 단결-크로우노프카 문화의 흔적이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돈화보다는 연길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이 더 유력하다고 본다.

61 日本道の 구체적인 경로 비정과 분석은 방학봉, 1999, 「延邊地區의 渤海遺蹟과 日本道」, 『백산학보』 50 참조.

접적이거나 간취되는 화룡을 포함한 지역, 곧 연길-용정-화룡을 잇는 해랑강 일대가 가장 유력하다고 생각된다.⁶² 고구려의 중심지였던 환인-집안 일대에서부터 책성 방면으로 나아가는 교통로에 대해서는 이전부터 여러 연구가 제출되었지만, 적어도 초기에 해당하는 기간에는 ‘동해로(東海路)’⁶³라고 칭해지는 경로를 이용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국내성에서 압록강을 거슬러 올라가 혜산에 이르러, 마천령산맥을 넘어 길주에 다다른 교통로이다. 그리고 길주에서는 청진을 지나 두만강 하류에 다다른 경로를 취하게 된다.

이 경로상에서 길주에 도달하면 청진 일대까지는 동해안을 따라 바로 북상하는 길을 취했겠지만, 청진에서부터는 몇 가지 추가적인 가능성이 있다. 하나는 조선시대의 수성도(輸城道)의 주 경로로 청진 남쪽의 경성을 기점으로 하여 북쪽으로 부령을 지나 회령에 도달하여, 두만강을 우회하며 종성-온성-경원을 지나 경흥으로 이어지는 경로이다. 이 경로는 조선 전기의 함경도 병마절도사의 6진 순행 경로이기도 하였다.⁶⁴ 또 수성도에서는 경성-회령 외에도 분기가 있었는데, 그 하나로 상기 경로에서 보다 남쪽의 해안가에 인접한 지역을 경유하는 경로로, 이 지역의 속역(屬驛)인 웅무-덕명-녹야-역산-회수를 통하는 경로로서 경흥에 도착한 병마절도사가 다시 경성 방면으로 돌아가는 경로였다.⁶⁵

62 이 지역은 김현숙, 2005, 앞의 책, 431쪽에서 이미 동부여의 위치로 비정되었지만, 필자의 경우 3세기 이전에 이미 이 지역에 동부여로 볼 수 있는 정치집단이 형성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

63 여호규, 1995, 「3세기 후반~4세기 전반 고구려의 교통로와 지방통치조직」, 『한국사연구』 91, 27쪽; 여호규, 2014, 『고구려 초기 정치사 연구』, 신서원, 517~519쪽. 또는 혜산-길주까지의 경로를 ‘동해로’로 명명하고, 길주에서 훈춘까지의 경로를 ‘책성로’로 명명하여 책성에는 이 두 경로를 거치는 루트로 비정하기도 한다(조법중, 2011, 「高句麗의 郵驛制와 交通路-國內城시기를 중심으로-」, 『한국고대사연구』 63, 68~70쪽). 이 외에 백두산 북쪽을 우회하는 ‘옥저방면로’가 제시되기도 하였지만, 적어도 초기에는 전자의 경로를 이용했다고 본다. 관련 연구사는 이종록, 2020, 「1~3세기 고구려의 두만강 유역 지배방식과 柵城」, 『역사와 현실』 116, 184쪽 참조.

64 양정현, 2021, 「조선 전기 驛道制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5쪽.

65 양정현, 2021, 앞의 책, 205쪽.

이 경로가 고구려 시기에도 책성으로 통하는 주 경로로 사용되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일단 책성 일대를 확보한 이후에는 우회적인 경로로 사용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그런데 이들 경로 중 어느 쪽을 취하든 연길-화룡 일대, 특히 화룡 일대는 책성 방면 교통로상에서 중간 거점인 회녕-중성 일대에서 분기하여 별개의 경로로도 진입할 수 있었다. 알려진 것처럼 연변 지역에는 다수의 고구려의 성이 축조되어 있는데, 이 중 연변지역의 조동산성(朝東山城)과 두만강을 사이에 두고 맞은편에 축조된 함경북도의 운두산성(雲頭山城)은 이 교통로의 존재 가능성을 시사한다. 운두산성은 북한 회령시 성북리의 두만강변에 위치한 운두산에 자리 잡고 있으며, 그 둘레길이는 6km에 달하는 대형 산성이다.⁶⁶ 그 축조방식은 사각추의 다듬돌로 외면쌓기를 기본으로 하되, 양면쌓기가 배합되어 있다. 이들 축조 방식이나 입지를 감안하여 운두산성은 북한의 연구자들에 의해 고구려 시기에 초축되었으며, 이후 발해 시기에도 연용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⁶⁷ 그리고 조동산성은 용정시 부유향(富裕鄉)의 조동촌에서 서쪽으로 1km 지점 한왕산(漢王山) 정상부에 축조되었는데, 두만강은 산의 서남쪽 아래로 지나가고 있다.⁶⁸ 한 연구에서는 조동산성의 축조 방식을 강 맞은편에 축조된 운두산성과 비교하여, 조동산성 또한 고구려에서 축조된 성으로 비정하였다.⁶⁹

운두산성과 조동산성은 두만강을 사이에 두고 마주하는 형태로 배치되어 있다. 그리고 운두산성이 위치한 회령에서 부령을 지나 남하하면 청진에 이르게 되며, 이는 앞서 살펴본 동해안로로 합류하게 된다. 즉, 연길-용정-화룡 등으

66 田中俊明, 1995, 「高句麗の山城」, 『高句麗の歴史と遺跡』, 中央公論社, 392쪽.

67 사회과학원 편, 2002, 『동해안일대의 발해 유적에 대한 연구』, 중심, 62~63쪽.

68 吉林省文物志編委會主編, 1984, 『龍井縣文物志』, 吉林省文物志編修委員會, 72~75쪽.

69 이성제, 2009, 「高句麗와 渤海의 城郭 運用 방식에 대한 기초적 검토: 延邊地域 분포의 성곽에 대한 이해를 겸하여」, 『고구려발해연구』 34, 179쪽.



그림 1 고구려-동부여 방면 교통로⁷⁰

로 이어지는 지역과 함경도 일대의 동해안과 별도의 경로로 연결되며, 두 산성은 이 경로에서 두만강을 도강하는 지점을 관찰했던 것이다. 해당 경로를 제기한 연구에서는 본래 책성 방면으로 백두산 북쪽을 우회하는 경로가 먼저 구축되었으며, 이후 함경도 동해안 일대로 남하하는 경로가 추가적으로 구축되고 조동산성과 운두산성은 그 경로의 거점으로 보았다.⁷¹

그러나 책성 방면의 교통로가 동해 연안을 따라가는 경로였다고 보면 두 산

70 이종록, 2022, 「高句麗 前期 동해안지역 복속과 濊族社會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58쪽의 지도 일부 편집.

71 이성제, 2009, 앞의 글, 179~180쪽.

성이 관찰했던 경로는 반대로 화룡-연길로 통하는 경로의 거점으로서 새롭게 구축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즉, 본래 길주-청진-회령-종성-훈춘으로 이어지는 경로상에서, 새롭게 회령에서부터 분기하여 용정, 화룡 일대로 통하는 경로가 신설되었다는 것이다. 이는 책성 이서 지역으로의 침투가 보다 진전된 결과로 여겨진다. 곧, 기존의 연길 일대가 동해안로를 따라 책성(훈춘)을 거쳐 관리되던 우회적인 경로에 비해 이 지역의 진출 과정에서 보다 단축된 경로의 필요성으로 인해 해당 산성들이 축성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기존 청진-훈춘(책성)으로만 이어지던 경로가 보다 세분되어, 고구려에게 보다 이 지역의 원활한 지배를 가능하게 한 교통로 내지 거점의 구축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해당 경로는 고구려가 이 지역에 위치한 동부여 방면으로의 지배가 강화되면서 신설되었다고 추측된다.⁷²

이렇게 볼 경우 동부여가 고구려로부터 비교적 장기간 그 존재를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러한 입지도 반영되었다고 할 수 있다. 즉, 고구려가 책성 방면으로 통하는 교통로가 동해안로를 따라 진행되었던 상황에서, 이 경로상에서 비껴나가 있었던 지역의 동부여에 대해서는 아직 직접적인 지배력이 미치지 못했던 것이다.⁷³ 또 고구려에서 훈춘 이서 지역인 도문강-해란강-부르하통하 등의 지역은 서천왕대의 신성의 등장 시점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보다 직접

72 화룡-청진의 경로를 화룡-동흥촌옛성-영성옛성-동성용-두만강-종성-삼상봉-회령-청진이라는 경로로 비정하여 훈춘과 화룡 사이의 분기점을 종성으로 본 견해도 있다(윤재운, 2002, 「南北國時代 貿易研究」,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63쪽). 다만 해당 견해는 발해시기 중경에서 신라로 통하는 경로에 대한 검토로, 비록 고구려 시기에도 이 경로가 동일하였을 가능성도 있으나 필자는 운두산성, 조동산성의 존재를 감안하여 이 시기의 경로상 분기점은 회령으로 보는 설을 취신한다.

73 김현숙은 연길 이서 지역에서 동부여의 위치를 비정하며 4세기 전반까지 고구려에게 실질적인 통제는 거의 받지 않았지만, 4세기 후반 고구려의 지방통치조직의 정비 과정과 함께 고구려 동북지역의 광역 행정구역 안에서 하위 단위로서 책성에 파견된 수사의 간접적 관리를 받았다고 보았다(김현숙, 2005, 앞의 책, 427쪽 및 433~435쪽 참조). 필자도 이 견해에 따르고 있지만, 이러한 체제는 3세기 이전에 그 기초가 성립되었던 것으로 생각한다.

적인 지배력 침투는 책성(흔춘) 일대에 대한 관리 기록보다 2세기 이상 경과된 시점에서 나타난다.⁷⁴ 곧, 고구려의 이 지역에 대한 축성과 지배력 강화는 흔춘 방면보다 보다 늦은 시기에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한다.

만약 그렇다면 3세기 모용선비로 인해 패망을 겪은 부여인들이 이 일대로 이주했던 것은 단순한 외지로의 도피가 아니라, 이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길림 일대의 부여와의 친연성에 근거한 결과였을 가능성도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즉 이 지역은 본래 부여인들에게 친숙하여 별개의 분파가 성립되기도 했던 곳으로, 부여 왕족이 옥저로 도피했던 것은 이 친연성에 기인했다는 것이다. 부여의 왕족이 이주했던 시점에서 이 지역은 이미 고구려가 책성, 곧 북옥저(단결-크로우노프카 문화) 그 자체로 칭해지던 ‘치구루’를 중심으로 영향력을 일정 부분 행사하였지만, 현지에 직접적인 지배가 이루어진 곳은 아니었다. 곧, 고구려가 책성을 중심으로 영향력을 행사하였던 단결-크로우노프카 문화의 주민집단(=북옥저)의 거주지이자, 이전 시기 부여와도 일정한 관계가 있던 지역으로의 이주였으며, 3세기 부여인들의 이주는 이를 배경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고구려가 이른 시기부터 동부여와 일정한 관계를 맺었지만, 이후 「광개토왕비」에서 전하는 것처럼 조공을 중단하기도 하는 반독립적인 위치에 있었던 배경을 이해할 수 있다. 즉, 책성 방면으로 진출하였던 고구려의 입장에서 연길-화룡 일대는 회령-중성 일대의 분기점으로 접근이 용이하기도 하였지만, 실제 고구려가 직접적인 지배력을 침투시킨 지역은 책성 일대로 집중되었던 사정의 반영이었던 것이다. 곧, 책성과 이를 통하는 교통로의 유지를 중심으로 하는 이 지역의 지배체제가 구축되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외곽에 위치한 연길 이서 지역에 위치했던 동부여는 입지상 반독립적인 위치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태조왕대에 동부여 관계 기록이 집중적으로 나타난다

74 신성이 사료상에서 처음 등장하는 것은 276년에 해당하는 西川王 7년의 일이지만(『三國史記』 卷17 高句麗本紀5 西川王 7年 夏 4月), 그 축조 시점은 명확하지 않다. 그러나 ‘신(新)’이라는 용어를 감안한다면 사료상의 등장 시점과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는 점, 나아가 이 시기에는 직접적으로 관계를 맺었지만 그 후로는 별다른 기록이 나타나지 않는 상황과도 관련이 있다고 여겨지며, 이는 다음 장에서 자세하게 살펴보기로 한다.

IV. 고구려 초기 동부여 지배의 양상

Ⅱ 장에서 논의한 것처럼 동부여를 3세기 이전의 실체로 볼 경우, 이 시기에 고구려와 동부여의 관계가 어떤 것이었는지는 현존 사료상에서 유추할 수 있는 단서는 많지 않다. 그렇지만 여러 관련 기록에서 고구려가 동부여에게 이른 시기부터 우위가 성립되었던 것으로 전하며 이것이 역사적 사실을 반영했다고 가정한다면, 이러한 관계의 성립의 하한선은 태조왕대로 볼 수 있다.

D-1) 五十三年 春正月 扶餘使來獻虎 長丈二 毛色甚明而無尾.⁷⁵

D-2) 王幸扶餘 ①杞太后廟 存問百姓窮困者 賜物有差 肅愼使來 獻紫狐裘
及白鷹白馬 王宴勞以遣之.⁷⁶

위 기록에서 ‘부여’는 동부여 혹은 북부여 여부가 분명히 명시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들은 고구려에게 헌상품을 바치거나 국왕이 직접 행차하여 그 주민을 ‘백성’이라고 표현하고 있어, 마치 고구려의 지배하에 있는 집단처럼 묘사하였다. 때문에 고구려와의 국세 차이를 감안할 때 이 부여를 북부여로 보기는 어려우며, 역시 「광개토왕비」에서 ‘추모왕대부터 속민’으로 기록한 동부여로 보아야 할 것 같다. 비록 연구자에 따라서는 이것을 외교 행위로 정의하며 D-1)의

75 『三國史記』卷15 高句麗本紀3 太祖大王 53年 春 正月.

76 『三國史記』卷15 高句麗本紀3 太祖大王 69年 冬 10月.

부여를 북부여로 추정한 경우도 있지만⁷⁷ 서로 비슷한 시기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D-2)에서 북부여인들을 “백성(百姓)”이라고 칭하는 것은 이 질적으로 보인다.⁷⁸ 게다가 고구려와 북부여가 장기간 반목하였던 관계를 감안한다면 이 시기 북부여가 현상품을 바쳤을 가능성도 높지 않다는 지적도 유념된다.⁷⁹ 때문에 위의 기록들은 모두 동부여에 해당하며, 이 시기 고구려에게 반종속관계가 성립되어 고구려에게 현상품을 바치거나, 국왕이 직접 이 지역에 방문했던 것으로 해석해야 할 것 같다.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태조왕 69년에 “태후묘에 참배(D-2, ①)”했다는 언급이다. 이 태후에 대해서는 고구려본기에 전하는 대로 부여 출신인⁸⁰ 태조왕의 어머니로 보는 견해들이 있는가 하면⁸¹ 시조 주몽의 어머니인 유휘花(柳花)의 신묘(神廟)로 보기도 한다.⁸² 전자의 경우 태조왕의 어머니가 부여 출신이라고 해도 고구려에서 수렴정정까지 하였던 인물이 부여에 매장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문제가 지적된다.⁸³ 한편, 후자의 경우를 취한다면 기원후 2세기 초에 고구려의 시조의 출자지는 동부여로 인식되었다는 의미가 되지만, 이 경우 「광

77 조우연, 2019, 『天帝之子: 고구려의 왕권전승과 국가제사』, 민속원, 231쪽.

78 위 기록에서 “存問百姓窮困者”를 수행했던 것은 이 기사 직후 부여에서 돌아왔다는 기록이 별도로 존재하기 때문에(『三國史記』卷15 高句麗本紀3 太祖大王 69年 11月 “王至自扶餘”) 이는 부여(동부여)에 행차했던 시점에서의 조치로 이해된다.

79 이승호, 2018, 앞의 글, 290쪽.

80 『三國史記』卷15 高句麗本紀3 太祖大王 元年 11月, “太祖大王 或云國祖王 諱宮 小名於漱 琉校璃王子古鄒加再思之子也 母太后扶餘人也.”

81 이종태, 1990, 「고구려 太祖王系의 등장과 朱蒙國祖意識의 성립」, 『北岳史論』 2; 김현숙, 1994, 「고구려의 解氏王과 高氏王」, 『大丘史學』 47, 32~34쪽; 김미경, 2007, 「高句麗 前期 對外關係 研究」,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74쪽; 강진원, 2015, 「高句麗 國家祭祀 研究」,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72쪽.

82 최광식, 1994, 『고대한국의 국가와 제사』, 한길사, 178~179쪽; 채미하, 2006, 「高句麗의 國母信仰」, 『北方史論叢』 12, 342~347쪽; 장병진, 2019, 앞의 글, 72~73쪽.

83 장병진, 2019, 위의 글, 72쪽.

개토왕비」에서는 4세기 무렵 북부여를 시조의 출자지로 인식하는 이유를 해명할 수 없게 된다. 비록 D-2)의 태후묘의 정체에 대해서는 분명히 단언하기 어렵지만, 적어도 태조왕의 모친을 부여 출신이라고 한 기록에서의 부여란 동부여를 지칭했다고 여겨진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D군 사료는 동부여로 보아야 하며, ‘백성’이라고 칭한다거나 현지의 묘소에 참배할 수 있었을 만큼 양자 간의 밀접한 관계 성립은 역시 태조왕의 모친이 동부여 출신이라는 데에서 기원했다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그런데 같은 기록에서는 태조왕의 부친은 유리왕의 아들인 고추가(古鄒加) 재사(再思)였다고 전하고 있다. 이를 그대로 수용한다면 태조왕은 유리왕의 손자인 것이 되지만, 태조왕과 유리왕의 나이 차이를 감안하면 이는 사실일 가능성은 적다. 때문에 이 기록을 태조왕계를 시조에서 유리왕으로 이어지는 계보와 무리하게 연결시킨 결과 오류가 발생한 윤색이거나,⁸⁴ 재사를 고구려 왕계 이외의 인물로 보기도 한다.⁸⁵ 태조왕의 왕계 문제에 대해서는 종래 다양한 연구에서 논의해왔기에 여기에서 다루기는 어렵지만, 적어도 유리왕-태조왕의 계보상에서 커다란 단절이 존재했던 것은 거의 모든 연구자가 인정하고 있다.⁸⁶

그러나 실제 태조왕의 계보가 유리왕과 이어지는지의 여부와는 별개로, ‘고추가’로 칭해졌던 것을 보아 재사를 고구려의 왕족이나 유력 세력가로 보는 데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다.⁸⁷ 또 태조왕의 모친도 동부여 출신이라는 추정 외에는 그 신분을 추정하기 어렵지만, 재사가 고구려의 왕족이나 세력가라면 역시 그 부인도 부여의 유력자 출신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태조왕의 부모

84 김철준, 1975, 『韓國古代社會研究』, 知識産業社, 47쪽; 노태돈, 1999, 앞의 책, 80~84쪽.

85 鄭早苗, 1979, 「高句麗王系小考」, 『旗田巍博士古稀朝鮮歷史論集』上, 龍溪書舍, 111쪽.

86 여호규, 2014, 앞의 책, 253쪽.

87 여호규, 2014, 위의 책, 265쪽에서는 계루부 왕실을 구성한 소혈연 집단의 적통을 이은 인물로 추정하였다. 전후 맥락상 이 견해가 가장 실상에 부합한다고 여겨 필자도 이를 따른다.

는 이전 시기 고구려의 유력자와 동부여의 유력자와의 혼인, 곧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루어진 지배계층 간 혼인관계였을 가능성이 높다.

이상을 종합한다면 고구려가 동부여에 지배력을 확보했던 과정에 하나의 가설을 제기할 수 있다. 그것은 갈사국 투항 당시 그 왕족을 고구려의 중앙으로 흡수했던 것처럼, 고구려가 동부여에서도 지배계층의 구성원을 고구려의 왕실 구성원과의 결합 내지 흡수를 통하여 영향력을 확보했다는 것이다. 즉, 태조왕의 모친이 고구려의 지배세력의 일원과 혼인했던 것은 동부여에 대한 복속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던 것으로 추정된다. 고구려는 태조왕 이전 시기 이 지역에 진출하는 과정에서 화룡-연길 일대의 동부여와도 접선하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지배계층의 혼인을 통한 모종의 협력관계가 성립되었다는 것이다.

여기서 주목되는 사실은 태조왕의 부모가 고구려-동부여 간의 지배계층의 혼인이라고 가정해도 그 상황을 적시하는 기록은 물론이고, 앞서 설명한 것처럼 태조왕 부모의 계보 자체가 고구려본기에서 모호하게 나타나는 점이다. 반면 대무신왕과 태조왕 사이에 계보상의 커다란 단절이 있었음에도, 정작 대무신왕대의 동부여 관계 기사들은 태조왕대의 기록과 연속성이 나타나고 있다. 만약 계보의 단절이 있었다면 이들에 걸쳐 나타나는 갈사국 내지 부여왕 종제 세력에 대한 기록에도 단절이 있어야 했을 것이다. 그렇지만 이들 기사는 연속되는 기사들로 나타날 뿐만 아니라, 그 세대수까지 고구려본기의 왕계와 일치하고 있는 점은 눈에 띄는 부분이다. 예컨대 갈사국의 건국 기사는 비록 대무신왕 5년의 정벌 결과로 기록되어 있지만, 엄밀히 말해 해당 기사 자체는 대무신왕대 고구려와 직접 관련이 있는 내용이 아니며, 손자인 도두가 태조왕대 고구려에 항복하며 고구려와 직접 연결고리가 발생하고 있다. 즉, 상기 이해에 따르면 대무신왕대와 태조왕대에는 기록상의 단절이 있어야 했을 것임에도, 갈사국의 항복 기록은 대무신왕-태조왕대에 연속해서 나타나는 기록이라는 것이다.

또 태조왕 16년에 고구려로 항복했다는 갈사국의 도두(都頭)는 부여왕 대소의 동생이었다는 갈사왕의 손자로 나타나고 있어, 고구려본기의 유리왕-태조왕의 관계와 같다. 즉, 1) 유리왕·대무신왕-대소·갈사왕, 2) 재사-도두의 아

버지이자 갈사왕의 아들, 그리고 3) 태조왕-도두로 각각 그 세대수가 일치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유리왕-태조왕의 계보처럼 갈사왕과 도두의 관계 또한 이에 맞춰 유사한 세대수로 설정되었을 가능성을 암시한다. 물론 유리왕-태조왕의 관계와는 달리 도두가 부여왕의 손자라는 계보 자체는 고구려본기의 기년을 그대로 취신한다고 해도 연령상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 그렇지만 유리왕-재사-태조왕이라는 계보가 기존 연구에서 보는 것처럼 태조왕의 계보를 유리왕과 무리하게 연결시킨 결과라면, 자연 그 계보가 병렬적으로 이어지는 갈사국의 지배자들의 계보 또한 작위적으로 설정된 결과였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볼 경우 갈사국의 기원에 대한 설화 자체가 대무신왕과 그의 부여와의 전쟁 전승에 연결하여 형성되었으며 양국의 지배자들 간에 세대수가 일치된 것은 그 결과물이었다는 추측도 가능하다.⁸⁸ 즉, 갈사국과 같은 동부여 출신들이 고구려에 투항한 이래, 자신들의 기원인 동부여 약화-갈사국 성립 배경을 ‘대무신왕대 부여와의 전쟁’이라는 전승으로 설정하였다는 것이다. 도두가 이후 고구려에서 우태로 봉해지며 고구려의 지배세력으로 편입되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후 고구려본기 등에서 전해지는 동부여 관계 기록 내지 동부여출자설에서 이러한 인식이 반영되었을 가능성은 충분하다. 나아가 고구려에 내투할 당시 갈사국을 언급하는 부여왕의 종제 세력의 내투도 서로 같은 인식상에서 발생하였거나, 혹은 밀접한 상호관계를 가지고 형성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 추정이 옳다면 고구려와 동부여의 관계에 대한 기록이 고구려본기에서

88 다만 『삼국사기』 고구려본기 대무신왕 32년조에서는 왕자 호동의 사망을 전하면서, 그 모친을 갈사왕의 손녀로 기록하고 있어 도두의 세대와는 다른 인물의 존재를 전하고 있다(『三國史記』 卷14 高句麗本紀2 大武神王 15年). 그런데 왕자 호동은 같은 기원후 32년의 사실로 기록된 ‘樂浪國’ 관계 설화에서 낙랑국왕의 딸 최리와 혼약하는 등 성인에 가깝게 묘사되기 때문에, 이 기록의 계보도 그대로 취신하기에는 의문이 든다. 현재로서는 고구려와 갈사국의 인물 계보에 대해서는 확정하기 어렵지만, 갈사국왕의 손녀가 대무신왕의 둘째 왕비가 되었다는 기록도 이 시기 동부여로부터 내투한 집단의 계보를 대무신왕과 연결시키려는 시도의 하나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싶다.

모호하게 나타나는 이유, 그리고 「광개토왕릉비」에서 추모왕대의 속민이라는 막연한 인식, 그리고 이들이 『위서』와 같은 사료에서 대무신왕 혹은 막래에게 멸망했다고 하는 이유가 이로부터 비롯되었다고 추측할 수 있다. 전술한 것처럼 태조왕대에 혼인관계나 이를 토대로 한 고구려의 우위-조공관계의 성립이 실제 이루어졌던 상황은 고구려본기에서 보이지 않는다. 그렇지만 이 과정이 태조왕의 부모와의 혼인관계에 연장선상에서 있었다면, 고구려본기에서 단절이 있었던 태조왕의 계보와 함께 이미 후대에는 사료가 망실되거나, 혹은 계보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사라졌을 가능성은 농후하다. 이로 인해 고구려인들의 기억에서도 단지 먼 옛날부터 우위를 가지고 있었다는 인식만 남게 되었으며, 그것이 「광개토왕릉비」에서 추모왕대의 속민이라는 막연한 인식을 전한 배경으로 여겨진다.

그런데 『위서』 고구려전이 저본으로 삼은 전승상에서 동부여는 시조의 출자지로 설정되었던 만큼, 자연 그 흥망에 대해서도 「광개토왕비」보다 상세한 내용이 작성되었을 것이다. 그 결과 이전 시기, 곧 태조왕대부터 편입된 동부여 출신들로부터의 전승이 포함되는 동시에 그 복속 시기도 보다 구체적으로 나타나게 되었던 것이다. 즉, 본래 태조왕대의 부여 관련 기록과 이 시기 고구려에서 일정한 기반을 가졌던 동부여의 인사들이 가진 인식이, 이후 별도의 계통으로 전해진 대무신왕대의 대부여 전쟁 관련 기록들을 취신하고, 이를 동부여로서 번개 내지 혼합하였다는 것이다.⁸⁹

다시 말해서 『위서』의 막래의 부여 정복이란 본래 태조왕대까지 고구려로 편입된 동부여계 집단이 자신들의 출신과 동부여의 약화를 선대의 왕(막래 혹은

89 장병진은 대무신왕의 둘째 부인이 갈사왕의 손녀라는 점, 태조왕의 모후가 부여(동부여) 출신이라는 점, 그리고 대대로 고구려의 왕비를 배출하였던 연나부에 부여왕 종제가 안치되었다는 점을 들어 동부여의 건국 전승이 고구려의 왕실에서 자연스럽게 수용하였을 것으로 추측하였다(장병진, 2019, 앞의 글, 73~74쪽). 필자도 해당 연구의 의견에 전반적으로 동의하지만, 이들이 대무신왕의 전쟁 및 인물들과 연결된 것은 후대에 북부여 관계 기록과 혼합된 결과로 생각한다.

대무신왕)에 연결시키는 인식의 결과물이었다고 생각한다. 고구려본기의 유리왕-대무신왕의 부여와의 전승이란 대부분이 ‘북방의 강대한 세력’인 북부여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동부여에 관한 전승이 아니었다. 그러나 동부여에 관한 전승이 보다 구체화되는 동시에, 동부여출자설이 고구려의 공식적인 시조 출자 전승이 되는 과정에서 북부여에 관한 전승 또한 모두 동부여의 그것으로 흡수했던 것으로 생각되는 것이다. 즉, 『위서』에서 전해졌던 막래의 부여 정벌이나 이후 고구려본기에서 나타나는 기록들은 5세기 이전 북부여를 무대로 형성되었던 설화를 동부여출자설에서 취신하면서, 동부여의 전쟁 기사로 변모된 것이다.

추측에 불과하지만 대무신왕의 부여 정벌 실패 후 스스로를 반성하고, 백성들이 이에 감동하여 고무되었다는 내용(C-1, ①)은 하나의 서사를 끝맺는 데 적합한 형태를 가지고 있어 본래는 이것이 북부여와의 전쟁에 관한 전승의 완결이었던 것이 아니었을까 싶다. 다만 대무신왕대의 대 부여 전쟁 기록의 역사적 사실성의 여부나 설화적 기원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다루기는 어려우며, 대무신왕대에 두만강 유역에 위치한 정치집단인 ‘동부여’와 실제로 상쟁을 벌였을 가능성도 부정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이 기록이 모두 동부여에 대한 전승으로 이해하기에는 북부여에 관한 요소를 다수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본래 북부여 관련 전승에서 동부여 관련 요소가 혼합된 결과로 이해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한다.⁹⁰

이와 같이 동부여는 태조왕대까지 고구려에게 일정한 복속관계가 형성되었지만, 이 지역의 주민집단, 곧 ‘동부여’로 칭해진 집단 중에서 적어도 지배자계층에 한해서는 부여의 정체성을 유지한 채 명맥을 이어왔던 것 같다. 이는 앞서 살펴본 것처럼 『삼국지』 동이전 동옥저조에서 옥저의 북쪽에 부여가 존재했다고 하는 데에서 나타난 것이다. 또 고구려에서는 그 주민들을 ‘백성’이라고 표현

90 유리왕-대무신왕대의 대부여 전쟁 기록에서 어디까지가 본래 북부여 관계 전승이었는지의 문제나, 실제 역사적 사실 여부는 분명하지 않다. 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관련 기록들과 당시의 길림 일대의 부여(북부여)와 고구려의 관계 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뤄야 하는 방대한 작업인 만큼, 이는 후일의 연구 과제로 남겨 둔다.

하거나 자신들에게 조공을 바쳤다는 등 연속관계처럼 묘사하였지만, 3세기 이전이나 이후나 동부여는 고구려에게 직접 지배의 대상이 아닌, 줄곧 반독립적인 위치에 있었다고 여겨진다. 「광개토왕비」의 서술처럼 이들은 조공을 중간에 중단하거나 이후 영락 20년의 정벌 당시에도 국왕이나 ‘압로’와 같은 독자적인 체제를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E-1) 廿年庚戌 ①東夫餘舊是鄒牟王屬民 ②中叛不貢 王躬率往討 軍到餘城而餘□國駭□□□□□□□王恩普覆 於是旋還 ③又其慕化隨官來者 味仇婁鴨盧 卑斯麻鴨盧 穉社婁鴨盧 肅斯舍鴨盧 □□□鴨盧.⁹¹

위의 기사에서 동부여는 어느 시점에서 “중도에 배반하여 (조)공을 바치지 않았다(中叛不貢)”라고 하며, 이로 인해 광개토왕은 이들을 정복하여 그 압로(鴨盧)들을 거느리고 귀환하였다고 한다. 여기에서의 조공을 바쳤다는 식으로 고구려의 조공국으로 묘사하는 것은 비문 내의 백제·신라에 대한 서술과도 유사하다. 그렇지만 실제로 백제나 신라가 조공을 바쳤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동부여 또한 일상적으로 조공을 바쳤는지는 의문이 든다. 다만 태조왕대의 기사를 감안하면 때때로 공물을 바치거나 지배계층 간의 혼인이 이루어지는 식으로 고구려의 영향력을 일정 부분 받아들여야만 했을 것이다. 그렇지만 반대로 말해 이는 고구려의 지배력이란 동부여가 조공을 중단한다면 바로 단절될 수 있는 느슨한 관계에 불과했다는 의미이기도 했던 것이다. 비록 태조왕의 부모처럼 지배세력 간의 혼인으로서 그 관계를 유지시킨 기간도 있었겠으나, 이후 동부여에 대한 별다른 기록이 없는 점을 보면 이 관계는 특정 시기에 한정적이었다고 생각된다. 곧, 태조왕대 이후 양자 사이에 별도의 구속력이 없던 시기, 조공조차 중단하게 되어 양자의 관계는 단절되었던 것이다.

이렇게 장기간 고구려로부터 독자성을 유지하던 동부여는 E-1)에서 전하는

91 「廣開土王碑」永樂 20年.

것처럼 광개토왕대에 이르러 고구려의 활발한 정복 활동 과정에서 그 체제가 해체되었다. 이 시점에서의 동부여 정벌 배경은 상세하게 알기 어렵지만, 「광개토왕비」에서 천명한 것처럼 단지 조공 중단에 대한 처벌만이라고 생각되지는 않는다. 특히 서천왕대의 신성 축조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고구려가 혼춘(춘성) 이서 지역의 연길 방면으로 보다 직접적인 지배력 확보를 추진하였던 점이나,⁹² 이후 연변지역에 다수 축조된 고구려의 성지 유적을 감안한다면 동부여 정벌도 결국 넓은 의미에서는 이 지역에 대해 보다 직접 지배를 구축하기 위한 독자적 집단 해체의 일환이었다고 해야 할 것이다.⁹³

영락 20년에 고구려로부터 이주된 이들은 동부여의 정치구조에서 핵심을 이루는 구성원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비록 비문상에서는 이것이 교화를 사모하여 왕을 따라갔다고 하더라도, 결국 그 지배계층을 강제로 고구려 내에 흡수하는 것과 동시에 해체하는 과정이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곧, 이 시기 고구려는 광개토왕대의 활발한 대외 정벌 과정에서 동부여 또한 점령하여 그 지배계층을 해체했던 셈이다.⁹⁴ 그리고 동부여는 동해안지역 주민집단 중 비교적 장기적으로 독자적 체제를 유지했음에도 결국 중기에 이르러 그 지배계층은 고구려의 사회 정치권에 편입되고⁹⁵ 정치집단으로서의 동부여는 소멸하였다고 할 수 있다.

92 신성의 축조와 연길 방면으로의 지배력 확장 과정과 관련 연구서는 이종록, 2020, 앞의 글, 191~196쪽을 참조.

93 이는 3세기 후반부터 고구려가 지향하였던 고구려 중앙으로부터의 직접 지배를 받는 체제의 구축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김현숙, 2005, 앞의 책, 436~437쪽 참조.

94 다만 해당 기사에서는 그 국왕에 대한 별다른 언급이 없는 것으로 보아 이후에도 한 동안 동부여의 독자적인 체제는 형식적으로나마 유지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95濱田耕策 著, 서영대 譯, 1996, 「廣開土好太王 時代の ‘聖王’ 秩序에 對하여- 永樂 20年 5 鴨廬의 慕化를 중심으로」, 『고구려발해연구』 2, 648쪽.

V. 맺음말

지금까지 『삼국사기』 고구려본기 및 「광개토왕비」에 등장하는 동부여의 존속 기간의 문제와 더불어, 많은 논란이 있었던 그 위치의 문제에 대해 의견을 개진 해보았다. 먼저 이 글에서는 「광개토왕비」 영락 20년조에서 “추모왕의 속민”이라는 구절이 허구가 아닌 3세기 이전부터 고구려가 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역사적 실체로서의 동부여에 대한 기록으로 보았다. 이는 단순한 수사적인 표현이라고 이해하기에는 기존 연구에서 지적한 것처럼 지나친 윤색일 뿐만 아니라, 『위서』 고구려전에서 전하는 막래의 부여 복속 기록을 감안한다면 보다 이른 시기부터 고구려인들에게 인식된 존재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삼국사기』 고구려본기의 유리왕-대무신왕대의 대부여 전쟁 기록은 전적으로 동부여에 관한 기록으로 보기 어려우며, 해당 기록은 북부여 관련 전승이 이후 동부여 전승과 혼합된 결과였을 것으로 보았다.

나아가 동부여는 보다 이른 시기, 곧 건국 초기부터 고구려 및 길림 일대의 부여(북부여)와 병존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았다. 『위서』에서 막래의 부여 정벌 기록, 「광개토왕비」의 ‘추모왕대의 속민’이라는 인식 및 대무신왕대의 전쟁 기록은 비록 그 자체가 사실을 그대로 전하는 것은 아니지만, 동부여가 보다 이른 시기부터 고구려와 병존하였던 역사적 경험을 바탕으로 나타난 인식으로 본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전제하에서 동부여의 위치는 그 건국 설화와 더불어 비록 간접적이지만 부여계 문화의 흔적, 그리고 고구려의 이 지역으로 통하는 교통로의 문제를 감안하여 연길-화룡으로 이어지는 일대가 유력하다고 추정하였다. 그리고 이들은 태조왕 시기까지 활발하게 추진된 두만강 유역 진출로 고구려의 영향력하에 들어가게 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고구려로 동부여 출신 인사들이 다수 유입되었을 것으로 보았다. 이들은 고구려 내에서 자신들의 기원과 멸망을 고구려 초기 3대 왕의 전승에 전이시켰으며, ‘추모왕대부터 속민’ 및 ‘막래의 부여 정벌’이라는 인식이 이로부터 파생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하였다.

참고문헌

단행본

- 공석구, 1998, 『高句麗 領域擴張史 研究』, 書景文化社.
김미경, 2007, 『高句麗 前期 對外關係 研究』,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김철준, 1975, 『韓國古代社會研究』, 知識産業社.
김현숙, 2005, 『고구려 영역지배방식 연구』, 모시는사람들.
노태돈, 1999, 『고구려사 연구』, 사계절.
사회과학원 편, 2002, 『동해안일대의 발해 유적에 대한 연구』, 중심.
여호규, 2014, 『고구려 초기 정치사 연구』, 신서원.
이도학, 2006, 『고구려 광개토왕릉비문 연구』, 서경문화사.
조우연, 2019, 『天帝之子: 고구려의 왕권전승과 국가제사』, 민속원.
최광식, 1994, 『고대한국의 국가와 제사』, 한길사.

- 吉林省文物志編委會主 編, 1984, 『龍井縣文物志』, 吉林省文物志編修委員會.
魏國忠, 1995, 『東北民族史研究』 2, 中州古籍出版社.

- 武田幸男, 1989, 『高句麗史と東アジア』, 岩波書店.
池内宏, 1978, 『滿鮮史研究』 上世1冊, 吉川弘文館.

논문

- 강인욱, 2015, 「三江平原 滾屯嶺·鳳林문화의 형성과 勿吉·豆莫婁·靺鞨의 출현」,
『고구려발해연구』 52.
강진원, 2015, 「高句麗 國家祭祀 研究」,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김기홍, 2001, 「高句麗 建國神話의 검토」, 『韓國史研究』 113.
김현숙, 1994, 「고구려의 解氏王과 高氏王」, 『大丘史學』 47.
노태돈, 1989, 「夫餘國의 境域과 그 變遷」, 『국사관논총』 4.
——, 1992a, 「廣開土王陵碑」, 『譯註 韓國古代金石文』 1, 駕洛國史蹟開發研究院.

- _____, 1992b, 「牟頭婁墓誌」, 『譯註 韓國古代金石文』 1, 駕洛國史蹟開發研究院.
- 박정철, 1989, 「高句麗軍事戰略考察을 위한 一試論」, 『사학연구』 40.
- _____, 1992, 「扶餘史 展開에 關한 再認識 試論」, 『백산학보』 40.
- 박기범, 2011, 「부여, 고구려 건국신화의 계통과 형성과정」, 『동북아역사논총』 43.
- 박선미, 2016, 「한반도 축각식검을 통해 본 동서 교류」, 『아시아문화연구』 41.
- 방학봉, 1999, 「延邊地區의 渤海遺蹟과 日本道」, 『백산학보』 50.
- 濱田耕策 著, 서영대 譯, 1996, 「廣開土好太王 時代의 '聖王' 秩序에 對하여-永樂 20年 5 鴨廬의 慕化를 중심으로」, 『고구려발해연구』 2.
- 서영수, 1988, 「廣開土王陵碑文의 征服記事의 再檢討(中)」, 『역사학보』 119.
- 송기호, 1984, 「渤海「多人葬」制에 대한 研究」, 『韓國史論』 11.
- _____, 2005, 「扶餘史 연구의 쟁점과 자료 해석」, 『한국고대사연구』 37.
- 송호정, 1997, 「부여의 성장과 대외관계」, 『한국사』 4, 국사편찬위원회.
- 양정현, 2021, 「조선 전기 驛道制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여호규, 1995, 「3세기 후반~4세기 전반 고구려의 교통로와 지방통치조직」, 『한국사연구』 91.
- 윤선태, 2007, 「渤海 文字資料의 現況과 課題」, 『大東漢文學』 26.
- 윤재은, 2002, 「南北國時代 貿易研究」,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귀숙, 2007, 「고구려 초기의 왕통변화와 주몽 시조의식의 성립」, 『역사교육논집』 39.
- 이도화, 2007, 「高句麗의 夫餘 出源에 關한 認識의 變遷」, 『고구려발해연구』 27.
- 이성제, 2009, 「高句麗와 渤海의 城郭 運用방식에 대한 기초적 검토: 延邊地域 분포의 성곽에 대한 이해를 겸하여」, 『고구려발해연구』 34.
- 이승호, 2011, 「광개토왕비문에 보이는 천제지자(天帝之子) 관념의 형성의 史的 배경」, 『역사와 현실』 81.
- _____, 2018, 「『광개토왕비문』에 보이는 東扶餘에 대한 재검토」, 『소장학자들이 본 고구려사』, 해안.
- 이종록, 2020, 「1~3세기 고구려의 두만강 유역 지배방식과 柵城」, 『역사와 현실』 116.
- _____, 2022, 「高句麗 前期 동해안지역 복속과 濊族社會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종태, 1990, 「고구려 太祖王系の 등장과 朱蒙國祖意識의 성립」, 『北岳史論』 2.
- 이준성, 2020, 「『牟頭婁 墓誌』의 판독과 역주 재검토」, 『목간과 문자』 25.

- 임기환, 1987, 「고구려 초기의 지방통치체제」, 『경희사학』 14.
- _____, 1998, 「4~6세기 중국사서에 나타난 한국고대사상」, 『한국고대사연구』 14.
- _____, 2012, 「고구려의 연변 지역 경영-柵城과 新城을 중심으로」, 『동북아역사논
총』 38.
- _____, 2016, 「고구려 건국전승의 始祖 出自와 北夫餘, 東夫餘」, 『고구려발해연구』 54.
- 장병진, 2019, 「고구려본기의 부여 관계 기사와 ‘동부여’의 실제」, 『사학연구』 136.
- 조법중, 2011, 「高句麗의 郵驛制와 交通路-國內城시기를 중심으로-」, 『한국고대사
연구』 63.
- 채미하, 2006, 「高句麗의 國母信仰」, 『北方史論叢』 12.
- 최일례, 2017, 「牟頭婁墓誌銘에 투영된 5세기 고구려의 정치세력」, 『한국고대사연구』 85.
- 孫正甲, 1984, 「夫余源流辨析」, 『學習與探索』 1984-6.
- 李健才, 1982, 「扶餘的疆域和王城」, 『社會科學戰線』 1982-4.
- 田中俊明, 1995, 「高句麗の山城」, 『高句麗の歴史と遺跡』, 中央公論社.
- 鄭早苗, 1979, 「高句麗王系小考」, 『旗田巍博士古稀朝鮮歴史論集』上, 龍溪書舍.

3세기 이전 고구려와 동부여의 관계에 대한 재검토

이종록

이 글에서는 「광개토왕비」 등에서 나타나는 3세기 이전의 동부여의 역사적 실체로서의 가능성과 이에 대한 관련 기록의 형성 과정에 대해 검토하였다. “추모왕의 속민”과 같은 구절은 단순한 수사적인 표현으로 보기 어려우며, 『위서』 고구려전에서 전하는 막래의 부여 복속 기록을 감안한다면 3세기보다 더 이른 시기부터 고구려인들에게 인식된 존재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삼국사기』 고구려본기의 유리왕-대무신왕대의 대부여 전쟁 기록은 북부여에 관한 기록이었으며, 이후 동부여 관계 전승이 혼합된 결과였을 것으로 보았다. 나아가 이 글에서는 동부여의 위치는 비록 간접적이지만 부여계 문화의 흔적, 그리고 고구려와 이 지역으로 통하는 교통로를 감안하여 연길-화룡으로 이어지는 일대가 유력하다고 추정하였다. 동부여는 태조왕 시기까지 활발하게 추진된 두만강 유역 진출로 고구려의 영향력하에 들어가게 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복속한 동부여 출신 인사들이 자신들의 기원을 유리왕-대무신왕의 대부여 전쟁 전승에 전이시켰을 것으로 추정하였다. 곧 ‘추모왕대부터 속민’ 및 ‘막래의 부여 정벌’과 같은 기록이란 이들로부터 파생된 전승이었다고 본 것이다.

주제어: 동부여, 고구려, 북부여, 「광개토왕비」, 『위서』, 대무신왕, 태조왕, 갈사국

ABSTRACT

Reconsideration of the Relationship between Koguryo and East Buyeo before the 3rd Century

Lee Jongrok

This paper reviewed the possibility of East Buyeo, which appears in the historical records such as “Stele of King Gwanggaeto, as a historical entity before the 3rd century and the process of formation of the related records. It is difficult to take the phrases like “subjects of King Ch’umo” as a simple rhetoric. Considering the record of Mangnae’s subjugation of East Buyeo in *Weishu*, the polity was likely recognized by the people of Koguryo far earlier than the 3rd century. On the other hand, it is supposed that the records in regard to the war between Koguryo and Buyeo during the reign of King Daemusin in *Samguk sagi* was originally about North Buyeo; later, these records were mixed with the legends about the fall of East Buyeo. Also, this paper suggested that East Buyeo was located at the area around Yenji-Helong cities, in consideration of the evidence that, although indirectly, indicates Buyeo culture’s existence, and routes from this area to Koguryo. East Buyeo

came under the influence of Koguryo in the process of its conquest of the areas around Tumen River basin until the reign of King Taejo. In this process, the ruling class of East Buyeo, who surrendered to Koguryo, attributed their origin to the legends about the war during the reign of King Daemosin. This paper then concluded the records such as “subjects of King Ch’umo” or “Mangnae’s subjugation of East Buyeo” were the result of this attribution.

Keywords: East Buyeo, Koguryo, Buyeo, “Stele of King Gwanggaeto”, Weishu, King Daemosin, King Taejo, Galsa Kingdom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후한(後漢) 중기(中期) 자연재해·내란과 재정 위기

최진열 |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연구교수

- I. 머리말
- II. 재해·내란과 재정 위기
- III. 재정 위기의 대응과 한계
- IV. 맺음말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I. 머리말

후한(後漢) 중기 정치사는 “어린 황제의 즉위→외척의 권력 장악과 부정부패→황제의 친위쿠데타와 외척 제거→환관의 발호→황제의 요절→어린 황제의 즉위”라는 도식의 반복이었다. 정치적 혼란과 달리 호구는 점차 증가하는 추세였다. 농경사회에서 인구의 증가는 농업생산량의 증가를 뜻하므로 후한 중후기는 정치 혼란과 경제 성장이 병행하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안제 영초 3년(109), 순제 영화 6년 정월 병자일(141.2.14),¹ 같은 해 칠월 갑오일(8.31), 한안 2년(143) 시월 등 최소 4회(햇수로는 3개 연도) 재정 부족을 이유로 제후왕·열후나 관리, 부민(富民)들에게 국조(國租) 또는 봉급, 개인의 자산들을 빌리거나 봉급을 전부 또는 지불하지 않는 조치를 취하였다. 이는 국가재정의 파탄을 뜻한다. 필자는 국가재정 파탄의 원인인 자연재해와 전쟁 등에 주목하였고 『후한서』 본기와 열전 등을 통독하며 비용 지출과 감소의 원인이 되는 각종 사건이 존재했음을 알게 되었다.

후한시대 재정 연구는 재정의 양상,² 중앙재정과 지방재정의 관계,³ 재정 수

* 투고: 2023년 1월 25일, 심사 완료: 2023년 5월 9일, 게재 확정: 2023년 5월 12일

- 1 이상 본문에서 한글로 표시된 날짜는 음력이며 괄호 안의 아라비아 숫자는 양력이다. 음력의 양력 환산은 陳垣의 『二十史朔閏表』[北京: 中華書局, 1999(重印)]에 따랐다. 양력으로 전환하지 못한 날짜는 음력 날짜로만 표기하였다.
- 2 馬大英, 1983, 『漢代財政史』, 中國財政經濟出版社; 山田勝芳, 2001, 「秦漢時代の財政問題」, 殷周秦漢時代史の基本問題編纂委員會 編, 『殷周秦漢時代史の基本問題』, 東京: 汲古書院; 周德貴, 2006, 「論漢代國家財政與帝室財政管理體制-與加藤繁先生商榷-」, 『江西師範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 39-1, 86~90쪽; 史衡, 2007, 「漢代財政制度演變試探」, 『南都學壇(人文社會科學學報)』 27-5, 1원쪽~5오른쪽; 渡邊信一郎, 2010a, 「漢代の財政と帝國編成」, 『中國古代の財政と國家』, 東京: 汲古書院, 165~196쪽; 張捷, 2012.3, 「秦漢時期財政運作研究」, 華東師範大學博士學位論文.

입의 추산,⁴ 재정과 관련된 법률,⁵ 재정기구,⁶ 군사비 지출,⁷ 변경 방어와 재정 문제,⁸ 재정 위기⁹ 등을 다루었다. 일본학자들은 주로 가장 많은 호구를 대상으로 전형적인, 또는 최대의 재정수입을 추산했지만, 자연재해로 인한 감소를 간과하였고 전한과 후한의 재정수입 총계 기록과 큰 괴리를 보인다. 주리(周利)는 양한(兩漢) 400년 가운데 전한 초기, 무제, 전한 말기, 후한 후기 등 재정 위기가 발생했던 시기에 주목하고 한대 재정 위기의 특징을 ① 주기성, ② 막대한 군사비 지출, ③ 황실재정보다 큰 국가재정의 결손으로 규정하였다. 또 후한시대 재정 문제를 군사비의 지출 때문이었음을 지적하였고 재정 위기의 해결을 위한 조치를 열거하였다.¹⁰ 주리의 문제의식은 필자와 비슷하지만 한대 재정문제를 인구, 자연재해, 군사비용 등과 관련하여 포괄적으로 논증하지 못하였다. 필자는 선행연구의 연구 결과를 수용함과 동시에 후한시대 재정문제를 인구, 간전(墾田), 자연재해, 재정 파탄, 재정비용 삭감 등과 관련지어야 후한 중기의 실상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필자는 후한 중기 최소 3개 연도의 재정 파탄이 후한 중후기에 빈발한 자연

- 3 朱衛華, 2007, 「漢代的中央財政與地方財政」, 『江西藍天學院學報』 2-2, 82원쪽~84오른쪽.
- 4 山田勝芳, 1993, 「秦漢代財政收入の特色と收入の推計」, 『秦漢財政收入の研究』, 東京: 汲古書院; 渡邊信一郎, 1989, 「漢代の財政運營と國家的物流」, 『中國古代の財政と國家』[原載: 渡邊信一郎, 1989, 「漢代の財政運營と國家的物流」, 『京都府立大學學術報告(人文) 41』, 39~66쪽.
- 5 張景賢, 1997, 「漢代的財政經濟法規」, 『漢代法制研究』, 哈爾濱: 黑龍江教育出版社.
- 6 黃今言, 1988, 「稅收財政機構的發展」, 『秦漢賦役制度研究』, 南昌: 江西教育出版社.
- 7 殷琛, 2011, 「論漢代軍事支出」, 『地方財政研究』 2011-10, 75원쪽~80오른쪽.
- 8 付火水·羅亨江, 2011, 「東漢經濟與邊防定策」, 『滄桑』 2011-2, 11원쪽~12원쪽.
- 9 周利, 2007, 「論漢代財政危機的特點及影響」, 『求索』 2007-8, 212원쪽~214오른쪽; 周利, 2004, 「論漢代的財政危機及其對策」, 『西南民族大學學報(人文社科版)』 2004-12, 233원쪽~236오른쪽.
- 10 周利, 2007, 위의 글, 212오른쪽~214오른쪽, 117원쪽~118오른쪽.

재해, 내란과 관계가 있음에 주목하고 이를 재정수입 감소와 재정지출 확대의 측면에서 검토하려고 한다. 그리고 후한 중기 재정지출 축소를 위해 관리들의 봉급을 삭감하고 열후의 국조(國租) 수입을 줄이는 등 재정개혁을 추진했던 배경도 재정문제와 관련 있음을 논증하려고 한다.

Ⅱ장에서 화제부터 순제까지 황제별로 자연재해와 내란이 재정수입 감소에 끼친 영향 및 관련성을 살펴본다. Ⅲ장에서 후한 중기(中期) 재정 위기의 대응 조치를 중기의 재정 상황과 비용 삭감 조치로 나누어 분석한다.

Ⅱ. 재해·내란과 재정 위기

1. 화제(和帝)·상제(殤帝) 시기 재정지출 급증

명제(明帝)·장제(章帝) 시기에 인구가 증가하고 아마도 그에 비례하여 재정수입이 증가함에 따라 재정지출도 증가하였다. 예컨대 광무제(光武帝) 시기 대폭 삭감된 관직과 지방행정조직¹¹이 점차 복원되었다. 영원(永元) 2년(90) 서하(西河)·상군(上郡) 속국도위(屬國都尉),¹² 영원 3년(91) 서역도호(西域都護), 기도위(騎都尉), 무기교위(戊己校尉),¹³ 영원 10년(98) 능희관(廩犧官),¹⁴ 영원 11년(99) 우교위(右校尉)¹⁵를 각각 다시 설치하였고 영원 14년(102)에 상림장병장사(象林將兵長史)를 설치하였다.¹⁶ 광무제 시기 없었던 일부 지방 행정구역도 다

11 광무제 시기의 관청 폐지와 관리 삭감, 지방행정조직의 廢置와 그 재정적 배경은 최진열, 2022, 「後漢 光武帝의 官制·행정조직 개편과 그 배경-인구 및 재정문제와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大同文化研究』 119, 5~39쪽 참조.

12 『後漢書』 卷4 「孝和帝紀」 永元二年二月條, 170쪽.

13 『後漢書』 卷4 「孝和帝紀」 永元三年十二月條, 173쪽.

14 『後漢書』 卷4 「孝和帝紀」 永元十年九月庚戌條, 185쪽.

15 『後漢書』 卷4 「孝和帝紀」 永元十一年四月條, 185쪽.

시 설치되었다. 광무제는 군국(郡國) 10개, 현(縣)·읍(邑)·도(道)·후국(侯國) 400여 소를 없였으나 명제 때 1군, 장제 때 2개 군국, 화제 때 3개 군국, 안제 때 군에 해당하는 속국(屬國) 6개를 설치하였다. 순제 시기에 군국의 총수는 105개, 현·읍·도·후국은 1,180개였다.¹⁷ 광무제가 호구 감소로 인한 재정수입 감소 때문에 중앙과 지방의 관청과 관리의 수를 대폭 줄였음을 감안하면¹⁸ 중앙과 지방관의 복치(復置) 또는 신설은 후한 중기 재정수입의 증가로 인한 제도의 복원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화제(和帝) 시기의 호구는 장제 시기보다 178만 328호와 989만 9,862구(口)가 증가하였고, 약 108억 8,444만 700전에 해당하는 전조(田租)·갱부(更賦)·산부(算賦)·구부(口賦) 수입을 거둘 수 있었다.¹⁹ 화제 시기에 중앙의 관직

16 『後漢書』卷4「孝和帝紀」永元十四年五月丁未條, 190쪽.

17 『續漢書』志第二十三「郡國志」5, 3533쪽, “世祖中興, 惟官多役煩, 乃命并合, 省郡·國十, 縣·邑·道·侯國四百餘所. 至明帝置郡一, 章帝置郡·國二, 和帝置三, 安帝又命屬國別領比郡者六, 又所省縣漸復分置, 至于孝順, 凡郡·國百五, 縣·邑·道·侯國千一百八十, 民戶九百六十九萬八千六百三十, 口四千九百一十五萬二百二十.”

18 『續漢書』「郡國志」에 인용된 『帝王世記』에 따르면 後漢初 인구는 前漢 말기의 2/10에 불과했고 光武帝 中元二年(57)에 427만 1,634戶, 2,100만 7,820人에 불과하였다(『續漢書』志第十九「郡國志」1 序文 注引帝王世記, 3388쪽, “及王莽篡位, 續以更始·赤眉之亂, 至光武中興, 百姓虛耗, 十有二存. 中元二年, 民戶四百二十七萬千六百三十四, 口(三)[二]千一百萬七千八百二十人.”). 元始2년 郡·國 103개, 縣·邑 1,587, 개간지는 827만 536頃, 戶數는 1,323만 3,612戶, 口數는 5,919만 4,978人이었는데(『續漢書』志第十九「郡國志」1 序文 注引帝王世記, 3388쪽, “元始二年, 郡·國百三, 縣·邑千(四)[五]百八十七, 地東西九千三百二里, 南北萬三千三百六十八里, 定墾田八百二十七萬五千三百六十六頃, 民戶千三百二十三萬三千六百一十二, 口五千九百一十九萬四千九百七十八人, 多周成王四千五百四十八萬五十五人, 漢之極盛也.”) 後漢初 인구가 前漢 말기의 2/10였다는 『帝王世記』의 기록을 사실이라고 믿는다면 後漢初 인구는 264만 6,722戶와 1,183만 8,996口로 추정된다. 이 인구에서 거둬들일 재정수입은 前漢末의 20%에 불과하기 때문에 기존의 官制를 유지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19 殷琛, 2011, 앞의 글, 「論漢代軍事支出」, 77쪽, 表1 漢代更賦·算賦和口賦年收入估算 및 78쪽, 表2 漢代田租年收入估算.

과 지방행정조직을 다시 설치한 것은 재정수입의 증가에 따라 봉급과 지방기구 운영에 필요한 지출을 감당할 수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예산’에 따른 고정 비용 이외에 갑자기 증가한 재정치출도 발생하였다. 주 변국과의 외교 또는 이민족 통제에도 많은 재정이 지출되었다. 명제 영평 원년(永平元年, 58) 귀부한 선비(鮮卑)에게 요동군(遼東郡)을 방문하여 상사(賞賜)를 받도록 하고 청주(靑州)와 서주(徐州) 2주에서 해마다 2억 7,000만 전을 지급 하도록 지시하였다.²⁰ 화제 시기 원안(袁安)의 상소문에 따르면, 남흉노(南匈奴) 선우(單于)에 제공하는 비용이 1년에 1억 90여 만 전, 서역에 사용하는 비용이 1년에 7,480만 전이었다.²¹ 이를 합하면 명제부터 화제 시기까지 선비·남흉노·서역 등 주변국을 회유하는 ‘평화’를 위한 지출이 해마다 4억 4,570여 만 전 이었다. 후한은 이 돈으로 평화를 유지할 수 있었다. 이 비용은 전쟁비용보다 적지만, 화제 당시에 북흉노도 물자를 주고 회유할 수 있을 만한 재정이 없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화제 시기에 돈으로 평화를 산 것만은 아니었다. 장화(章和) 2년(88),²² 영원 원년(永元元年, 89),²³ 영원 2년(90),²⁴ 영원 3년(91)²⁵ 5회에 걸쳐 북흉노를 정벌했는데 두헌(竇憲)이 네 차례나 직접 군대를 지휘하였다. 『후한서』 「효화제기」에 영원 원년(89) 참전한 군사의 수를 기록하지 않았으나 「남흉노전」과 「두헌전」에 후한의 군사와 남흉노·오환(烏桓)·저(氐)·강(羌) 등 3만의

20 『後漢書』 卷90 「鮮卑傳」, 2986쪽, “永平元年, 祭彤復賂偏何擊歆志賁, 破斬之, 於是鮮卑大人皆來歸附, 並詣遼東受賞賜, 靑徐二州給錢歲二億七千萬為常, 明章二世, 保塞無事.”

21 『後漢書』 卷45 「袁安傳」, 1520~1521쪽, “安懼憲計遂行, 乃獨上封事曰: ‘…且漢故事, 供給南單于費直歲一億九十餘萬, 西域歲七千四百八十萬’.”

22 『後漢書』 卷4 「孝和帝紀」 章和二年十月乙亥條, 168쪽.

23 『後漢書』 卷4 「孝和帝紀」 永元元年六月條, 168쪽.

24 『後漢書』 卷4 「孝和帝紀」 永元二年五月己未條, 170쪽.

25 『後漢書』 卷4 「孝和帝紀」 永元三年二月條, 171~172쪽.

군사를 동원했다고 기록하였다.²⁶ 『한서』 「가연지전」에 전한 원제(元帝) 당시 강(羌)과의 전쟁이 1년이 넘지 않았고 군대의 전쟁 기간도 1년이 넘지 않은 상황에서 40여 억 전을 지출하였다고 기록하였다.²⁷ 군대의 규모를 기록하지 않아 직접적인 비교가 어렵지만, 두현의 북흉노 정벌 때도 이와 비슷하거나 많은 액수의 전쟁비용이 필요했을 것이다.²⁸ 또 반초가 영원 6년(94) 서역의 오아시스 국가들을 평정하였다.²⁹ 덕분에 후한의 국력을 대외적으로 과시하고 영토 확장에 기여했으나 전쟁비용이 막대하였다. 이에 질수(鄧壽)가 창고에 아무것도 없이 텅 비고 군사들이 쉬지 않았다고 비판하였다.³⁰ 이는 당시 재정이 고갈되었음을 뜻한다. 『후한서』 「하창전」에서 외척 두씨(竇氏)가 사치스럽고 상사(賞賜)가 규정보다 많아서 창탕(倉庾)이 비었다고 기록하였다.³¹

화제 시기부터 자연 재해의 피해가 심하였다.³² 한 연구에 따르면, 화제 재

26 『後漢書』 卷89 「南匈奴列傳」, 2953쪽.

27 『漢書』 卷64下 「賈捐之傳」, 2834쪽, “臣竊以往者羌軍言之, 暴師曾未一年, 兵出不踰千里, 費四十餘萬萬, 大司農錢盡, 乃以少府禁錢續之.”

28 周刱에 따르면, 前漢 武帝 시기에 1년의 戰費지출은 국가 1년의 租稅 수입을 초과하였고 어떤 해에는 국가재정수입 60億錢을 초과하여 거의 국가재정 2년 수입 이상 초과하였다. 따라서 재정적자가 발생하였다(周刱, 2007, 앞의 글, 213원쪽). 竇憲의 北匈奴 정벌에 투입한 군사와 무기가 前漢 武帝보다 적었다면 1년 재정에 해당하는 軍事費를 지출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그 액수는 40餘億錢과 비슷하거나 더 많았을 것이다.

29 『後漢書』 卷4 「孝和帝紀」 永元六年七月條, 179쪽, “西域都護班超大破焉耆·尉犁, 斬其王. 自是西域降服, 納質者五十餘國.”

30 『後漢書』 卷29 「鄧暉傳附壽傳」, 1033쪽, “復徵為尚書僕射. 是時大將軍竇憲以外戚之寵, 威傾天下. 憲嘗使門生齎書詣壽, 有所請託, 壽即送詔獄. 前後上書陳憲驕恣, 引王莽以誡國家. 是時憲征匈奴, 海內供其役費, 而憲及其弟篤·景並起第宅, 驕奢非法, 百姓苦之. 壽以府臧空虛, 軍旅未休, 遂因朝會譏刺憲等, 厲音正色, 辭旨甚切. 憲怒, 陷壽以買公田誹謗, 下吏當誅.”

31 『後漢書』 卷43 「何敞傳」, 1481쪽, “時竇氏專政, 外戚奢侈, 賞賜過制, 倉庾為虛.”

32 後漢時代 자연재해는 陳業新, 2004, 『災害與兩漢社會研究』, 上海: 上海人民出版社; 劉春雨, 2005, 「東漢自然災害時空分布研究」, 鄭州大學學位論文; 張爽·薛海波, 2006, 「試論東漢涼州流民問題」, 『甘肅社會科學』 2006-2; 王文

위 17년간 29회의 자연재해가 일어났다.³³ 이에 따라 영원 4년(92),³⁴ 영원 5년(93),³⁵ 영원 6년(94),³⁶ 영원 9년(97),³⁷ 영원 11년(99),³⁸ 영원 12년(100),³⁹ 영원 13년(101),⁴⁰ 영원 14년(102),⁴¹ 영원 15년(103),⁴² 영원 16년(104)⁴³에 이제

壽, 2006, 「東漢洛陽自然災害與政府賑災年表」, 『河南科技大學學報(社會科學版)』 2006-1; 劉春雨, 2007, 「東漢自然災害災區的認定」, 『商丘職業技術學院學報』 2007-3; 王文壽, 2007, 「東漢安帝朝自然災害與政府賑災年表」, 『咸陽師範學院學報』 2007-3; 殷淑燕·黃春長, 2008, 「兩漢時期長安與洛陽都城水旱災害對比研究」, 『自然災害學報』 17-4, 66~71쪽; 房春艷·王曉霞, 2011, 「論東漢時期的自然災害與道教形成之關聯」, 『安康學院學報』 23-3, 28왼쪽~30오른쪽; 王飛, 2011, 「3-6世紀中國北方地區的疫病與社會」, 吉林大學學位論文; 劉志平, 2013, 「《焦氏易林》所見西漢農業自然災害及牛耕和糧食畝產量」, 『咸陽師範學院學報』 28-5, 11왼쪽~16왼쪽; 劉德超, 2013, 「東漢皇帝彌災研究」, 曲阜師範大學學位論文; 崔彥華·賈碧眞, 2016, 「東漢蝗災概述」, 『社科縱橫』 31-9, 122왼쪽~124오른쪽; 賈碧眞, 2016, 「東漢蝗災研究」, 山西大學學位論文; 王威, 2019, 「東漢自然災害史研究綜述」, 『農業災害研究』 2019-2; 苑苑, 2020, 「東漢梁妠爲后時期的自然災害與救助」, 『咸陽師範學院學報』 2020-3 참조.

33 陳業新, 2004b, 「災害與兩漢經濟研究」, 『災害與兩漢社會研究』, 252쪽, 表 5-1 災害與兩漢經濟波動對照.

34 『後漢書』 卷4 「孝和帝紀」 永元四年十二月壬辰條, 174쪽.

35 『後漢書』 卷4 「孝和帝紀」 永元五年三月庚寅條, 176쪽.

36 『後漢書』 卷4 「孝和帝紀」 永元六年二月乙未條, 177쪽; 『後漢書』 卷4 「孝和帝紀」 永元六年三月庚寅條, 177쪽.

37 『後漢書』 卷4 「孝和帝紀」 永元九年三月癸巳條, 183쪽.

38 『後漢書』 卷4 「孝和帝紀」 永元十一年二月條, 185쪽.

39 『後漢書』 卷4 「孝和帝紀」 永元十二年二月條, 186쪽; 『後漢書』 卷4 「孝和帝紀」 永元十二年六月條, 187쪽.

40 『後漢書』 卷4 「孝和帝紀」 永元十三年二月丙午條, 188쪽; 『後漢書』 卷4 「孝和帝紀」 永元十三年條, 188쪽.

41 『後漢書』 卷4 「孝和帝紀」 永元十四年四月庚辰條, 190쪽; 『後漢書』 卷4 「孝和帝紀」 永元十四年七月甲寅條, 190쪽; 『後漢書』 卷4 「孝和帝紀」 永元十四年條, 190쪽.

42 『後漢書』 卷4 「孝和帝紀」 永元十五年二月條, 191쪽.

43 『後漢書』 卷4 「孝和帝紀」 永元十六年七月辛巳條, 193쪽.

민들에게 조세를 면제하거나 곡식을 진대(賑貸)하는 등 다양한 구휼 조치를 취하였다. 따라서 조정에 보고된 호구와 개간한 농지 면적에 따라 수취할 수 있는 전조·쟁부·산부·구부 수입인 약 108억 8,444만 700전⁴⁴ 가운데 일부를 징수할 수 없었다. 또 이재민들의 구휼에도 많은 지출이 뒤따랐다. 화제는 유민(流民)을 고향에 정착시키라고 지시하였다. 예컨대 영원 12년(100)에 호적에 등록하고자 하는 유민들에게 작(爵) 1급을 주라고 명령하였다.⁴⁵ 화제가 죽은 원흥 원년(元興元年) 십이월 신미일(106.2.13)⁴⁶에도 같은 조치가 취해졌다. 빈민을 구제하거나⁴⁷ 농사지를 능력 없는 빈민에게 종자와 식량을 대여하였다.⁴⁸ 또 환과(鰥寡)가 피지(陂池)에서 물고기잡이를 허용하고 2년 동안 세금을 거두지 못하도록 편의를 제공하였다.⁴⁹

요컨대 화제 시기에 이전 황제인 장제 시기보다 178만 328호와 989만 9,862구가 증가하여 재정수입이 증가하였다. 전조·쟁부·산부·구부 수입만 계산해도 약 108억 8,444만 700전⁵⁰의 재정수입을 거둘 수 있었다. 이처럼 재정이 넉넉해졌기 때문에 광무제 때 없었던 일부 관직과 지방 군현을 다시 설치할 수 있었다. 그러나 두무의 북흉노 공격, 외척 두씨의 횡포와 국가재정 탕진, 자연재해로 인한 조세 탕감과 구휼 비용 급증, 빈민 구제와 권농 등의 정책 때문에 국가재정이 부족해졌다. 이는 화제의 아들 상제(殤帝) 시기인 연평(延平) 연간에

44 殷琛, 2011, 앞의 글, 77쪽, 表1 漢代更賦·算賦和口賦年收入估算 및 78쪽, 表2 漢代田租年收入估算.

45 『後漢書』卷4「孝和帝紀」永元十二年三月丙申條, 186~187쪽.

46 『後漢書』卷4「孝和帝紀」元興元年十二月辛未條, 194쪽.

47 永元 12년에 敦煌·張掖·五原 3郡民 가운데 下貧者에게 곡식을 賑貸하는 조치를 취하였다(『後漢書』卷4「孝和帝紀」永元十二年閏月條, 187쪽, “閏月, 賑貸敦煌·張掖·五原民下貧者穀”).

48 『後漢書』卷4「孝和帝紀」永元十六年正月己卯條, 192쪽.

49 『後漢書』卷4「孝和帝紀」永元十五年條, 191쪽.

50 殷琛, 2011, 앞의 글, 77쪽, 表1 漢代更賦·算賦和口賦年收入估算 및 78쪽, 表2 漢代田租年收入估算.

관리들의 봉록을 삭감한 조치⁵¹에서 확인할 수 있다. 비록 화제가 죽은 다음 해에 취해진 조치이지만, 화제 시기 재정 지출 급증과 재정수입 감소로 국고가 비어서 관리들의 봉급을 삭감해야 했음을 알 수 있다. 구체적인 수치를 알 수 없지만, 그래도 화제 재위 시기의 급증한 재정지출은 관리들의 봉급 삭감으로 감당할 만한 미미한 수준이었음을 알 수 있다. 2절부터 살펴볼 안제(安帝) 이후 재정 고갈 때문에 관리들의 봉급과 제후왕·열후 수입을 전용하거나 매관매직을 하는 조치는 없었기 때문이다.

2. 안제(安帝) 시기 자연재해·내란과 재정 위기

안제는 명제의 아들 청하효왕(清河孝王) 경(慶)의 아들이었다.⁵² 화제의 아들 상제가 2세의 나이에 죽자⁵³ 등태후(鄧太后)와 등즐(鄧鸞)에 의해 13세에 황제로 옹립되었다.⁵⁴ 외척 등씨 일족이 안제 대신 정사를 처리하였다. 안제 재위 19년 동안(107~125) 재해는 83회[수재 12회, 한재(旱災) 14회, 지진 27회, 풍해 13회, 박재(雹災) 7회, 충재(蟲災) 8회, 질병(疾疫) 2회]인데, 평균 매년 4.36회 재해가 발생하였다.⁵⁵ 따라서 이재민의 구호에 많은 비용이 쓰였고, 재해가 심하여 걷지 못한 세수가 증가하여 재정수입도 줄어들었다. 영초 원년(永初元年) 구월 경오일(107. 10. 5)에 사치와 후장(厚葬)을 금지하고 부교(浮巧)의 물건을 만들지 못하도록 하는 조서를 내렸다.⁵⁶ 같은 달 임오일(10.17)에 태복(太僕)·소부(少府)

51 『續漢書』 志第二十八「百官志」5 百官奉條 注引荀綽晉百官表注, 3633쪽, 자세한 내용은 Ⅲ장의 <표 1> 참조.

52 『後漢書』 卷5「孝安帝紀」延平元年八月條, 203쪽.

53 『後漢書』 卷4「孝陽帝紀」延平元年八月辛亥條, 199쪽.

54 『後漢書』 卷5「孝安帝紀」延平元年八月條, 203~204쪽.

55 陳業新, 2004b, 앞의 글, 252쪽, 表5-1 災害與兩漢經濟波動對照 및 253쪽.

56 『後漢書』 卷5「孝安帝紀」永初元年九月庚午條, 207쪽, “秋九月庚午, 詔三公明申舊令, 禁奢侈, 無作浮巧之物, 殫財厚葬.”

에게 주는 황문 고취(黃門鼓吹)를 줄이고 승여에 사용하지 않는 구마(廐馬)의 사료를 반으로 줄였으며 종묘(宗廟)·원릉(園陵)에 공급하지 않는 물건 제조를 금지하였다.⁵⁷ 이는 재정지출을 줄이려는 노력이었다. 이러한 조치와 관련된 사건이 그 이전에 발생하였다. 같은 해 정월에 사예(司隸)와 연(兗)·예(豫)·서(徐)·기(冀)·병(并) 5주 빈민에게 구휼하는 조치를 취하였고,⁵⁸ 이월 병오일(3.15)에 광성(廣成) 유렵지(游獵地)와 재해를 입은 군국의 공전(公田)을 빈민에게 빌려주도록 명령하였다.⁵⁹ 이는 사예 등 6주를 포함한 전년도 재난의 구호 조치로 풀이된다. 구월 계유일(10.8) 양주(揚州) 5군의 조미(租米)를 징발하여 동군(東郡)·제음(濟陰)·진류(陳留)·양국(梁國)·하비(下邳)·산양(山陽) 6군 백성들에게 나눠주라고 지시하였다.⁶⁰ 장희태자주(章懷太子注)에서 양주 5군을 구강(九江)·단양(丹陽)·여강(廬江)·오(吳)·예장(豫章) 5군이라고 해석했지만,⁶¹ 오군(吳郡)은 순제 영건 4년(129) 회계군(會稽郡)에서 분치(分置)되었기 때문에⁶² 이 5군에 오군 대신 회계군이 포함되어야 하며, 양주 5군은 실제로 양주(揚州) 전체를 가리킨다.⁶³ 설상가상으로 선령강(先零羌) 등 제강(諸羌)의 반란이 일어났다. 그 사이 유월에 선령강이 반란을 일으켰다.⁶⁴ 이처럼 주요 세입원이었던 황하 중하류 지역의 흉년으로 인한 구휼 비용의 증가, 재정수입의 감소, 선령강

57 『後漢書』卷5「孝安帝紀」永初元年九月壬午條, 208쪽, “壬午, 詔太僕·少府減黃門鼓吹, 以補羽林士; 廐馬非乘輿常所御者, 皆減半食; 諸所造作, 非供宗廟園陵之用, 皆且止.”

58 『後漢書』卷5「孝安帝紀」永初元年正月條, 206쪽.

59 『後漢書』卷5「孝安帝紀」永初元年二月丙午條, 206쪽.

60 『後漢書』卷5「孝安帝紀」永初元年九月癸酉條, 208쪽, “癸酉, 調揚州五郡租米, 贍給東郡·濟陰·陳留·梁國·下邳·山陽.”

61 『後漢書』卷5「孝安帝紀」永初元年九月癸酉條 章懷太子注, 207쪽, “五郡謂九江·丹陽·廬江·吳郡·豫章也. 揚州領六郡, 會稽最遠, 蓋不調也.”

62 『後漢書』卷6「孝順帝紀」永建四年條, 257쪽, “是歲, 分會稽為吳郡.”

63 多田狷介, 1999, 「黃巾의 亂前史」, 『漢魏晉史의 研究』, 東京: 汲古書院, 64~65쪽.

64 『後漢書』卷5「孝安帝紀」永初元年六月條, 207쪽.

의 반란으로 추가로 전쟁비용이 발생하자⁶⁵ 안제는 일단 황실과 조정의 지출을 줄이는 조치를 명령하였다.

재정지출은 다음 해에도 늘어났다. 영초 2년(108) 정월에 하남(河南)·하비(下邳)·동래(東萊)·하내(河內) 4군 빈민에 곡식을 나눠주라고 명령하였다.⁶⁶ 고금주(古今注)에 따르면 이때 주군에 대기근이 발생하여 미(米) 1석(石)이 2,000전으로 치솟았고 사람들이 서로 잡아먹었으며 노약자는 길에 버려졌을 정도였다.⁶⁷ 같은 달 거기장군(車騎將軍) 등즐(鄧鷟)이 종강(種羌)에게 한양군(漢陽郡) 기현(冀縣) 서쪽에서 패배하였다.⁶⁸ 이월 을축일(3.28)에 광록대부(光祿大夫) 번준(樊準)과 여창(呂倉)을 기주(冀州)와 연주(兗州)에 보내 유민들에게 늑대(稟貸)하도록 지시하였다.⁶⁹ 이는 기주와 연주에 자연재해가 발생하여 유민이 발생했음을 시사한다. 사월 갑인일(5.16)에 한양성(漢陽城)에 화재가 발생하여 3,570인이 죽었다.⁷⁰ 오월에 가뭄이 발생하여 황태후가 낙양의 관청과 약로옥(若盧獄)에 가서 죄수를 재조사하여 석방하거나 감형하였고 하남윤(河南尹)·정위(廷尉)·경(卿) 등 이하에게 하사하니, 이날 바로 비가 내렸다.⁷¹ 유월 경사(京師)와 40개 군국에 수재(水災)가 일어났다.⁷² 시월 경인일(12.18)에 제음(濟陰)·산양(山陽)·현도(玄菟) 3군의 빈민을 구휼하였다.⁷³ 십일월 선령강이 북지군(北

65 이 밖에 安帝가 사자를 보내 阿母 脩의 집을 크게 지었다. 또 中常侍 樊豐과 侍中 謝暉 등이 詔書를 위조하여 司農의 錢穀과 將作大匠의 見徒·材木을 징발하여 각자 家舍·園池·廬觀 등을 세웠다. 이에 役費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았다(『後漢書』卷54「楊震傳」, 1764쪽, “豐·暉等見震連切諫不從, 無所顧忌, 遂詐作詔書, 調發司農錢穀·大匠見徒材木, 各起家舍·園池·廬觀, 役費無數”).

66 『後漢書』卷5「孝安帝紀」永初二年正月條, 209쪽.

67 『後漢書』卷5「孝安帝紀」永初二年正月條, 209쪽.

68 『後漢書』卷5「孝安帝紀」永初二年正月條, 209쪽.

69 『後漢書』卷5「孝安帝紀」永初二年二月乙丑條, 209쪽.

70 『後漢書』卷5「孝安帝紀」永初二年四月甲寅條, 209.

71 『後漢書』卷5「孝安帝紀」永初二年五月條, 210쪽.

72 『後漢書』卷5「孝安帝紀」永初二年六月條, 210쪽.

73 『後漢書』卷5「孝安帝紀」永初二年十月庚寅條, 211쪽.

地郡)에서 천자(天子)를 칭하며 동쪽으로 삼보(三輔)와 조(趙)·위(魏) 지역(병주와 기주), 남쪽으로 익주(益州)의 한중군(漢中郡)까지 침입하였다.⁷⁴ 십이월 신묘일(109.2.17)에 동군(東郡)·거록(鉅鹿)·광양(廣陽)·안정(安定)·정양(定襄)·패국(沛國) 6개 군국의 빈민을 구휼하였다.⁷⁵ 또 이 해 12개 군국에서 지진이 발생하였다.⁷⁶ 영초 2년(108) 낙양(하남)과 황하 중하류의 여러 군국에서 자연재해가 발생하여 빈민 등을 구제하라고 명령하였고, 선령강과의 전투로 전쟁의 피해가 한양군을 비롯한 양주(涼州) 남부와 삼보(三輔), 병주(并州)·기주(冀州)의 일부에까지 미쳤다. 이는 4개의 자사부[양주(涼州)·사예·병주·기주]에까지 확대된 것으로 이 지역의 농사에도 큰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안제가 영초 3년 정월 경자일(109.2.26) 성인이 되어 왕·공주·귀인(貴人)·삼공(三公)·열경(列卿)에게 비단을, 남성들에게 작 2급, 호적에 등록하려는 유민들에게 작 1급을 각각 하사하였다.⁷⁷ 이에 많은 비용이 소모되었을 것이다. 같은 날 기도위(騎都尉) 임인(任仁)이 선령강에 패하고 선령강은 농서군(隴西郡) 임조현(臨洮縣)을 점령하였다.⁷⁸ 삼월에 경사에 대기근이 발생하여 사람들이 서로 잡아먹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에 안제는 자책의 조서를 반포하고 홍진(鴻池)을 빈민에게 빌려주도록 명령하였다.⁷⁹ 이처럼 매관·매작(賣爵)을 실시하기 전에 선령강과의 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았고, 낙양과 그 주변에 대기근이 일어났으며, 관례(冠禮)를 이유로 하사하여 많은 비용을 지출하였다.

이상으로 살펴본 것처럼 영초 원년(107)부터 영초 3년(109)까지 해마다 계속된 자연재해와 흉년, 3년 동안 지속된 선령강과의 전쟁으로 구휼 비용과 군사

74 『後漢書』卷5「孝安帝紀」永初二年十一月辛酉條, 211쪽.

75 『後漢書』卷5「孝安帝紀」永初二年十二月辛卯條, 211쪽.

76 『後漢書』卷5「孝安帝紀」永初二年條, 211쪽; 『續漢書』志第十六「五行志」4地震條, 3328쪽.

77 『後漢書』卷5「孝安帝紀」永初三年正月庚子條, 212쪽.

78 『後漢書』卷5「孝安帝紀」永初三年正月庚子條, 212쪽.

79 『後漢書』卷5「孝安帝紀」永初三年三月條, 212쪽.

비가 지속적으로 지출되었다. 영초 연간부터 14년 동안 강과의 전쟁 때문에 군사비와 운송비용으로 240여 억이 지출되어 국고가 비었고, 변민(邊民) 다수가 죽었고 병주와 양주(涼州)의 재정이 고갈되었다.⁸⁰ 이는 후한 환제 시기의 세조(稅租) 60여 억 전⁸¹의 4배에 해당하는 액수였으며, 안제 초기 3~4년 동안 군사비로만 매년 17여억 전을 추가로 지출해야 했다는 뜻이다. 이는 국가의 정규 예산인 재정지출이 아닌 임시적인 추가지출이었고 이미 안제가 즉위한 연평 연간에 관리 봉급을 삭감해야 할 정도로 재정이 좋지 않았으므로 재정수지는 적자였고 이는 결국 국고의 고갈로 이어졌다.

『후한서』 「효안제기」 본문에는 없지만 논왈(論曰)에 “드디어 다시 금을 헤아려 관직을 주었다”라는 구절이 있다.⁸² 장희태자주에 “영초 원년에 이인(吏人)에게 동전과 곡식을 바치게 하여 관작이 관내후(關內侯)에 이르기도 하였다”⁸³라고 설명하였다. 인용한 서적의 출전이 없지만, 이 주석을 믿을 수 있다면, 안제는 즉위 다음 해인 영초 원년부터 매관매직을 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화제 말기의 재정 수입 감소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3년 동

80 『後漢書』卷87「西羌傳」, 2891쪽, “自羌叛十餘年間, 兵連師老, 不暫寧息. 軍旅之費, 轉運委輸, 用二百四十餘億, 府帑空竭. 延及內郡, 邊民死者不可勝數, 并涼二州遂至虛耗.” 『後漢書』 「段熲傳」에 따르면 14년 동안 羌의 반란에 240億錢을 지출하였다(『後漢書』卷65「段熲傳」, 2148~2149쪽, “桓帝詔問熲曰: ‘先零東羌造惡反逆, 而皇甫規·張奐各擁強眾, 不時輯定. 欲熲移兵東討, 未識其宜, 可參思慮略.’ 熲因上言曰: ‘… 伏計永初中, 諸羌反叛, 十有四年, 用二百四十億; …’”).

81 梁冀의 財貨를 縣官이 贖값으로 판 30餘億錢을 王府에 充당한 후 天下 稅租의 절반을 감하였다(『後漢書』卷34「梁統傳附冀傳」, 1187쪽, “收冀財貨, 縣官斥賣, 合三十餘萬萬, 以充王府, 用減天下稅租之半. 散其苑囿, 以業窮民”). 여기에서 30餘億錢이 稅租 반년치에 해당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後漢 桓帝 당시 稅租가 60餘億錢이었음을 알 수 있다.

82 『後漢書』卷5「孝安帝紀」論曰, 243쪽, “論曰: ‘… 遂復計金授官, 移民逃寇, 推咎台衡, 以荅天眚.’”

83 『後漢書』卷5「孝安帝紀」論曰 章懷太子注, 243쪽, “永初元年, 令吏人入錢穀得至關內侯也.”

안 자연재해와 선령강의 반란이 발생하여 구휼비용과 군사비 지출이 많아졌다. 이에 삼공이 영초 3년 삼월 임인일(109.5.1)에 재정 부족을 이유로 이인에게 동전과 곡물을 바치면 관내후·호분우림랑(虎賁羽林郎)·오대부(五大夫)·관부리(官府吏)·제기(緹騎)·영사(營士)로 임명하도록 주청하였다.⁸⁴ 국용, 즉 재정수입 부족은 자연재해로 인해 거두지 못한 세수와 황정(荒政) 비용 지출, 선령강 평정을 위한 군사비 때문이었다. 이미 안제가 즉위한 상제 연평 연간(106)에 백관의 봉록을 삭감한 조치가 재정수입 감소 때문에 취해졌음을 고려하면, 안제 즉위 초 3년 동안 자연재해와 내란으로 인한 구휼비용과 군사비 지출로 재정적자가 심해졌고 결국 매관·매작을 시도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관·작 매매로 거둔 수입만으로 일시적인 재정수입을 충당할 수 있었는지 몰라도 만성적인 재정수지 적자는 계속되었다. 이는 동해왕(東海王) 숙(肅) 등 일부 제후왕과 열후가 자신의 수입을 바친 예에서 확인된다.⁸⁵

안제 시기의 재정수입을 추산할 수 있는 호구와 간전(墾田) 면적 통계는 안제 말기인 연광(延光) 4년(125)의 수치가 남아 있다. 화제 원흥 원년(105)에 호구는 923만 7,112호와 5,325만 6,229구, 간전 면적은 732만 170경(頃) 80무(畝) 140보(步)였던 반면, 안제 연광 4년(125)에는 각각 964만 7,838호와 4,869만 789구, 694만 2,892경 13무 85보였다. 즉, 20년 동안 호수는 41만 726호 늘었지만 구수(口數)는 456만 5,440구(9.6%) 감소하였고 간전 면적은 37만 7,278경 55보(5.2%)나 줄었다.⁸⁶ 이는 안제 시대 1년에 4.36회에 달하는 자연재해⁸⁷와 선령강의 반란이 4개의 자사부[양주(涼州)·사예·병주·기주]까지 미쳐 대량의 유민이 발행했기 때문일 것이다. 안제 재위 시기에 인도세에 해당하는 산부(算賦)·구부(口賦)의 수입은 화제 말기보다 9.6% 감소했고 간전 면적

84 『後漢書』卷5「孝安帝紀」永初三年三月壬寅條, 213쪽, “三公以國用不足, 奏令吏人入錢穀, 得為關內侯·虎賁羽林郎·五大夫·官府吏·緹騎·營士各有差.”

85 자세한 내용은 Ⅲ장 참조.

86 『續漢書』志第二十三「郡國志」5, 章懷太子注, 3534쪽.

87 陳業新, 2004b, 앞의 글, 252쪽, 表5-1 災害與兩漢經濟波動對照.

이 5.2% 감소했으므로 전조(田租) 수입도 5.2%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었다. 여기에 자연재해 때문에 이재민에게서 거둘 수 없는 전조와 산부·구부 등의 수입 감소를 포함하면 실제로 거둘 수 있는 조세의 양은 더 적었을 것이다. 따라서 줄어든 재정 수입으로 경상비용뿐만 아니라 자연재해와 반란 평정을 위한 군사비 지출을 감당할 수 없었을 것이다.

3. 순제(順帝) 시기 자연재해·내란과 재정 위기

순제는 본래 안제의 아들로 영녕 원년(永寧元年, 120)에 황태자에 책봉되었으나 연광 3년(124) 안제의 유모 왕성(王聖), 대장추(大長秋) 강경(江京), 중상시(中常侍) 번풍(樊豐) 등의 모함으로 폐위되어 제음왕(濟陰王)에 봉해졌다. 다음 해(125) 안제가 죽자 외척 엄현(嚴顯)이 북향후(北鄉侯)를 옹립했으나 얼마 후에 죽자 방계에서 제후왕의 아들을 황제로 세우려고 하였다.⁸⁸ 이때 중황문(中黃門) 손정(孫程) 등 19인이 강경·유안(劉安)·진달(陳達) 등을 죽이고 11세의 제음왕을 즉위시켰다.⁸⁹

순제 재위 시기 동안 34회의 자연재해가 발생하였다.⁹⁰ 순제가 즉위한 다음 해인 영건 원년(永建元年) 시월 갑진일(126.11.28)에 역병과 수해 때문에 올해 전조의 절반을 내라고 명령하였다. 또 피해가 4/10 이상이면 전조를 면제하고, 4/10 미만이면 피해에 따라 거두는 세금의 양을 줄여주었다.⁹¹ 다음 해인 영건 2년 이월 갑진일(127.3.28)에 형(荊)·예·연·기 4주 유민과 빈민을 구휼하고, 현재 거주지에서 생업에 종사하게 하였으며, 병자에게 의약을 제공하였다.⁹² 이

88 『後漢書』卷6「孝順帝紀」, 249쪽.

89 『後漢書』卷6「孝順帝紀」延光四年十一月丁巳條, 249쪽.

90 陳業新, 2004b, 앞의 글, 252쪽, 表5-1 災害與兩漢經濟波動對照.

91 『後漢書』卷6「孝順帝紀」永建元年十月甲辰條, 253쪽, “甲辰, 詔以疫癘水潦, 令人半輸今年田租; 傷害什四以上, 勿收責; 不滿者, 以實除之.”

92 『後漢書』卷6「孝順帝紀」永建二年二月甲辰條, 254쪽.

는 전해 시월의 조치와 연속성이 있으며, 영건 원년(126) 역병과 수해의 피해를 당한 지역이 형·예·연·기 4주였음을 알 수 있다. 이 4주는 인구가 많은 지역이었으며, 특히 예·연·기 3주는 황하 중하류의 대평원에 위치하였으므로 재해로 거두지 못한 재정수입이 많았고 유민과 빈민의 구제를 위한 비용도 많았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후한서』 「효순제기」를 보면 순제 초기에 자연재해 때문에 재정이 악화된 흔적은 없었다. 심지어 양가 원년(陽嘉元年, 132) 서원(西苑)을 건축하고 궁전을 수식(修飾)할 정도였다.⁹³ 이러한 토목공사에 막대한 비용이 들었지만 매관매직이나 비용 삭감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는 당시 재정흑자였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영화 5년(140)부터 후한에 복속된 이민족들이 반란을 일으켰다. 먼저 남흉노의 사정을 살펴보자. 사월에 남흉노 좌부(左部) 구룡대인(句龍大人) 오사(吾斯)와 차뉴(車紐) 등이 반란을 일으켰으나 도료장군(度遼將軍) 마속(馬續)이 격파하였고 사흉노중랑장(使匈奴中郎將) 진구(陳龜)가 남흉노 선우(南單于)를 살해하였다.⁹⁴ 후한 조정은 구월 정해일(10.28)에 서하군(西河郡)을 이석현(離石縣)에, 상군(上郡)을 하양현(夏陽縣)에, 삭방군(朔方郡)을 오원(五原)에 기치(寄治)하였다.⁹⁵ 그 후 구룡오사(句龍吾斯) 등이 동쪽으로 오환(烏桓), 서쪽으로 강호(羌胡)와 연합하여 상군을 침입하였고 차뉴를 선우로 옹립하였다. 그러나 사흉노중랑장 장담(張耽)이 십일월 신사일(12.21)에 이들을 격파하니 차뉴가 항복하였다.⁹⁶ 남흉노의 반란은 쉽게 진압되었다. 그러나 군사를 동원했기 때문에 군사비 지출을 피할 수 없었다.

남흉노와 달리 강의 반란은 쉽게 진압되지 않았다. 영화 5년(140) 오월에 차동강(且凍羌)이 삼보를 침입하여 영·장(令長)을 살해하였다.⁹⁷ 구월에 부풍(扶

93 『後漢書』卷6「孝順帝紀」陽嘉元年條, 262쪽, “是歲, 起西苑, 修飾宮殿.”

94 『後漢書』卷6「孝順帝紀」永和五年四月條, 269쪽.

95 『後漢書』卷6「孝順帝紀」永和五年九月丁亥條, 270쪽.

96 『後漢書』卷6「孝順帝紀」永和五年九月丁亥條, 270쪽.

風)·한양에 오(塢) 300개를 쌓고 둔병(屯兵)을 주둔시켰다.⁹⁸ 전후 사정을 살펴보면 차동강의 침입에 대처하려는 조치였음을 알 수 있다. 구월 신미일(10.12)에 차동강이 무도군(武都郡)을 공격하여 농관(隴關)을 불살랐다.⁹⁹ 다음 해인 영화 6년 정월 병자일(141.2.14)에 정서장군(征西將軍) 마현(馬賢)이 차동강과 사고산(射姑山)에서 싸웠으나 패했고 안정태수(安定太守) 곽황(郭瑁)이 하옥되어 죽었다.¹⁰⁰

앞에서 살펴본 영화 5~6년 남흉노와 강의 반란 추이를 검토하면 영화 6년 정월 병자일(141.2.14) 왕국·후국의 1년분 조(租)를 대여하는 조치¹⁰¹는 남흉노와 강의 반란, 특히 후자의 반란 진압을 위한 군사비가 부족하여 취한 미봉책임을 알 수 있다. 이 조치 이후 같은 해 칠월 갑오일(8.31) 자산이 있는 백성들에게 호당 1,000전을 빌렸다.¹⁰² 그 사이에 윤월(閏月)에 공당강(鞏唐羌)이 농서군(隴西郡)을 침입하였고 이들의 침입은 삼보에까지 확대되었다.¹⁰³ 삼월에 무도태수(武都太守) 조충(趙沖)이 공당강을 토벌하였다.¹⁰⁴ 그러나 오월 경자일(7.8) 공당강은 북지군(北地郡)을 침입하였다.¹⁰⁵ 같은 날 사흉노중랑장 장탐이 천산(天山)에서 오환과 강호(羌胡)를 격파하였다.¹⁰⁶ 따라서 구월에 자산이 있는 백성들에게 1,000전을 빌린 이유는 농서·삼보·북지·무도 등지에 침입한 오환과 강등을 막기 위해 군사를 동원했고 여기에 막대한 군사비용이 필요했기 때문임을

97 『後漢書』卷6「孝順帝紀」永和五年五月條, 269쪽.

98 『後漢書』卷6「孝順帝紀」永和五年九月條, 269쪽.

99 『後漢書』卷6「孝順帝紀」永和五年九月辛未條, 270쪽.

100 『後漢書』卷6「孝順帝紀」永和六年正月丙子條, 270쪽.

101 『後漢書』卷6「孝順帝紀」永和六年正月丙子條, 270쪽.

102 『後漢書』卷6「孝順帝紀」永和六年七月甲午條, 271쪽.

103 『後漢書』卷6「孝順帝紀」永和六年閏月條, 270쪽.

104 『後漢書』卷6「孝順帝紀」永和六年三月條, 270쪽.

105 『後漢書』卷6「孝順帝紀」永和六年五月庚子條, 271쪽.

106 『後漢書』卷6「孝順帝紀」永和六年夏五月庚子條, 271쪽.

알 수 있다. 이는 당시 국고가 바닥나지 않았으면 취하지 못할 조치였다.

그러나 제후왕·열후의 1년분 조(租)를 대여하고, 자산 있는 백성들로부터 호마다 1,000전을 빌리며 막대한 군사비를 조달했지만 강 등 이민족의 반란이 쉽게 진압되지 않았다. 영화 6년 구월에 제종강(諸種羌)이 무위군(武威郡)을 침입하였다.¹⁰⁷ 시월 계축일(11.18)에 안정군(安定郡)을 부풍군(扶風郡)으로, 복지군을 풍익군(馮翊郡)으로 옮겼고¹⁰⁸ 집금오(執金吾) 장교(張喬)를 행거기장군(行車騎將軍)에 임명하여 군대를 이끌고 삼보에 주둔하게 하였다.¹⁰⁹ 이는 남흉노와 강의 침입 때문에 안정군과 복지군을 사실상 포기한 것이며 강이 삼보 지역에 침입하지 못하도록 군사들을 주둔시켜 방어하도록 한 조치이다.

이후 한안(漢安) 2년(143) 시월 백관의 봉급을 삭감하고 왕국·후국의 1년 조(租)를 대여하였다.¹¹⁰ 이에 앞서 군국과 중도관(中都官)의 죄수에게 겹(縲)을 내고 속죄하도록 하고 속죄하지 못한 지는 임강현(臨羌縣)에서 2년 복무하라는 명령을 내렸다.¹¹¹ 죄수에게 비단(絹)을 받고 풀어주는 조치를 왕국·후국의 1년 조대여 조치와 관련지어 생각하면 국고 고갈로 인한 명령임을 알 수 있다. 비단(絹)을 낼 수 없는 사람들은 임강현에 보냈는데, 임강현은 금성군(金城郡)의 속현(屬縣)이었으므로¹¹² 강인(羌人)의 침입을 막기 위해 변방으로 보내는 조치였다. 한안 2년(143) 시월에 취한 두 조치는 당시 재정적자가 심하였고 국고가 고갈되었음을 보여준다. 그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진 것일까? 한안원년(142) 팔월 남흉노 좌부대인(左部大人) 구룡오사와 옥건대기(薁鞬臺耆) 등이 반란을 일으켰고¹¹³ 구월에 광릉군(廣陵郡)의 도적 장영(張嬰) 등이 군현을 공격하

107 『後漢書』卷6「孝順帝紀」永和六年九月條, 271쪽.

108 『後漢書』卷6「孝順帝紀」永和六年十月癸丑條, 271쪽.

109 『後漢書』卷6「孝順帝紀」永和六年十一月庚子條, 271쪽.

110 『後漢書』卷6「孝順帝紀」漢安二年十月條, 273쪽, “甲辰, 減百官奉. 丙午, 禁沽酒, 又貸王·侯國租一歲.”

111 『後漢書』卷6「孝順帝紀」漢安二年十月辛丑條, 273쪽.

112 『續漢書』志第二十三「郡國志」5 涼州·金城郡條, 3519쪽.

였다.¹¹⁴ 한안 2년 사월에 호강교위(護羌校尉) 조충(趙沖)과 한양태수(漢陽太守) 장공(張貢)이 소하강(燒何羌)을 격파하였다.¹¹⁵ 즉, 1~2년 사이에 남흉노와 소하강의 반란, 광릉군에서 일어난 반란을 토벌하기 위해 군사비를 지출해야 하였다. 따라서 한안 2년(143) 사월의 왕국·후국의 1년 조 대여와 죄수들에게 비단(絹)을 바치고 속죄(贖罪)하도록 한 조치는 군사비 조달을 위한 조치였음을 알 수 있다.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순제 재위 시기에 영화 6년(141)과 한안 2년(143) 두 해는 강 등의 반란 진압에 필요한 군사비를 각출할 수 없을 정도로 국고가 탕진되어 제후왕·열후의 국조(國租)나 백성들의 돈을 빌려야 할 정도로 사실상 재정 파탄 상태였다. 영화 연간(136~141) 호구는 1,078만 호, 5,386만 9,588구였고 건강 원년(建康元年, 144)에는 994만 6,919호와 4,973만 550구였다. 후자 시기의 호구 감소는 아마도 양주(涼州)의 잦은 지진, 강의 반란과 내지에서 발생한 백성들의 반란 때문이었을 것이다.¹¹⁶ 그렇다고 해도 한 학자의 추산에 따르면

113 『後漢書』卷6「孝順帝紀」漢安元年八月條, 272쪽.

114 『後漢書』卷6「孝順帝紀」漢安元年九月庚寅條, 272쪽. 그러나 張嬰은 太守 張綱에게 항복하였다(『後漢書』卷6「孝順帝紀」漢安元年條, 272쪽).

115 『後漢書』卷6「孝順帝紀」漢安二年四月庚戌條, 273쪽.

116 建康元年과 그 이전 해에 자연재해와 반란이 빈발하였다. 漢安 2년(143)에 涼州에 지진이 180회 발생했고(『後漢書』卷6「孝順帝紀」漢安二年條, 273쪽, “是歲, 涼州地百八十震.”). 다음 해인 建康元年 正月 辛丑日에 隴西·漢陽·張掖·北地·武威·武都 6郡에 지진이 일어났다(『後漢書』卷6「孝順帝紀」建康元年正月辛丑條, 274쪽; 『續漢書』志第十六「五行志」4 地震條, 3330~3331쪽). 이 지역은 아직 羌의 반란이 일어나고 있는 지역이 대부분이었다. 三月 庚子日에 領護羌校尉 衛琚가 叛羌을 토벌하였는데(『後漢書』卷6「孝順帝紀」建康元年三月庚子條, 274쪽), 이는 아직 羌의 반란이 평정되지 않았다는 증거이다. 같은 날 南郡·江夏 盜賊이 城邑을 약탈하였다. 다행히 州郡에서 평정하였다(『後漢書』卷6「孝順帝紀」建康元年三月庚子條, 274쪽). 四月에 使匈奴中郎將 馬寔이 南匈奴 左部를 토벌했던 기사(『後漢書』卷6「孝順帝紀」建康元年四月條, 274쪽)는 南匈奴가 이전에 반란을 일으켰음을 뜻한다. 八月에 揚州와 徐州 도적이 城邑을 공격하여 약탈하자 御史中丞 馮赦가 州郡兵을 이끌고 토벌하였다(『後漢書』卷6「孝順帝紀」建康元年八月條, 274쪽). 이러한 자연재해와 전쟁이 발

건강 원년(144) 갱부·산부·구부·전조 수입은 112억 2,762만 1,135전이
 었다.¹¹⁷ 물론 순제 시기 발생한 34회의 자연재해¹¹⁸와 강 등 반란의 영향을 받
 은 지역의 백성들에게서 제대로 세금을 징수할 수 없어서 실제 징수액은 이 추
 산보다 적을 것이다.

순제 후기 지출 내역은 강 토벌과 관련된 비용만 알 수 있다. 『후한서』 권65
 「단경전」에 따르면, 순제 영화(136~141) 말 7년 동안 선령강 토벌에 80여 억 전
 을 지출하였다.¹¹⁹ 또 황보규(皇甫規)의 상소에 따르면 당시 정서장군 마현이
 4년, 즉 영화 3~6년 동안 강과의 전쟁에서 100억 전의 비용을 지출하였고 이
 군비를 간리(姦吏)가 착복했음을 알 수 있다.¹²⁰ 양자를 합하면¹²¹ 순제 시기 제
 강(諸羌) 토벌에 모두 180억 전을 정규 재정지출 비용 이외에 추가로 허비하
 였다. 황보규는 강과의 전쟁에서 막대한 군사비를 지출한 원인을 무장들의 무능

생한 涼州·揚州·徐州에서 이재민과 流民이 많이 발생했음은 쉽게 이해할 수
 있다.

117 殷琛, 2011, 앞의 글, 77쪽, 表1 漢代更賦·算賦和口賦年收入估算 및 78쪽, 表2
 漢代田租年收入估算.

118 陳業新, 2004b, 앞의 글, 252쪽, 表5-1 災害與兩漢經濟波動對照.

119 『後漢書』卷65「段熲傳」, 2148~2149쪽, “熲因上言曰: ‘… 永和之末, 復經七
 年, 用八十餘億. 費耗若此, 猶不誅盡, 餘孽復起, 于茲作害. 今不暫疲人, 則永
 寧無期. 臣庶竭駑劣, 伏待節度.’ 帝許之, 悉聽如所上.”; 『後漢書』卷87「西羌
 傳」, 2897쪽, “自永和羌叛, 至乎是歲, 十餘年間, 費用八十餘億. 諸將多斷盜
 牢糗, 私自潤入, 皆以珍寶貨賂左右, 上下放縱, 不恤軍事, 士卒不得其死者,
 白骨相望於野.”

120 『後漢書』卷65「皇甫規傳」, 2129~2130쪽, “其後羌眾大合, 攻燒隴西, 朝廷患
 之. 規乃上疏求乞自劾, 曰: ‘… 臣每惟賢等擁眾四年, 未有成功, 懸師之費且
 百億計, 出於平人, 回入姦吏.’”

121 『後漢書』「段熲傳」과 「皇甫規傳」의 군사비 액수가 80餘億錢과 100億錢으로 다
 르다. 이 가운데 후자의 액수가 커서 후자가羌의 반란 평정에 들어간 군사비 총액
 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馬賢의 동선을 살펴보면 馬賢은 段熲 등과 별도로 작전하
 였다. 馬賢은 安帝 永初 7년(113) 先零羌을 토벌한 이후(『後漢書』卷5「孝安帝
 紀」永初七年條, 220쪽) 永和 6년(141) 且凍羌과 싸워 전사할 때까지 29여 년 동
 안 諸羌 토벌에 종사하였다(『後漢書』卷6「孝順帝紀」永和六年正月丙子條,
 270쪽). 따라서 양자의 군사비는 서로 다른 武將들이 사용한 액수로 봐야 한다.

으로 보았다. 즉, 당시 강호(江湖)의 도적, 청주·서주의 황기(荒饑), 강의 반란이 모두 변장(邊將)들이 수어(綏御)하지 못해서 생긴 일임을 지적하였다.¹²² 무장들이 강의 반란 등을 초반에 평정했으면 군사비 지출을 줄일 수 있었지만 군사비 지출 자체를 막을 수 없었다. 이 180여 억 전은 관리의 봉급과 행정기관 운영이라는 일상비용 외에 추가로 지출해야 하는 돈이었고 이 금액은 건강 원년(144) 기준으로 갱부·산부·구부·전조의 최대 수입 112여 억 전의 1.6배에 해당하므로 1년 예산을 초과하는 금액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 비용이 7년 동안 지출되었으므로 1년 평균 16여 억 전을 추가로 지출해야 하였다. 이는 건강 원년(144) 기준 재정수입 추산액의 14%에 해당한다. 물론 건강 원년(144) 갱부·산부·구부·전조 총액은 장부상의 추산, 즉 이론상 거둘 수 있는 최고 금액이고 실제 재정수입은 그보다 적을 것이다. 이를 고려해도 해마다 재정수입의 14%를 추가 군사비로 지출해야 하는 것은 후한 조정에 큰 부담이었을 것이다. 이처럼 정규 예산 이외에 각종 전쟁으로 추가 비용이 발생했고 이는 순제 영화 6년(141) 당시 재정수입보다 많았기 때문에 재정적자가 발생했으며, 제후왕·열후·백성들에게 돈이나 물자를 빌려야 하는 처지에 몰리게 되었다. 문제는 이러한 재정적자 또는 재정 파탄이라는 재정 위기가 순제 말년에 벌어졌고 이후의 시기에도 호전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이는 다음 장에서 살펴본다.

Ⅲ. 재정 위기의 대응과 한계

Ⅱ장에서 짚은 자연재해¹²³와 반란 평정을 위한 군대 동원을 위한 군사비 때문

122 『後漢書』卷65「皇甫規傳」, 2129~2130쪽.

123 後漢中期 자연재해에 영향을 준 요인으로 기후 변동을 상정할 수 있다(後漢을 포함한 秦漢時代 기후연구는 文煥然, 1959, 『秦漢時代黃河中下流氣候研究』, 北京: 商務印書館, 54, 63~64, 76쪽; 竺可楨, 2006, 「中國近五千年來氣候變遷的初步研究」, 唐曉峰·黃義軍 編, 『歷史地理學讀本』, 北京: 北京大學出版社

에 화제부터 순제까지 재정 악화의 양상을 살펴보았다. 이 시기 황제들은 재민(災民) 구제 조치를 취하였다. 후한시대 황정조(荒政詔) 가운데 재민에게 곡식(穀粟) 등을 재민에게 진제(賑濟)할 것을 천명한 조서가 최소 20여 차례였고 전조·추고(芻糗)나 산부·구부, 갱부, 일부 잡세의 일부 또는 전부 면제할 것을 선언하였다.¹²⁴ 심지어 화제 영원 11년(99) 사자를 보내 피해를 당한 사람들을 구휼하였고, 산림지택(山林池澤)의 채집과 물고기잡이에 세금을 거두지 않는 조치를 지시하였다.¹²⁵ 다음 해인 영원 12년(100) 재해를 입은 군민(郡民)들에게

(原載: 竺可楨, 1979, 「中國近五千年來氣候變遷의 初步研究」, 『竺可楨文集』, 北京: 科學出版社, 414, 417, 480~481, 495쪽; 劉恭德, 1981, 「近兩千年昆明地區八月氣溫變化的分析」, 中央氣象局氣象科學研究院天氣氣候研究所編, 『戰國氣候變化學術討論會文集(1978年)』, 北京: 科學出版社; 任振球等, 1981, 「杏城運動對我國五千年來氣候變遷的影響」, 中央氣象局氣象科學研究院天氣氣候研究所編, 『戰國氣候變化學術討論會文集(1978年)』, 北京: 科學出版社; 張天麟, 1982, 「長江三角洲歷史時期氣候變遷의 初步研究」, 『華東師範大學學報(自然科學版)』, 1982-4; 張家誠等, 1985, 『中國氣候』,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491~496쪽; 王開發等, 1988, 「根據孢粉組合推斷上海西部三千年來的植被·氣候變化」, 『歷史地理』 6, 上海: 上海人民出版社; 張蘭生, 1989, 「我國西部和華北中更新世以來濕潤狀況的變化」, 鄒進上, 『氣候學研究-“天·地·生”商胡影響研究-』, 北京: 氣象出版社; 鄒逸麟, 1997, 『黃淮海平原歷史地理』, 合肥: 安徽教育出版社, 15~17쪽; 盛福堯, 1990, 「初探河南省歷史時期的寒暖」, 『歷史地理』 7, 上海: 上海人民出版社; 陳渭南, 1993, 「毛烏素沙地全新世孢粉組合與氣候變遷」, 『中國歷史地理論叢』 1993-1; 王子今, 1995, 「秦漢時期氣候變遷의 歷史學考察」, 『歷史研究』 1995-2; 張丕遠, 1996, 『中國歷史氣候變化』, 濟南: 山東科學技術出版社, 288~289, 414~415, 431쪽; 陳業新, 2004a, 「兩漢災害原因探析」, 『災害與兩漢社會研究』, 79~85쪽 등 참조). 이 가운데 한 연구에 따르면, 前漢은 비교적 寒冷하고 後漢은 溫暖하였지만, 中間에 일정한 파동이 있었다. 구체적으로 前漢初 100여 년 동안 寒冷하였고, 前漢 중기와 그 이후 점차 溫暖하였다가 기원후에 다시 寒冷으로 바뀌어 後漢 明帝 전후까지 이어졌다. 後漢 중후기 기후는 溫暖으로 바뀌어 봄과 여름이 濕潤하였지만, 개별 겨울은 乾冷하였고 後漢末 기후는 급격해 寒冷으로 바뀌었다(陳業新, 2004a, 앞의 글, 117~122쪽). 이 연구 결과를 옳다고 믿는다면, 자연재해가 집중적으로 발생했던 후한 중기는 온난한 시기였으므로 홍수와 가뭄, 메뚜기 떼 등 자연재해가 기후의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고 추정할 수 있다.

124 陳業新, 2004b, 앞의 글, 293~294쪽.

종자와 식량을 제공하고 자활이 불가능한 환과고독(鰥寡孤獨)에게 하사하며 군국의 유민들에게 피지(陂池)에서 물고기를 잡도록 허락하였다.¹²⁶ 산림지택 등의 생산물에 세금을 부과했는데 전한시대에 소부가 관장하다가 후한시대에 대사농에 이관되었다.¹²⁷ 따라서 산림지택의 개방도 중앙정부의 재정수입의 감소를 뜻하였다. 이는 불가피한 상황이었으므로 후한 조정은 다른 방편을 강구해야 하였다.

후한 건국 때의 인구는 전한 말기의 20%에 불과했고 광무제 중원 2년(57)에 427만 1,634호, 2,100만 7,820인에 불과하였다.¹²⁸ 따라서 후한 초기부터 황제들은 호구와 간전 면적 증대를 위한 조치를 취하였다. 이와 더불어 비용을 삭감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먼저 역대 황제들은 제후왕의 수입도 재정 여건을 고려하였다. 명제가 영평

125 『後漢書』卷4「孝和帝紀」永元十一年二月條, 185쪽, “十一年春二月, 遣使循行郡國, 稟貸被災害不能自存者, 令得漁采山林池澤, 不收假稅.”

126 『後漢書』卷4「孝和帝紀」永元十二年二月條, 186쪽, “詔貸被災諸郡民種糧, 賜下貧·鰥·寡·孤·獨·不能自存者, 及郡國流民, 聽入陂池漁采, 以助蔬食.”

127 『續漢書』志第二十六「百官志」3 少府條, 3600쪽, “職屬少府者, 自太醫·上林凡四官. 自侍中至御史, 皆以文屬焉. 承秦, 凡山澤陂池之稅, 名曰禁錢, 屬少府. 世祖改屬司農, 考工轉屬太僕, 都水屬郡國.”

128 『續漢書』「郡國志」에 인용된 『帝王世記』에 따르면 後漢初 인구는 前漢 말기의 2/10에 불과했고 光武帝 中元二年(57년)에 427만 1,634戶, 2,100만 7,820인에 불과하였다(『續漢書』志第十九「郡國志」1 序文 注引帝王世記, 3388쪽, “及王莽篡位, 續以更始·赤眉之亂, 至光武中興, 百姓虛耗, 十有二存. 中元二年, 民戶四百二十七萬千六百三十四, 口(三)(二)千一百萬七千八百二十人.”). 元始 2년 郡·國 103개, 縣·邑 1,587, 개간지는 827만 536頃, 戶數는 1,323만 3,612戶, 口數는 5,919만 4,978人이었는데(『續漢書』志第十九「郡國志」1 序文 注引帝王世記, 3388쪽, “元始二年, 郡·國百三, 縣·邑千(四)[五]百八十七, 地東西九千三百二里, 南北萬三千三百六十八里, 定墾田八百二十七萬五千三百三十六頃, 民戶千三百二十三萬三千六百一十二, 口五十九百一十九萬四千九百七十八人, 多周成王四千五百四十八萬五十五人, 漢之極盛也.”), 後漢初 인구가 前漢 말기의 2/10였다는 『帝王世記』의 기록을 사실이라고 믿는다면 後漢初 인구는 264만 6,722戶와 1,183만 8,996口로 추정된다. 이 인구에서 거둬들일 재정수입은 前漢末의 20%에 불과하기 때문에 기존의 官制를 유지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15년 황자(皇子)들을 왕으로 봉하며 절반의 식읍을 황자들에게 주었다.¹²⁹ 장제도 건초(建初) 4년(79) 여지도(輿地圖)를 보고 봉국(封國)의 호구를 동등하게 하여 조를 해마다 8,000만 전이 되도록 봉국을 조정하였다.¹³⁰ 다만 양왕(梁王) 창(暢)만은 황제의 총애를 받아 다른 제후왕보다 조입(租入)이 배나 되었다.¹³¹ 후한의 황제들은 제후왕에게 하사하는 부의금의 액수도 통제하였다. 『후한서』 권42 「광무10왕·중산간왕언전」에 따르면 광무제부터 화제 때까지 시봉왕(始封王)에게 부전(賻錢) 3,000만 전, 포(布) 3만 필, 사왕(嗣王)은 부전 1,000만 전, 포 1만 필을 각각 하사하는 규정이 있었다.¹³² 그러나 안제 영초 연간(107~113) 이후 용적(戎狄)의 반란으로 재정수입이 부족하여 시봉왕의 부전을 1,000만 전, 포 1만 필, 사왕의 부 500만 전, 포 5,000필로 줄였다. 제북왕(濟北王) 수(壽)는 황제의 총애를 받아 특별히 3,000만 전과 포 3만 필의 부의금이 주어졌다.¹³³ 두 사료를 비교하면 안제 영초 연간(107~113)에 시봉왕은 원래 규정의 1/3, 사왕은 1/2로 부의금을 줄였음을 알 수 있다.

후한은 제후왕뿐만 아니라 열후의 수입도 통제하였다. 등강(鄧康)이 안제 영초 6년(112) 이안후(夷安侯)에 봉해질 때에 이미 소봉자(紹封者)는 후국(侯國)을 세습할 때 식읍의 반조(半租), 즉 전조 수입의 절반을 받는 조치가 취해졌다. 이

129 『後漢書』卷10上「皇后紀·明德馬皇后紀」, 410쪽, “十五年, 帝案地圖, 將封皇子, 悉半諸國.”

130 『後漢書』卷50「孝明八王·陳敬王羨傳」, 1667쪽, “陳敬王羨, 永平三年封廣平王. 建初三年, 有司奏遣羨與鉅鹿王恭·樂成王黨俱就國. 肅宗性篤愛, 不忍與諸王乖離, 遂皆留京師. 明年, 案輿地圖, 令諸國戶口皆等, 租入歲各八千萬.”

131 『後漢書』卷50「孝明八王·梁節王暢傳」, 1675쪽, “梁節王暢, 永平十五年封為汝南王. 母陰貴人有寵, 暢尤被愛幸, 國土租入倍於諸國. 肅宗立, 緣先帝之意, 賞賜恩寵甚篤. 建初二年, 封暢舅陰棠為西陵侯. 四年, 徙為梁王, 以陳留之鄆·寧陵, 濟陰之薄·單父·己氏·成武, 凡六縣, 益梁國. 帝崩, 其年就國.”

132 『後漢書』卷42「光武十王·中山簡王焉傳」, 1450쪽, “自中興至和帝時, 皇子始封薨者, 皆賻錢三千萬, 布三萬匹; 嗣王薨, 賻錢千萬·布萬匹.”

133 『後漢書』卷55「章帝八王·濟北惠王壽傳」, 1806~1807쪽, “自永初已後, 戎狄叛亂, 國用不足, 始封王薨, 減賻錢為千萬, 布萬匹; 嗣王薨, 五百萬, 布五千匹. 時唯壽最尊親, 特賻錢三千萬, 布三萬匹.”

때 등강은 등태후의 척속(戚屬)이었기 때문에 후국 전조의 2/3를 받는 특혜 조치를 받았다.¹³⁴ 언제부터인지 알 수 없으나 언제 시기에 이미 열후들도 후국을 세습할 때 이전보다 식읍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조치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¹³⁵ 이 조치에서 열후의 수입을 삭감하여 재정수입을 증가시키는 정책을 취했음을 알 수 있다. 또 언제의 재위 시기인 영초 연간 전쟁 때문에 제후왕과 열후의 조질(租秩)이 주어지지 않았다.¹³⁶ 제후왕과 열후의 조세 수입을 전용했던 사례는 『후한서』 「안제기」에 없고 순제 영화 6년(141.2.14)¹³⁷과 한안 2년(143)¹³⁸에 취해졌다. 따라서 「안제기」에 기록이 없어도 이미 언제 시기에 제후왕과 열후의 전조 수입을 전용하는 현상이 존재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후한서』 권33 「풍방전부석전(馮魴傳附石傳)」의 아래 대목에서 알 수 있다.

풍정(馮定)의 아우 풍석은 어머니인 공주를 세습하여 획가후(獲嘉侯)에 봉해졌으며 역시 시중(侍中)에 임명되었고 이후 위위(衛尉)로 승진하였다. 당세(當世)의 환심을 사서 언제의 총애를 받았다. 안제가 일찍이 그의 부(衛尉府)를 방문하여

134 『後漢書』卷16「鄧禹傳附康傳」, 606쪽, “永初六年, 紹封康為夷安侯。時諸紹封者皆食故國半租, 康以皇太后戚屬, 獨三分食二, 以侍祠侯為越騎校尉。”

135 鄭玄은 『周禮』 「地官大司徒」에 “凡建邦國, 以土圭土其地而制其域: 諸公之地, 封疆方五百里, 其食者半; 諸侯之地, 封疆方四百里, 其食者參之一; 諸伯之地, 封疆方三百里, 其食者參之一; 諸子之地, 封疆方二百里, 其食者四之一; 諸男之地, 封疆方百里, 其食者四之一”라는 구절을 바탕으로 諸侯國이 天子에 바치는 貢物의 비율로 半分, 三分之一, 四分之一이었고, “必足其國禮俗喪紀祭祀之用, 乃貢其餘, 若今度支經用餘為司農穀矣”라고 하여 漢王朝의 제도를 이끌어 해설하였다. 이에 따르면 漢代 諸侯王의 財政은 各國의 經常經費를 제외한 나머지를 大司農의 곡물로 중앙에 공납했음을 알 수 있다(渡邊信一郎, 2010b, 앞의 글, 59~60쪽). 그러나 이를 입증할 사료는 『後漢書』에 없기 때문에 이 주장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없다.

136 『後漢書』卷33「馮魴傳附石傳」, 1149쪽.

137 『後漢書』卷6「孝順帝紀」永和六年正月丙子條, 270쪽, “詔貸王·侯國租一歲.”

138 『後漢書』卷6「孝順帝紀」漢安二年十月條, 273쪽, “丙午, 禁沽酒, 又貸王·侯國租一歲.”

10여 일 동안 머물며 술을 마셨으며 박서구검(駮犀具劍)·패도(佩刀)·자애수(紫艾綬)·옥결(玉珎)을 각각 1개씩 하사하고 아들 풍세(馮世)를 황문시랑(黃門侍郎), 풍세의 아우 2인을 낭중(郎中)에 배수(拜授)하였다. 영초 연간의 병황(兵荒) 이후 왕·후(王侯)의 조질(租秩)은 대부분 충당되지 못했는데, 이때 특별히 조서를 내려 다른 현의 조세를 풍석에게 주라고 명령하고 3만 곡과 4만 전을 하사하였다. 광록훈(光祿勳)으로 옮겼으며 드디어 양진(楊震)을 대신하여 태위(太尉)에 임명되었다.¹³⁹

위의 인용문은 안제 시기에 제후왕과 열후의 수입을 조정에서 전용했음을 시사하는 기록이며 『후한서』 「효안제기」에 보이지 않는 기사이다. 인용문에서 알 수 있듯이 이미 안제 초기인 영초 연간부터 후한 조정이 병황(兵荒), 즉 강의 반란으로 야기된 기황(飢荒)과 기타 재해 때문에 제후왕과 열후에게 조질(租秩)의 대부분을 주지 않았다는 대목은 제후왕과 열후의 조질을 통제한 후한 조정이 제후왕과 열후에게 주어야 할 조질의 대부분을 주지 않고 전용했음을 보여준다. 『후한서』에 동해왕(東海王) 숙(肅)과 임성왕(任城王) 숭(崇), 안향후(安鄉侯) 장우(張禹)가 기부한 예¹⁴⁰만 기록되었음을 보면 후자의 가능성이 더 크다.

139 『後漢書』卷33「馮魴傳附石傳」, 1149쪽, “定弟石, 龔母公主封獲嘉侯, 亦為侍中, 稍遷衛尉. 能取悅當世, 為安帝所寵. 帝嘗幸其府, 留飲十許日, 賜駮犀具劍·佩刀·紫艾綬·玉珎各一, 拜子世為黃門侍郎, 世弟二人皆郎中. 自永初兵荒, 王侯租秩多不充, 於是特詔以它縣租稅足石, 令如舊限, 歲入穀三萬斛, 錢四萬. 遷光祿勳, 遂代楊震為太尉.”

140 東海王 肅은 安帝 永初 연간(107~113) 西羌이 평정되지 못하자 2千萬錢을 바쳤다. 그리고 元初 연간(114~120) 다시 縑 1萬匹을 바쳐 國費를 보조하도록 하였다(『後漢書』卷42「光武十王·東海恭王彊傳附頃王肅傳」, 1425쪽, “永初中, 以西羌未平, 上錢二千萬. 元初中, 復上縑萬匹, 以助國費, 鄧太后下詔褒納焉”). 任城王 崇은 順帝 때羌의 반란이 여러 차례 일어나자 군사비로 사용하도록 錢帛을 바쳤다(『後漢書』卷42「光武十王·東平憲王蒼傳附子任城孝王尚傳」, 1443쪽, “安立十九年薨, 子節王崇嗣. 順帝時, 羌虜數反, 崇輒上錢帛佐邊費”). 安鄉侯 張禹는 해마다 災荒이 발생하여 府藏이 부족해지자 永初 4년(110)에 3년의 租稅를 나라에 바쳐 郡國의 廩假에 사용하도록 청하여 皇帝의 허락을 받

그런데 이 대목 앞에 풍석이 위위에 임명되었고 안제가 그를 총애하여 그의 부(府)를 방문했다고 기록했을 뿐,¹⁴¹ 구체적인 연도를 기록하지 않았다. 청대 학자 연서(練恕)의 「후한공경표(後漢公卿表)」에 따르면 풍석은 영녕 원년(120)에 위위에 임명되었고¹⁴² 『후한서』 「효안제기」에 따르면 안제가 풍석의 위위부를 방문한 시기는 건광원년(121)이었다.¹⁴³ 안제의 하사 기록 이후 풍석은 광록훈으로 전임되었고 태위로 승진하였다.¹⁴⁴ 연서의 「후한공경표」에 따르면 풍석이 광록훈에 임명된 시기는 연광 2년(123)이었고 태위로 승진한 시기는 다음 해인 연광 3년(124)이었다.¹⁴⁵ 따라서 안제가 풍석의 위위부를 방문한 건광 원년(121)까지 제후왕과 열후의 조질을 전용한 관행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즉, 안제 말기인 건광 원년(121)까지 재정수지 적자를 제후왕과 열후의 조질 수입으로 메웠음을 뜻한다. 『속한서』 「오행지」에서 건광 원년(121) 경도(京都), 즉 낙양(하남윤)과 29개 군국에서 홍수의 피해를 입었고 강의 반란이 평정되지 않고 백성들이 둔수(屯戍)하여 고통을 겪었다고 기록하였다.¹⁴⁶ 각종 재난과 반란, 백성들의 둔수 때문에 이전보다 거둘 수 있는 재정수입이 줄어들었을 것이다. 따라서 안제 재위

았다(『後漢書』卷44「張禹傳」, 1499쪽, “後連歲災荒, 府臧空虛, 禹上疏求入三歲租稅, 以助郡國稟假, 詔許之.”). ‘租稅’는 張禹가 봉해진 安鄉侯의 수입이었으므로 張禹는 永初 4년(110)부터 6년(112)까지 3년의 食邑 수입을 자연재해 구휼을 위해 바쳤음을 알 수 있다.

141 『後漢書』卷33「馮魴傳附石傳」, 1149쪽, “定弟石, 襲母公主封獲嘉侯, 亦為侍中, 稍遷衛尉. 能取悅當世, 為安帝所寵. 帝嘗幸其府, 留飲十許日, 賜駸犀具劍·佩刀·紫艾綬·玉玦各一, 拜子世為黃門侍郎, 世弟二人皆郎中.”

142 練恕 撰, 「後漢公卿表」, 『二十五史補編』(二十五史刊行委員會 編, 北京: 中華書局, 1955(1998重印), 1984쪽.

143 『後漢書』卷5「孝安帝紀」建光元年九月戊子條, 234쪽, “戊子, 幸衛尉馮石府.”

144 『後漢書』卷33「馮魴傳附石傳」, 1149쪽, “遷光祿勳, 遂代楊震為太尉.”

145 『後漢書』卷5「孝安帝紀」延光三年四月戊辰條, 238쪽, “戊辰, 光祿勳馮石為太尉.”

146 『續漢書』志第十三「五行志」1 淫雨條, 3269쪽, “建光元年, 京都及郡國二十九淫雨傷稼. 是時羌反久未平, 百姓屯戍, 不解愁苦.”

대부분 기간 제후왕과 열후의 조질의 대부분을 조정이 전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안제는 동시에 영초 연간 이후 융적의 반란으로 국용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시봉왕(始封王)의 부조금을 1,000만 전과 포 1만 필, 사왕(嗣王)은 부조금 500만 전과 포 5,000필로 줄였다.¹⁴⁷ 이는 군사비와 재해 구조 비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조치였을 것이다. 제후왕과 열후의 조질을 전용한 『후한서』 권33 「풍방전부석전(馮魴傳附石傳)」의 기사¹⁴⁸는 이미 안제 초기인 영초 연간부터 조정이 강의 반란과 각종 재해를 이유로 제후왕과 열후의 수입을 전용했음을 시사한다. 이는 안제 시기 재정 파탄 때문일 것이다. Ⅱ 장 2절에서 살펴본 것처럼 영초 3년(109) 매관매직(관내후·호분우림랑·오대부·관부리·제기·영사)으로 재정을 충당하였다.¹⁴⁹ 자연재해 등으로 재난민에게 세금을 징수하지 못하여 재정수입이 줄어들고 구휼 때문에 재정지출이 늘어나서 국고가 바닥났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백관의 봉급 삭감 정책을 살펴보자. 영초 3년(109) 재정 파탄보다 4년 전인 상제 시기에 이미 재정지출을 줄이는 조치를 취하였다. <표 1>은 후한 관리의 월봉액(月俸額) 비교표이다.

<표 1>의 안사고주(顔師古注), 『후한서』 「백관지」, 『후한서』 「광무제기」 장 회태자주는 건무(建武) 26년의 봉록 개혁을 반영한 것이며, 특히 장회태자주가 정확하다고 한다.¹⁵⁰ 상제 연평(106) 중에 월봉은 곡물과 동전을 절반씩 지급했다고 했다고 하는데,¹⁵¹ <표 1> 연평 중에 월봉 1곡(斛)당 동전의 액수를 비교

147 『後漢書』卷55「章帝八王·濟北惠王壽傳」, 1806~1807쪽, “自永初已後, 戎狄叛亂, 國用不足, 始封王薨, 減賻錢為千萬, 布萬匹; 嗣王薨, 五百萬, 布五千匹.”

148 『後漢書』卷33「馮魴傳附石傳」, 1149쪽.

149 『後漢書』卷5「孝安帝紀」永初三年三月壬寅條, 213쪽, “三公以國用不足, 奏令吏人入錢穀, 得為關內侯·虎賁羽林郎·五大夫·官府吏·緹騎·營士各有差.”

150 黃惠賢·陳鋒 主編, 1996, 앞의 책, 38~39쪽.

151 소위 “半錢半穀” 연구사는 聶崇岐, 「漢代官俸質疑」, 『宋史叢稿』上冊, 中華書局, 1979, 261쪽; 若江賢三, 「試論東漢官吏半錢半穀的俸祿制」, 『中國史研究』1989-2, 1989; 黃惠賢·陳鋒 主編, 1996, 위의 책, 51~54쪽 참조.

〈표 1〉 후한 관리의 월봉액(月俸額) 비교표¹⁵²

秩別	後漢							
	顔師古注 (斛)	『後漢書』 「百官志」	「光武帝紀」 李賢注	延平中(106) 월봉				
				동전	곡물	錢/斛	곡물의 2배로 합산	錢을 곡물로 환산 ¹⁵³
三公	350斛	350斛	350斛					
中二千石	180斛	180斛	180斛	9,000錢	72斛	125	144	162
二千石	120斛	120斛	120斛	6,500錢	36斛	180.56	72	101
比二千石	100斛	100斛	100斛	5,000錢	34斛	147.06	68	84
千石	90斛	80斛	90斛	4,000錢	30斛	133.33	60	70
比千石	80斛		80斛					
六百石	70斛	70斛	70斛	3,500錢	21斛	166.67	42	56
比六百石	60斛	50斛	55斛					
四百石	50斛	45斛	50斛	2,500錢	15斛	166.67	30	40
比四百石	45斛	40斛	45斛					
三百石	40斛	40斛	40斛	2,000錢	12斛	166.67	24	32
比三百石	37斛	37斛	37斛					
二百石	30斛	30斛	30斛	1,000錢	9斛	111.11	18	19
比二百石	27斛	27斛	27斛					
百石	16斛	16斛	16斛	800錢	4.8斛	166.67	9.6	12.8
斗食	11斛	11斛	11斛					
佐史	8斛	8斛	8斛					

하면, 중이천석은 1곡에 125전, 이천석은 180.56전, 비이천석은 147.06전, 천석은 133.33전, 육백석·사백석·삼백석·백석은 166.67전, 이백석은 111.11전

152 출전: 黃惠賢·陳鋒 主編, 1996, 『中國俸祿制度史』, 37~38쪽 表2-1 漢代各秩別月俸三種記載比較; 『續漢書』 志第二十八 「百官志」5 王國條, 3632~3633쪽, “荀綽晉百官表注曰: ‘漢延平中, 中二千石奉錢九千, 米七十二斛. 真二千石月錢六千五百, 米三十六斛. 比二千石月錢五千, 米三十四斛. 一千石月錢四千, 米三十斛. 六百石月錢三千五百, 米二十一斛. 四百石月錢二千五百, 米十五斛. 三百石月錢二千, 米十二斛. 二百石月錢一千, 米九斛. 百石月錢八百, 米四斛八斗.’ 獻帝起居注曰: ‘帝在長安, 詔書以三輔地不滿千里, 而軍師用度非一, 公卿已下不得奏除, 其若公田, 以秩石為率, 賦(興)[與]令各自收其租稅.’”

153 100錢을 1斛으로 계산하였다.

으로 모두 다르다. 육백석·사백석·삼백석·백석 등 하급 관리 봉록의 곡물과 동전 비가(比價)가 높는데, 이는 광무제 건무 26년(50) 천석 이상의 봉록은 줄이고 육백석 이하는 줄였던 조치¹⁵⁴를 상기시킨다. 그러나 이백석의 1곡당 전액(錢額)이 바로 위의 삼백석과 아래 등급의 백석보다 적고, 천석 이상 월봉 가운데 이천석의 곡물과 동전 비가가 아래 등급인 비이천석과 천석보다 높은 점은 건무 26년 봉록 개편의 원칙에 어긋난다. 여기서 ‘곡(穀)’과 ‘미(米)’ 1곡의 가격이 다름을 지적하여 비가의 차이를 설명하기도 한다.¹⁵⁵ 이에 따라 동전 지급액을 곡물액과 같다고 보면, 중이천석의 월봉은 144곡, 이천석은 72곡, 비이천석은 68곡, 천석은 60곡, 육백석은 42곡, 사백석은 30곡, 삼백석은 24곡, 이백석은 18곡, 백석은 9.6곡이다. 이는 왼쪽의 세 봉록과 비교하면, 각각 36곡, 48곡, 32곡, 20곡, 28곡, 15~20곡, 16곡, 12곡, 6.4곡이 적다. 만약 동전 봉록액을 1곡=100전으로 환산하면 각각 162곡, 101곡, 84곡, 70곡, 56곡, 40곡, 32곡, 19곡, 12.8곡인데, 역시 18곡, 19곡, 16곡, 10곡, 14곡, 5곡, 8곡, 11곡, 3.2곡이 적다. 어떤 경우든 상제 연평 연간(106) 월봉은 광무제 건무 26년 월봉을 일부 삭감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재정수입 부족이나 재정지출 증가 때문에 취해진 조치였다.

그러나 관리들의 봉급 삭감은 상제 연평 연간(106)의 조치로 끝나지 않았다. 순제 한안 2년(143) 시월에도 백관 봉급을 삭감하였다.¹⁵⁶ 이 조치가 일시적인 조치였는지, 통상적인 봉급 삭감으로 굳어졌는지 확인할 자료는 없다. 그러나 후한시대 여러 차례에 걸친 관리들의 봉록 삭감으로 수입이 줄어든 관리들의 청렴을 기대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154 『後漢書』卷1下「光武帝紀」建武二十六年正月條, 77쪽, “二十六年(春)正月, 詔有司增百官奉, 其千石已上, 減於西京舊制; 六百石已下, 增於舊秩.”

155 黃惠賢·陳鋒 主編, 1996, 앞의 책, 553~554쪽.

156 『後漢書』卷6「孝順帝紀」漢安二年十月條, 273쪽, “甲辰, 減百官奉. 丙午, 禁沽酒, 又貸王·侯國租一歲.”

IV. 맺음말

인구가 5,000만 구(口)를 돌파한 화제 시기부터 각종 자연재해와 내란 때문에 이에 대처하느라 많은 재정을 지출해야 했고 피해자들로부터 거둘 수 있는 조세도 줄어들었다. 화제 재위 시기에는 그럭저럭 재정을 유지할 수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화제 사후 1년도 되지 않아 사망했던 상제 시기 관리들의 봉급을 삭감한 조치를 보면 화제 시기에 이미 재정 위기는 시작되었다.

Ⅱ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후한 중기 가운데 안제~순제 시기에 자연재해와 이민족의 반란으로 인한 전쟁으로 재정지출이 급증하였다. 특히 안제 영초 3년(109) 대관매직(관내후·호분우림랑·오대부·관부리·제기·영사),¹⁵⁷ 순제 영화 6년(141.2.14) 왕국·후국의 1년분 조(租) 대여,¹⁵⁸ 같은 해 칠월 갑오일(8.31) 자산이 있는 백성들의 호(戶)당 1,000전 대여,¹⁵⁹ 한안 2년(143) 시월 백관 봉급 삭감과 왕국·후국의 1년 조 대여¹⁶⁰ 등 조치는 최소 4회(횟수로는 3개 연도)나 후한의 국가재정이 파탄 났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는 미봉책에 불과했고 재정 위기를 타파할 근본적인 정책이 되지 못했다.

Ⅲ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후한의 황제들은 자연재해와 전쟁 때문에 비용이 증가하자 제후왕들에게 하사하는 부의금 등을 줄였다. 또 열후의 후국으로부터 취하는 수입을 절반으로 줄였으며, 군사비 등으로 전용하기 위해 제후왕과 열후의 수입 중 상당수를 전용하기도 하였다. 또 관리(官吏)들의 봉록도 점차 줄였다. 이런 조치는 미봉책이었을 뿐 광무제 시기처럼 중앙정부의 부서나 관직을 대폭 줄이거나 군국과 현을 삭감하는 등 재정지출을 대폭 삭감하는 근본적인 정책을 추진하지 못하였다.¹⁶¹

157 『後漢書』卷5「孝安帝紀」永初三年三月壬寅條, 213쪽.

158 『後漢書』卷6「孝順帝紀」永和六年正月丙子條, 270쪽.

159 『後漢書』卷6「孝順帝紀」永和六年七月甲午條, 271쪽.

160 『後漢書』卷6「孝順帝紀」漢安二年十月條, 273쪽.

개설서에서 화제부터 영제(靈帝)까지 외척과 환관의 발호와 부정부패로 정치가 혼란했다고 기록되었다. 이 시기 황제들이 모두 범용(凡庸)한 군주는 아니었다. 화제는 외척 두현을 죽인 후에 만기친람하여 재해 때마다 공경의 극언을 들었고 상서(祥瑞)를 선포하지 못하게 하였으며 특산물 헌상의 고초를 알고 난 후에 용안(龍眼)·여지(荔枝) 등의 진상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하였다.¹⁶² 그러나 재정문제를 보면 결과적으로 악화된 재정을 물려주었다.

이 글은 외척과 환관의 발호가 끼친 정치적·사회적 부작용뿐만 아니라 학계에서 상대적으로 덜 주목했던 자연재해와 강의 내란도 국가재정의 파탄과 후한의 붕괴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었음을 지적했다는 점에서 연구사적 의의가 있다. 또 후한시대에 열후 수입이 1/n로 감소하는 현상을 처음으로 지적하였다. 열후가 후국 식읍의 조세수입 중 1/2만 수취하는 관행은 이후의 왕조에서 지속되었다. 예컨대 조위(曹魏)·서진(西晉)은 식읍의 1/3, 동진(東晉)·남조(南朝)에서 제후왕·열후의 국질(國秩)은 식읍의 1/9만 수취하는 제도가 있었고¹⁶³ 북위(北魏)에서는 왕은 식읍의 1/2, 공(公)은 1/3, 후(侯)와 백(伯)은 1/4, 자(子)와 남

161 光武帝 시기 행정 개혁은 최진열, 2022, 앞의 글, 5~39쪽 참조.

162 『後漢書』卷4「孝和帝紀」元興元年十二月辛未條, 194쪽, “自竇憲誅後, 帝躬親萬機, 每有災異, 輒延問公卿, 極言得失, 前後符瑞八十一所, 自稱德薄, 皆抑而不宣, 舊南海獻龍眼·荔枝, 十里一置, 五里一候, 奔騰阻險, 死者繼路, 時臨武長汝南唐羌, 縣接南海, 乃上書陳狀, 帝下詔曰: ‘遠國珍羞, 本以薦奉宗廟, 苟有傷害, 豈愛民之本, 其勅太官勿復受獻.’ 由是遂省焉.”

163 『晉書』卷7「成帝紀」咸和元年十一月壬子條, 170쪽, “改定王侯國秩, 九分食一.”; 『晉書』卷14「地理志」上, 415쪽, “而江左諸國並三分食一, 元帝渡江, 太興元年, 始制九分食一.”; 『宋書』卷40「百官志」下, 1260쪽, “晉江左諸國, 並三分食一, 元帝太興元年, 始制九分食一.” 그런데 東晉은 ‘江左’, 즉 江東 또는 江南에 위치했으므로 세 사료의 ‘江左’는 東晉 이전, 즉 曹魏와 西晉의 誤記일 것이다. 『通典·職官典』에서 西晉시대에 諸侯는 食邑의 1/3을 수취한다고 기록하였다(『通典』卷31「職官」13, “初武帝踐祚, 封宣帝子骸為東莞郡王, 始置二卿, 侯以下置官屬, 隨國大小無定制, 諸侯並三分食一.”). 따라서 魏晉時대에 王과 侯는 食읍의 1/3을 수취하였을 것이다.

(男)은 1/5를 받았다.¹⁶⁴ 이처럼 봉군(封君)이 식읍의 일부만 수취하는 제도 또는 관행이 후한시대부터 존재했음을 밝힌 것도 중요한 연구사적 의의이다.

164 『魏書』 卷7下「高祖紀」下 太和十八年十二月己酉條, 176쪽, “己酉, 詔王·公·侯·伯·子·男開國食邑者: 王食半, 公三分食一, 侯伯四分食一, 子男五分食一.”

참고문헌

사료

- 『漢書』(班固 撰, 顔師古 注, 北京: 中華書局, 1962).
- 『後漢書』(范曄 撰, 李賢 等注, 北京: 中華書局, 1965).
- 『晉書』(房玄齡 等撰, 北京: 中華書局, 1974).
- 『魏書』(魏收 撰, 北京: 中華書局, 1974).
- 『通典』(杜佑 撰, 王文錦 等 點校, 北京: 中華書局, 1988).
- 『太平御覽』[李昉等撰, 北京: 中華書局, 1960(1998重印)].
- 練恕 撰, 「後漢公卿表」, 『二十五史補編』[二十五史刊行委員會 編, 北京: 中華書局, 1955(1998重印)].

단행본

- 葛劍雄, 2002, 『中國人口史』 第一卷 導論·先秦至南北朝時期, 上海: 復旦大學出版社.
- 多田狷介, 1999, 『漢魏晉史の研究』, 東京: 汲古書院.
- 馬大英, 1983, 『漢代財政史』, 北京: 中國財政經濟出版社.
- 文煥然, 1959, 『秦漢時代黃河中下流氣候研究』, 北京: 商務印書館.
- 王育民, 1995, 『中國人口史』, 南京: 江蘇人民出版社.
- 張家誠 等, 1985, 『中國氣候』,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 張丕遠, 1996, 『中國歷史氣候變化』, 濟南: 山東科學技術出版社.
- 陳業新, 2004, 『災害與兩漢社會研究』, 上海: 上海人民出版社.
- 陳垣, 1999, 『二十史朔閏表』, 北京: 中華書局(重印).
- 鄒逸麟, 1997, 『黃淮海平原歷史地理』, 合肥: 安徽教育出版社.
- 黃惠賢·陳鋒 主編, 1996, 『中國俸祿制度史』, 武漢: 武漢大學出版社.
- 渡邊信一郎, 2010, 『中國古代の財政と國家』, 東京: 汲古書院.
- 山田勝芳, 2001, 「秦漢時代の財政問題」, 殷周秦漢時代史の基本問題編纂委員會

編,『殷周秦漢時代史の基本問題』,東京:汲古書院.

논문

李成珪, 1998, 「虛像의 太平: 漢帝國의 瑞祥과 上計의 造作」, 서울大東洋史研究室編,『古代中國의 理解』4, 知識産業社.

_____, 2009, 「帳簿上的 帝國'과 '帝國의 現實': 前漢 前期 南郡의 編戶齊民 支配와 그 限界」,『中國古中世史研究』22.

최진열, 2022, 「後漢 光武帝의 官制·행정조직 개편과 그 배경-인구 및 재정문제와의 관련성을 중심으로-」,『大同文化研究』119.

陳業新, 2004a, 「兩漢災害原因探析」,『災害與兩漢社會研究』,上海:上海人民出版社.

_____, 2004b, 「災害與兩漢經濟研究」,『災害與兩漢社會研究』,上海:上海人民出版社.

賈碧眞, 2016, 「東漢蝗災研究」,山西大學學位論文.

陶文牛, 1993, 「東漢人口增長和減少的演變-《續漢書·郡國志》戶口資料研究之一-」,『山西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1993-1.

房春艷·王曉霞, 2011, 「論東漢時期的自然災害與道教形成之關聯」,『安康學院學報』23-3.

付火水·羅亨江, 2011, 「東漢經濟與邊防定策」,『滄桑』2011-2.

史衛, 2007, 「漢代財政制度演變試探」,『南都學壇(人文社會科學學報)』27-5.

聶崇岐, 1979, 「漢代官俸質疑」,『宋史叢稿』上冊,北京:中華書局.

盛福堯, 1990, 「初探河南省歷史時期的寒暖」,『歷史地理』7,上海:上海人民出版社.

若江賢三, 1989, 「試論東漢官吏半錢半穀的俸祿制」,『中國史研究』1989-2.

王開發 等, 1988, 「根據孢粉組合推斷上海西部三千年來的植被·氣候變化」,『歷史地理』6,上海:上海人民出版社.

王文濤, 2006, 「東漢洛陽自然災害與政府賑災年表」,『河南科技大學學報(社會科學版)』2006-1.

_____, 2007, 「東漢安帝朝自然災害與政府賑災年表」,『咸陽師範學院學報』2007-3.

王飛, 2011, 「3-6世紀中國北方地區的疫病與社會」,吉林大學學位論文.

- 王威, 2019, 「東漢自然災害史研究綜述」, 『農業災害研究』 2019-2.
- 王子今, 1995, 「秦漢時期氣候變遷的歷史學考察」, 『歷史研究』 1995-2.
- 袁廷勝, 2003, 「東漢戶口總數之謎試析」, 『南都學壇(人文社會科學學報)』 23-2.
- , 2020, 「東漢“大疫”與人口」, 『青海民族研究』 31-3.
- 苑苑, 2020, 「東漢梁妠爲后時期的自然災害與救助」, 『咸陽師範學院學報』 2020-3.
- 劉恭德, 1981, 「近兩千年昆明地區八月氣溫變化的分析」, 中央氣象局氣象科學研究院天氣氣候研究所 編, 『戰國氣候變化學術討論會文集(1978年)』, 北京: 科學出版社.
- 劉德超, 2013, 「東漢皇帝彌災研究」, 曲阜師範大學學位論文.
- 劉志平, 2013, 「《焦氏易林》所見西漢農業自然災害及牛耕和糧食畝產量」, 『咸陽師範學院學報』 28-5.
- 劉春雨, 2005, 「東漢自然災害時空分布研究」, 鄭州大學學位論文.
- , 2007, 「東漢自然災害災區的認定」, 『商丘職業技術學院學報』 2007-3.
- 殷淑燕·黃春長, 2008, 「兩漢時期長安與洛陽都城水旱災害對比研究」, 『自然災害學報』 17-4.
- 殷琛, 2011, 「論漢代軍事支出」, 『地方財政研究』 2011-10.
- 李曉蘇, 2007, 「靈帝賣官考論」, 『南京曉莊學院學報』 2007-4.
- 任振球 等, 1981, 「杏城運動對我國五千年來氣候變遷的影響」, 中央氣象局氣象科學研究院天氣氣候研究所 編, 『戰國氣候變化學術討論會文集(1978年)』, 北京: 科學出版社.
- 張景賢, 1997, 「漢代的財政經濟法規」, 『漢代法制研究』, 哈爾濱: 黑龍江教育出版社.
- 張蘭生, 1989, 「我國西部和華北中更新世以來濕潤狀況的變化」, 鄒進上, 『氣候學研究-“天·地·生”商胡影響研究-』, 北京: 氣象出版社.
- 張爽·薛海波, 2006, 「試論東漢涼州流民問題」, 『甘肅社會科學』 2006-2.
- 張天麟, 1982, 「長江三角洲歷史時期氣候變遷的初步研究」, 『華東師範大學學報(自然科學版)』, 1982-4.
- 張捷, 2012.3, 「秦漢時期財政運作研究」, 華東師範大學博士學位論文.
- 周德貴, 2006, 「論漢代國家財政與帝室財政管理體制-與加藤繁先生商榷-」, 『江西師範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 39-1.
- 周剛, 2004, 「論漢代的財政危機及其對策」, 『西南民族大學學報(人文社科版)』

- 2004-12.
- _____, 2007, 「論漢代財政危機的特點及影響」, 『求索』 2007-8.
- 朱衛華, 2007, 「漢代的中央財政與地方財政」, 『江西藍天學院學報』 2-2.
- 陳渭南, 1993, 「毛烏素沙地全新世孢粉組合與氣候變遷」, 『中國歷史地理論叢』 1993-1.
- 崔彥華·賈碧貞, 2016, 「東漢蝗災概述」, 『社科縱橫』 31-9.
- 竺可楨, 2006, 「中國近五千年來氣候變遷的初步研究」, 唐曉峰·黃義軍 編, 『歷史地理學讀本』, 北京: 北京大學出版社(原載 竺可楨, 1979, 「中國近五千年來氣候變遷的初步研究」, 『竺可楨文集』, 北京: 科學出版社).
- 黃今言, 1988, 「稅收財政機構的發展」, 『秦漢賦役制度研究』, 南昌: 江西教育出版社.
- 多田狷介, 1999, 「黃巾の亂前史」, 『漢魏晉史の研究』, 東京: 汲古書院.
- 渡邊信一郎, 2010a, 「漢代の財政と帝國編成」, 『中國古代の財政と國家』, 東京: 汲古書院.
- _____, 2010b, 「漢代の財政運營と國家的物流」, 『中國古代の財政と國家』, 東京: 汲古書院(原載: 渡邊信一郎, 1989, 「漢代の財政運營と國家的物流」, 『京都府立大學學術報告(人文) 41』).
- 山田勝芳, 1993, 「秦漢代財政收入の特色と收入の推計」, 『秦漢財政收入の研究』, 東京: 汲古書院.

후한(後漢) 중기(中期) 자연재해·내란과 재정 위기

최진열

필자는 후한 중기 최소 6개 연도의 재정 파탄이 후한 중후기에 빈발한 자연재해, 내란과 관계가 있음을 증명하였다.

인구가 5,000만 구(口)를 돌파한 화제(和帝) 시기부터 각종 자연재해와 내란 때문에 이에 대처하느라 많은 재정을 지출해야 했고 피해자들로부터 거둘 수 있는 조세도 줄어들었다. 화제 사후 1년도 못 되어 사망했던 상제(上帝) 시기 관리들의 봉급을 삭감한 조치를 보면 화제 시기에 이미 재정 위기가 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후 안제~순제 시기에 자연재해와 이민족의 반란으로 인한 전쟁으로 재정 지출이 급증하였다. 특히 안제 영초 3년(109) 매관매직(관내후·호분우립랑·오대부·관부리·제기·영사), 순제 영화 6년(141.2.14) 왕국·후국의 1년분 조(租) 대여, 같은 해 칠월 갑오일(8.31) 자산이 있는 백성들에게 호(戶)당 1,000전 빌림, 한안 2년(143) 시월 백관 봉급 삭감과 왕국·후국의 1년 조 대여는 최소 4회(헛수로는 3개 연도)나 후한의 국가 재정이 파탄났음을 보여준다. 재정 파탄을 해결하기 위해 주로 제후왕·열후나 부유한 백성들의 자산을 빌리거나 매관매직하

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비용을 충당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는 미봉책에 불과했고 재정 위기를 타개할 근본적인 정책이 되지 못하였다.

후한의 황제들은 자연재해와 전쟁 때문에 비용이 증가하자 제후왕들에게 하사하는 부의금 등을 줄였다. 또 열후가 후국으로부터 취하는 수입을 절반으로 줄였으며, 군사비 등으로 전용하기 위해 제후왕과 열후들의 수입 중 상당수를 전용하였다. 관리들의 봉록도 점차적으로 줄였다. 이런 조치는 미봉책이었을 뿐 광무제 시기처럼 중앙정부의 부서나 관직을 대폭 줄이거나 군국과 현을 삭감하는 등 재정지출을 대폭 삭감하는 근본적인 정책을 추진하지 못하였다.

이 글은 외척과 환관의 발호가 끼친 정치적·사회적 부작용뿐만 아니라 학계에서 상대적으로 덜 주목했던 자연재해와 강(羌)의 내란도 국가재정의 파탄과 후한의 붕괴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었음을 지적했다는 점에서 연구사적 의의가 있다. 봉군이 식읍의 일부만 수취하는 제도 또는 관행이 후한시대부터 존재했음을 밝힌 것도 연구사적 의의가 있다.

주제어: 자연재해, 강(羌)의 반란, 전쟁, 재정적자, 재정파탄, 매관매직(賣官賣職), 제후왕과 열후의 수입 전용, 봉록 삭감

ABSTRACT

The Natural Disaster, the Rebellion of the Qiangs, and Financial Bankruptcy in the Mid-to-late Period of the Later Han Dynasty

Choi Jinyeoul

I proved that at least seven years of financial bankruptcy in the mid-to-late period of the Later Han Dynasty were related to frequent natural disasters and civil wars in the mid-to-late period.

Since the emperor Huadi's reign when the population exceeded 50 million, various natural disasters and civil wars have forced the government of Later Han Dynasty to spend a lot of money to cope with them, and taxes that can be collected from the victims have been reduced. The cuts in the salaries of officials in the period of the emperor Shanghai, the fifth emperor ascended the throne on the less than 1 years old, who died less than a year after the death of the emperor Huadi, the fourth emperor, showed that the financial crisis had already begun during the period of the emperor Huadi. During the period of the Andi, the sixth emperor to the emperor Huandi, the eleventh emperor, at least

in 109, 141, 143, 155, 161, 162 A.D. fiscal expenditure surged due to natural disasters, wars and the rebellion of the Qiangs, i.e. the Tibetan ethnic people living in Guanlong region. According to Biographies of Feng Gun in History of the Later Han that the emperor's Treasury were empty due to famine after 162 A.D. and the diversion of kingdoms' and marquisdoms' revenue occurred every rebellion of the Qiangs, chronic financial depletion would have continued from 162 onwards. In order to resolve the financial collapse, the expenses were mainly covered in various ways, such as borrowing the assets of the royal and wealthy people, trafficking of official posts, diversion of kingdoms' and marquisdoms' revenue, or cut of officials' salary. However, these measures were only a stopgap measure and did not become a fundamental policy to break down the fiscal crisis. As in the first emperor Guangwudi period, fundamental policies were not implemented to drastically reduce fiscal expenditure, such as drastically reducing posts of the central government or reducing them of fiefdoms and counties.

The revenue of princes, kings, dukes, marquises, counts, viscounts, barons was reduced for example, that of one-half, one-third, one-fourth, one-fifth and so forth was started from the Later Han Dynasty.

This paper is of historical significance in that it pointed out that not only the consort relatives and eunuchs, but also natural disasters and the rebellion of the Qiangs, which were relatively less noted in academia, had a decisive impact on financial bankruptcy and the collapse of Later Han Dynasty.

Keywords: natural disaster, the rebellion of the Qiangs, war, revenue shortfall, financial catastrophe, trafficking of official posts, diversion of kingdoms' and marquisdoms' revenue, cut of officials' salary

732~733년 발해(渤海)와 당(唐) 전쟁의 전개 과정과 군사력

문윤수 | 동국대학교 역사교육학과 박사과정

- I. 머리말
- II. 발해와 당의 전쟁 배경과 흡수말갈
- III. 발해와 당의 등주·마도산 전투와 군사력
- IV. 발해와 신라의 전투와 군사력
- V. 맺음말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I. 머리말

발해(渤海) 무왕(武王)은 대조영(大祚榮)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올라 국력을 크게 확장해나갔다. 그런 와중에 흑수말갈(黑水靺鞨)이 발해의 영향권에서 벗어나기 위해 당(唐)에 접근했고, 이에 발해와 당의 대립이 한층 격화되어갔다. 그 결과, 732년 발해가 당의 등주(登州)를 선제공격하면서 양국 간에 전쟁이 발발하게 되었고, 여기에는 신라(新羅), 돌궐(突厥), 거란(契丹)도 참전하는 등 전쟁은 국제 대전으로 확대되었다.

발해와 당의 전쟁 연구는 기존에는 전쟁이 일어나게 된 배경과 원인을 밝히는 것에 주목해왔고,¹ 최근에는 돌궐과 거란 등 북방민족과의 관계에 주목하여

* 투고: 2023년 4월 11일, 심사 완료: 2023년 5월 6일, 게재 확정: 2023년 5월 12일

- 1 古畑徹, 1984, 「大門芸の亡命年時について-唐渤海紛争に至る渤海の情勢-」, 『集刊東洋學』 51; 古畑徹, 1988, 「張九齡作「勅渤海王大武藝書」第一首の作成年時について-大門芸の亡命年時について-」補遺, 『集刊東洋學』 59; 古畑徹, 1986, 「唐渤海紛争の展開と國際情勢」, 『集刊東洋學』 55(임상선 편역, 1990, 「唐渤海紛争の展開と國際情勢」, 『渤海史의 理解』, 신서원); 권은주, 2009, 「靺鞨 7部の實體와 渤海와의關係」, 『高句麗渤海研究』 35; 권은주, 2013, 「발해의 등주 공격을 통해 본 국제동맹과 외교」, 『역사와 세계』 44; 김종복, 2010, 「발해와 당의 사신 파견을 통해 본 大門藝 亡命사건의 추이」, 『역사와 경계』 76; 朴南守, 2013, 「신라 聖德王代 涇江鎮 설치 배경」, 『사학연구』 110; 末松保和, 1975, 「新羅の郡縣制, 特に完成期の二三の問題」, 『學習院大學 文學部研究年報』 21(1995, 『末松保和朝鮮史著作集』 2: 「新羅の政治と社會」 下, 吉川弘文館); 三上次男, 1959, 「渤海國の興亡」, 『圖說世界文化史』 19, 角川書店; 石井正敏, 2001, 「對日本外交開始前後の渤海情勢-玄宗皇帝「勅渤海王大武藝書」の檢討-」, 『日本渤海關係史の研究』, 吉川弘文館; 辛時代·郭威, 2018, 「韦俊墓志与渤海寇登州事件始末」, 『北方文物』 2018 2期; 沈勝求, 1995, 「渤海 武王의 政治的 課題와 登州攻撃」, 『軍史』 31; 이영호, 2010, 「金思蘭: 唐을 선택한 망명자」, 『북현사림』 28; 임상선, 2020, 「732년 발해와 당의 전쟁 과정 재검토」, 『동국사학』 69집; 酒寄雅志, 2001, 『渤海と古代の日本』, 校倉書房; 馮曉曉, 2017, 「唐代登州刺史韋俊墓志銘考析」, 『鄂州大學學報』 24, 2017 2期; 韓圭

발해와 당의 전쟁을 바라보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² 그러나 양국의 전쟁을 군사적인 측면으로 접근하여 전쟁의 구체적인 전개 과정과 군사력 및 전술 등을 밝히려는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³

8세기 전반 동북아는 당과 돌궐이 패권을 두고 경쟁하던 격동의 시대였다.⁴ 이러한 정세 속에서 발해가 어떻게 이 상황을 극복하면서 발전해나갔는지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발해와 당의 전쟁 과정을 세밀하게 살펴봐야 한다. 그래야만 국가의 운명을 걸고 당을 공격한 무왕이 전쟁의 위기에서 발해를 어떻게 지켜나갔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발해와 당 전쟁은 군사적인 측면으로 살펴보면, 전쟁의 구체적인 전개 과정을 밝힐 필요가 있다.

특히, 『구당서(舊唐書)』 지리지(地理志)에는 등주를 포함해 범양(范陽), 평로(平盧)의 당 관병(官兵)들에 대한 배치현황을 알 수 있는 내용이 보여 주목된다.⁵ 등주는 732년 발해가 선제공격한 곳이고, 범양과 평로는 733년 발해, 돌궐, 거란과 당의 마도산(馬都山) 전투가 벌어진 곳이다. 그러므로 이 자료는 발해와 당 전쟁의 실상을 밝히는데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구당서』 지리지 등 발해와 당의 전쟁과 관련한 각종 사료의 분석을 통해 732년 등주 전투, 733년 마도산 전투 그리고 발해와 신라의 전투에 대한 구체적인 전개 과정을 살펴보면, 군사력과 전술 등을 중심으로

哲, 1994, 『渤海의 對外關係史－南北國의 形成과 展開』, 신서원 등 참조.

2 古畑徹, 1986, 앞의 글(임상선 편역, 1990, 앞의 책); 권은주, 2012a, 「渤海 武王代 영역확장과 북방정세의 변동」, 『高句麗渤海研究』 43; 권은주, 2013, 앞의 글.

3 발해와 당 전쟁을 군사적 측면에서 바라본 연구는 辛時代·郭威, 2018, 앞의 글, 62쪽; 馮曉曉, 2017, 앞의 글, 34쪽; 신범규, 2021, 「8세기 전반 발해의 해양교통로와 제해권 범위」, 『한국고대사탐구』 38, 193~195쪽; 임상선, 2022, 「군사력·전략 측면에서 살펴본 732년 발해와 당의 전쟁」, 『군사사연구총서』 10집.

4 8세기 전반 당과 돌궐의 전투와 관련해서는 『舊唐書』 권194 列傳 北狄 突厥 上; 『新唐書』 권215 列傳 北狄 突厥 上 및 『돈유쿠크비문』, 『켈테긴비문』, 『빌개가한비문』(Talat Telkin 저, 이용성 옮김, 2008, 『돌궐 비문 연구』, 제이앤씨) 참조.

5 『舊唐書』 권38 志18 地理1 范陽節度使, 平盧節度使; 『舊唐書』 권38 志18 地理1 東牟守捉; 舊唐書 권41 志21 地理4 安東都護府.

이들의 군사적 특징을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732~733년 벌어졌던 발해와 당의 전쟁 과정과 군사력 및 전술 등을 좀 더 세밀하게 복원할 수 있고, 최종적으로는 무왕이 이와 같은 위기 속에서 어떠한 전략을 펼쳐가며 발해를 지어나갔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II. 발해와 당의 전쟁 배경과 흑수말갈

1. 8세기 전반 발해의 세력 확장과 동북아 정세

698년 고구려 유민과 말갈집단을 규합해서 발해를 건국한 대조영은 먼저 돌궐, 거란과 통교(通交)⁶하여 국력을 확장해나갔다. 특히 『구당서』, 『책부원구(冊府元龜)』에는 713년 대조영이 발해군왕(渤海郡王)으로 책립(冊立)되었다는 것과 함께 발해의 영토는 2,000리이고 군사가 수만 명이였다는 내용이 나타나고 있다.⁷ 이는 고왕(高王) 대조영 때 발해의 국력이 크게 성장하고 있었음을 말해준다.

이와 더불어 당은 중종(中宗) 즉위년(705)에 시어사(侍御史) 장행급(張行岌)을 발해로 보내 대조영을 책립하려고 했다.⁸ 대조영이 발해군왕으로 책립된 것

6 『東文選』 권33 表箋 「謝不許北國居上表」 崔致遠; 『舊唐書』 卷199 列傳149 北狄 渤海靺鞨; 『新唐書』 卷219 列傳144 北狄 渤海.

7 『舊唐書』 권199 列傳149 北狄 渤海靺鞨, “祚榮驍勇善用兵, 靺鞨之衆及高麗餘燼, 稍稍歸之. 聖曆中(698~700), 自立爲振國王, 遣使通于突厥. 其地在營州之東二千里, 南與新羅相接. 越喜靺鞨東北至黑水靺鞨, 地方二千里, 編戶十餘萬, 勝兵數萬人. … 睿宗 先天二年(713), 遣郎將崔訢往册拜祚榮爲左驍衛員外大將軍·渤海郡王, 仍以其所統爲忽汗州, 加授忽汗州都督, 自是每歲遣使朝貢.”; 『冊府元龜』 卷964 外臣部 封冊2, “玄宗 先天二年(713), … 是月, 封靺鞨大祚榮爲渤海郡王. 大祚榮, 聖曆中(698~700), 自立爲振國王, 在營州東二千里, 兵數萬人.”

8 『舊唐書』 권199 列傳 北狄 渤海靺鞨, “中宗卽位(705), 遣侍御史張行岌往招慰

은 713년인데, 당은 705년에 이미 대조영을 책립하려 한 것이다.⁹ 이와 같은 당의 책립 시도는 돌궐과 거란의 방해로 결국 실패하게 된다. 그러나 당의 이러한 행동은 고왕 때 발해가 당과 돌궐의 전쟁에 개입할 수 있을 정도로 국력이 성장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그리하여 중중은 발해와 돌궐, 거란의 연대를 막기 위해 705년 발해에 사신을 보내 대조영을 책립하려 했던 것이다. 이를 통해볼 때, 고왕 때 발해는 국력과 군사력이 크게 성장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¹⁰

之. 祚榮遣子入侍, 張加冊立, 會契丹與突厥, 連歲寇邊, 使命不達.”

- 9 다만, 당의 내부 문제나 돌궐의 공격 등을 주요 근거로 장행급의 발해 파견을 707년으로 본 경우도 있다(魏國忠, 1985, 「大祚榮“遣子”侍唐時間考」, 『北方文物』 1985-4; 金鎮漢, 2017, 「張行岌의 使行記事로 본 渤海의 對唐 및 突厥關係」, 『大東文化研究』 97). 그러나 707년은 당 위황후(韋皇后)와 절민태자(節愍太子) 이중준(李重俊)이 권력을 다투는 등 당 황실에 내부 다툼이 있던 때였다. 더구나 이 중준은 707년 이다조(李多祚), 사타충의(沙吒忠義) 등과 함께 반란하여 위황후를 제거하려고까지 했다(『舊唐書』 권86 列傳36 中宗諸子 節愍太子重俊 등 참조). 이 반란은 비록 실패로 돌아갔지만, 이를 통해 707년에는 당 황실의 내부 다툼이 극심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내부 상황이 혼란했던 707년에 당 중중이 장행급을 발해에 파견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된다.

- 10 당 『고원규묘지(高元珪墓誌)』에는 현종 즉위년(712)에 ‘海夷’가 당의 군읍을 침략했다고 한다(『高元珪墓誌』, “大唐故左威衛將軍贈陳留郡太守高府君墓誌銘. … 公諱元珪, 字元珪, 本馮氏, 隋荊州長史盎之曾孫, 皇高州都督智幾之孫, 廣州都督君衡之子也. 垂拱中, 武太后臨朝, 公時尚幼, 屬姦臣擅權, 誅滅豪族, 避此禍, 易姓高氏. 開元初, 我皇帝卽位, 公方已長, 遇海夷作梗, 侵掠郡邑, 討斯寇”(周紹良·趙超 主編, 2001, 『唐代墓誌彙編續集』, 上海古籍出版社, 664쪽)). 고원규는 진류군태수(陳留郡太守)였다고 하는데, 진류군(陳留郡)은 현재 허난성 카이펑(河南省 開封) 일대이다. 더욱이 이곳은 산둥(山東)반도와 가까운 지역이니, 고원규의 활동 지역은 진류군과 산둥 인근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그가 토벌한 ‘海夷’는 바다를 통해 산둥에 침입한 세력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산둥에는 등주(登州)가 있었고, 또 ‘海夷’는 섬나라 오랑캐를 뜻하는 단어로, 당은 발해를 ‘海夷’와 같은 뜻을 가진 ‘島夷’라 칭하기도 했다(『張建章墓誌』(周紹良 主編, 1992, 『唐代墓誌彙編』, 上海古籍出版社, 2511쪽)). 특히 발해는 732년 9월 등주를 기습 공격하여 자사(刺史) 위준(韋俊)을 죽이기까지 했다(『韋俊墓誌』; 『舊唐書』 권8 本紀8 玄宗; 『資治通鑑』 권213 唐紀29 玄宗). 그러므로 712년 ‘海夷’ 토벌 기록은 고왕 대조영의 등주 공격 실패를 말하는 내용이 아닌가 짐작된다. 또한 발해는 712년의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732년에는 등주 공격에 성공할 수 있던 것이 아닐까 한다.

719년 고왕 대조영이 세상을 떠나고, 적장자인 무왕 대무예(大武藝)가 왕위에 올랐다. 『신당서(新唐書)』 발해전에는 “斥大土宇，東北諸夷畏臣之”¹¹라는 내용이 보이는데, 이를 통해 무왕 때는 발해의 국력이 크게 성장한 시기였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여기서 말하는 ‘東北諸夷’는 말갈을 말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무왕이 말갈제부(靺鞨諸部)를 복속하여 이들을 발해의 영향권 안에 두었을 만큼 발해의 세력범위가 확장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¹²

그렇다면 당시 동북방의 정세는 어떠했을까? 8세기 전반은 당과 돌궐이 전쟁을 벌이면서 동북아의 패권을 다투던 시대였다. 특히 720년에는 돌궐과 거란, 해 등이 당과 전쟁을 벌여 안동도호(安東都護) 설태(薛泰)를 포로로 사로잡는 등 당이 전쟁에서 패하는 상황까지 벌어지게 된다.¹³ 이때 당은 720년 9월 발해에 장월(張越)을 사신으로 파견하여 군사 요청을 했는데, 발해는 당의 요청을 거절하고 이 전쟁에 개입하지 않았다.¹⁴ 발해가 당의 요청을 거절한 것은 당과 돌궐, 거란 등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발해는 어느 세력의 간섭도 받지 않고 말갈 복속을 가속화하여 세력을 확장해갈 수 있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¹⁵ 따라서 당시 동북아는 당과 돌궐, 거란 등과의 전쟁으로 혼란스러운 상황이었음을 알 수 있다.

11 『新唐書』 권219 列傳144 北狄 渤海, “玄宗 開元七年(719), 祚榮死, 其國私諡爲高王, 子武藝立, 斥大土宇, 東北諸夷畏臣之.”

12 8세기 전반 발해와 말갈의 관계는 권은주, 2009, 앞의 글, 57~63쪽; 權恩姝, 2012b, 「渤海 前期 北方民族 關係史」, 慶北大學校 博士學位論文, 78~98쪽 참조.

13 『資治通鑑』 권212 唐紀28 玄宗 下 開元 8년 11월.
권은주는 720년 전투에서 당의 패배 원인을 발해가 당의 군사지원 요청을 거절하여 군사 협조를 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았다(권은주, 2012a, 앞의 글, 106~107쪽).

14 『冊府元龜』 권986 外臣部 征討5, “唐 玄宗 開元八年(720) 九月, 遣左驍衛郎將攝郎中張越使于靺鞨, 以奚及契丹背恩義討之也”.

15 권은주, 2012a, 위의 글, 105~107쪽.

2. 발해의 흑수말갈 토벌과 대당(對唐) 대립

무왕은 이렇게 혼란스러운 정세 속에서 발해의 영토를 확장시켜갔다.¹⁶ 이때 발해의 통제하에 있던 흑수말갈이 단독으로 당과 교류를 시도했고, 이에 현종이 흑수주(黑水州)를 설치하여 추장 예속리계(倪屬利稽)를 운휘장군겸흑수정략사(雲麾將軍兼黑水經略使)로 삼는 일이 발생했다.¹⁷ 현종의 이러한 행동은 흑수를 통해 돌궐, 거란 등과 통교하고 있던 발해를 압박하고 견제하기 위한 방편으로 보인다. 이에 무왕은 흑수의 의도가 당과 연합하여 발해를 공격하기 위함으로 간주하고, 흑수 토벌을 시행하고자 했다.

A-1 [개원(開元)] 14년(726) 흑수말갈이 사신을 보내와 조공(朝貢)하였는데, 조칙으로 그 땅을 흑수주로 삼아서 장사(長史)를 두고, 사신을 보내 진압하게 했다. [대]무예가 그 부하들에게 “흑수가 우리 국경을 거쳐 처음으로 당과 서로 통했다. 지난날 돌궐에게 토둔(吐屯)을 청할 때도 모두 우리에게 먼저 알리고 함께 갔다. 이제는 뜻밖에 바로 당에게 벼슬[漢官]을 청했으니, 이는 필시 당과 통모(通謀)하여 우리를 치려는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친동생 대문예(大門藝) 및 그의 ‘舅’ 임아(任雅)에게 명하여 군대를 이끌고 가서 흑수를 치게 했다. 문예는 일찍이 볼모로서 수도[京師]에 왔다가 개원 초에 본국의

16 『新唐書』 권219 列傳144 北狄 渤海, “玄宗 開元七年(719), 祚榮死, 其國私諡爲高王. 子武藝立, 斥大土宇, 東北諸夷畏臣之, 私改年曰仁安, 帝賜典冊襲王并所領.”.

17 『舊唐書』 권199 列傳149 北狄 靺鞨, “開元十三年(725), 安東都護薛泰請於黑水靺鞨內置黑水軍. 續更最大部落爲黑水府, 乃以其首領爲都督, 諸部刺史隸屬焉, 中國置長史, 就其部落監領之. 十六年(728), 其都督賜姓李氏, 名獻誠, 授雲麾將軍兼黑水經略使, 仍以幽州都督爲其押使, 自此朝貢不絕.”; 『新唐書』 권219 列傳144 北狄 黑水靺鞨, “開元十年(722), 其酋倪屬利稽來朝, 玄宗即拜勃利州刺史. 於是安東都護薛泰請置黑水府, 以部長爲都督·刺史, 朝廷爲置長史監之, 賜府都督姓李氏, 名曰獻誠, 以雲麾將軍·領黑水經略使, 隸幽州都督. 訖帝世, 朝獻者十五.”

로 귀국했는데, 이때 무예에게 “흑수가 당에게 벼슬을 청했다고 해서 그를 곧바로 치고자 한다면 이것은 당을 배반하는 것입니다. 당은 사람의 많음과 군사의 강함이 우리의 만 배나 되는데, 하루아침에 원수가 된다면 스스로 멸망을 부를 뿐입니다. 지난날 고구려가 전성했을 때 강한 군사 30만으로 당과 싸워서 복종하지 않다가 당의 군사가 한번 덮치니 땅을 쓸어버린 듯이 다 멸망하였습니다. 오늘날 발해의 인구가 고구려의 몇 분의 일도 되지 않는데 당 [唐家]에게 위반하려 하니, 이 일은 결단코 옳지 못합니다”라고 하였으나, 무예는 듣지 않았다. 문예의 군사가 국경에 이르렀을 때 또다시 글을 올려 군이 간하자, 무예는 화를 내며 중형 대일하(大壹夏)를 보내 문예를 대신해서 군사를 통솔하도록 하고 문예는 불러다가 죽이려 했다. 문예가 마침내 그의 무리를 버리고 사잇길로 도망해오니, 조칙으로 좌효위장군(左驍衛將軍)을 제수했다. ...¹⁸

A 자료는 흑수 토벌을 두고 무왕과 동생 대문예가 대립하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내용을 살펴보면, 흑수 토벌의 명을 받은 대문예는 당에게 멸망당할까 두려워 이에 반발하고 나섰는데, 그럼에도 무왕은 대문예를 토벌군 사령관으로 임명하여 출정시켰다. 그러나 대문예가 또다시 불가하다고 간하자, 무왕은 분노하여 대문예를 불러들였고 중형 대일하를 토벌군 사령관으로 임명했는데, 이 과정에서 대문예는 당으로 망명하는 행동을 취했다. 이렇듯 무왕은 당으로 망명

18 『舊唐書』 권199 列傳149 北狄 渤海靺鞨, “十四年(726), 黑水靺鞨遣使內朝, 詔以其地爲黑水州, 仍置長史, 遣使鎮押. 武藝謂其屬曰: 「黑水始與唐家相通, 舊請突厥吐屯, 皆先告我同去. 今不計會, 卽請漢官, 必是與唐家通謀, 腹背攻我也」. 遣母弟大門藝及其舅任雅發兵以擊黑水. 門藝曾充質子至京師, 開元初還國, 至是謂武藝曰: 「黑水請唐家官吏, 卽欲擊之, 是背唐也. 唐國人衆兵强, 萬倍於我, 一朝結怨, 但自取滅亡. 昔高麗全盛之時, 强兵三十餘萬, 抗敵唐家, 不事賓伏, 唐兵一臨, 掃地俱盡. 今日渤海之衆, 數倍少於高麗, 乃欲違背唐家, 事必不可」. 武藝不從. 門藝兵至境, 又上書固諫, 武藝怒, 遣從兄大壹夏代門藝統兵, 徵門藝, 欲殺之. 門藝遂棄其衆, 間道來奔, 詔授左驍衛將軍.”

한 대문예의 행동에 크게 분노해 그를 죽이고자 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흑수는 왜 단독으로 당과 교류하고자 했을까? 이것은 흑수가 발해의 통제에서 벗어나 자신들의 세력을 구축하기 위함이 아니었을까 한다. 『북사(北史)』, 『수서(隋書)』 등에 의하면, 말갈에는 여러 부(部)가 존재했는데 그중 가장 강했던 것이 흑수부였다고 한다.¹⁹ 그러면 흑수는 말갈부족 중에서 가장 강한 세력을 형성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7세기 말 고구려 유민과 말갈 집단으로 구성된 발해라는 국가의 등장으로 흑수의 세력은 점차 약해져갔다. 더구나 무왕 때 발해는 ‘東北諸夷’를 토벌하여 복속시키는 등 세력을 확장해나갔다. 이에 흑수는 발해의 통제하에 놓이게 되어 독자적 활동에 제한이 걸리게 되었고,²⁰ 이러한 상황에서 예측리계가 이끌던 흑수가 발해의 통제에서 벗어나 세력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당과 손잡는 방법을 선택한 것이다. 따라서 흑수가 당에 접근한 것은 당을 통해 자신들의 세력을 확장할 의도였음이 분명하다.

그러나 흑수의 이 같은 행동은 무왕의 흑수 토벌이라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²¹ 또한 흑수 토벌은 예측리계가 운휘장군겸흑수경략사에 제수된 728년 이후의 일로 보여진다. 특히, 『책부원구』에는 730년 5월에 흑수가 발해와 함께 당에 입당(入唐)하였으나, 발해와는 별개의 집단으로서 입당한 걸로 나타나고 있다.²² 이러한 내용은 무왕의 흑수 토벌이 730년 5월까지 이루어지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점을 보면, 728년 예측리계가 제수받은 운휘

19 『北史』 권94 列傳82 勿吉; 『隋書』 권81 列傳46 靺鞨.

20 무왕은 즉위 이후 ‘東北諸夷’를 토벌했다고 하는데(『新唐書』 권219 列傳144 北狄 渤海), 여기에는 흑수말갈도 포함되었을 것으로 보인다(권은주, 2009, 앞의 글, 60~62쪽).

21 다만, 심승구는 발해의 흑수 토벌은 선왕 때 완성되었기 때문에, 무왕의 흑수 토벌은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보았다(沈勝求, 1995, 앞의 글, 19~20쪽).

22 『冊府元龜』 권971, 外臣部16, 朝貢4, “唐 玄宗 開元十八年(730) 五月, 渤海靺鞨遣使烏那達初來朝, 獻海豹皮五張, 貂鼠皮三張, 瑪瑙盃一, 馬三十四, 契丹遣使獻馬十二匹, 吐火羅僧難陀來朝貢獻瑞麥香藥等, 黑水靺鞨遣使阿布科思來朝, 獻方物.”

장군겸후수경락사는 무왕이 토벌을 단행하기 전에 받은 관직으로 짐작된다. 따라서 무왕의 후수 토벌은 적어도 예속리계가 관직을 제수받은 728년 이후가 될 것이고, 토벌 과정에서 벌어졌던 대문예의 망명도 728년 이후에 일어난 사건으로 생각된다.²³

대문예 망명 후, 무왕은 당에 사신을 파견하여 국서(國書)를 전달하고 대문예 문제를 처리하고자 했다.²⁴ 732년 이전 마지막으로 당에 갔던 발해의 사신은 개원 19년(731) 10월에 입당한 대성취진(大姓取珍) 등 120명이었다.²⁵ 무왕은 대성취진을 통하여 현종에게 국서를 전달하고, 대문예의 처단을 요청했을 것이다. 그러나 현종은 대문예를 보호하는 행동을 취했고, 무왕이 다시 대문예를 죽여줄 걸 요청하자 현종은 장구령(張九齡)을 통해 「칙발해왕대무에서(勅渤海王大武藝書)」 1수(首)를 작성하여 무왕에게 보내었는데,²⁶ 이것은 대성취진이

23 권은주와 김종복은 727년 대창발가(大昌勃價)가 발해로 귀국하는 편에 무왕을 위로하는 칙서를 현종이 보냈다는 『책부원구』의 내용(『冊府元龜』 권975, 褒異2)을 주요 근거로 후수 토벌과 대문예의 망명을 726년으로 보았다(김종복, 2010, 앞의 글, 9쪽; 권은주, 2012a, 앞의 글, 118~121쪽). 반면, 후루하타 토오루(古婁徹)는 친당파 대문예가 730년 당에 망명한 것으로 보았고(古婁徹, 1984, 앞의 글, 26쪽; 古婁徹, 1986, 앞의 글(임상선 편역, 1990, 앞의 책, 209쪽); 古婁徹, 1988, 앞의 글), 임상선은 730년 5월 후수가 발해와 같이 입당했다는 『책부원구』의 내용(『冊府元龜』 권971, 外臣部16, 朝貢4)을 근거로 후수 토벌과 대문예의 망명을 730년 5월 이후로 보았다(임상선, 2020, 앞의 글, 158~159쪽).

24 『舊唐書』 권199 列傳 149 北狄 渤海靺鞨, “門藝遂棄其衆, 問道來奔, 詔授左驍衛將軍, 武藝尋遣使朝貢, 仍上表極言門藝罪狀, 請殺之. 上密遣門藝往安西, 仍報武藝云: 「門藝遠來歸投, 義不可殺. 今流向嶺南, 已遣去訖.」 及留其使馬文軌·葱勿雅, 別遣使報之. 俄有洩其事者, 武藝又上書云: 「大國示人以信, 豈有欺誑之理. 今聞門藝不向嶺南, 伏請依前殺却.」 由是鴻臚少卿李道邃·源復以不能督察官屬, 致有漏洩, 左遷道邃爲曹州刺史, 復爲澤州刺史, 遣門藝暫向嶺南以報之.”

25 『冊府元龜』 권971 外臣部16 朝貢4, “唐 玄宗 開元十九年(731) 十月, 西室韋遣使來朝, 渤海靺鞨王 遣其大姓取珍等百二十來朝.”

26 「칙발해왕대무에서」 1수의 작성 시기는 731년 8~9월 또는 732년 7월 전후로 보는 게 일반적이다(古婁徹, 1988, 위의 글, 104쪽 表1). 후루하타 토오루와 김종복은 731년 8~9월로 보았고(古婁徹, 1984, 위의 글, 25쪽; 古婁徹, 1988, 위의 글,

발해로 귀국하는 편에 같이 보냈을 것이다.²⁷ 또한 칙서의 내용을 보면, 무왕이 현종의 처분에 따르지 않을 경우, 응징할 것을 경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²⁸ 따라서 무왕은 당이 발해를 공격할 수 있음을 직감하고, 732년 9월 산동에 위치한 당의 등주를 선제공격한 것이었다.²⁹

-
- 110쪽; 김종복, 2010, 앞의 글, 15~17쪽), 이시이 마사토시(石井正敏)는 732년 가을(7월)경으로 보았다(石井正敏, 2001, 「對日本外交開始前後の渤海情勢-玄宗皇帝「勅渤海王大武藝書」の検討-」, 『日本渤海關係史の研究』, 321~328쪽). 또한 임상선은 1수는 발해 대성취진이 입당한 731년 10월 직후에 작성되었을 것으로 보았고(임상선, 2020, 위의 글, 162~164쪽), 송기호는 731년 8월 하순 혹은 9월에 작성되었을 것으로 보았다(송기호, 2022, 「渤海 武王代 對唐紛爭의 경과 검토-玄宗 勅書 4首와 馬都山 전투 자료를 중심으로-」, 『韓國史論』 68, 286~294쪽).
- 27 임상선, 2020, 위의 글, 162~164쪽; 임상선, 2022, 앞의 글, 50~51쪽.
- 28 『全唐文』 권285 「勅渤海王大武藝書」 1首, “敕忽汗州刺史渤海郡王大武藝: 「卿於昆弟之間自相忿鬪, 門藝窮而歸我, 安得不容? 然處之西陲, 為卿之故, 亦云不失, 頗謂得所, 何則? 卿地雖海曲, 常習華風. 至如兄友弟悌, 豈待訓習? 骨肉情深, 自所不忍. 門藝縱有過惡, 亦合容其改修. 卿遂請取東歸, 擬肆屠戮. 朕教天下以孝友, 豈復忍聞此事? 誠惜卿名行, 豈是保護逃亡? 卿不知國恩, 遂爾背德. 卿所持者遠, 非能有他, 朕比年含容, 優恤中土, 所未命將, 事亦有時. 卿能悔過輸誠, 轉禍為福, 言則似順, 意尚執迷. 請殺門藝, 然後歸國, 是何言也? 觀卿表狀, 亦有忠誠, 可熟思之, 不容易爾. …」.”
- 29 732년 발해의 등주 공격 원인에 대하여 후루하타 토오루와 권은주는 발해가 732년 당과 전투를 벌이던 거란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보았고(古畑徹, 1986, 앞의 글(임상선 편역, 1990, 앞의 책, 210~212쪽)); 권은주, 2012a, 앞의 글, 124~126쪽), 심승구는 신라와 당의 관계 진전으로 발해는 이러한 국제적 압박에서 벗어나기 위한 것으로 보았으며, 한규철은 신라의 지원 세력인 당을 공격한 것으로 보았다(沈勝求, 1995, 앞의 글, 25쪽; 韓圭哲, 1994, 앞의 책, 187~188쪽). 반면, 임상선은 무왕이 「칙발해왕대무에서」 1수를 받아보고 당의 침입이 있을 것을 예상하여 이에 맞대응하기 위한 방편으로 보았다(임상선, 2020, 위의 글, 169~172쪽).

III. 발해와 당의 등주·마도산 전투와 군사력

1. 732년 등주 전투와 군사 규모

732년 9월 발해가 당의 등주를 선제공격하여 등주자사(登州刺史) 위준(韋俊)이 전사(戰死)하는 일이 발생했다.

B-1 [당] 현종 개원 20년 9월 을묘일, 발해말갈(渤海靺鞨)이 등주를 침략하여 등주자사 위준을 죽였다. [현종은] 좌령군장군(左領軍將軍) 개복순(蓋福順)에게 명하여 군사를 일으켜 토벌하게 했다.³⁰

B-2 [당] 현종 개원 20년 9월 을묘일, 발해말갈이 등주를 침략하여 자사 위준을 죽였고, [당 현종은] 좌령군위장군 개복신(蓋福愼)에게 토벌하게 했다.³¹

B-3 [현종] 개원 20년, 발해말갈왕 [대]무예가 보낸 그[나라] 장군 장문휴(張文休)가 해적을 거느리고 등주를 침략하여 [등주]자사 위준을 죽였다. [현종은] 우령군장군(右領軍將軍) 갈복순(葛福順)에게 명하여 군사를 일으켜 토벌하게 했다.³²

B-4 고구려의 무리들이 모여 북쪽으로 태백산 아래에 의지하여 국호를 발해라 하였습니니다. [현종] 개원 20년에 [발해가] 천자의 조정[天朝]을 원망하여 군사를 거느리고 등주를 갑자기 습격해서 자사 위준을 죽였습니다. 이에 명황제(明皇帝)께서 크게 노하여 내사 고품(高品), 하행성(何行成)과 태복경(太僕卿) 김사란(金思蘭)에게 명을 내려 군사를 동원해가지고 바다를 건너 [발

30 『舊唐書』 권8 本紀8 玄宗, “開元二十年(732) 九月 乙巳, 渤海靺鞨寇登州, 殺刺史韋俊. 命左領軍將軍蓋福順, 發兵討之.”

31 『新唐書』 권5 本紀5 玄宗, “開元二十年(732) 九月 乙巳, 渤海靺鞨寇登州, 刺史韋俊死之, 左領軍衛將軍蓋福愼伐之.”

32 『資治通鑑』 권213 唐紀29 玄宗至道大聖大明孝皇帝, “開元二十年(732), 渤海靺鞨王武藝遣其將張文休帥海賊寇登州, 殺刺史韋俊. 上命右領軍將軍葛福順發兵討之.”

해를] 공격하여 토벌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우리 왕 김모에게 더하여 정대위(正大尉)·지절(持節)·충영해군사계림주도독(充寧海軍事雞林州大都督)으로 삼았습니다. 겨울이 깊고 눈이 많이 내려서 신라[蕃]와 당[漢]이 추위에 고생하니, 회군토록 칙령을 내리셨습니다. 지금까지 300여 년 동안 한쪽 지방[一方]이 무사하고 넓은 바다가 편안하니, 이는 우리 무열대왕(武烈大王)의 공로입니다.³³

B-5 군(君)은 휘가 준(俊)이고, 자는 원준(元俊)이며 경조인(京兆人)이다. … 무도한 ‘발해[島夷]’가 멀리 떨어진 곳에 있다가 숨어서 큰 바다를 건너 바로 고립된 성(城)을 목표로 삼았다. 갑자기 관사(官舍)에서 죽으니, 나이가 57세였다. … 억울하게 죽으니, 하늘이시여 무슨 이유인가, 아아 슬프도다. 개원 21년(733) 5월 20일 [위준을] 낙양으로 데려와 장사하여[歸葬于洛陽] 발해군군(渤海郡君) ‘刀氏’와 북망산 평양향 등에 같이 묻혔으니, 예(禮)에 합당하도다. … ‘발해[島夷]’가 재앙을 만들었지만, 지금은 망했다. 동해(東海)로부터 와서 북망(北邙)으로 돌아갔다.³⁴

B 자르는 발해와 당의 등주 전투 내용을 보여준다. 이를 보면, 발해가 등주를 공격한 것은 현종 개원 20년(732) 9월이고, 이때 무왕은 장문휴를 대장으로 삼아 수군을 동원하여 등주를 공격한 것임이 확인된다. 더욱이 B-5 등주자사

33 『三國史記』 권46 列傳6 崔致遠, “高句麗殘孽類聚, 北依大白山下, 国號爲渤海. 開元二十年(732), 怨恨天朝, 將兵掩襲登州, 殺刺史韋俊. 於是, 明皇帝大怒, 命內史高品·何行成·大僕卿金思蘭, 發兵過海攻討. 仍就加我王金某, 爲正大尉·持節·充寧海軍事雞林州大都督, 以冬深雪厚, 蕃·漢苦寒, 勅命迴軍. 至今三百餘年, 一方無事, 滄海晏然, 此乃我武烈大王之功也.”

34 『韋俊墓誌』, “君諱俊, 字元俊, 京兆人也. … 蠢尔島夷, 遠在荒裔, 潛度大海, 直指孤城. 變生倉卒, 薨于官舍, 春秋五十有七 … 不得其死, 天乎謂何, 嗚呼哀哉! 以開元廿一年(733) 五月 廿日, 歸葬于洛陽, 與渤海郡君刀氏同穴, 北邙山平陽鄉之原, 禮也. … 島夷作孽, 今也則亡. 來從東海, 歸去北邙.”(毛阳光·余扶危 主編, 2013, 『洛陽流散唐代墓誌彙編』, 國家圖書館出版社, 250~251쪽; 임상선, 2020, 앞의 글, 167쪽).

『위준묘지(韋俊墓誌)』를 보면, 발해가 큰 바다를 건너 은밀하게 숨어들어 등주를 기습 공격하여 등주성(登州城)에 근무하고 있던 자사 위준을 전사시킨 사실을 알 수 있다.³⁵ 따라서 발해는 수군을 동원하여 해로를 통해 등주로 들어갔고, 위준의 근무처인 등주성을 기습공격한 것이다. 이렇게 불시에 공격을 받은 현종은 이들을 토벌하기 위해 개복순(갈복순)을 등주로 보내는 행동을 취한 것이었다.

그렇다면 등주에 배치된 당의 군사력은 어땠을까? 등주에 배치된 당의 군사와 관련해서는 아래의 자료들이 주목된다.

C-1 안동도호부(安東都護府) … 대족(大足) 원년(701) 4월에 무안주(武安州)·남등주(南登州)를 설치하고 안남부(安南府)에 아울러 예속시켰다. 지덕(至德) 2년 9월에 진남도호부(鎮南都護府)로 고치고, 이후에 안남도호부(安南都護府)라 했다. 자사충도호(刺史充都護)의 관병이 4,200명이었다.³⁶

C-2 만세통천(萬歲通天) 원년(696) 9월에 산동의 인근 주(州)에 무기단병(武騎團兵)을 두었고, 성력(聖曆) 원년(698) 12월 25일에 이르러 하남(河南)·하북(河北)에 무기단병을 두었는데, [이는] 묵철(默啜)을 방비하기 위함이었다. 때마다 150호에서 군사 15명, 말 1필을 함께 차출했다.³⁷

C-3 등주(登州)의 동모(東牟)에는 개원[연간]에 2만 8,533호가 있었다.³⁸

35 임상선, 2022, 앞의 글, 68~69쪽.

36 『舊唐書』 권41 志21 地理4, “安南都護府, … 大足元年(701) 四月, 置武安州·南登州, 並隸安南府. 至德二年九月, 改爲鎮南都護府, 後爲安南府. 刺史充都護, 管兵四千二百.”

37 『唐會要』 권78 諸使中節度使, “萬歲通天元年(696) 九月, 令山東近境州置武騎團兵, 至聖曆元年(698), 臘月, 二十五日, 河南河北置武騎團, 以備默啜, 每一百五十戶, 共出兵十五人馬一匹.”

38 『元和郡縣圖志』 권11 河南道 登州, “登州, 東牟 中, 開元戶二萬八千五百三十三.”

C-4 동모수착(東牟守捉)은 등주자사의 령(領)이고, 관병은 1천 명이다.³⁹

C 자료는 등주의 군사 배치현황을 보여준다. 먼저 C-1은 무안주와 남등주의 관병이 4,200명이었음을 알 수 있는 자료이다. 그런데 C-4에서는 등주의 동모수착 관병이 1,000명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은 무안주·남등주 관병 4,200명 중 등주자사가 관리하는 동모수착 관병이 1,000명임을 말하는 것으로 짐작된다.

다음으로 C-2는 만세통천 원년(696)과 성력 원년(698)에 이르러 당이 산둥과 하남, 하북 일대에 무기단병을 두었음을 알 수 있는 자료이다. 이 시기는 측천무후 재위기로, 만세통천 연간(696~697)에는 거란 이진충(李盡忠)이 봉기하여 세력을 떨쳤고, 성력 원년(698)에는 대조영이 고구려 유민과 말갈집단을 규합하여 발해를 건국했다. 더욱이 이때는 돌궐의 목철이 북방의 패권을 잡고 있던 시대이기도 했다. 그리하여 측천은 이들의 침입에 대비하기 위해 관병과 함께 무기단병을 두었던 것이다. 특히, C-2에는 성력 원년(698)에 돌궐의 목철을 방비하기 위해 하남, 하북 일대에 무기단병을 두었다고 하고 있어, 이를 입증해 준다. 따라서 당은 7세기 말 세력을 떨치고 있던 대조영집단(발해), 돌궐, 거란 등 이민족의 침입에 대비하기 위해 산둥과 하남, 하북 일대 등에 무기단병을 배치한 것이었다.

그런데 C-3을 보면, 개원연간 등주에는 2만 8,533호(戶)가 있었다고 한다. 이는 8세기 전반 등주의 인호(人戶)를 알려주는 대목이다.⁴⁰ 등주에 배치된 무기단병의 수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당이 150호에서 15명씩 무기단병으로 차출했다는 C-2의 내용을 통해 보면, 무기단병으로 차출된 인구수는 대략 2,853명

39 『舊唐書』 권38 志18 地理1, “東牟守捉, 登州刺史領之, 管兵千人.”

40 『구당서』 현종본기에는 개원 20년(732) 당의 민호는 786만 1,236명이고 인구는 4,543만 1,265명이었음을 전하고 있다(『舊唐書』 권8 本紀8 玄宗 開元 20년(732), “其年戶部計戶七百八十六萬一千二百三十六, 口四千五百四十三萬一千二百六十五.”).

정도로 볼 수 있다. 더욱이 C-4에서 등주 동모수축의 관병 수가 1,000명으로 나타나고 있으니, 732년 9월 당시 등주의 병력은 무기단병과 관병 수를 합쳐 대략 3,853명 정도로 추정된다.⁴¹ 또한 무기단병을 차출할 때 150호에서 말도 1필씩 차출했다는 내용도 보여 2,853명의 무기단병 중 기마술에 능한 정예병 150명을 선발하여 이들을 기병(騎兵)으로 활용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당은 산동을 방어하기 위해 (남)등주, 무안주 등의 치소에 관병과 무기단병을 배치했던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당시 등주를 공격한 발해 수군의 군사력은 어땠을까? 우선 무왕 때 발해의 총 군사력은 대략 10만 명 정도로 파악된다.⁴² 그러나 『위준모지』의 내용처럼 발해군이 은밀히 숨어들어 기습적으로 등주를 공격했다면, 발해는 많은 수의 병력은 필요하지 않았을 것이다. 기습공격은 빠르게 치고 빠지는 군사 전술이기 때문에, 발해는 수군의 함선을 최소화⁴³하여 기습전에 최적화했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등주를 공격한 발해 수군은 등주의 군사와 비슷한 4,000명 이내의 규모로 판단된다.⁴⁴

41 평야오샤오(馮曉曉)는 등주의 군사를 3,000~4,000명의 규모로 보았고, 신시대(辛時代)와 귀웨이(郭威)는 등주 군사가 봉래진(蓬萊鎭) 수비군 500명, 평해군(平海軍) 1,000여 명으로, 도합 1,500명은 되었을 것으로 보았다(馮曉曉, 2017, 앞의 글, 34쪽; 辛時代·郭威, 2018, 앞의 글, 62쪽). 또한 임상선은 등주와 내주(萊州)의 인구수를 살펴보면, 등주 군사는 3,300명, 내주 군사는 4,000명 내외일 것으로 보기도 했다(임상선, 2022, 앞의 글, 58~61쪽).

42 『新唐書』 권219 列傳144 北狄 渤海, “門藝嘗質京師, 知利害, 謂武藝曰: 「黑水請吏而我擊之, 是背唐也. 唐大國, 兵萬倍我, 與之產怨, 我且亡. 昔高麗盛時, 土三十萬, 抗唐爲敵, 可謂雄彊, 唐兵一臨掃地盡矣. 今我衆比高麗三之一, 王將違之, 不可.」, 武藝不從.”

43 신범규는 『구당서』, 『당회요』, 『원화군현도지』의 내용을 근거로, 등주로 출정한 발해 수군 약 4,000명, 등주의 당군 약 3,800명으로 보았고, 또한 당시 발해 수군의 선박은 40~200척 정도가 출병했을 것으로 보기도 했다(신범규, 2021, 앞의 글, 193~195쪽).

44 임상선은 등주를 공격한 발해군의 규모는 등주의 군사보다는 적었을 것으로 보았다(임상선, 2022, 위의 글, 68~69쪽).

그러면 732년 9월 등주를 신제공격한 발해의 전략은 무엇이었을까? 발해의 등주 공격로는 압록강 하류의 박작구(泊沟口)에서 출발해 장구진(長口鎭)을 지나 패강구(溟江口)로 들어가서 오골강(烏骨江)을 거쳐 도리진(都里鎭)으로 이동하여 등주 동북쪽으로 들어가는 등 가담(賈耽)의 「도리기(道里記)」를 인용한 『신당서』 지리지에 보이는 등주에서 발해로 향하는 길의 역순이었을 것이다.⁴⁵ 이 같은 노선을 이용한 발해는 큰 바다를 건너 은밀히 숨어들어 등주성을 불시에 공격하는 기습전술을 펼쳐 자사 위준을 죽음에 이르게 한 것이다(자료 B-5). 따라서 이렇게 등주를 공격한 발해군의 전략은 병력을 최소화하여 불시에 공격하는 기습전술이었음을 알 수 있다.

2. 733년 마도산 전투와 군사 규모

등주 전투 이후, 733년 발해는 거란, 돌궐 등과 함께 당의 마도산⁴⁶을 공격하기에 이르렀다.

D-1 오승자(烏承玘)는 자가 덕윤(德潤)이며, 장액인(張掖人)이다. ... 발해[왕] 대무예와 동생 [대]문예가 나라에서 싸우던 도중에 문예가 왔고, 조서를 내려 태복경 김사란과 함께 범양과 신라병 10만을 내어 그를 토벌하게 했으나,

45 『新唐書』 권43 下 제33 地理志 下 靺鞨州, “登州東北海行, 過大謝島, 龜歆島, 末島, 烏湖島三百里. 北渡烏湖海, 至馬石山東之都里鎭二百里. 東傍海墻, 過青泥浦, 桃花浦, 杏花浦, 石人汪, 橐駝灣, 烏骨江八百里. 乃南傍海墻, 過烏牧島, 溟江口, 椒島, 得新羅西北之長口鎭. 又過秦王石橋, 麻田島, 古寺島, 得物島, 千里至鴨綠江唐恩浦口. 乃東南陸行, 七百里至新羅王城. 自鴨綠江口舟行百餘里, 乃小舫泝流東北三十里至泊沟口, 得渤海之境. 又泝流五百里, 至丸都縣城, 故高麗王都. 又東北泝流二百里, 至神州. 又陸行四百里, 至顯州. 天寶中王所都. 又正北如東六百里, 至渤海王城.”

46 마도산은 노룡(虬龍)에서 북쪽으로 150리쯤 떨어져 있는 곳으로, 현재 허베이성(河北省) 칭룽(靑龍) 북서부의 도산(都山)에 해당하는 곳이다(송기호, 2022, 앞의 글, 304쪽 재인용).

공이 없었다. 무예가 자객을 보내 동도(東都)에서 문예를 찢렸고, 군사를 거느리고 마도산에 이르러 성읍(城邑) 사람들을 죽였다. 승자가 ‘要路’를 막고 큰 돌로 구덩이를 만든 것이 400리에 이르니, 적들이 들어오지 못했다. 이에 떠나갔던 백성[流民]들이 돌아왔고, 군사들이 조금씩 쉬면서 갑옷을 벗고 밭을 갈게 되었으며, ‘運錢’을 감하여 주었다.⁴⁷

D-2 다음 해(개원 21년, 733), 가돌우가 또다시 와서 약탈했다. 유주장사(幽州長史) 설초옥(薛礎玉)이 부장(副將) 광영결(郭英傑), 오극근(烏克勤), 오지의(烏知義), 나수충(羅守忠)을 보내어 정예기병[精騎] 1만을 거느리고 항복한 해(奚)의 무리와 함께 지휘하여 추격하게 했다. 군사가 유관도산(榆關都山)의 아래에 이르자, 가돌우는 돌궐병들을 지휘하여 관군(官軍)과 싸웠다. 마침내 해의 무리가 두 마음을 품고 흩어져서 달아나 요협에 의지했다. 관군이 대패하자, 지의와 수충은 휘하 [군사들]을 거느리고 도망쳐 왔으나, 영결과 극근은 진(陳)에서 죽었고, 그 휘하의 6,000여 명은 전부 적들에게 죽임을 당했다.⁴⁸

D-3 [오]지의와 [나]수충은 패하였고, [곽]영결과 [오]극근은 죽었으며, 당병(唐兵) 1만 명이 죽임을 당했다.⁴⁹

D-4 [곽]영결과 [오]극근은 적과 힘껏 싸우다가 모두 진에서 죽고, 그 휘하의 정예병 6,000여 명은 적과 힘겹게 싸웠는데, 적이 영결의 머리를 보여주니 끝

47 『新唐書』 권136 列傳61 烏承玘, “烏承玘字德潤, 張掖人. … 渤海大武藝與弟門藝戰國中, 門藝來, 詔與太僕卿金思蘭發范陽新羅兵十萬討之, 無功. 武藝遣客刺門藝東都, 引兵至馬都山, 屠城邑. 承玘室要路, 塹以大石, 亘四百里, 虜不得入. 於是流民得還, 士少休, 脫鎧而耕, 歲省度支運錢.”

48 『舊唐書』 권199 列傳144 北狄 契丹, “明年(733), 可突于又來抄掠. 幽州長史薛楚玉遣副將郭英傑·吳克勤·鄔知義·羅守忠率精騎萬人 并領降奚之衆追擊之. 軍至榆關都山之下, 可突于領突厥兵以拒官軍, 奚衆遂持兩端, 散走保險. 官軍大敗, 知義·守忠率麾下遁歸, 英傑·克勤沒于陣, 其下六千餘人, 盡爲賊所殺.”

49 『新唐書』 권219 列傳149 北狄 契丹, “知義·守忠敗, 英傑·克勤死之, 殺唐兵萬人.”

까지 항복하지 않다가, 모두 죽임을 당했다.⁵⁰

D-5 현종 개원 21년(733) 윤달 계유일, 유주도부총관(幽州道副總管) 곽영걸이 거란과 싸우다가 도산(都山)에서 패사(敗死)했다. 이때 절도사(節度使) 설초옥이 영걸을 장수로 하여 정예기병[精騎] 1만 명과 항복한 해를 보내어 거란을 공격하게 했고, [이들은] 유관(榆關)의 바깥에 주둔했다. 가돌우는 돌궐의 무리를 합하여 두 마음을 가진 해와 싸웠는데, [이들이] 흩어져 달아나 요heim 의지하게 되어 당의 군사가 불리해지니, 영걸이 전사했다. 남은 무리 6,000명은 오히려 힘껏 싸우는 것을 그만두지 않았으며 오랑개[虜]가 영걸의 머리를 보여주니, 끝까지 항복하지 않다가 모두 오랑개[虜]에게 죽임을 당했다.⁵¹

D 자료는 마도산 전투의 전개 상황을 보여준다. 이를 통해 보면, 당은 범양의 군사만을 동원하여 전투를 벌인 것처럼 보인다. 그런데 『오씨묘지(烏氏墓誌)』(오승자 묘지)에는 발해를 상대한 오승자가 평로선봉군(平盧先鋒軍)이라고 있다.⁵² 이는 당이 발해와의 전투에는 평로의 군사를 동원했다는 것을 말해준다. 따라서 당은 범양과 평로의 군사를 동원하여 발해 및 돌궐, 거란과 전투를 벌였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범양과 평로에 배치되어 있던 당의 군사는 얼마나 되었을까? 이와 관련해서는 『구당서』 지리지의 내용이 주목된다.

E-1 범양절도사(范陽節度使)는 해와 거란을 통제하고 경략(經略), 위무(威武), 청이(淸夷), 정새(靜塞), 긍양(恆陽), 북평(北平), 고양(高陽), 당흥(唐興),

50 『舊唐書』 권103 郭英傑傳, “英傑與克勤逢賊力戰, 皆沒於陣, 其下精銳六千餘人仍與賊苦戰, 賊以英傑之首示之竟不降, 盡爲賊所殺.”

51 『資治通鑑』 권213 唐紀29 玄宗, “開元二十一年(733) 閏月 癸酉, 幽州道副總管郭英傑與契丹戰於都山敗死, 時節度使薛楚玉遣英傑將精騎一萬及降奚擊契丹, 屯於榆關之外, 可突干引突厥之眾來合戰奚持兩端, 散走保險 唐兵不利, 英傑戰死, 餘眾六千餘人猶力戰不已, 虜以英傑首示之竟不降, 盡爲虜所殺.”

52 『昌黎先生集』 권26 「碑志烏氏墓誌銘」, “開元中, 尙書(烏承玘)管平盧先鋒軍, 屬破奚契丹, 終戰捺祿, 走可突干, 渤海扰海上, 至馬都山, 吏民逃徙失業.”

횡해(橫海) 등 9개의 군을 다스린다. 범양절도사는 유주(幽州)의 관병 9만 1,400명, 말 6,500필, 의사(衣賜) 80만 단(段), 군량 50만 석(石)을 거느린다. 경략군(經略軍)은 유주성내(幽州城內)에 있고, 관병이 3만 명, 말이 5,400필이다.威武軍(威武軍)은 단주성내(檀州城內)에 있고, 관병이 1만 명, 말이 300필이다. 청이군(淸夷軍)은 규주성내(薊州城內)에 있고, 관병이 1만 명, 말이 300필이다. 정새군(靜塞軍)은 계주성내(薊州城內)에 있고 관병 1만 6,000명, 말 500필이다. 공양군(恆陽軍)은 공주성(恆州城) 동쪽에 있고, 관병이 3,500명이다. 북평군(北平軍)은 정주성(定州城) 서쪽에 있고, 관병이 6,000명이다. 고양군(高陽軍)은 역주성내(易州城內)에 있고, 관병이 6,000명이다. 당흥군(唐興軍)은 막주성내(莫州城內)에 있고, 관병이 6,000명이다. 횡해군(橫海軍)은 창주성내(滄州城內)에 있고, 관병이 6,000명이다.⁵³

E-2 평로군절도사(平盧軍節度使)는 실위와 말갈을 진무(鎭撫)하고 평로(平盧)·노룡(盧龍) 2군, 유관수착(柳關守捉), 안동도호부를 다스린다. 평로군절도사가 관리하는 영주(營州)에는 관병이 1만 7,500명, 말이 5,500필이다. 평로군은 영주성내(營州城內)에 있고, 관병이 1만 6,000명, 말이 4,200필이다. 노룡군은 평주성내(平州城內)에 있고, 관병이 1만 명, 말이 300필이다. 유관수착은 영주성(營州城) 서쪽 400리에 있고, 관병이 300명, 말이 100필이다. 안동도호부는 영주 동쪽 270리에 있고, 관병이 8,500명, 말이 700필이다.⁵⁴

53 『舊唐書』 권38 志18 地理1, “范陽節度使, 臨制奚·契丹, 統經略·威武·淸夷·靜塞·恆陽·北平·高陽·唐興·橫海等九軍. 范陽節度使, 理幽州, 管兵九萬一千四百人, 馬六千五百疋, 衣賜八十萬疋段, 軍糧五十萬石. 經略軍, 在幽州城內, 管軍三萬人, 馬五千四百疋, 威武軍, 在檀州城內, 管兵萬人, 馬三百疋, 淸夷軍, 在薊州城內, 管兵萬人, 馬三百疋, 靜塞軍, 在薊州城內, 管兵萬六千人, 馬五百疋, 恆陽軍, 在恆州城東, 管兵三千五百人, 北平軍, 在定州城西, 管兵六千人, 高陽軍, 在易州城內, 管兵六千人, 唐興軍, 在莫州城內, 管兵六千人, 橫海軍, 在滄州城內, 管兵六千人.”

E 자료는 범양, 평로에 배치된 당의 관병 수를 보여준다. 우선 범양 관병은 유주 9만 1,400명, 유주성내 경략군 3만 명, 단주성내 위무군 1만 명, 규주성내 청이군 1만 명, 계주성내 정새군 1만 6,000명, 공주성 동쪽의 공양군 3,500명, 정주성 서쪽의 북평군 6,000명, 역주성내 고양군 6,000명, 막주성내 당흥군 6,000명, 창주성내 횡해군 6,000명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평로 관병은 영주 1만 7,500명, 영주성내 평로군 1만 6,000명, 평주성내 노룡군 1만 명, 영주성의 유관수척 300명, 영주 동쪽의 안동도호부 8,500명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1〉 범양 지역에 배치된 당의 관병

주둔지	소속	통솔	관병 수
幽州	范陽軍	范陽軍節度使	91,400명
幽州城內	經略軍	范陽軍節度使	30,000명
檀州城內	威武軍	范陽軍節度使	10,000명
薊州城內	清夷軍	范陽軍節度使	10,000명
薊州城內	靜塞軍	范陽軍節度使	16,000명
恆州城 동쪽	恆陽軍	范陽軍節度使	3,500명
定州城 서쪽	北平軍	范陽軍節度使	6,000명
易州城內	高陽軍	范陽軍節度使	6,000명
莫州城內	唐興軍	范陽軍節度使	6,000명
滄州城內	橫海軍	范陽軍節度使	6,000명

- 54 『舊唐書』 권38 志18 地理1, “平盧軍節度使, 鎮撫室韋·靺鞨, 統平盧·盧龍二軍, 榆關守捉, 安東都護府. 平盧軍節度使治, 在營州, 管兵萬七千五百人, 馬五千五百疋. 平盧軍, 在營州城內, 管兵萬六千人, 馬四千二百疋. 盧龍軍, 在平州城內, 管兵萬人, 馬三百疋. 榆關守捉, 在營州城西四百八十里, 管兵三百人, 馬百疋. 安東都護府, 在營州東二百七十里, 管兵八千五百人, 馬七百疋.”

〈표 2〉 평로 지역에 배치된 당의 관병

주둔지	소속	통솔	관병 수
營州	平盧軍	平盧軍節度使	17,500명
營州城內	平盧軍	平盧軍節度使	16,000명
平州城內	盧龍軍	平盧軍節度使	10,000명
營州城 서쪽	榆關守捉	平盧軍節度使	300명
營州 동쪽	安東都護府	平盧軍節度使	8,500명

그런데 E-1에서는 유주성내 관병 3만, 단주성내 관병 1만, 규주성내 관병 1만, 계주성내 관병 1만 6,000, 역주성내 관병 6,000, 막주성내 관병 6,000, 창주성내 관병 6,000이 있었음이 나타나고, 또 E-2에서는 영주성내 관병 1만 6,000, 평주성내 관병 1만이 있었다고 한다. 이들 성내(城內) 관병들은 범양의 유주, 단주, 위주, 계주, 역주, 막주, 창주 그리고 평로의 영주, 평주 안에서 직접 성을 지키는 관병이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들 성내 관병들은 마도산 전투에 동원되지 않았을 것이고, 이들을 제외한 관병들이 마도산 전투에 동원되었을 가능성이 높다.⁵⁵ 따라서 마도산 전투에 동원된 범양과 평로의 군사는 성내 관병을 제외한 범양 관병 약 7만 900명, 평로 관병 약 1만 300명 정도로 추산된다.

〈표 3〉 마도산 전투에 동원된 당의 관병

주둔지	소속	통솔	관병 수	소개
幽州	范陽軍	范陽軍節度使	61,400명	범양 지역 관병 70,900명
恆州城 동쪽	恆陽軍	范陽軍節度使	3,500명	
定州城 서쪽	北平軍	范陽軍節度使	6,000명	

55 임상선은 마도산 전투에 동원이 가능했던 당의 범양, 평로 관병을 대략 23만 7,200명(범양 관병 18만 4,900명, 평로 관병 5만 2,300명) 정도로 추산하였는데, 이 전투에 동원된 군사 수는 언급하지 않았다(임상선, 2022, 앞의 글, 61~65쪽).

營州	平盧軍	平盧軍節度使	1,500명	평로 지역 관병 10,300명
營州城 서쪽	榆關守捉	平盧軍節度使	300명	
營州 동쪽	安東都護府	平盧軍節度使	8,500명	
합계			81,200명	

이를 통해 볼때, 약 7만의 범양군은 마도산 서쪽에서 돌궐, 거란과 전투를 벌였고, 약 1만의 평로군은 마도산 동쪽에서 발해와 전투를 벌인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D-1의 “범양과 신라의 군사가 10만이었다”는 내용에서 범양군은 약 7만의 범양 군사를 말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런데 마도산 전투에는 당군(唐軍) 이외에 흑수말갈과 실위의 5,000 기병(騎兵)이 당의 변병(蕃兵)으로 참전하고 있음이 『오씨묘지』에 나타나고 있다.

F-1 개원 중, 尙書(오승자)관은 평로의 선봉군(先鋒軍)으로 해와 거란의 무리를 격파했고, 녹산(祿山)에서 전쟁을 끝냈다. 가돌우는 도망쳤고, 발해가 해상(海上)에서 공격하고 마도산에 이르러 백성들이 도망하여 생업을 잃었다. … 흑수말갈과 실위가 기병 5,000명을 보내어 휘하에 들어오니, 변방에 그 위엄이 더욱 커졌다.⁵⁶

F 자료는 흑수와 실위 기병 5,000이 당의 변병으로 마도산 전투에 참여했음을 보여준다. 또한 이러한 내용은 흑수와 실위의 기병이 오승자가 있던 평로의 전선(戰線)으로 투입되었음을 의미한다. 이는 이들이 평로 군사와 함께 마도산 동쪽에서 발해와 전투를 벌였다는 이야기가 된다. 그러므로 마도산 동쪽에서 발해는 평로 군사뿐 아니라, 흑수와 실위의 변병도 상대하면서 전투를 벌였음을

56 『昌黎先生集』권26「碑志烏氏墓誌銘」, “開元中, 尙書(烏承玼)管平盧先鋒軍, 屬破奚契丹, 終戰捺祿, 走可突干, 渤海枕海上, 至馬都山, 吏民逃徙失業. … 黑水靺鞨室韋以騎伍千來屬麾下, 邊威益張.”

알 수 있다. 따라서 마도산 동쪽 전선에 동원된 당의 군사력은 평로 군사 약 1만, 흑수와 실위 기병 5,000 정도로 볼 수 있다. 이렇듯 당은 평로의 관병뿐 아니라, 이민족 번병까지 동원하여 발해와 전투를 벌였음을 알 수 있다.

더욱이 당은 범양 군사와 평로 군사의 병력을 나누어 발해, 돌궐, 거란과 마도산 전투를 벌였던 것으로 보인다. 발해와는 평로 군사 1만과 흑수, 실위 번병 5,000을 동원해 마도산 동쪽에서 전투를 벌였고, 마도산 서쪽에서는 범양 군사 7만을 동원하여 이들 병력을 분산해 돌궐, 거란과 전투를 벌였을 것이다.⁵⁷ 이와 관련하여 돌궐 『빌개가한비문』에는 당의 광영걸이 이끈 부대의 군사가 4만 명이라 하고 있어 주목된다.

G-1 (남쪽면 7) 내가 50살(733)에 있었을 때 타타브(해족) 백성이 거란에게서 갈라[섰다. /// 텡]캐르산에[///] (남쪽면 8) 쿡 장군(광영걸)이 이끌며 4만 군대가 왔다. 나는 텡캐르산에서 공격해서 쳤다. 3만 군대를 죽였다.⁵⁸

G 자료는 돌궐 빌개가한이 733년 텡캐르산에서 쿡 장군의 4만 군대와 싸웠음을 보여주고 있다. 여기서 쿡 장군은 광영걸이라는 인물인데, 광영걸은 마도산 전투에서 돌궐, 거란과 싸우다가 전사한 당의 장수이다. 그렇다면 텡캐르산은 마도산으로 볼 수 있으니,⁵⁹ 텡캐르산에서 벌어진 전투는 733년에 벌어진 마

57 다만, 임상선은 이 전투의 주요 격전지는 마도산 서쪽 유주(幽州) 지역으로, 평로의 군사도 유주에 투입되었을 것으로 보았다(임상선, 2022, 앞의 글, 61~65쪽). 그러나 『오씨묘지』와 『신당서』 오승자전에는 평로선봉군 오승자가 발해와 맞서 싸웠다는 내용이 보이고(D-1, F-1 자료), 또 『구·신당서』와 『자치통감』 및 돌궐 『빌개가한비문』에는 유주도부총관 광영걸이 거란, 돌궐과 싸우다가 전사한 내용이 보이고 있다(D 자료, G-1 자료). 이는 오승자가 평로, 광영걸이 유주에서 전투를 벌였음을 말해준다. 따라서 발해는 마도산 동쪽의 평로에서 오승자를 포함한 평로군 및 흑수, 실위의 기병과 전투를 벌인 것으로 보는게 타당할 것이다.

58 박원길, 2019, 「돌궐 빌개가한의 비문 속의 한국고대사 관련기록 검토 - 특히 발해의 동주, 도산 전투를 중심으로 -」, 『몽골학』 제56호, 33~34쪽 재인용.

59 박원길, 2019, 위의 글, 33쪽.

마도산 전투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별개가한비문』의 내용과는 달리, 『구·신당서』 거란전(자료 D-2, D-3)과 『구당서』 광영결전(자료 D-4), 『자치통감(資治通鑑)』 현종기(자료 D-5) 등에는 이때 죽은 당군이 6,000여 명 또는 1만 명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구당서』 광영결전에는 광영결의 휘하에 정예병이 6,000여 명, 『자치통감』 현종기에는 광영결이 정예기병[精騎] 1만 명을 이끌었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그렇다면 『구·신당서』와 『자치통감』에 보이는 죽은 당군의 수치는 광영결 등이 이끌었던 4만 군대에 포함되어 있는 정예병을 말하는 게 아닐까? 『별개가한비문』의 내용은 돌궐의 천하관이 깃들여 있어 그 내용과 표현이 과장되었을 가능성이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광영결이 이끈 당군의 규모에 대한 기록은 타당하게 보아도 되지 않을까 한다.

따라서 마도산 전투에서 당과 싸운 돌궐은 광영결이 이끈 4만 군대를 맞아 싸워 3만의 당군을 죽여 대승을 거둔 것이다. 또한 4만의 당군 중에는 전사한 6,000~1만의 정예병이 포함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당은 7만 정도의 범양 군사 중에 4만을 돌궐과의 전투에 투입하고, 거란과의 전투에는 나머지 3만 정도의 병력을 투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렇듯 8세기 전반 당은 평로에서 1만 정도의 관병과 흑수, 실위의 변병 5,000을 동원하여 마도산 동쪽에서 공격해 들어오는 발해와 전투를 벌였고, 범양에서는 7만 정도의 군사를 동원해 마도산 서쪽에서 쳐들어오는 돌궐, 거란과 전투를 벌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다면 733년 마도산 전투에 참전한 발해의 군사력은 어땠을까? 마도산 동쪽에서 당과 전투를 벌인 발해의 군사력은 당의 평로 군사와 비슷한 1만 정도가 아니었을까 한다. 무왕 때 발해의 군사력은 대략 10만 명 정도였는데, 그러면 발해는 마도산 전투에 총 군사 수의 1/10을 동원한 것이 된다. 이는 발해가 적지 않은 병력을 마도산 전투에 투입한 것이고, 여기에는 무왕이 직접 참전하기도 했다. 또한 당은 대문예에게 발해 공격을 명했고, 이에 무왕은 동도(東都)에 자객을 보내 대문예를 죽이려고까지 했다.⁶⁰ 그리하여 발해는 약 1만의 병력

을 동원해 평로 군사 및 흑수, 실위의 번병과 전투를 벌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렇다면 마도산 전투에서 당군과 맞서 싸운 발해군의 진격로는 어떠했을 까? 무왕은 육로와 해로를 통해 발해군을 이동시킨 후, 보기군(步騎軍)을 중심으로 마도산 전투에 임했을 것으로 보인다.⁶¹ 특히 육로를 통해 이동한 발해군은 요동을 거쳐 요서 지역으로 들어가 마도산 동쪽에 이르렀을 것이다.⁶² 그리고 이들은 요동 장령부⁶³를 지나 요수(遼水)를 건너고 여라수착(汝羅守捉)과 연군성(燕郡城)을 지나서 영주로 들어가는 노선을 이용하여⁶⁴ 평로에 이르러 마도

60 『資治通鑑』 권213, 唐紀29 玄宗, “開元二十一年(733) 春正月 丁巳 … 上遣大門藝詣幽州發兵, 以討勃海王武藝. 庚申, 命太仆員外卿金思蘭使於新羅, 發兵擊其南鄙. 會大雪丈餘, 山路阻隘, 士卒死者過半, 無功而還. 武藝怨門藝不已, 密遣客刺門藝於天津橋南, 不死, 上命河南搜捕賊黨, 盡殺之.”

권은주는 대문예의 출정 명령은 733년 1월, 마도산 전투는 733년 윤달 3월에 벌여졌는데, 2~3개월 사이에 대문예가 범양으로 이동하여 군사를 일으켜 발해를 토벌하러 갔다가, 동도(東都)로 돌아와 암살을 시도당했을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하면서, 대문예의 군사 활동은 실제로 일어나지 않은 것으로 보았다(권은주, 2012a, 앞의 글, 128쪽).

61 허맹용(許孟容)이 지은 「오씨묘비명(烏氏廟碑銘)」에는 “발해왕 무예(무왕)가 바닷가를 나와 마도산에 이르렀다”고 한다(『韓愈集』 권26 碑志3 「烏氏廟碑銘」, “許孟容作烏承洽神道碑云, 渤海王武藝出海濱, 至馬都山, 屠陷城邑. 公以本營土馬, 防遏要害.”). 이는 마도산을 공격한 발해군이 육로뿐 아니라, 해로도 이용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62 임상선은 요동의 장령부를 지나 요서 영주(營州)에 이르렀던 발해군은 유주(幽州) 지역으로 들어가 당과 전투를 벌인 것으로 보았다(임상선, 2022, 앞의 글, 73~74쪽).

63 『新唐書』 권219 列傳144 渤海, “高麗故地爲西京, 曰鴨渚府, 領神·桓·豐·正四州, 曰長嶺府, 領瑕·河二州.”

64 『新唐書』 권43 下 제33 地理 下 靺鞨州, “營州西北百里曰松陁嶺, 其西奚, 其東契丹. 距營州北四百里至遼水, 營州東百八十里至燕郡城. 又經汝羅守捉, 度遼水至安東都護府五百里. 府, 古漢襄平城也. 東南至平壤城八百里, 西南至都里海口六百里, 西至建安城三百里, 告中郭縣也. 南至鴨綠江北泊灼城七百里, 公安平縣也. 自都護府東北經古蓋牟, 新城, 又經渤海長嶺府, 千五百里至渤海王城, 城臨忽汗海, 其西南三十里有古肅慎城, 其北經德理鎮, 至南黑水靺鞨千里.”

산 동쪽에서 전투를 벌였을 가능성이 높다.

8세기 발해와 당은 요하(遼河)를 경계로 요동은 발해, 요서는 당의 영역이었을 것이다. 특히, 727년 귀국한 왕족 대창발가(大昌勃價)는 현종에게 양평현개국남(襄平縣開國男)을 제수받고 귀국했는데,⁶⁵ 여기서 양평현(襄平縣)은 요동의 한 지역을 가리킨다.⁶⁶ 그러므로 현종이 대창발가에게 양평현개국남을 제수했다는 것은 적어도 무왕 때 발해가 요동으로 진출했음을 알 수 있다.⁶⁷ 또한 문왕(文王) 때 일본에 사신으로 갔던 양승경(楊承慶)과 고남신(高南申)이 목저주자사(木底州刺史)와 현도주자사(玄菟州刺史)였다는 것⁶⁸도 8세기경 발해가 요동으로 진출했음을 알 수 있다. 그리하여 발해의 요동진출 시기는 무왕 재위기로 볼 수 있다.⁶⁹

더욱이 발해는 천보(天寶) 연간을 기점으로 요동을 완전히 확보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구당서』 지리지에는 “한대(漢代)의 낙랑(樂浪)과 현도(玄菟)는 고려, 발해의 영토로 이는 지금의 요동이며 당의 영토가 아니었다”고 주석을 달아 설명하고 있다.⁷⁰ 이는 천보 11년(752) 당시 요동은 당이 아닌 발해의 영토였

65 『冊府元龜』 권975 褒異2, “開元十五年(727) 四月 庚申, 封大昌勃價襄平縣開國男, 賜帛十五疋, 首領以下各有次, 先是, 渤海王大武藝遣男利行來朝, 峇獻稍鼠, 至是, 乃降書與武藝慰勞之, 賜綵練一百疋.”

66 『後漢書』 志23 郡國5, “遼東郡秦置, 雒陽東北三千六百里. 案本紀, 和帝永元十六年郡復置西部都尉官, 十一城, 戶六萬四千一百五十八, 口八萬一千七百一十四. 襄平新昌無慮望平候城安市平郭有鐵.”

67 발해의 요동진출에 관해서는 김진광, 2012, 『발해 문왕대의 지배체제 연구』, 박문사, 30~32쪽 참조.

68 『續日本紀』 권21 淳仁天皇, “天平寶字二年(758) 九月 丁亥, 小野朝臣田守等至自渤海, 渤海大使輔國大將軍兼將軍行木底州刺史兼兵署少正開國公揚承慶已下廿三人, 隨田守來朝, 便於越前國安置.”; 『續日本紀』 권22 淳仁天皇, “天平寶字三年(759) 冬十月 辛亥, 迎藤原河清使判官內臟忌寸全成, 自渤海却廻, 海中遭風, 漂着對馬, 渤海使輔國大將軍兼將軍玄菟州刺史兼押衛官開國公高南申相隨來朝.”

69 임상선, 2008, 「渤海國과 契丹의 교섭관계 재검토」, 『高句麗渤海研究』 32, 155쪽 주37.

70 『舊唐書』 권38 志18 地理1, “今舉, 天寶十一載(752), 地理. 唐土東至安東府, 西至安西府, 南至日南郡, 北至單于府. 南北如前漢之盛, 東則不及, 西則過

음을 말해주는 대목이다. 따라서 요동은 적어도 천보 초기를 전후한 시기에 완전히 발해의 소유가 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와 더불어 『요동행부지(遼東行部志)』에는 “요동이 발해의 소유가 된 이후 10여 세대를 지나 오대(五代) 때에 이르러 발해가 거란과 요동을 두고 수십 년간 싸웠다”고 한다.⁷¹ 여기서 “오대 시기에 이르러 거란과 싸웠다”는 것은 발해가 멸망하는 10세기 전반의 상황을 말해준다. 그렇다면 이때 발해왕은 15대 대인선(大諲諲)이 되고, 이보다 10여 세대 이전에 요동이 발해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인데, 대인선의 10여 대 이전이면 대략 3대 문왕, 4대 폐왕, 5대 성왕 때로 볼 수 있다.⁷² 그런데 발해가 요동을 완전히 확보한 시기는 천보 초기를 전후한 시기일 것이다. 따라서 발해의 요동 확보는 무왕 또는 문왕 초기 때이고, 그 시점은 천보 연간을 경계로 한 8세기 전·중반으로 판단된다.⁷³ 그렇기 때문에 무왕은 요동의 장령부를 거쳐 요서 영주로 들어가 마도산 동쪽에 이르러, 당과 전투를 벌일 수 있던 것이다.

그러면 마도산 전투에서 발해를 공격하기 위한 당의 전략은 무엇이었을까? 이때 당의 전략 중 하나는 함정을 설치해놓는 것이었다. 이는 『신당서』 오승자전에 “오승자가 ‘要路’를 막고 큰 돌을 이용해 구덩이를 만들어 발해가 들어오지 못했다”는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다.⁷⁴ 이러한 내용은 등주 전투 이후 발해가

之, 漢地東至樂浪·玄菟, 今高麗·渤海是也. 今在遼東, 非唐土也. 漢境西至燉煌郡, 今沙州, 是唐土. 又龜茲, 是西過漢之盛也.”

71 王寂, 『遼東行部志』, “唐季不能勤遠略, 遼東之地爲渤海大氏所有, 傳國十餘世, 唐五代時契丹與渤海 血戰數十年, 竟滅其國, 于始遼東之地, 盡入于遼.”

72 임상선, 2008, 앞의 글, 157쪽; 문윤수, 2022, 「10세기 渤海의 滅亡과 그 원인 - 契丹의 군사전략과 鐵利府·東平府 공격을 중심으로 -」, 『한국고대사연구』 105, 282~283쪽 주17.

73 김진광은 무왕의 등주, 마도산 공격은 발해가 요동을 확보하고 있어야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면서, 발해의 요동 확보를 무왕 때로 보았고(김진광, 2012, 앞의 책, 81~86쪽), 임상선도 732년 전쟁이 벌어졌을 무렵 요동은 발해의 영향권에 들어와 있었을 것으로 보았다(임상선, 2022, 앞의 글, 74쪽).

74 『新唐書』 권136 列傳61 烏承玘, “武藝遣客刺門藝東都, 引兵至馬都山, 屠城

또다시 공격해 올 것을 당이 예측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그리하여 당은 발해의 공격에 대비하기 위해 미리 큰 구덩이를 만들어놓는 등의 함정을 설치했던 것이다.

특히 이 구덩이 함정은 무려 400리에 이르렀다고 하는데, 이것은 마도산 전투에 동원된 발해의 병력이 적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또한 오승자가 ‘要路’를 막고 구덩이를 만들었다는 내용 바로 앞에 “대무예가 마도산에 이르러 성을 사람들이 죽였다”는 내용이 배치되어 있어, 이것이 발해군을 함정으로 유인하는 당의 유인 전술임을 짐작할 수 있다. 따라서 당은 강한 군사력을 지녔던 발해를 상대하기 위해 400리에 이르는 함정을 설치하여 발해군을 유인하는 등의 전략을 펼치면서 전투에 임했음을 알 수 있다.

당의 또다른 전략은 오랑캐로 오랑캐를 물리치는 이이제이(以夷制夷) 전술이었다. 당은 흑수, 실위의 기병 5,000을 동원하여 이들을 발해와의 전투에 참전시켰다(자료 F-1). 이는 당이 기동력이 뛰어난 기병을 주축으로 한 번병들을 발해와의 전투에 동원했음을 말해준다. 더구나 흑수는 발해의 통제에서 벗어나려고 했다가 도리어 무왕의 토벌이라는 결과를 가져오게 한 존재였다. 그리하여 당은 이러한 흑수를 활용하여 발해를 공격하는 전략을 구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당은 유인 전술과 이이제이 전술을 적절히 활용하여 마도산 동쪽에서 발해와 전투를 벌였던 것이었다.

IV. 발해와 신라의 전투와 군사력

1. 733년 신라의 대발해(對渤海) 공격 지역

733년 마도산 전투 이후, 신라는 발해 공격을 위해 군대를 출병시켰다. 이는 현

邑. 承玼室要路, 塹以大石, 亘四百里, 虜不得入.”

종의 요청으로 신라가 출병하게 된 것이다.

H-1 개원 21년(733) 봄 정월 … 경신일 명을 내려 태복경원외경(太僕卿員外卿) 김사란을 신라에 보내어 군사를 일으켜 그(발해) ‘南鄙’를 공격하게 했다. 때마침 대설이 내려 한길 남짓하게 쌓였고 산세는 좁고 험하니, 군사가 절반이 넘게 죽어 공이 없이 돌아왔다.⁷⁵

H-2 성덕왕 31년(732) 겨울 12월, 각간 사공(思恭), 이찬 정종(貞宗)·윤충(允忠)·사인(思仁)을 각기 장군으로 삼았다.⁷⁶

H-3 성덕왕 32년(733) 가을 7월, 당 현종은 발해말갈이 바다를 건너 들어와 등주를 침략하니, 태복원외경 김사란을 귀국시켜 왕에게 벼슬을 더해주어[加授] 개부의동삼사(開府儀同三司) 영해군사(寧海軍使)로 삼고, [신라는] 군사를 일으켜 말갈의 ‘南鄙’를 공격하게 했다. 때마침 대설이 내려 한길 남짓하게 쌓이고 산세는 좁고 험하니, 군사가 절반이 넘게 죽어 공 없이 돌아왔다.⁷⁷

H 자료는 신라가 발해를 공격하기 위해 군사를 일으켜 출병했음을 보여 준다. H-1에는 현종이 김사란을 신라에 보낸 것이 현종 개원 21년(733) 정월로 나타나고 있고, H-3 신라 성덕왕 32년(733) 7월에 김사란이 도착하여 발해가 당 등주를 침공했음을 신라에게 전하고 있는 내용이 보인다. 그렇다면 김사란은 현종의 명을 받들어 733년 정월에 신라로 출발하여 같은 해 7월 신라에 도착해

75 『資治通鑑』 권213 唐紀29 玄宗至道大聖大明孝皇帝, “開元二十一年(733) 春正月, … 庚申, 命太僕員外卿金思蘭使于新羅, 發兵擊其南鄙, 會大雪丈餘, 山路阻隘, 士卒死者過半, 無功而還.”

76 『三國史記』 권8 新羅本紀8 聖德王, “三十一年(732) 冬十二月, 以角干思恭伊滄貞宗·允忠·思仁, 各爲將軍.”

77 『三國史記』 권8 新羅本紀8 聖德王, “三十二年(733) 秋七月, 唐玄宗以渤海靺鞨越海入寇登州, 遣太僕員外卿金思蘭歸國仍加授王爲開府儀同三司寧海軍使, 發兵擊靺鞨南鄙, 會大雪丈餘, 山路阻隘, 士卒死者過半, 無功而還.”

발해가 당 등주를 침략한 사실을 전달한 것으로 볼 수 있다.⁷⁸ 따라서 신라가 출병한 시기는 733년 7월 이후로 보는데 타당할 것이다. 더욱이 성덕왕은 이때 당의 요청으로 김유신의 손자 김운중과 김운문을 장군으로 삼아 당군과 합세하여 발해를 공격했음이 확인되고 있어,⁷⁹ 이때 신라가 당과 연합해 발해를 공격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출병 이후 신라군은 발해(말갈)의 ‘南鄙(南境)’⁸⁰를 공격했으나, 산의 지세가 좁고 험하며 더욱이 대설이 내리는 등 큰 추위로 인해 출병한 병사가 절반 이상이 죽게 되어 결국 공이 없이 돌아왔다[無功以還]고 한다. 이를 통해 신라군이 공격한 지역은 발해의 남쪽 변경 지대임을 짐작할 수 있지만, 그 위치가 정확히 어디인지는 불분명하다.⁸¹ 하지만 발해와 신라가 전투를 벌였던 것 만큼은 분명한 것 같다. 이는 바로 다음 해인 개원 22년(734) 2월 신라의 김충신(金忠信)이 현종에게 상표(上表)를 올려 “말갈(발해)을 쳐서 없애버리겠다”고 말한 『책부원구』의 내용⁸²을 통해서도 이때 발해와 신라가 충돌하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따

78 古畑徹, 1986, 앞의 글(임상선 편역, 1990, 앞의 책, 201~202쪽).

79 『三國史記』 권43 列傳3 金庾信 下 附錄, “開元二十一年(733), 大唐遣使教翰曰:「靺鞨渤海, 外稱藩翰, 內懷狡猾. 今欲出兵問罪, 卿亦發兵, 相爲犄角. 聞有舊將金庾信孫允中在, 湏差此人爲將」, 仍賜允中金帛若干. 於是, 大王命允中·弟允文等四將軍, 率兵會唐兵, 伐渤海.”

80 『구당서』 발해말갈전에는 신라가 공격한 발해의 지역을 ‘南境’이라 하였다(『舊唐書』 권199 列傳149 北狄 渤海靺鞨, “(開元)二十年(732), 武藝遣其將張文休率海賊攻登州刺史韋俊, 詔遣門藝往幽州徵兵以討之, 仍令太僕員外卿金思蘭往新羅發兵以攻其南境.”).

81 발해의 ‘南鄙(南境)’에 대해 김종복과 심승구는 함경남도 지역으로 보았고(김종복, 1997, 「新羅 聖德王代의 溟江지역 진출 배경」, 『成大史林』 12·13合輯, 68쪽; 심승구, 1995, 앞의 글, 31쪽), 조이옥은 압록강 하류로 보았다(조이옥, 2000, 「8世紀 前半 新羅의 對渤海 攻撃과 溟江」, 『東洋古典研究』 14, 248~251쪽). 그리고 임상선은 신라가 발해 압록부의 요지로 진격하기 위해 패강 북쪽을 공격하여 이곳에서 발해와 격돌했을 것으로 보았다(임상선, 2022, 앞의 글, 77~82쪽).

82 『冊府元龜』 권973 外臣部18 助國討伐, “(唐玄宗 開元)二十二年(734)二月, 新羅王興光從弟左領軍衛員外將軍忠信上表曰:「臣所奉進止, 令臣執節本國, 發兵馬討除靺鞨, 有事續奏者. 臣自奉聖旨, 誓將致命, 當此之時, 爲替人金孝

라서 733년 신라가 발해와의 전투에서 ‘無功以還’했기 때문에, 당에서 숙위하던 김충신이 734년 2월 현종에게 “말갈을 쳐서 없애버리겠다”고 제안한 것이다.

또한 이들의 주요 격전지는 패강 북쪽이었을 것이다.⁸³ 이와 관련해 현종이 성덕왕에게 보낸 「칙신라왕김흥광서(勅新羅王金興光書)」 2수와 『삼국사기』 성덕왕조의 내용이 주목된다.

I-1 계림주도독(鷄林州都督) 신라왕(新羅王) 김흥광(金興光: 성덕왕)에게 칙서를 내린다.

… 근래에 또 [김]사란의 표문(表文)을 받아 보고는 경(卿)이 패강에 군사 보루를 설치[眞戍]하고자 하는 것을 알았다. 그곳은 이미 발해의 요충지이고 또 녹산(祿山)과 서로 마주 보고 있는 곳이다. 이는 원대한 계책이 있는 것이고 참으로 장구한 계책이다. 또 하찮은[蕞爾] 발해가 이미 주벌(誅罰)을 피해 도망하였는데, 거들 군사들을 수고롭게 하고도 능히 박멸하지 못했다. 경이 매번 악을 미워하는 마음을 지니고 있으니 몹시 가상하게 여긴다. 도적들을 정제하고 변방을 안정시키는 것이 어찌 불가하겠는가? [보루 설치를] 마치면 사신을 보내어 알리도록 하여라. ...⁸⁴

方身亡，便留臣宿衛，臣本國王以臣久待天庭，遣從姪至廉代臣，今已到訖，臣卽合還，每思前所奉進旨，無忘夙夜，陛下先有制，加本國王興光寧海軍大使，錫之旌節，以討凶殘，皇威載臨，雖遠猶近，君則有命，臣敢不祗，蠢爾夷俘，計以悔禍，然除惡務本，布憲惟新，故出師義貴乎三申，縱敵患貽於數代，伏望陛下因臣還國，以副使假臣，盡將天旨，再宣殊裔，豈惟斯怒益振，固亦武夫作氣，必傾其巢穴，靜此荒隅，遂夷臣之小誠，爲國家之大利，臣等復乘桴滄海，獻捷丹墀，效毛髮之功，答雨露之施，臣所室也，伏惟陛下，圖之。」帝許焉。”

83 임상선, 2022, 앞의 글, 77~82쪽.

84 『全唐文』 권285 張九齡 「敕新羅王金興光書」 2首, “敕鷄林州大都督新羅王金興光: 「… 近又得思蘭表稱, 知卿欲於涇江眞戍, 既當渤海衝要, 又與祿山相望, 仍有遠圖, 固是長策. 且蕞爾渤海, 久已逋誅, 重勞師徒, 未能撲滅. 卿每疾惡, 深用嘉之. 警寇安邊, 有何不可? 處置訖, 因使以聞. …」.”

I-2 성덕왕 34년(735) 의충이 돌아올 때, [현종이] 조칙을 내려 패강 남쪽의 땅을 하사했다.⁸⁵

I-3 성덕왕 35년(736) 여름 6월 당에 사신을 보내어 새해를 축하하고 아울러 표를 올려 사례했다. “패강 남쪽의 땅을 하사해주신다는 은혜로운 조칙을 받았습니다. 신은 바닷가에서 태어나 살며 성스러운 조정의 교화를 입었습니다. 비록 정성스러운 마음이지만 바칠 만한 공적이 없고, 충정(忠貞)을 일삼으나 노력은 상을 받기에는 부족합니다. 폐하께서 비와 이슬 같은 은혜를 베푸시고 해와 달 같은 조(詔)를 내려, 신에게 땅을 주시어 신의 고을들을 넓혀주셨고, 마침내 개간의 기회도 있게 해주셨으며, 농사짓고 누에를 칠 장소도 얻게 해주셨습니다. 신은 조서의 뜻을 받들어서 영예로운 은혜를 깊이 입었으니, 이 몸이 부서져서 가루가 되더라도 보답할 길이 없습니다.”⁸⁶

I 자료는 발해와의 전쟁 이후 신라가 당에게 패강에 군사 보루를 설치[眞戍]할 것을 요청하고, 당이 신라에게 패강 남쪽의 땅을 하사한 내용을 보여준다. 특히 I-1 「칙신라왕김홍광서」 2수에서 현종은 성덕왕에게 패강은 이미 발해의 요충지라 말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전투가 벌어졌던 733년경에는 패강 일대가 발해의 영역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I 자료는 발해와 신라가 패강을 두고 대립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이 자료는 신라가 공격할 발해의 남경이 패강 일대임을 짐작할 수 있게 한다. 패강은 압록강으로 향할 수 있는 요지이고, 더욱이 압록강 일대에는 발해의 서경 압록부⁸⁷와 해로를 통해 당으로 향하는 조

85 『三國史記』 권8 新羅本紀8 聖德王, “三十四年(735), 義忠迴, 勅賜溟江以南地.”

86 『三國史記』 권8, 新羅本紀8, 聖德王, “三十五年(736) 夏六月, 遣使入唐賀正, 仍附表陳謝曰, 「伏奉恩勅, 賜溟江以南地境. 臣生居海裔, 沐化聖朝. 雖丹素爲心, 而功無可効, 以忠貞爲事, 而勞不足賞. 陛下降雨露之恩, 發日月之詔, 錫臣土境, 廣臣邑居, 遂使墾闢有期, 農桑得所. 臣奉絲綸之旨, 荷榮寵之深, 粉骨糜身, 無由上答..」”

87 『新唐書』 권219 列傳144 渤海, “高麗故地爲西京, 曰鴨渚府, 領神·桓·豐·正

공도(朝貢道)라는 교통로가 있던 곳이다.⁸⁸ 그리하여 당은 발해의 해상 교통로였던 압록강의 길목을 차단할 목적으로 신라에게 출병을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신라군은 압록강으로 향하는 주요 길목이었던 패강에서 발해와 전투를 벌인 것이다. 따라서 733년 겨울 발해와 신라의 격전지는 패강 북쪽으로 생각된다.

또한 신라가 발해를 공격했을 때, 산의 지세가 좁고 험했다는 내용은 발해가 이러한 산의 지세를 이용하여 함정을 설치해놓거나 군사들을 매복시켜 기습전을 펼쳤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더욱이 이때는 대설이 내렸고, 출병했던 병사가 절반 이상이 죽었다는 내용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신라가 발해와 전투를 벌인 시점이 겨울이고,⁸⁹ 상대적으로 추위에 강한 발해가 날씨와 산의 지세를 적절히 이용해 신라군을 패퇴시켰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생각된다.

2. 733년 발해와 신라의 군사 규모

그러면 당시 발해와 신라의 군사력은 어땠을까? 발해의 군사력은 자료의 부족으로 알 수 없지만, 발해 공격을 위해 출병한 신라의 군사력은 D-1 자료를 통해 대략 추정이 가능하다. 『신당서』 오승자전(자료 D-1)에는 마도산 전투에 대해 말하고 있는데, 이때 “범양과 신라의 군사가 10만이었다”고 한다. 여기서 범양군은 마도산 전투에 동원된 약 7만의 범양 군사를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D-1에서 언급하고 있는 신라군은 대략 3만 정도로 추측할 수 있다. 특히 당의 요청으로 신라가 동원한 병력과 관련해서는 다음의 사례가 주목된다.

四州.”

88 『新唐書』 권219 列傳144 渤海, “龍原東南瀕海, 日本道也. 南海, 新羅道也. 鴨渚, 朝貢道也. 長嶺, 營州道也. 扶餘, 契丹道也.”

89 古畑徹, 1986, 앞의 글(임상선 편역, 1990, 앞의 책, 202~203쪽); 임상선, 2022, 앞의 글, 77~78쪽.

J-1 [정관(貞觀)] 17년(643) 태종(太宗)은 친히 고려를 치려고 신라에 조서(詔書)를 내려서 군사와 말을 모집해 대군에 응접(應接)하라고 했다. 신라는 대신(大臣)을 파견하여 병사 5만 명을 이끌고 고려의 남쪽 경계[南界]로 들어가 수구성(水口城)을 공격해서 항복 받았다.⁹⁰

J-2 [정관] 17년(643) [신라가] 고려와 백제의 공격을 받게 되니, 사신을 보내와서 군사를 청했다. 마침 황제가 친히 고려를 치는 중이어서 조서를 내려 군사를 이끌고 와 오랑캐의 형세를 나누라고 했다. 선덕[여왕]은 군사 5만 명으로 고려의 '南鄙'로 들어가 수구성을 공략한 후 [그 사실을] 알렸다.⁹¹

J-3 선덕[여]왕 14년(645) 5월, [당] 태종이 친히 고구려를 쳤는데, 왕이 군사 3만 명을 내어서 도왔다.⁹²

J-4 헌덕왕 11년(819) 가을 7월 당 운주절도사(鄆州節度使) 이사도(李師道)가 반란을 일으켰다. [당] 헌종(憲宗)이 장차 [이들을] 토벌해서 평정하고자, 양주절도사(楊州節度使) 조공(趙恭)을 보내 우리(신라) 병마(兵馬)를 징발하라는 조칙을 내리니, 왕이 칙지(勅旨)를 받들고자 순천군장군(順天軍將軍) 김웅원(金雄元)에게 갑병(甲兵) 3만 명을 거느리고 가서 도우라고 했다.⁹³

J 자료는 신라가 당의 요청으로 동원한 병력을 보여주고 있다. J-1, J-2, J-3은 645년 당 태종의 고구려 공격에 신라가 3~5만의 군사를 지원했음이 보

90 『舊唐書』 권199 列傳149 上 東夷 新羅國, “(貞觀) 十七年(643), 太宗將親伐高麗, 詔新羅募集士馬, 應接大軍. 新羅遣大臣領兵五萬人, 入高麗南界, 攻水口城, 降之.”

91 『新唐書』 권200 列傳145 東夷 新羅, “(貞觀) 十七年(643), 爲高麗·百濟所攻, 使者來乞師, 亦會帝親伐高麗, 詔率兵以披虜勢, 善德使兵五萬入高麗南鄙, 拔水口城以聞.”

92 『三國史記』 권5 新羅本紀5 善德王, “十四年(645) 夏五月, 太宗親征高句麗, 王發兵三萬以助之.”

93 『三國史記』 권10 新羅本紀10 憲德王, “十一年(819) 秋七月, 唐鄆州節度使李師道叛, 憲宗將欲討平, 詔遣楊州節度使趙恭, 徵發我兵馬, 王奉勅旨, 命順天軍將軍金雄元, 率甲兵三萬以助之.”

이고, 또 J-4에는 819년 당 현종이 이사도의 난을 진압하는데 신라가 갑병(甲兵) 3만을 보낸 내용이 보이고 있다. 이러한 사례를 통해 신라가 당의 요청으로 보낸 군사는 대략 3~5만 정도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신당서』 오승자전(자료 D-1)과 J 자료를 통해 733년 발해와의 전투에 동원된 신라의 병력은 3만을 넘지는 않았을 것이다.⁹⁴ 그러므로 신라는 대략 3만의 병력으로 발해와 전투를 벌인 것으로 판단된다.⁹⁵ 또한 발해도 비슷한 병력으로 신라와 맞서 싸웠을 것으로 생각된다.

V. 맺음말

지금까지 732~733년에 벌어진 발해와 당의 전쟁을 군사적인 측면으로 접근하여 검토해보았다. 이 전쟁은 신라, 거란, 돌궐 등이 참전한 국제 대전이었다. 양국의 대립은 흡수말갈 문제로 발생하였고, 이것은 대문예의 망명으로 더욱 심화되었다. 이후 당 현종은 무왕에게 「칙발해왕대무에서」 1수를 전달하여 발해를

94 다만, 임상선은 『신당서』 오승자전에 보이는 “범양군과 신라병 10만”은 발해를 공격한 신라군의 병력으로만 보았다(임상선, 2022, 앞의 글, 65쪽). 그러나 645년, 819년 신라가 당의 요청으로 보낸 병력이 3~5만이었다는 사례가 보이고(J 자료), 더욱이 마도산 전투에 동원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범양의 관병은 대략 7만 정도로 추산된다. 따라서 이 전쟁에 참전한 신라군은 대략 3만 정도로 보는게 타당하지 않을까 한다.

95 발해를 공격한 신라군 중에는 한산주(漢山州)를 포함한 신라 북쪽 국경의 병력이 포함되었을 것이다. 718년, 721년 성덕왕은 한산주 관내 및 북쪽 국경에 여러 성을 축조했다고 한다(『三國史記』 권8 新羅本紀8 聖德王, “十七年(718) 十月, 築漢山州都督管内諸城. … 二十年(721), 七月, 徵何瑟羅道丁夫二千, 築長城於北境.”). 이는 성덕왕이 북쪽에 있는 발해를 의식한 행동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와 관련해 윤선태는 721년 성덕왕이 신라의 북쪽 국경에 장성을 축조한 것은 발해 무왕의 영역확장 정책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기도 했다(윤선태, 2018, 「문헌자료로 본 삼국통일 이후 화성지역의 동향」, 『삼국통일과 화성지역 사람들 삶의 변화』, 화성시, 20쪽). 따라서 733년 발해를 공격한 신라 군사 중에는 한산주를 포함한 북쪽 국경의 군사들이 포함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침공할 수 있음을 경고하였고, 이에 무왕은 732년 9월 당의 등주를 먼저 공격한 것이다.

당시 등주에는 동모수착 관병과 무기단병으로 구성된 3,853명의 군사가 있던 것으로 추정되고, 『위준묘지』를 통해 발해가 등주성을 기습공격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기습을 감행한 발해군은 등주의 군사와 비슷한 4,000명 이내의 규모로 생각된다.

733년 마도산 전투에서는 돌궐, 거란이 범양 지역을 공격했고, 발해는 무왕이 수륙양면으로 군사를 이동시켜 평로 지역을 공격했다. 그리고 이 전투에 동원된 당군은 『구당서』 지리지를 통해 분석한 결과, 범양 7만 900명, 평로 1만 300명 정도로 추산된다. 또한 여기에는 흑수, 실위의 기병 5,000이 당의 변병으로 참전하여 평로 전선에 투입되었다. 따라서 범양 군사는 돌궐, 거란을 상대했고, 평로 군사와 흑수, 실위의 변병은 발해를 상대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 전투에 투입된 발해군은 평로의 당군과 비슷한 1만 정도였을 것이고, 이들은 요동의 장령부와 요서 영주를 지나 평로 일대에 이르게 되는 노선을 이용했을 것이다.

여기서 당은 함정을 설치하는 것과 흑수, 실위의 변병을 활용하는 이이제이 전술 등으로 발해와의 마도산 전투에 임하였다. 특히 『신당서』 오승자전에는 “오승자가 설치한 구덩이 함정이 400리였다”고 하는데, 이는 발해의 병력이 적지 않았음을 말해준다.

733년에는 당의 요청으로 신라가 출병하여 발해의 ‘南鄙(南境)’을 공격하는 일도 벌어졌다. 특히 『삼국사기』 등에는 김사란이 현종의 명을 신라에 전달한게 733년 7월이고, 또 신라군이 대설 등으로 인해 ‘無功以還’ 했다는 내용이 보여, 신라가 발해와 전투를 벌인 시기는 733년 겨울로 추정된다. 그리고 이들의 격전지는 패강 북쪽이었을 것이다. 패강은 압록강으로 향하는 요지였고, 압록강에는 발해가 당으로 향하는 조공도가 있었다. 그리하여 당은 압록강의 길목을 차단할 목적으로 신라에게 출병을 요청한 것이다. 따라서 발해와 신라의 격전지는 패강 북쪽으로 생각된다.

더욱이 이 전투에 출병한 신라군은 대략 3만 명 정도였을 것이다. 특히 『삼국사기』와 『구·신당서』 등에서는 645년 당 태종의 요청으로 신라가 3~5만의 병력을 보냈고, 819년 이사도의 반란 때는 당 헌종의 요청으로 신라가 갑병 3만을 보냈다고 한다. 이러한 사례를 통해 733년 발해와의 전투에 동원된 신라군 역시 3만을 넘지 않았음을 짐작할 수 있다. 또한 발해도 이와 비슷한 병력으로 신라와 맞서 싸웠을 것이다.

따라서 발해와 당이 전쟁 기간 중 물리적으로 충돌했던 시간은 732년 9월부터 신라가 발해를 공격한 733년 겨울까지 대략 1년여 정도였음을 알 수 있다.

참고문헌

사료

『謝不許北國居上表』, 『三國史記』, 『東文選』.
『後漢書』, 『隋書』, 『北史』, 『昌黎先生集』, 『韓愈集』, 『元和郡縣圖志』, 『舊唐書』.
『唐會要』, 『冊府元龜』, 『新唐書』, 『資治通鑑』, 『遼東行部志』, 『全唐文』.
『續日本紀』.
『高元珪墓誌』, 『韋俊墓誌』, 『烏氏廟碑銘』, 『張建章墓誌』.
『발개가한비문』.

단행본

김진광, 2012, 『발해 문왕대의 지배체제 연구』, 박문사.
윤선태 외 4인, 2018, 『삼국통일과 화성지역 사람들 삶의 변화』, 화성시.
임상선 편역, 1990, 『渤海史의 理解』, 신서원.
Talat Telkin 저, 이용성 옮김, 2008, 『돌궐 비문 연구』, 제이앤씨.
韓圭哲, 1994, 『渤海의 對外關係史-南北國의 形成과 展開』, 신서원.

毛阳光·余扶危 主編, 2013, 『洛阳流散唐代墓誌彙編』, 國家圖書館出版社.
周紹良 主編, 1992, 『唐代墓誌彙編』, 上海古籍出版社.
周紹良·趙超 主編, 2001, 『唐代墓誌彙編續集』, 上海古籍出版社.

酒寄雅志, 2001, 『渤海と古代の日本』, 校倉書房.

논문

권은주, 2009, 「靺鞨 7部の 實體와 渤海와의 關係」, 『高句麗渤海研究』 35.
_____, 2012a, 「渤海 武王代 영역확장과 북방정세의 변동」, 『高句麗渤海研究』 43.
_____, 2012b, 「渤海 前期 北方民族 關係史」, 慶北大學校 博士學位論文.
_____, 2013, 「발해의 등주 공격을 통해 본 국제동맹과 외교」, 『역사와 세계』 44.

- 김종복, 1997, 「新羅 聖德王代の 涇江지역 진출 배경」, 『成大史林』 12·13合輯.
- , 2010, 「발해와 당의 사신 파견을 통해 본 大門藝 亡命사건의 추이」, 『역사와 경계』 76.
- 金鎮漢, 2017, 「張行岌의 使行記事로 본 渤海의 對唐 및 突厥關係」, 『大東文化研究』 97.
- 문운수, 2022, 「10세기 渤海의 滅亡과 그 원인 - 契丹의 군사전략과 鐵利府·東平府 공격을 중심으로 -」, 『한국고대사연구』 105.
- 朴南守, 2013, 「신라 聖德王代 涇江鎮 설치 배경」, 『사학연구』 110.
- 박원길, 2019, 「돌궐 빌개카간의 비문 속의 한국고대사 관련기록 검토-특히 발해의 등주, 도산 전투를 중심으로-」, 『몽골학』 제56호.
- 송기호, 2022, 「渤海 武王代 對唐紛爭의 경과 검토-玄宗 勅書 4首와 馬都山 전투 자료를 중심으로-」, 『韓國史論』 68.
- 신범규, 2021, 「8세기 전반 발해의 해양교통로와 제해권 범위」, 『한국고대사탐구』 38.
- 沈勝求, 1995, 「渤海 武王의 政治의 課題와 登州攻擊」, 『軍史』 31.
- 윤선태, 2018, 「문헌자료로 본 삼국통일 이후 화성지역의 동향」, 『삼국통일과 화성지역 사람들 삶의 변화』, 화성시.
- 이영호, 2010, 「金思蘭: 唐을 선택한 망명자」, 『복원사림』 28.
- 임상선, 2008, 「渤海國과 契丹의 교섭관계 재검토」, 『高句麗渤海研究』 32.
- , 2020, 「732년 발해와 당의 전쟁 과정 재검토」, 『동국사학』 69집.
- , 2022, 「군사력·전략 측면에서 살펴본 732년 발해와 당의 전쟁」, 『군사사연구 총서』 10집.
- 조이옥, 2000, 「8世紀 前半 新羅의 對渤海 攻擊과 涇江」, 『東洋古典研究』 14.
- 辛時代·郭威, 2018, 「韦俊墓志与渤海寇登州事件始末」, 『北方文物』 2018 2期.
- 魏國忠, 1985, 「大祚榮“遣子”侍唐時間考」, 『北方文物』 1985-4.
- 馮曉曉, 2017, 「唐代登州刺史韋俊墓志銘考析」, 『鄂州大學學報』 24, 2017 2期.
- 古畑徹, 1984, 「大門芸の亡命年時について-唐渤紛爭に至る渤海の情勢-」, 『集刊東洋學』 51.
- , 1986, 「唐渤紛爭の展開と國際情勢」, 『集刊東洋學』 55.

- _____, 1988, 「張九齡作『勅渤海王大武藝書』第一首の作成年時について-大門芸の亡命年時について-」補遺, 『集刊東洋學』 59.
- 末松保和, 1975, 「新羅の郡縣制, 特に完成期の二三の問題」, 『學習院大學 文學部 研究年報』 21(『末松保和朝鮮史著作集』 2: 「新羅の政治と社會」 下, 1995, 吉川弘文館).
- 三上次男, 1959, 「渤海國の興亡」, 『圖說世界文化史』 19, 角川書店.
- 石井正敏, 2001, 「對日本外交開始前後の渤海情勢-玄宗皇帝『勅渤海王大武藝書』の檢討-」, 『日本渤海關係史の研究』, 吉川弘文館.

732~733년 발해(渤海)와 당(唐) 전쟁의 전개 과정과 군사력

문윤수

732~733년에 벌어진 발해와 당 전쟁은 신라, 돌궐, 거란 등이 참전한 국제 대전이었다. 양국의 대립은 흑수말갈 문제로 발생했고, 이는 대문예의 망명으로 더욱 심화되었다. 이후 당 현종은 「칙발해왕대무예서(勅渤海王大武藝書)」 1수를 통해 발해를 침공할 수 있음을 경고했고, 이에 무왕은 732년 9월 당의 등주를 선제공격한 것이었다.

당시 등주에는 동모수착(東牟守捉) 관병과 무기단병(武騎團兵)으로 구성된 3,853명 정도의 군사가 있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위준묘지(韋俊墓誌)』를 통해 발해가 등주성(登州城)을 기습공격한 사실을 알 수 있었고, 여기에 투입된 발해군은 등주의 군사와 비슷한 4,000명 이내의 규모로 생각된다.

등주전투 이후 마도산 전투에서는 돌궐과 거란 등이 범양 지역을 공격하였고, 발해가 평로 지역을 공격한 것으로 보인다. 또 이 전투에 동원된 당의 군사는 범양군(范陽軍) 7만 900명, 평로군(平盧軍) 1만 300명 정도였고, 더욱이 흑수, 실위 기병 5,000이 당의 변병(蕃兵)으로서 평로 전선에 투입되기도 했다. 따라서 평로군과 흑수, 실위의 변병이 발해를 상대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이

전투에 투입된 발해의 병력은 평로군과 비슷한 1만 정도였을 것이다. 그리고 당은 함정 설치와 이이제이(以夷制夷) 전술을 주요 전략으로 발해군을 상대한 것으로 여겨진다.

733년에는 당의 요청으로 신라가 출병하여 발해 ‘南鄙(南境)’를 공격하는 일도 벌어졌다. 우선 신라군이 대설 등으로 인해 ‘無功以還’했다는 점을 볼 때, 신라가 출병하여 전투를 벌인 시기는 733년 겨울로 추정된다. 그리고 발해와 신라가 전투를 벌인 곳은 패강 북쪽이었을 것이다. 패강은 압록강 방면으로 향하는 요지였고, 압록강에는 발해가 당으로 향하는 조공도가 있었다. 따라서 당은 압록강의 길목을 차단할 목적으로 신라에게 출병을 요청한 것으로 볼 수 있겠다.

그리고 이 전투에 출병한 신라군은 대략 3만 정도였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삼국사기』와 『구·신당서』 등에는 645년과 819년 신라는 당의 요청으로 3~5만 정도의 군사를 보냈다고 한다. 이러한 사례를 통해 733년 발해와의 전투에 동원된 신라군은 3만을 넘지 않았을 것이다. 또한 발해도 이와 비슷한 병력으로 신라와 맞서 싸운 것으로 생각된다.

끝으로, 발해와 당이 전쟁 기간 중 물리적으로 충돌하였던 시간은 732년 9월부터 신라가 발해를 공격한 733년 겨울까지 대략 1년여 정도였음을 알 수 있다.

주제어: 발해, 당, 등주, 마도산, 범양, 평로, 신라, 패강

732~733 Development Process and Military Power of Balhae and Tang War

Moon Yunsoo

The Balhae and Tang Wars of 732~733 were international wars fought by Silla, Turuk, Khitan. The confrontation between the two countries was caused by the Heuksu-malgal problem and worsened by the exile of the gatekeeper. Later, the Tang warned Balhae that it could invade, and Balhae preemptively attacked the Deungzhou in September 732.

At that time, it seems that there were about 3,853 soldiers in Deungzhou. And Balhae's naval forces that attacked Deungzhou are thought to be within 4,000 people, similar to the military of Deungzhou.

In the Battle of Mt. Mado in 733, Turuk and Khitan attacked the Beomyang area, and Balhae seems to have attacked the Pyeongro area. In addition, the party's soldiers mobilized in this battle were 70,900 Beomyang and 10,300 Pyeongro soldiers, and moreover, they were deployed to the Pyeongro front as commanders per 5,000 Heuksu and Shilwi. In addition, Balhae's military force in this battle was probably

about 10,000, similar to the Pyeongro military, and the Tang is believed to have dealt with Balhae as its main strategy with the installation of ships and tactics using stray cars.

In 733, Silla dispatched at the request of the Party and attacked the southern border of Balhae. It is estimated that Silla dispatched and fought in the winter of 733, and the place where the battle was fought was north of the Pae River. Because the Pae River was a key point toward the Amrok River, and the Amrok River had a tribute road to the Tang, so it may have been to block it. In addition, about 30,000 Silla soldiers participated in this battle, and Balhae is thought to have fought against Silla with similar forces.

Finally, it can be seen that the physical conflict between Balhae and the Tang was about a year from September 732 to the winter of 733.

Keywords: Balhae, Tang, Deungzhou, Mt. Mado, Beomyang, Pyeongro, Silla, Pae River.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고대 및 고려시대의 장 문화 발달과 그 실제

박유미 | 한국체육대학교 교양교직부 강사

- I. 머리말
- II. 고대 이전 시기의 대두 이용
- III. 고대인들의 장 문화와 활용
- IV. 고려시대의 장 문화와 그 내용
- V. 맺음말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I. 머리말

사람들의 생명을 담보하고 사회를 지탱할 수 있는 음식이자 필수 영양을 공급할 수 있는 중요한 식료 중의 하나로 콩(大豆, *Glycine max* (L.) Merr.)을 꼽을 수 있다.¹ 콩을 음식으로 활용하면서 사람들은 생계에 여러 이점을 갖게 되었고, 콩으로 다양한 식품을 만들어 우리의 음식생활을 풍부하게 했다. 이런 콩으로 만드는 음식 중 하나가 발효음식인 두장(豆醬)이다. 본래 장은 동북아시아에서 모두 제조되지만 그 양상은 저마다 다르다. 우리나라의 경우, 일찍부터 콩으로 만든 장을 중심으로 음식문화가 발달했는데 이것은 고기를 발효시키는 육장(肉醬)부터 발달한 중국의 장문화와는 다른 상황이다.² 그러므로 우리나라와 중국의 장문화는 실제적 차이가 있으며, 두장은 한민족을 대표하는 음식이라고 평가되기도 한다.

두장은 사람들의 삶에서 맛과 영양을 풍부하게 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콩의 생산 증대와 도구의 발달, 여러 가공 기술의 향상을 통해 시대별로 제조 및 쓰임의 변화를 겪었고 그런 변화의 흐름은 사회적 요인과 문화의 확장을 토대로 이뤄졌다고 보인다. 따라서 두장과 관련된 시대별 유의미한 쓰임 및 특징이 어

* 투고: 2023년 4월 13일, 심사 완료: 2023년 5월 8일, 게재 확정: 2023년 5월 12일

* 2022년 7월 29일에 발표된 한·중 문화충돌 대응 학술회의 “한국 음식문화의 미학, 그 여정에 대한 역사적 이해”에서 발표된 글을 수정 보완하였음

1 『齊民要術』卷2, 「大豆」第6, “《범승지서》에서 이르길, 콩은 한 해에 걸쳐서 언제나 먹을 수 있어 예전에는 이것으로 흉년에 대비했다.” 또는 세역의 해석에 따라 “콩은 한 해를 거르거나/해마다 땅을 바꾸어 농사지어 먹을 수 있어 예전에는 이것으로 흉년에 대비했다(汜勝之書曰, 大豆保歲易爲, 宜古之所以備凶年也).”; 레이첼 로던 著·조윤정 譯, 2015, 『탐식의 시대』, 다룬세상, 56쪽.

2 『說文解字』卷15, 「酉部」, “장, 鹽池다. … 술로써 장을 화하게 만든다(醬, 鹽也. … 酒以和醬也).”; 段玉裁, 『說文解字注』, 「酉部」, “장은 해다. … 해는 고기를 쓰지 않은 것이 없다(醬, 醢也. … 醢無不用肉也).”

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여러 자료로 찾아보는 것은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두장이 무슨 의미였고, 역사적으로 어떠한 맥락성을 갖는지를 헤아릴 수 있게 할 것이다.

두장에 대한 선행연구는 고유한 장 및 그에 대한 통사적 이해,³ 대두 재배 기원과 장의 연원 고찰,⁴ 발굴된 고대의 대두 유체를 통해 알아볼 수 있는 장의 실제,⁵ 장이 내포하는 민속적 의미 이해,⁶ 시(豉)에 관한 문헌조사 및 연구,⁷ 고대 장 관련한 내용 및 가공법 탐구,⁸ 조선시대 장 분류 및 제조법 분석,⁹ 동아시아

- 3 윤서연, 2019, 「한국 전통발효식품의 서목에 관한 연구-김치류 및 장류를 중심으로-」, 청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이성우, 1988b, 「한국 전통 발효식품의 역사적 고찰」, 『한국식생활문화학회지』 3-4, 한국식생활문화학회; 이준영, 1989, 「장류의 문화」, 『식품과학과 산업』 22-4, 한국식품과학회; 이한창, 2016, 「한국의 장류」, 『식품과학과 산업』 49-3, 한국식품과학회.
- 4 이성우, 1988a, 「대두재배의 기원에 관한 고찰」, 『한국식생활문화학회지』 3-1, 한국식생활문화학회; 김지원, 2000, 「민족발효음식-장의 발생에 대한 고찰」, 『조선고고연구』 2000-3, 사회과학원 고고학연구소; 최덕경, 2004, 「대두재배의 기원론과 한반도」, 『중국사연구』 31, 중국사학회; 최덕경, 2009a, 「대두의 기원과 醬·豉 및 豆腐의 보급에 대한 재검토」, 『역사민속학』 30, 한국역사민속학회; 박유미, 2016, 「한국 고대의 두류 재배와 활용」, 『고조선단군학』 35, 고조선단군학회.
- 5 김민구·류아라, 2018, 「탄화물 분석을 통한 삼국시대 대두 이용방법 고찰」, 『한국상고사학보』 100, 한국상고사학회.
- 6 배영동, 2002, 「된장을 통해본 민족음식의 전통과 변화」, 『한국민속학』 35, 한국민속학회.
- 7 정경란, 2018, 「청국장역사」,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8-7, 한국콘텐츠학회; 최영진, 2017, 「고문헌에 기록된 우리나라 豉의 특성에 대한 연구」, 『동아시아식생활학회지』 26-6, 동아시아식생활학회.
- 8 권주현, 2014, 「신라의 발효식품에 대하여」, 『목간과 문자』 12, 한국목간학회; 윤서석·윤숙경·조후종·이효지·안명수·안숙자·서혜경·윤덕인·임희수, 1991, 「『齊民要術』에 수록된 식품조리 가공법 연구(Ⅲ)-醬-」, 『한국식생활문화학회지』 6, 한국식생활문화학회; 최덕경, 2020, 「중국 豆醬의 출현과 豆醬文化의 확산: 한반도 豆醬문화와 관련하여」, 『역사민속학』 59, 한국역사민속학회.
- 9 김광수, 2000, 「우리나라 전통 장류의 고문헌적 고찰」, 『논문집』 19, 경북전문대학; 김성미·이춘자, 2004, 「『증보산림경제』의 장류 조리 가공에 관한 연구」, 『동아시아식생활학회지』 14, 동아시아식생활학회; 김용문, 2021, 「한국 전통 장 제조

장 문화 비교¹⁰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들 내용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연구는 조선시대를 다룬 것으로 조선시대에 기록된 많은 사료를 활용하여 장의 종류 구분 및 제조법을 고찰했다. 다음으로 대두 재배의 연원 및 그 내용 탐구가 이뤄졌다. 그러나 고려시대나 고대의 장에 대한 연구성과는 조선시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다. 이는 현재 확인할 수 있는 당대의 사료가 부족하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결과적으로 우리 전통적인 콩장, 즉 두장에 대한 연구는 조선시대 고문헌 및 조리방법을 중심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었다. 조선왕조가 아닌 시대의 장과 문화에 대한 이해도 『삼국사기(三國史記)』 등의 사료에 드러나는 매우 단편적인 내용, 또는 중국의 『제민요술(齊民要術)』, 『거가필용사류전집(居家必用事類全集)』 등의 사료에 수록된 제조법으로 우리의 장과 관련된 내용을 헤아려 짐작하는 실정이다. 이러한 연구성과의 조선시대 편중은 그 외에 다른 시대 장의 실재와 양상,

기술 변천에 관한 문헌적 고찰, 공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김지원, 2001, 「장의 종류와 제조법에 대한 몇가지 고찰」, 『조선고고연구』 2001-3, 사회과학원 고고학 연구소; 백두현, 2010, 「한국의 전통-한글음식조리서에 나타난 조리법의 비교-장 담는 법」, 『식품문화 한마당』 3-1, 한국식품연구원; 안용근·문영자, 2015, 「전통즙장-전통 즙장에 대한 연구-」, 『한국식품영양학회지』 28-5, 한국식품영양학회; 안용근, 2012, 「조선조의 공문서 및 왕실자료에 나타난 장류」, 『한국식품영양학회지』 25-2, 한국식품영양학회; 안용근·우나리아, 2012, 「고려시대 및 조선시대 장류」, 『한국식품영양학회지』 25-3, 한국식품영양학회; 윤덕인, 2000, 「전통 장류의 변천 발달과정에 관한 연구」, 『관대논문집』 28-2, 관동대학교; 장지현, 1969, 「한국 재래 장류제조사-특히 고농서류에 나타난 장류를 중심으로-」, 『민족문화연구』 3,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정동호, 2013, 『전통장류발효식품대전』, 홍익재; 최영진·조신희·정낙원·김은미·원선임·차경희·김현숙·이효지, 2007, 「17세기 이전 장류에 대한 문헌적 고찰」, 『한국식품조리과학회지』 23-1, 한국식품조리과학회; 한복려·김귀영, 2020, 「조선시대 전반기의 두장류에 관한 문헌적 고찰」, 『한국식생활문화학회지』 35-1, 한국식생활문화학회.

- 10 이성우, 1990, 「동아시아 속의 두장에 관한 발상과 교류에 관한 연구」, 『한국식생활학회지』 5-3, 한국식생활학회; 이한창, 2016, 『장보-동아시아 장의 역사와 계보』, 따비; 윤덕인, 2007, 「아시아 장류 문화 연구」, 『비교민속학』 34, 비교민속학회; 임갑필, 1984, 「한국과 일본의 장류 발달의 비교 고찰」, 『가정학연구』 1-1, 안동대학교 가정학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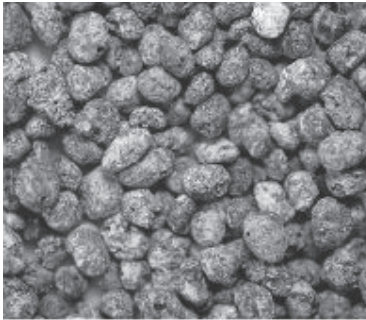
문화가 어떠했는지, 우리 민족의 본래 장과 그 특징은 무엇인지, 장이 우리 민족의 역사와 어떤 연관성을 맺었는지 등에 대한 내용을 파악하기 어렵게 만든다.

따라서 이 글은 여러 장 중에서도 콩으로 만든 장(豆醬)에 대한 연원과 그 역사적 추이를 고대와 고려시대를 중심으로 파악해보려고 한다. 일찍부터 우리 민족이 재배하고 활용한 콩의 우수성에 대해 고고학의 발굴성과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밝히고, 그 과정에서 드러나는 민족적 특징과 역사성을 고구려 및 발해사를 통해 살피려는 것이다. 다음으로 사료 부족으로 간과되어 소략히 살피지는 고려시대 장의 생산과 쓰임, 장의 기능과 ‘절장(絶醬)’의 여부 등을 『고려사(高麗史)』 및 문인들이 남긴 여러 서적, 목간, 비문 등을 종합하여 짐작하려 한다. 이와 같은 고찰을 통해 콩으로 만든 장의 역사성을 고대로부터 충실히 살피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옛사람들이 장을 무슨 방법으로 만들고 일상 및 사회에서 장을 어떻게 사용하였는지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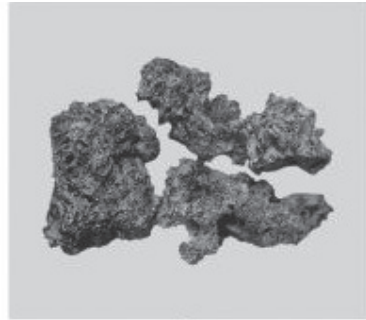
II. 고대 이전 시기의 대두 이용

그간 고고학 발굴을 통해 밝혀진 콩의 유체와 연대 추정치는 선사시대부터 사람들이 이용한 주요한 곡물로서 콩이 갖는 위상을 짐작케 한다. 본래 우리 민족이 거주한 한반도와 만주는 콩의 주산지로서 유명했다. 비록 콩의 재배 기원지 논의의 관련하여 한반도·만주 중심설 외에도 중국 화북설·남방설·다기원중심설 등 여러 논의¹¹⁾가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지만, 그럼에도 한반도와 만주는 콩 품종의 다양성 및 재배종화 논의와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지역이다. 또한 이 지역의 사람들이 이른 시기부터 콩의 이용과 관련하여 상당한 수준에 도달했다는 것도 부인하기 어렵다.

11 이성우, 1988a, 앞의 글, 2쪽; 최덕경, 2009a, 앞의 글, 365쪽; 박유미, 2016, 앞의 글, 86쪽.



1



2

그림 1 1. 포항 원동 유적 공류, 2. 공류 덩어리(국립문화재연구소 소장)

이런 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로서 만주와 한반도에서 발굴된 공의 유체를 들 수 있다. 만주지역의 경우, 요녕 대련 왕가춘 유적에서 6,300~4,400BP, 4,000BP로 편년된 야생콩인 돌콩 수십 점이 각각 출토되었고¹² 한반도의 경우 신석기시대 초기부터 후기까지 고르게 콩 및 콩과 작물, 화분 유체가 발굴되었다. 경상남도 울산광역시 세죽 및 진주 태평리 어은 유적, 경기도 시흥시 능곡동 및 화성시 석교리, 강원도 고성군 문암리 등에서 이른 시기부터 사용된 콩의 유체가 확인되는 것이다. 선사인들의 콩 이용은 대부분 채집된 것으로 콩류 유체 외에도 조, 기장, 벼, 맥류 등의 곡물 유체가 함께 출토되는 경우가 많았다.¹³ 이러한 상황으로 야생콩이 선사시대부터 단독으로 쓰이기보다 타 곡물과 함께 사용되거나 조나 기장 등의 주식 곡물을 보조하는 역할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청동기시대에 접어들면서 야생콩은 사람에 의해 재배되는 곡물이 되었다. 이를 살펴볼 수 있는 콩 유체가 청동기시대 전기로 판별되는 경상북도 포항시

12 국립문화재연구소, 2015a, 『동아시아 고고식물 선사시대-중국편』, 국립문화재연구소, 42~43쪽.

13 국립문화재연구소, 2015b, 『동아시아 고고식물 선사시대-한국편』, 국립문화재연구소, 627~721쪽 총괄일람표 내역 중 신석기시대 참조.

원동 유적 IV구역 10호 주거지에서 발굴되었다(그림 1).¹⁴ 확인된 유체 수량이 1,800립으로 대량 출토되었으며, 박태식과 이영호의 연구 및 조사에서는 이들 콩 관련 유체가 야생종과 재배종의 중간 단계로 보이는 양상을 확인하였다.¹⁵ 이와 같은 내용은 사람들이 야생 대두를 작물화하는 시도와 노력이 청동기 전기 그 이전부터 진행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이것은 대두 재배 기원지 중 하나로 꼽히는 중국 출토의 콩 유체 분석과 견주었을 때 상당히 유의미한 내용을 알려준다. 한국과 중국, 일본에서 발굴된 콩의 유체 비교를 통한 작물화 연구에서 중국 출토의 콩 종자는 한(漢)나라 시대 전반에 걸쳐 크기 면에서 계속 증가했지만, 더 이른 시기의 우리나라 청동기시대 및 삼국시대 종자보다 여전히 작았음이 밝혀졌다.¹⁶ 물론 종자의 크기만으로 콩이 작물화되는 시점을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확인되는 크기의 변화는 야생종자가 작물화되는 초기 과정을 보여준다고 추정되기 때문에¹⁷ 사람들에 의한 콩의 작물화 시도 및 그 성과가 중국에도 분명히 있었지만 재배종화의 결과가 우리의 것에 미치지 못했음을 추측케 한 것이다. 게다가 “북쪽으로 가서 산옹(山戎)을 정벌하고 동충(冬葱), 용숙(戎菽)을 갖고 와서 천하에 배포했다”¹⁸라고 한 『관자(管子)』의 기록도 앞의 연구성과와 일정 부분 상통한다고 여겨진다. 이처럼 환공이 정벌했다고 알려진 산옹과 고죽, 영지는 모두 대릉하 유역의 전기비파형동검문화와 인접해

14 국립문화재연구소, 2015b, 앞의 책, 593쪽 1~2번 사진.

15 재배콩의 크기는 평균 길이가 7.15mm, 폭 5.37mm, 두께 4.72mm이고, 야생콩과 재배콩 사이의 순화콩은 5립으로 평균 길이가 4.75mm, 폭 3.69mm, 두께 3.44mm였다. 국립문화재연구소, 2015b, 위의 책, 592쪽.

16 이경아·Gary W. Crawford·刘莉·佐々木由香·陈雪香, 2011, 「동아시아 유적에서 출토된 콩(Glycine max)에 기반한 작물화 연구: 종자 크기 비교」, 『경남연구』 5, 경남발전연구원, 116쪽.

17 이경아·Gary W. Crawford·刘莉·佐々木由香·陈雪香, 2011, 위의 글, 117쪽; 赵志军·杨金钢, 2017, 「考古出土炭化大豆的鉴定标准和方法」, 『南方文物』 2017-3, 中国社会科学院考古研究所, 151~153쪽 표1 참조.

18 『管子』 卷10, 「戒」 第26, “北伐山戎, 出冬葱與戎叔, 布之天下.”

있는 세력들이다.¹⁹ 전기비파형동검문화의 주민집단인 예맥과 그 속에서 성장한 고조선은 이들 세력과 전혀 무관하다고 볼 수 없다.²⁰ 게다가 『관자』, 「소광(小匡)」에는 예맥이 아예 산융 등의 북쪽 세력으로 묶여 언급되고 있었다.²¹ 예맥은 환공에 의해 정벌된 바가 없지만 당시 예맥, 고죽, 산융 등은 북쪽 세력으로 분류되며 근방의 지역끼리 여러 물품이 교류되었다고 생각된다. 그중에 식량으로 활용도가 높은 콩의 유통도 있었으리라 짐작되며 이런 콩을 입수한 환공이 중국으로 배포했다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²²

그러나 콩의 우수성이나 이런 작물화의 시도와 그 결과가 꼭 콩을 활용한 발효음식의 제작을 가능하게 했다고 생각하기는 어렵다. 인과관계가 바로 성립하지 않으며 발효라는 과정도 단번에 습득할 수 없기 때문이다. 콩을 발효시키기보다 조나 기장 등의 주곡과 섞어서 밥을 지어 먹거나 그 자체를 불에 구워 익히는 등으로 비교적 간단히 조리해서 먹기가 더 쉽다. 대체로 우리 민족이 이른 시기 콩으로만 발효시킨 장인 시를 고대 국가가 건국되기 이전부터 만들어 먹었을 것으로 보는 이유는 한나라 때 사육사 지은 『급취편(急就篇)』의 “무이염시혜초장(無莢鹽豉醢酢醬)”²³과 사마천 『사기(史記)』의 「식화열전(貨殖列傳)」²⁴의 내

19 『管子』 卷7, 「大匡」 第18, “환공은 북쪽의 영지를 정벌하고, 부산에 이르러 고죽을 참하고 산융을 억압했다(桓公乃北伐令支, 下梟之山, 斬孤竹, 遇山戎).”

20 박준형, 2016, 「기원전 7세기 중반 동북아시아의 국제관계와 고조선의 위상」, 『백산학보』 106, 백산학회, 73쪽.

21 『管子』 卷8, 「小匡」 第20, “환공이 이르길, 내가 승차로 회합이 3번이고, 병차로 회합이 6번이니 모두 9차례나 제후들을 규합하여 천하를 바로잡았다. 북으로 고죽, 산융, 예맥에 이르고 태하의 왕을 사로잡았다(桓公曰, 呈乘車之會三, 兵車之會六, 九合諸侯, 一匡天下, 北至於孤竹山戎穢貉拘秦夏).”

22 실제로 흑룡강성 영안현 대목단둔과 우장, 길림성 영길현 오랍가에서 약 3,000년 전의 대두가 출토된 바가 있으며, 청동기시대 유적인 길림성 영길현 양동 대해맹에서는 야생종에서 반재배종, 재배종 단계로 이행되는 과정을 알 수 있는 대두 탄화종자가 발굴되었다(박유미, 2017, 『고구려 음식문화사』, 학연출판사, 78~79쪽). 그러므로 이른 시기부터 활용되며 자체 재배종화까지 이뤄진 우수한 대두는 주변 지역에도 식량으로 가치가 높았으리라 생각된다.

23 『急就篇』 卷2, “무이염시혜초장. … 시는 콩을 어두운 곳에 두어 (발효)되도록 한다

용에서 비롯되었다. 진나라와 한나라 이전에는 등장하지 않았던 ‘시’라는 글자의 갑작스런 출현으로 기존의 장과는 다른, 콩만 발효시켜 만든 장이 홀연히 전한(前漢) 시기에 등장했다고 본 것이다.

이렇게 느닷없이 새로운 글자가 등장한 것은 그 글자가 지칭하는, 콩만 발효시키는 음식이 중국에서 전통적으로 제조된 음식이 아니라는 의미일 것이다. 고대 중국인들의 생활에서 발달한 음식이라기보다는 어디선가 영향을 받아 만들어진 것으로 보인다. 이들이 생경한 시에 대한 제조법이나 실마리를 얻을 수 있는 곳은 일찍부터 질 좋은 콩을 활용한 사람들, 다시 말하면 콩과 관련된 오랜 생산과 다양한 소비를 이뤄내고 계승한 종족이나 나라여야 가능할 것이다. 이런 요건에 맞는, 중국 주변에서 질 좋은 야생콩을 이른 시기부터 재배종화하여 사용하고, 콩을 여러 방법으로 조리하여 그 제조법을 확립하고 전파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던 나라나 종족은 우리 민족밖에 없다고 여겨진다.²⁵ 이런 점에서 고조선은 자체적인 콩의 재배화는 물론 콩을 발효시켜 만드는 두장을 잘 만들었다고 생각된다.

그런데 이에 대한 논의에서 고조선시대의 장 제조에 필수적인 질그릇 문제가 발생한다. 당시의 질그릇은 신석기시대보다 높은 소성 온도에서 구워졌으나 이것이 콩을 충분히 익힐 수 있도록 내구성도 높아졌는지에 대해 의문이 든다. 실제로 이런 내용이 지적되어 콩을 발효시키기 위해서는 잘 삶아야 하는데 이것

(蕪荑鹽豉醢酢醬… 豉者, 幽豆而爲之也).”

24 『史記』卷129, “貨殖列傳”第69, “교통이 발달한 큰 도회에서는 … 천 답의 누룩·소금·시, 천 근의 북어·갈치, 천 석의 잡어, 천 균의 절인 어물, 삼천 석의 대추·밤, 천 피의 여우와 담비 가죽, 천 석의 새끼양과 양가죽, 천 구의 털자리, 천 종의 과일과 채소 등의 물건을 팔면 그 이자는 천 판을 얻게 된다. 중간에서 소개하는 사람이나 탐욕스런 상인은 본전의 3/10을 이익으로 챙기고, 염가로 파는 이는 5/10를 이익으로 얻을 수 있다(通邑大都, … 粳麴鹽豉千荅, 鮐鯪千石, 鰾千石, 鮑千鈞, 棗栗千石者三之, 狐貂裘千皮, 羔羊裘千石, 旃席千具, 佗果菜千鍾, 子貸金錢千貫, 節畧會, 貪賈三之, 廉賈五之, 此亦比千乘之家, 其大率也).”

25 박유미, 2017, 앞의 글, 97~99쪽.

이 가능하겠는가 하는 회의적 의견이 제기되기도 했다.²⁶ 소금의 제작과 사용도 문제점으로 등장할 수 있으나 현재 신석기시대에서 고대까지 제염(製鹽)의 여부를 살펴볼 수 있는 유물 발굴과 이에 대한 연구가 축적되고 있는 중이다.²⁷ 그러므로 기원전 고조선시대의 두장 제조가 이른 시기부터 가능했는지의 여부는 다시 장을 제조하는 제작 도구, 특히 대두를 삶을 때의 질그릇 내구성 문제로 돌아온다. 대체로 기원전 8~7세기부터 두장이 제작되었다는 주장에 대해 800~900℃ 정도로 구워진 당시의 무문토기는 내구성이 좋지 않아 콩을 오래 가열하여 익히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되었다.²⁸ 그러나 이런 의구심에도 불구하고 무문토기로도 콩의 익힘은 가능했다고 보인다. 시루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시루는 청동기시대 초기로 편년되는 함경북도 나진 초도 유적 주거지 자리에서 시루 및 주걱, 항아리, 단지 등이 나왔으며(그림 2²⁹), 서포항 유적 및 범의구석 유적 5기 문화층, 회령 오동 유적 등에서 출토되었다.³⁰ 시루의 사용은 이른 청동기시대에서 후기에 이르기까지 콩의 증숙을 고조선인들이 해냈음을 추정할 수 있게 한다.³¹ 철제 솥이 보편화되기 전까지 콩을 비롯한 곡물의 가공 및 조리에서 시루

-
- 26 안승모, 2008, 「콩과 팥의 고고학」, 인제식품과학FORUM논총 15권, 인제대학교 식품과학연구소, 85쪽.
- 27 김석훈, 2003, 「황해 주부 도서지역의 신석기시대 화덕자리와 제염유적에 대한 연구」, 인하대학교 박사학위논문; 박선식, 2018, 「신석기시대 中部西海岸 生業集團의 生計 연구: 京畿道 隣接西海岸 島嶼地域을 중심으로」, 서울 시립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오승준·한원식·위광철·이재돈, 2020, 「토기의 자연과학적 분석을 통한 한국 고대 중서부 지역의 전통 제염 기법에 관한 연구」, 『문화와 융합』 42-8, 한국문화융합학회.
- 28 안승모, 2008, 위의 글, 85쪽.
- 29 조선유적유물도감 편집위원회, 1990, 『조선유적유물도감』 1, 동광출판사, 205~210쪽 사진 464·465·467·468·470·472 참조.
- 30 오승환, 2002, 「우리나라 시루의 고고학적 연구」,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37쪽.
- 31 일반적으로 시루는 농경의 발달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곡물 조리 및 가공에 큰 변화가 있었음을 나타낸다. 우리 민족의 생활터전이었던 만주와 인접한 함경북도 지역에서 가장 먼저 출현하고 주로 주거지, 생활유적에서 출토된 청동기시대 시루의 등장과 이용은 곡물을 노지 화덕에서 질그릇에 직접 담아 가열하는 것보다 나은, 여러



그림 2 나진 초도 출토 손가락, 시루, 항아리(평양 조선유적유물도감 편찬위원회 소장)

가 다양한 자비용기와 결합되어 유용하게 쓰였을 것이다. 그러므로 고조선인들이 무문토기를 사용했더라도 시루라는 새로운 요리도구를 활용함으로써 필요한 만큼 콩을 익힐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콩으로 발효시킨 시·장의 출현도 가능성이 있으리라 여겨진다.

이점을 사람들에게 제시해줄 수 있다. 첫째, 시루를 사용하여 콩을 비롯한 곡물을 증숙하면 그릇에 직접 내용물을 담아 가열하는 것보다 흙냄새를 줄여주고, 둘째, 질그릇 자체의 파손을 막아주며, 셋째, 취사할 때의 불 조절을 용이하게 했을 것이다. 흙냄새를 줄이는 것은 질그릇의 성분이 곡물에 직접 혼합되는 경우를 적게 하며, 질그릇 자체의 파손을 막는 것은 질그릇 바닥에 조리하는 곡물이 늘어붙는 것을 방지하는 것 외에도 이를 세척하는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연질 토기의 파손을 막아줄 수 있기 때문이다. 불 조절에 대해서도, 당시의 취사가 질그릇의 바닥이 노지 화덕 바닥에 닿은 상태에서 그릇 주위에 불을 피워 끓이는 방법을 사용하는데 이는 열이 그릇의 몸통 중앙부에 집중하게 하므로 곡물의 조리 상태를 불량하게 했다고 한다. 이런 구조에서 매번 음식을 고루 익히는 것이 어려울 수 있는 데에 비해 시루는 증기만 충분히 공급하면 조리 상태를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다. 김지연, 2010, 「韓國 古代 시루(甗)에 대한 一考察」, 영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30~31쪽.

Ⅲ. 고대인들의 장 문화와 활용

고조선의 땅에 세워진 고구려, 옥저, 동예³² 및 부여를 비롯하여 삼한(三韓)의 전통과 북방계 문화의 유입³³을 융합한 백제와 신라는 그 음식 풍속이 서로 같다고³⁴ 여겨지기 때문에 예로부터 발효음식을 잘 만든다는 “선장양(善藏釀)”³⁵의 전통은 고대인들이 공유하는 특징일 것이다. 고대인들은 오곡(五穀)을 생산했는데, 이 중에는 콩이 포함되어 있다. 부여의 선주문화인 서단산문화에 속하는 길림성 영길현 양둔 대해맹 유적에서는 탄화대두가 출토되었고 ‘야생콩→반야생콩→재배종’으로의 과정을 살필 수 있었다. 이것은 일찍부터 거주민들이 야생콩을 재배종으로 바꾸기 위해 노력했으며 그 결과로 콩 농사의 전통이 부여와 부여의 별종으로 일컬어지는 고구려로 이어졌음을 이해할 수 있다. 또한 평양시 남경 유적 및 표대유적·회령오동유적 등의 한반도에서 출토된 콩 유체(그림 3³⁶)도 선사에서 고대에 이르기까지 사람들에게 콩 획득과 재배 및 이용 방법이 계승되었음을 알려준다. 이때 콩만 단독으로 발굴되는 것보다 여러 작물과 동반되는데, 흔히 오곡으로 여겨지는 찰기장·메기장 등의 기장류, 피, 보리나 밀의 맥류, 콩이나 팥 등의 두류, 벼, 마³⁷가 혼재되어 발견된다. 이를 통해

32 『後漢書』卷85, 「東夷列傳」第75 濊傳, “예 및 옥저·고구려는 본디 모두가 [옛] 조선의 지역이다(濊及沃沮·句驪, 本皆朝鮮之地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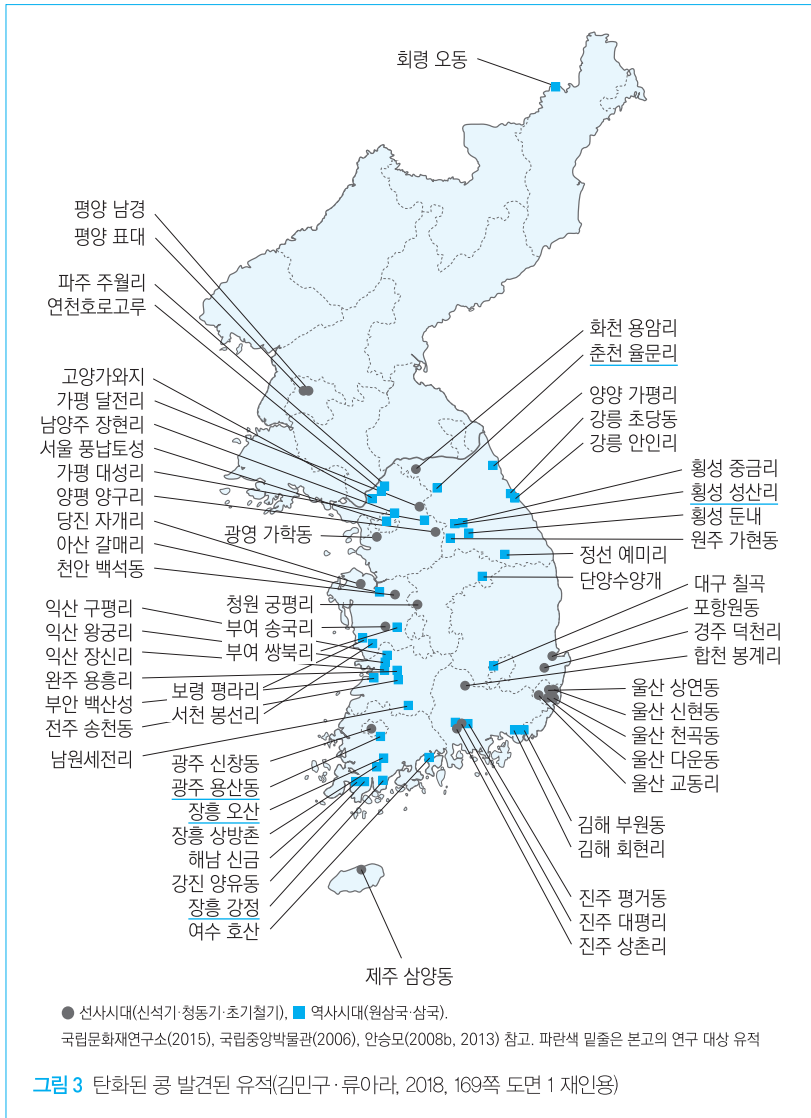
33 『三國志』卷30, 「魏書 東夷傳」第30 韓傳, “[準王]은 그의 근신과 궁인들을 거느리고 도망하여 바다를 경유하여 한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스스로 한왕이라 칭했다(將其左右宮人走入海, 居韓地, 自號韓王).”

34 『魏書』卷100, 「列傳」第88 百濟傳, “그 의복, 음식이 고구려와 같다(其衣服飲食與高句麗同).”; 『舊唐書』卷199, 「東夷列傳」第149 新羅傳, “그 풍속, 형법, 의복이 대략 고구려, 백제와 같다(其風俗刑法衣服, 與高麗百濟略同).”

35 『三國志』卷30, 「魏書 東夷傳」第30 高句麗傳, “其人絜清自喜, 善藏釀.”

36 김민구·류아라, 2018, 앞의 글, 169쪽 도면1 재인용.

37 서(黍), 직(稷), 맥류(大麥/小麥), 두류(大/小)·숙(菽), 도(稻), 마(麻) 곡물 중에서도, 마는 고문헌에서의 오곡 분류 중 편차를 보이고 있어 주요 곡식으로 꼽히는 것은 서, 직, 맥류, 두류·숙이다. 또한 『三國志』에는 변진의 토지가 비옥하여 오곡과



벼를 심기에 적합하다(卷30, 「魏書 東夷傳」第30 韓傳, “[弁辰]土地肥美, 宜種五穀及稻.”)고 하였는데 이때 오곡과 벼를 구분한 것은 오곡에 벼가 포함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박유미, 2017, 앞의 책, 73~75쪽.

고대인들은 오곡을 고르게 활용하였으며 콩을 다른 곡물과 섞어 밥을 짓거나, 부식 또는 장으로 만들어 섭취하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실제로 고대인들이 콩을 발효시킨 장을 먹었다는 증거가 고고학 발굴을 통해 나타났다. 전라남도 장흥 오산 유적의 12호 주거지(3세기), 장흥 행원리 강정 유적의 7·11·12호 주거지(3~5세기), 광주 용산동 36호 주거지(3~4세기), 강원도 홍천 성산리 유적 수혈주거지 중 36호 주거지(2~4세기, 그림 4³⁸), 춘천 울문리 7호 주거지(2~4세기)에서 덩어리 형태의 탄화대두가 출토된 것이다. 쌀, 조, 피, 보리 등의 여러 곡물과 동반되어 출토된 탄화대두는 덩어리 형태 외에 낱알로 탄화된 것도 있었다.³⁹ 낱알 형태와 덩어리 형태의 탄화대두는 그 쓰임이 달랐을 것인데, 탄화 실험 결과 낱알 상태의 대두는 탄화 과정에서 덩어리 형태로 변화하지 않으며, 덩이 형태의 탄화물은 낱알 상태의 대두보다는 메주나 된장 같은 대두를 기반으로 한 음식물에 더 가까웠다. 유적에서 발굴된 덩어리 탄화대두의 모양 및 덩어리 속 으깨지지 않은 콩의 형태도 현대의 콩 낱알 모양이 유지된 메주를 탄화시켰을 때의 모습(그림 5 참조⁴⁰)과 다르지 않아 고대인들이 콩을 익혀 찢고 문쳤음을 알 수 있었다.⁴¹

이렇게 콩을 삶아 으깨거나 찢는 행위 등을 통하여 고형물을 만드는 것이 반드시 메주 등의 장이라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콩을 요리하여 섭취하는 방법은 대개 두유처럼 액체화하는 것, 낱알 형태로 그대로 익혀 먹는 것, 또는 콩을 압착하여 기름을 추출하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콩을 갈아서 가루로 만드는 방법도 가공법 중 하나이겠지만 언급한 여러 가공법 중에서 출토 탄화물 유체와 같이 덩어리 형태이며 그 안에 모양을 유지한 콩 낱알이 들어 있는 모습은 아니다.⁴²

38 김민구·류아라, 2018, 앞의 글, 175쪽 도면5 재인용.

39 김민구·류아라, 2018, 위의 글, 170~176쪽.

40 김민구·류아라, 2018, 위의 글, 177쪽 도면8 재인용.

41 김민구·류아라, 2018, 위의 글, 179~180쪽.

42 김민구·류아라, 2018, 위의 글, 180쪽. 다만, 콩의 가공법으로 두부는 고려하지 않는다. 두부의 기원과 제작에는 한대(漢代) 제조설이 있으나 이를 비판하고 당·오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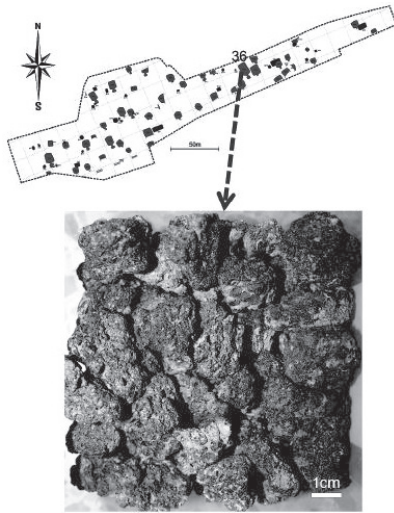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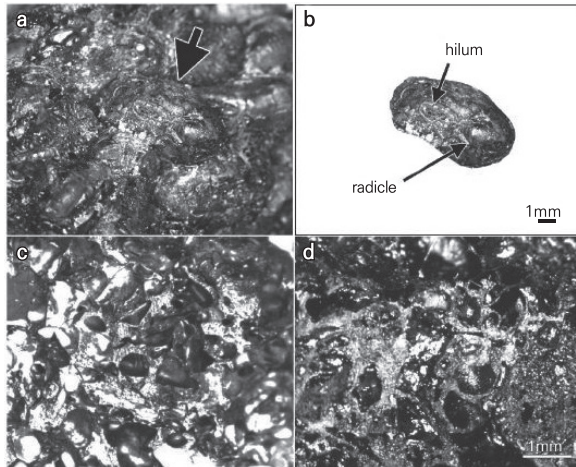


그림 4 성산리 유적 주거지 두류탄화물(김민구·류아라, 2018, 175쪽 도면 5 재인용)



a: 성산리 유적 탄화물 내에서 관찰된 대두, b: 대두 세부 부위, c: 강정 유적 탄화물 단면, d: 탄화현대 메주 단면

그림 5 성산리 유적 탄화대두와 현대 메주 탄화물 단면 비교
(김민구·류아라, 2018, 175쪽 도면 5 재인용)

즉, 뭉쳐지지 않은 낱알 형태를 유지하거나 액체나 기름, 가루 등으로의 변화는 으깨거나 찌는 형태의 고형물이 아니므로 콩을 가공하는 것 중 이에 부합되는 것은 삶아서 으깨어 발효한, 덩이 형태를 갖춘 장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2~4세기 무렵으로 편년되는 시기의 콩을 익혀 뺀 모양을 취한 탄화물 출토는 이보다 훨씬 앞선 시점부터 콩의 발효에 대한 제조법이 상당히 축적되었음을 나타낸다고 하겠다.⁴³

고분벽화 묘지명 및 문헌에도 고대인들이 시와 장을 활용했다는 내용이 있다(표 1 참조). 이를 통해 ‘시’가 ‘장’보다 이르게 확인되며, 시는 고구려와 신라, 발해 기록에서 고르게 보이지만 장의 경우 삼국전쟁 이후 신라의 문헌에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고대의 기록 자체가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이 기록만으로 시와 장의 차이점이나 등장 시기의 선후(先後) 등을 유추하기 어렵다. 그러나 신분이나 지위가 덕흥리 벽화무덤의 주인처럼 높은 사람, 즉 좌식자(坐食者)일 경우 그를 섬기는 하호(下戶)들이 바치는 곡물과 고기, 소금을 각기 받는 것 외에 이를 활용하여 가공한 염시(鹽豉)와 같은 물품도 납부받았다고 짐작된다. 그래서 공납받은 염시를 창고에 쌓아두고 과시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러한 염시

말 또는 송대 등의 시기를 언급하는 여러 논의가 있기 때문이다. 박유미, 2021, 「조선시대 두부의 문화사적 전개 및 제작·활용의 양상」, 『한국민속학』 73, 한국민속학회, 160~162쪽.

- 43 이런 논의에서 참조할 만한 내용이 청동기시대 작물유체 분석인데 전기에는 쌀과 콩, 조를 중심으로 나머지 작물들이 10% 내외의 비중을 차지하고, 후기에는 쌀의 비중이 가장 크고 나머지 작물들의 비중이 대체로 균등해지는 양상을 보인다고 한다(류아라, 2013, 「청동기시대 작물조성에 대한 고찰」,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69쪽). 청동기시대 후기로 갈수록 주식으로 삼는 곡물과 부식화되는 것이 구분된다고 볼 수 있는데 콩은 주곡을 보조하는 역할이나 부식의 기능을 갖는 것으로 변화되었음을 짐작케 한다. 콩은 기민(飢民)을 방지하는 데 활용되지만 그 밖에 콩을 다양한 방법으로 부식화하는 것도 지속되어서 콩을 삶아서 가공하는 발효의 방법은 고조선시대 후기를 지나면서 어떻게든 고안될 필요가 있었다고 보인다. 앞서 살펴본 시루의 출현 및 기원전 3세기 무렵 밀폐가마에서 구운 회색이나 흑색 질그릇의 제작과 사용 등도 콩의 가공과 발효 제작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박진욱, 1995, 『조선고고학전서-고대편-』, 민족문화, 176~177쪽.

〈표 1〉 고대 시와 장 관련된 기록

명칭	시기	출처와 내용
豉	광개토왕 18년 (408)	〈덕흥리벽화무덤〉, “ 旦食鹽豉食一椀. ” 아침 식사로 먹을 염시를 한 창고 분이나 보관해 두었다.
豉	정관 19년 (645)	『冊府元龜』卷126, 『帝王部 納降』, “太宗…城中父老僧尼貢夷酪昆布米餅蕪荳豉等…而賜之以帛.” 태종…성중 부로승려가 이락, 곤포, 미병, 무이시 등을 바치자…포목을 하사하였다.
豉	문무왕 11년 (671)	『三國史記』卷7, 『新羅本紀』第7 文武王條, “福信乘勝, …因即熊津道斷, 絕於鹽豉.” 복신은 승세를 타고…이 때문에 웅진은 길이 끊겨서 염시가 떨어지게 되었다.
醬豉	신문왕 3년 (683)	『三國史記』卷8, 『新羅本紀』第8 神文王條, “幣帛十五羣, 米酒油蜜醬豉脯醢一百三十五羣…” 예물로 보내는 비단이 15수레, 쌀·술·기름·꿀·장·시·포·젓갈(醢)이 135수레이고…
醬	원성왕 (785~798)	『三國遺事』卷5, 『感通』第7 金現感虎條, “今日被爪傷者皆塗輿輪寺醬…” 오늘 내 발톱에 상처를 입은 사람들은 모두 흥륜사의 장을 바르고…
豉	698~926	『新唐書』卷219, 『北狄列傳』第144 渤海傳, “俗所貴者…柵城之豉.” 그 나라가 귀중히 여기는 것은…책성의 시이다.

는 군 보급품으로도 기능했는데 이를 문무왕 때의 기록을 통해서 알 수 있다. 전쟁을 치르는 군대에 식량 배급은 무척이나 중요한 사항이다. 목숨을 걸고 적과 싸우는 군대에 염시는 염분과 영양분을 제공해주는 음식이자 조미료로 필요한 식재료였다. 그러므로 문무왕은 서한에서 이를 충분히 공급받지 못한 당군에게 염시를 소금으로 대체한 합당한 이유를 설명하였을 것이다.⁴⁴ 소금도 고대에는 중요한 음식 재료였으나 이보다 더 선호된 것이 염시였음을 문헌을 통해 알 수

44 『三國史記』卷7, 『新羅本紀』第7 文武王條, “염시가 떨어지게 되자 이에 곧 건강한 남자들을 모집하여 몰래 소금을 보내 곤경을 구원하였다(絕於鹽豉, 即募律兒, 偷道送鹽, 救其乏困).”

있다. 또한 시와 장은 왕실 납폐례에 쓰인 물품이었고, 살생을 멀리하는 불교 음식에도 필수적인 재료였다. 종교적 특성상 육식을 하지 않고도 영양분을 보충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한 사찰 음식에서 풍부한 양분을 제공하는 장의 제조와 확보는 우선시되었을 것이다. ‘홍륜사의 장’에서와 같이, 각 사찰에서 제조 및 저장하는 장의 양도 상당하며 특별한 때에는 사찰에서 사람들에게 장을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고대의 콩을 발효한 시·장 제작과 쓰임은 일상용, 조세 또는 공납용, 군납용, 의례품, 사찰용으로 정리될 수 있다.

다만, 고대에 만들어진 시와 장의 제조법 및 그 차이를 우리 측 자료로 확인할 수는 없었다. 이를 알아볼 수 있는 것은 시에 대해 언급한 『급취편』의 내용이다. “시는 콩을 어두운 곳에 두어 되도록 하고, … 장은 콩에 밀을 합하여 되도록 한다”⁴⁵라는 문구에서 시는 오로지 콩으로만 발효하고, 장은 밀과 같은 것을 더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런 내용은 당대 호한(胡漢)농업을 집대성한 것으로 평가받는 6세기 농업서이자⁴⁶ 다양한 작물의 종류와 유래, 재배법과 요리법에 대해 기록한 『제민요술』의 「작시법(作豉法)」⁴⁷과 「작장등법(作醬等法)」⁴⁸의 「황

45 『急就篇』卷2, “蕪荑鹽豉醢酢醬, … 豉者, 幽豆而爲之也, … 醬, 以豆合麪而爲之也.”

46 구자옥·홍기용·김영진 옮김, 2006, 『역주 제민요술』, 농업진흥청, 6쪽; 최덕경, 2009, 「『齊民要術』에 보이는 動植物의 배양과 胡漢 農業文化의 融合」, 『중국사연구』 62, 중국사학회.

47 『齊民要術』卷8, 「作豉法」第72, “작시법 … 4~5번 뒤집어주어 안팎이 고르게 따스해지면 약간 흰 곰팡이가 낀다. … 콩의 안팎이 고르게 따스해지면 남김없이 다 흰 곰팡이가 낀다. 이 같으면 두시가 대략 만들어진 것이다. 이후부터는 누린 곰팡이가 핀다(作豉法 … 凡四五度翻, 内外均煖, 微著白衣 … 豆便内外均煖, 悉著白衣, 豉爲粗定. 從此以後, 乃生黃衣).”; “작가리식두시법 … 두시 1섬을 만들려고 하면 콩 1섬을 삶는다. 다 익으면 생피 위에 여곡 만드는 모양처럼 고르게 펴놓는다. 14일 후에 콩에 누린 곰팡이가 피면 키질하여 제거하고 벌에 쏘여 말린다(作家理食豉法 … 若作一石豉, 炊一石豆, 熟, 取生茅臥之, 如作女麴形. 二七日, 豆生黃衣, 簾去之, 更曝令燥).”

48 『齊民要術』卷8, 「作醬等法」第70, “대략 두황 3말에 누룩가루 1말, 황증가루 1말, 흰 소금 5되, 예자 세 손가락으로 집은 양을 준비한다(大率豆黃三斗, 麴末一斗, 黃蒸末一斗, 白鹽五升, 蕎子三指一撮).”

증(黃蒸), 맥국(麥麴)” 사용 유무를 통해서도 확인된다. 게다가 『제민요술』에서는 시 제조에 대한 어려움을 언급하여 “두시(豆豉)는 만들기 어렵고 잘 상하기 때문에 반드시 세심한 마음 씬씀이가 필요하다. … 온도가 적당해야 하기 때문에 술을 담그는 것보다 더 어렵다”⁴⁹고 했다. 누룩 등의 부재료를 사용하지 않으면서 적당한 온도를 맞춰야 하는 등의 까다로움을 거듭 전하고 있어 시는 중국인들이 오랫동안 만들어온, 익숙한 방식의 발효법이 아니라는 인상을 받는다. 이렇게 아무런 부재료를 첨가하지 않고 콩만 발효시켜 만드는 시의 방법이 고안될 수 있는 것은 오랜 작물의 재배 전통 위에서 콩의 생산과 소비에 매우 익숙해야 하며, 무엇보다도 발효되는 콩의 질량이 우수해야 가능한 일이다. 그런 대두의 종류가 무엇인지를 『제민요술』에 소개했는데, 이때 명확한 ‘국가명’이 대두의 명칭에 들어간 것은 “황고려두와 흑고려두”⁵⁰뿐이다.⁵¹ 이렇게 ‘고려두’에만 국명이 들어간 것은 황·흑대두의 산지가 고구려임을 알려주는 동시에 이것이 다른 대두보다 특별하거나 차별성이 있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즉, 고구려가 대두의 기원지이거나 가장 많은 대두를 소비했던 지역 및 질량이 우수한 대두가 생산된 지역일 가능성에서 그 이유를 찾아볼 수 있다.⁵² 이런 고품질의 콩을 일찍부터 생산하고 소비한 사람들은 이를 익힌 후 띄워서 별다른 황증, 여국, 맥국 등을 사용하지 않고도 장을 만들었다고 판단된다. 또한 고대에도 액체와 비슷한 묽은 형태의 장이 있었다고 보인다. 경주 월지에서 출토된 209호 목간에는 ‘즙

49 『齊民要術』卷8, 「作豉法」第72, “豉法難好易壞, 必須細意人, … 是以又須留意, 冷暖宜適, 難於調酒.”

50 『齊民要術』卷2, 「大豆」第6, “黃高麗豆, 黑高麗豆, 鶯豆, 婢豆, 大豆類也.”

51 본래 대두의 명칭은 “오늘날 대두로는 백대두와 흑대두의 두 종류가 있으며, 장초와 우천이라 부르는 것도 있다(『齊民要術』卷2, 「大豆」第6, “今世大豆, 有白黑二種, 及長梢, 牛踐之名.”)”라는 기록에서 알 수 있듯이 색이나 모양 등의 특징으로 지어진다. 용숙 등의 명칭도 『제민요술』에 등장하지만 이를 통해서 용숙이 유래된 지역을 유추할 수 있을 뿐이다.

52 최덕경, 2002, 「『齊民要術』의 高麗豆 普及과 韓半島의 農作法에 대한 一考察」, 『동양사학연구』 78, 동양사학회, 95~100쪽.

(汁)’이란 글자가 확인되는데 이것은 항아리에 매여 있던 표찰이다.⁵³ 이때 즙은 술이나 장즙 또는 시즙이라 여겨지나 어떤 재료로 만든 장인지 확인할 수 없다. 대개 육장이나 두장, 시의 즙일 것으로 보인다. 이는 고대인들이 시나 장에서 시즙이나 장유를 분리하여 사용했을 수 있음을 알려준다.

한편, 민족을 대표하는 음식이 그 민족의 동질성과 정체성을 표방한다고 했을 때, 그것을 문화나 관념적 체계가 아니라 구체적인 물품으로 살펴보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우리의 고대사에는 시나 장이 우리 민족의 동질성 및 정체성과 궤를 같이함을 짐작해볼 수 있는 단서가 있다. 발해인들이 귀하게 여긴 ‘책성의 시’가 그것이다. 이를 통해 콩과 콩으로 만든 발효음식이 민족의 음식으로서 갖는 위치와 의미를 엿볼 수 있다. 주지하다시피 발해는 고구려 멸망 후 이의 계승을 천명하며 고구려계 유민과 말갈족이 건국 집단이 되어 세운 나라다. 그러므로 발해인은 고구려계와 말갈계 주민으로 구분되는데, 말갈인에 대해 문헌에서는 그들의 생계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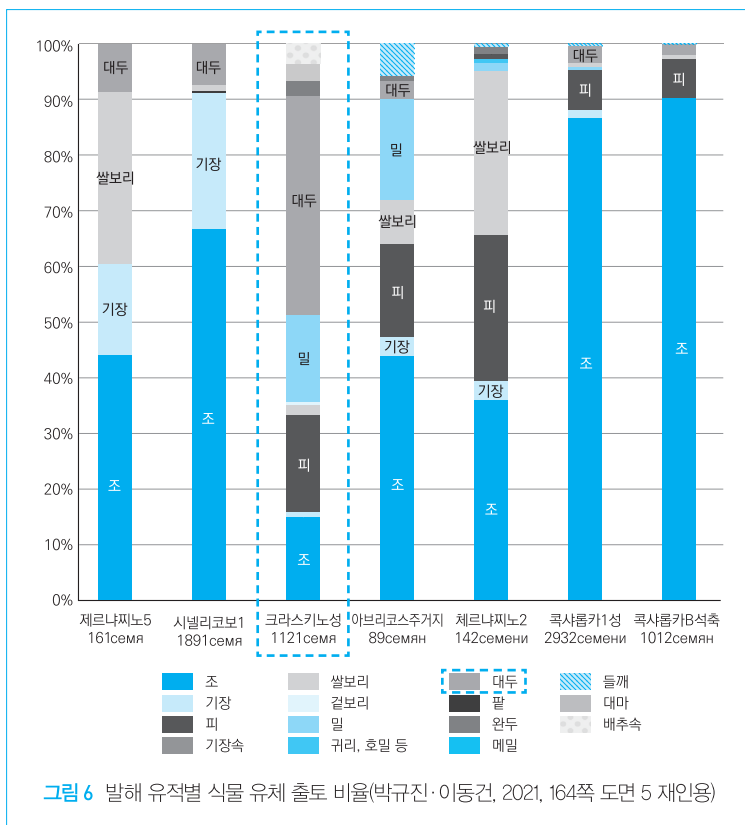
곡식으로는 조·보리·검은 기장이 많이 난다. 물맛은 소금기가 배어 있으며, 나무 껍질 위에도 소금이 엉긴다. 가축으로는 돼지가 많다. … 사람들은 모두 사냥으로 업(業)을 삼는다.⁵⁴

인용문에 따르면 말갈인의 주된 살림살이 수단은 수렵 활동이며, 농사를 지어도 오곡을 생산하지 않는다. 실제 말갈유적에서도 조, 기장, 보리의 출토 빈도가 높으며 피, 밀, 완두 등이 확인되었다고 한다.⁵⁵ 이러한 출토 작물은 기타 발

53 209호 목간은 앞면-× 辛卯年第二汁□斗×, 뒷면-× 辛卯年第二汁□斗□×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용현, 2007, 「안압지와 東宮 庖典」, 『신라문화연구』 창간호, 국립경주박물관, 67쪽.

54 『隋書』 卷81, 「東夷列傳」 第46 靺鞨傳, “土多粟麥稌, 水氣鹹, 生鹽於木皮之上, 其畜多豬, … 人皆射獵爲業.”

55 박규진·이동건, 2021, 「발해시기 농업의 전개와 성격-철제 농기구와 식물유체를



해유적에서 나온 작물유체에 비해 절반 정도로 양이 적다. 이는 말갈족의 생산 경제에서 여전히 수렵과 목축업이 농업보다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기 때문으로 여겨진다.⁵⁶

그러므로 고구려계와 말갈계 발해인들의 음식 생활은 구별될 수 있으며, 그

중심으로-, 『고구려발해연구』 71, 고구려발해학회, 164쪽; 스토야킨 막심, 2015, 「콕사롭카 유적의 식물유체로 본 발해와 한반도의 관계」, 『인문학연구』 28, 경희대학교 인문학연구원, 262쪽.

56 스토야킨 막심, 2015, 위의 글, 262쪽.



것은 주곡이 되는 곡물의 종류나 수량 외에도 콩의 이용에서 헤아려 볼 수 있다. 앞서 ‘책성의 시’를 발해인들이 귀하게 여긴다고 언급했는데, 책성은 일찍부터 고구려의 동북방 중요 거점이었으며 태조왕이 이 지역을 순행하여 바위에 공적을 새기고, 사냥 개최 및 관리를 위무하여 주연을 베풀었던 역사적인 지역이다.⁵⁷ 발해에서도 책성은 5경에 속했으며, 동경 용원부로 명명되었다. 일명 책성부라 불리며 경(慶)·염(鹽)·목(穆)·하(賀)의 4주를 통치했다.⁵⁸ 이를 통해

57 『三國史記』卷15, 「高句麗本紀」第3 太祖王, “四十六年, 春三月, 王東巡柵城, 至柵城西闕山, 獲白鹿. 及至柵城, 與羣臣宴飲, 賜柵城守吏物段有差, 遂紀功於岩, 乃還.”

58 『新唐書』卷219, 「北狄列傳」第144 渤海傳, “예맥의 옛 땅으로 동경을 삼으니, 용원부 일명 책성부라고도 한다. 경·염·목·하의 4주를 통치한다(獺狽故地爲東

책성이 고구려 및 발해에서 매우 주요한 위상을 가진 곳이었음을 알 수 있다. 책성의 위치에 대해 여러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만 대체로 지금의 훈춘 일대로 추정되며, 책성부 중 염주가 연해주의 크라스키노로 비정되고 있어⁵⁹ 이 지역에서 출토된 대두 유체 및 농작물 현황이 주목된다.

사실 대부분의 발해유적에서 잡곡류, 맥류, 두류 등의 다양한 작물이 발견되어 농업생산이 상당한 수준이었음을 보여주었다. 연해주의 발해유적에서는 유적별로 상이하지만 대체로 두류가 5% 미만으로 계측되었다.⁶⁰ 이를 통해 두류는 당시 모든 발해인에게 주곡으로 여겨지지 않았음을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책성의 한 주인 크라스키노 유적에서는 다른 곳보다 더 많은 두류가 확인되었으며 또 보관용 두류도 발견되어 타 유적보다 두류의 중요성이 더 높았음을 알 수 있다(그림 6⁶¹의 두류-파란색 점선 박스 필자 표시 참조).⁶² 또한 염주성은 바닷가에 위치하여 소금의 생산과 소비가 다른 곳보다 훨씬 용이했을 것이다. 대두 유체의 출토가 타 지역보다 상당히 많고 소금 획득이 유리한 점을 볼 때, 발해인들이 귀하게 여긴 시를 어떤 지역보다 잘 만들 수 있는 여건이 갖춰졌음을 알 수 있다. 시를 만들 때 사용되는 시루 및 질그릇 솥,⁶³ 철제 솥편,⁶⁴ 향아리(그림 7⁶⁵),

京, 曰龍原府, 亦曰柵城府, 領慶鹽穆賀四州).”

59 박규진·이동건, 2021, 앞의 글, 172쪽.

60 스토야킨 막심, 2015, 앞의 글, 261~262쪽.

61 박규진·이동건, 2021, 위의 글, 164쪽 도면 5 재인용.

62 동북아역사재단·러시아과학원 극동분소 역사고고민속학연구소 편, 2010, 『2008년도 연해주 크라스키노 발해성 한·러 공동 발굴보고서』, 동북아역사재단, 139쪽.

63 동북아역사재단·러시아과학원 극동분소 역사고고민속학연구소 편, 2011, 『2009년도 연해주 크라스키노 발해성 한·러 공동 발굴보고서』, 동북아역사재단, 153, 155쪽.

64 동북아역사재단·러시아과학원 극동분소 역사고고민속학연구소 편, 2010, 앞의 책, 103~104쪽.

65 국립문화재연구소 고고연구실, 2014, 『발해 토기 자료집』, 국립문화재연구소, 300~302쪽 크라스키노성 출토 호·옹 도면 재인용.

뚜껑 등의 유물⁶⁶도 주거지에서 발굴되었기 때문에 이를 활용한 시의 제작이 활발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염주성으로 여겨지는 크라스키노성의 대두 출토 비율과 문헌 자료, 여러 도구의 출토만으로 콩으로 만든 장류와 우리 민족 사이의 고유한 연결성을 찾기는 미흡할 것이다. 크라스키노성보다는 적지만 다른 지역에서도 시루나 술, 대두가 발굴되었고 책성에서만 시가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제작되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책성의 시가 발해인들에게 귀하게 여겨졌다는 문헌의 내용 및 책성부의 염주라 여겨지는 크라스키노 유적의 월등한 대두 출토 비율 등이 유의미한 이유는 이곳이 확실한 발해의 행정구역이라는 점에서 다른 연해주의 발해성지와 다르다는 것과 순수한 고구려계 발해문화층만 존재한다는 것을 들 수 있다. 대부분의 연해주 발해유적이 이후 여진과 금나라 때에 반복적으로 재점유된 탓에 발해와 기타 시기의 경계가 모호하다. 이에 비해 크라스키노 성에서는 발해 이전의 말갈문화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것이 큰 특징⁶⁷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최근 연구성과로 발해 크라스키노성 유적의 문화층 편년을 고구려 시기까지 볼 수 있는 근거가 확인되었다. 좀 더 검토가 필요하겠지만 유적에서 고구려계 토기가 출토되었다는 점이나 목탄 시료 분석을 통해 3세기 중반~6세기로 연대 측정이 된 크라스키노 유적의 문화층은 이 지역이 발해 시기만이 아닌 고구려시대부터 연속하여 고구려인의 생활권역이었음을 알게 한다. 게다가 염주성의 활용이 발해 후반 시기까지 존속했음을 상정할 수 있어 염주성은 그야말로 고구려인 및 고구려계 발해인의 문화권임을 분명히 파악할 수 있었다.⁶⁸ 따라서 이곳에서 발견된 유적과 유물은 고구려의 역사와 문화를

66 국립문화재연구소 고고연구실, 2014, 앞의 책, 161~163쪽. 표 33 크라스키노성 유적 출토 토기 일람표 참조.

67 동북아역사재단·러시아과학원 극동분소 역사고고민속학연구소 편, 2010, 앞의 책, 137쪽.

68 김은국, 2017, 「발해 염주성의 최근 발굴성과와 분석」, 『고구려발해연구』 58, 고구려발해학회, 110~114쪽.

계승한 사람들을 주축으로 하여 빚어낸 발해인들의 흔적이라 할 것이다. 발굴된 다양한 곡물 유체 중에서도 대두가 이곳에서 가장 많은 출토 비율을 차지한 것도 예로부터 유명했던 ‘고려두’의 생산자이자 소비자인 고구려인들의 음식 풍속이 일상생활에 나타났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다른 지역과 구별되는 고품질의 콩으로 이뤄낸 발효를 통해 오랜 ‘신장양’의 전통을 이어 나가 맛 좋고 질 좋은 시를 생산할 수 있었기에 발해인들이 제작한 시 중에서도 책성의 시를 귀하게 여겼다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IV. 고려시대의 장 문화와 그 내용

고려인들이 생산한 대표적 농작물로는 벼, 맥류, 조, 기장, 피, 콩 등이 있다. 여러 곡물 중에서 쌀과 콩의 쓰임이 특히 주목되는데 고려시대에는 이것을 세금으로 징수했으며⁶⁹ 왕의 하사품,⁷⁰ 관청에서 대여하는 식물(食物),⁷¹ 특별 명목의 납부 물품으로 썼다.⁷² 그 가운데 콩은 가축의 먹이로도 사용되어⁷³ 사람과 가축

69 『高麗史』卷79, 「志」第33 食貨 二, “공민왕 11년(1362) 9월 경비(調度)가 넉넉하지 않아 백성에게 증액하여 거두었는데, 대호는 쌀과 콩 각 1석, 중호는 쌀과 콩 각 10두, 소호는 쌀과 콩 각 5두로 했다(恭愍王十一年九月, 以調度不給, 增斂於民, 大戶米豆各一石, 中戶米豆各十斗, 小戶米豆各五斗).”

70 『高麗史』卷2, 「世家」第2 光宗條, “기름 떡과 쌀, 콩과 팥감을 서울과 지방의 길거리에서 나누어주곤 하였는데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지경이었다(或以餅餌米豆柴炭, 施與京外道路, 不可勝數).”; 『高麗史』卷40, 「世家」第40 恭愍王條, “을유 홍순·이지송·김유·황대두가 원에서 돌아오니, 각각 쌀과 콩 30석을 하사했다(乙酉 洪淳·李子松·金庾·黃大豆還自元, 各賜米豆三十石).”

71 『高麗史』卷79, 「志」第33 食貨 二, “여러 도의 관청 창고에 저장된 쌀과 콩을 가난한 백성에게 많이 빌려주었는데 … (諸道公廩所儲米豆, 貧民多糶 …).”

72 『高麗史』卷79, 「志」第33 食貨 二, “충렬왕 3년(1277) 2월 방문을 붙여 제왕과 백관으로부터 서민에 이르기까지 쌀과 콩을 차등 있게 내도록 하고, 이것으로 홍차구의 군마에 필요한 식량과 사료에 충당했다(忠烈王三年二月 出榜, 令諸王百官, 以至庶民, 出米豆有差, 以充茶丘軍馬糧料).”

의 생계에 두루 활용되는 주요 식료이자 재화로 기능했다. 이처럼 고려인들에게 필수적인 곡물로 이용된 콩은 음식 생활에서 대체로 주곡에 섞어서 쓰거나⁷⁴ 시나 장을 만드는 데 사용되었다.

이러한 고려시대 장을 활용한 음식 생활을 이규보와 이색의 시에서 엿볼 수 있다.

장을 곁들이면 한여름에 먹기 좋고 ...⁷⁵

보내온 토란을 시에 섞어 끓이거니 ...⁷⁶

가끔 염시(鹽豉)를 얹어버리는구나 ...⁷⁷

병중에 장과(醬瓜)가 꼴처럼 귀했는데 ...⁷⁸

거기에 장즙을 발라서 불에 구워 먹다가 ...⁷⁹

장국이며 부침개를 먹음직스럽게 데워 오자 ...⁸⁰

빙장(氷醬)까지 들이켜니 얼마나 즐거운지 ...⁸¹

73 『高麗史』卷79, 「志」第33 食貨 二, “고종 13년(1226) 3월 명령을 내려 제왕 및 대소 신민에게 콩을 차등 있게 내도록 하여 원군 둔전의 소 사료를 보조하게 했다(高宗十三年三月 令諸王及大小臣民, 出豆有差, 以助元軍屯田牛料).”

74 『高麗史』卷1, 「世家」第1 太祖條, “수자리 사는 군졸은 모두 콩이 반이나 섞인 밥을 먹었는데, 태조가 마음을 다해 구휼하니 그 덕택에 모두 살게 되었다(戍卒皆食半菽, 太祖盡心救恤, 賴以全活. 初太祖年三十, 夢見九層金塔立海中, 自登其上).”

75 『東國李相國集』卷4, 「古律詩」家圃六詠, “得醬尤宜三夏食.”

76 『東國李相國集』卷7, 「古律詩」次韻李侍郎復見和, “次韻李侍郎復見和.”

77 『東國李相國集』卷11, 「古律詩」嘲折足鎗, “往往覆鹽豉.”

78 『牧隱詩藁』卷13, 「詩」卽事, “病裏醬瓜如蜜稀.”

79 『牧隱詩藁』卷27, 「詩」遣家童索茶於懶殘子. 去後. 吟成一首, “仍塗醬汁火邊燒.”

80 『牧隱詩藁』卷28, 「詩」兒啼飢, “醬湯油餅烹來軟.”

81 『牧隱詩藁』卷35, 「咸昌吟」七夕. 主人大禪師設食. 老夫酣臥. 吟得小絕. 明日錄呈, “樂哉倒此氷醬.”

인용문을 통해 장과 장즙이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고려인들은 이들을 식재료에 곁들이거나 국물음식을 끓이는 데 쓰고, 절이거나 식료 표면에 발라서 맛을 내는 데 사용했다. 빙장(氷醬)도 인용문에 나타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음식인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고려시대의 장류는 고형과 액체 형태 모두 쓰였을 뿐만 아니라 때로는 서늘한 온도의 것이라 추정되는 빙장도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들은 음식의 간 맞추는 맛과 풍미를 살리는 데 활용되었다.

또한 고려시대 목간에서도 장과 관련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이들은 모두 말장(末醬)으로 표기되었으며 지방에서 만든 말장을 개경이나 특정 인물에게 배송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태안마도 1026-J15 죽찰 (38.2×2.5)⁸²

▽ 軍白口戶付竹山縣田出末醬一石入什斗

(수신자)군인 백□에게 죽산현에서 전출 말장 1석, 20두씩 담음

태안마도 0526-L5 죽찰 (31.2×2.8)⁸³

別將鄭元卿宅上田出末醬壹石各入…×

별장 정원경에게 올림. 전출 말장 1석, 각 …을 담음

태안마도 0707-H4 죽찰 (30.4×2.1)⁸⁴

(앞) 茂松縣在京韓宅田出末醬壹石各入貳拾斗 / (뒤) 使者金順

무송현에서 개경에 있는 한 맥. 전출 말장 1석, 각 20두씩 다음 / 사자 김순

82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2010, 『태안마도 1호선 수중발굴조사 보고서』,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402쪽.

83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2011, 『태안마도 2호선 수중발굴조사 보고서』,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268쪽.

84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2011, 위의 책, 291쪽.

인용문의 내용은 말장이 확인되는 고려 목간 중 일부로 각각 군인 백 아무 개, 별장 정원경, 개경에 있는 한 댁에 말장을 배송한다는 내용이다. 이때 “전출(田出)”이란 단어가 사용되었는데 이로써 배송된 화물의 성격을 이해할 수 있다. 전출되는 화물의 수취인 중 군인, 별장 등 관직명이 확인되는 이들은 무반이며 모두 전시(田柴)를 분급받는 대상자였다. 따라서 이들에게 전달된 ‘전출품’은 전조(田租)라고 볼 수 있으며, 관직명 없이 이름만 나오는 경우의 전출은 지대(地代)라고 해석된다.⁸⁵ 즉, 목간을 통해서 고려시대의 장은 말장이고 이것은 관직자에게 전조, 개인 수취인에게는 지대로 배송되었음을 파악할 수 있다. 고려시대 전조나 지세가 쌀, 콩 등의 곡물 외에도 말장과 같은 가공품으로도 지급되었음이 확인되는 것이다. 국가 조세도 쌀, 콩 등의 곡물이나 소금, 각지 특산물 외에도 이들 재료를 가공하여 말장으로 만들어 공납하게 했다. 고려 문종은 관청에서 쓰는 ‘곡(斛)’을 규격화했는데 이 중 말장을 측정하는 곡의 경우 길이, 너비, 높이를 각 1척 3촌 9분으로 정했다.⁸⁶ 이렇게 공납된 말장은 조세로 걷은 소금이나 콩을 충분히 사용했기 때문에 짠맛이 강했을 것이다. 이것은 왕실⁸⁷이나 공무에 사용되었으며, 국가적 어려움이 닥쳤을 때, 예를 들면 전쟁이나 기상 재해로 인한 피해를 겪은 이들이 발생할 때에 관(官)에서는 이를 구휼품으로 썼음을 알 수 있다.

9년(1018) 정월, 홍화진이 최근 전쟁 때문에 황폐해져 백성이 많이 추위와 굶주림

85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2010, 앞의 책, 617쪽.

86 『高麗史』卷84, 「志」第38 刑法 一, “문종 7년(1053) 관하여 내외관의 곡(斛)의 길이, 너비, 높이를 알맞게 결정했다. … 말장곡의 길이, 너비, 높이는 각 1척 3촌 9분이며 …(文宗七年, 判, 内外官斛長廣高, 方酌定, … 末醬斛, 長·廣·高, 各一尺三寸九分 …).”

87 『高麗史』卷53, 「志」第7 五行 一, “고종 32년(1245) 3월 갑자 강도의 전자산 북쪽 마을 민가 800여 호에 불이나 … 어장고·대상부·수양도감에까지 옮겨 붙었다(三十二年三月甲子 江都見子山北里民家八百餘戶火, … 御醬庫大常府輸養都監).”

을 겪고 있으므로 면포, 염장(鹽醬)을 지급했다.⁸⁸

(1052) 개경에 기근이 들자 유사(有司)에게 명령하여 굶주린 백성 3만여 명을 모아 곡식, 염시(鹽豉)를 하사하여 이들을 진휼하게 했다.⁸⁹

인용문과 같이 고려의 위정자는 거란족, 여진족, 몽골, 왜구, 홍건적과 같은 이민족의 침입이나 가뭄 및 상해 등의 기상재해, 그로 인한 흉년이 발생할 때에 이를 진제(賑濟)하기 위하여 염시·장을 긴급하게 사용했을 것이다. 어려운 상황을 겪는 고려의 사람들이 지급받은 염시나 염장은 소금기와 영양분을 동시에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황망한 상황의 기민들이 재빨리 음식을 만들어 섭취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된다. 한편, 불교 사찰에서도 장고(醬庫)를 마련하여 큰 규모로 장류를 담가 보관했다.⁹⁰ 이는 승려들의 음식생활을 위해 쓰이며, 절을 찾은 방문객 및 신도들에게 사용되었을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조세 및 시대, 구휼품 등으로 국가와 사회에서 긴급하게 쓰인 말장은 고려시대에 만들어진 장류인지에 대한 의문이 든다. ‘말장’이란 단어를 우리의 문자 자료에서 확인한 것은 고려시대의 유물이기 때문에 이를 고려시대에 만들어진 고유한 장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말장은 이보다 앞선 고구려의 것을 계승한 것으로 보인다. 이것을 헤아려볼 수 있는 내용이 10세기경 일본의 원순(源順)이 지은 『왜명류취초(倭名類聚抄)』에 수록되었다.

미장은 《양씨한어초(楊氏漢語抄)》에 고려장이라 이른다. 미소이다. 지금 살피건

88 『高麗史』卷80, 「志」第34 食貨 三, “九年正月 以興化鎮比因兵荒, 民多寒餓, 給絁布鹽醬.”

89 『高麗史』卷80, 「志」第34 食貨 三, “又以京城饑, 命有司, 集飢民三萬餘人, 賜米粟鹽豉, 以賑之.”

90 『牧隱文藁』卷2, 「記」天寶山檜巖寺修造記, “부사료 동쪽에 미타전이 있으며 … 그 북쪽에는 장고 14칸이 있다(副寺寮之東曰彌陀殿 … 其北曰醬庫十四間).”

대 《변색입성(辨色立成)》의 설과 같지만 본의는 미장이다. 세간에서 미장(味醬)이라 하는 두 글자 미(味)는 미(未)로도 쓴다. 왜냐하면 《통속문(通俗文)》에 말유협장(末楡莢醬)이라 하는 것이 있기 때문이다. 말(末)이라는 것은 도말(搗末)의 뜻이다. 그런데 말(末)이 미(未)로 와전되고 또 미(味)로 변한 것이다.⁹¹

인용문에 따르면 일본에서 이르는 미장(味醬·末醬)은 말장(末醬)이다. 이 단어는 이미 701년 성립된 『대보령(大寶令)』 卷1 第40條 대신직(大膳職)에 나타난다. “대부 1인 … 장시, 미장(大夫一人 … 醬豉, 末醬) …”⁹²과 같은 내용이 확인됨에 따라 말장이 8세기 초보다 이른 시기에 일본에 전해졌으며, 고려장임을 알 수 있다. 이때의 고려란 고구려를 의미하므로 결국 말장은 고구려의 장이며 이후 고려로 계승되었고 일본에도 전해져 미장 또는 미소(美蘇·味噌)가 되었다는 것이다. 또한 말장을 고려인들이 밀조(密祖)라고 발음했는데 이것이 12세기 송의 손목(孫穆)이 지은 『계림유사(鷄林類事)』⁹³에 기록되었다. 이를 통해 고려 ‘밀조’-조선 ‘훈조/며조⁹⁴/며쥬⁹⁵’-현재 ‘메주’와 같은 언어적 변화 및 그 상관성을 살펴볼 수 있으며 말장은 삶은 콩을 찌운 다음 소금을 쳐서 먹는 방법에서 삶은 콩을 부스러뜨려서(搗末) 찌운 것을 말려 만든 메주로 제조됨을 알려주고 있다.⁹⁶

고려시대 장은 병을 고치는 데에도 사용되었다. 이들은 소변과 관련된 병인 임질이나 눈병을 낫게 하는 약으로도 활용되었는데 이를 『향약구급방(鄉藥救急

91 『倭名類聚抄』 卷16, 「飲食部」 第24, “末醬, 楊氏漢語抄云高麗醬, 美蘇, 今案辨色立成說同但本義未詳, 俗用味醬二字味宜作末何, 則通俗文有末楡莢醬, 末者搗末之義也, 而末訛為末未轉為味.”

92 窪美昌保, 1916(大正5), 『大寶令新解』 1冊, 目黒甚七, 82~83쪽.

93 『說郛』 卷55, 「鷄林類事」, “醬曰密祖.”

94 『增補山林經濟』 卷8, 「治膳」, “造豉法, 俗稱末醬, 又曰熏造, 即今之며조.”

95 『名物紀畧』 卷3, 「飲食部」, “熏造훈조 醬豉轉云며쥬.”

96 『倭名類聚抄』 卷16, 「飲食部」 第24, “末者搗末之義也.”; 김지원, 2001, 앞의 글, 46~47쪽.

方』에서 살펴볼 수 있다.

어린이 임질이나 석림 증상에는 수소의 생식기 끝에 난 털을 태운 재를 장즙과 함께 1번에 1도규(刀圭)씩 복용한다.⁹⁷

또 다른 처방, 염시를 각각 소량씩 물에 푼 다음 그 물속에 눈을 담가서 눈을 뜨고 있으면 즉시 티가 나온다.⁹⁸

다양하게 쓸모가 많은 장은 왕실에서 선행을 베풀 때도 사용되었다. 고려 광종이 죄의 업보를 없애고 인연을 맺는 뜻을 널리 베풀고자 하여 길에서 사람들에게 장과 술, 시와 탕국을 나눠주었다고 한 기록에서 이를 살필 수 있다.⁹⁹ 고려의 장은 음식 생활에서 일상다반사로 활용되었고 임질이나 눈병을 치료하는 약으로도 쓰였다. 고려의 말장은 관료나 개인에게 전조, 지대로 납부되었는데 말장은 메주이며 왕실이나 관청에서는 이를 조세로 확보하여 긴급한 상황에서 기민을 진휼하기 위해 사용하거나 왕실에서 선행을 베풀기 위한 물품으로 사람들에게 지원되었다. 사찰에서도 장류가 대규모로 제조되고 이를 장고에 보관하여 종교 생활 및 대민 활동 등의 목적으로 사용했음을 이해할 수 있다.

한편, 이렇게 쓰임이 많은 장을 한동안 먹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들은 부모님 등 윗분을 여윈 상주였다. 이런 내용은 고려 전기부터 후기까지 확인되며, 조선시대까지도 이어지는 상식(喪食)¹⁰⁰이었다.

97 『鄉藥救急方』中卷, 「淋疾」, “又小兒淋若石淋, 取牡陰頭毛, 燒末, 以醬汁一服一刀圭.”

98 『鄉藥救急方』中卷, 「眼」, “又方, 鹽豉, 各小小着水中, 臨視之, 卽出.”

99 『高麗史』卷93, 「列傳」第6 諸臣, “崔承老…聖上以醬酒豉羹, 施與行路, 臣竊謂, 聖上欲效光宗, 消除罪業, 普施結緣之意, 此所謂小惠未遍也, 若明其賞罰, 徵惡勸善, 足以致福.”

100 『白沙集』卷4, 「碑銘」, “그 후 상을 당함에 미쳐서는 … 묘의 곁에 여막을 짓고 거처하면서 날마다 두 번씩 성묘를 했으며, 채소와 과일, 염장을 끊고 오직 거친 밥을

치아를 갈 연령 때에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애도하면서 누구를 의지하여 살 것인가 하고 슬피 피눈물을 흘렸으며, 능히 그 슬픔을 이기지 못하여 항상 염장을 먹지 않았다.¹⁰¹

주서(注書) 길재(吉再)는 채과(菜果)·염장(鹽醬)을 먹지 않고 3년 동안 방상(方喪)을 입었다.¹⁰²

인용문 중 첫 번째 글은 <비로사진공대사보법탑비>의 내용 중 일부이다. 이것은 태조 22년인 939년에 세워졌으며 나말여초의 선사 진공대사의 일대기를 기술했다. 진공대사는 어렸을 때 아버님께서 세상을 떠나시자 슬퍼하며 “절장(絶醬)”했다고 했다. 절장이란 장을 끊었다는 것인데, 육장이나 어장은 마땅히 먹지 않았고, 두장과 즈장까지도 입에 대지 않았다는 뜻이다. 결국 간이 제대로 되지 않은, 험한 음식을 먹었다고 이해된다. 두 번째 인용글은 왕위에서 쫓겨난 우왕과 창왕이 죽임을 당하자 주서직에 있었던 길재가 채소와 과일, 염장을 먹지 않고 3년 동안 부모의 상을 입는 예로 임금의 상을 입었다는 것이다. 여기서도 역시 염장을 “불식(不食)”했다고 나온다.

이와 같이 상주가 염장을 먹지 않는 것은 『예기(禮記)』¹⁰³와 『태평광기(太平廣記)』의 ‘맹희고사’¹⁰⁴에서 근거를 찾을 수 있다. 이때에는 염장이 아닌 “염락

먹고 물만 마시다가 끝내는 뼈만 남도록 몸이 수척해졌다(及屬續…廬于墓側, 日再展省, 絕菜果鹽醬, 唯蔬食水飲, 終以骨立).”

101 <毘盧寺眞空大師普法塔碑>, “齒登日悼天蔭云, 亡何怙之悲, 每增泣血, 克諧追念, 常切絶醬.”

102 『東史綱目』 第17上, “注書吉再, 不食菜果鹽醬, 方喪三年.”

103 『禮記注疏』 卷41, 「雜記下」 第21, “공취를 입으면 채소나 과일을 먹고 음료수를 마시지만 염락은 먹지 않는데 밥을 먹을 수 없으면 염락을 먹어도 된다(功衰食菜果, 飲水漿, 無鹽酪, 不能食食, 鹽酪可也).”

104 『太平廣記』 卷162, 「感應二」, “맹희는 촉나라 사람이다. 과실을 팔아 부모를 공양했다. 안색을 받들며, 순하게 하고 고생함을 꺼리지 않았다. 그 아버지가 항상 내 비록 가난하지만 한 증삼을 길렀다고 말했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시자 음료를 끊고 슬

(鹽酪)”, 즉 염장이나 소금, 젓류 등을 발효시킨 음료를 먹지 않는다고 기록되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염락’이 아닌 ‘염장’을 먹지 않았다. 특히 진공대사와 관련된 ‘절장’의 내용은 신라 말기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고려 이전 시기인 고대에도 상주가 장을 먹지 않는 사례도 상당했으리라 보인다. 이런 상황은 유학을 배웠던 고위층들의 상례였을 것으로 생각되며 유교의 상례를 도입하여 우리나라에 맞게 변형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 중국 문헌에 나타난 바와 같이 소금¹⁰⁵과 발효음료가 아니라 ‘염장’을 먹지 않는 것으로 정리된 것은 그만큼 우리의 고대와 고려시대에는 ‘장’이 음식문화에 중요하고도 필수적인 식료였음을 방증한다고 하겠다.

V. 맺음말

이상에서 살펴본 장 문화의 연원과 발달 추이는 한민족의 역사와 맥락을 같이 했다. 옛날부터 우리의 터전이었던 만주와 한반도에서 질량이 우수한 콩이 생산

피 울부짖어 거의 죽게 되었다. 거적을 땅에 펴고 그 위에서 머물며 삼 년 동안 염락을 먹지 않으니 멀고 가까운 사람들이 탄복했다. 그가 쥐를 보고 땅을 파다가 황금수천 냥을 얻어 이로써 큰 부자가 되었다(蜀孟熙, 販果實養父母, 承顏順旨, 溫清定省, 出告反面, 不憚苦辛, 父常云, 我雖貧, 養得一曾參, 及父亡, 絕漿哀號, 幾至滅性, 布苦于地, 寢處其上, 三年不食鹽酪, 遠近嘆服, 因見鼠掘地, 得黃金數千兩, 自此巨富焉, 出徵誠錄).”

- 105 이런 맹희고사는 조선 전기 세종 때 지어진 『삼강행실도(三綱行實圖)』(임진왜란 이전 발행, 미국의회도서관 소장, 국립중앙도서관 원문 제공, 한자로 된 원문과 정음 해석본 수록)에도 실렸다. 여기서 염락은 “삼 년을 소고물 먹디아니 하니”라고 풀이되었다. 즉, 염락을 ‘소금물’이라 본 것이다. 그러나 조선 후기 정조의 명으로 기존의 『삼강행실도』와 증충 때에 간행된 『이륜행실도(二倫行實圖)』를 합책하여 편찬한 『오륜행실도(五倫行實圖)』(卷1, 「孝子」第1)의 ‘맹희득금’에서는 염락에 대해 “삼 년을 염장을 먹디아니 하니”라고 하였다. ‘염장’이라 번역된 것이다. 이런 염락은 조선의 시기별로 소금물에서 염장으로 풀이가 바뀌었는데, 이것 역시 우리 음식문화에서 장의 쓰임새나 의미가 더욱 남달랐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되었고 그런 콩을 사용하여 고조선 때부터 장을 만들었을 것이다. 이때 만들어진 장은 오로지 콩만 익혀 발효시키는 것으로 시루와 자비용기, 옹기 등을 활용해 제작했다고 여겨진다.

고대의 장과 관련해서 익힌 콩을 으깨어 만든 것으로 추정되는 2~4세기 무렵의 대두 탄화물이 발굴되었는데 이것은 고대인들이 장 만드는 기술이 상당했음을 나타내준다. 장은 고대 사회에서 조세로서 공납되고 군용식량으로 이용되며, 납채례의 예물 및 절에서 제조되어 불교의 음식문화를 구성하는 데 일조했다. 한편, 콩으로 만든 장이 우리 민족의 동질성과 정체성을 나타낼 수 있다고 생각되는 내용이 있다. 발해인들이 귀하게 여기는 ‘책성의 시’가 그것이다. 책성은 고구려계 유민과 말갈족이 건국집단이 된 발해에서 동경 용원부 또는 책성부라고 불리며 경·염·목·하의 4주를 통치했다. 현재 염주라고 여겨지는 연해주 크라스키노에서는 고구려시대부터 발해까지의 문화층뿐만 아니라 오곡 및 다른 지역보다 더 많은 대두 유체가 발굴되었다. 6세기 호한농업을 집대성한 『제민요술』에 국명이 붙은 황·흑고려두가 기록될 정도로 고품질 콩을 생산했던 고구려인과 그 문화를 계승한 고구려계 발해인들의 대두 이용은 말갈족보다 남달랐을 것이다. 그러므로 크라스키노성의 대두 유체는 고구려계 발해인이 저장했다고 생각된다. 게다가 크라스키노성은 바닷가에 위치하여 소금 확보에도 유리했기 때문에 대두를 이용한 선장양의 전통을 잘 승계해 좋은 시를 만들 수 있어서 발해인들이 이를 특별히 귀하게 여겼을 것이다. 이런 시의 제조와 이용은 말갈계와 고구려계 발해인을 구별하는 민족적 특징으로 기능했다고 이해된다.

고려시대 장의 생산과 쓰임은 여러 문헌에서 확인되며, 이를 통해 고려인들은 장과 장즙을 사용하여 요리했음을 알 수 있다. 고려에서 장은 음식 재료이자 전조 또는 지대 등으로 납품되고 활용되었는데 이 내용이 고려 목간과 문헌에 나타난다. 목간에 기록된 장은 모두 말장으로 고구려의 장을 계승한 것이다. 말장은 국가 조세로도 납부되었는데 고려 문종은 말장의 곡을 규격화했으며 공납된 장은 전쟁이나 기상재해로 인해 힘들고 배고픈 사람들에게 구휼품으로 지급되었다. 사찰에서는 장 제조 후 보관할 장고를 지었고, 왕실이 선행을 베풀 때의

물품 중 하나로 백성들에게 장이 내어졌으며, 민간에서는 장을 병을 고칠 약식으로 사용했다. 한편, 일상에서 매우 빈번하고 다양하게 사용된 장을 상중에 먹지 않았다. 특히 유학적 소양이 있는 집안에서는 상중에 장을 쓰지 않은 음식을 섭취했다. 이것은 유교적 상례가 우리의 음식문화로 변화·정리된 모습이라 여겨진다.

이와 같은 고대와 고려시대의 장 문화는 당대인들이 경험하는 장의 생산과 소비가 단순히 경제나 음식의 영역에 국한되지 않음을 알려준다. 다양한 사회적 양상과 정치, 관념과 계급, 풍속과 종교 등의 상황 속에서 형성되고 계승된 장과 그 문화는 우리 민족의 시대상과 생활이 투영된 역사적 자취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사료

『高麗史』.
『管子』.
『舊唐書』.
『急就篇』.
『東國李相國集』.
『東史綱目』.
『名物紀畧』.
『牧隱詩藁』.
『白沙集』.
〈毘盧寺眞空大師普法塔碑〉.
『史記』.
『三綱行實圖』.
『三國史記』.
『三國志』.
『說文解字』.
『說文解字注』.
『說郛』.
『隋書』.
『新唐書』.
『禮記注疏』.
『五倫行實圖』.
『倭名類聚抄』.
『魏書』.
『齊民要術』.
『增補山林經濟』.

『太平廣記』.
『鄉藥救急方』.
『後漢書』.

단행본

구자옥·홍기용·김영진 옮김, 2006, 『역주 제민요술』, 농업진흥청.
국립문화재연구소, 2015a, 『동아시아 고고식물 선사시대-중국편』, 국립문화재연구소.
_____, 2015b, 『동아시아 고고식물 선사시대-한국편』, 국립문화재연구소.
국립문화재연구소 고고연구실, 2014, 『발해 토기 자료집』, 국립문화재연구소.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2010, 『태안마도 1호선 수중발굴조사 보고서』, 국립해양문화재
연구소.
_____, 2011, 『태안마도 2호선 수중발굴조사 보고서』, 국립해양문화재
연구소.
동북아역사재단·러시아과학원 극동분소 역사고고민속학연구소 편, 2010, 『2008년도
연해주 크라스키노 발해성 한·러 공동 발굴보고서』, 동북아역사재단.
_____, 2011, 『2009년도
연해주 크라스키노 발해성 한·러 공동 발굴보고서』, 동북아역사재단.
레이첼 로던 著·조윤정 譯, 2015, 『탐식의 시대』, 다른세상.
박유미, 2017, 『고구려 음식문화사』, 학연출판사.
박진옥, 1995, 『조선고고학전서-고대편-』, 민족문화.
이한창, 2016, 『장보-동아시아 장의 역사와 계보』, 따비.
정동호, 2013, 『전통장류발효식품대전』, 흥익재.
조선유적유물도감 편집위원회, 1990, 『조선유적유물도감』 1, 동광출판사.

窪美昌保, 1916(大正5), 『大寶令新解』 1冊, 目黒甚七.

논문

권주현, 2014, 「신라의 발효식품에 대하여」, 『목간과 문자』 12, 한국목간학회.
김광수, 2000, 「우리나라 전통 장류의 고문헌적 고찰」, 『논문집』 19, 경북전문대학.
김민구·류아라, 2018, 「탄화물 분석을 통한 삼국시대 대두 이용방법 고찰」, 『한국상고

- 사학보』 100, 한국상고사학회.
- 김석훈, 2003, 「황해 주부 도서지역의 신석기시대 화덕자리와 제염유적에 대한 연구」, 인하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성미·이춘자, 2004, 「《증보산림경제》의 장류 조리 가공에 관한 연구」, 『동아시아식생활학회지』 14, 동아시아식생활학회.
- 김용문, 2021, 「한국 전통 장 제조기술 변천에 관한 문헌적 고찰」, 공주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김은국, 2017, 「발해 염주성의 최근 발굴성과와 분석」, 『고구려발해연구』 58, 고구려발해학회.
- 김지연, 2010, 「韓國 古代 시루(甗)에 대한 一考察」, 영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지원, 2000, 「민족발효음식-장의 발생에 대한 고찰」, 『조선고고연구』 2000-3, 사회과학원 고고학연구소.
- _____, 2001, 「장의 종류와 제조법에 대한 몇가지 고찰」, 『조선고고연구』 2001-3, 사회과학원 고고학연구소.
- 류아라, 2013, 「청동기시대 작물조성에 대한 고찰」,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규진·이동진, 2021, 「발해시기 농업의 전개와 성격-철제 농기구와 식물유체를 중심으로-」, 『고구려발해연구』 71, 고구려발해학회.
- 박선식, 2018, 「신석기시대 中部西海岸 生業集團의 生計 연구: 京畿道 隣接西海岸 島嶼地域을 중심으로」, 서울 시립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박유미, 2016, 「한국 고대의 두류 재배와 활용」, 『고조선단군학』 35, 고조선단군학회.
- _____, 2021, 「조선시대 두부의 문화사적 전개 및 제작·활용의 양상」, 『한국민속학』 73, 한국민속학회.
- 박준형, 2016, 「기원전 7세기 중반 동북아시아의 국제관계와 고조선의 위상」, 『백산학보』 106, 백산학회.
- 배영동, 2002, 「된장을 통해본 민족음식의 전통과 변화」, 『한국민속학』 35, 한국민속학회.
- 백두현, 2010, 「한국의 전통-한글음식조리서에 나타난 조리법의 비교-장 담는 법」, 『식품문화 핫한얼』 3-1, 한국식품연구원.
- 스토야킨 막심, 2015, 「콕사르프카 유적의 식물유체로 본 발해와 한반도의 관계」, 『인문학연구』 28, 경희대학교 인문학연구원.
- 안승모, 2008, 「콩과 팥의 고고학」, 인제식품과학FORUM논총 15권, 인제대학교 식품

과학연구소.

안용근, 2012, 「조선조의 공문서 및 왕실자료에 나타난 장류」, 『한국식품영양학회지』 25-2, 한국식품영양학회.

안용근·문영자, 2015, 「전통즙장-전통 즙장에 대한 연구-」, 『한국식품영양학회지』 28-5, 한국식품영양학회.

안용근·우나리아, 2012, 「고려시대 및 조선시대 장류」, 『한국식품영양학회지』 25-3, 한국식품영양학회.

오승준·한원식·위광철·이재돈, 2020, 「토기의 자연과학적 분석을 통한 한국 고대 중서부 지역의 전통 제염 기법에 관한 연구」, 『문화와 융합』 42-8, 한국문화융합학회.

오승환, 2002, 「우리나라 시루의 고고학적 연구」,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윤덕인, 2000, 「전통 장류의 변천 발달과정에 관한 연구」, 『관대논문집』 28-2, 관동대학교.

_____, 2007, 「아시아 장류 문화 연구」, 『비교민속학』 34, 비교민속학회.

윤서석·윤숙경·조후중·이효지·안명수·안숙자·서혜경·윤덕인·임희수, 1991, 「《齊民要術》에 수록된 식품조리 가공법 연구 (Ⅲ)-醬-」, 『한국식생활문화학회지』 6, 한국식생활문화학회.

윤서연, 2019, 「한국 전통발효식품의 서목에 관한 연구-김치류 및 장류를 중심으로-」, 청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이경아·Gary W. Crawford·刘莉·佐々木由香·陈雪香, 2011, 「동아시아 유적에서 출토된 콩(Glycine max)에 기반한 작물화 연구: 종자 크기 비교」, 『경남연구』 5, 경남발전연구원.

이성우, 1988a, 「대두재배의 기원에 관한 고찰」, 『한국식생활문화학회지』 3-1, 한국식생활문화학회.

_____, 1988b, 「한국 전통 발효식품의 역사적 고찰」, 『한국식생활문화학회지』 3-4, 한국식생활문화학회.

_____, 1990, 「동아시아 속의 두장에 관한 발상과 교류에 관한 연구」, 『한국식생활학회지』 5-3, 한국식생활학회.

이용현, 2007, 「안압지와 東宮 庖典」, 『신라문화연구』 창간호, 국립경주박물관.

이춘영, 1989, 「장류의 문화」, 『식품과학과 산업』 22-4, 한국식품과학회.

이한창, 2016, 「한국의 장류」, 『식품과학과 산업』 49-3, 한국식품과학회.

- 임갑필, 1984, 「한국과 일본의 장류 발달의 비교 고찰」, 『가정학연구』 1-1, 안동대학교 가정학회.
- 장지현, 1969, 「한국 재래 장류제조사-특히 고농서류에 나타난 장류를 중심으로-」, 『민족문화연구』 3,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 정경란, 2018, 「청국장역사」,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8-7, 한국콘텐츠학회.
- 최덕경, 2002, 「《齊民要術》의 高麗豆 普及과 韓半島의 農作法에 대한 一考察」, 『동양사학연구』 78, 동양사학회.
- _____, 2004, 「대두재배의 기원론과 한반도」, 『중국사연구』 31, 중국사학회.
- _____, 2009a, 「대두의 기원과 醬·豉 및 豆腐의 보급에 대한 재검토」, 『역사민속학』 30, 한국역사민속학회.
- _____, 2009b, 「《齊民要術》에 보이는 動植物의 배양과 胡漢 農業文化의 融合」, 『중국사연구』 62, 중국사학회.
- _____, 2020, 「중국 豆醬의 출현과 豆醬文化의 확산:한반도 豆醬문화와 관련하여」, 『역사민속학』 59, 한국역사민속학회.
- 최영진, 2017, 「고문헌에 기록된 우리나라 豉의 특성에 대한 연구」, 『동아시아식생활학회지』 26-6, 동아시아식생활학회.
- 최영진·조신희·정낙원·김은미·원선임·차경희·김현숙·이효지, 2007, 「17세기 이전 장류에 대한 문헌적 고찰」, 『한국식품조리과학회지』 23-1, 한국식품조리과학회.
- 한복려·김귀영, 2020, 「조선시대 전반기의 두장류에 관한 문헌적 고찰」, 『한국식생활문화학회지』 35-1, 한국식생활문화학회.
- 赵志军·杨金刚, 2017, 「考古出土炭化大豆的鉴定标准和方法」, 『南方文物』 2017-3, 中国社会科学院考古研究所.

고대 및 고려시대의 장 문화 발달과 그 실제

박유미

이 글은 콩으로 만든 장의 역사성을 고대부터 고려시대까지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옛사람들이 장을 무슨 방법으로 만들고 일상 및 사회에서 장을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이해하고자 하는 것이다.

먼저, 우리 민족의 터전이었던 만주와 한반도에는 질량이 우수한 콩이 생산되었고 그 콩을 사용하여 고조선 때부터 장을 만들었다고 추정된다. 이때의 장은 콩만 발효시켜 만드는 것으로 시루를 사용해 만들었을 것이다.

고대의 장은 조세로서 공납되고 군용식량으로 이용되었으며, 납채례의 예물 및 절에서 제조되어 보관되거나 나누어졌다. 이렇게 콩으로 만든 장은 우리 민족에게 일상적으로 사용되었다. 게다가 발해인들이 귀하게 여기는 ‘책성의 시’를 통해 타 종족과 구별되는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다. 6세기 『제민요술』에 국명을 명칭으로 한 황·흑고려두가 기록될 정도로 고품질 콩을 생산했던 고구려인과 그 문화를 계승한 고구려계 발해인들의 대두 사용 양상은 발해를 공동으로 건국한 집단인 말갈족보다 월등하게 많았을 것이다. 또한 책성부에 속한 염주(크라스키노)는 바닷가에 접하여 소금 확보에 유리했기 때문에 대두와 소금을 활용하여 시를 더욱 잘 만들 수 있었다고 보인다. 이런 시의 제조와

이용은 선장양의 전통을 갖는 고구려계와 수렵 위주의 말갈계 발해인을 구별하는 민족적 특징으로 기능했을 것이다.

고려에서 장은 음식 재료이자 전조 또는 지대 등으로 납품되고 활용되었다. 고려의 장은 말장인데 이것은 고구려의 장을 계승한 것이었으며, 국가 조세로도 납부되었다. 나라에 공납된 장은 전쟁이나 기상재해로 인해 힘들고 배고픈 사람들에게 구휼품으로 지급되었다. 사찰에서는 장 제조 후 장고에 이를 보관했고, 왕실이 백성들에게 선행을 베풀 때의 물품 중 하나로 장이 내어졌으며, 민간에서는 장을 병을 고칠 약식으로 사용했다. 한편, 일상에서 매우 빈번하고 다양하게 사용된 장을 상중에 먹지 않았다. 특히 유학적 소양이 있는 집안에서는 상중에 장을 쓰지 않은 음식을 섭취했는데, 이는 유교적 상례가 우리의 음식문화로 변형된 모습이라 여겨진다.

주제어: 고려두(高麗豆), 말장(末醬), 선장양(善藏釐), 시(鼓), 크라스키노성, 시루

ABSTRACT

The Development and Actuality of Fermented Soybean Products Culture in Ancient and Goryeo Dynasty

Park Yumi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examine the history of fermented foods made from beans from ancient times to the Goryeo Dynasty. It is to understand how ancient people made fermented soybean foods and used intestines in daily life and society.

First, it is estimated that high-quality soybeans were produced in Manchuria and the Korean Peninsula, and fermented soybean foods were made from such beans since Gojoseon Dynasty. At this time, the sauce was made by fermenting only beans and would have been made using a steamer.

Ancient fermented soybean foods were paid as taxes and used as military food, and were prepared and stored or distributed at wedding gifts and temples. Bean paste were used daily by our people. In addition, the identity of the Korean people, which is distinguished from

other ethnic groups, can be confirmed through the “bean paste of Chaekseong” that Balhae people value. The use of soybeans by the Goguryeo people who produced high-quality soybeans enough to record yellow and black Goryeo beans in Qiminyaoshu(齊民要術) and the Balhae people who inherited the culture was far more likely than the Malgal people, a group that jointly founded Balhae. In addition, Kraskino, which belongs to Chaekseong, was advantageous in securing salt by facing the beach, so it seems that he was able to make a better bean paste by utilizing soybeans and salt. The manufacture and use of bean paste would have functioned as a national feature that distinguished Goguryeo, which has a tradition of making fermented foods well, from Balhae, a hunting-oriented malgal.

Soybean paste in Goryeo is fermented soybean lump(末醬), which inherited Goguryeo's bean paste and was also paid for by the state tax. Soybean paste provided to the country was provided as a relief to those who were struggling and hungry due to war or weather disasters.

The temple built a warehouse to store fermented foods from soybeans, and soybean fermented foods were used as one of the items for the royal family to do good deeds. and the private sector used them as medicine to cure diseases. On the other hand, soybean paste, which was used very frequently and in various ways in daily life, was not eaten during the mourning period. In particular, families with study Confucianism ate foods that did not use soybean paste. It seems that the contents of studying abroad have been modified to suit our food culture.

Keywords: soybean of Goryeo, fermented soybean lump(末醬), good at making fermented food(善藏釀), Kraskino, steamer

삼계탕(蔘鷄湯)의 연원과 발달 배경에 관한 연구

정희정 | 한국미술연구소 책임연구원

I. 머리말

II. 조선시대 식치(食治)와 국물음식

III. 삼계탕의 발달 과정

IV. 맺음말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I. 머리말

공동체가 음식문화를 형성하는 데에는 물질적 측면과 사상적 측면이 모두 작용한다. 한국의 음식문화는 네 계절의 변화가 뚜렷한 온대지역이라는 기후와 산악이 발달해 있으며 삼면이 바다라는 지리적 환경 속에서 생산된 산물을 바탕으로 오랜 시간을 거쳐 형성되어왔다. 그리고 사상적으로는 불교와 유교, 토속신앙 등 종교가 영향을 끼쳤으며, 한의학 지식과 사상도 한국의 음식문화 형성에 영향을 끼쳤다.¹

삼계탕(蔘鷄湯)은 여름 무더위를 이기기 위해 먹는 한국의 대표적인 절식(節食)이다. 닭을 손질하여 내장을 빼고 그 속에 인삼과 곡류인 찹쌀, 그리고 대추, 마늘 등을 넣은 후 닭 다리를 묶어 속이 나오지 않도록 하여 오랜 시간 물에 삶은 국물 음식으로 한국인에게는 보양 음식으로,² 외국인에게는 인삼과 함께 먹는 한국을 대표하는 음식 중 하나로 인식되고 있다.³

이에 비해 삼계탕의 연원이나 역사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특정 음식의 연원을 추적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며, 기록 또한 부족하기 때문이다. 다만 개화기 변화의 모습을 기록한 조풍연(趙豐衍, 1914~1991)의 『서울잡학사전』에서 삼계탕은 여름철 개장 먹는 축보다는 더 여유 있는 집안의 시식이었으

* 투고: 2023년 4월 15일, 심사 완료: 2023년 5월 8일, 게재 확정: 2023년 5월 12일

1 윤서석, 1997, 『한국음식대관1』, 한국문화재보호재단.

2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https://stdict.korean.go.kr/main/main.do>

3 국가별 선호도 차이는 있으나 대체로 김치, 비빔밥, 불고기, 삼계탕의 선호도가 높은 편이다. 조사기관과 연도에 따라 차이가 나는데 최근 조사에서는 한국식 치킨과 떡볶이에 대한 선호가 높아졌다. 박혜연 외, 2014, 「한식 세계화를 위한 내국인과 국내 체류 외국인의 한국음식 선호도와 한식에 대한 인식」, 『동아시아식생활학회지』 24-2, 155~165쪽; 한식진흥원, 2021, 『2020 해외 한식 소비자 조사』, 한식진흥원, 94~102쪽.

며 계삼탕으로 불리던 것이 인삼이 대중화되고 외국인들이 인삼의 가치를 인정하게 되자, 삼을 위로 놓아 삼계탕으로 명칭을 바꾼 것으로 여겨진다 했다.⁴ 김상보는 육개장과 비슷하게 끓였던 연계탕이 구장(狗醬)이 식성에 맞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날의 대체식품이 되고, 인삼이 대중화되면서 연계탕이 삼계탕이 된 것으로 보고 있으며,⁵ 주영하는 광복 후 요식업에 의해 계삼탕이 대중화되고, 1960년대 삼계탕으로 이름이 바뀐 것으로 보고 있다.⁶

그러나 음식의 시작을 문헌에 이름이 등장한 때부터라고만 볼 수는 없다. 근대기 조리서의 닭국과 백숙의 조리법은 닭 속에 참살과 인삼을 넣고 삶는 것이어서 오늘날 삼계탕과 동일한 음식이라고 할 수 있으며, 북한에서 인삼닭곰이라는 이름이 삼계탕을 지칭하고 있는 것에서도⁷ 이름에 앞서 삼계탕에 해당하는 음식을 한반도에서 먹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따라서 삼계탕이 만들어지고 발달할 수 있었던 배경을 여러 측면에서 고찰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 글에서는 고가의 약재인 인삼을 이용한 닭 국물 음식인 삼계탕이 약이 아니라 일상의 음식으로 발달할 수 있었던 배경을 사상적 측면과 물질적 측면에서 접근해보고자 한다. 먼저 삼계탕이 만들어지는 데 음식으로 몸을 다스린다는 동양 의학의 식치(食治) 개념이 사상적 배경이 되었을 것으로 보고 조선시대 식치의 발달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삼계탕의 발달 과정을 형태와 재료의 유사성을 기준으로 의서와 조리서, 회화의 제발 등 다양한 자료를 검토하여 살펴보았다. 이 과정을 통해 삼계탕이 발달할 수 있었던 또 다른 배경

4 조풍연, 1989, 『서울잡학사전』, 정동출판사, 430~431쪽.

5 김상보, 2005, 「삼계탕」, 『한국세시풍속사전: 여름편』, 국립민속박물관, 309쪽.

6 주영하, 2013, 『식탁 위의 한국사』, 휴머니스트, 142~153쪽.

7 왕성수·박철범, 2003, 『천년고도 개성』, 은방울사.

우석대학교 역사교육과 조법종 교수는 2016년 전후 만월대 발굴 연구로 2차례 개성을 방문하였을 때 북한의 학자들을 통해 개성에서는 고려시대부터 보양의 개념으로 닭곰에 인삼을 넣은 음식이 있었다는 말을 들은 바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문헌 기록을 확인할 수는 없다. 지면을 통해 북한의 삼계탕에 대한 인식과 귀한 자료를 제공해주신 조법종 교수님께 감사를 표한다.

으로 조선 후기 인삼의 재배 성공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급증한 인삼의 수급은 고가의 약재가 음식 재료로 이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었을 것으로 보이며 이는 물질적 측면으로 삼계탕의 발달에 작용했을 것으로 본다.

이 글은 삼계탕이라는 하나의 음식에 대해 음식문화사, 동양의학사, 미술사에 걸친 통합적 연구를 통해 한국 음식문화가 형성되는 데 건강, 의학이라는 사상적 측면과 자원 사용 가능이라는 물질적 측면이 끼친 영향을 이해하는 틀을 제공하고자 한다.

II. 조선시대 식치(食治)와 국물음식

1. 조선시대 식치 개념

우리나라 음식문화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끼친 사상 중 하나로 한의학 지식을 꼽고 있다. 약식동원(藥食同源)은 의약이나 음식이 사람을 보하는 동일한 원천이라는 사상인데, 조선시대에는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음식을 의약보다 중요시하는 식치(食治)라는 개념이 있었다. 식치는 ‘먹는 것(食)’과 ‘다스림(治)’의 합성어로 약치(藥治)에 대비되는 개념이다.⁸ 조선시대 다수의 의서에서 약치(藥治)의 방법과 함께 음식치료법인 식치와 식기(食忌)의 방법이 기술되어 있다. 최고의 치(治)는 사전에 다스림으로써 우려의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으로 달리 표현하자면 예방이다.

식치의 개념이 포함된 조선시대 의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조선 전기에

8 조선시대의 경우 食治는 ‘食療’라는 용어와 더불어 자주 사용되었다. 食療가 치료의 함의가 강한 데 비해 일반적으로 음식으로 다스리는 경우 ‘食治’를 善用하였다. 김호, 2008, 「조선의 食治전통과 王室의 食治 음식」, 『朝鮮時代史學報』, 135~177쪽.

『향약집성방(鄉藥集成方)』과 『의방유취(醫方類聚)』가 있다. 이들 의서는 중국의 『식의심감(食醫心鑑)』이나 『식의심경(食醫心鏡)』 등을 인용하면서, 음식으로 몸의 힘을 기르는 일이 중요하다고 역설하였다.⁹ 세조대에는 『향약집성방』이나 『의방유취』 등 종합의서에서 식치 처방만 초록하여 활용하기 편리하게 만든 『식료찬요(食療纂要)』가 편찬되었다. 1460년경 내의원 의원 전순의(全循義)가 저술한 의서에 세조가 직접 책 제목을 하사한 책으로 모든 질환에 증세와 함께 식치방을 언급하고 있어 우리나라 최초의 식이요법서라고 평가받고 있다.¹⁰ 이 책의 서문은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음식이 으뜸이고 약물치료는 그 다음이다(人之處世, 飲食爲上, 藥餌次之)”라고 시작하고 있어,¹¹ 조선시대 왕실 의료에서 식치 개념을 매우 중요시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조선 중기 동양의학학을 집대성한 『동의보감(東醫寶鑑)』(1613)에서도 단방의 형태로 각문의 말미에 식치를 기록하였고, 선조대에 저술된 『의림촬요(醫林撮要)』에서는 식치와 식기의 조문을 두어 먹어야 할 것과 먹지 말아야 할 것을 구별하여 기록하고 있다.

또한 조선 후기의 종합의학 실용서적인 『제중신편(濟衆新編)』(1799)에서는 「양생(養老)」편에 기존의 왕실과 민간에서 자주 사용되고 효과가 인정되었던 식치 처방을 모아서 수록하고 있어 조선 전 시기에 걸쳐 식치의 전통이 이어져 내려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¹²

식치가 구체적으로 적용된 내용은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치가 적용된 질환은 소화불량, 외감(外感), 해열(解熱), 출혈(出血),

9 김호, 2008, 위의 글, 142쪽.

10 내의원 의관이었던 전순의는 세종대에서 세조대에 걸쳐 활약한 어의(御醫)로 1445년에 『의방유취』 편찬에 참여했으며, 이후 『식료찬요』를 집필했다. 그는 조선의 고유한 음식과 술 제조법을 담은 『산가요록(山家要錄)』도 저술한 음식과 의학에 모두 정통한 인물이다.

11 全循義, 『食療纂要』序, “人之處世, 飲食爲上, 藥餌次之, … 古人立方, 先用食療, 食療不愈, 然後藥治, 且云將食得力大半於藥.”

12 김현경, 2016, 앞의 글, 12쪽.

두창(痘瘡), 다한(多汗), 수종(水腫) 등으로 거의 전 영역에 해당하며 사용된 제형도 주식류에 해당하는 밥, 죽, 미음, 떡국과 부식류에 해당하는 탕, 찜, 구이, 젓갈, 장, 후식류에 해당하는 다음(茶飲), 정과(正果), 사탕, 그리고 술에 이르기까지 거의 전 제형이다.

식치의 특징은 비교적 구성과 만드는 법이 간단하다는 것이다. 식치의 방제 구성을 약치와 비교하여 살펴보면, 식치는 약치에 비하여 사용되는 약재의 수가 적은 편이다. 『동의보감』의 처방을 기준으로 보면 약치 방제에는 1첩에 약 11~13종의 약재가 들어간 것에 비해 식치의 경우는 1~3개의 약재로 구성되어 있다. 재료가 많더라도 5개를 넘지 않았다.¹³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하는 떡국, 팔죽, 녹두죽, 사골국, 사탕, 꿀에도 각각의 효능과 주치가 존재한다. 그러나 일반 식사와 달리 질병 치료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각각의 식치방(食治方)들을 조절하여 서로 상쇄 작용을 일으키지 않도록 한 것으로 파악된다.

왕실의 식치 음식들은 중국의 의서를 통해 들어오기도 했으나 조선 왕실의 내의원이나 수랏간에서 새롭게 개발한 것도 상당수 있었다. 숙종대에 어의였던 이시필(李時弼, 1657~1724)이 쓴 백과사전인 『소문사설(謏聞事說)』 「식치방(食治方)」에는 사용원의 숙수나 관노 등이 만든 음식이 기록되어 있다. 이 중 황자 계훈돈(黃雌鷄餛飩)은 중국의 의서 『의학입문(醫學入門)』에 소개된 식치 음식을 보고 만든 것이지만 조선 왕실의 숙수들이 새롭게 응용하여 개발한 음식에 해당한다.¹⁴

그리고 음식이기 때문에 동일한 재료를 이용하여 음식의 물성을 달리할 수 있다. 구선왕도고(九仙王道膏/九仙王道糕)가 대표적인 경우인데 『승정원일기』에서 구선왕도고(九仙王道膏)가 어떤지 묻는 질문에 영조는 개인적으로 평소에

13 김현경, 2016, 앞의 글, 17쪽

14 이시필, 2011, 『소문사설, 조선의 실용지식 연구노트』, 휴머니스트, 100~101쪽.

떡류를 싫어한다고 말하고 있어¹⁵ 영조에게 제공된 형태는 이름이 의하는 진한 국물 형태인 고(膏)가 아니라 떡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19세기 조리서인 『규합총서』에 나오는 구선왕도고(九仙王道糕) 조리법에 의하면 떡이면서 죽이다.

연육, 백복령, 산약초, 의의인 각 4냥, 맥아초, 능인, 백변두 각 2냥, 사상 1냥, 사당 1냥, 설탕 20냥을 가루내 쌀가루 5되에 한데 섞어 떡을 찌서 마르거든 찢어 체에 쳐 가루내었다가 죽을 쑨면 노인에게 좋다.

아마도 사용된 재료는 동일하겠지만 구선왕도고(九仙王道膏/九仙王道糕)는 떡의 형태로도 진한 국물인 고 또는 죽의 형태로도 섭취가 가능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조선 후기 『임원경제지』에는 「보양지(保養志)」편을 따로 두어 건강과 음식치료방식들을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민간의 백과사전류에 식치방에 해당하는 많은 내용이 기록된 것은 조선시대 『동의보감』이나 『의학입문(醫學入門)』이 지식인 계층에게 널리 읽혔고, 의학적 지식이 지식층의 보편적 상식에 속했다는 것을 의미한다.¹⁶ 『임원경제지』 「보양지」에 실린 식치 관련 내용은 이후 『규합총서』에서도 보여 의학 지식인 식치가 민간 조리서로도 수용된 것을 알 수 있다. 조선시대 식치 개념과 식치방은 널리 확산되어갔으며, 다양한 왕실의 식치 음식들이 의서나 조리서 그리고 경험 등을 통해 민간에 퍼져갔다.¹⁷

15 『承政院日記』 英祖 12年 10月 9日, “興慶曰, 向進九仙王道膏, 其已進御乎? 上曰, 一次進御矣. 興慶曰, 此與苦口之藥味有異, 何不連進乎? 上曰, 予常厭餅屬故耳.”

16 김현경, 2016, 앞의 글, 15쪽.

17 김호, 2008, 앞의 글, 140쪽.

2. 식치와 국물음식

국은 고기, 생선, 채소 등 다양한 재료에 물을 많이 붓고 간을 맞추어 끓인 음식을 의미한다. 한국에서 국의 역사는 상당히 오래전부터일 것으로 추정되지만 문헌에 처음 등장하는 것은 『삼국사기』 권 제17 고구려본기 제5 동천왕편이다.¹⁸ 국물음식은 지속적으로 발달하여 조선시대 여러 문헌에 많은 장국, 토장국, 고음국, 탕, 백숙 등 다양한 종류의 국이 400여 종이 넘게 등장한다.¹⁹

국을 지칭하는 용어로 근대 이전 동아시아에서 갱(羹), 확(臠)이었으나 오늘날 거의 사용되지 않으며,²⁰ 현재 국, 탕(湯), 백숙(白熟), 고음(膏飮) 또는 곰이 있다. 이들 용어는 서로 얹혀 사용되고 있는데²¹ 이 중 탕, 백숙, 고음에 약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어 주목된다.

근대 이전 문헌에서 탕(湯)은 한의학과 관련해서 사용된 용어였다. 약을 달인 것이나, 약성이 있는 재료를 뜨거운 물에 달여서 만든 약이란 의미와 향약(香藥)으로 끓여서 마시는 음료를 탕이라 불렀다. 원나라의 조리서 『거가필용(居家

18 金富軾, 『三國史記』, “卷第十七 高句麗本紀 第五 東川王 元年 五月, 東川王或云東襄, 諱婁位居, 少名郊歲, 山上王之子, 母酒桶村人, 入爲山上小后, 史失其族姓, 前王十七年立爲太子, 至是嗣位, 王性寬仁, 王后欲試王心, 候王出遊, 使人截王路馬鬣, 王還曰, “馬無鬣可憐.” 又令侍者進食時, 陽覆羹於王衣, 亦不怒.”

19 김귀영, 2003, 「한국 식문화에 있어서의 국(湯)」, 『동아시아식생활학회 학술발표대회논문집』, 5~6쪽. 17세기부터 현대까지 음식 관련 문헌 29권을 분석한 연구에 의하면 국이 201가지, 탕이 206가지, 백숙이 14가지 기록되어 있을 정도로 한국 음식에서 국에 해당하는 음식은 매우 발달했다. 이성우·김경진·이효지, 1983, 「韓國飲食用語의 文獻的 研究」, 『한국식품영양과학회지』 12-2, 150~175쪽.

20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李盛雨, 1985, 「국의 文化」, 『韓國料理文化史』, 敎文社, 93~99쪽.

21 드물게 개장, 육개장, 닭개장과 같이 장(醬)이 사용되기도 하지만 비중이 매우 낮아 이 글에서는 제외했다. 조선시대 한글 조리서를 분석한 연구에서 총 3종으로 4.62%를 차지했다. 송지혜, 2020, 「조선시대 필사본 한글 음식조리서의 탕류 음식명 연구」, 『국어사연구』 30, 127쪽.

必用)』에서 국의 표현은 대부분 갡(羹)이고, 탕(湯)은 오직 음료용과 약용으로만 쓰였다.²² 우리나라의 문헌인 『임원경제지』에서도 음청지류(飮淸之類)에 “탕은 『석명(釋名)』에서 열탕(熟湯)이라 할 때의 탕이다. 대개 『주례(周禮)』의 육음이나 육청이 곧 탕과 장의 시초이다. 후세에 일반적으로 향약(香藥)으로 탕을 끓여서 마시는 음료를 모두 탕이라 불렀다”라고 했다.²³ 『훈몽자회』에서 탕(湯)은 탕탕으로 더울 탕 또는 끓인 물이라고 했으며, 『명물기략』에서도 “탕탕, 熟水”라고²⁴ 하여 이상의 문헌에서는 탕과 국의 직접적인 연관성을 찾을 수 없다. 그런데 19세기 중엽 의례집인 이재(李穡)의 『사례편람(四禮便覽)』(1844)에 “갡(羹)이란 본디 고깃국이고 채갡(菜羹)이란 채소국이다. 그런데 요즘은 탕(湯)에다 어육(魚肉)을 쓰고 있으니 이제 탕도 국이 되었다”고 했다.²⁵ 다시 말해 조선 초기에는 탕이 국을 의미하지 않았으나 시대가 내려온 어느 시점부터 탕도 국을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되기 시작한 것으로 추정된다. 조선시대 조리서의 탕명을 분석한 연구에서 조리서의 요리명으로 한자로는 ‘湯’을, 한글로는 ‘국’을 병기한 것으로 보아, 조선 후기에는 ‘국’과 ‘탕’을 다르지 않게 인식했음을 알 수 있다.²⁶

다음으로 곰은 고기나 생선을 진한 국물이 나오도록 푹 삶은 국, 고음은 곰을 한자를 빌려서 쓴 말이라고 정의하고 있다.²⁷ ‘고다’의 명사형으로, 곰국이나 곰탕, 닭곰 등에서는 곰을 그대로 사용하지만 한자로 표기하는 경우 고음(膏飮)으로 표기한다. 『명물기략』에서는 “膏飮 고음 臠肉濃羹”, 즉 고깃국을 진하게

22 李盛雨, 1985, 앞의 책, 93~99쪽 재인용

23 徐有渠, 『林園經濟志』, 鼎俎志 卷第三 飮淸之類, “湯, 《釋名》云: “熟湯湯也.” 蓋《周禮》六飮, 六淸, 卽湯, 漿之權輿. 後世凡用香藥點湯而飮者, 皆謂之湯. 《饗飮雜志》.”

24 崔世珍, 1527, 『訓蒙字會』, “湯 탕탕 又더울 탕 又去聲熟水灼之也.”

25 李盛雨, 1985, 앞의 책, 94쪽.

26 송지혜, 2020, 앞의 글, 134~136쪽

27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https://stdict.korean.go.kr/main/main.do>

한 국이라고 했으며²⁸ 『시의전서』에서도 “膏飮 고음국은 다리뼈, 사태, 도가니, 흘떼기, 꼬리, 양(胖), 곤자소니, 전복, 해삼을 큰 솥에 물을 많이 붓고 만화로 푹 고아야 맛이 진하고 보한다”고 했다.²⁹ 대체적으로 곰은 동물성 식재료를 물을 붓고 오래 곤 국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곰의 한자 표현인 고음(膏飮)의 고(膏)는 식재료를 매우 줄이게 고아 엉키게 한 즙을 의미한다. 한의학 처방에서 삼고(參膏)나, 계고(鷄膏), 우골고(牛骨膏) 등 여러 가지 고가 있다. 곰은 고다의 명사이며 동시에 고음(膏飮)은 고(膏)와의 연관성이 보인다.

마지막으로 백숙(白熟)은 갖가지 고기나 생선을 양념하지 않은 채 맹물에 푹 삶은 것을 의미하는데, 재료는 닭을 비롯하여 오리, 잉어, 꿩 등이며, 약으로 쓰일 때가 많다.³⁰ 그런데 잉어와 닭을 같이 백숙한 것을 용봉탕이라 하고, 영계에다 인삼을 넣어 백숙한 것이 삼계탕으로 백숙과 탕의 명칭도 얹혀 있다. 또한 이들은 넓은 의미로 고음국에 포함되기도 한다.³¹

이상 살펴본 결과 국에 해당하는 용어 중 탕과 고음, 백숙은 약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약식동원의 동양의학 사상이 한국 음식문화 형성에 매우 강한 영향을 끼쳤음을 의미하며, 특히 국물 음식에서 강하게 발현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중국이나 우리나라에서 탕을 가리켜 국, 약, 음료라고 하는 것은 동양판 영양학에서 강력한 약식동원 정신의 발로라고 볼 수 있다.³²

28 黃泌秀, 『名物紀畧』, “膏飮 고음 臘肉濃羹”.

29 『是議全書』 “膏飮 고음국 다리뼈, 사태, 도가니, 흘떼기, 꼬리, 양, 곤자소니, 전복, 해삼 등을 큰 솥에 함께 넣고 물을 많이 부은 다음 문근하게 약한 불로 푹 고아야 국이 진하고 보양식이 된다.” 한국전통지식포탈, <https://www.koreantk.com/ktkp2014/kfood/kfood-view.view?foodCd=107236>

30 李盛雨, 1985, 앞의 책, 113쪽.

31 이윤경 외, 1992, 「고음국의 문헌적 분석 고찰」, 『韓國食生活文化學會誌』 7-4, 339~362쪽.

32 李盛雨, 1985, 앞의 책, 94쪽.

구체적으로 식치방과 일상의 국의 관계는 사골국과 미역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먼저 정조대 의서인 『제중신평』의 우골고(牛骨膏)이다.³³

중초를 보해 기를 이롭게 하고 근골을 튼튼하게 하고 걸음을 잘 걷게 하며 골수를 이롭게 하여 정기를 보충해주며 기력이 건장하고 살갗을 윤택하게 하고 수명을 연장하여 장수하게 한다고 했다. 어리고 살진 거세 황소를 고기는 제거하고 뼈만 취해 물을 많이 부어 넣은 큰 솥에 넣고 한 말 정도 될 때까지 고아 그릇에 걸러내어 응고되면 기름을 제거하고 알짜배기만 취해 중탕해서 물처럼 만든다. 소금을 조금 넣고 양에 맞게 마신다. 혹은 오미를 타서 먹기도 한다.³⁴

『제중신평』의 우골고는 소의 뼈만 물을 붓고 오랫동안 끓여 고아서 만든 약 처방이다. 응고된 고를 중탕하여 물처럼 만들어 마시는데 오미, 즉 양념을 더하기도 한다고 하니 오늘날 사골국, 사골탕에 가깝다. 한편, 『승정원일기』에 우골고는 없이 우골탕만 기록되어 있어³⁵ 우골고는 곧 우골탕일 가능성이 있다. 이를 통해 우골고와 우골탕, 사골곰탕, 사골국의 관계는 곰(고음, 膏飮)에서 탕(湯)으로, 그리고 국으로 연결되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약의 성격이 강한 식치방 일 때는 농도를 매우 진하게 하고, 일반 반상의 국으로 사용될 때는 상대적으로 농도를 열게 한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는 미역국이다. 미역국은 우리나라에서만 산후 먹는 음식인데,³⁶

33 김현경, 2016, 앞의 글, 46쪽.

34 康命吉, 『濟衆新編』, “牛骨膏 補中益氣, 強筋骨, 健行步, 益髓填精, 氣力健壯, 肌膚肥澤, 益壽延年. 嫩肥黃犍牛, 去其肉, 取其骨, 用大鼎多灌水, 煎至一斗許, 漉濾貯器, 待凝, 去油, 只取精明者, 重湯化為水, 入塩少許, 量宜飲下, 或和五味食之.”

35 『承政院日記』英祖 42年 2月 28日; 『承政院日記』英祖 42年 2月 29日.

36 충용, 2011, 「韓·中 出産儀禮의 風俗 比較 研究」, 부산외국어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의서인 『의취(宜醴)』(1871)에 산후 곽탕(霍湯)을 먹는 처방이 기록되어 있다.³⁷ 『의취』에는 산후 여러 증세에 감곽탕에 간단한 식재나 약재를 더하여 먹도록 처방하고 있는데, 특히 출산 후 복통의 경우 미리 방지하기 위해 감곽탕에 식초를 타 복용하도록 하고 있다.³⁸ 이 내용은 그대로 『증보단방신편(增補單方新編)』(1913)으로 이어졌다.

霍湯和醋, 三七日內常服之. 或煎大棗服之, 神效.

메역국에 초를 타 삼칠일 안에 장복하라. 혹 대초를 다려 먹으면 즉효.

이보다 앞서 『산림경제(山林經濟)』 「구급」에 산후 발열 시 문어를 가루로 만들어 넣어 곽갱(霍羹)을 먹도록 하는 처방이 있다. 『산림경제』의 곽갱은 의서 식처방에 나오는 (감)곽탕과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으며 곽탕은 메역국, 즉 미역국이다.³⁹

이상 식처방으로 사용된 고와 탕이 일반 음식과 가까운 재료의 사용, 물성의 유사성 등의 이유로 반상의 국으로 편입되었을 가능성을 살펴보았다. 오늘날 탕, 곰 그리고 백숙이라 명명되는 국물 요리에 몸을 보양한다는 인식이 은연중에 들어가 있는 것도 이런 식치의 개념에서 연유한 것으로 유추된다. 따라서 탕, 곰, 백숙 등 여러 용어가 국류에 포함되면서 국류가 발달한 것은 식치의 개념이 반상 위에서 발현된 한국 음식문화의 특성을 잘 보여주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37 김현경, 2016, 앞의 글, 44~45쪽.

38 『宜醴』, “甘霍湯, 好醋半盞, 和勻服. 産後腹痛, 及未痛前, 腹痛之預防.”

39 산후에 미역을 먹는 것은 『성호사설』에서도 언급하고 있으며, 『오주연문장전산고(五洲衍文長箋散稿)』 「(산부계곽변증설産婦雞霍辨證說)」에서는 우리나라에서만 미역을 산후 조리용 음식으로 먹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 그런데 미역국은 조선시대 조리서에 만드는 법을 찾기 힘들다. 이는 매우 일상적인 음식이었기 때문에 조리법을 기록할 필요가 없기 때문으로 보인다.

Ⅲ. 삼계탕의 발달 과정

음식의 구체적인 기원이나 발달 과정을 밝히기는 매우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이 글에서는 조리서뿐 아니라 의학서 등 여러 문헌과 조선시대 회화의 제발문을 분석하여 닭요리에 약재인 인삼이 들어간 삼계탕의 발달 과정과 배경에 대한 연구를 시도해보고자 한다.

삼계탕은 명칭에서 재료와 조리 방법이 정확히 드러나는 음식이다. 주요 재료는 인삼과 닭이며 조리 방법은 물에 넣어 끓인 국물 음식인 탕이다. 그리고 삼계탕의 중요한 형태적 특징으로 주재료인 닭을 통째 사용하며, 닭의 내장을 제거하고 배 속에 인삼과 곡류인 찹쌀, 이 외에 몇 가지 재료를 넣고 다리를 묶음으로써 완성된 음식이 닭의 모양을 유지하고 있는 것을 들 수 있다.

먼저 조선시대 문헌에서 삼계탕의 형태적 특성을 가진 닭요리를 검토한 후 닭과 인삼의 조합이 이뤄진 경우를 추적했다. 관련 내용이 조선시대 의학서, 조리서, 회화, 그리고 근대 조리서에서 각각 보이며, 대체로 시대적 흐름을 따르고 있다.

1. 조선시대 문헌 속 닭요리

닭은 오래전부터 한국인의 주요한 동물성 단백질 공급원이었으며, 조선시대 가축 중 수가 가장 많았다. 집집마다 닭을 사육하여 그 요리법이 다양했는데, 다른 육류 조리법이 중국에서 유래된 것이 많은 것에 비해 조선시대 요리서의 닭 조리법은 중국 조리서에 인용된 것이 적고 우리 고유의 것이 대부분인 것이 특징이다.⁴⁰ 조선시대 조리서를 분석한 연구에서 닭요리는 구이인 적자법, 찌는 법,

40 중국 요리서에는 닭보다는 거위, 오리, 기러기 등의 요리법이 많이 나온다. 李盛雨, 1985, 앞의 책, 216쪽.

삶은 법 등 총 25가지이다.⁴¹ 닭을 이용한 음식은 기본적으로 닭을 조각내어 볶거나 삶는데 이는 조리 시간을 단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닭을 통째로 조리하려면 손질이 번거롭고, 조리시간이 길어지므로 형태를 유지하려는 의도나 오랜 시간 삶아 국물에 닭의 성분을 우려내려는 의도가 있는 특별한 음식의 경우에만 통째로 사용한다.

토막 내지 않은 닭의 배 속에 여러 가지 부재료를 넣어 조리하는 방법으로 가장 오래된 것은 『식료찬요』의 식치방이다.

비장에 뭉친 열이 풀어지지 않아 마음이 심란하고 소변이 붉고 잘 나가지 않거나
혹 땀이 황백나무즙같이 노란색으로 나오는 것을 치료하려면 털과 발톱을 제거하
고 배를 갈라 깨끗하게 씻은 누런 암탉 1마리와 깨끗하게 씻은 다음에 절단한 생지
황 1근을 준비한다. 닭 속에 생지황을 넣고 묶은 다음 구리 그릇에 넣고 푹 익힌다.
꼭 짜서 즙을 낸 다음 5번 나누어 먹는 데 때를 계산하지 말고 따뜻하게 먹는다.⁴²

출산 후 몸이 허하고 야위었을 때 치료하는 방법으로도 누런 수탉 한 마리를 털을
제거하고⁴³ 등을 가르고 불에 구운 생백합(生白合: 나리) 3개와 멍쌀 반 되를 보
통 요리하는 방법과 같이 하고 양념을 넣어 버무린 다음 닭 속에 넣고 삶아 익혀
배를 갈라⁴⁴ 백합과 밥을 취하고 국물을 넣어 국을 만들어 먹고 고기도 먹는다.⁴⁵

41 金泰珙, 1989, 「닭요리의 條理史的 考察」, 『(상명대학교)가정문화연구』 7, 9~48쪽. 1670~1943년까지 닭 요리가 기록된 22권의 조리서를 분석한 연구이다.

42 全循義, 『食療纂要』, “治脾臟瘀熱不散 心神煩亂 小便赤澆 或汗出如漿汁 黃雌鷄一隻 去毛爪 開肚淨洗 生地黃一斤洗切 以地黃內鷄腹中 繫定置於銅器中 蒸令極熱 絞取汁 分五服 不計時 溫服.” 농업진흥청, 2004, 『국역 식료찬요』, 농업진흥청.

43 번역은 ‘암탉’이라 되어 있으나 원문은 ‘雄鷄’이라 ‘수탉’이라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一隻 去毛에 해당하는 번역이 누락되어 있어 ‘한 마리를 털을 제거하고’를 덧붙였다.

44 번역은 ‘등을 가르고’라 되어 있으나 원문은 ‘開腹’으로 되어 있어 ‘배를 가르고’로 바꾸었다.

『식료찬요』의 두 가지 식치방은 닭 속에 재료를 넣고 오래 찌거나(蒸) 삶아(煮) 만드는 것인데 아쉽게도 처방명 또는 음식명이 없다. 첫 번째 처방에서는 닭 속에 생지황을 썰어 넣고 묶어 찐 후 그 즙만 환자에게 먹이며, 두 번째 식치방은 출산 후 몸이 허했을 때 먹는 것으로 닭 속에 멍쌀과 생백합의 뿌리를 넣고 오래 끓여 익힌 것이다. 곡류인 멍쌀과 식물의 뿌리를 넣는 것은 재료적 측면에서 삼계탕과 유사성이 보이며, 삶아 익히는 조리법도 동일하다. 그리고 먹는 방식도 오늘날 삼계탕의 먹는 방식과 유사하다. 따라서 『식료찬요』의 이 식치방은 요리의 완성 형태, 재료, 조리법, 먹는 방식 등이 오늘날 삼계탕과 유사성이 매우 높아, 삼계탕의 시원적 모습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더불어 허증에 먹는 처방이라는 점도 삼계탕을 몸이 허해지기 쉬운 더운 여름에 즐겨 찾는 점과도 연결된다.

조선 중기 여러 조리서와 유서에서는 닭 속에 재료를 넣는 요리로 찜류가 주로 등장한다. 한글 조리서인 『음식디미방』(1670년)에 차조기, 부추 등을 넣은 연계찜이 있으며, 홍만선(洪萬選, 1643~1715)의 『산림경제(山林經濟)』(1715년 경)에서는 도라지 등 여러 재료를 닭 속에 넣고 중탕을 한 칠향계(七香鷄)가 대표적이다. 『음식디미방』의 연계찜은 닭 속에 재료를 넣지만, 된장과 밀가루를 사용하는 점이 삼계탕과 다르지만⁴⁶ 『산림경제』의 칠향계는 삼계탕과의 유사성이 좀 더 높다. 칠향계는 닭 속에 도라지, 생강, 파, 천초, 청장, 초와 기름 등 일곱 가지 재료를 넣고 중탕한 음식으로, 홍만선은 닭요리 가운데서 으뜸가는 것

45 全循義, 『食療纂要』, “治產後虛羸 黃雄鷄一隻 去毛破背 生百合煨三枚 粳米半升 依尋常 著五味調和 縫背 合五味汁煮令熟 開腹取百合并飯 相和汁作羹食之 肉亦食.” 농업진흥청, 2004, 앞의 책.

46 안동 장씨, 『음식디미방』, “연계를 안날(바로 전날) 저녁에 잡아 거꾸로 매달아 두었다가 이튿날 아침에 잔털 없이 뜯어 안것(꺼)내고 핏기 없이 씻어 가장 단 된장을 체에 걸러 기름 넉넉히 넣고 자소잎, 파, 염교(부추)를 잘게 썰어 파, 생강, 호초, 천초로 양념하여 진가루(밀가루) 넣어 한데 개어 죽이 되거든 지렁(간장) 넣어 다시 개어 닭의 속에 넣어 밥보자기로 싸매, 사기그릇에 담아 솥에 물 붓고 중탕하여 뼈가 빠지게 익거든 추려내고 식거든 쓰라.”

으로 평가했다. 이후 『민천집설』, 『증보산림경제』, 『고사십이집』, 『규합총서』, 『임원경제지』, 『오주연문장전산고』, 『고대규곤요람』, 『군학회동』 등 여러 문헌에 지속적으로 등장해 조선 후기에 매우 선호된 음식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칠향계는 그 출처가 속방(俗方)으로 당시 우리나라에서 전해지는 요리법이 었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조선시대 닭을 이용한 식치방이나 조리서를 살펴봤을 때 닭의 전체 형태를 유지하면서 닭 속에 여러 가지 재료를 넣고 찌거나 삶는 방법이 전기부터 후기까지 지속적으로 있었고, 상당히 발달했던 것을 알 수 있었다. 닭을 통째로 조리하는 방식은 손질이 번거롭고, 조리 시간이 오래 걸림에도 모양과 맛, 효능을 위해 선호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2. 조선시대 회화자료 속 닭요리

조선시대 조리서에 삼계탕이란 음식명이 나오지 않아 그 시원을 근현대까지 내려 잡고 있는 실정이지만, 조선 후기 변상벽(卞相璧, 1730~?)이 그린〈자웅장추(雌雄將雛)〉의 제발문(題跋文)에⁴⁷ 닭에 인삼을 넣는 조합을 언급한 내용이 있어 주목된다.⁴⁸ 이는 삼계탕이란 용어가 근대 사용되기 오래전부터 이미 닭과 인삼의 조합이 정착했을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웅장추〉의 화면에 두 개의 제발문이 있는데 하나는 변상벽과 동시대인으로 당대 최고의 문인이자 화가였던 표암(豹菴) 강세황(姜世晃, 1713~1791)이 쓴 것이다. 화면 오른쪽에 “푸른 수탉과 누런 암탉이 7~8마리 병아리를 거느렸다. 정교한 솜씨 신묘하니 옛사람도 미치지 못할 바이다(靑雄黃雌, 將七八雛. 精工

47 제발(題跋)은 제사(題辭)와 발문(跋文)을 아울러 이르는 말이다.

48 본 연구자는 변상벽의 〈자웅장추〉 제발문에서 닭과 인삼을 발견하고 이를 삼계탕의 시원으로 본 연구를 2012년 한국식품영양학회에서 포스터 논문으로 발표한 바 있다. 이때에는 제발문의 작성자를 마군후라고 하는 기존의 연구를 그대로 따랐다.



그림 1 변상벽, 〈자웅장주(雌雄將雛)〉(18세기, 간송미술관 소장)

神妙, 高人所不及)”라고 그림을 칭찬하고 있다. 그런데 그림의 왼쪽 상단에 또 하나의 제발문이 있어 눈길을 끈다.

白毛烏骨獨超群, 氣質雖殊五德存, 聞道醫家修妙藥, 擬同蔘朮策奇⁴⁹

제발문의 내용은 멋진 닭 그림을 보고 인삼과 백출을 넣은 먹거리를 떠올리며 입맛을 다진다는 해학적 표현이다. 이 제발문은 작성될 당시 사람들이 닭과 인삼과 백출의 조합이 무엇인지 안다는 것을 전제한 표현이다.⁵⁰ 따라서 제발문의 작성자가 누구인지 확인하는 것은 이 개념의 유통 시기를 추정하는 데 중요

49 흰털 검은 뼈로 홀로 무리 중에 우뚝하니, 기질은 비록 다르다고 하나 오덕이 남아 있다. 의가에서 방법을 들고 신묘한 약을 다려야겠는데 아마 인삼과 백출과 함께 해야 기이한 공훈을 세우겠지. 간송미술문화재단, 2010, 『潤松文華』, 79, 169쪽.

50 백출은 소화 약재로 흔히 사용되는 약재이다.

한 요소이다. 제발문에 ‘마씨(馬氏)’라는 흰 글씨의 네모진 낙관과 ‘인백(仁伯)’이라는 붉은 글씨의 네모진 낙관이 찍혀 있다. 현재 그림이 소장된 간송미술관에서는 ‘仁伯’을 ‘백인’으로 읽고 자가 백인인 마군후(馬君厚, ?~?)를 제발의 작성자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⁵¹ 그러나 이 글에서는 이 제발문을 쓴 사람이 마군후가 아니라 변상벽과 동시대인인 미산(眉山) 마성린(馬聖麟, 1727~1798년 이후)일 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⁵² 우선 그림에 찍힌 낙관 ‘仁伯’은 인백으로 읽는 게 일반적이므로 특별한 설명이나 근거 없이 ‘백인’으로 읽고 제발문 작성자를 마군후로 상정한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본다. 무엇보다 현재 일본 세이카도문고(靜嘉堂文庫)에 소장된 《모암시회도(帽巖詩會圖)》에 있는 두 장의 그림이 낙관 ‘인백’의 확인에 도움을 주고 있다.

모암시회는 조선 후기 최윤창(崔潤昌)·마성린(馬聖麟)·김순간(金順侃)·이효원(李孝源)이 주로 활동한 시사모임이었으며, 《모암시회도》는 이들이 1750년 20대 시기 시회의 모습부터 1779년 그들의 노년기의 시회의 모습을 발문이나 서문, 시, 그림의 형태로 실어놓은 화첩이다.⁵³ 이 화첩에는 그림이 4점 있는데 이중 첫 번째 그림인 〈모암도〉에 마인백이 그렸다는 제발문이 있다.

帽巖歌詠, 庚午孟夏, 眉山馬仁伯寫⁵⁴

경오년(1750년) 여름 〈모암도〉를 그린 미산 마인백은 시회의 주요 구성원이었던 마성린(1727~1798년 이후)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마성린의 호(號)가 미산

51 간송미술문화재단, 2010, 앞의 책, 169쪽.

52 변상벽 〈자옹장주〉 제발문 검토에 한국미술연구소 홍선표 소장님께서 도움을 주셨다. 지면을 통해 감사를 표한다.

53 《모암시회도(帽巖詩會圖)》는 57장 1책은 가로 25.1cm, 세로 17.8cm의 필사본이다. 현재 일본 세이카도문고(靜嘉堂文庫)에 소장되어 있으며, 1994년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조사·영인하여 원문정보를 전자책의 형태로 공개하고 있다. 전민경, 2016, 『『帽巖詩會圖』에 대하여』, 『한국한문학연구』 64, 446~447쪽.

54 모암가영, 경오 더운 여름, 미산 마인백 그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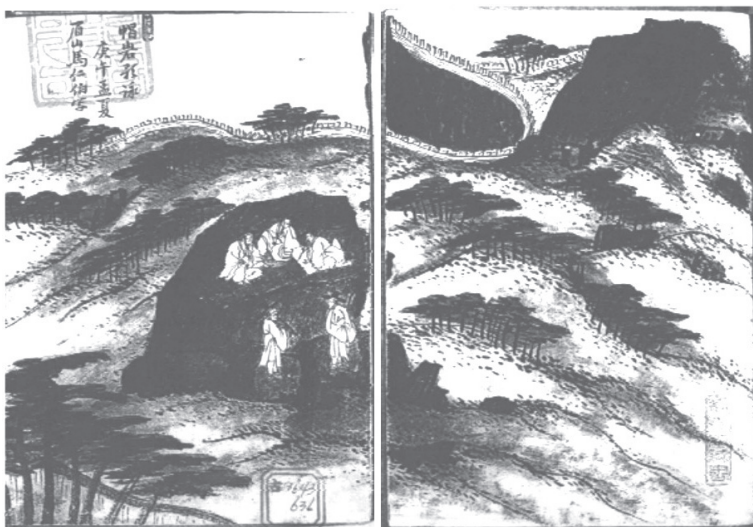


그림 2 《모암사회도》〈모암도〉(1750년, 일본 세이카도문고 소장)

이기 때문이다.

‘인백’은 이제까지 알려지지 않았으나, 마성린의 아호일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동일 화첩의 뒷부분에 매화 그림이 하나 실려 있는데 이 그림에는 1778년 납월에 미산옹(眉山翁)이 그렸다고 적혀 있다. 한 화첩에 있는 〈모암도〉를 그린 미산과 동일인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 〈매화도〉에 찍혀 있는 두 개의 낙관이 변상벽 〈자웅장추〉 제발의 낙관과 동일하다. 따라서 동일한 낙관이 찍혀 있는 변상벽 그림의 〈자웅장추〉 제발의 작성자 ‘마씨’, ‘인백’은 백인 마군후가 아니라 미산 마성린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마성린은 승정원 서리를 역임했으며 시인이자 서예가로 이름을 얻었다.⁵⁵

55 김두현, 2010, 「조선 후기 京衙前 書吏 가계 연구-承文院 書吏 馬聖麟(1727~1798) 가계의 사례-」, 『郷土서울』 76, 151쪽.

앞서 제발문의 작자로 알려졌던 마균후는 무명 화가이며 생년은 1750년 또는 1776~1777년으로 추정되고 있다.⁵⁶ 아름다운 닭이 그려진 변상벽의 그림을 보고 한 세대 정도 아래인 후배 화가가 농담조의 제발을 썼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오히려 같은 세대인 승정원 서리였던 마성린이 썼을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자옹장추〉를 그린 시기와 두 개의 제발문이 작성된 시기가 일치하는지 어느 정도 시간적 간격이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변상벽, 강세황, 마성린은 모두 18세기 중엽에 활발히 활동한 사람들이다. 변상벽은 왕의 초상화를 그렸던 당대 최고의 화원이었으며,⁵⁷ 강세황은 61세부터 영조의 배려로 관직을 시작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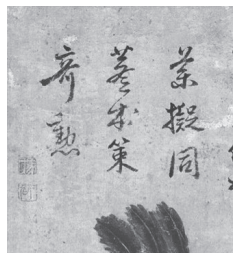


그림 3 《모암사회도》(매화도)(1778년, 그림 3의 부분
일본 세이카도문고 소장)

그림 1의 부분

- 56 최완수는 1750년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오세창은 『근역서화징(槿域書畫徵)』에서는 1776년생인 진동노(秦東老)와 1777년생인 이탁원(李鐸遠) 사이 생년이 불명한 여섯 사람 중 한 명으로 마균후를 넣고 있어 마균후의 생년은 1750년 또는 1770년대 생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 57 변상벽은 숙종과 영조의 어진을 그려, 그 공으로 전라도 곡성 현감까지 지냈던 당대 최고의 화원이었다. 吳世昌, 『槿域書畫徵』.

예조판서까지 지냈고 기로소에 들어갔던 인물이며, 미산 마성린 또한 명문 서리 집안의 출신으로 승정원 서리로 활동해 세 인물 모두 문화적·물질적으로 풍부한 환경에 있었을 것이다.

변상벽의 <자옹장추> 제발문을 통해서 문헌상 구체적으로 삼계탕이나 계삼탕이라는 명칭이 등장하기 전에 이미 닭과 인삼의 조합이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18세기에는 닭에 인삼과 백출을 넣은 먹거리가 무엇인지 농담으로 해도 알아들을 수 있을 만큼 닭과 인삼의 조합에 대한 인식이 사람들 사이에 널리 퍼져 있었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3. 조선 후기 의약 처방, 삼계고와 계삼고

인삼이 닭과 함께 조합을 이룬 요리는 1900년대 이전에는 조선시대 조리서에 보이지 않는다. 인삼은 오래전부터 한국의 대표적인 약재로 중요하게 다뤄졌으며, 조선시대 무역에 은 대신 사용될 만큼 고가의 물품이었다.⁵⁸ 조선시대 중국을 비롯해 일본뿐 아니라 유럽까지 한국의 인삼은 명성을 얻어 수출되었다. 그러나 약성도 강하고 매우 고가에 거래되는 약재였기 때문에 주로 의학서에 다뤄지며, 유서에서 보양과 관련하여 인삼주나 인삼죽이 다뤄질 뿐 음식 재료로 사용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그러나 이보다 앞서 약리적 차원에서 닭과 인삼을 조합한 예가 여러 문집과 사료에 나오고 있어 조리서 이전에 닭과 인삼이 조합된 식치방이 있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데, 바로 삼계고(蔘鷄膏)와 계삼고(鷄蔘膏)이다.

문헌 기록상 이른 예는 김윤식(金允植, 1835-1922)의 일기 『속음청사(續陰晴史)』에서 “1887년 9월 16일 기(氣)가 없을 때 삼계고를 먹는다”는 것이다. 또 인삼과 닭의 위치는 바뀌었지만 1894년 간행된 이제마(李濟馬, 1838~1900)의

58 구도영, 2017, 「16세기 조선 對明 使行貿易의 수출품 구성과 그 추이」, 『국학연구』 34, 709~765쪽.

『동의수세보원(東醫壽世保元)』의 제2권 소음인병에 쓰는 24가지 처방 중 계삼고(鷄蔘膏)가 있다.

계삼고

인삼 1냥, 계피 1돈, 닭 1마리를 잘 고아서 먹는다. 혹은 호초와 꿀로 맛을 조절하여도 무방하다.

이 처방은 예로부터 학질과 이질을 치료하는 데 신기하게 효력이 있다. 일찍이 오랜 학질을 치료하는 데 먼저 파두를 써 대변을 통하게 한 후에 2~3일을 계속하여 계삼고를 쓰니 잘 나았다. 계피는 흑 계심으로 대용한다.⁵⁹

그런데 삼계고나 계삼고에 앞서 인삼고(人蔘膏)와 계고(鷄膏)가 100~200년 전 문헌에 등장했다. 인삼고는 독삼탕(獨蔘湯)이라고도 부르며, 인삼만 물에 끓여 반 정도로 졸여 고(膏)의 형태로 만들었다가 필요할 때 몇 숟가락씩 먹거나 끓인 물에 타 먹는 것으로 『동의보감』 등 다수의 의서에 기록되어 있다.⁶⁰

계고는 『조선왕조실록』과 『승정원일기』에서 영조대 기록이 나오며⁶¹ 『일성록(日省錄)』에는 정조대와 순조대 5차례 나온다. 구체적인 계고 제법은 『성호사설』에 있다.

… 또 삶은 닭은 비위(脾胃)를 보한다. 세상 의원들이 기이한 방법을 내어 계고(鷄膏)를 만드는데, 닭의 껍질·콩무니·머리·창자·피·기름을 모두 버리고 물에 깨끗이 씻어 잘게 난도질한 다음 먼저 웅기 항아리 속에 그릇을 얹어 놓고 고기를 그

59 李濟馬, 『東醫壽世保元』, “鷄蔘膏 人蔘 一兩 桂皮 一錢 鷄 一首 濃煎服 或以胡椒清蜜 助滋味 無妨 此方 自古有方 治瘡疾痢疾神效 嘗治久瘡 先用巴豆 通利大便後 數三日連用鷄蔘膏 快效 桂皮 或以桂心 代用.”

60 『東醫寶鑑』, 內景篇卷一 氣.

61 『英祖實錄』 英祖 37年 3月 25日; 『承政院日記』 英祖 37年 3月 26日.

위에 담고 여러 겹으로 싸맨 다음 사기접시로 덮어서 가마솥 안에 넣고 물을 부어 오래 달이면 닭고기의 진액이 다 흘러내려 고기는 아무 맛이 없게 된다. 이 계고의 효력은 삶은 닭에 비하면 훨씬 좋은데, 모든 비허증(脾虛症)에 다 복용할 만 하다.⁶²

약 60년 이후에 쓰여진 의학서 『제중신편』에도 계고가 나오는데, 『성호사설』과 달리 닭뿐 아니라 생도라지, 생강 등 다양한 재료가 더해졌다. 따라서 계고는 닭만 곧 것도 있지만 다양한 약재가 더해진 경우도 존재했음을 알 수 있다.

계고(鷄膏) 신증(新增): 빈가(貧家)에서 허증(虛症)을 만나서 삼료(參料) 등을 구입하기 어려울 때에 이 약으로 대신하여 사용한다. 비록 인삼을 구입할 경제적 능력이 되더라도 평소엔 혈(血)이 마르고 폐경(肺經)에 화(火)가 있어서 인삼이 들어간 약재를 복용하기 어려운 사람에게도 역시 좋다. 진계(陳鷄) 1마리를 근막(筋膜皮骨)과 목, 등골뼈를 제거하고 다만 날갯죽지와 다리, 배 아래 단단한 살을 취하여서 생도라지 1개, 생강 2냥, 관계(官桂) 5전, 산사(山査) 20개, 황을 10개를 넣어 법에 따라 고(膏)를 만든다.⁶³

『제중신편』은 『동의보감』이 번잡하고 당시 사용되는 처방이 빠진 점 등을 들어 요점만 뽑아 저작하라는 정조의 명에 따라 집필되고 배포된 실용 의서

62 李瀾, 『星湖僊說』 제10권 人事門 마진(麻疹), “… 且烹鷄補脾也世醫出奇爲鷄膏法去皮去尾去頭去臟及血管淨洗鮮剝先於磁罈覆置一小器積其肉於器上重重牢包覆以磁碟就鍋釜內浸水重湯則鷄瀋流下而肉無味其功此烹鷄絕勝凡脾虛之症皆可用也”

63 康命吉, 『濟衆新編』 券2 虛勞, “鷄膏(新增)貧家遇虛症而難辦參料以此代用雖能辦參素稟血燥肺經有火難服參料者亦宜陳鷄一隻去筋膜皮骨及頸與脊只取肩脚及服下堅肉入生桔梗一條生薑二兩官桂五錢山査二十箇黃栗十箇如法作膏.” 지옥영, 2003, 「『濟衆新編』을 통해 살펴본 康命吉의 의학사상」, 『Digital 濟衆新編』, 한국한의학연구원 학술정보부.

였다. 『제증신편』의 내용을 보면 처방의 80% 이상이 『동의보감』의 처방을 기재하고 있으며, 편찬과정에 일어난 오류를 잡고, 『동의보감』에는 담지 못했던 내의원에서 사용했던 경험방과 속방, 신증의론 등을 더하여 집대성했다.⁶⁴ 『동의보감』 이후에 사용된 한국의 치료법에 신증(新增)이라는 표기를 했는데, 이 계고에도 신증을 표기하고 있어 영·정조대에 이르러 널리 퍼진 치료법 중 하나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제증신편』의 계고 중 ‘삼료를 구하기 어려운 빈가(貧家)에서 계고를 먹는다’는 문구가 주목을 끈다. 형편이 어려운 집이 아닌 일반 가정에서는 인삼의 사용이 가능하다는 의미이며, 이는 18세기 인삼 수급이 증가한 것과 연관이 있다.

인삼은 조선 전기 대명무역에서 예물이자 은과 맞먹는 가치를 가진 귀하고 값진 약재였다. 자연산 채취에 의존했기 때문에 물량확보에 한계가 있었던 인삼은 17세기 후반~18세기 초 인삼 재배에 성공하면서 수급 변화가 급격히 일어났다. 밭에서 재배한 인삼을 가삼(家蔘)이라고 했다. 가삼 재배가 언제, 어디서 시작했는지 아직 정확히 규명되지 않았지만 18세기 후반에는 가삼 재배가 널리 보급되었으며 1800년 인삼 재배만 다룬 『삼서(蔘書)』가 저술되었을 정도였다.⁶⁵

결과적으로 가삼 재배의 성공으로 조선에서는 인삼의 사용이 이전에 비할 수 없이 용이해졌고, 인삼의 가격 또한 낮아졌다. 이규경(李圭景, 1788~?)은 『오주연문장전산고(五洲衍文長箋散稿)』 「인삼시문변증설(人蔘詩文辨證說)」에서는 정조 초기 시작된 가삼은 순조(純祖)의 중기에 이르러 처음으로 한 지역에 널리 퍼진 후 번창하여, 지금은 오히려 그 값이 도라지와 같다고까지 할 정도가

64 지옥영, 2003, 위의 글, 29~30쪽.

65 염정섭, 2003, 「18세기 家蔘 재배법의 개발과 보급」, 『국사관논총』 102; 정은주, 2012, 「조선 후기 가삼(家蔘) 재배와 『삼서(蔘書)』」, 『한국실학연구』 24, 443~477쪽.

되었다.⁶⁶ 이렇게 수급이 용이해지면서 가격이 낮아지자 인삼을 활용한 음식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같은 책 「제선보유변증설(諸膳補遺辨證說)」에서 “옛날에는 인삼정과(人蔘煎果)가 없었는데 근래에 와서 가삼(家蔘, 재배한 인삼)이 모싯대나 도라지처럼 저렴해지면서 이 요리가 생겼다”고 해 민간에서 인삼을 음식 재료로 사용하기 시작한 정황이 포착된다.⁶⁷ 이는 인삼의 산지이면서 재배가 가능했던 중국 청나라에서 인삼에 대한 지배력을 왕실에 두고자 가삼 재배를 불법으로 규정하여 엄금했던 것과는 매우 달랐다.⁶⁸ 약성이 강한 고가의 인삼을 음식 재료로 사용할 수 있었던 나라는 조선이 유일했을 것이다.

이상을 종합해보면 비위를 보하는 데 좋은 재료로 익히 알려진 인삼과 닭이 각각 인삼고와 계고로 사용되다가 19세기 중엽 이후 그 효능을 극대화하기 위해 두 재료를 합하여 삼계고나 계삼고라는 새로운 처방으로 발전한 것으로 추측된다. 무엇보다 조선 후기 가삼 재배 성공은 인삼의 생산을 급증시켜 가격을 상당히 낮추었다. 이는 귀한 약재를 일상의 음식 재료로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었다. 또한 Ⅱ장의 조선시대 식치와 국물음식에서 언급했듯이 고는 매우 진한 상태이지만 이를 묽게 하면 탕, 백숙 등 국물음식으로 전환이 가능해 의약인 삼계고나 계삼고가 음식인 삼계탕으로 발전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66 李圭景, 『五洲衍文長箋散稿』, 「人蔘詩文辨證說」我東家蔘, 創自正廟 初年, 至純廟中葉始盛, 遍于一域, 今則其賤如桔梗矣; 고승태, 2020, 「조선 최초의 가삼 재배지에 대하여」, 『인삼문화』 2, 17~26쪽.

67 李圭景, 『五洲衍文長箋散稿』, 「諸膳補遺辨證說」人蔘煎果 古无此也, 近者家蔘賤如薺萵吉更至賤故有此也. 取家蔘去芦頭括龜皮切片不烹直入煉蜜中, 鍋忌鉄, 故用銅鍋或銀石器沸熬色如琥珀色取起入砂甌中, 灌蜜密封聽用. 이 보다 앞서 조선 왕실에서 의례용으로 인삼정과를 사용한 기록이 있다. 『英祖實錄』英祖 7年 12月 26日.

68 今村軀, 1935, 『人蔘史』 2, 朝鮮總督府專賣局, 234쪽. 김선미, 2015, 「17-18세기 청대 인삼 정책의 변화」, 『中國學報』 74, 419쪽 재인용.

4. 근대 조리서의 닭요리

1900년대 이후 근대기에 들어서면서 이전 조리서에서 주요한 닭요리였던 칠향계, 연계찜은 거의 사라지는 대신 닭국이나 백숙이 등장한다. 근대 조리서의 닭국과 백숙, 영계백숙의 조리법은 닭 속에 인삼가루와 찹쌀을 넣고 쏟아지지 않게 잡아 매 끓인 것으로 오늘날의 삼계탕과 거의 일치한다.

최초의 근대 조리서인 1917년 방신영(方信榮, 1890~1977)의 『조선요리제법(朝鮮料理製法)』에 있는 닭국 조리법이다.

『조선요리제법』 닭국⁶⁹

닭을 잡아 내장을 빼고 그 뱃속에 찹쌀 3숟가락과 인삼가루 1숟가락을 넣고 쏟아지지 않게 막아서 잡아 맨 후 물을 열 보시기쯤 붓고 끓이느니라.

닭국은 약재인 인삼이 들어감에도 인삼을 음식 이름에 내세우지 않았지만 조리법은 오늘날의 삼계탕과 기본적으로 동일하다. 『조선요리제법』은 당시 양반가의 요리법을 담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시 말해 20세기 전후 양반가의 닭을 끓인 국물음식에는 인삼 사용이 보편적이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이후 출간된 이용기의 『조선무쌍신식요리제법』(1924년)의 닭국과 1934년 이석만의 『간편조선요리제법』의 백숙 조리법도 닭 속에 찹쌀과 인삼을 함께 넣고 빠지지 않게 매어 조리하는 것으로 『조선요리제법』의 닭국과 만드는 법이 동일하다. 따라서 근대기 닭국, 백숙으로 명명된 요리는 기본적으로 닭 속에 찹쌀과 함께 인삼가루를 넣고 끓인 것이었다.

귀한 약재인 인삼을 사용했으면서도 특별히 요리명에 내세우지 않았다는 것은 닭요리에 인삼을 사용하는 것이 매우 일반적이라는 것의 방증일 수 있다. 이는 앞서 인삼 재배가 성공하여 인삼 수급이 용이해지면서 음식 재료로 수용되었

69 원문의 표기 방식을 그대로 따랐다.

기 때문일 것이다. 다만 보관 문제 등으로 수삼을 사용하지 않고 말린 인삼 가루의 형태를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현대 냉장기술의 발달로 보관 문제가 해결된 후에야 수삼의 사용이 보편화될 수 있었을 것이다. 인삼 모양을 그대로 유지한 수삼의 사용은 삼계탕의 약리 효용뿐 아니라 시각적 효과도 극대화시켰다.

한편, 북한에서는 현대에도 인삼닭곰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데, 만드는 법은 기본적으로 삼계탕과 동일하다. 사용하는 도구가 약탕관인 것은 인삼닭곰은 약의 성격이 매우 강했던 음식임을 시사한다.⁷⁰

인삼닭곰

인삼닭곰은 닭에다 인삼을 넣어 오래 끓여 만든 것을 말한다. 인삼닭곰은 사람들의 식욕을 돋우고 장기들을 보호하는 강장보신제로서 장생불로약으로 효과가 높다. 인삼닭곰 만드는 방법은 닭의 배 속에 내장을 다 꺼낸 다음 거기에 찹쌀 서너순가락 정도, 인삼 두세 뿌리 정도 넣고 실로 배를 꿰매고 닭을 약탕관에 넣고 4~5시간 푹 삶으면 된다.

약재를 일상 음식의 식재로 사용한다는 것은 여러 조건이 부합해야 가능하다. 우선 그 사회에 해당 약재, 인삼에 대한 이해가 매우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약재는 약성과 동시에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 재료여서 일상적인 식재와는 달리 조심스럽게 다뤄야 한다. 약재인 인삼이 일반적인 음식의 재료가 된 것은 그만큼 인삼에 대해 잘 알고 다룰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한다. 조선시대 사대부 계층에게 의학 지식은 보편적으로 요구되는 상식에 가까웠고, 전통적인 식치의 개념과 식치방이 조선 후기 이후에 보편적 지식으로 유통된 것은 약재가 음식으로 수용되는 데 주요한 동인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인삼이 식재료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공급이 충분해야 하며, 가격 또한 음식으로 수용될 정도로 낮아져야 한다. 앞서 살펴본 대로 가삼 재배의 성공은 인삼의 공급을 원활히 하고, 가격

70 왕성수·박철범, 2003, 앞의 책, 119쪽.

또한 상당히 낮추는 결과를 낳았다. 이런 사회경제적 변화가 닭국과 백숙에 인삼이 사용되는 데 중요한 요인이 되었을 것으로 판단되며 삼계탕이 발달하는 데 중요한 배경이 되었다고 본다.

IV. 맺음말

이상으로 삼계탕의 연원과 발달 배경을 규명하고자 의학과 조리서, 그리고 조선시대 회화의 제발문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검토를 시도했다. 이를 통해 한국 음식문화의 발달에 사상적 배경이 된 의학 사상인 식치가 국물음식 발달에 끼친 영향을 밝혔으며, 조선 후기 인삼의 재배 성공이 삼계탕 발달에 중요한 요인일 가능성을 제시했다.

주식인 곡류로 만든 밥을 먹기 위한 반찬 중 가장 중요하게 자리 잡은 국은 조선시대 후기부터 탕과 곰, 고음, 백숙을 포섭하는 정황이 보였다. 음식과 약이 같은 근원이라는 약식동원과 약보다 음식으로 몸을 먼저 다스려야 한다는 식치 개념이 발달하면서 식치방으로 고와 탕이 발달했고, 점차 반상의 국으로 수용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삼계탕 발달 과정을 재료 유사성을 기준으로 살펴보았을 때 조선 후기 의약 처방인 삼계고와 계삼고가 국물음식인 닭국 또는 백숙으로 변화하고, 다시 명칭이 삼계탕, 또는 인삼닭곰으로 변화한 것으로 보인다. 닭을 통째 사용하여 재료를 닭 속에 넣어 모양을 유지하는 것도 삼계탕의 형태적 특징으로 볼 수 있는데, 그 시원적 모습은 조선 전기 식치방 『식료찬요』부터 보인다. 출산 후 허증을 보하기 위해 곡류인 멍쌀과 식물 뿌리 약재인 생백합을 넣은 식치방은 오늘날 삼계탕과 모양, 재료, 먹는 방법 등 여러 측면에서 유사성이 매우 높았다. 조선시대 왕실에서는 지속적으로 새로운 식치방이 시도되어 만들어졌기 때문에 어느 시점 계고에 인삼이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한편, 삼계탕이 본격적으로 발달하는 데는 17~18세기 가삼 재배의 성공으

로 인삼의 공급이 원활해진 사회경제적 변화가 중요한 배경이 된 것으로 보인다. 귀한 약재가 일상의 음식 재료가 되기 위해서는 사회 전반에 관련 지식이 보편적으로 퍼져 있어야 할 뿐 아니라 충분히 음식으로 소비할 수 있는 정도의 가격으로 공급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18세기 가삼이 재배되면서 가격이 낮아지자 민간에서도 인삼을 음식 재료로 사용하기 시작했다. 근대 인삼을 음식 이름에 드러내지 않았던 닭국과 백숙에 인삼이 사용된 것은 닭 국물음식에 인삼 사용이 보편적이었다는 방증으로 봐야 하며, 그렇기 때문에 삼계탕을 근대가 만들어낸 음식이라고 보는 것은 부당하다. 오히려 삼계탕은 이름 이전에 이미 한국의 음식문화에 자리 잡았다고 봐야 할 것이다.

한 사회의 음식문화 형성에는 자연환경과 사회적 여건으로 결정되는 자원의 수급이 절대적인 영향을 끼친다. 이와 더불어 사회 전반에 공유되는 사상과 지식도 음식문화 형성에 영향을 끼친다. 자원 수급이라는 물질적 측면이 기본적인 음식문화 형성에 영향을 끼친다면, 사상적 측면은 음식문화가 특수하게 발전하는 데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본다. 그렇기 때문에 삼계탕을 비롯한 여러 한국 전통 음식을 단순히 생존과 맛을 위한 음식을 넘어 그 속에 역사와 사상과 지식과 문화가 어우러진 문화유산으로 재인식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자료

- 『三國史記』.
『承政院日記』.
『是議全書』.
『英祖實錄』.
『園幸乙卯整理儀軌』.
『宜集』.
康命吉, 『濟衆新編』.
金允植, 『續陰晴史』.
徐有渠, 『林園經濟志』.
安東張氏, 『음식디미방』.
吳世昌, 『槿域書畫徵』.
李圭景, 『五洲衍文長箋散稿』.
李漢, 『星湖僊說』.
李濟馬, 『東醫壽世保元』.
全循義, 『食療纂要』.
崔世珍, 『訓蒙字會』.
許浚, 『東醫寶鑑』.
洪萬選, 『山林經濟』.
黃泌秀, 『名物紀畧』.
- 方信榮, 1917, 『朝鮮料理製法』, 新文館·廣學書舖.
李爽萬, 1934, 『簡便朝鮮料理製法』, 三文社.
李用基, 1924, 『朝鮮無雙新式料理製法』, 韓興書林.

단행본

- 간송미술문화재단, 2010, 『澗松文華』, 79.
- 姜仁姬, 1979, 『韓國食生活史』, 三英社.
- 국립민속박물관, 2005, 『한국세시풍속사전: 여름편』, 국립민속박물관.
- 농업진흥청, 2004, 『국역 식료찬요』, 농업진흥청.
- 오세창·동양고전학회 번역, 1998, 『근역서화징』, 시공사.
- 왕성수·박철범, 2003, 『천년고도 개성』, 은방울사.
- 유승주·이철성, 2002, 『조선후기 중국과의 무역사』, 경인문화사.
- 윤서석, 1997, 『한국음식대관1』, 한국문화재보호재단.
- 李盛雨, 1985, 『韓國料理文化史』, 敎文社.
- 이시필, 2011, 『소문사설, 조선의 실용지식 연구노트』, 휴머니스트.
- 조풍연, 1989, 『서울잡학사전』, 정동출판사.
- 주영하, 2013, 『식탁 위의 한국사』, 휴머니스트.
- 한식진흥원, 2021, 『2020 해외 한식 소비자 조사』, 한식진흥원.

논문

- 고승태, 2020, 「조선 최초의 가삼 재배지에 대하여」, 『인삼문화』 2.
- 구도영, 2017, 「16세기 조선 對明 使行貿易의 수출품 구성과 그 추이」, 『국학연구』 34.
- 김귀영, 2003, 「한국 식문화에 있어서의 국(湯)」, 『동아시아식생활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 김두헌, 2010, 「조선 후기 京衙前 書吏 가계 연구 - 承文院 書吏 馬聖麟(1727~1798) 가계의 사례 -」, 『鄉土서울』 76.
- 김선미, 2015, 「17-18세기 청대 인삼 정책의 변화」, 『中國學報』 74.
- 金泰珉, 1989, 「담요리의 調理史의 考察」, 『가정문화연구』 7:9.
- 김현경, 2016, 「조선 왕실의 食治法과 특징연구: 승정원일기를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호, 2008, 「조선의 食治 전통과 王室의 食治 음식」, 『朝鮮時代史學報』.
- 박혜연 외, 2014, 「한식 세계화를 위한 내국인과 국내 체류 외국인의 한국음식 선호도와 한식에 대한 인식」, 『동아시아식생활학회지』 24-2.
- 송지혜, 2020, 「조선 시대 필사본 한글 음식조리서의 탕류 음식명 연구」, 『국어사연구』 30.

- 안상영 외 4인, 2008, 「食治의 개념 정립 및 적용 이론의 이해」, 『한국한의학연구원 논문집』 14-2.
- 염정섭, 2003, 「18세기 家蓼 재배법의 개발과 보급」, 『국사관논총』 102, 국사편찬위원회.
- 이성우, 김정진, 이효지, 1983, 「韓國飲食用語의 文獻的 研究」, 『한국식품영양과학회지』 12-2.
- 이윤경 외, 1992, 「고음국에 관한 문헌적 고찰」, 『韓國食生活文化學會誌』 7-4
- 송지혜, 2020, 「조선시대 필사본 한글 음식조리서의 탕류 음식명 연구」, 『국어사연구』 30.
- 전민경, 2016, 「『帽巖詩會圖』에 대하여」, 『한국한문학연구』 64.
- 정은주, 2012, 「조선 후기 가삼(家蓼) 재배와 『삼서(蓼書)』」, 『한국실학연구』 24.
- 지옥영, 2003, 「『濟衆新編』을 통해 살펴본 康命吉의 의학사상」, 『Digital 濟衆新編』, 한국한의학연구원 학술정보부.
- 千素英, 1984, 「飲食物名語 攷(1)」, 『(水原大學校) 論文集』 2.
- 총용, 2011, 「韓·中 出産儀禮의 風俗 比較 研究」, 부산외국어대학교, 국내 석사학위논문.

기타

-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https://stdict.korean.go.kr/main/main.do>
- 국립민속박물관, 한국민속대백과사전, <https://folkency.nfm.go.kr/main>
-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 <https://db.itkc.or.kr/>
- 한의학연구원, 한의학과고전DB, <https://mediclassics.kr/>
- 한국전통지식포탈, <https://www.koreantk.com/ktkp2014/>

삼계탕(蔘鷄湯)의 연원과 발달 배경에 관한 연구

정희정

이 글은 한국의 대표적인 음식 중 하나인 삼계탕(蔘鷄湯)의 연원과 발달 과정을 추적한 연구이다. 특정 음식의 발달을 구체적으로 규명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나 한 공동체의 음식문화 형성에는 물질적 측면과 함께 사상적 측면도 작용한다는 논리하에 음식문화사, 동양의학사, 미술사에 걸친 통합적 발달사 추적을 시도했다.

한국 음식문화 중 한 특성인 국물음식의 발달에 사상적 측면에서 한의학 사상 식치(食治)와 인삼이라는 고가의 약재가 음식 재료로 사용될 수 있었던 물질적 측면을 함께 고찰함으로써 우리나라에서 삼계탕이 발달할 수 있었던 배경을 살펴보았다.

먼저 약의 성격을 가졌던 탕과 곰이 일상의 식사로 편입되는 배경에는 한의학 사상인 식치가 작용했으며 이는 국과 관련한 탕(湯), 고음(膏飮)과 곰, 백숙 등 용어가 이를 증명한다. 삼계와 관련해 이들 용어가 모두 사용되었으며 이들 사이의 관계를 통해 삼계탕의 연원 추적이 어느 정도 가능했다. 닭 속에 곡류와 약재를 넣고 삶아 삼계탕과 조리법 및 형태는 동일하며 재료가 유사한 음식이

조선 전기 『식료찬요』부터 보이며, 주요 재료인 인삼이 조선 후기 재배 성공으로 공급이 급증하면서 귀했던 약재를 음식 재료로 사용할 수 있는 배경이 되었다고 본다.

삼계탕을 통해 한국 음식문화가 형성되는 데 자원 사용 가능이라는 물질적 측면과 건강, 의학이라는 사상적 측면이 끼친 영향을 이해하는 틀을 제공하고자 했다. 이 글은 통해 삼계탕이라는 구체적인 용어의 사용에 앞서 삼계탕에 해당하는 음식을 한반도에서 오래전부터 먹어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주제어: 삼계탕, 식치, 국, 탕, 고, 고음, 백숙, 인삼, 닭, 음식문화

ABSTRACT

Research on the Origin and Background of Samgyetang

Chung Heechung

This study focuses on samgyetang, which is recognized as one of Korea's signature dishes. This study traces the origin of samgyetang completed with a unique combination of ginseng, an expensive medicinal herb, and grains cooked together in the stomach of a chicken.

It is nearly impossible to concretely pinpoint the origins and development of a specific food. However, based on the logic that the formation of a community's food culture involves both material and ideological aspects, I attempted an integrated tracing of developmental history that spans food culture history, oriental medicine history, and art history.

From the ideological perspective of the development of soup dishes, a distinguishing trait of Korean food culture, I examined the background that allowed the development of samgyetang in Korea by

contemplating the oriental medicine ideology of alimentotherapy in ideological aspects as well as the material aspects of how the expensive medicinal ingredient ginseng could be used as a food ingredient.

First, the oriental medicine ideology of dietary treatment was behind the incorporation of tang and gom into everyday meals, as evidenced by terms related to soup such as tang, goeum, go, and baeksuk. In the context of samgye, these terms were all used as names for food with medicinal connotations,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m makes it possible to trace the origins of Samgyetang to some extent. In addition, the key ingredient ginseng was directly affected by the change in supply and demand caused by the success of artificial cultivation in the late Joseon Dynasty.

Through samgyetang, this study sought to provide a framework for understanding the influence of material aspects of resource availability and ideological aspects of health and medicine in shaping Korean food culture. This study confirmed that even before the specific term “samgyetang” was used, the food equivalent to samgyetang had been eaten on the Korean Peninsula for a long time.

Keywords: samgyetang, alimentotherapy, soup, tang, go, goeum, baeksuk, ginseng, chicken, food culture

중일전쟁시기 소련의 대(對)중국 신용차관과 ‘역화(易貨)’교역

정형아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군사사부 부장

- I. 머리말
- II. 중소 차관협정의 논의와 체결 과정
- III. 차관협정의 내용과 사용
- IV. 차관 상환 중의 문제점
- V. 맺음말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I. 머리말

중국은 정치, 경제, 군사, 및 사회제도 등 전반적인 측면에서 근대국가 체제를 갖추기 위한 국가건설과, 이념 갈등으로 인한 국가분열의 극복이라는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해결해야 하는 가운데 일본의 침략을 맞았다. 만주사변 이후 시작된 일본의 무력 압박이 1937년의 전면적인 중일전쟁으로 본격화되면서 중국은 간신히 내부적인 통합을 이루어낼 수는 있었지만, 전쟁을 위한 군사, 경제적 뒷받침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었다. 구미 국가들은 대공황 혹은 자국의 외교방침으로 인해 동아시아 분쟁에 개입할 의사가 없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이 일본에 맞서 전쟁을 지속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해준 나라가 바로 소련이었다. 따라서 일부 중국학자는 중일전쟁 초기, 적어도 태평양전쟁 발발 이전에 소련은 중국에 원조를 제공한 거의 최대이자 유일한 나라였다고도 한다.¹ 물론 1938년 미국이 중국과 상업무역 형식의 동유(桐油)차관협정을 맺어 2,500만 달러의 동유차관을 제공하였고, 중국은 미국에서 공산품과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었다는 사실로 인해 소련이 전쟁 초기, 중국에 대한 유일한 원조국이라는 주장에는 이견이 있을 수도 있다.² 그러나 단적으로 차관협정의 금액만 비교해보더라도 미국의 동유차관은 소련이 약속한 차관총액의 10분의 1에 불과한 것이었으며, 중국이 필요로 한 군수물자는 구입할 수 없었다. 따라서 태평양전쟁이 발발하여

* 투고: 2023년 4월 4일, 심사 완료: 2023년 5월 3일, 게재 확정: 2023년 5월 12일

1 王真, 1993, 『動蕩中的同盟: 抗戰時期的中蘇關係』, 桂林: 廣西師範大學出版社; 李嘉谷, 1996, 『合作與衝突: 1931-1945年的中蘇關係』, 桂林: 廣西師範大學出版社; 羅志剛, 1998, 『中蘇外交關係研究(1931-1945)』, 武漢: 武漢大學出版社; 沈慶林, 2000, 『中國抗戰時期的國際援助』, 上海: 人民出版社; 沈志華主編, 2007, 『中蘇關係史綱, 1917-1991』, 北京: 新華出版社 등.

2 沈慶林, 2000, 위의 책, 58쪽.

미국이 본격적으로 중국을 지원하기 이전 중소 양국 관계의 ‘밀월’이었다고 묘사하기도 한다.³

여기에서 우리는 전쟁 시기에 자주 등장하는 ‘원조(援助)’라는 용어에 대해서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다. 사전적인 의미에서 ‘원조’라는 말은 경제적·군사적 또는 인적·정신적 지원을 의미한다. 특히 강자 혹은 부유한 자가 약자 혹은 빈곤자에게 “은혜를 베푼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 대등한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 “대등한 입장에서 상호이익을 추구하는 행동”에는 ‘협력’이라는 표현이 더 타당하다.⁴ 이러한 의미의 차이에 근거해 생각해보면 중일전쟁 초기 소련의 대중국 차관문제는 중소협력에서 어떠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을까?

중일전쟁 시기 소련은 중국에 군사고문과 항공지원대 등의 인력과 비행기, 탱크를 비롯한 대량의 물자를 제공하였다. 그중 물자는 세 차례의 차관협정을 통해 약속한 차관 금액의 범주에서 제공하였는데, 약속한 총액은 미화 2억 5,000만 달러였고, 실제로 집행된 금액은 1억 7,317만 5,810.36달러였다. 장제스(蔣介石)가 이끄는 중화민국 정부는 중일전쟁의 주역이었으면서도 1949년 결국 타이완으로 패주하였고, 그 원인(遠因)을 중일전쟁 시기 중소협력에서 찾기도 하였다. 그러나 타이완 학계는 대체로 중소협력을 부정이라도 하듯 그에 대한 연구를 소홀히 하였고, 중미관계 연구에만 치중하였다.⁵ 반면, 중국학계는 1990년을 전후로 중소관계에 관한 연구 성과를 내놓기 시작하였다. 다만, 대다수 중국연구자들은 ‘원조’와 ‘밀월’ 등의 용어로 표현하며 소련의 인적·물적 ‘원

3 王真, 2003, 「抗戰時期中蘇國家關係中的意識形態問題」, 『抗日戰爭研究』 2003年第10期.

4 정치학대사전편찬위원회, 2002, 『21세기 정치학대사전』, 아카데미아리서치, 1680쪽.

5 梁敬鎔, 1970, 『抗戰後期之中美關係』, 台北: 國防研究院; 李榮秋, 1978, 『珍珠港事變到雅爾達協定其間的美國對華關係』, 台北: 私立東吳大學中國學術著作獎助委員會; 郭榮趙, 1979, 『從珍珠港到雅爾達: 中美戰時合作之悲劇』, 台北: 中國研究中心出版社 등

조'가 도의적 차원에서 중국을 지원한 것이고 중국의 항전을 지속할 수 있는 원동력이었다고 후하게 평가하면서도⁶ 차관제공, 중국의 상환조건 등 원조방식에 대해서는 비교적 소략하여 다루었다. 이들 대부분은 중국의 중소관계 연구의 비교적 초기 연구자들이었다. 반면, 최근의 신진연구자 중에는 객관적인 태도를 견지하면서 이것이 일방적으로 중국에만 유익한 원조가 아닌 동쪽 변경의 안전과 전략물자를 확보하고자 하는 소련에게도 이득이었다고 지적하는 이들도 있다.⁷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중국은 일본의 침략이 노골화되자 구미 국가들의 도움을 모색하였다. 그러나 이들 국가는 자신들의 외교방침이나 이익에 근거하여 중국과 일본의 분쟁에 개입하기를 거부하였다. 특히 미국은 독립전쟁 이후 전통적인 중립외교에 근거하여 군사적으로든 경제적으로든 불개입을 표방하였다.⁸ 결국 중국은 다른 선택지를 찾지 못하고 소련에 구원을 요청하였으며, 1937년 8월 21일 소련과 불가침조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중소 양국은 세 차례에 걸쳐 미화 총 2억 5,000만 달러의 신용차관협정을 체결하였다. 실제로는 이 금액의 70% 정도밖에 이행되지 못하였지만, 태평양전쟁이 발발하기 전까지 중국은 이 차관을 통해 전쟁에 필요한 무기를 구매하고 일본과 전쟁을 지속할 수 있었다.⁹ 그리고 소련은 중일전쟁 초기 중국의 최대 '원조국'이라는 평가도 얻었다.

이들 연구와 평가를 검토한 후, 필자는 두 가지 사항을 주목하게 되었다. 첫째, 소련이 제공한 '협력'의 내용과 조건이다. 둘째, '협력'의 성격과 의미이다. 중국이 소련에게 제공받은 신용차관을 사용하여 소련의 무기를 구입하게 되었다는 점은 주요하다. 그런데도 지금까지 이 방면의 연구가 미약했던 가장 큰

6 각주1) 참조.

7 孫月華, 2008, 「抗戰時期蘇聯援華的主要方式:中蘇易貨借款」, 『泰山學院學報』第30卷第4期

8 정형아, 2019, 『동아시아 전후처리와 중·소갈등(1941-1952)』,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21쪽.

9 정형아, 2018, 「차선의 파트너: 1931-1941년 중소양국의 협력관계 연구」, 『중국 근현대사연구』 제77집, 193쪽.

원인은 아무래도 자료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중소관계 연구는 아직도 중소 양측의 자료발굴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고, 공개된 자료도 종합적이지 않은 일부 자료라는 한계점이 있다. 이 글은 유사한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다만 이 글은 중국 제2역사당안관이 소장한 차관과 상환 관련 자료와 일부 번역된 러시아 자료 및 국민정부 측 자료를 상호 보완하여 신용차관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 어떠한 조건으로 약속되고 사용되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제한된 범위에서의 접근이기는 하나 중일전쟁시기 국제관계와 전시협력을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밀월관계’라고도 표현되는 중일전쟁 시기의 중소관계에서 그 기반이 되는 ‘원조’의 성격을 중소 양국 사이에 체결된 ‘차관협정’의 내용과 차관의 상환과 사용을 통해 확인해보려고 한다.

II. 중소 차관협정의 논의와 체결 과정

1937년 중일전쟁이 발발하자 소련은 중국과 불가침조약을 체결하였고 중국에 군사지원도 시작하였다. 중국은 여러 나라로부터 군수물자의 지원을 모색하고 있었고, 구미 국가와 더 우선적인 협력을 원하기는 했으나, 소련과의 협력도 고려하고 있었다.¹⁰ 소련 학자 티토프(A. C. Титов)의 연구에 따르면, 1935년 10월 국민정부 재정부장 쿵상시(孔祥熙)는 장제스의 지시로 주중 소련전권대표 보저몰로프(Д. В. Богомолов)를 만나 소련의 무기 장비를 중국에 제공할 수 있는지 타진하였다.¹¹ 중국정부 측 자료에는 이와 관련된 보고가 보이지 않지만,

10 1936년 국민정부 재정부장 쿵상시(孔祥熙)는 영국 국왕 조지 6세의 대관식 참여를 위해 유럽을 방문하면서 아울러 유럽 각국도 방문하여 원조와 무역 관련 사무를 추진하라는 임무를 부여받았다. 中國社會科學院近代史研究所 譯, 1985, 『顧維鈞回憶錄』第二分冊, 北京: 中華書局, 356쪽.

11 A. C. Титов, 1981, *Борьба за единый национальный фронт в Китае, 1935-1937*, М. л.109; 羅志剛, 1998, 앞의 책, 127쪽 재인용.

쿵샹시가 소련 측과 군수물자 제공에 대해 논의했다는 사실을 당시 주프랑스 대사로 재임 중이던 구웨이쥔(顧維鈞)의 회고록에서 발견할 수 있다. 회고록에 따르면, 쿵샹시는 구웨이쥔에게 보거몰로프와 대화한 사실을 전했고, 1936년 10월 제네바에서 구웨이쥔을 만난 소련외교인민위원 리트비노프(М. М. Литвинов)도 보거몰로프가 대중국차관 제공을 건의하였다고 알렸다. 이 사안에 대해 구웨이쥔은 보거몰로프가 5,000만의 차관 제공을 건의하였으나, 그 단위가 미화 달러인지, 중국의 위안(元)인지 불분명하다고 기억하였다.¹²

1936년 말 소련주재 중국 대사 장팅푸(蔣廷黻)를 만난 리트비노프는 당시 국제 상황에서 볼 때 소련은 중국에 군수물자를 직접 원조하기는 어려우나 우선 양국이 불가침조약을 체결하고 이에 근거하여 소련은 중국에 무기 구매를 위한 차관 제공을 고려할 수 있다고 하였다.¹³ 아직 전면적인 중일전쟁이 발발하기 전이었지만, 중국과 소련은 차관제공에 대해 초보적인 의사를 주고받은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 후 실제로 전쟁이 발발하자 중소 양국은 불가침조약을 체결하였고, 그에 따라 차관과 군수물자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었다.

원래 중국이 원하는 소련과의 협력형태는 ‘상호원조조약’을 기반으로 하여 소련의 출병 가능성을 열어둔 협력이었다.¹⁴ 반면, 소련은 상대국의 전쟁 상황에 대해 적대적인 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비교적 중립적인 성격의 불가침조약을 체결하되, 중국이 필요로 하는 군수물자를 제공하겠다고 제안하였다. 전쟁이 발발하자 장제스는 상호원조조약을 고집하지 않고 소련의 의견을 받아들였으며, 1937년 8월 21일 양국은 상호불가침조약을 체결하였다.

실제로 전쟁이 발발하자 중국은 무기의 확보가 시급해졌고, 소련에 차관과 비행기의 제공을 긴급히 요청하였다.¹⁵ 조약을 체결한 8월 21일, 소련 외교인민

12 中國社會科學院近代史研究所 譯, 1985, 앞의 책, 356~357쪽.

13 蔣廷黻, 2003, 『蔣廷黻回憶錄』, 長沙: 嶽麓書社, 205쪽.

14 정형아, 2022, 「조약 논의 과정을 통해 본 중소관계의 변화, 1931-1941」, 『인문과 학연구논총』 제43권 3호 참조.

15 李玉貞, 1992, 「中蘇外交文件選擇(下)」, 『近代史資料』總80號, 208쪽.

위원부의 부외교인민위원 스토모니아코프(Б. С. Стомоняков)는 주중 소련전권대표 보거몰로프에게 전보를 보내 장제스가 요구한 차관과 물자에 대한 소련 정부의 의견을 전달하였다. 그 요점은 기본적으로 중국의 요구에 응하여 차관과 물자를 제공하겠다는 것, 계약통화는 달러화나 파운드화로 하며, 무엇보다 차관에 대해서는 총액의 4분의 3은 중국의 금속광물(주석, 텅스텐, 안티몬, 니켈 등), 그리고 4분의 1은 차와 같은 물자로 상환하되 차관 금액의 4분의 3에 해당하는 금속을 충족할 수 없으면 나머지 금액은 달러나 파운드 등의 외환으로 상환한다는 것이었다.¹⁶

1930년대 경제대공황과 만주사변 등의 여파로 중국은 외화보유액이 적었다. 여기에 1937년 전쟁이 발발하자 7~8월 사이에 상하이(上海), 저장(浙江)의 중앙은행, 중국은행, 교통은행 등 대표적 시중은행에서는 해외도피자금을 위한 외화를 구매하는 사례가 급증하였고, 그에 따라 이들 은행의 외화보유액이 16~17% 수준으로 낮아졌다.¹⁷ 중국의 외화보유액이 매우 적은 상황이므로 소련은 처음부터 현금이 아닌 자신들이 필요로 하는 전략적인 금속 광물과 일부 농산물 등의 물자 상환을 기대하였던 것이다.

그로부터 1주일 후 보거몰로프는 당시 국민당의 중앙집행위원회의 실세였던 천(陳)씨 형제의 동생인 천리푸(陳立夫)와 군수물자 제공에 관해 다음과 같은 개략적인 합의를 이루었다.¹⁸

(가) 차관 총액은 1억 중국위안

(나) 영국 파운드로 결제

(다) 차관은 물품이 인도된 후 6년간 상환하나 첫 번째 연도는 상환하지 않고 그 후 5년간 나누어 상환

16李玉貞, 1992, 앞의 글, 216쪽.

17黃如棟, 1987, 「抗戰時期國民黨政府外匯政策概述及評價」, 『近代史研究』 1987年第4期, 191쪽.

18李玉貞, 1992, 앞의 글, 219~220쪽.

(라) 소련 측 제공 물품 중에 비행기 200대와 탱크 200대 포함

(마) 차관 금액의 4분의 3은 금속광물, 4분의 1은 찻잎 및 기타 물품으로 상환

이 밖에 상세한 내용의 조약은 모스크바에서 체결하고, 중국정부는 가까운 시일 안에 제공할 수 있는 광물 목록과 수량을 소련에 고지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18명으로 구성된 중국대표단이 신속히 모스크바로 갈 수 있게 이 미 비자를 발급했다고 보르몰로프는 보고하였다.

이에 따라 9월 9일 양제(楊杰)를 단장으로 하는 중국대표단이 소련을 방문하여 소련 군부와 원조에 관해 회담을 가졌다. 이때 회담에서는 비행기와 탱크, 대전차포 등 구체적인 무기와 물자 지원, 그리고 수송방법 등에 관해 협의하였다. 다섯 차례의 회담을 통해 이들 무기는 기본적으로 소련이 중국에 제공할 차관으로 구매하는 형식을 취하기로 하였지만, 구체적인 차관금액과 상환방법에 대해서는 확정하지 않은 상황이었다.¹⁹ 다만, 중국대표단의 부단장 장충(張冲)은 회담 중에 “중소물자구매협정 제6조에 안티몬, 주석 등 금속품과 차, 식물유 등의 상품가치에 따라 교환하는 방식으로 상환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 장(제스) 위원장은 우리나라(중국)가 지금 전쟁 중이어서 교통이 매우 불편하니 금속품을 줄이고 차와 식물유를 늘리자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소련 측에 전하였고, 소련 측 대표는 국방인민위원 보로실로프(К. Е. Ворошилов)에게 장위원장의 뜻을 전하겠다고 하였다.²⁰ 이때 장충이 언급한 물자구매협정은 사실 아직 체결된 것이 아니므로, 논의 중인 차관과 물자구매협정 초안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양측의 회담이 아직 진행 중이던 9월 말 중국이 가장 시급하게 요구했던 비행기를 포함한 일부 물품의 수송이 시작되었다. 물자원조를 전제로 하고 상호보

19 中國第二歷史檔案館編, 1987, 「中國軍事代表團與蘇聯軍方五次商談援華抗日械彈記錄稿」, 『民國檔案』1987年第3期, 33쪽.

20 中國第二歷史檔案館編, 1987, 위의글, 33쪽.

가침조약을 체결하기는 하였으나, 아직 차관금액, 상환방법과 내용이 구체적으로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물자원조를 시작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것이었다. 또한 물자 인도가 이미 시작되었고, 중국대표단과 스탈린의 회담에서도 스탈린이 먼저 중국의 군사공업을 지원하겠다는 등 적극적인 지원의사를 표명하였으므로,²¹ 차관협정에 관한 논의도 즉시 진행되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차관 논의가 시작된 것은 1938년 1월 국민정부 입법원장 쑨커(孫科)가 모스크바를 방문했을 때였다.

중국은 3차에 걸쳐 모스크바에 대표단을 파견하였는데²² 쑨커는 제2차 대표단의 단장이었다. 1월 말 스탈린(И. В. Сталин)은 쑨커에게 1, 2차에 걸쳐 차관을 각각 5,000만 달러씩 제공하겠다고 하였고, 쑨커는 2차 차관으로 1억 달러 제공을 요청하였다. 이에 스탈린은 2차 차관 5,000만 달러를 다 사용하고 나면 다시 3차 차관을 제공하겠다고 하였다.²³ 그 후 중소 양측 대표는 1938년 3월 1일과 7월 1일에 각각 제1, 2차 소련의 대중국 신용차관 협정을, 1939년 6월 13일에 제3차 신용차관 협정을 확정하였다.²⁴ 세 차례에 걸친 양국의 신용차관협정에서 1,2차 협정은 상환시점을 제외한 모든 조건이 동일했고, 3차 협정도 금액, 상환 시점과 기한을 제외한 다른 조건이 같았다.

21 (俄)謝·列·齊赫文斯基編(類傑·左鳳榮譯), 1996, 「1937-1939年蔣介石同斯大林·伏羅西洛夫的通信」, 『民國檔案』 1996年第3期, 60쪽.

22 1차 대표단은 1937년 9월 양제가, 2차 대표단은 1938년 1월 쑨커가, 3차 대표단은 1939년 12월 허야오주(賀耀組)가 이끌었다.

23 Aichen Wu, 1950, *China and the Soviet Union: a study of Sino-Soviet relations*, New York: J. Day Co. p. 268; 羅志剛, 1998, 앞의 책, 130~131쪽 재인용.

24 中國第二歷史檔案館(李嘉谷·馮敏 整理), 1996, 「抗戰時期三個蘇聯對華信用借款條約」, 『近代史資料』總第89號, 北京: 中國社會科學出版社, 187~198쪽.

III. 차관협정의 내용과 사용

II 장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세 차례의 차관협정은 기본적으로 같은 조건으로 설정되었다. 요컨대 차관협정은 소련이 중국에 차관을 제공하고 그 금액 범위에서 중국이 소련의 군수물품과 유류품을 구매하였으며, 차관의 연이율은 3%로 하되, 중국은 차관을 물자로 상환하거나 달러나 파운드로 상환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실제 외화보유액이 매우 적은 중국이 외화로 상환하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웠다. 따라서 차관금액을 설정하고, 그 설정된 차관 금액 범위에서 물자를 주고 물자로 상환하는 방식을 채택하였으므로, 전시 중소 양국의 군수물자를 둘러싼 교역은 ‘역화(易貨)’, 즉 물물교환 방식이었다. 차관은 사용되기 시작한 1년 후부터 매년 일정 금액으로 상환하기로 하였다.

협정의 주요한 내용을 다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²⁵

(가) 차관 금액: 제1, 2차 차관액은 각각 5,000만 달러, 3차 차관액은 1억 5,000만 달러이며, 모두 연이율을 3%로 정하였다. 이는 그 전후 시기 다른 구미 국가에서 얻은 차관의 이율 6%에 비하면 매우 저렴한 것이었다.²⁶

(나) 상환 기한과 절차: 제1차 차관협정은 1938년에 합의가 이루어졌지만, 그 차관을 전제로 소련이 중국에 군수물자를 제공하기 시작한 것은 1937년 9월 말~10월 초였다. 따라서 1년 후인 1938년 10월 31일을 상환개시일로 잡고, 5년간 매년 원금 1,000만 달러와 이에 따른 이자를 동시에 상환하기로 하였다. 제2차 차관도 사용하기 시작한 1938년 7월 1일의 1년 후인 1939년 7월 1일부터 5년간 매년 원금 1,000만 달러와 이자를 상환하기로 하였으며, 제3차 차관은 1942년 7월 1일부터 원금을 갚기 시작하여 10년간 원금 1,500만 달러와 이자를 상환하기로 하였다.

25 中國第二歷史檔案館(李嘉谷·馮敏 整理), 1996, 위의 글, 187~198쪽.

26 沈慶林, 2000, 앞의 책, 27쪽.

- (다) 차관을 사용한 물품구매: 중국은 신용차관 범위 내에서 소련의 각종 공산품과 공업설비를 구매하고, 그 가격은 세계 시장에서 거래되는 동일한 품질의 가격에 따라 결정하며 물품인도 날짜의 달러시세로 환산한다.
- (라) 차관의 상환방법: 중국정부는 물품과 각종 원료로 신용차관을 상환하되 이들 물품과 원료의 가격은 소련으로 물품을 인도하는 날의 달러시세에 따라 달러로 가격을 정한다.
- (마) 차관상환을 위한 물품: (금속광물 및 농산물) 찻잎, 피혁, 양모, 안티몬, 주석, 아연, 니켈, 텅스텐, 생사, 동유, 약재, 붉은 구리, 모피로 하였다.²⁷

이렇게 체결된 협정으로 시작된 중소 양국의 실질적인 역화교역은 어떻게 추진되었는지 개략적으로 살펴보자.

사실 중국은 이전에도 물물교환 방식으로 교역을 진행한 적이 있다. 북벌을 거쳐 난징(南京)국민정부가 수립되고 소련과의 제1차 군사협력이 중단된 이후, 장제스는 독일과 군사 및 경제협력을 시작하였다. 전국을 통일한 국민정부는 신속히 경제발전과 군사건설을 실현하고 싶었다. 그러나 중국은 계속되는 일본의 침략 위협을 받고 있었고, 자본은 부족하였으며 기술도 낙후한 상황이었다. 무엇보다 낮은 외화보유액으로 전략적인 군수물자와 원료도 확보하기 어려웠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은 독일과 물물교환 방식으로 무역 문제를 해결하였다.²⁸

전면적인 중일전쟁이 발발하고 일본과 협력관계를 맺은 독일이 점차 중국에서 발을 빼면서 시작된 소련과의 교역에도 ‘역화’ 교역 방식이 적용되었다. 다만, 중일전쟁이 발발하면서는 전쟁의 필요에 따라 제각기 소련과 접촉하여 물자를

27 이 중 중국의 안티몬은 1908~1938년 세계 총생산량의 61.73%에 달하였고, 텅스텐도 1913~1937년 세계 총생산의 37%를 차지하였다. 따라서 중국은 중요한 금속광물을 다량 보유하고 있는 나라로 인식되었다. 孫月華, 2008, 「抗戰時期蘇聯援華的主要方式:中蘇易貨借款」, 『泰山學院學報』第30卷第4期, 67쪽.

28 吳景平, 1993, 『從膠澳被占到科爾訪華:中德關係(1861-1992)』, 福州:福建人民出版社, 124쪽; 吳景平, 2012, 『國民政府時期的大國外交』, 上海:上海人民出版社, 251쪽.

구매하고 있던 군정부(軍政部), 경제부, 재정부, 항공위원회의 4개 부서에 대해 1939년부터 장제스는 행정원 산하에 대외역화위원회(對外易貨委員會)를 설립 하라고 지시하였다. 따라서 상기 4개 부서에서 파견한 인원으로 소련과의 교역을 전담하는 대외역화위원회가 설립되었고, 위원회는 회의를 거쳐 교역에 관한 사무를 진행하였다.²⁹

차관은 총 9번에 나누어 사용되었는데 그 시기와 액수는 <표 1>과 같다.

사실 1937년 가을 먼저 인도된 비행기와 탱크 등의 구매액은 제1차 사용으로 분류되어 1938년 6월 10일 구매확인서에 포함되었다. 제1차에서 제3차까지의 사용액은 4,855만 7,436달러로 제1차 차관액에 상응한다. 제2차 차관협정

<표 1> 중소신용차관 사용 시기와 액수

차수	사용 시기	액수(달러)	순금환산(g)	1달러: 순금환율(g)
1	1938.6.10.	30,321,164.00	27,057,212.00	0.892354
2	1938.6.20.	8,379,293.00	7,447,055.00	0.888745
3	1938.6.27.	9,856,979.00	8,789,166.00	0.991693
4	1938.6.28.	29,601,215.00	27,127,541.00	0.917953
5	1939.9.1.	21,841,349.00	19,409,773.00	0.888671
6	1939.9.1.	18,622,024.00	16,548,853.00	0.888671
7	1939.12.1.	3,090,725.00	3,474,459.00	0.888671
8	1941.6.1.	49,520,828.85	44,007,724.49	0.888671
9	—	1,123,232.51	998,184.16	0.888671
	합계	173,175,810.36	154,904,967.65	

출처: 中國第二歷史檔案館(李琴芳選輯), 2006, 『抗戰期間中國政府對蘇聯易貨債償相關史料(1939年2月~1945年6月)』, 『民國檔案』2006年第2期, 33쪽.

29 「對外易貨委員會組織規程」, 『行政院: 對外易貨委員會組織規程』, 014-070100-0159. (臺灣 國史館 所藏)

은 제1차 차관을 거의 소진한 시점에 체결되었다. 1939년 7월 1일 제3차 차관 협정이 체결된 5개월 후인 12월 1일까지 제1차에서 제7차까지의 차관 사용액은 모두 1억 2,253만 1,749달러로 사실상 차관협정에 서명하자마자, 제1~3차 차관협정으로 약속된 총액 2억 5,000만 달러의 절반 정도를 사용한 셈이다. 물론 독소전쟁이 발발한 이후 소련도 전시체제로 들어갔고 이에 따라 물자제공이 중단되면서 차관협정이 정상적으로 집행되지 못하여 제3차 차관협정의 약속 금액은 결국 절반만 사용하였을 뿐이었다. 이후에도 중국은 남은 차관금액을 사용하려고 했으나 소련의 동의를 얻지 못하였고, 최종적으로 이 역화를 전제로 한 차관협정에 실제 집행된 금액은 1억 7,317만 5,810.36달러였다.

정치학자 위스(Albert L. Weeks)는 1941년 3월 제정된 무기대여법(일명, Lend-Lease Act)에 따라 미국이 제공한 원조 총액은 420~500억 달러인데 그 중 소련은 3분의 1 정도를 제공받았고, 중국은 3% 정도를 받았다고 분석하였다.³⁰ 소련과 중국이 미국에게 받은 금액을 각각 대략 140억 달러와 13억 달러 정도로 보고 단순비교를 해보아도 소련이 중국에 제공한 1억 7,000여 만 달러는 미국의 대소 원조액 140억에 비하면 매우 작은 금액이며, 미국의 대중국 원조액의 0.133배에 불과하다. 그러나 태평양전쟁 발발 이전 중국이 처한 환경에서 소련의 대중국 차관은 중국이 일본과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이 되었다는 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게다가 이 차관은 제국주의 시대에 열강들이 중국에 차관을 제공하며 설정했던, 관세, 염세, 광산채굴권 혹은 철도부설권과 같은 담보가 설정되지 않은 신용차관이었고, 연이율 3%로 다른 나라에 비해 저렴한 이율이었다는 점도 의미가 있다.

그렇다면 1억 7,000여 만 달러가 넘는 자금을 매개로 중소 양국 사이에 이루어진 ‘역화’의 내용은 무엇인가 살펴보아야 한다. 중국은 이 자금으로 소련의 비행기와 탱크, 기타 무기 및 유류를 구매하였고, 이 물품 구매 자금을 상환하기

30 Albert L. Weeks, 2004, *Russia's Life-Saver: Lend-Lease Aid to the U.S.S.R. in World War II*, New York: Lexington Books, p. 128.

위해서 중국의 농산물과 금속광물을 소련으로 보냈다. 즉, 소련은 중국이 필요로 하는 무기를, 중국은 소련이 필요로 하는 농산물과 광물을 제공하였다. 중국 측 사료에 표기된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여 농산물이라고는 하였지만, 여기에서 말하는 농산물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곡물이 아닌 찻잎, 피혁, 동유 등을 말하고, 광물은 텅스텐, 주석, 안티몬 등 전략적 금속광물을 말한다. 그리고 소련 측이 제공한 물자는 앞에서 언급한 전쟁에 시급한 무기와 기타 군수물자인데, 양측이 교환한 물자, 특히 무기의 특징과 가치를 이 한 편의 글에서 모두 다루기에는 무리가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우선 소련의 차관과 이에 대한 중국의 상환과정에서 나타나는 양국의 관계와 의미를 다루려고 한 것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소련이 제공한 차관액은 당시 일반적인 시세와 비교하면 저리(低利)로 제공되었지만, 1억 7,000여 만 달러의 차관에 대해서 지불해야 하는 이자는 2,860만 3,897.13 달러로 적지 않은 금액이었다.³¹ 따라서 중국이 상환해야 하는 원금과 이자의 합계는 미화 2억 달러 정도였다고 볼 수 있으며, 중국의 물자로 상환하거나 아니면, 달러나 파운드와 같은 외화로 상환해야 하였다. 그러나 중국이 이를 외화로 상환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했기 때문에 대부분 물자로 상환이 이루어졌다. 이는 중국의 상환에 대한 소련 측의 배려라고 생각할 수도 있으나 당시 극동지역에서 일본을 묶어둠으로써 동쪽 변경의 위협을 약화시키거나 전시에 필요한 전략물자를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소련에게도 분명 이득이 있었다. 여기에서 조금 눈여겨 볼 것은 소련 측이 어떠한 물자를 선호했고, 중국은 어떠한 물자로 소련의 요구를 충족하려고 하였는가 하는 것이다. 소련이 요구한 물자와 중국의 실제 상환 능력에 대해서는 논의단계에서 실제 상환 과정에 이르기까지는 계속해서 이점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31 『財政部貿易委員會經辦對外易貨償債總報告』, 中國第二歷史檔案館藏 國民政府財政部檔案(三), ②271; 中國人民抗日戰爭紀念館 編 2013, 『抗戰時期蘇聯援華史論』, 北京:社會科學文獻出版社, 56쪽 재인용.

IV. 차관 상환 중의 문제점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차관협정에 명시된 상환물품으로는 찻잎, 피혁, 양모, 안티몬, 주석, 아연, 니켈, 텅스텐, 생사, 동유, 약재, 붉은 구리, 모피 등의 광물 및 농산품이었다. 이들 물품을 통한 차관 상환 방식은 이전에 독일과 교역에도 있었던 방식으로, 제1차 차관협정 체결 직전에 양제가 소련 측과 접촉하여 얻은 내용을 국민정부에 건의한 것이다.

러시아 측은 우리 측의 재력이 불충분하고 광물이 풍부하지 않으므로, 우리에게 현금과 대량의 광물로 무기와 교환하라고 요구할 수 없고, 만약 가능한 범위 내에서 구리, 주석, 안티몬, 텅스텐, 알루미늄 등과 같은 일부 광물과 생사, 소가죽과 양가죽, 면화, 차 등을 보낼 수 있다는 것을 양해하였다.³²

위 건의서의 말미에서 양제는 이 물자들을 안정적으로 제공하면 소련 측도 중국의 성의에 감동하여 공급요청에 더 많이 응하게 될 것이라고도 말하였다. 양제는 소련 측이 원하는 것을 파악하고 있었다. 전술한 바와 같이 1937년 불가침조약을 체결하기에 앞서 금속광물을 위주로 한 ‘역화’ 교역은 소련이 먼저 요구한 것이었고, 양제는 이를 들어주어야 한다고 건의한 것이다. 소련 외교인민위원부 부외교인민위원 스토모아니코프가 주중 소련전권대표 보거몰로프에게 보낸 전보에서도 유사한 맥락을 찾아볼 수 있다.

우리(소련)는 차관총액의 4분의 3은 금속(주석, 텅스텐, 안티몬, 암모늄)으로, 4분의 1은 기타 중국 물자로 얻기 원하며 물자의 종류와 수량은 별도의 협정으로

32 「立法院長孫科致蔣介石轉呈軍事委員會軍令部次長楊傑建議電」(1938.2.25), 秦孝儀 主編, 1981, 『中華民國重要史料初編-對日抗戰時期』第三編 戰時外交 (二), 臺北: 中國國民黨中央委員會黨史委員會, 478~479쪽.

체결해야 한다. 중국정부가 우리에게 제공할 수 있는 금속 종류별 수량에 대한 자료를 즉시 얻는 것이 좋다. 만약 중국정부가 차관 총액의 4분의 3에 해당하는 금속을 제공할 수 없으면, 우리도 달러나 파운드 등의 외화로 그 부족분을 대체받기 원한다.³³

따라서 소련은 처음 중국에 물자 제공을 생각할 때부터 금속광물과 농산물 상환을 염두에 두었으며, 특히 전략물자인 금속의 확보에 더 큰 의미를 두었다. 5월 10일 스탈린과 보로실로프도 장제스에게 전보를 보내 중국의 재정금융상황을 이해한다고 하면서 차, 양모, 주석, 안티몬 등의 중국 물자를 원한다고 말하였으며, 이러한 물자상환은 중국의 경제와 국방에 방해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하였다.³⁴ 그만큼 이들 물자가 소련에게도 필요한 물자였고, 소련은 이 상환조건을 관철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이었다. 다음 날 양제는 물물교환이 상업적인 측면이 아닌 도의적인 입장에서 서로에게 이롭다는 것이 보로실로프의 뜻이라고 장제스에게 보고하였다. 또한 그는 이러한 물자를 구매하여 소련에 상환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이 약속이 지켜지면 모든 것이 쉽게 실현될 것이라고 재차 건의하였다.³⁵ 물물교환 방식이 일방적으로 중국에만 이로운 것이 아닌 쌍방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는 방법이고, 소련이 원하는 물자를 순조롭게 공급할 수 있다면 중국은 계속해서 소련과 차관협정을 맺고 이를 근거로 한 무기구매가 가능하다고 강조한 것이다. 그러나 기대와는 달리 이후 양국의 ‘역화교역’이 기대한 대로 순조롭게 진행되지는 못하였다.

우선 문제가 되었던 것은 상환물자의 종류와 수량, 특히 금속광물과 농산물의 비율이었다. 처음부터 소련은 중국의 금속광물을 상환대상물로 염두에 두었

33 李玉貞, 1992, 앞의 글, 216쪽.

34 中國第二歷史檔案館(孔慶泰整理), 1985, 「抗戰初期楊傑等和蘇聯磋商援華事項秘密函電選」, 『民國檔案』 1985年第1期, 47쪽.

35 「史達林伏羅希洛夫電蔣中正」(1938.5.14), 『蔣中正總統文物:俄帝侵華罪行(四)』, 002-090400-00007-055. (臺灣 國史館 所藏)

고, 그 수량도 차관액의 4분의 3을 설정하였다. 따라서 스토모니아코프의 지시를 받은 보거몰로프는 천리푸와 회담을 진행하면서 차관액의 4분의 3을 금속으로 할 것을 주장했던 것이다.³⁶ 아직 차관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었으나 방대한 군수물자를 필요로 하는 중국의 입장에서는 차관금액 4분의 3을 금속으로 상환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측하였다. 따라서 제1차 중국대표단이 모스크바에서 회담을 하던 첫날인 1937년 9월 9일 중국대표단 부단장 장충은 금속의 비율을 줄이고 차와 식물 등 농산품의 비율을 늘리자고 소련 측에 요청하였다.³⁷ 결국 이듬해 차관협정을 체결하면서 매년 소련에 상환해야 하는 물품은 광물과 농산품을 각 절반씩으로 할 것을 원칙으로 합의하였으나,³⁸ 실제 상환업무를 추진할 때에는 당해 연도의 상황을 고려하여 다시 논의해야 했으며, 논의 때마다 양측의 쟁점사안이 되었다. <표 2>는 1945년까지 매년 중국이 상환한 신용차관의 원리금 액수와 그 금액에 대해 이미 인도한 물자의 액수를 나타낸 것이다.

<표 2>에서 보는 것과 같이, 양국은 처음 합의한 대로 매 상환연도의 농산물과 광물은 각각 절반의 비율을 유지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전쟁이 지속되자 이것이 쉽지 않았으므로, 농산물과 광물의 비율은 차관을 사용하여 군수물품의 주문서를 작성할 때마다 합의의 제일 큰 쟁점이 되었고 주문서 제출 자체를 지연시키기도 하였다. 일례로 1939년 11월 27일 군정부(軍政部)가 작성한 문서에 따르면, 군정부는 소련에 유류를 주문하면서 이미 농산물로 교환할 수 있다는 승인을 받았다. 그러나 소련이 다시 농산물과 광물을 반드시 반반씩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여 양측은 전보를 주고받으며 계속 논의하였고 결국 이행 시일이 지연되었다. 최종적으로는 상황을 반영하여 광물은 25%, 농산물은 75%로 하여 상환하기로 합의하였다.³⁹

36 李玉貞, 1992, 앞의 글, 219쪽.

37 中國第二歷史檔案館 編, 1987, 앞의 글, 33쪽.

38 中國第二歷史檔案館(李琴芳選輯), 2006, 앞의 글, 31쪽.

39 中國第二歷史檔案館(李琴芳選輯), 2006, 앞의 글, 14쪽.

〈표 2〉 1945년 상환기까지 중국이 상환해야 하는 원리금과 이미 상환한 물품액수

(단위: 달러)

상환연도	상환예정 금액	상환이행 금액		
		농산물	광물	합계
1938-1939	13,084,972.36	7,511,070.16	7,536,703.93	15,047,774.09
1939-1940	16,033,333.33	8,526,276.31	7,937,089.74	16,463,366.05
1940-1941	23,733,777.81	11,480,716.21	11,554,269.85	23,034,986.06
1941-1942	23,125,952.47	6,594,978.59	10,199,181.34	16,794,159.93
1942-1943	24,006,627.37	14,607,771.00	12,003,314.00	26,611,085.00
1943-1944	13,339,032.12	9,133,518.00	6,669,516.00	15,803,034.00
1944-1945	9,638,103.55	5,812,512.50	-	-
합계	122,961,799.01	63,666,842.77	55,900,074.86	119,566,917.63

출처: 中國第二歷史檔案館(李琴芳選輯), 2006, 앞의 글, 33쪽.

차관을 사용하여 구매한 물품액수가 컸던 만큼 매년 상환해야 하는 물자의 수량도 매우 많았다. 제1차 차관협정 체결은 1938년 3월 1일이지만, 이미 그 전 해 10월부터 협정 체결을 전제로 하여 무기구매가 시작되었다. 따라서 제1차 차관의 상환은 1938년 11월부터 1943년 10월 말까지 매년 1,000만 달러의 원금과 이에 대한 이자를 상환해야 하였다. 제2차 차관협정은 1938년 7월 1일 체결되어 사용이 시작되었으므로, 상환은 그다음 해인 1939년 7월 1일부터 1944년 6월 30일까지였다. 1939년 6월 13일에 체결되어 사용하기 시작한 제3차 차관에 대해서는 1942년부터 10년간 상환하기로 하였다. 사실상 1939년부터 1942년까지는 1~2차 차관의 상환이 동시에 진행되었고, 1942년부터 1944년까지는 2~3차 차관이 상환되고 있었다. 1941년 독소전쟁이 발발하여 차관 사용이 중단되었음에도 사실상 전쟁이 한창 진행되던 1938~1944년까지 중국은 매년 2,000만~2,500만 달러의 차관 원금과 이자를 상환해야 하였다. 그러나 해가 거듭되면서 상환부담은 커졌다. 국가재정예산의 40%도 거두지 못하는 전 시 세수(稅收) 상황에서⁴⁰ 상환 물자 수급마저도 원활하지 않음에 따라 상환물

품을 채우지 못하였고 약속한 상환금액이 미납되는 일이 발생하였다. 이는 실무를 담당하는 부서와 그 책임자에게도 큰 부담이었다.

전쟁이 지속되는 가운데 무기와 유류 등을 필요로 하는 주요 부처는 군사위원회의 군정부와 항공위원회 등인 반면, 차관의 사용과 상환해야 하는 물자의 관리는 재정부, 자원위원회 등이었으므로, 전술한 바와 같이 장제스의 지시에 따라 협력기구로서 대외역화위원회를 설립하였다. 대외역화위원회는 설립 당시 업무의 주요 상대국이 소련이었지만, 이후에는 독일이나 미국 등과의 역화문제도 이 위원회가 전담할 수 있게 한다는 구상 속에 설립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전쟁에 필요한 물자교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기구가 될 수 있었고, 위원회를 주관할 책임자인 주임위원의 영향력도 중요하게 평가될 수 있는 자리였다. 그러나 설립 당시에는 소련과의 교역업무에 문제가 많았고, 해결도 쉽지 않았기 때문에 군사위원회의 허잉친(何應欽)과 쿵상시는 서로 대외역화위원회의 주임위원 자리를 미루는 모습도 보였다. 최종적으로 쿵상시가 주임위원을 맡기는 하였으나, 서로 꺼려할 만큼 소련과의 교역업무에 부담이 컸다고 볼 수 있다.⁴¹

상환 절차에 대해서 보자. 우선 차관협정에 의거하여 대외역화위원회는 주중 소련 상무대표부와 중국이 상환해야 하는 액수를 계산한 후, 재정부 무역위원회와 경제부의 자원위원회에 통지하여 납품예정서 및 납품조건을 협의하되, 광물은 다시 자원위원회가 소련과 협의하고 농산물은 대외역화위원회가 직접 소련과 교섭하여 납품조건을 논의하여 역화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다.⁴² 1940~1941년까지는 대체 소련의 요구조건을 이행할 수 있었으나, 그 이후부터는 상환해야 하는 수량을 채우지 못하고 체납되는 부분이 발생하여 그 이듬해의 상환

40 陳雷·戴建兵, 2007, 「統制經濟與抗日戰爭」, 『抗日戰爭研究』 2007年第2期, 178쪽.

41 中國第二歷史檔案館(李琴芳選輯), 2006, 앞의 글, 16쪽.

42 中國第二歷史檔案館(李琴芳選輯), 2006, 위의 글, 31쪽.

액수에 더해졌다. 예를 들어 1942~1943년도 상환예정액은 원래 2,400만 6,627.37달러였고, 원칙상 농산물과 광물은 각각 절반씩 분할하여 1,200만 달러를 상환해야 하였다. 그런데 농산물의 경우 그 전해의 채납분 500만 달러가 더해져 1,700만 달러를 상환해야 했으나 여기에도 다시 미납분이 발생하여 실제로는 1,460만 7,771달러만 상환하였다.(표 2 참조)

뿐만 아니라 소련이 요구하는 물품의 수량을 확보하는 것도 쉽지 않았다. 1942~1943년도의 차전(茶磚) 210만 편으로 상환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차전 확보가 어렵게 되자 중국정부는 1편의 무게를 2kg으로 환산하여 1944년 3월 말 이전에 차잎 4,200톤으로 상환하기로 소련과 합의하였다. 그러나 차잎 상환에도 차질이 생겨 실제로는 225톤을 인도했을 뿐이고, 1,400톤은 1943~1944년도에 다시 상환하기로 하였으며, 그 나머지 분량 2,550톤의 달러 환산액 630여만 달러는 그에 상응하는 신장성(新疆省)의 양모 10만 관담(關擔)으로 대체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양모계약 부분에도 중앙정부와 신장성 정부 사이에 의견 차이가 생기면서 양모 구매 계약 자체가 반년 이상 지체되었다.⁴³

독소전쟁이 발발한 이후에도 중국은 협정에 근거하여 군수무기는 아니더라도 휘발유, 윤활유, 항공유 등 유류 등을 남은 차관금액에서 사용하기 원했으나 소련의 동의를 얻기 어려웠다. 1944년에 있었던 한 가지 사례를 보면 중국의 대외역화위원회는 교통부, 항공위원회, 액체연료관리위원회, 군정부, 서북공로 운수국으로부터 유류구매를 의뢰받아 남은 차관액의 범위 내에서 소련에 구매를 요청하였다. 그러나 소련이 판매허가서에 서명하지 않거나 아예 회신을 하지 않아 구매하지 못하였고, 다른 유사한 사례에서 소련은 외화지불을 요구하기도 하였다.⁴⁴

이처럼 소련의 무기 제공은 중국이 전쟁을 지속할 수 있는 기반이 되었지만, 전시에 상환을 위한 물자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채납분의 발생과 상환액의

43 中國第二歷史檔案館(李琴芳選輯), 2006, 위의 글, 32쪽.

44 中國第二歷史檔案館(李琴芳選輯), 2006, 위의 글, 32쪽.

누적은 중국에게 또 다른 부담이었다. 소련은 상환 이행 능력을 확신하지 못한 탓인지 실질적으로 차관잔여분 사용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기사용된 차관의 상환을 재촉하였고, 이러한 상황은 전쟁 후반기 중국과 소련 사이에 상호 불만의 요소로 남았다.

V. 맺음말

중일전쟁이 발발하기 전부터 일본의 압박이 강화되는 가운데 중국에게는 다른 나라의 협력이 절실히 요구되었다. 그리고 중일전쟁이 발발하여 태평양전쟁으로 확대되기 직전까지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한 나라는 소련이었다. 소련으로부터 제공받은 군수물품은 중국이 전쟁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되었다.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을 논의하는 중국정부의 공문서에는 ‘이화역화(以貨易貨)’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한다.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물물교환’이 될 것이고, 중국에서는 이를 줄여 ‘역화’라고 표현하였다. 1920년대 후반부터 중일전쟁이 발발한 직후까지 중국은 독일과 협력관계 속에 군사부문의 인력과 물자에 도움을 받았다. 독일이 철수한 이후 중국은 소련과 협력관계를 맺었다. 당시 중국이 독일이나 소련에서 자본이나 물자를 도입하고 상환하는 방식으로는 바로 이 ‘역화’ 방식을 사용하였다.

중국대륙에 대한 일본의 전면적인 침공이 시작되자, 1937년 8월 21일 소련은 중국과 불가침조약을 체결하고 군수물자 제공을 약속하였다. 일반적으로 상호불가침조약은 상호원조조약이 아니므로 물자 제공을 합의하지 않으나, 일본에 의한 동쪽 변경의 위협을 저지하는 방안으로 소련은 중국에 대한 물자 제공을 결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차관협정이 아직 체결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우선 중국이 요구하는 비행기 등 군수물자를 먼저 제공하였다.

차관과 역화교역에 대한 공식적인 협정 체결은 1938년에 시작되었지만, 양국의 역화교역은 이미 1937년에 시작되었고, 협력관계도 본격화되었다고 볼 수

있게 된 셈이다. 다만 역화교역의 실무 논의와 추진에서는 다소 이견을 보였다. 대표적인 것이 역화의 내용에서 중국이 상환해야 하는 물품의 비율이었다. 소련은 처음부터 차관 총액의 4분의 3을 금속광물로, 4분의 1을 차와 피혁 등 농산품으로 상환하기를 원하였다. 그리고 이것이 충족되지 않으면 달러화나 파운드화 등 안정적인 외화로 상환할 것을 요구하였다. 중국은 텅스텐이나 안티몬 등 광물 생산량이 당시에 세계에서 상위권에 있었으나, 전쟁시기여서 생산도 쉽지 않았고 운송 등에도 부담이 있어 이를 고려하여 비율을 조정하기 바랐다.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되지 않은 가운데 차관협정을 전제로 한 소련의 무기 제공이 시작되었다. 그 후 중국의 현실적인 요구에 따라 금속광물과 농산물의 비율은 각각 절반씩으로 하는 것으로 합의하였으나, 중국은 이마저도 이행하기가 어려웠다.

제1, 2차 차관은 사용 개시일 1년 후부터 매년 1,000만 달러씩 5년 동안 상환을 완료하기로 하였고, 제3차 차관도 매년 1,500만 달러씩 10년간 상환하기로 하였다. 따라서 1939~1943년에는 제1, 2차 차관 상환이 동시에 이루어졌고, 1943~1944년에는 제2, 3차 차관 상환이 동시에 진행되었기 때문에 사실상 1939년부터 1944년까지 중국은 매년 2,000~2,500만 달러의 원금과 이에 상응하는 이자를 물자로 상환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문제는 전시에 재정과 물자 확보가 쉽지 않았다는 것이다.

Ⅲ장에서 본 것처럼 소련은 자신들의 필요를 충족할 수 있는 교역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중국에 담보를 설정하지 않은 신용차관을 제공하였다. 무엇보다 전시 국가 재정의 기반이 되는 세금 수입이 예산의 40%도 되지 않는 상황에서 소련이 요구하는 금속광물이든, 농산물이든 모두 확보가 어려웠다. 따라서 1941년 소련과 일본의 중립조약 체결, 독소전쟁의 발발 등 상황의 변화에 따라 차관 사용은 중단되었으나 이미 사용한 차관에 대한 물품 상환을 진행해야 했다. 게다가 소련의 입장에서조차 차관의 상환 시 요구한 물품에 대한 기대가 충족되지 않았으므로 양국의 관계는 점차 불편하게 되었다. 이러한 현실로 인해 소련은 독소전쟁 이후 이행되지 못한 잔여 차관액의 사용을 꺼렸다. 또한 소련

은 자신도 전쟁에 돌입하였고, 미국으로부터 원조를 받는 상황에서 상황이 보장되지 않는 중국에게 약정된 차관을 사용하게 하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소련의 대중국 차관은 양국에 어떤 의미였다고 할 수 있을까? 중국의 일부 연구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도의적인 차원의 지원이었다고 할 수 있을까? 우선 소련은 동쪽 변경의 안전을 고려하여 중국에 차관 제공을 약속한 것이고, 이를 대가로 소련도 필요한 전략물자와 일반 소비재 공급을 고려하였다는 측면에서 상호 이익이 전제되었던 차관 제공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소련의 도움은 매우 중요했기 때문에 냉전시기 중국의 연구자들은 소련을 전쟁 초기 중국의 최대, 혹은 유일한 원조국이라고 평가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표현으로 인해 혹자는 소련의 원조를 무상원조라고 생각할 수도 있으나, 사실은 역화를 전제로 한 것이었다. 게다가 이후 미국과 중국의 셈법에 다소 이견이 있기는 하지만 무기대여법에 근거하여 미국이 중국에 제공한 금액은 소련이 제공한 차관액의 7.5배가 넘었기 때문에 단순한 수치상으로 볼 때도 전체 전쟁기간을 통틀어 소련이 최대지원국이었다고 하기는 어렵다. 다만, 적어도 태평양전쟁이 발발하기 전까지는 ‘최대’는 표현을 써도 무방할 듯하다. 무엇보다도 중국이 전쟁을 지속할 수 있는 첫 번째 밑거름이 소련의 차관에서 시작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국과 소련의 역화교역은 도의적 차원의 도움이라거나, 일방적인 원조가 아닌 서로의 필요에 의해 제공하고 상환한 협력관계였다고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하겠다.

참고문헌

사료

『蔣中正總統文物：俄帝侵華罪行(四)』.

『行政院：對外易貨委員會組織規程』.

* 이상 臺灣 國史館 所藏.

蔣廷黻, 2003, 『蔣廷黻回憶錄』, 長沙: 嶽麓書社.

中國社會科學院近代史研究所 譯, 1985, 『顧維鈞回憶錄』第二分冊, 北京: 中華書局.

秦孝儀 主編, 1981, 『中華民國重要史料初編-對日抗戰時期』第三編戰時外交(二), 臺北: 中國國民黨中央委員會黨史委員會.

(俄)謝·列·齊赫文斯基 編(類傑·左鳳榮譯), 1996, 「1937-1939年蔣介石同斯大林·伏羅西洛夫的通信」, 『民國檔案』1996年第3期.

李嘉谷·馮敏 整理, 1996, 「抗戰時期三個蘇聯對華信用借款條約」, 『近代史資料』總第89號, 北京: 中國社會科學出版社.

李玉貞, 1992, 「中蘇外交文件選擇(下)」, 『近代史資料』總80號, 北京: 中國社會科學出版社.

中國第二歷史檔案館(孔慶泰整理), 1985, 「抗戰初期楊傑等和蘇聯磋商援華事項秘密函電選」, 『民國檔案』1985年第1期.

中國第二歷史檔案館(李琴芳選輯), 2006, 「抗戰期間中國政府對蘇聯易貨償債相關史料(1939年2月~1945年6月)」, 『民國檔案』2006年第2期.

中國第二歷史檔案館 編, 1987, 「中國軍事代表團與蘇聯軍方五次商談援華抗日械彈記錄稿」, 『民國檔案』1987年第3期.

단행본

정치학대사전편찬위원회, 2002, 『21세기정치학대사전』, 아카데미아리서치.

정형아, 2019, 『동아시아 전후처리와 중·소갈등(1941-1952)』,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郭榮趙, 1979, 『從珍珠港到雅爾達:中美戰時合作之悲劇』, 台北: 中國研究中心出

版社.

羅志剛, 1998, 『中蘇外交關係研究(1931-1945)』, 武漢: 武漢大學出版社.

沈慶林, 2000, 『中國抗戰時期的國際援助』, 上海: 人民出版社.

沈志華 主編, 2007, 『中蘇關係史綱, 1917-1991』, 北京: 新華出版社.

梁敬鎔, 1970, 『抗戰後期之中美關係』, 台北: 國防研究院.

吳景平, 1993, 『從膠澳被占到科爾訪華: 中德關係(1861-1992)』, 福州: 福建人民出版社.

吳景平, 2012, 『國民政府時期的大國外交』, 上海: 上海人民出版社.

王真, 1993, 『動蕩中的同盟: 抗戰時期的中蘇關係』, 桂林: 廣西師範大學出版社.

李嘉嘉, 1996, 『合作與衝突: 1931-1945年的中蘇關係』, 桂林: 廣西師範大學出版社.

李榮秋, 1978, 『珍珠港事變到雅爾達協定其間的美國對華關係』, 台北: 私立東吳大學中國學術著作獎助委員會.

中國人民抗日戰爭紀念館編, 2013, 『抗戰時期蘇聯援華史論』, 北京: 社會科學文獻出版社.

Weeks, Albert L., 2004, *Russia's Life-Saver: Lend-Lease Aid to the U.S.S.R. in World War II*, Lexington Books.

Wu, Aichen, 1950, *China and the Soviet Union: a study of Sino-Soviet relations*, New York: J. Day Co.

Титов, А. С., 1981, *Борьба за единый национальный фронт в Китае, 1935~1937*, М.

논문

정형아, 2018, 「차선의 파트너: 1931-1941년 중소양국의 협력관계 연구」, 『중국근현대사연구』 제77집.

_____, 2020, 「중일전쟁 전반기 중국의 항공전력 확보와 소련의 지원: 비행기와 조종사 지원을 중심으로」, 『아세아연구』 제63권 4호.

_____, 2021, 「중일전쟁시기 중소 양국의 협력과 갈등-비행기제조공장 합작설립 논의를 중심으로」, 『세계역사와 문화연구』 제60집.

_____, 2022, 「조약 논의 과정을 통해 본 중소관계의 변화, 1931-1941」, 『인문과학연구』

구논충』제43권 3호.

孫月華, 2008, 「抗戰時期蘇聯援華的主要方式:中蘇易貨借款」,『泰山學院學報』第30卷第4期.

王真, 2003, 「抗戰時期中蘇國家關係中的意識形態問題」,『抗日戰爭研究』2003年第10期.

李嘉谷, 1998, 「抗日戰爭時期蘇聯對華貸款與軍火物資援助」,『近代史研究』1998年第3期.

陳雷·戴建兵, 2007, 「統制經濟與抗日戰爭」,『抗日戰爭研究』2007年第2期.

黃如棟, 1987, 「抗戰時期國民黨政府外彙政策概述及評價」,『近代史研究』1987年第4期.

중일전쟁시기 소련의 대(對)중국 신용차관과 ‘역화(易貨)’ 교역

정형아

1930년대 구미 국가들은 대공황의 후유증 혹은 자국의 외교방침으로 인해 동아시아 분쟁에 개입할 의사가 없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이 일본에 맞서 전쟁을 지속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해준 나라가 바로 소련이었다. 따라서 중일전쟁 초기 적어도 태평양전쟁 발발 이전에 소련은 중국에 원조를 제공한 거의 최대이자 유일한 나라였다고도 하고, 이 시기를 그들 양국의 ‘밀월’기간이라고 묘사하는 이들도 있다. 물자는 세 차례의 차관협정을 통해 약속한 차관 금액의 범주에서 제공하였다. 차관협정에서 소련은 중국에 차관을 제공하고 그 금액 범위에서 중국은 소련의 군수물품과 유류품을 구매하며, 연이율은 3%로 하여 중국은 차관을 물자로 상환하거나 달러나 파운드로 상환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실제 외화 보유액이 매우 적은 중국이 외화로 상환하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웠다. 따라서 실제로 돈이 오간 것은 아니며, 차관금액을 설정하고, 그 설정된 차관금액 범위에서 물자를 주고 물자로 상환하는 방식이었다. 전시 중소 양국의 군수물자를 둘러싼 교역은 ‘역화(易貨)’, 즉 물물교환 방식이었다.

소련의 차관액은 미국이 무기대여법에 기반을 두고 제공한 원조액에 비하면

적은 금액이었다. 그래도 소련의 차관은 무상원조는 아니었으나 담보가 없는 신용차관이었고, 이율도 3%로 낮은 편이었다. 약속한 차관 총액은 미화 2억 5,000만 달러였으나 실제로 집행된 금액은 1억 7,317만 5,810.36달러였다. 중국은 이들 금액에 해당하는 군수물자를 구매하였고, 차관 사용일 1년 후부터 농산물과 금속광물로 매년 상환하였다. 상환에 사용된 물품은 소련이 필요로 하는 농산물과 전략적으로 의미 있는 금속광물이었으므로, 이 역화교역은 중국과 소련 양측에 도움이 되는 교역이었다. 따라서 중국과 소련의 역화교역은 도의적 차원의 도움이라거나, 일방적인 원조가 아닌 서로의 필요에 의해 제공하고 상환한 협력관계였다고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하겠다.

주제어: 중일전쟁, 중소관계, 신용차관, 원조, 협력, 역화교역

ABSTRACT

The Soviet Union's Credit Loans to China and the 'Barter' Trade during the Sino-Japanese War

Jung Hyungah

In the 1930s, Western countries had no intention of intervening in the East Asian conflict due to the aftermath of the Great Depression or their diplomatic policies. In this situation, it was the Soviet Union that provided the basis for China to continue the war against Japan. Therefore, in the early days of the Sino-Japanese War, at least before the outbreak of the Pacific War, the Soviet Union was almost the largest and only country to provide aid to China, and some describe this period as their “honeymoon” period. Goods were provided in the range of the loan amount promised through three loan agreements. In the Loan Agreement, the Soviet Union provides a loan to China, and within that amount, China purchases Soviet military and oil products, at an annual interest rate of 3%, China agreed to repay the loan in terms of goods or in dollars or pounds. However, it was difficult to expect China, which has very small actual foreign currency reserves, to repay

in foreign currency. Therefore, money did not actually flow, and the loan amount was set, and the method of repaying the loan with goods was determined within the range of the set loan amount. During the war, trade in military supplies between China and the Soviet Union was a way of bartering.

The amount of Soviet loans was small compared to the amount of aid provided by the United States under the Lend Lease Act. Although the Soviet loan was not free aid, it was a credit loan without collateral, and the interest rate was low at 3%. The total amount of loans promised was US \$250 million, but the actual amount executed was US \$173,175,810.36. China purchased military supplies equivalent to these amounts and repaid them annually with agricultural products and metal minerals from one year after the date of use of the loan. Since the goods used for repaying were agricultural products needed by the Soviet Union and strategically meaningful metallic minerals, this barter was a trade that helped both China and the Soviet Union. Therefore, it would be appropriate to say that the barter trade between China and the Soviet Union was not a moral help or unilateral aid, but a cooperative relationship that was provided and repaid according to each others needs.

Keywords: the Sino-Japanese War, Sino-Soviet Relationship, Credit Loans, Aid, cooperation, Barter trade

고구려연구재단과 동북아역사재단의 남·북 역사문화 교류와 성과

고광의 | 동북아역사재단 책임연구위원

- I. 머리말
- II. 고구려연구재단(2004.3~2006.8) 시기
- III. 동북아역사재단(2006.9~현재) 시기
- IV. 맺음말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I. 머리말

중국에서 ‘동북공정’ 프로젝트가 진행되던 2004년 3월, 남측에서는 관련 대응 기구로서 고구려연구재단이 설립되었다. 고구려연구재단은 중국이 벌이는 우리 역사 왜곡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외적으로 다양한 학술 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북측과 공조를 위한 접촉을 시도하였다. 그리하여 2005년 1월에는 북측과 공동 학술 사업에 관해 합의하였고, 이후 남·북 학자들이 직접 대면하는 학술회의를 비롯하여 북측 지역의 역사유적에 대한 현지 조사를 실시할 수 있었다.¹

한편, 당시는 중국뿐만 아니라 일본과도 역사교과서 왜곡, 독도 영유권, 일본군‘위안부’ 문제 등으로 갈등이 표출되었다. 이에 정부는 대통령 직속으로 바른역사기획단을 설치하고 일본과의 문제뿐만 아니라 동북아 역사문제를 포괄하여 다룰 수 있는 새로운 상설 전담기구의 설립을 모색하게 되었다. 그 결과 2006년 9월, 고구려연구재단을 흡수하여 동북아역사재단으로 출범하게 되었다. 동북아역사재단은 설립 이래 다양한 방식으로 북측과 역사문화 관련 학술 교류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상당한 성과를 축적하였다.²

이 글에서는 동북아역사재단과 그 전신인 고구려연구재단에서 추진된 남·

* 투고: 2023년 4월 4일, 심사 완료: 2023년 5월 1일, 게재 확정: 2023년 5월 12일

** 이 글은 동북아역사재단의 기획연구과제로 수행한 결과임(NAHF-2022-기획연구-18)

1 고구려연구재단, 2006a, 『고구려연구재단 사업성과보고서 2004.3~2006.8』, 고구려연구재단.

2 동북아역사재단, 2012, 『동북역사재단 6년의 활동과 지향, 갈등을 넘어 화해로』, 동북아역사재단; 동북아역사재단, 2016, 『동북역사재단 10년의 활동과 성과』, 동북아역사재단; 동북아역사재단, 2022, 『동북역사재단 15년의 활동 성과와 과제』, 동북아역사재단.

북 역사문화 관련 교류협력 사업의 내용을 파악하고 성과를 짚어 봄으로써 새로운 남·북 교류협력 시대를 준비하고자 한다.

II. 고구려연구재단(2004.3~2006.8) 시기

1. 남·북 공동학술사업 합의

2001년 북측은 고구려 고분군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 신청하였다. 평양과 안악 지역의 고구려 고분 벽화를 포함하여 모두 63기가 목록에 포함되었으나 2003년 프랑스에서 열린 제27차 세계유산위원회 회의에서 등재가 보류되었다. 유네스코 자문기관인 이코모스(ICOMOS,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로부터 북측이 신청한 몇몇 유적에서 진정성 훼손 등의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당시는 중국이 국가적 차원에서 이른바 ‘동북공정’을 추진하며 고구려에 대한 중국사 귀속을 주장하던 시기로 북측 고구려 유적의 등재 보류는 커다란 파문을 일으켰다.

이에 남측 정부는 북측의 고구려 유적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한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외교통상부, 문화재청, 교육부 등 관계 부처와 한국유네스코 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대응팀을 구성하였다. 2004년 6월 중국 쑤저우에서 개최된 제28차 세계유산위원회(WHC) 총회에 북측 고구려 고분군의 세계문화유산 등재 지원을 위해 정부대표단을 파견하였으며 이제 막 활동을 시작한 고구려연구재단도 뒤늦게 합류하게 되었다.³⁾

3 남측 대표단은 외교통상부 박홍신 문화협력국장을 수석대표로 하여 외교통상부 문화협력과 권영대 서기관, 주불대사관 김인철 서기관, 문화재청 최종덕 문화재교류과장, 문화재청 김경화 문화재교류과 사무관,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허권 문화팀장, 동국대 이해은 교수, 성균관대 이상해 교수, 카톨릭대 조도순 교수, 주상해총영사관 김홍곤 영사, 고구려연구재단 고광의 부연구위원이 참석하였다. 북측 대표단은 문

당시 중국은 북측 고구려 유적이 등재 보류된 상황에서 자국 경내에 소재하고 있는 고구려 도성 유적과 왕릉 및 귀족 무덤을 묶어 세계유산에 등재 신청한 상황이었다. 고구려사 문제가 국내외 이슈가 된 상황에서 북측과 중국 양국의 고구려 유적이 각자 등재를 위해 치열한 외교전을 펼치는 가운데 남측 대표단의 측면 지원이 일정하게 도움이 되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당초 회의에서는 중국의 고구려 유적이 먼저 심의되고 베냉, 인도 등 다른 국가가 신청한 유적들이 심의된 다음 북측의 고구려 유적이 심의되는 순서였으나, 남측 대표단의 적극적인 활약으로 중국에 이어 곧바로 북측 고구려 유적이 심의될 수 있도록 해당 국가들의 양보를 얻어냄으로써 별다른 이견 없이 북측의 고구려 유적 또한 등재가 확정되었다. 이에 북측 대표단은 그간 고구려 고분벽화의 세계유산 등재를 위해 남측이 보여준 노력에 대해 사의 표명하였다. 이러한 국제무대에서의 남·북 간 협력 경험은 이후 다양한 형식의 직접 교류를 확대해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필자는 회의 이후 북측 대표단 일행을 회의장 밖에서 만나 고구려연구재단의 출범 사실과 재단의 조직 및 인적 구성을 설명하고 향후 북측과 다양한 교류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는 재단의 입장을 전할 수 있었다.

고구려연구재단은 이후 북측에 고구려 유적의 공동 연구 및 조사를 제안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하였다. 2004년 6월과 7월에 걸쳐 수차례의 교섭을 시도한 결과 8월에는 북측 관계자에게 사업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전달할 수 있었고, 9월 11일부터 12일 금강산에서 열린 고구려 고분벽화 남·북 공동전시에서 북측 학자들을 만나 직접 논의하였다. 12월에는 중국 심양(瀋陽)에서 북측 관계자를 통해 재단과 학술교류를 할 의향이 있다는 것을 전달받았다.

이러한 교섭 과정을 거쳐 2005년 1월 23일에 고구려연구재단 김정배 이사장이 북경(北京)으로 가서 북측 민족화해협의회 관계자들과 만나 협의하여 1월

화보존지도국 리의하 부국장을 단장으로 조선문화보존사 리기웅 실장, 주불유네스코 대표부 김창민 참사, 유네스코 민족위원회 한석철, 문화보존지도국 외사처 강영민 통역관 등으로 구성되었다. 고광의, 2019, 「고구려 고분벽화와 남북교류협력」, 『美術史研究』第304號, 한국미술사학회, 272~273쪽 참조.

26일 ‘남·북 고구려 관련 공동학술사업 추진을 위한 합의서’를 체결하였다.⁴ 남측 고구려연구재단과 북측 민족화해협의회 간에 합의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남북은 올해 2월에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개최하는 국제학술회의에 남북 공동으로 참가하는 문제를 긍정적으로 추진한다.
- 양측은 고구려 문화유산이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것을 축하하는 의미에서 평양일원의 고구려 유적을 공동으로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동보고서로 간행한다.
- 위의 공동조사 성과에 기초하여 남북은 공동 학술회의 및 공동 조사를 개최한다.
- 양측은 향후 3~5년간 고구려 및 고대사 관련 남북공동학술 연구 사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한다.

2. 남·북 학술회의 개최

1) 남·북·러 국제학술회의 개최(2005.2.24~25, 블라디보스토크, 남·북·러)

남측 고구려연구재단과 북측 민족화해협의회에 의해 ‘남북 고구려관련 공동학술사업 추진을 위한 합의서’가 체결된 이후 남·북 간 학술교류는 급물살을 타고 진행되었다. 먼저 합의서가 체결된 지 한 달 만에 남·북 및 러시아가 참여하는 국제학술회의가 개최되었다.⁵ 2005년 2월 24일부터 25일까지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개최된 이 학술회의는 고구려연구재단 발족과 함께 다양한 방식으로 북측과 접촉을 시도하는 등 사전에 준비되었기에 가능할 수 있었다. 고구려연구재단과 북측의 조선력사학회 및 러시아 극동국립기술대학교가 공동

4 고구려연구재단, 2005a, 『南北共同遺蹟調査報告書 평양일대 고구려유적』, 고구려연구재단, 10쪽; 김정배, 2018, 『한국과 중국의 북방사 인식』, 세창출판사, 220~223쪽 참조.

5 김정배, 2018, 위의 책, 220~230쪽.



그림 1 남·북·러 국제학술회의(2005.2.24.~25,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개최하는 형식으로 남·북·러 학자 40여 명이 참석하여 발표와 토론을 진행하였다. 논문 주제와 발표자는 <표 1>과 같다.

〈표 1〉 남·북·러 국제학술회의 발표 논문

발표자	논문 주제
허중호(북)	고조선사회의 계급, 계층별구성
서국태(북)	평양지방 고인돌무덤의 분포상 특성
최영실(북)	고조선의 강력한 군사력
권승안(북)	고조선의 건국년대에 대한 문헌적 고찰
문형(북)	고대조선주민들의 인류학적 특징
김유철(북)	만조선의 통치제도
김정배(남)	고조선과 비파형 동검의 문제
윤내현(남)	고조선의 종교와 사회성격
하문식(남)	고조선의 무덤 연구－북한지역 고인돌을 중심으로

이형구(남)	발해연안북부 요서·요동지방의 고조선
박선희(남)	복식비교를 통한 고조선 영역연구
강세권(북)	고구려와 그 시조 동명왕에 대한 역사적인식
금경숙(남)	高句麗의 國內 地域 遷都와 意味
임기환(남)	國內城 시기 고구려 都城의 구조
김경삼(북)	고구려도성의 특징과 역사적지위
김현숙(남)	광개토왕비에 나오는 屬民에 대한 연구
이성제(남)	長壽王代 對宋外交와 그 意味
이인철(남)	4~5세기 고구려의 무기·무장과 중장기병
고광의(남)	廣開土太王碑에 나타난 高句麗 書寫文化의 특징 －廣開土太王碑體와 石柱碑 樣式의 獨創性을 중심으로－
김일권(남)	평양지역 고구려 천문벽화무덤의 천문도 복원 문제 －진파리4호분 금박천문도의 복원을 중심으로－
김진순(남)	고구려 중기(5세기~6세기 초) 고분벽화에 보이는 불교적 제재와 그 연원
지승철(북)	무덤벽화에 반영된 고구려의 정치, 군사 및 문화의 독자성
조희승(북)	고구려풍습을 통해 본 조선민족의 역사적 전통 －온돌유적과 수자를 중심으로－
박영해(북)	고려는 고구려의 계승국
최준경(북)	중세 동아시아에서의 ‘책봉’과 ‘조공’ 체계의 본질에 대하여
최광식(남)	남북의 고구려 역사연구 협력방안
정창규(북)	발해는 대외관계에서 자주권을 당당히 행사한 독립국가
공명성(북)	정치제도에 반영된 발해의 황제국가적성격
림호성(북)	발해의 기본주민은 고구려유민
차달만(북)	발해무덤을 통하여 본 발해와 고구려의 계승관계
채태형(북)	발해의 영역확장과 그것을 통하여 본 고구려계승의식
구난희(남)	對日本 關係를 통해서 본 渤海의 對外 戰略
김은국(남)	대외교통로를 통해 본 渤海와 新羅 관계
윤재운(남)	발해와 당의 경제교섭 －중국학계의 인식과 그 비판을 중심으로－
임상선(남)	남북한·중국·일본 역사교과서의 발해사 내용 비교 연구

유리 니키티ن(러)	수이푼 강 연안 체르냐티노5 발해 武將 古墳
A. L. 이블리에프(러)	러시아 연해주의 발해 고고유적
N. N. 크라딘(러)	돌궐 문문자와 발해국 형성의 문제
V. I. 볼딘(러)	크라스키노 성터 연구사
E. I. 겔만(러)	발해 도자기와 발해내 유통과정

개막식에서 남측 고구려연구재단 김정배 이사장은 “해방 후 북과 남의 역사 학계 학자들이 가장 큰 규모로 참가한 기념비적인 회의이며, 또한 중국의 동북 공정에 대해 동족의 이름으로 공동의 마음을 교환하는 아주 뜻깊은 행사”라고 하였다. 이에 북측의 조선력사학회 허종호 위원장은 ‘고구려사문제가 내외의 커다란 관심을 모으는 속에서 열리는 고조선 및 고구려, 발해에 관한 국제학술 회의는 6.15 공동선언 이후 양측 학계의 협조와 단합의 전통을 더욱 살려나가며 민족 앞에 지닌 우리 지식인들의 사명을 보람차게 수행해나가기 위한 뜻깊은 모임이 될 것이며 더욱이 이를 계기로 민족사의 정통을 고수하려는 공동 노력이 더 큰 국제적인 지지와 호응을 불러일으키게 되고 조국통일의 국제적연대도 그만큼 강화될 것’이라는 취지로 화답하였다. 또한 이튿날 폐막식에서 그는 학술 회의를 통해 “고조선과 고구려, 발해가 모두 우리 민족사의 뿔수 없는 구성체임을 힘있게 론증하고 고구려와 발해의 역사를 우리 역사에서 떼어내려는 주장은 엄중한 역사외곡”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들간의 학술회의에서 모두 40편의 논문이 발표되었으며 이 가운데 남측 학자들의 고조선 관련 논고 5편을 제외한 35편은 같은 해 5월 출간된 『고조선·고구려·발해 발표 논문집』에 수록되었다.⁶ 특히 북측 연구자들은 발해의 고구려 계승성과 독립성 및 문화적 독자성 등을 강조하는 내용을 발표함으로써 중국

6 고구려연구재단·조선력사학회·러시아극동국립기술대학교 편, 2005, 『남·북·러 국제학술회의 고조선·고구려·발해 발표 논문집』, 고구려연구재단. 남측의 고조선 관련 논고 5편은 『고조선단군학』 12(고조선단군학회, 2005.12)에 게재되었다.

의 동북공정에 대해 정면으로 비판하였다.

이 학술회는 고조선에서부터 고구려, 발해까지 그동안 남·북 및 러시아에서 연구된 우리 고대사 전반에 대한 상호 이해의 기회였으며 중국의 동북공정으로 인한 우리 역사 왜곡이 이슈로 부각된 상황에서 남·북 학자들의 인식을 확인하고 공조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2) 남·북 고구려유적 공동조사 학술회의(2005.11.29. 금강산호텔, 남·북)

후술하는 2005년 7월에 실시한 평양 일원의 고구려유적 남·북 공동 학술조사의 성과에 기초하여 2005년 11월 29~30일간 금강산호텔에서 고구려연구재단과 북측 사회과학원은 학술회의를 개최하였다.⁷ 이 회의는 같은 해 7월에 실시

〈표 2〉 남·북 고구려유적 공동조사 학술회의(2005.11.29) 발표 논문

이름	소속	주제
공석구	남(한밭대)	안악3호분의 주인공 문제
김진순	남(고구려연구재단)	고구려 고분벽화의 묘주상 연구
문명대	남(동국대)	고구려고분벽화에 보이는 불교회화
강현숙	남(동국대, 경주)	진파리 고분군 조성에 관하여
임기환	남(고구려연구재단)	평양의 고구려도성
조희승	북(사회과학원)	안악3호무덤의 피장자와 신원장수상 유적에 대하여
김인철	북(사회과학원)	안악3호무덤 행렬도의 역사적 배경에 대하여
송순탁	북(중앙력사박물관)	태성리3호벽화무덤의 축조연대와 피장자 연구
강세권	북(사회과학원)	덕흥리벽화무덤에 보이는 유주의 성격

7 김정배, 2018, 앞의 책, 242~243쪽; ‘남북 역사학자들 금강산서 고구려유적 학술회의’(2005-12-01 오전 10:54, 금강산=연합뉴스 김용래 기자),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001&aid=0001162732>



그림 2 남·북 고구려유적 공동조사 학술회의(2005.11.29. 금강산호텔)

한 평양 일원의 남·북 고구려유적 공동 학술조사의 성과를 검토하고 향후 사업을 점검하는 자리였다. 논문은 남측에서 5편, 북측에서 4편 모두 9편이 발표되었다.

회의는 전반적으로 원만하게 진행되었으며 역사해석의 차이가 확연한 안악3호분 주인공 문제에 대해서는 논쟁이 있었다. 공식구는 발표에서 안악3호분의 묘지와 벽화를 분석하여 피장자인 동수(冬壽)를 336년에 전연(前燕)에서 망명한 사람이라고 주장하였다. 반면에 조희승은 안악3호분의 동수묘설을 강하게 비판하고 북측의 기존 입장인 고구려왕릉설을 주장하였다. 안악3호분에 대한 견해 차이는 고구려사 연구에서 남·북 학계의 대표적인 이견 가운데 하나로서 함께 풀어야 할 연구과제가 드러났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자리였다.

학술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북측의 사회과학원 고구려사연구실장 조희승은 “사료해석과 방법론상에 차이가 있지만, 그런 차이를 줄여가는 방향에서 북남 공동의 연구를 심화시켜가자”고 강조했고, 이에 대해 고구려연구재단 김정배 이사장은 “남북의 역사학자들이 한 자리에서 만나 고구려의 역사를 논하는 뜻

깊은 자리였다”고 답하였다.

그동안 남·북 간의 학술회의는 주로 제3국에서 간접 접촉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나, 이 회의는 고구려 유적을 단일 주제로 하여 남과 북이 직접 교섭하여 우리 영토 내에서 진행된 최초의 자리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

3. 북측 지역 역사유적 현지 조사

1) 평양 일대 고구려유적 남북공동 학술조사(2005.7.19~7.30)

2005년 7월 남측과 북측은 ‘남·북 고구려 관련 공동학술사업 추진을 위한 합의서’에 의거 평양 일대의 고구려 유적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⁸ 먼저 2005년 6월 20일 개성에서 양측 관계자들이 만나 조사 시기, 대상 등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협의하였다. 조사는 7월 19일부터 7월 30일까지 12일간 실시하기로 하고 고구려연구재단과 북측의 사회과학원 및 문화보존지도국이 참여하기로 하였다.

공동조사단은 남측에서는 고구려연구재단 김정배 이사장을 단장으로 최광식 상임이사, 임기환 연구기획자료실장, 배성준 연구위원, 오강원 부연구위원, 김진순 전문연구위원, 박종국 행정팀장과 전호태 울산대 역사문화학과 교수, 강현숙 동국대(경주) 고고미술사학과 교수, 여호규 한국외대 사학과 교수 등 10명으로 구성되었다. 북측은 리승혁 문화보존지도국 박물관처장, 송순탁 중앙력사 박물관 부관장, 조희승 사회과학원 고구려연구실장, 강세권 사회과학원 고구려연구실 연구사, 김민철 사회과학원 고고학연구소 연구사 등 5인이 참가하였다.

구체적인 조사 일정과 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요 조사 대상은 고구려 시기 벽화고분으로 알려진 동명왕릉과 진파리 고분군 및 진파리 1호분, 덕흥리 벽화무덤, 수산리 벽화무덤, 강서대묘, 강서중묘,

8 고구려연구재단, 2005a, 앞의 책; 김정배, 2018, 앞의 책, 230~241쪽 참조; 국립문화재연구소 고고연구실, 2018, 『남북문화유산교류사』, 국립문화재연구소, 170~173쪽.



그림 3 평양 일대 고구려 유적 남·북 공동 학술조사단



그림 4 『평양 일대 고구려 유적』 보고서(2005, 증보판)

〈표 3〉 평양 일대 고구려 유적 남·북 공동 학술조사 일정

일자	조사 내용
7.19	남측 조사단 평양 도착
7.20~21	백두산 정계비터 답사
7.22	동명왕릉 및 정릉사, 진파리고분군 조사
7.23	덕흥리 벽화무덤 조사
7.24	조선력사박물관 참관 및 조사 대상 고분의 관련 유물 참관
7.25	강서삼묘(대묘, 중묘, 소묘) 조사
7.26	묘향산 보현사 참관
7.27	수산리 벽화무덤 조사
7.28	안악 3호분, 태성리 3호분 조사
7.29	대성산성, 평양성 조사
7.30	남측 조사단원 평양 출발

강서소묘, 안악 3호분, 태성리 3호분과 성곽 유적인 대성산성, 평양성 등이다. 그리고 백두산정계비 관련 유적도 추가로 답사하였다.

동명왕릉은 능역과 함께 정릉사터를 조사하였고 그동안 공식 보고가 없었던 정릉사 뒤편의 팔각우물터를 실측 조사하였다. 진파리고분군은 고분군을 이루는 10여기의 무덤 외형과 분포 상황을 확인하였으며, 그중 진파리 1호분은 벽돌로 막은 입구를 개방하여 무덤 내부의 구조를 실측하고 벽화를 촬영하였다.

덕흥리 벽화무덤은 외부와 내부의 구조를 확인하고 필요한 부분을 실측하였다. 무덤 내부는 벽화를 보호하기 위해 유리 차단막이 설치되어 있는데 그 안쪽으로 들어가 벽화의 세부를 촬영하였다.

강서대묘와 중묘는 무덤 외부와 내부 구조를 확인하고 필요한 부분을 실측하였다. 이들 벽화에도 유리벽이 설치되어 있어 그 안쪽에서 벽화의 세부를 촬영하였다. 특히 강서 소묘는 일제 강점기에 작성된 실측 도면만 전할뿐 그간 북측에서도 공식적인 조사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공동조사를 통해 처음 공개되었다.

수산리 벽화무덤은 내부와 외부 구조를 확인하고 필요한 부분을 실측하였다. 역시 벽면에 유리벽이 설치되었으며 그 안쪽으로 들어가 벽화의 세부를 정밀 촬영하였다. 벽화가 있는 벽면의 균열이 심각하여 보존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태이다.

안악3호분은 무덤의 외부 및 내부 구조를 확인하고 실측하였으며 유리벽 안쪽에서 벽화를 촬영하였다. 이 고분은 고구려 벽화고분 중에서도 규모와 내용이 풍부하여 당시의 생활상을 살펴볼 수 있으며 묘주에 대한 논쟁이 상존하고 있는 가운데 남측 학자들에게 처음 공개되었다.

태성리 3호분은 2000년 12월에 발견되었으며 공동조사를 통해 남측 학계에 처음으로 공개되었다. 고분 구조는 회랑의 위치가 다를 뿐 안악 3호분과 거의 같은데 대부분이 파괴되어 벽면의 하부와 일부 벽화의 흔적만 남아 있다.

대성산성은 남문, 소문봉, 잉어못-시슴못 지구로 나누어 조사하였다. 평양성은 최승대와 을밀대 부근 그리고 현무문과 동암문에서 성터를 확인하였고 특히 인민대학습당 부근의 평양성 각석을 직접 조사하는 성과가 있었다. 이 외에

도 조사 기간 동안 남측 학자들이 백두산 정계비터를 직접 답사하여 표지석을 세운 자리를 확인하고 촬영할 수 있었다는 것도 중요한 성과이다.

당시 직접 촬영한 사진들은 2005년 11월 20일 『남북공동유적조사보고서(南北共同遺蹟調查報告書) 평양일대 고구려유적』의 출판을 통해서 공개되었다. 하지만 보고서 발간 직후인 11월 29일 금강산에서 개최된 ‘남북 고구려유적 공동조사 학술회의’에서 북측으로부터 고구려 벽화고분의 항공사진과 고구려산성 등 새로운 사진을 건네받아 이를 추가하여 증보판을 발행하였다. 이 증보판 보고서는 동북아역사재단 설립 이후에 초판 2쇄를 발행하는 등 북측 고구려 유적의 이해와 연구에 귀중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⁹

이 조사는 무엇보다도 광복 후 최초로 고구려 유적을 남·북이 공동으로 조사했다는 점에서 커다란 의의가 있다. 그동안 접할 수 없었던 유적들을 남측의 전문가들이 직접 실견하고 북측 학자들과 토론함으로써 양측이 학술적 교류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중국의 동북공정 등 주변국에서 진행되는 고구려사 등 우리 역사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고 함께 대응해나가는 데 남·북이 힘을 모으기로 했다는 점에서도 시의적절했다고 평가된다.

2) 고구려 안학궁 조사(2006.4.8~19)

2005년의 남·북 간 공동유적 조사와 학술회의의 성공적 수행을 바탕으로 2006년에는 평양의 안학궁에 대한 공동 발굴조사를 실시하였다. 고구려가 427년에 천도한 평양의 위치에 대해서 학계의 논란이 있는 가운데 유력한 후보지인 안학궁을 대상으로 하였다.

한편, 안학궁 발굴조사와 연계하여 국회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정의화 의원)’의 평양 지역 유적 방문도 함께 추진하였다. 고구려연

9 고구려연구재단, 2005, 앞의 책; 고구려연구재단, 2005b, 『증보판 南北共同遺蹟調查報告書 평양일대 고구려유적』, 고구려연구재단; 동북아역사재단, 2007b, 『증보판 南北共同遺蹟調查報告書 평양일대 고구려유적』, 동북아역사재단.

구재단과 함께 2005년 11월 24~27일 동안 중국의 환인, 집안 지역 고구려 유적을 탐방한 바 있는 고구려사특위가 평양 일대의 고구려 유적을 직접 답사하고 발굴조사 현장을 둘러봄으로써 중국의 역사 왜곡에 대응 및 남·북 교류 관련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기 위함이었다.

조사 기간은 4월 8일부터 19일까지이고 국회 특위는 4월 8일부터 11일까지 체류하기로 일정이 확정되었다. 남측 조사단은 김정배 고구려연구재단 이사장을 단장으로 이인철 고구려연구재단 연구위원, 오강원 고구려연구재단 부연구위원, 최병헌 숭실대 교수, 노태돈 서울대 교수, 양정석 수원대 교수, 백종오 경기도립박물관 박사, 배성환 고려대박물관 박사, 조태희 위더스테크 사장으로 구성하였다. 북측 조사단은 남일룡 김일성종합대 교수가 단장이 되어 동대학 전제현 교수, 김유철 교수, 리광희 교수, 리영식 교수를 비롯하여 정동철, 리경철, 정봉찬, 백용찬, 박준호, 리재남 선생과 문화보존지도국 리승혁, 리기웅 선생 및 사회과학원의 김경삼, 강세권 선생이 참여하였다. 국회 고구려사특위에서는 정의화 위원장을 비롯하여 황우여, 임해규, 임종석 의원이 동행하였다.¹⁰

남·북 공동 조사의 일정과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동 조사에서 안학궁 파악의 핵심이 되는 성벽, 건물 터, 무덤, 기와에 대한 지표조사, 측량, 시굴 등을 진행하였다. 조사를 통해 동벽 일부 구간의 경우 석축 최하단부가 북측에서 기와에 알려진 것보다 0.8m 이하까지 내려간다는 점과 동벽 바깥쪽의 붕적 상태를 확인하였다. 그동안 분명하지 않았던 네 성벽의 단면 조사 지점을 파악하고 일부 구간에 대한 측량을 통해 새로운 정보를 얻게 되었다. 또한 안학궁 1호분의 정확한 위치를 파악 및 측량하고, 출토된 각종 기와류를 직접 조사하고 비교적 이른 시기의 기와를 확인할 수 있었다.

조사 결과 남·북이 공동으로 안학궁성은 대성산성과 함께 고구려가 장수왕 15년(427)에 평양으로 도읍을 옮긴 뒤부터 평원왕 28년 평양성(장안성)으로 도

10 김정배, 2018, 앞의 책, 245~257쪽 참조; 국립문화재연구소 고고연구실, 2018, 『남북문화유산교류사』, 국립문화재연구소, 174~176쪽.

〈표 4〉 평양 일대 고구려 유적 남·북 공동 학술조사 일정

일자	조사 내용
4. 8	남측과 북측 조사단 합류
4. 9	공동 조사 일정 토의 외 동명왕릉과 진파리 고분군 등 답사
4.10	안학궁 조사 지점 토의, 식물원 구역 벽화분과 대성산성 남문 답사
4.11	안학궁 남궁 중심건물 시굴 조사, 안학궁성 남벽과 서벽 지표 및 측량 조사
4.12	안학궁 남궁 중심건물 시굴 조사, 안학궁 1호분 조사
4.13	안학궁 남궁 중심건물 및 우측 건물 터 시굴 조사, 안학궁 1호분 측량 조사
4.14	안학궁 남궁 건물 터 시굴 조사 및 측량 조사
4.15	안학궁 남궁 건물 터 시굴 조사 및 측량 조사(오전), 보현사 등 답사(오후)
4.16	공동 조사 일정 토의, 장비 점검
4.17	안학궁 동벽 시굴 조사, 안학궁 내 건물 터 지표 조사, 조선중앙력사박물관 수장 기와 조사(오후)
4.18	안학궁 동벽 측량 조사(오전), 김일성종합대학 수장 기와 조사(오후)
4.19	공동 조사 종결(오전)



그림 5 안학궁 동벽 2006년 남·북 공동 확장 시굴 지점 조사 전경



그림 6 『고구려 안학궁 조사 보고서 2006』 보고서

음을 옮기기까지 사용한 고구려 왕성이자 도성이었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다. 이는 일제 이후 일본 학자들을 중심으로 안학궁이 고구려왕성이 아니라는 주장을 비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조사 결과는 2006년 『고구려 안학궁 조사 보고서 2006』에 수록하여 출판하였으며 2007년 동북아역사재단에서 재발간하였다.¹¹

4. 북측의 고대사 연구 성과 출판

고구려연구재단은 2003년 북측에서 개최된 ‘동명왕 출생 2300돐 기념 고구려 전국학술토론회’에 제출되었던 논문들과 새로 연구 집필된 것들을 편선하여 2004년 11월 『북한의 최근 고구려사 연구』를 출간하였다.¹² 고구려연구재단 대외협력실 명의의 ‘책 머리에’와 ‘우리의 고구려사 고수를 위하여’와 ‘고구려의 력사와 문화’라는 부제가 달린 두 편으로 구성되었다.

이 책은 중국이 ‘동북공정’으로 고구려사와 발해사 등을 왜곡하는 상황에서 북측 학계가 중국의 주장을 조목조목 비판한 것으로 북측의 대응 논리를 총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게 해준다. 그동안 쉽게 접근하기 어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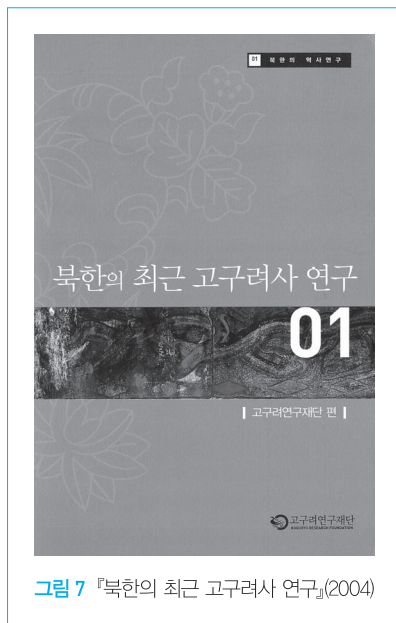


그림 7 『북한의 최근 고구려사 연구』(2004)

- 11 고구려연구재단, 2006b, 『남북공동학술조사보고서2 고구려 안학궁 조사 보고서 2006』, 고구려연구재단; 동북아역사재단, 2007a, 『남북공동학술조사보고서2 고구려 안학궁 조사 보고서 2006』, 동북아역사재단.
- 12 고구려연구재단 편, 2004, 『북한의 최근 고구려사 연구』, 고구려연구재단.

〈표 5〉 『북한의 최근 고구려사 연구』 수록 논문

편	논문 주제	발표자
제1편 우리의 고구려사 고수를 위하여	고구려력사연구와 관련하여 제기되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	조희승
	고구려는 고대조선족의 후예들이 세운 나라	리영식
	고구려의 역사적 지위에 대한 문헌사적 고찰	강세권
	기와를 통하여 본 삼국문화의 공통성	윤광수
	수, 당나라 침략자들을 쳐물리친 고구려 인민들의 투쟁은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을 지키기 위한 반침략적 조국방위항전	전동철
	발해는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	림호성
	‘책봉’과 ‘조공’에 대하여	김혁철
	고려는 고구려를 계승한 우리나라의 첫 통일국가	박영혜
	성씨를 통해 본 우리 민족국가들의 혈연적 계승성	공명성
제2편 고구려의 역사와 문화	동명왕에 의한 고구려건국과 그 의의	남일룡
	고구려의 평양천도와 그 역사적 의의	김덕성
	고구려가 군사강국으로 이름떨칠수 있었던 요인에 대하여	손영종
	고구려 사람들의 상무기풍	김은택
	고구려가 동아시아문화 발전에 논 역할	송순탁
	고구려무덤벽화의 특성	손수호
	고구려산성의 특징	지승철
	장수산성의 축조형식과 년대에 대하여	리승혁
	황해북도 연탄군 송죽리 고구려벽화무덤의 역사지리적 환경과 피장자문제에 대하여	조희승
	국내성 도읍시기 수도성방위체계에 대하여	최승택
	새로 발굴된 고구려벽화무덤들에 대하여	김경삼

은 북측의 고대사 연구 성과가 남측에서 공식적으로 발간됨으로써 이후 한층 활성화된 남·북 간 출판 교류의 계기가 되었다.

Ⅲ. 동북아역사재단(2006.9~현재) 시기

2006년 9월 동북아역사재단이 발족된 이후 다양한 형태의 남·북학술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하였다. 고구려연구재단에서 축적된 경험과 성과를 바탕으로 캐나다·중국·러시아 등 제3국의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우리 역사에 대한 왜곡과 일본 교과서, 독도, '위안부' 문제 등 다양한 주제의 학술회의를 개최하는 한편 북측에 산재한 고구려와 발해 유적에 대한 조사와 연구를 추진하였다.

1. 남·북 학술회의 개최

1) '동북공정과 고구려' 국제학술회의(2008.8.11~13, UBC, 남·북·중·캐나다·미·일·이탈리아)
2008년 8월 11일부터 13일까지 캐나다 UBC(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에서 국제고려학회와 동북아역사재단이 공동으로 '동북공정과 고구려'를 주제로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하였다. 학술회의에는 남측과 북측을 비롯하여 중국, 캐나다, 미국, 일본, 유럽의 학자들이 초청되었다. 특히 중국에서 추진한 '동북공정'이 5년간 사업으로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사업을 담당했던 중국사회과학원(中國社會科學院) 중국변강사지연구중심(中國邊疆史地研究中心)의 전현직 책임자들이 참가하였고, 남과 북의 대응 기구인 동북아역사재단과 북측 사회과학원의 핵심 관계자들이 함께 고구려사와 발해사 문제에 대해 발표와 토론을 진행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가 있는 학술회의였다.

첫째 날에는 하와이대학 강희웅의 '동북공정과 역사분쟁의 해법을 찾아서'라는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중국과 북측의 발표와 토론이 진행되었다. 오전에 먼저 4편의 중국 측 논고가 발표되었다. 중국변강사지연구중심의 전 주임인 마대정(馬大正)은 '고구려 역사 연구의 사고를 심화하자'라는 짧은 글에서 고구려 역사는 동북아 지역의 역사의 중요한 내용이며 또한 고대 중국 역사의 조성 부분이고 고대 한반도 역사의 조성 부분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고구려사 연구에 있어 역사와 현실의 분리, 학술과 정치의 분리, 양측 학자들의 상호 이해 및 교류



그림 8 '동북공정과 고구려' 국제학술회의(2008.8.11.~13, 캐나다 UBC)

〈표 6〉 '동북공정과 고구려' 국제학술회의 일정 및 발표 논문

일자	발표자	논문 주제
8.11	강희웅(University of Hawaii)	기조연설: 동북공정과 역사분쟁의 해법을 찾아서
	馬大正(中國邊疆史地研究中心)	深化高句麗歷史研究的思考(提要)
	勵聲(中國邊疆史地研究中心)	東北邊疆歷史與現狀研究
	于逢春(中國邊疆史地研究中心)	漢朝國家形態與高句麗建國
	李大龍(中國邊疆史地研究中心)	《三國史記·高句麗本紀》有關東漢和高句麗關係的紀事
	김정영(북측사회과학원)	고구려는 조선중세의 자주적인 봉건국가
	조희승(북측사회과학원)	고구려 관련 기록에 나타난 책봉조공 문제
	손수호(북측사회과학원)	삼국문화의 공통성과 그 형성의 역사적 조건에 대하여
	임호성(북측사회과학원)	발해의 창건자 대조영은 고구려유민
	신광선(북측사회과학원)	유적유물을 통해 본 고구려와 발해문화의 계승관계

8.12	노태돈(서울대)	조공책봉관계를 통해서 본 고구려국의 성격
	정광(고려대)	고구려의 언어와 한국어와의 친족관계
	최광식(국립중앙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고구려고분벽화묘사도와 유리건판
	박혜인(계명대)	고구려의 서옥제와 가족
	금경숙(동북아역사재단)	고구려의 국가적 정체성
	김현숙(동북아역사재단)	고구려의 역사적 계승성
	고광의(동북아역사재단)	최근 중국 내 고구려유적의 관광산업화 현황
종합토론		
8.13	李成市(早稻田大學)	동북아시아에 있어서 고구려의 역사와 문화
	篠原啓方(關西大)	책봉을 통해서 본 중국과 고구려의 인식차이
	濱田耕策(九州大)	발해역사에서 발견되는 고구려의 잔영 - 논문만 제출
	Maurizio Riotto (Naples' University)	고구려 논쟁에 관한 다양한 이유들
	서정민(University of Hawaii)	현재 중국 민족주의와 동북지역의 시간성과 공간성의 문제
	Mark E. Byington (Harvard University)	20세기 중국사학사에서의 고구려
	북측이 시연한 역사지도 관람	

와 심화 연구를 주장하였다. 중국변강사지연구중심의 주임인 여성(厲聲)은 ‘동북변강역사와 현상 연구’라는 발표문에서 동북공정의 시작, 과제 및 성과, 고구려사 문제, 중국 역사 강역의 발전과 최종 확립 등에 대해 언급하였으며 특히 동북공정은 중국이 역사 및 애국주의 강화를 위해 정책적으로 실시한 국책 연구 사업이었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또한 우봉춘(于逢春)과 리대룡(李大龍)의 발표문에서는 중국 한(漢) 왕조와 고구려의 관계가 신속과 지배의 관계라는 동북공정의 논리를 주장하였다.

이어 오후에는 북측에서 김영정이 ‘고구려는 조선중세의 자주적인 봉건국가’, 조희승이 ‘고구려 관련 기록에 나타난 책봉조공 문제’, 손수호가 ‘삼국문화의 공통성과 그 형성의 역사적 조건에 대하여’, 림호성이 ‘발해의 창건자 대조영

은 고구려유민', 신광선이 '유적유물을 통해 본 고구려와 발해문화의 계승관계'라는 논고를 발표하였다. 각 논고의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고구려의 자주성과 삼국문화의 공통성 및 발해의 고구려 계승성 등 중국의 고구려사와 발해사에 대한 왜곡된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내용들로서 학술회의가 사뭇 격앙되는 분위기였다.

둘째 날 오전에는 남측 학자들의 발표가 있었다. 노태돈이 '조공책봉관계를 통해서 본 고구려국의 성격', 정광이 '고구려의 언어와 한국어와의 친족관계', 금경숙이 '고구려의 국가적 정체성', 김현숙이 '고구려의 역사적 계승성'을 발표하여 고구려 역사와 문화가 갖는 정체성을 강조하고 우리 민족사로서의 계승성을 주장하였다. 또한 고광의가 '최근 중국 내 고구려유적의 관광산업과 현황'이라는 발표문을 통해서 중국에 소재한 고구려 유적과 고분벽화의 훼손 및 관리 부실에 대해 지적하였다. 발표 시 현지 조사를 통해 촬영한 관련 사진 자료를 공개함으로써 중국 측에 철저한 관리를 요구하고 북측과는 유적의 실태를 공유하는 자리가 되었다. 당시 PPT로 준비한 집안 지역 고구려 유적의 현장 사진은 북측에서 요청하여 별도로 전달하였다. 이외에도 발표에 참가하지는 못하였지만 최광식이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고구려 고분벽화 모사도와 유리건판', 박혜인이 '고구려의 서옥제와 가족'을 제출하였다.

이날 오후에 종합토론이 진행되었다. 남·북 학자들은 공히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동북공정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하였다. 중국의 고구려사와 발해사 인식의 문제점에 대해 비판하고 사료 해석에서 중국 측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부분만 취사선택하는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3일째인 마지막 날은 일본 와세다대학 이성시, 미국 하버드대학 마크 바잉턴, 하와이대학 서정민, 이탈리아 나폴리대학 마우리치오 리오토 등이 발표에 참가하여 중국의 '동북공정' 사업에 대해 비판하는 한편 고구려사와 발해사 등의 올바른 역사 인식을 촉구하였다.

학술회의 이후 남·북 학자들은 함께 지역 명소를 관람하고 자연스럽게 향후 학술교류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북측 사회과학원의 고위 관계자는 동북아

역사재단의 역할에 관심을 표명하는 한편 향후 ‘학술대회’, ‘학술서적 발간’ 등에 방면에서 협력하고 싶다는 의향을 구두로 전해왔다.

먼저 ‘학술대회’ 관련하여 금년 내 독도 및 고구려·발해 관련 학술회의 2건을 공동으로 개최하자는 것이다. 사정이 여의치 않을 시 독도 관련 학술회회는 가급적 연내 개최하고, 고구려 관련 학술회회는 2009년에 개최할 수 있다고 하였다. 만약 양자 모두 2008년 개최가 어려우면 2009년에는 반드시 개최하기를 희망한다는 의향을 구체적이고 분명히 하였다. ‘학술서적 발간’과 관련해서는 북측의 연구 성과물을 동북아역사재단에서 출간하기를 희망하고 현재 출간 가능한 서적은 2권 정도가 준비되었다고 하였다.

당시 북측의 학술교류 의사를 귀국 후 재단 지도부에 보고하였고 이를 계기로 남·북 학술교류협력 사업이 동북아역사재단에서도 계속 이어질 수 있게 되었다.

2) 역사기억과 역사인식-일본 우익 역사교과서에 대한 비판 국제학술회의(2008.12.19, 북경대학, 남·북·중)

2008년 8월 캐나다 UBC에서 개최된 국제학술회의를 통해서 남측과 학술교류 의사를 밝힌 북측은 같은 해 연말 중국에서 개최된 ‘역사기억과 역사인식’이란 주제의 일본 우익 역사교과서에 대한 비판 국제학술회의에 참여하였다. 학술회의는 북경대학(北京大學) 역사계(歷史系)와 중화문화교류여합작촉진회(中華文化交流與合作促進會)가 주관하고 북측과 연락은 연변대학(延邊大學)이 협조하여 12월 18부터 19일까지 북경대학 수인중심(守仁中心) 중관(中館)에서 이틀간 진행되었다.¹³

북측에서는 사회과학원 과학지도국 고정웅 국장과 김학성 부원, 력사연구소 지승철 부소장, 신남철 실장, 리영환, 주성철 연구사가 참석하였다. 남측에

13 北京大學歷史學系·中華文化交流與合作促進會, 2008, 『歷史記憶與歷史認識: 日本右翼歷史教科書批判 國際學術討論會 会议手冊』 [전자자료]CD-ROM.



그림 9 역사기억과 역사인식-일본 우익 역사교과서에 대한 비판 국제학술회의
(2008.12.19, 중국 북경대학)

서는 동북아역사재단 제1연구실 이훈 실장을 비롯하여 연민수, 이재석, 서종진, 홍성근, 남상구, 박경석 연구위원 등이 참석하였다. 중국은 북경대학 역사계 우대용(牛大勇) 주임을 비롯하여 왕춘매(王春梅), 왕효추(王曉秋), 송성유(宋成有), 서용(徐勇), 왕신생(王新生), 장운우(藏運祐), 침인안(沈仁安), 김동길(金東吉), 한상도(韓相禱), 왕원주(王元周) 교수와 중국사회과학원 근대사연구소(近代史研究所) 영유목(榮維木) 연구원, 중국사회과학원 세계사연구소(世界史研究所) 탕중남(湯重南) 연구원, 강소성사회과학원(江蘇省社會科學院) 손택외(孫宅巍) 연구원, 연변대학 박찬규(朴燦奎) 교수 중국전매대학(中國傳媒大學) 시번(柴璠) 교수 등이 참여하였다.

발표는 북측 6편, 남측 6편, 중국 측 6편 모두 18편의 논문이 발표되었다.

남측은 주로 2007년도 일본문부성 검정을 통과한 교과서의 고대사, 근대사, 식민지 지배, 일본군'위안부', 독도 관련 기술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연민수는 우익교과서의 한국고대사 관련 서술 분석을 통해 임나일본부 등 사실관계의 오류와 독선적 역사인식과 배타적 일국주의(一國主義)를 지향하고 있다고

〈표 7〉 역사기억과 역사인식-일본 우익 역사교과서에 대한 비판 국제학술회의(2008, 12, 19.) 발표 논문

이름	국적	주제
신철남	북	일본의 아시아침략전쟁력사에 대한 철면피한 외국행위
이훈	남	일본 고등학교 역사교과서에 기술된 근세 한일관계
榮維木	중	일본 역사교과서문제의 역사 연혁-《새역사교과서》를 대하여
孫宅巍	중	일본 교과서문제와 南京大屠殺
김학성	북	일본은 학살과 랍치, 문화재략탈의 원흉
남상구	남	일본 역사교과서의 일본군'위안부' 기술 변화
리영환	북	일제의 조선강점을 정당화하기 위한 “조선반도위협”설
王新生	중	“家永訴訟”으로 본 일본 역사교과서문제
서종진	남	일본 역사교과서의 식민지 지배와 저항에 대한 서술
宋成有	중	네차레의 역사교과서 파동에 관한 평론
고정웅	북	일본의 역사외국행위의 진상과 그 정치적목적
연민수	남	일본우익교과서의 한국고대사 인식
徐勇	중	중일관계와 일본 우익 교과서문제
지승철	북	독도를 “일본령토”로 표기한것은 영토팽창주의자들의 파렴치한 역사외국
홍성근	남	일본 교과서와 독도 문제
臧運祜	중	근현대 중일 관계사에 관한 사고-두 번의 중일 조약을 기초로
주성철	북	조선에 대한 식민지통치시기에 감행한 특대형범죄를 미화분식하려는 일본의 악랄한 역사외국행위
이재석	남	일본 역사교과서의 古代史 서술의 특징과 문제점

비판하였다. 이재석은 고대사 서술에서 8세기 이후의 신라·발해 관계가 지나치게 소략하게 기술되어 있는 반면 당과의 관계는 국가 구조의 문제에서 문화적 영향에 이르기까지 매우 중시되었다고 하였고, 이훈은 근세 한일관계에 대한 기술 내용이 이전의 교과서에 비하여 눈에 띄게 축소되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서종진은 일본 역사교과서의 3.1운동에 대한 기술 분석을 통해 식민지 내

부의 요인보다 일본 내 민본주의의 영향이나 국제정세의 변화에 의해 발생했다는 식으로 기술함으로써 3.1운동의 결과인 ‘문화정치’가 마치 선정을 베푼 것처럼 이해하도록 한다는 점을 비판하였다. 남상구는 1997년 이후 중학교 역사 교과서와 2007년 4월 검정을 통과한 고등학교 역사 및 공민과 교과서를 대상으로 일본군‘위안부’ 관련 기술을 분석하고 아예 삭제하거나 일본군의 관여와 강제성을 불명확하게 기술하는 등 국제사회의 요구에 역행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홍성근은 일본의 초·중·고 교과서의 독도관련 기술을 남측에서는 일제의 한반도 침탈과정에서 야기된 역사문제라고 보는 반면, 일본에서는 영유권에 관한 문제, 즉 영토문제로 보고 있다고 분석하였다. 갈등 해소의 방안으로 양국의 역사적 관계 개선을 위한 교류와 대화, 과거사에 대한 역사적 책임을 바탕으로 독도 문제에 대한 일본의 정치적 결단을 촉구하였다. 아울러 공감대가 형성된 독도문제를 통해 남·북 간 교류협력을 강화해나가자고 제안하였다.

북측에서는 고정웅이 일본의 역사왜곡은 그것을 직접 담당 수행하는 주도 세력과 주관 부서 및 추구하는 목적으로 보아 단순히 학술상의 착오가 아니라 정치적으로 출발한 계획적이며 정책화된 역사왜곡 행위라고 비판하였다. 지승철은 일본의 역사왜곡 책동 가운데서 가장 파렴치한 것은 조선의 고유한 영토인 독도를 일본 영토로 표기한 것이라고 비판하고 과거사에 대한 반성을 촉구하였다.

김학성은 임진왜란 종결 410주년을 맞이하여 일본이 저지른 학살과 납치의 만행을 고발하고 서적과 금속활자, 도자기를 비롯한 공예품들과 회화, 불상, 향로, 종 등 우리나라의 귀중한 문화 재부를 깡그리 앗아갔다고 성토했다. 고려 시대 왜구의 침략, 조선의 임진왜란 그리고 운양호 사건, 강화도조약 및 강제병합으로 이어지는 일본의 한반도 침략의 역사에 대해 규탄하고 그 책임을 물었다.

신남철은 일본의 새역모 역사교과서가 아시아 국가들을 대상으로 도발하고 감행한 침략 전쟁을 미화 분식하고 그 죄악을 은폐 왜곡함으로써 내외의 항의

와 규탄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성토했다. 리영환은 최근 일본 정계와 우익들에 의해 다시 거론되고 있는 ‘조선반도위협설’에 대해 비판하고 오히려 일본이 이를 빌미로 군비확장의 기회로 삼으려 한다고 분석하였다. 주성철은 일제가 식민지 통치시기에 저지른 국권 강탈, 집단 학살 및 약탈, 민족의 낫 거세, 창씨개명, 일본군‘위안부’ 범죄 등을 특대형 범죄로 거론하고 사죄와 배상을 촉구하였다.

중국의 송성유(宋成有)는 1980년대 이후 네 차례에 걸쳐 출간된 일본 우익 역사교과서의 전반적인 왜곡 내용을 상세히 분석하고 평론하였다. 장운우(臧運祐)는 1871년과 1978년 양국 간 맺어진 중일 조약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지난 100여 년간의 중일 관계사를 조명하였다. 손택외는 일본 우익 세력이 교과서를 통해 남경대학살 만행을 축소 부정하려는 점을 비판하고 객관적인 사실로 역사의 진실을 밝히고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아야 하는 학계의 의무와 역사적 책임을 강조하였다. 왕신생(王新生)은 일본의 역사교과서 문제를 둘러싼 이에나가 사부로(家永三郎)의 세 차례에 걸친 소송을 중심으로 교과서 문제의 변천과 그 배경을 분석하였다. 영유목은 중·일 관계의 건전한 발전에 걸림돌 중 하나로서 일본의 역사교과서 문제를 들고 우익의 새 역사교과서가 전쟁의 침략성을 부정하고 책임을 전가하며 황국주의 사관을 선양한다고 지적하고 내용상 대량의 사실 왜곡과 악의적 서술이 존재하고 있음을 비판하였다. 서용은 일본 우익 교과서의 핵심적인 목적이 전후 민주개혁의 기본 원칙을 부정하고, 신군국주의의 실현을 기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하였다. 일본 정부는 오직 역사 문제를 청산할 때만 중국과 전면적이고 정상적인 협력 관계를 추진할 수 있으며 아시아와 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공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았다.

학술회의를 통해 남·북 및 중국의 학자들은 일본 역사교과서 문제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바람직한 해결 방안 모색에 고심하였다. 특히 남·북 학자들은 주변국 역사왜곡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한편 남·북이 함께 역사와 영토 문제에 대해 공조를 확대해나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3) 고구려·발해사 연구의 새로운 지평(2011.11.28~29, 블라디보스토크, 남·북·중·러·일)
 2011년에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북측 사회과학원과 학술회의를 진행하였다.¹⁴ 이미 밴쿠버와 북경에서 학술회의를 개최한 경험과 재단이 지원한 북측 옥도리와 부거리 일대의 고구려 발해 유적의 발굴 성과에 기초한 학술회의이다. 준비가 순조롭게 진행되었으며 북측에서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보였다. 사회과학원 고고학연구소의 인류고고학연구실 실장인 지화산을 단장으로 중세고고학연구실 실장 리창진, 인류고고학연구실 실장 김춘종과 력사연구소 발해사연구실 실장 림호성, 고대사연구실 실장 권승안 등 사회과학원의 실장급 학자들이 대거 참여하였다.

학술회의 주제는 ‘고구려(高句麗)·발해사 연구(渤海史 研究)의 새로운 지평(地平)’으로 정했으며 러시아 과학아카데미 극동분소 역사고고민속학연구소가 주최하고 동북아역사재단이 후원하는 형식으로 열렸다. 남·북 학자 이외에도 중국, 러시아, 일본의 학자들이 참여하였다.

각국의 학자들은 11월 24일에 블라디보스토크에 도착하여 극동대학 박물관과 이니세예프 박물관 등을 참관하고 크라스키노 발해 성터를 답사하였다. 해외 유적과 유물의 참관 기회가 많지 않은 북측 학자들에게 연해주 지역에서 발굴된 유물들을 직접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안배한 부대 행사였다. 특히 재단이 러시아 측과 함께 공동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크라스키노 발해성터의 발굴 현장을 남·북 학자들이 직접 발굴 책임자인 볼딘 박사의 해설을 들으며 참관함으로써 그 결과를 공유하는 뜻깊은 시간이었다.

발표는 11월 28일부터 29일까지 아무르잘리프 호텔 7층 회의실에서 진행되었다. 정재정 재단 이사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이틀 동안 남측 8명, 북측 7명, 중국 6명, 러시아 15명, 일본 2명 등 총 38명이 참가하여 열띤 발표와 토론을 펼쳤다. 논문은 고구려 관련 7편, 발해 관련 23편으로 모두 30편이 발표되

14 동북아역사재단, 2011a, 『高句麗·渤海史 研究의 새로운 地平』 국제학술회의 자료집, 동북아역사재단.



그림 10 고구려·발해사 연구의 새로운 지평(2011.11.28.~29,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그림 11 고구려·발해사 연구의 새로운 지평 참가 남·북 학자 크라스키노 성터 공동 답사

〈표 8〉 ‘고구려·발해사 연구의 새로운 지평’ 학술회의 발표 논문

일자	발표자	국적	내용
11.28	이블리에프	러	러시아 발해연구경향과 발해사 인식
	지화산	북	최근에 발견된 동산동, 옥도리벽화무덤에서 주목되는 문제
	정영진	중	최근 중국학계의 변강사 연구동향과 고구려, 발해
	임상선	한	발해의 遷都와 都城 연구 현황
	젤만	러	발해고고학의 새로운 연구 경향
	小嶋芳孝	일	일본의 발해사 연구 현황
	리창진	북	순목황후무덤을 통하여 본 발해국가의 황제적 성격
	아스타셴코바	러	고구려양식과 唐양식의 요소가 보이는 연해주 발해 예술품
	古畑徹	일	장건장『발해국기』를 둘러싼 약간의 문제
	김은국	한	富居里 유적과 발해 東京
	김태순	중	발해 무덤의 특징과 관련 문제 연구
	크라딘	러	발해 민족에 관한 새로운 전망
	김춘중	북	금성리 1호무덤에서 나온 사람뼈의 인류학적 특징에 대해
	정경일	중	최근 조사, 발굴된 고구려 벽화무덤에 대하여
	고광의	한	옥도리(Okdo-ri) 고구려 고분벽화에 대한 고찰
11.29	클류에프/이쿠포프/ 말코프/김동훈	러/한	콕사로프카-1 유적의 연구 현황
	볼딘	러	크라스키노 발해성지의 상부건축층에서 확인된 절터
	小嶋芳孝	일	크라스키노 유적 출토의 아스팔트질 물질과 용기의 검토
	장철만	북	우리나라 동해안 일대, 발해 돌간흙무덤의 분포 정형과 구조형식상 특징
	주국침	중	발해 上京城의 시장과 인구문제
	김정희	한	安史의 亂과 발해의 대외정책
	니키티н/ 글라첸코프	러	연해주 출토 발해의 무기 연구

림호성	북	발해 동북부지역의 주민 구성 연구
이동휘	중	연변장성 연결시 구간 지표조사 간략 보고
이효형	한	한국의 발해사 연구와 앞으로의 방향
샤프쿠노프	러	스몰린스카야 문화와 발해인의 교류에 관해서
권승안	북	고구려 평양 천도의 역사적 의미
피스카료바	러	연해주의 고고학 자료로 본 발해국의 구성원으로써 말갈족
레첸코	러	남연해주 발해인의 생활활동
크류찬코/ 쿠드랴쇼프	러	발해 북쪽경계 연구

었다. 그 내용은 남·북 및 중국, 일본, 러시아의 고구려사·발해사 연구의 현황, 최근 고고학적 성과를 통해 이루어진 고구려·발해사의 신조명, 문헌 연구를 통한 고구려·발해사 연구 성과 등의 영역에 집중되었다.

러시아의 이블리에프는 ‘러시아의 발해 연구 경향과 발해사 인식’이라는 논고에서 발해는 말갈과 고구려인으로 이루어진 국가이며 부분적으로는 동아시아 역사이자 또 다른 한편으로는 현재의 러시아, 북측, 중국에 걸쳐 있는 역사로 인식한다는 러시아 학계의 입장을 밝혔다.

북측의 림호성은 ‘발해동북부지역의 주민구성연구’에서 연해주 지역인 발해 동북지역의 주민 구성이 모두 말갈인인 듯이 왜곡하는 현상이 있으나 이 지역에서는 말갈인들만 산 것이 아니라 일정한 지역을 경계로 하여 고구려 유민 계통의 주민들이 갈라져 살고 있었다고 강변하였다. 또한 리창진은 ‘순목황후무덤을 통하여 본 발해국가의 황제적 성격’이라는 논고에서 새로 발굴된 순목황후 무덤을 통하여 발해에서는 최고 주권자의 부인을 왕비가 아니라 그보다 급이 더 높은 황후라고 불렀으며 왕 또한 독자적인 연호를 가진 천자국의 황제라 칭했다고 주장하였다.

남측에서는 재단의 김은국이 ‘부거리 유적과 발해 동경(東京)’이라는 논고를 통해 북측의 발해사 연구를 간략히 개관하고 재단이 지원하여 연변대학과 북측

사회과학학원 고고학연구소가 함께 발굴조사한 부거리 일대의 발해유적에 대해 언급하였다. 이 외에도 임상선이 ‘발해의 도성과 천도 연구 현황’을 이효형이 ‘한국의 발해사 연구와 앞으로의 방향’을 발표하였다.

학술회의는 개최지가 발해 유적의 현장인 만큼 현지의 발굴 관련 소개와 발해사 전반에 걸친 연구 주제가 많았고 고구려사 관련 내용은 6편 정도가 발표되었다. 그중 관심을 끈 것은 2009년 평양시 낙랑구역 동산동과 2010년에 발견된 남포시 용강군 옥도리에서 발견된 고구려벽화에 대한 논고이다. 특히 이 고분들은 재단이 연변대학을 통해 북측 사회과학원으로부터 결과물을 제출받아 2011년 2월 말에 동북아역사재단에서 출간되어 이미 북측에서도 책자를 수령한 상태였다.

북측의 지화산은 ‘최근에 발굴된 동산동, 옥도리벽화무덤에서 주목되는 문제’라는 원고에서 유적과 벽화의 상태를 소개하였다. 동산동 고구려벽화무덤이 나무곽무덤, 귀틀무덤, 벽돌무덤들이 집중 분포된 낙랑구역에서 발견되었다는 점에서 이 고분을 이 지역에 대한 고구려의 지배와 영향관계를 보여주는 것으로 보았다. 남측의 고광의는 ‘옥도리 고구려 고분벽화에 대한 고찰’을 통해 옥도리 고구려 고분벽화의 화면 배치에 담긴 의미와 일부 도상에 대한 해석, 그리고 편년에 대해 검토하고 편년을 북측에서 4세기 말에서 5세기 초로 제시한 것에 대해 5세기 중반으로 다소 늦춰 잡았다.

이 학술회의는 고구려와 발해를 통합 주제로 하여 남과 북, 러시아, 중국, 일본의 학자들이 대거 참여한 최초의 학술회의였다. 각국의 최신 고고학 자료 및 연구 성과 등을 발표하고 관련 정보를 교환하였으며, 각국 학계의 고구려 발해에 대한 역사 인식과 연구의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는 자리였다.

4) 제1회 일본군‘위안부’ 문제 국제학술회의(2014.5.30, 연변대학, 남·북·중)

재단은 일본군‘위안부’ 관련 자료 조사와 연구를 통해 역사적 진실을 밝히고 피해자 중심의 문제 해결을 위해 다각적 교류와 국제적 공론화 등의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를 위해 남·북 간 공조가 필요하고 같은 피해자 입장인 중국 또한



그림 12 제1회 일본군'위안부' 문제 국제학술회의(2014.5.30, 중국 연변대학)

함께 대응할 수 있는 문제로서 공동 학술회의를 추진하였다.¹⁵

제1회 일본군'위안부' 문제 국제학술회의는 2014년 5월 30일에 중국 연변 대학에서 개최되었다. 중국사회과학원 중일역사연구소(中日歷史研究所), 연변 대학 조선반도연구협동창신중심(朝鮮半島研究協同昌新中心)과 함께 동북아역사재단이 공동주최하여 북측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중국 측에서는 중국사회과학원 중일역사연구중심(中日歷史研究中心) 류휘춘(劉暉春) 주임 외 연구원 2명, 연변대학 최형모 부총장, 김하록 사회과학처장, 박찬규 대학원장, 조선반도연구협동중심 채미화 주임, 김성호 교수 등, 상해사범대학(上海師範大學) 소지량(蘇智良), 진려비(陳麗菲) 교수가 참석하였다. 북측은 사회과학원 역사연구소 조희승 소장을 비롯하여 리훈혁, 김철남, 김승일 등이 참석하였다. 남측은 동북아역사재단의 역사연구실 연민수 실장을 비롯하여 서현주, 이종국, 남상구

15 동북아역사재단 내부결재: 역사연구실1팀-751(2014.7.8.) '공무 국외여행 결과보고서'

〈표 9〉 제1회 일본군‘위안부’ 문제 국제학술회의 발표 논문

참가국	이름	소속	주제
중국	김성호	延邊大學	일본군 ‘위안소’의 역사정책과 현실적 연구과제
	이홍석		일본 ‘위안부’ 제도의 특징을 논함
	蘇智良	上海師範大學	일본 정부와 일본 군대가 성노예제를 실시한 확증
	陳麗菲		제2차 세계대전 시기 중국 농촌 ‘위안부’ 제도 피해자에 대한 조사와 배상 청구 - 산서성 우현 양천촌 피해자 만 애화 여성을 중심으로
북측	조희승	사회과학원 력사연구소	일본군 성노예 문제에 대한 이해
	리훈혁		일본군 성노예 범죄와 일본의 국가책임
	김철남		일본군 성노예 범죄의 엄중성
남측	서현주	동북아역사재단	한국과 일본 역사교과서의 ‘위안부’ 기술
	이종국		일본 정치가의 망언 - 과거사 ‘위안부’ 문제를 중심으로
	남상구		고노담화 수정문에 대한 비판적 검토

연구위원이 참석하였다. 논문은 중국 4편, 북측 3편, 남측 3편 모두 10편이 발표되었다.

중국의 연변대학 김성호는 일본군 위안소의 역사적 범죄 행위와 현 상황에서 실질적 연구 과제에 대해, 이홍석은 일본군‘위안부’ 제도의 특징에 대해서 발표하였다. 상해사범대학(上海師範大學)의 소지량(蘇智良)은 최근 공개된 길림성당안관(吉林省檔案館) 자료를 분석하여, 이들 자료가 일본 정부와 군대가 성노예 제도를 실시한 증거이고 ‘위안소’가 여러 지역에 보편적으로 존재했음을 입증한다고 주장하였다. 진려비(陳麗菲)는 중국 농촌의 ‘위안부’ 제도 피해 사례를 조사하고 배상 청구 문제에 대해 발표하였다.

북측에서는 조희승이 일본군 성노예의 대해 전반적으로 설명하고 리훈혁은 일본군 성노예 범죄가 일본의 국가책임이라고 추궁하였다. 김철남은 일본군 성노예 범죄가 민족말살정책의 의도적 산물임을 강조하였다. 북측은 발표를 통해 공동연구 등 국제 공조를 제안하였다. 또한 북측 내 ‘위안부’ 현황에 대한 질문

에 대해서는 증언집에 실린 40여 명은 대부분 사망하였고 여타 수많은 피해자는 스스로를 드러내지 않아 정확한 규모를 파악하기 어렵다고 답변하였다.

남측에서는 서현주가 한국과 일본 역사교과서의 ‘위안부’ 관련 기술을 분석하여 그 문제점을 짚었고, 이종국은 일본에 정치가들의 과거사와 ‘위안부’ 관련 망언의 문제점을 질타하였으며, 남상구는 고노담화 수정론에 대해 비판하였다.

이 학술회의는 남·북과 중국이 일본군‘위안부’ 관련 주제로 개최된 최초의 학술회의로서 중국 언론에서도 관심을 보였다. 학술회의 후 북측에 재단에서 발간한 『역주 일본서기』(1~3권)를 전달하였고, 북측 또한 『위안부 증언집』 및 고대사 관련 발간물 42권을 재단에 기증하였다.

5) 광개토왕비 건립 1600주년 기념 국제학술회의(2014.10.20~22, 중국 집안, 남·북·중·일)

재단은 2014년 광개토대왕비 건립 1400주년이 되는 시점에 맞춰 관련 기념 학술회를 집안(集安) 현지에서 개최할 계획을 세웠다. 이를 위해 2013년 4월 30일 재단의 김학준 이사장이 중국에 있는 고구려 유적 방문 시, 통화사범학원(通化師範學院) 고구려연구원(高句麗研究院) 원장 경철화(耿鐵華), 집안박물관(集安博物館) 전 연구원 손인걸(孫仁杰) 등 현지 고구려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갖고 학술회의 개최 의사를 전하고 중국 측과 공동개최 등에 협조를 당부하였다. 이어 10월 20일 재단측 관계자가 연변대학과 통화사범학원 관계자를 만나 재단의 학술회의 준비 상황을 설명하고 중국 측과 공동개최 의향을 전달하였다.¹⁶ 이후 연변대학과 통화사범학원이 적극적으로 움직여 중국사회과학원에 관련 사항을 알렸고, 2014년 3월 재단 관계자가 중국사회과학원 중국변강사지연구중심을 방문하여 논의함으로써 학술회의가 성사되었다. 학술회의에는 북측을 비롯하여 일본의 학자도 참여시키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2008년 이후 중단된 한·중 학술회의를 복원하는 의미도 있었던 이 회의는 약 2년여의 준비 끝에 광

16 회의에는 재단 고광의 연구위원, 延邊大學 전 총장 朴文一 교수, 대학원장 朴燦圭 교수, 通化師範學院 高句麗研究院 원장 耿鐵華 교수 등이 참가하였다.



그림 13 광개토왕비 건립 1600주년 기념 국제학술회의(2014.10.20.~22, 중국 집안)

개토태왕비의 입비 날짜¹⁷에 맞추어 개최할 수 있었다.

학술회의는 중국사회과학원 중국변강연구소(中國邊疆研究所)와 동북아역사재단 역사연구실이 공동 주최하고 통화사범학원 고구려·동북민족연구중심(高句麗與東北民族研究中心)이 주관하는 방식으로 발표와 토론은 10월 20일부터 21일 오전까지 집안시(集安市) 자도원(紫都苑) 호텔 대회의실에서 비공개로 열렸다. 회의는 모두 6부로 나누어 제1부와 제2부에서는 호태왕비 연구, 제3부는 호태왕비와 석각 사료 연구, 제4부와 제5부는 고구려 역사상 호태왕 시대, 제6부는 최근 고구려 관련 고고학적 성과 및 연구를 주제로 진행되었다. 남측 12명, 북측 5명, 중국 11명, 일본 2명이 참가하였으며 개별적인 주제와 발표자는 다음과 같다.¹⁸

제1부와 제2부 호태왕비 연구에서는 모두 10편의 논고가 발표되었다, 경철

17 광개토왕비문에 입비 연대가 414년 9월 29일(음력)으로 기록되어 1600주년이 되는 시점은 2014년 9월 29일이며 양력으로는 10월 22일이 된다.

18中国社会科学院中国边疆研究所 中國社會科學院 中國邊疆研究所·韩国东北亚历史财团历史研究室, 2014, 『纪念好太王碑建碑1600周年国际学术会议 호태왕비 건비 1600주년 기념 국제학술회의』會議手冊.

〈표 10〉 광개토왕비 건립 1600주년 기념 국제학술회의 발표 논문

날짜	발표자	국적	내 용
10.20 (월)	제1부: 호태왕비 연구		
	耿鐵華	중	好太王碑와 集安高句麗碑
	연민수	남	광개토왕비문 쟁점기사의 현황과 과제
	황금석	북	광개토왕릉비에 반영된 고구려의 역사적지위에 대한 고찰
	姜維公	중	好太王碑의 “始祖傳說”의 형식 및 그 의의에 대하여
	서영수	남	廣開土太王비문의 북방 경략 기사
	제2부: 호태왕비 연구		
	림호성	북	광개토왕의 전법에 대한 몇가지 고찰
	朴真奭	중	好太王碑와 集安高句麗碑의 몇개 문제에 관한 고증
	공석구	남	廣開土王陵碑의 “新來韓穢” 考察
	徐建新	중	최근 中國大陸에 있어서의 好太王碑 연구자료
	稻田奈津子	일	近年 日本의 廣開土王碑拓本에 대한 調査와 研究에 대하여
	제3부: 고구려의 석각사료 연구		
	李成市	일	石刻文書로서의 廣開土王碑文
	고광의	남	廣開土太王碑의 제1면 9행 13자에 대한 檢討
	탁용범	북	廣開土王陵碑의 書體 特徵에 대하여
10.21 (화)	이용현	남	廣開土王碑의 敘述과 文體
	劉矩	중	高句麗史學史에서의 “好太王碑文”의 地位
	이성제	남	集安碑·廣開土王碑의 建立과 그 意義
	제4부: 고구려 역사상의 호태왕시대		
	금경숙	남	광개토왕비에 보이는 고구려 건국신화
	李大龍	중	黃龍과 高句麗 早期 歷史 -《호태왕비》의 추모, 유류왕 기록을 중심으로 -
10.21 (화)	김현숙	남	高句麗 守墓制 研究의 現狀과 爭點
	範恩實	중	호태왕시기 高句麗의 地方統治制度에 대한 研究
제5부: 고구려사상의 호태왕시대			

	노태돈	남	광개토왕릉비의 정복전쟁 기사와 평양 천도
	강세권	북	광개토왕릉비를 통하여 본 삼국관계
	임기환	남	廣開土王代 高句麗와 後燕의 對外關係
	王禹浪	중	好太王時代와 遼東半島 高句麗山城에 대한 研究
	제6부: 최근 고구려 고고학 성과 및 연구		
	魏存成	중	好太王의 陵墓 및 관련 문제에 대하여
	손수호	북	새 세기에 발굴된 고구려벽화무덤들과 주목되는 문제에 대하여
	정원철	남	최근 한반도 남측 고구려유적의 고고학조사와 연구성과
	梁志龍	중	望江樓유형 주요 유적유물 및 문화요소 분석
	양시은	남	한반도 남측 출토 고구려 토기 연구
	李新全	중	永陵 南城址 발굴의 주요 성과에 대하여

화는 집안고구려비의 연대를 호태왕 시기부터 장수왕대까지 여러 의견이 있지만 호태왕 생전에 부왕인 고국양왕을 위해 세운 묘비로 보았다는 견해를 제시하였다. 이어 연민수가 그간 쟁점이 된 비문의 신묘년조 기사에 대해 학계의 현황을 정리하였으며, 황금석은 광개토왕릉비에 반영된 고구려의 역사적 의미와 그 시기가 차지하는 역사적 지위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강유공(姜維公)은 호태왕비에 보이는 시조전설의 형식과 의의를 살피고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서영수는 광개토태왕비문의 패려와 동부여 경략 기사를 분석하여 비록 비문에는 북방관계 기사가 소략하지만 당시 고구려인에게 만주의 중심부는 이미 고구려 구토로 인식하였음을 강조하였다.

림호성은 광개토왕의 해외 공격작전의 총적인 전략은 ‘선남후북’이고, 구체적인 전술로 ‘배수진’, ‘배후타격전’, ‘불의의 타격전’ 및 ‘정치적 공세’ 등을 활용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박진석은 구순을 바라보는 노구에도 불구하고 호태왕비와 집안고구려비를 비교하여 두 비의 성질과 건립연대를 고증하여 호태왕비를 ‘훈적비’인 동시에 ‘수묘인연호비’, 집안고구려비를 ‘연호두이십인비(烟戶頭廿人碑)’라 하고 집안고구려비의 연대를 장수왕 때 건립된 것으로 보았다. 공석구

는 광개토태왕이 자신의 무덤을 ‘신래한예(新來韓讖)’에게 지키게 한 이유를 그들의 벼농사 기술에 주목하고 선진화된 농업기술을 통해 안정적으로 생활함으로써 능력을 이탈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하였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그동안 탁본 조사에 힘써 온 서건신(徐建新)은 새로 알려진 이초경(李超璟) 관련 자료와 탁본을 소개하였다. 이나다 나쓰코(稲田奈津子)는 일본에서의 탁본 조사, 연구 동향 및 수곡구장정탁본(水谷舊藏精拓本)에 대해 발표하였다.

제3부 고구려의 석각사로 연구에서 6편의 논고가 발표되었다. 이성시(李成市)는 광개토왕비문은 왕의 공덕을 찬송하는 송덕비로서 한대(漢代)의 공문서를 새긴 을영비(乙瑛碑)와 같은 일종의 석각문서라고 보았다. 고광의는 광개토태왕비 연구에서 가장 논란이 된 제1면 9행 13자에 대해 집중 검토하였으나 현재로서는 그간 제시된 ‘해(海)’, ‘패(溟)’, ‘사(泗)’, ‘매(每)’ 등 어느 글자로도 확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비문에 대한 현장 조사와 다양한 방식의 연구를 제안하였다. 탁룡범은 광개토왕비의 서체는 ‘고예체(古隸體)’로서 고구려 사람들의 질박하고도 굳센 기상이 드러나고 있다고 하고, 글자의 특징을 정방형, 변방의 크기가 같은 것, 이체자, 통속화된 간략자 등으로 구분하여 설명하였다. 이용현은 광개토왕비는 수묘인연호 관련 법령과 그 준수를 새긴 비석으로 광개토왕이 지고의 영웅이자 덕치주의와 왕도정치의 구현자로 묘사되었으며 비문 중 군사 활동에서 왕의 존재 유무에 따라 문장구성을 달리한다고 분석하였다. 류구(劉矩)는 고구려는 관구검의 침입이 있던 무렵까지 역사를 체계적으로 기록하지 않았으며 광개토왕대에 이르러 동명성왕 등 3왕을 조상으로 공인하면서 역사 체계가 확립되었음을 광개토왕비문이 보여준다고 하였다. 이성제는 집안고구려비와 광개토왕비가 국내성 왕릉 구역의 서쪽과 동쪽 끝에 위치했다는 입지적 특징으로 보아 수묘제의 선포를 밝히는 문서비와 그러한 수묘제 등 국가 체제의 완성이 광개토왕에 의해 이루어졌음을 보여주는 국가적 기념물로 보았다.

제4부와 제5부의 고구려 역사상의 호태왕시대에서는 8편의 논문이 발표되었다. 금경숙은 고구려 건국신화의 성립 시기에 대해 대무신왕 3년 동명묘(東明廟)를 세울 때 시조 신화의 골격을 마련했을 것으로 보고 건국 신화에서 시조를

천제지자(天帝之子), 황천지자(皇天之子)라고 지칭한 것은 5세기 고구려 왕실의 천하관을 반영한 선언적 표현이며 광개토왕비는 고구려 건국신화의 원형에 가장 가깝다고 보았다. 이대룡(李大龍)은 광개토왕비의 내용 중에 추모왕이 황룡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다는 표현은 추모왕이 왕망(王莽)에 의해 살해당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황룡국 역시 한나라 및 그 지방 세력을 지칭한다고 보았다. 김현숙은 고구려 수묘인의 구성 및 성격, 국연과 간연, 연호두, 수묘제의 정비 및 과정, 수묘역의 수행방식, 노역조의 구성 등을 둘러싼 학계의 논의를 소개하고 광개토왕비와 집안고구려비의 국제적인 공동조사 및 연구를 제안하였다. 범은실(範恩實)은 광개토왕 시기 고구려의 지방 통치는 많은 성읍(城邑)을 수축하여 점차 크고 작은 성읍 사이에 통섭관계를 형성하였는데 이러한 제도적 전환은 고국원왕 시기 모용선비의 침공에 의한 구정치체제의 전복과 신정치 세력의 흥기에 있다고 보았다. 노태돈은 광개토왕릉비의 정복기사는 후연에 대한 언급을 의도적으로 피하고, 백제 등의 정복과 ‘광개토’에 초점을 맞추었는데 이는 평양 천도의 기획으로 이어졌다고 하였다. 강세권은 광개토왕의 대외정벌이 남쪽 방면인 백제와 신라를 대상으로 하고, 이를 통해 삼국 간의 주도권을 장악하였다고 보았다. 임기환은 고구려의 요동 장악 시기가 광개토왕대의 5년 이전인 고국양왕대이고, 후연과의 대결은 서기 400년 이후 거란과 서요하 교통로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영락 17년 기사는 후연과의 전투 기사로 보았다. 왕우랑(王禹浪)은 요동 반도의 범주, 고구려 산성의 분포, 주요 고구려성의 현황에 대해 소개하였다.

제6부 최근 고구려 고고학 성과 및 연구에서는 6편의 논고가 발표되었다.

위존성(魏存成)은 태왕릉을 구조와 유형, 출토 유물, 특히 명문 벽돌과 명문 청동방울을 근거로 호태왕의 무덤으로 보았다. 장군충은 장수왕의 능묘이나 복위 효문제가 천도 후 두 곳에 왕릉을 수축한 경우와 같이 장군충도 수축은 되었지만 사용되지 않았다는 가설을 제기하였다. 또한 ‘국강상(國岡上)’은 호태왕의 시호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집안고구려비의 ‘국강상태왕(國岡上太王)’은 호태왕을 지칭한 것으로 보고 집안고구려비는 호태왕 이후에 세워진 것이라고 주장하

였다. 손수호는 2000년대 들어 북측에서 발굴조사된 벽화무덤 가운데 태성리 3호 벽화무덤, 동산동 벽화무덤, 옥도리 벽화무덤, 송죽리 벽화무덤 등 4기의 벽화무덤에 대해 사진과 도면을 소개하였으며, 각 벽화무덤의 축조시기와 성격 등에 대해 설명하였다. 정원철은 최근 남측에서 확인된 고구려 유적 중 성곽과 고분의 발굴조사 성과를 소개하였다. 양지룡(梁志龍)은 환인 지역의 고구려 초기 무덤 가운데 망강루 유형에 속하는 여러 곳의 적석묘에 대한 발굴 성과를 발표하였다. 망강루 유형의 문화는 토착민의 문화 요소 외에도 외래의 한 문화, 부여 등의 북방 문화, 옥저 문화 등의 요소가 확인된다고 하며 망강루 유형의 무덤을 축조한 주인공이 고구려를 건국한 것으로 보았다. 양시은은 남측에서 출토된 고구려 토기의 전반적인 특징과 제작기법에 대하여 설명하고 한강 유역의 몽촌 토성과 경기 북부 지역의 토기는 5세기 후반, 아차산 보루군의 토기는 6세기 이후에 제작된 것으로 보았다. 이신전은 영릉(永陵) 남성지(南城地)에서 확인된 5기에 문화층을 각각 청동기시대, 서한시기, 공손씨~동한 시기, 위진 시기, 요금 시기로 보았다. 이러한 조사 성과를 바탕으로 영릉 남성지가 한 무제 때 설치한 최초의 고구려현 치소이자 제1현도군의 치소로 보았다.

학술회의는 광개토왕 시대와 비를 주제로 하여 남·북, 중, 일 전문가들이 최초로 모인 공식적인 자리라는 점에서 학술사적 가치가 있을 뿐만 아니라, 국제 사회에 고구려를 환기시키고 동아시아사에서 위치를 확고히 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광개토태왕비가 세워진 10월 22일에는 집안 지역의 고구려 유적을 답사하였다. 통화사범학원 경철화, 이낙영(李樂營) 교수의 안내로 오전에 광개토태왕비, 태왕릉, 장군총과 오후에 오회분 5호묘, 환도산성 및 산성하고분군, 천추총, 국내성을 답사하였다. 남·북 학자를 비롯하여 참가한 모든 학자가 함께 유적을 돌아보며 서로의 견해를 피력하고 자유롭게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뜻깊은 기회였다.

답사를 마친 후 만찬 자리에서 북측에 재단에서 출간한 일부 도서와 고구려 고분벽화 디지털 복원 결과물 중 ‘강서대묘’ 파일을 전달하였다. 아울러 진행되



그림 14 광개토왕비 건립 1600주년 기념 국제학술회의 참가자 공동 답사(2014. 10. 22)

고 있는 북측의 고구려·발해 유적 발굴조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을 재차 확인하고 고구려 고분벽화 디지털 복원 사업 등으로 확대해나가는 새로운 제안을 하였다.

6) 제2회 일본군‘위안부’문제 국제학술회의(2015.5.30, 중국 연변대학, 남·북·중)

2015년 5월 30일, 제2회 일본군‘위안부’문제 국제학술회의가 연변대학에서 개최되었다.¹⁹ 2014년 제1회 학술회의와 마찬가지로 중국사회과학원 중일역사 연구중심과 동북아역사재단 역사연구실 및 북측 사회과학원 력사연구소가 참여하였다.

19 中國社會科學院 中日研究中心, 2015, 『第二屆 日軍“慰安婦”問題的國際學術會議 第2회 일본군‘위안부’문제 국제학술회의』 자료집, 中國社會科學院·東北亞歷史財團.

〈표 11〉 제2회 일본군‘위안부’ 문제 국제학술회의 발표문

이름	국적(소속)	주제
김성호	중(延邊大學)	‘위안부’ 강제연행 부인사실 및 일본 역사관 문제를 논함
남상구	남(동북아역사재단)	아베 총리의 역사인식과 일본군‘위안부’ 문제
김철남	북(사회과학원 력사연구소)	과거의 성노예범죄를 부정하는 일본의 리면체제와 국제사회계의 과제
金富子	일(東京外國語大學)	‘위안부’문제를 둘러싼 일본사회와 아사히신문 문제
蘇智良· 陳麗菲	중(上海師範大學)	제2차 세계대전 시기 일본군 직영 군‘위안소’ 관련 연구－상해 楊家宅 일본군 ‘위안소’를 중심으로
윤명숙	남(충남대학)	일본군 군‘위안소’ 문제를 통해 드러난 제국의 식민주의·폭력성－일본군에 의한 성폭력 유형 및 ‘위안부’ 범주 고찰을 중심으로
리철홍	북(사회과학원 력사연구소)	조선에서 발견된 일본군 ‘위안소’와 성노예 범죄의 진상
이흥석	중(延邊大學)	중국에서의 근대 일본 여성의 매춘문제에 대한 연구
趙玉潔	중(吉林省檔案官)	중국 동북지역에서의 관동군 ‘위안부’ 제도에 관한 연구
서현주	남(동북아역사재단)	‘위안부’는 인신매매의 희생자라는 발언에 대한 비판적 고찰
서정호	북(사회과학원 력사연구소)	증언과 기록자료를 통해 본 일본군 성노예 범죄의 강제성
왕위창	중(吉林大學)	미국국회의 ‘위안부’ 문제 관련 입법활동에 관한 연구

학술회의는 연변대학 김성호의 “위안부’ 강제연행 부인사실 및 일본 역사관 문제를 논함”이라는 주제를 시작으로 모두 12편의 논문이 발표되었다. ‘위안부’ 역사문제에 관한 일본 우익세력의 언행 및 국제적 반응을 살피고 길림성당안관에 있는 일본군‘위안부’ 관련 기록을 분석함으로써 과거의 죄행에 대해 책임지는 태도를 보일 것을 요구하였다. 이어 남상구는 일본 아베 총리의 역사인식을 일본 정부의 공식적인 역사인식과의 대비를 통해 분석하여 그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김철남 또한 과거의 성노예 범죄를 부정하는 일본을 비판하고 국제 사회가 단합하여 단호히 대응할 것을 촉구하였다.



그림 15 제2회 일본군‘위안부’ 문제 국제학술회의(2015.5.30, 중국 연변대학)

도쿄 외국어대학의 김부자는 2012년 말 제2차 아베 내각이 들어선 후 ‘위안부’에 대한 일본군의 개입과 강제성을 인정한 고노담화를 일소시키려는 다양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일본 현지의 상황을 알렸다. 북측 사회과학원 역사연구소 리철홍은 1928년 나남 19사단장과 헌병대장, 도지사 등의 논의에 따라 나남 풍골에 일본군 ‘위안소’가 설치되었는데, 이것이 북측에서 확인된 최초의 일본군 ‘위안소’라고 주장하였다. 이 외에 청진의 방진‘위안소’, 회령‘위안소’ 등 일본군 19사단 관할 구역 안에 있던 3개 ‘위안소’가 북측 지역의 대표적인 ‘위안소’임이 1999년부터 2008년 사이 북측과 일본의 연구자들이 진행한 현지 조사에 의해 확인되었다고 하였다.

2014년 길림성당안관에 소장된 관동군 헌병대사령부와 만주중앙은행 등의 문서에서 ‘위안부’ 관련 자료 25건을 발굴하여 공개하는 데 역할을 했던 조옥결(趙玉潔)은 공개된 자료에 새로 발굴한 자료를 추가하여 중국 동북지역에 설립된 일본군‘위안부’제도의 특징을 분석하였다. 1942년 4월 6일 신경(新京)에 주

둔한 관동군사령부가 소속 부대에 하달하여 4월 8일 개업을 통지한 ‘신경군인 집회소’는 신경주재사령부에 전속된 군대가 직접 관리하고 민간 청부업자가 경영한 관동군 ‘위안소’라고 주장하여 그 실체를 폭로하였다.

참석자들은 일본군‘위안부’는 본질적으로 성노예이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와 사회의 인식이 후퇴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사실이라는 문제의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이라는 데 공감하였다. 학술회의는 피해자의 증언과 문서들을 통해 일본군‘위안부’ 제도의 사실을 인식하고 이를 부정하는 일본 정부의 태도를 비판하는 자리였다.

2. 북측 역사유적 발굴조사 지원 및 결과보고서 발간

북측 지역에는 고구려 시대의 도성인 평양성과 발해 시대의 주요 도시의 하나인 남경 유적을 비롯하여 산성이 많이 남아 있다. 이 유적들은 고구려와 발해 연구

〈표 12〉 동북아역사재단 발간 북측 지역 고구려·발해 유적 발굴조사 보고서

	고구려·발해 유적 발굴조사 보고서	조사 시기	발간
1	『증보판 南北共同遺蹟調査報告書 평양일대 고구려 유적』	2005	2007(초판 2쇄)
2	『고구려 안학궁 조사 보고서』	2006	2007(초판 2쇄)
3	『남포시 용강군 옥도리 일대 역사유적』	2002, 2010	2011
4	『옥도리 고구려 벽화무덤』	2010	2011
5	『부거리 일대의 발해유적』	2008~2010	2011
6	『평양 지역 고구려도성 유적』	2011	2013
7	『황해도 지역 고구려 산성』	2012~2013	2015
8	『회령 일대의 발해유적』	2012~2013	2015
9	『평안도 지역 고구려 산성』	2015	2017
10	『황해북도 봉산군 천덕리 신대동 고구려무덤』	2015~2016	2019
11	『북청 일대의 발해유적』	2014~2015	2020

에 귀중한 자료이지만 조사와 정리가 미진한 상태이다. 이에 재단은 북측에 있는 이들 유적에 대한 발굴조사를 연변대학을 통해 간접 지원하여 원천 자료를 확보하고 보고서를 발간함으로써 학계에 고구려와 발해 연구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였다.

1) 『남포시 용강군 옥도리 일대 역사유적』(2011)

북측 사회과학원 고고학연구소는 2002년 7~8월 사이에 남포시 용강군 옥도리 일대에 대한 1차 발굴조사에 이어 2010년 5월 20일부터 6월 24일까지 2차 발굴조사를 실시하였다. 2차 조사 때에는 일부 기간에 중국 연변대학 역사학부(歷史學部)가 참가하였다.

두 차례에 걸친 발굴조사에서 고구려 벽화고분 1기를 비롯하여 석실봉토분 26기, 석관묘 1기를 발굴하였다. 또한 황룡산성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였으며

석천산 일대의 와동에서 오덕형 고인돌 5기를 조사하고 그중 2기를 발굴하였다.

동북아역사재단은 이들 발굴조사 자료를 입수하여 2011년 보고서로 편집하여 출간하였다.²⁰ 이 『남포시 용강군 옥도리 일대 역사유적』은 옥도리에서 발견된 벽화고분을 제외한 나머지 유적과 유물을 소개한 것이다. 보고서는 옥도리 지역의 동우동, 성외동, 향교동에서 발굴조사한 고분을 비롯하여 오석산에 있는 황룡산성 및 석천산 와동 일대의 고인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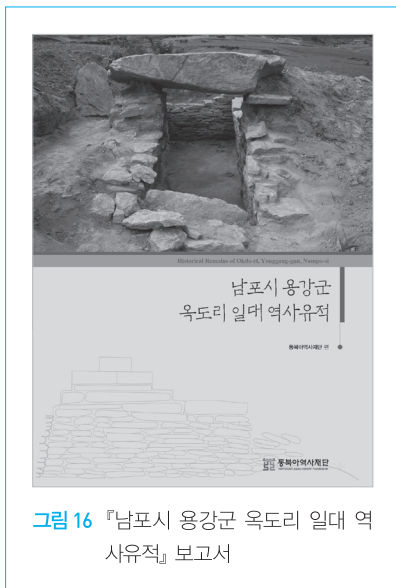


그림 16 『남포시 용강군 옥도리 일대 역사유적』 보고서

20 동북아역사재단, 2011b, 『남포시 용강군 옥도리 일대 역사유적』, 동북아역사재단.

등의 유적으로 구성하였다. 부록에 최근 평양의 민속공원 건설부지에서 발견된 고구려 기와 가마터들과 기와를 제작하던 곳의 발굴 정황에 대한 논고를 실었다.

보고서에는 유적과 유물의 도면 61장과 사진 232장을 수록하였다. 도면은 원도를 모본으로 다시 정사하고 축소 비율은 유구의 경우 $1/30 \cdot 1/40$, 예외의 경우는 별도로 축척을 표시하였다. 유물은 토기는 $1/3$, 석기 및 철기는 $1/2$ 을 원칙으로 표기하였다. 사진은 색상과 해상도의 보정 작업을 거쳤다. 원고는 보고자의 의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약간의 문구를 손보고 일부 중복되는 장면을 제외한 보내온 모든 사진 자료를 공개하였다. 이 보고서는 북측의 특정 지역에서 발굴조사된 고조선 및 고구려 유적을 남측에서 최초로 정식 발간하였다는 점에서 남·북 교류협력의 학술사적 가치가 있다고 하겠다.

2) 『옥도리 고구려 벽화무덤』(2011)

옥도리 고구려 고분벽화의 발굴조사는 2010년 5월 20일부터 6월 24일까지 진행되었다.²¹ 옥도리 벽화고분이 발견된 용강군에는 고조선 시대의 고인돌과 고구려 유적이 많이 분포해 있다. 고구려 시기의 벽화 고분으로 용강대총과 쌍영총이 있으며 오석산에는 고구려 산성인 황룡산성이 있다. 옥도리 벽화고분은 옥도리 소재지에 있는 황산 언덕에 있으며 고구려 고분이 밀집해 있는 성외동, 향교동과는 1.5~2km 거리에 있고 황룡산성과는 2km 정도 떨어져 있다.

옥도리 고구려 벽화고분은 이 발굴조사를 통해 처음 학계에 알려졌다. 고분은 이미 도굴되어 봉분과 묘실이 심하게 훼손되었다. 묘실은 약간 동쪽으로 치우친 남북향이며 연도, 전실과 동서 감실, 통로 및 현실로 이루어졌다. 천장은 궁륭식인데 현재는 일부만 남아 있는 상태이다.

벽화는 벽면에 회를 바르고 그 위에 그렸으며 주제는 생활풍속과 사신이다.

21 동북아역사재단, 2011d, 『옥도리 고구려 벽화무덤』, 동북아역사재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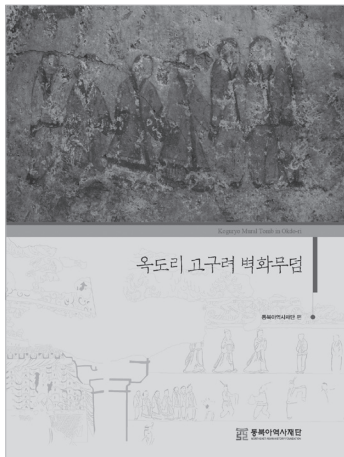


그림 17 『옥소리 고구려 벽화무덤』 보고서

전실과 현실에는 실내 생활, 가무, 접객, 사냥 모습, 불꽃, 연꽃, 구름무늬 등을 비롯하여 사신도가 있다. 현실 북벽에는 ‘王(大)’자 운문이 있는 장방이 그려져 있고 전체적인 분위기와 구도가 감신총 서측 장방생활도와 유사한 면이 있다. 천장과 동벽 일부가 훼손되기는 하였지만 나머지 벽면은 비교적 잘 보존되어 있다.

유물은 무덤이 심하게 도굴되어
관못과 관고리 손잡이 등이 출토되
었다.

진 133장을 실었다. 도면은 원도를 모본으로 다시 정사하였다. 도면의 축소 비율은 유구의 경우 $1/10 \cdot 1/60$, 유물의 경우 $1/2$ 을 원칙으로 하였다.

부록으로 평양시 낙랑구역 동산동에서 발견된 고구려 벽화고분에 대한 발굴
정황을 수록하였다.

3) 『부거리 일대의 발해유적』(2011)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연변대학 발해사연구소(渤海史研究所)는 복측 사회과학원 고고학연구소와 함께 함경북도 청진시 청양구역 부거리 일대의 발해 유적을 발굴조사하였다.²² 평지성인 부거석성과 산성인 토부토성, 연대봉 봉수대, 산성인 독동 토성 및 독동 고분군, 옥생동 고분군, 다래골 고분군, 합전 고분군, 연차골 고분군을 조사하였고, 다래골 고분군에서 10기, 연차골 고분군에서 3기의 무덤을 발굴조사하였다. 또한 금성리 벽화묘와 동흥리 24개 돌유적도 답사

하였다.

이 보고서는 당시 발굴조사 성과와 그 이전에 조사한 결과도 함께 소개하였다. 가능한 한 많은 사진을 공개하여 연구자들이 부거리 일대의 발해유적을 생동감 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보고서에는 모두 93장의 도면과 197장의 사진을 수록하였는데 도면은 원본을 모본으로 다시 정사하고 사진은 색상을 맞추어 보정하였다. 도면의 축소비율은 토기는 1/3, 철기·청동제품·토제품은 1/2, 옥구슬은 1:1을 원칙으로 하였다.



부거리 일대의 발해유적



그림 18 『부거리 일대의 발해유적』 보고서

부거리 일대의 발해유적에 대한 발굴조사는 이전에도 이루어졌고 간단한 발굴조사 성과도 보도된 바 있으나 이처럼 체계적으로 발굴조사하고 모든 자료를 종합적으로 보고한 것은 처음이다. 보고서를 통해 공개된 자료들은 발해의 역사와 문화를 연구하는 데 중요한 실물 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부록으로 금성리 벽화묘의 발굴조사 보고서와 동흥리 24개 돌 유적의 조사 결과를 실었다.

4) 『평양지역 고구려 도성유적』(2013)

2011년에는 평양 지역의 고구려 도성 유적에 대한 촬영과 발굴조사를 지원하였다. 평양의 고구려도성 유적은 안학궁과 대성산성 그리고 평양성이 있다.

평양성은 외성, 중성, 내성을 구간별로 나누어 도성 전체를 파악할 수 있도록 촬영하였다. 안학궁은 동, 서, 남, 북의 네 성벽과 각 문지 등을 중심으로 촬영하였다. 대성산성은 각 방향의 성벽을 비롯하여 장대지인 소문봉, 장수봉, 국



평양지역 고구려 도성유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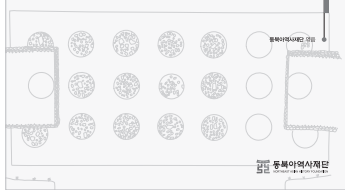


그림 19 『평양지역 고구려 도성유적』 보고서

사봉과 성내의 연못들을 촬영하였다. 평양성과 안학궁 및 대성산성에 대해서는 그동안 부분적으로는 알려지긴 했지만 이처럼 전면적으로 상세하게 촬영한 것은 처음이다. 아울러 평양성의 일부 성벽을 절개하여 고구려 당시의 성곽 축조기법 등을 확인하고 유물들을 수습하였다.

보고서에는 도면 78장과 사진 443장을 실었는데, 2011년 촬영분 뿐만 아니라 연변대학 측이 2009년부터 북측 사회과학원과 교류를 통해 촬영하고 수집한 자료도 포함되었다.

이를 통해 동북아역사재단은 2006년 고구려연구재단에서 남·북 학술조사를 추진한 이후 안학궁과 대성산성, 평양성에 대한 사진 자료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사진은 각각의 유적을 동선을 따라 답사 안내하듯 배치함으로써 유적의 현장감을 극대화하려고 노력하였다.

부록에 고구려가 평양 천도 이후 수도 방어성으로 활용한 적두산성에 대한 발굴조사 보고를 수록하였다.

5) 『황해도 지역 고구려 산성』(2015)

2012년에는 북측 사회과학원 고고학연구소와 연변대학 측이 황해도 지역의 고구려 산성을 조사하였다.²³

고구려가 황해도 지역을 장악한 후 수도인 평양성을 보호하고 남방 진출을

23 동북아역사재단, 2015a, 『황해도 지역 고구려 산성』, 동북아역사재단.

위해 장수산성 등 곳곳에 산성을 쌓았다. 황해도 지역 산성들의 분포와 특징을 살펴보면 크게 중심 방어성, 지역 방어성, 해안 방어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 보고서는 장수산성을 비롯하여 구월산성, 봉세산성(연안산성) 및 연안읍성, 오누이성, 웅천성, 태백산성, 대현산성, 휴류산성, 수양산성 등 10개 산성을 촬영하고 그 분포 양상과 특징을 살펴본 것이다. 지도 10장, 도면 21장 및 사진 305장을 실었다. 지도와 도면은 원도를 모본

으로 다시 정사하고 사진은 색상과 해상도를 보정하여 배치하였다. 장수산성, 태백산성, 대현산성, 수양산성을 제외한 구월산성, 봉세산성(연안산성), 연안읍성, 오누이성, 웅천성, 휴류산성의 모습을 촬영한 사진은 처음 학계에 소개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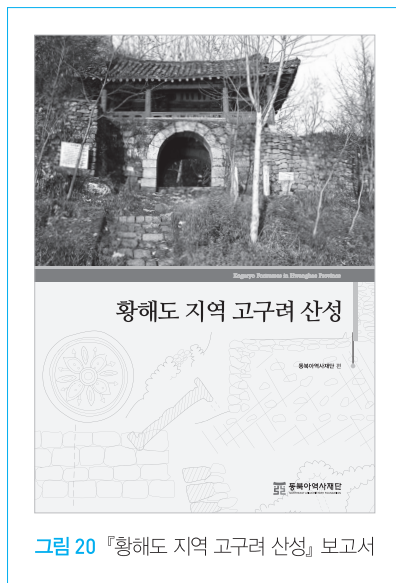


그림 20 『황해도 지역 고구려 산성』 보고서

6) 『회령 일대의 발해유적』(2015)

이 보고서는 연변대학 발해사연구소와 북측 사회과학원이 2012부터 2013년까지 실시한 함경북도 회령시 일대의 발해유적에 대한 발굴조사 결과물이다.²⁴

2012년에는 회령시 일대 발해유적에 대해 두 차례의 발굴조사를 실시하였다. 1차는 4월 말부터 6월 말까지 진행되어 인계리토성, 운두산성을 중점적으로 조사하는 한편 궁심고분군에 대한 조사와 함께 30기의 무덤을 발굴하

24 동북아역사재단, 2015b, 『회령 일대의 발해유적-2012~2013년 발굴조사 보고서』, 동북아역사재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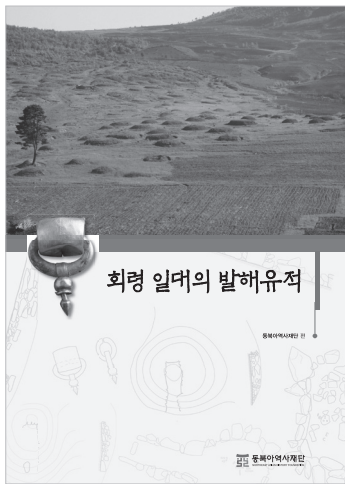


그림 21 『회령 일대의 발해유적』 보고서

였다. 연변대학에서는 5월 13일부터 23일까지 조사에 참가하였다. 2차는 9월 초부터 10월 중순까지 이루어 졌으며 공심고분군에서 20기의 무덤을 추가로 발굴조사하였다.

2013년 발굴조사는 4월 말부터 6월 초까지 실시되었으며 동진산성을 중점적으로 조사하였고 공심고분군에서 12기의 고분을 발굴하였다. 연변대학 발해사연구소는 5월 18일부터 27일까지 참여하였다.

보고서에는 도면 161장과 사진 766장을 실었다. 도면은 북측에서

전해온 것을 모본으로 다시 정사하고 도면의 축소비율과 배치를 통일하였다. 사진은 유적의 전경과 무덤의 전경, 무덤 세부 사진은 가급적 원본을 사용하였으나 유물은 색상과 상태가 양호하지 않아 보정 후 활용하였다.

회령 일대의 발해유적에 대한 발굴조사는 이전에도 이루어져 간단하게 언론에 보도된 바는 있으나 이 보고서처럼 체계적으로 정리된 것은 처음이다.

7) 『평안도 지역 고구려 산성』(2017)

2015년에는 북측 사회과학원과 연변대학 측이 평안도 지역 고구려 산성을 조사하였다.²⁵

보고서에는 농오리산성, 기룡리니성, 철웅성, 통주성(동림성), 용골산성, 걸망성(흥화진성), 백마산성, 능한산성, 흘골산성, 청룡산성(자모산성)의 지도 10장과 세부 사진 470장을 실었다. 지도는 원도를 모본으로 다시 정사하였고 사진

25 동북아역사재단, 2017, 『평안도 지역 고구려 산성』, 동북아역사재단.

은 색상과 해상도를 보정하여 배치하였다. 기룡리신성, 결망성, 흘골산성, 청룡산성은 이번 보고서를 통해 다량의 사진 자료가 처음 소개되었다. 농오리산성 마애각석은 기존에 소개된 겨울 시점의 사진²⁶과 달리 여름에 촬영한 사진을 실었다.

이 보고서는 평양 지역 고구려 도시와 황해도 지역 고구려 산성 조사에 이어 압록강 유역에서 대동강 일대로 이어지는 산성들의 유기적 관계를 파악하고 고구려 시기의 수도 방어 체계를 연구할 수 있는 자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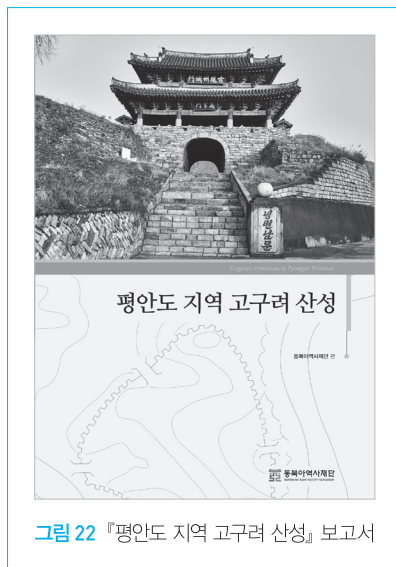


그림 22 『평안도 지역 고구려 산성』 보고서

8) 『황해북도 봉산군 천덕리 신대동 고구려무덤』(2019)

2015년부터 2016년 사이에 북측 사회과학원 고고학연구소에서 황해북도 봉산군 천덕리 신대동에 있는 벽화무덤 1기를 포함하여 고구려 석실봉토분 28기를 발굴조사하였다.²⁷ 2015년 9월 5일부터 23일까지 실시한 1차 발굴조사에서 1~8호분을, 2016년 5월 18일부터 6월30일까지 실시한 2차 발굴에서는 9~28호 무덤을 발굴조사하였다.

천덕리 신대동고분군은 봉산군 천덕리 소재지에서 서북쪽으로 2km 떨어진 신대동의 동쪽 들판에 있으며 서남쪽으로 약 9km 지점에는 고구려 시기 산성인 휴류산성이 있다. 신대동고분군에는 185㎡ 범위에 30여기가 분포하고 주변

26 조선유적유물도감편찬위원회, 1989, 『조선유적유물도감3』 고구려편(1), 외국문중합출판사, 136~137쪽 202·203.

27 동북아역사재단, 2019, 『황해북도 봉산군 천덕리 신대동 고구려무덤』, 동북아역사재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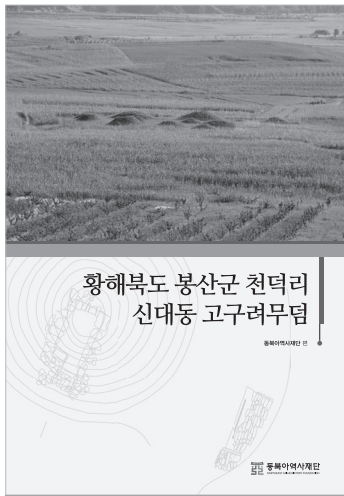


그림 23 『황해북도 봉산군 천덕리 신대동 고구려무덤』 보고서

에도 석실봉토분이 다수 남아 있어 원래 고분군은 더 넓은 범위였으나 일부가 일실된 것으로 추정된다.

고분은 사각형 구획 안에 4열로 줄지어 지상에 축조되었다. 고분의 간격은 10~20m이며, 분구의 크기는 직경 10m, 높이 2m 정도이고 제일 큰 것이 직경 17m, 높이 2.4m이다. 묘실은 석실봉토분으로 단실 또는 2실로 이루어졌으며 방향은 남향이다. 단실분은 안 칸에 문 시설만 있거나 안길과 안 칸의 폭이 같은 초기형 무덤들과 안길이 치우쳐 있거나 중앙에 있는 중기와 후기형 무덤들

이다. 묘실 바닥은 진흙으로 다지거나 조그만 강돌 혹은 판돌을 깔고 회미장을 하였으며 벽은 점판암을 이어 세우거나 강돌이나 판돌을 배합하여 쌓아 올렸다. 천장은 궁륭식 혹은 사아식 천장으로 축조되었으나 대부분이 무너져 훼손되었다.

신대동고분군의 발굴을 통해 몇 가지 주목되는 점을 짚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고분이 지상에 정연하게 줄지어 축조되어 그동안 조사된 대부분의 고분들이 반지하에 매장된 것과는 다르다. 또한 고분군에서 초기, 중기, 후기의 것이 모두 출토되었으며 13호분과 같이 초기 형식이 함께 나타난 점도 주목된다.

8호분에서는 말뼈만 나와 이 무덤을 말 무덤으로 볼 수 있게 한다. 12호분에서 나온 청동 손가락은 북측 고구려 유적에서는 처음으로 출토된 것이다.

특히 19호분에서는 벽화가 발견되었는데 회미장한 벽면에 지문이나 등고선 같은 무늬를 새기고 그 위에 붉은색을 칠한 것으로 고구려 벽화는 물론 다른 지역에서 보이지 않는 새로운 것이라는 점에서 흥미롭다.

9) 『북청 일대의 발해유적』(2020)

이 보고서는 북측 사회과학원과 연변대학 발해사연구소가 2014년부터 2015년까지 함경남도 북청군 일대의 발해유적을 발굴조사한 결과물이다.²⁸

2014년 5월 26일부터 6월 30일까지 실시한 발굴조사에서는 청해토성, 거산성, 용전리산성 등을 조사하고 평리고분군 조사와 함께 14기의 고분을 발굴 조사하였다. 2015년 발굴조사는 5월 초에서 6월 말까지 이루어졌다. 이 기간에는 안곡산성, 오매리절터, 금산건축지를 조사하고 평리고분군에서 17기의 고분을 발굴하였다. 조사 기간에 지름골과 비석골에서 고려시대 고분군을 발견하고 그중 일부를 발굴조사하였으며 이 보고서에 부록으로 수록하였다. 보고서에는 이들 유적과 유물에 대한 도면 84장과 사진 443장을 실었다.

그동안 발해 5경 중의 하나인 남경남해부의 위치에 대해서는 다소의 이견이 있었으나 이 발굴조사를 통해 청해토성이 남경남해부의 소재지임을 확정할 수 있게 되었다. 청해토성 주변에는 발해시대 고분군이 넓게 분포되어 있으며 평리고분군의 발해시대 석실봉토분에서 나온 토기와 자기, 쇠칼, 청동팔찌 등은 중국 길림성(吉林省) 둔화시(敦化市) 룡정산(六頂山) 발해 고분들에서 나온 것과 공통점이 많다. 청해토성 주변에는 용전리 산성, 안곡산성, 거산성 및 봉수대 등 방어 체계와 통신 수단을 갖추고 있고 일본이나 신라로 왕래하던 항구가 있다는 점도 이곳을 발해의 남경남해부로 볼 수 있는 근거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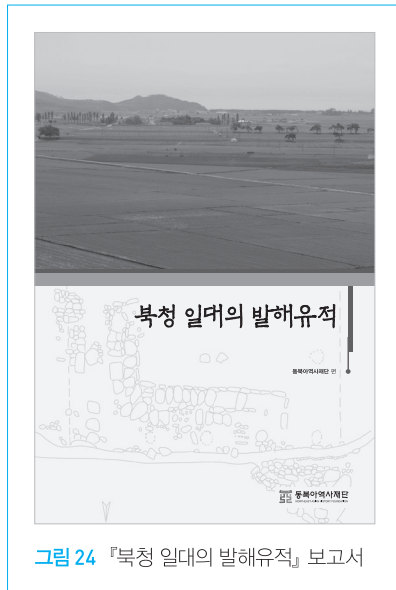


그림 24 『북청 일대의 발해유적』 보고서

28 동북아역사재단, 2020, 『북청 일대의 발해유적』, 동북아역사재단.

북청 일대의 발해유적 조사는 청해토성과 주변의 고분군, 산성, 봉수대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함으로써 청해토성이 발해의 남경남해부의 소재지라는 것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학술적 가치가 크다.

IV. 맺음말

고구려연구재단과 동북아역사재단의 남·북 교류협력 사업은 남·북 관계의 부침 속에서도 다양한 방식으로 추진되어 상당한 성과를 이루었다.

2004년 발족한 고구려연구재단은 당시 남·북의 해빙 무드를 타고 적극적인 대북 교섭을 추진하였다. 그 결과 2005년 1월 북측의 민족화해협의회와 국제학술회의의 공동 참가, 평양 일원의 고구려 유적 공동 조사 및 보고서 발간, 남·북 학술회의 개최 그리고 향후 지속적으로 고구려 및 고대사 관련 남·북 공동 학술연구 사업 진행 등의 내용을 담은 ‘남·북 고구려관련 공동학술사업 추진을 위한 합의서’를 체결할 수 있었다.

〈표 13〉 고구려연구재단·동북아역사재단의 남·북 학술교류 및 성과

기관	수행 일자	장소	교류 내용	비고
고구려연구재단	2004.11.14		『북한의 최근 고구려사 연구』 출간	논문집
	2005.1.26	중국	‘남·북 고구려관련 공동학술사업 추진을 위한 합의서’ 체결	
	2005.2.24~25	러시아	‘남·북·러 국제학술회의’ 개최	남·북·러
	2005.7.19~30	평양, 백두산	평양 일대 고구려유적 남북공동 학술조사	남·북
	2005.11.20		『평양일대 고구려 유적』 출판	보고서
	2005.11.29	금강산 호텔	남·북 고구려유적 공동조사 학술회의 개최	남·북
	2005.11.20		『증보판 평양일대 고구려 유적』 출판	보고서

동북아역사재단	2006.4.8~19	평양	고구려 안학궁 조사	남·북
	2006.11.30		『고구려 안학궁 조사 보고서 2006』출판	보고서
	2007.12.10		『증보판 평양일대 고구려 유적』출판	보고서 (초판 2쇄)
	2007.12.10		『고구려 안학궁 조사 보고서 2006』출판	보고서 (초판 2쇄)
	2008.8.11~13	캐나다	“동북공정과 고구려” 국제학술회의 개최	남·북·중·캐나다·미·일·이탈리아
	2008.12.19	중국	‘역사지역과 역사인식－일본 우익 역사교과서에 대한 비판 국제학술회의’ 개최	남·북·중
	2011.2.28		『남포시 용강군 옥도리 일대 역사유적』출판	보고서
	2011.2.28		『옥도리 고구려 벽화무덤』출판	보고서
	2011.11.10		『부거리 일대의 발해유적』출판	보고서
	2011.11.28~29	러시아	‘高句麗・渤海史 研究의 새로운地平 국제학술회의’ 개최	남·북·중·러·일
	2013.12.15		『평양지역 고구려 도성유적』출판	보고서
	2014.5.30	중국	‘제1회 일본군‘위안부’문제 국제학술회의’ 개최	남·북·중
	2014.10.20~22	중국	‘광개토왕비 건립 1600주년 기념 국제학술회의’ 개최	남·북·중·일
	2015.5.30	중국	‘제2회 일본군‘위안부’문제 국제학술회의’ 개최	남·북·중
	2015.8.15		『황해도 지역 고구려 산성』출판	보고서
	2015.8.15		『회령 일대의 발해유적』출판	보고서
	2017.12.29		『평안도 지역 고구려 산성』출판	보고서
	2019.12.24		『황해북도 봉산군 천덕리 신대동 고구려무덤』출판	보고서
	2020.5.30		『북청 일대의 발해유적』출판	보고서

합의에 의거 2005년 2월에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린 국제학술회의에 남측과 북측이 공동으로 참가하였다. 이 회의는 고조선에서부터 고구려,

발해까지 그동안 남·북의 고대사 연구에 대한 상호 이해의 기회가 되었으며, 특히 중국의 동북공정으로 인한 우리 역사 왜곡이 이슈로 부각된 상황에서 남·북 학계의 확고한 역사의식과 동일한 인식을 확인하고 공조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리고 같은 해 7월 20일부터 7월 29일까지 평양 일대의 고구려 유적에 대한 남·북 공동 학술조사를 실시하였다. 고구려 벽화고분을 비롯하여 평양성과 대성산성 그리고 백두산 정계비터까지 조사할 수 있는 기회였다. 당시 직접 촬영한 사진들을 그해 11월에 『남북공동유적조사보고서(南北共同遺蹟調查報告書) 평양일대 고구려유적』으로 출판하고, 그 후속 행사로서 금강산에서 관련 학술회의가 개최되었다. 이 학술조사와 학술회의는 무엇보다도 최초로 고구려 유적과 백두산 정계비터를 남·북 학계가 공동 조사하고 우리 영토 내에서 다시 모여 학술 토론을 펼쳤다는 점에서 커다란 의의가 있다. 이러한 성공적인 교류에 힘입어 2006년 4월에는 남·북이 안학궁을 공동으로 발굴조사하였고 『고구려 안학궁 조사 보고서 2006』을 출판하는 등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고구려연구재단의 남·북 학술교류 사업은 양측이 협력해나가야 할 바람직하고 보편적인 교류의 방향과 방법을 제시하였다.

2006년 9월 고구려연구재단이 동북아역사재단에 통합되면서 남·북 학술교류 사업은 한동안 답보상태에 머물렀다. 다시 실마리를 찾은 것은 2008년 8월 캐나다 밴쿠버에서 열린 ‘동북공정과 고구려’ 국제학술회의에 동북아역사재단과 북측 사회과학원의 관계자들이 참여하여 학술교류의 의향을 재차 확인하면서이다. 다만 참여정부에서 이명박 정부로 바뀌어 남·북 관계의 기류가 변화되는 상황에서 재단이 직접 접촉하는 것은 쉽지 않았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법 중의 하나가 제3국을 통하는 것이었다.

간접교류 방식을 통해 2008년 12월 중국 북경대학에서 ‘역사기억과 역사인식-일본 우익 역사교과서에 대한 비판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하였다. 이 학술회의는 북경대학 역사계와 중화문화교류연합작촉진회가 공동으로 주관하고 북측과의 실질적인 연락은 연변대학이 담당하였다. 남·북의 학자들은 발표와 토론

을 통해 일본 역사교과서의 문제점을 공유하고 역사왜곡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함으로써 국제 사회에서 공조를 확대해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방식은 북측 고구려·발해 유적 발굴조사 사업에도 적용되어 2010년에는 옥도리 벽화고분 및 일대 역사유적 발굴조사와 부거리 발해유적의 발굴조사 사업을 추진할 수 있었다. 동북아역사재단 관계자들이 북측 현지의 유적 발굴조사에 직접 참여할 수는 없었지만 그 결과물을 전해 받아 편집 출판하는 등 출판권과 저작권을 갖게 되었다. 이로써 북측에 있는 고구려·발해 유적 자료에 대한 권원을 확보하게 되었고 학계에 연구 자료로 제공하는 한편 일반인들에게도 유적 현장과 출토 유물을 생생하게 보여줄 수 있게 되었다. 이후 평양 지역 고구려도성 유적, 황해도 지역 고구려 산성, 회령 일대의 발해유적, 평안도 지역 고구려 산성, 황해북도 봉산군 천덕리 신대동 고구려무덤, 북청 일대의 발해유적 등 거의 해마다 북측의 고구려·발해 유적 발굴조사 지원 사업을 수행하여 2020년까지 모두 9권의 조사보고서를 정식 출간하였다.

학술회의도 간접 접촉 방식으로 추진되어 2011년 11월에는 러시아와 중국의 협조를 구해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고구려·발해사 연구의 새로운 지평’을 주제로 남과 북 및 중국, 러시아, 일본 학자들까지 참여한 고구려·발해 관련 역대 최대 규모의 학술회의를 개최할 수 있었다. 또한 2014년 5월에는 제1회 일본군 ‘위안부’ 문제 국제학술회의를 중국사회과학원과 공동으로 개최하였고 다음 해 5월에도 이어 동일 주제로 두 번째 학술회의를 개최하였다. 2014년은 광개토대왕비 건립 1600주년을 맞는 해로서 재단이 중국사회과학원 측에 적극 제안하여 북측 사회과학원을 초청하는 방식으로 현지에서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하고 고구려 고도 국내성 지역의 유적들을 남·북 학자들이 함께 답사하는 뜻깊은 기회를 가졌다.

그동안 고구려연구재단과 동북아역사재단의 남·북 역사문화 교류는 고구려사와 발해사, 일본의 역사교과서, 독도,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 분야에서 학술회의 8건, 직간접 발굴조사를 통한 발굴조사 보고서 발간 11건, 북측 연구 성과 출판 1건 등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하였다. 특히 최근 10여 년 동안 변동성이

심했던 남·북 정세 속에서 고구려연구재단과 동북아역사재단이 얻은 이러한 성과들은 우리 정부의 남·북 역사문화 교류 사업 전체의 수량적 측면에서도 일정 부분을 점하고 있어 기여한 바가 크다고 평가된다.

참고문헌

단행본

- 고구려연구재단, 2005a(11.20. 초판 1쇄), 『南北共同遺蹟調査報告書 평양일대 고구려유적』, 고구려연구재단.
- _____, 2005b(12.30. 초판 1쇄), 『증보판 南北共同遺蹟調査報告書 평양일대 고구려유적』, 고구려연구재단.
- _____, 2006a, 『고구려연구재단 사업성과보고서2004.3~2006.8』, 고구려연구재단.
- _____, 2006b(11.30. 초판 1쇄), 『남북공동학술조사보고서2 고구려 안학궁 조사 보고서 2006』, 고구려연구재단.
- 고구려연구재단·조선력사학회·러시아극동국립기술대학교 편, 2005, 『남·북·러 국제학술회의 고조선·고구려·발해 발표 논문집』, 고구려연구재단.
- 고구려연구재단 편, 2004, 『북한의 최근 고구려사 연구』, 고구려연구재단.
- 국립문화재연구소 고고연구실, 2018, 『남북문화유산교류사』, 국립문화재연구소.
- 김정배, 2018, 『한국과 중국의 북방사 인식』, 세창출판사.
- 동북아역사재단, 2007a(12.10. 초판 2쇄), 『남북공동학술조사보고서2 고구려 안학궁 조사 보고서 2006』, 동북아역사재단.
- _____, 2007b(12.10. 초판 2쇄), 『증보판 南北共同遺蹟調査報告書 평양일대 고구려유적』, 동북아역사재단.
- _____, 2011a, 『高句麗·渤海史 研究의 새로운 地平』 국제학술회의 자료집.
- _____, 2011b, 『남포시 용강군 옥도리 일대 역사유적』, 동북아역사재단.
- _____, 2011c, 『부거리 일대의 발해유적』, 동북아역사재단.
- _____, 2011d, 『옥도리 고구려 벽화무덤』, 동북아역사재단.
- _____, 2012, 『동북역사재단 6년의 활동과 지향, 갈등을 넘어 화해로』, 동북아역사재단.
- _____, 2015a, 『황해도 지역 고구려 산성』, 동북아역사재단.
- _____, 2015b, 『회령 일대의 발해유적-2012~2013년 발굴조사 보고서』, 동

북아역사재단.

_____, 2016, 『동북역사재단 10년의 활동과 성과』, 동북아역사재단.

_____, 2017, 『평안도 지역 고구려 산성』, 동북아역사재단.

_____, 2019, 『황해북도 봉산군 천덕리 신대동 고구려무덤』, 동북아역사재단.

_____, 2020, 『북청 일대의 발해유적』, 동북아역사재단.

_____, 2022, 『동북역사재단 15년의 활동 성과와 과제』, 동북아역사재단.

동북아역사재단·한성백제박물관, 2017, 『고구려 벽화고분의 조사연구와 최신 성과 학술회의』 자료집.

조선유적유물도감편찬위원회, 1989, 『조선유적유물도감3』 고구려편(1), 외국문종합출판사.

北京大學歷史學系·中華文化交流與合作促進會, 2008, 『歷史記憶與歷史認識:日本右翼歷史教科書批判 國際學術討論會 会议手冊』 [전자자료]CD-ROM.

中国社会科学院中国边疆研究所 중국사회과학원 중국변강연구소·韩国东北亚历史财团历史研究室 한국 동북아역사재단 역사연구실, 2014, 『纪念好太王碑建碑1600周年国际学术会议 호태왕비 건비 1600주년 기념 국제학술회의』 會議手冊.

中國社會科學院 中日研究中心, 2015, 『第二屆 日軍“慰安婦”問題的國際學術會議 제2회 일본군'위안부'문제 국제학술회의』 자료집, 中國社會科學院·東北亞歷史財團.

논문

고광의, 2019, 「고구려 고분벽화와 남북교류협력」, 『美術史研究』 第304號, 한국미술사학회

기타 자료

‘남북 역사학자들 금강산서 고구려유적 학술회의’(2005-12-01 오전 10:54, 금강산=연합뉴스 김용래 기자)

고구려연구재단과 동북아역사재단의 남·북 역사문화 교류와 성과

고광의

고구려연구재단과 동북아역사재단의 남북 교류 협력은 불안정한 남북 관계의 속에서도 다양한 방식으로 추진되었다.

2004년 설립된 고구려연구재단은 2005년 북측과 남북 공동 학술연구 사업 진행 등의 내용을 담은 ‘남·북 고구려관련 공동학술사업 추진을 위한 합의서’를 체결하였다. 2년여의 기간 동안 평양 일대의 고구려 유적에 대한 공동 학술조사, 관련 학술회의를 개최하는 등 양측이 협력해나가야 할 바람직하고 보편적인 학술 교류의 방향과 방법을 제시하였다.

2006년 설립된 동북아역사재단은 변화된 정세로 인해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였다. 2008년 캐나다 밴쿠버에서 열린 ‘동북공정과 고구려’ 국제학술회의에 동북아역사재단과 북측 사회과학원 관계자들이 참여하면서 제3국을 통한 학술 교류를 지속할 수 있게 되었다.

그동안 고구려연구재단과 동북아역사재단의 남북 역사문화 교류는 고구려사와 발해사, 일본의 역사교과서, 독도, 일본군‘위안부’ 문제 등 분야에서 학술회의 8건, 직간접 발굴조사를 통한 발굴조사 보고서 발간 11건, 북측 연구 성과

출판 1건 등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하였다. 최근 10여 년 동안 변동성이 심했던 남북 정세 속에서 고구려연구재단과 동북아역사재단이 얻은 이러한 성과들은 우리 정부의 남북 역사문화 교류 사업 전체의 수량적 측면에서도 일정 부분을 점하고 있어 기여한 바가 있다고 평가된다.

주제어: 고구려연구재단, 동북아역사재단, 남·북, 역사문화, 교류, 성과

ABSTRACT

Historical and Cultural Exchanges and Achievements of the Koguryo Research Foundation and the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between South Korea and North Korea

Ko Kwangeui

The inter-Korean exchange and cooperation between the Koguryo Research Foundation and the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were promoted in various ways despite unstable inter-Korean relations.

The Koguryo Research Foundation, established in 2004, signed an agreement with the North in 2005 to promote joint academic projects related to Koguryo between the South and the North. During the two-year period, the two sides presented desirable and universal academic exchanges and methods for cooperation, such as joint academic surveys and related academic conferences on Koguryo relics in Pyongya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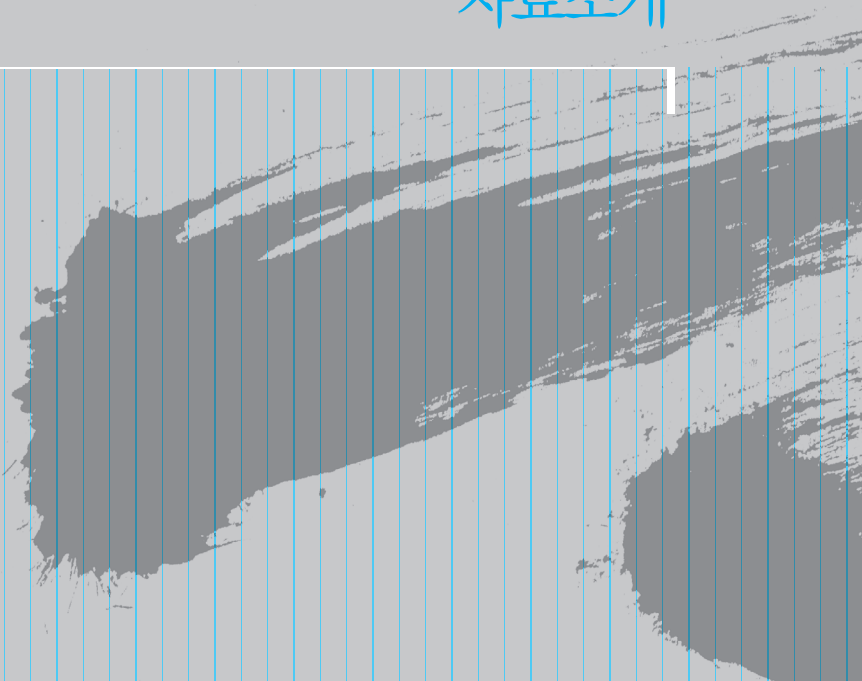
Founded in 2006, the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sought new ways due to the changing situation. In 2008, officials from the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and the North Korean Academy of Social Sciences participated in the “Dongbei Gongcheng(東北工程) and Koguryo” international academic conference held in Vancouver, Canada, allowing academic exchanges to continue through third countries.

The inter-Korean historical and cultural exchanges between the Koguryo Research Foundation and the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have produced substantial results, including eight academic conferences, Dokdo, and Japanese Military Sexual Slavery issues. These achievements obtained by the Koguryo Research Foundation and the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in the volatile inter-Korean situation over the past decade are considered to have contributed to the Korean government’s overall inter-Korean history and culture exchange project.

Keywords: Koguryo Research Foundation,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Between South Korea and North Korea, History and Culture, Interchange, Achievement.

자료소개



동북아역사재단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네 번째 식민지 조선과 일본군 ‘위안부’ 문제 자료집 시리즈

— 『국제연맹 동양여성아동매매 실지조사단과 일제의
인신매매 문제』

박정애 |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 I. 식민지 조선과 일본군‘위안부’ 문제 자료집 시리즈에 대하여
- II. 자료집 발간 배경
- III. 자료집 구성과 내용
- IV. 역사적 이해에 기초한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I. 식민지 조선과 일본군‘위안부’ 문제 자료집 시리즈에 대하여

동북아역사재단이 2022년 12월에 발간한 자료집 『국제연맹 동양여성아동매매 실지조사단과 일제의 인신매매 문제』는 식민지 조선과 일본군‘위안부’ 문제 자료집 시리즈의 네 번째 성과물이다. 이 시리즈는 2019년 1월에 기획을 시작하여 2020년 말부터 매년 자료집 발간 형태의 결실을 맺고 있다.

1990년대 이후 일본군‘위안부’ 문제는 미해결된 과거사 문제이자 한일 간 주요 역사 현안으로 인식되어 왔다. 대중의 관심과 언론의 선호도가 높은 주제인 만큼 다양한 콘텐츠가 제작되어 있으며, 한국정부의 각 부처는 이 문제 해결을 목표로 다양한 연구용역 사업을 발주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한국 대중은 다양한 사업 성과 소식을 접할 수 있었고, 관련 학계에서도 일본군‘위안부’ 연구성과는 상당히 축적되어 있다는 인상을 가지기도 했다.

그런데 일본군‘위안부’ 연구는 학술적 연구축적 이전에 생존자 증언 채록이나 한일 정부를 향한 문제해결 운동이 시작되었다는 특징이 있다. 이 때문에 일본군‘위안부’ 담론이 역사적 실태를 수렴하지 않았다는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¹ 그때그때 이슈에 대응하는 특성이 있는 정부의 용역사업 또한 이러한 ‘위안부’ 연구 한계의 자장 안에 있다. 연구 기한 또한 최장 10개월 정도에 불과하다. ‘위안부’ 관련 연구가 장기적인 전망 아래 토대나 중점 연구를 지원하는

* 이 글은 다음의 글을 바탕으로 대폭 수정·보완하여 새롭게 작성한 것이다. 박정애, 2022, 「해제: 국제연맹 동양여성아동매매 실지조사단과 제국 일본의 인신매매」, 『식민지 조선과 일본군‘위안부’ 문제 자료집Ⅳ: 국제연맹 동양여성아동매매 실지조사단과 일제의 인신매매 문제』, 동북아역사재단, 14~25쪽.

1 송연옥, 2017, 「일본에서의 위안부 문제 연구현황과 과제」, 『식민주의, 전쟁, 군‘위안부’』, 선인, 43쪽.

한국연구재단이나 한국학중앙연구원의 지원과제가 된 적도 없었다. ‘위안부’ 연구는 ‘이슈 중심’이며, ‘(정부 용역으로) 상당히 지원이 이뤄져 있다’는 인상 때문 일 것이다.

이러한 연구 환경 탓에 학계 - 특히 역사학 분야 - 에서 현안 토론을 넘어 일 본군 ‘위안부’ 문제의 역사적 맥락을 점검하는 진지한 학술 토론이 이루어진 경 우가 드물다. 이와 동반하여 지속적인 관련 연구주제도, 전문 연구자도 나오기 힘든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연구의 양적 축적이 질적 축적으로 이어지기 어려 운 상황 속에 놓여 있는 것이다.

한국 근대여성사 전공자인 필자 또한 10년 넘게 정부 용역 사업에 간헐적으 로 참여하면서, 비슷한 자료 수집, 번역, 해제 작업을 반복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은 적이 있었다. 정부 용역연구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를 부정하는 일본정부 나 역사부정론자의 정쟁으로부터 그 필요성이 제기되는 경우가 많아서 연구주 제가 한정될 수밖에 없었다. 또 단기간 내에 피해를 입증하는 자료를 찾아야 하는 현실 속에서 자료 수집 작업은 ‘위안소’나 ‘위안부’라는 키워드 중심에 머무는 경우가 많았다. 곧 기존 연구를 보완하는 작업 외에 연구주제를 확장하기에는 역부족이었던 것이다.

20여 년간 ‘위안부’ 역사 연구와 실천 활동에 관계해오면서 다양한 연구팀 과 접해왔던 필자는, 이렇게 다람쥐 쳇바퀴 도는 듯하는 연구 상황에 갈증을 느 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의 도달점은 전시(戰時) 및 일상의 성폭력 재발 방지이다. 이를 향해가는 과정에서 가해 주체인 일본정부의 공식적인 사죄와 진 상규명, 그리고 기억사업 등의 책임 조치는 반드시 필요하다. 국가폭력 피해자 의 존엄성 회복과 재발 방지는 국가의 공식적인 사죄와 원인 규명, 그리고 피해 자를 잊지 않겠다는 약속에서 비로소 시작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로써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국가폭력 시스템 안에서 정치적·경제적·사회적으로 다양한 권력 주체가 그 가해 책임에 연루되어 있다. 피해당사자 외에 피해에 연루되어 있는 개인들도 존재한다.² 폭력적인 시 대에 희생당했을 뿐만 아니라 순응하거나 타협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로서 일본

군‘위안부’ 역사를 직시할 때, ‘재발 방지’라는 목표를 위해 우리가 무엇을 토론해야 하는지 비로소 보일 것이다. 폭력의 재생산 구조를 해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그러한 구조를 파고들어 이득을 얻는 주체를 비판해야 한다. 역사부정론자들이 주장하듯이 그들은 국가를 배반한 위법자가 아니라, 국가와 더불어 국가 폭력 시스템을 유지시킨 공모자이다.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필자는 2018년 7월부터 동북아역사재단에서 근무하면서 식민지 조선과 일본군‘위안부’ 자료집 시리즈를 기획했다. 마침 재단의 장기 사업 주제로 일제침탈사 자료총서를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산에 크게 구애받지 않고 장기계획을 세우는 것이 가능했다. 또한 10개월 단위의 정부 용역이 당장의 현안에 대응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주제에 한정되며 사업 주체가 자주 바뀐다는 한계가 있었다면,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주요 현안으로 다루는 재단에서는 지금의 화제성과는 별개로 장기적인 전망하에 기초연구 사업을 추진할 수 있었다.

식민지 조선과 일본군‘위안부’ 문제 자료집 시리즈의 목표는 식민지 조선의 경험을 중심으로 일본군‘위안부’ 역사를 재구성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제국주의와 식민주의, 군사주의, 인종주의, 가부장주의라는 지배 이데올로기의 교차작용, 그리고 일본 ‘내지’와 조선, 타이완, 관동주 등 ‘외지’의 관계, 나아가 ‘제국 일본’과 국제사회의 관계 등에 주목했다. 일제 권력이 ‘제국 일본’을 위해 만들어낸 차별적인 권력구조와 이를 활용한 성 관리(=동원) 정책, 그리고 국제사회를 의식한 인신매매의 ‘명분 만들기’가 ‘위안부’라는 기만적인 이름을 붙인 성폭력 시스템을 만들어낸 배경이 되었기 때문이다. 이를 드러내기 위해 이 자료집 시리즈가 채택한 방법은 자료 ‘발굴’이 아니라 ‘새로운 독해’이다. ‘위안부’라는 키워드를 넘어 이동[도항(渡航)], 형법(유괴), 전시 유언비어, 국제연맹, 인신매

- 2 일본군‘위안부’제도를 둘러싼 피해/가해에 연루되어 있는 피해자와 그 가족, 마을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는 박정애, 2020, 『함께 쓰는 역사, 일본군‘위안부’』, 동북아역사재단 참조.

매, 식민지 경찰, 공창제, 사창 관리, 성병이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기존 자료를 새롭게 독해하여 엮고자 했다. 그리고 기획연구 제3년차, 시리즈 제Ⅳ권으로 『국제연맹 동양여성아동매매 실지조사단과 제국 일본의 인신매매』 자료집을 발간했다.³⁾

II. 자료집 발간 배경

1. 일본군‘위안부’ 피해부정론과 국제연맹의 여성매매 억제논의

1932년 이후 전쟁터와 점령지를 중심으로 등장한 일본군‘위안부’ 시스템은 일본정부가 국제사회의 인신매매 억제 노력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마련되었다. 1920년대부터 1930년대 초에 걸쳐 진행된 국제연맹의 여성아동매매 억제 국제협약과 실태조사에 일본 성관리 정책하의 인신매매 상황이 문제가 되었다. 일본 안팎에서는 일본의 국가관리 성매매 정책, 곧 ‘공창제’가 인신매매 제도라는 비판이 있었고, 일본정부는 그 오명을 벗어나기 위해 진력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창기의 자발성’을 주장하여 ‘공창제’가 인신매매 제도라는 혐의를 피해야 한다는 것과 이미 국제사회에서 문제로 지적된 ‘공창제’를 연상시키는 ‘창기’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 그리고 일본인 남성을 상대로 한 일본 정치세력권 내의 국가 성 관리 제도는 국제적으로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체득했다. 이에 따라 전쟁이 일어난 곳을 중심으로 일본군을 상대로 하는 강력한 국가 성관리 정책을 정비하면서 ‘위안부’라는 완곡어를 만들어냈다. 그러니까 ‘위안부’라는 말 자체가 일본의 국가적 의도를 반영한 국가 용어인 것이다.

3 시리즈 제Ⅰ권의 제목은 『중일전쟁 이후 일제의 도항 통제 자료집』(2020)이며 제Ⅱ권은 『제국 외 이송유괴 사건 관계 자료집』(2021), 제Ⅲ권은 『전시체제기 유언비어 통제 관계 자료집』이다.

일본군‘위안부’제도를 시행하면서 일본정부는 위안소 개설을 위한 여성의 모집, 이송, 배치, 관리 등을 시스템화하여 국제사회의 시야에서 ‘위안부’ 문제를 은폐했다. 이를 위해 1938년 3월 4일 육군성 부관이 통첩을 내어 ‘파견군이 모집을 통제하여 담당 인물은 주도 적절하게 선정하고, 그 모집실시는 관계 지방의 헌병 및 경찰 당국과 긴밀하게 연계’하라고 명령했다는 사실은 두루 알려진 바다. 이는 ‘군의 위신을 지키고 사회문제에 실수가 없도록 배려’하기 위한다는 명분이 덧붙여 있다. 이보다 앞서 1938년 2월에는 내무성 정보국장이 「지나도항 부녀의 취급에 관한 건」을 발령하여 ‘전쟁터로 가는 여성의 모집주선 등은 여성매매에 관한 국제조약의 취지에도 어긋나는 점이 있다’고 우려하고 경찰이 명심해야 할 도항 여성 관리 방침을 정하기도 했다. 여기에서 주목되는 것은 여성매매의 혐의가 있어도 ‘전쟁터로 가는 여성의 문제’는 ‘현지의 시정을 감안할 때 필요하고 부득이한 일’이라고 판단했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경찰의 단속 방향이 ‘창기와 기타 사실상의 추업(醜業) 일을 하는 여성’의 도항 금지가 아니라 ‘경찰 당국이 특수하게 고려하여 실정에 즉시 응하는 조치를 강구’하는 것으로 정해졌던 것이다. 이 모든 조치는 ‘제국의 위신과 황군의 명예’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는 명분이 있었다.⁴

일본군‘위안부’ 제도가 조직화·체계화되었다는 말은 이 제도가 노골적으로 일본 국내외 법을 어겼다는 말과는 거리가 있다. 오히려 당대 국제법 및 제국 일본 안의 법과도 충돌하지 않는 형식을 띠면서 전시 성동원 정책을 시행해나갔다는 의미이다. 일본은 기존의 국가 성관리 정책, 곧 ‘공창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전시체제에 맞게 변용 또는 재편하였고, 이는 그 지역의 정치적 성격에 따라 달랐다. 일본군‘위안부’제도는 변용 또는 재편되면서 다양한 양상을 띠었던 전시기 성 관리 시스템을 아울러서 말하는 것이다.

4 이상 언급된 자료들은 동북아역사재단 편, 2020, 『식민지 조선과 일본군‘위안부’ 문제 자료집 I: 중일전쟁 이후 일제의 도항 통제(번역·해제 편)』, 동북아역사재단, 434~437쪽 참조.

따라서 일본 ‘공창제’와 ‘위안부제’가 같거나 다르다고 주장하면서 정쟁을 벌이는 일은 역사적 사실과도 다르고 소모적이기만 할 뿐이다. 정쟁 속에서 공창제는 일본군 ‘위안부’ 제도의 전사(前史)로 언급되기도 하고,⁵ 일본군 ‘위안부’ 제도와 동일한 것으로 간주되기도 한다. 후자의 경우 동일하기 때문에 일본정부가 책임질 부분이 전혀 없다는 주장⁶이 있는 한편, 반대로 그렇기 때문에 성 착취 제도를 국가권력으로 관리한 일본정부의 책임이 더욱 무겁다는 비판⁷이 있기도 하다.

이 가운데 ‘위안부제’와 ‘공창제’는 같은 것이어서 일본정부의 책임이 없다는 주장은 역사부정론자들의 가장 강력한 무기이다. 창기와 같은 존재인 ‘위안부’는 당대 합법의 틀 안에서 업주와 계약을 맺고 돈을 벌기 위해 자발적으로 전쟁터로 갔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일본군의 성적 대상이 된 상황에서 오는 고통은 당사자가 스스로 초래한 것으로 일본 공권력은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한다.

그러나 일본의 공창제가 국가가 공인한 인신매매 제도이자 노예제도라는 비판은, 무엇보다 당대 국제사회의 시선에서 나왔다. 메이지 정부 성립 직후인 1872년에 일본은 마리아 루스호 사건⁸을 겪으면서 일본의 예창기 제도가 노예

5 정진성, 2016, 『일본군 성노예제: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실상과 그 해결을 위한 운동』,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송연옥 외, 2012, 『군대와 성폭력: 한반도의 20세기』, 선인.

6 秦郁彦, 1999, 『慰安婦と戦場の性』, 新潮社; J. Mark Ramseyer, 2021, “Contracting for sex in the Pacific War,” *International Review of Law and Economics* 65.

7 캐롤라인 노마 지음, 유혜담 옮김, 2020, 『위안부는 여자다: 여성주의 관점으로 ‘위안부’ 역사를 복원하다』, 열다북스.

8 청나라 노동자를 싣고 마카오에서 페루로 가던 마리아 루스호가 수리를 위해 1872년 7월 일본 가나가와현(神奈川県) 요코하마항(横浜港)에 입항했다. 이때 청나라 노동자 한 명이 탈출하여 영국 군함으로 도망쳤다. 이 문제를 놓고 요코하마 재판소에서 재판을 했던 일본은 청나라 노동자 상황이 국제법 위반인 노예 상태와 같다고 하여 풀어줄 것을 판결했다. 패소한 페루는 일본에도 노예매매와 같은 예창기 제도가 있다고 항의했고, 일본정부는 형식적이거나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을 수 없어 1872년 10월 태정관 포고 제295호로 「예창기해방령」을 공포했다. 송경호,

제도라는 국내외 비판에 직면했다. 이에 일본정부는 1872년 10월 형식적으로 「예창기해방령」을 공포하고 다음 해인 1873년 12월에 도쿄부에서 「가시자시키 생업규칙(貸座敷渡世規則)」, 「창기규칙」, 「예기규칙」 등을 제정하여 근대 성관리 정책을 시작했다.⁹ 이 법령들이 수 차례 개정을 거쳐 1900년 내무성령 제 44호 「창기단속규칙(娼妓取締規則)」으로 귀결되어 일본의 근대 ‘공창제’의 틀이 완성되었다. 이후 식민화가 진행된 지역에서도 성 관리 정책을 시작하여 관동주에서는 1905년 「창기단속규칙」, 타이완에서는 1906년 「가시자시키와 창기단속규칙 표준(貸座敷及娼妓取締規則標準)」, 조선에서는 1916년 「가시자시키창기단속규칙」을 제정했다. 이때 주의할 것은, 제국 일본의 법역(法域) 안에서 일정한 정책이 시행된 것이 아니라 각지의 정치적 상황과 식민사회의 안정화 정도에 따라 각각 다른 차별적 내용이 반영된 성 관리 정책이 마련되었다는 사실이다.

한편, 구미사회에서는 19세기 말부터 이슈화된 국제적 인신매매를 배경으로 여성아동매매를 억제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논의해왔다. 이를 바탕으로 1904년과 1910년, 1921년, 1933년에 이와 관련한 국제협약을 맺고, 각 국가의 조인을 독려해왔다.

일본 국내외에서 일본의 여성아동매매가 문제된 것은 1921년에서 1933년 사이의 일이었다.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설립된 국제연맹에서 1921년 여성아동매매 억제를 위한 협약을 채택하고 그 실태조사를 위해 서양과 동양의 여성아동매매 실지조사를 실시했는데, 이때 일본이 주요 대상국이었던 것이다. 국제연맹 실지조사의 최종보고서는 1933년 1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제출되었다. 그리고 그 안에 일본 ‘공창제’ 하의 소개업 허가제도가 인신매매를 합법화하고 있다고 지적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2022, 「마리아 루스 호 사건을 통해 본 메이지 일본에서의 인권 개념 수용」, 『한국동양정치사상사연구』 21(1) 참조.

9 早川紀代, 1997, 「公娼制とその週辺－東京都を中心に」, 『季刊 戦争責任研究』 17, 51쪽.

이 때문에 일본 ‘공창제’와 ‘위안부제’의 반인도적 성격과 국가책임을 강조하는 학자들은 국제연맹 주도의 여성아동매매 억제 협약과 일본 조사를 중시해 왔다. 또한 역사부정론자들의 주장은 역사적 실태에 반하는 것이며, 오히려 당대 국제연맹의 평가를 좇아 ‘공창제’에 대한 일본의 책임을 묻어야 한다고 역설했다.¹⁰

이 자료집은 ‘위안부제’와 ‘공창제’를 둘러싼 정쟁과 이에 대한 역사학자들의 연구 흐름에 개입하기 위해 발간했다. 실지조사 결과 일본의 ‘공창제’가 인신매매를 합법화하고 있다는 국제연맹의 판단은 현재 역사부정론자들의 주장을 무력하게 한다. 동시에 ‘공창제’는 ‘여성의 자발적인 계약’에 기초해 있기 때문에 인신매매와 관계없다는 당대 일본정부의 대응 방식은 현재 역사부정론자들의 방식과 매우 유사하다. 따라서 이 자료집은 현재의 ‘위안부’ 피해부정론이 언제부터 어떤 방식으로 비롯되었는지 그 기원을 시사한다.

2. 국제연맹의 여성아동매매 억제논의와 아시아 실지조사

19세기 말부터 이슈화된 국제적 인신매매를 배경으로 국제사회는 성 착취를 위한 여성아동매매를 억제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논의해왔다. 구미 각국은 성매매를 목적으로 한 여성 이주를 억제해야 할 것으로 규정하면서 각자의 내셔널리즘과 인종주의에 따라 다양한 정책을 시행했다. 20세기에 들어와 국제적인 논의가 시작되어 1904년 5월 파리에서 ‘백인노예 매매 억제’를 위한 국제협약¹¹, 1910년 5월 파리에서 ‘백인노예매매 억제를 위한 국제협약’이 체결되었다. 이

10 太田健一·桜武加奈子, 2005, 「アジアにおける女性・児童売買の歴史と実態: ジョンソン委員会と日本政府の折衝」, 『山陽論叢』 12; 鈴木裕子, 2006, 「東洋婦人児童売買実施調査団と国際連盟における婦人売買問題: 「婦女禁売」問題と日本政府の対応を中心に」, 『日本軍「慰安婦」関係資料集成(下)』, 明石書店; 小野澤あかね, 2010, 『近代日本社会と公娼制度: 民衆史と国際関係史の視点から』, 吉川弘文館.

로써 인신매매 억제를 둘러싼 국제법이 발달하기 시작했다.¹¹

제1차 세계대전 후의 폐허 위에서 1920년에 성립한 국제연맹은 자유와 평화, 정의, 인도 정신을 이끄는 국제조직이자 세계의 경찰임을 자임하면서 연맹 규약 제23조에 따라 국제적 인신매매를 감독·관리할 권한을 가졌다. 그리고 1910년의 협약 내용을 보완하여 1921년 9월 제네바에서 ‘여성아동매매 억제를 위한 국제협약’을 체결했다. 여기에는 1910년 협약에서 만 20세 미만 여성의 매매를 금지했던 것을 만 21세 미만으로 올릴 것과 소개업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것, 여성아동의 입출국에 대한 보호조치를 마련할 것 등이 포함되었다. 또한 각 계약국이 자국의 식민지나 해외 속령지 또는 그 주권이나 법권에 속하는 지역을 협약에 포함시키지 않는다고 선언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었다.

아시아의 유일한 제국주의 국가로서 제1차 세계대전 승전국의 일원으로 국제연맹에 참여한 일본은 국제협약에 가입하는 문제를 ‘제국의 체면’ 문제로 생각했다. 이에 따라 1921년 국제협약에 조인했다. 그러나 비준은 1925년이 되어 서야 이루어졌다. 연령 제한과 식민지 포함 문제를 둘러싸고 논쟁이 깊었기 때문이다.

일본의 ‘공창제’에서 창기 가능 연령은 만 18세 이상이었다(조선은 만 17세, 타이완은 만 16세 이상). 국제적 기준에서 인신매매로 판단하는 내용을, 일본은 법령으로 제정하여 관리하고 있다는 뜻이다. 따라서 ‘제국의 체면’을 위해 조건 없이 1921년 협약에 가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했지만, 일본 내무성은 창기 가능 연령을 만 21세 이상으로 올리면, ‘공창제’ 자체가 무너질 것이라고 반대했다.

11 인신매매 관련 국제법의 발달에 대해서는 다음 참조. 조시현, 2014b,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통해서 본 1904년 백인노예매매의 진압을 위한 협정」, 『법학논고』 47; 조시현, 2014c,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통해서 본 1910년 백인노예매매의 진압을 위한 국제협약」, 『법학연구』 42; 조시현, 2014a, 「인신매매에 관한 국제법의 발달 과정」, 『법과사회』 46; 조시현, 2014d,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있어서 역사와 법」, 『법사학연구』 49. 한편, 1904년과 1910년, 그리고 1921년 협약 전문은 이 자료집 II-4. 동양여성아동매매 조사위원회 보고서 부록 편에서 살펴볼 수 있다.

결국 일본은 연령 제한과 식민지 포함 문제를 보류하는 조건으로 1925년에 1921년의 협약 가입을 비준했다. 이후에도 ‘제국의 체면’ 문제를 거론하면서 보류 조항을 철폐하라는 요구가 지속되었고 일본정부는 1927년에 연령 제한 보류 조항을 철폐했다. 만 18세 이상 창기 연령은 유지하되 만 21세 미만 여성의 ‘국제적 이동’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하겠다는 입장이었다. 한편 일본의 식민지, 조차지 등을 협약 적용에 제외하겠다는 보류 조항은 끝내 유지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은 국제연맹의 동양여성아동매매 실지조사에 대한 소식을 접했다. 국제연맹은 인신매매에 관한 국제협약의 이행상황을 감독한다는 명분으로 1922년 여성아동매매 문제 자문위원회를 설치했다. 자문위원회는 여성아동매매 실지조사위원회를 꾸려 유럽과 지중해 지역, 미 대륙의 국제적 여성매매 조사에 착수하였고, 1924년에서 1926년 사이 조사를 수행하여 1927년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어서 아시아 지역 조사를 결의하고 1930년 5월 14일 국제연맹 이사회의 승인을 받았다. 동양여성아동매매 실지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가 제출한 최종보고서에서 밝힌 조사 사항은 대략 다음과 같다.¹²

재원은 제1차 조사 때와 같이 미국 사회위생국의 제공으로 마련했다. 실지조사위원회 위원은 배스컴 존슨(Bascom Johnson, 미국, 미국 사회위생협회 법률 분야 국장, 위원장), 엘마 선드퀴스트(Alma Sundquist, 스웨덴, 내과 의사), 카를 핀도르(Karol Pindor, 폴란드, 공사 고문), 슈미든(M. W. von Schmieden, 독일, 사무국장), 마셜(C. E. Marshall, 영국, 서기)로 구성했다.

조사 목적은 성 착취를 위해 성매매 여성이나 예능인, 또는 예술가 여성을 국외로 데려가는 것에 대한 실태조사였다. 여성매매 문제의 국제적 측면에 한정하여 조사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기는 했으나 이의 조사를 위해서는 내부적 조건들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조사위원회는 1930년 10월 9일 마르세이유에서 출발하여 11월 6일 싱가포르에 도착하였으며, 태국, 인도네시아,

12 최종보고서의 내용은 자료집 II-4. 참조.

캄보디아, 베트남, 홍콩, 마카오, 필리핀을 거쳐 1931년 2월 14일 중국 광둥으로 들어갔다. 5월 28일 중국 조사를 마친 존슨 조사단은 일본의 실질적 식민지인 관동주로 향했으며, 다롄에서 사흘, 경성에서 이틀을 보낸 후 6월 9일에 도쿄에 도착, 7월 12일까지 일본 조사를 마쳤다. 이후 인도네시아로 향하여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 조사를 마치고 1932년 1월부터 인도 조사를 한 후 중동과 근동 지역에 갔다가 3월 16일 조사를 마무리했다.

조사 방법은 각국의 관계 당국에 사전질문지를 보내고 답변을 받은 후 이에 기초하여 실지조사를 하는 것이었다. 각 장소에 도착한 뒤 증인 청문회를 실시했으며, 민간단체 관계자 및 정부 측 관계자를 만나 면담하고 인신매매 관련 지역을 답사했다. 일본의 경우 창기나 예기 등이 머무는 장소나 구제홈, 병원 등이 대상이었다. 조사는 주로 영어로 수행되었으며, 아시아 지역의 언어를 사용하는 경우 현지 통역사의 서비스를 받았다.

조사 결과는 1932년 7월 제1차 보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국가의 관계자에게 의견을 들었다. 그리고 수정한 내용을 최종보고서로 작성하여 1933년 1월 국제연맹에 제출했다. 최종보고서는 각국의 의견을 거의 수렴하는 방식으로 수정되었으며 이 때문에 각국의 내셔널리즘이 강하게 반영된 채로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Ⅲ. 자료집 구성과 내용

1. 관계 자료 소장과 자료집 현황

자료집에 수록한 자료들은 한국 국가기록원과 일본 아시아역사자료센터에서 찾아낸 것들이다. 국가기록원 디지털 컬렉션의 ‘조선총독부 기록물’ 범주로 들어가면 그 하위 분류 중 하나로 ‘외사’가 있다. 그 안으로 들어가면 다시 하위 범주가 있는데 그 가운데 ‘일본 외무성 국제업무 관계’ 안에 일본 외무성이 조선총

독부와 조사위원회의 동정이나 조사 내용을 공유하는 문서들이 있다.

일본 아시아역사자료센터 외무성 관계 자료에는 국제연맹의 여성아동매매 국제협약 체결 과정이나 조사위원회의 조사 과정, 그리고 일제 권력이나 개혁가, 나아가 성매매 업자들의 대응을 살펴볼 수 있는 자료가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 이 가운데 국제연맹부인아동문제1건(國際連盟婦人兒童問題一件)은 그 안에 연보, 인사 관계, 국제회의, 동양부녀매매 실지조사의 건 등 이 주제와 관계된 대부분의 자료가 포함되어 있어 매우 중요하다. 이 외에 외무성 외교사료관 전전기(戰前期) 외무성 기록 2문 조약 4류 국제 평화회의 및 조약 협정 2항 국제연맹 문제(外務省外交史料館戰前期外務省記録2門 條約4類 國際平和會議及條約, 協定2項 國際連盟問題), 경보국장 결재서류(1937~1938) 등의 분류 항목에도 관련 자료가 탑재되어 있다.

일본에서는 일찍이 관계 자료를 엮어 여성문제 자료집을 발간해왔다. 이치가와 후사에(市川房枝)가 펴낸 『일본여성문제자료집성』 시리즈 중 제1권 인권편¹³에서 국제연맹 관계 자료들을 살펴볼 수 있다. 후지출판(不二出版)은 1997년부터 2010년까지, 13년에 걸쳐 『성매매 문제 자료집성(買売春問題資料集成)』 총 31권과 『성폭력 문제 자료집성』 총 36권을 발간했다. 이 가운데 제19권과 제20권, 제21권에서 국제연맹 조사위원회와 이에 대한 일본정부 대응 자료들을 집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¹⁴

스즈키 유코(鈴木裕子)는 『일본군‘위안부’ 관계자료 집성』 상·하권을 펴내면서, 그 하권 제3편에 ‘동양여성아동매매 실지조사단과 국제연맹 여성아동매매 문제’라는 제목으로 관계자료를 엮고 해제를 작성했다.¹⁵ 자료 수집을 위해 당시 한국의 정부기록보존소(현재 국가기록원)를 직접 방문하여 마이크로

13 市川房枝 編, 1978, 『日本婦人問題資料集成 第一卷=人權』, ドメス出版.

14 船橋治 編, 2003, 『買売春問題資料集成』 19~21, 不二出版.

15 鈴木裕子・山下英愛・外村大, 2006, 『日本軍「慰安婦」関係資料集成(下)』, 明石書店.

필름을 살펴보았다고 하며, 이를 일일이 탈초하여 자료집에 수록했다. 본 자료집에서 국가기록원 자료를 번역하면서 해독이 쉽지 않은 부분까지 번역할 수 있었던 것은 스즈키 유코의 수고에 의지한 바가 크다. 이 외에 국제연맹이나 폐창운동 단체들이 발행한 소책자들의 내용 또한 스즈키 유코가 발간한 자료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스즈키 유코는 해제를 작성하면서 당대 국제사회가 일본의 ‘공창제’를 인신매매 제도로 간주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자료의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동시에 위선과 회피의 태도로 국제사회에 대응하는 일본정부와 ‘국가의 체면’ 차원에서 ‘공창폐지’를 주장하면서도 여성을 타자화하고 식민지를 시야에 두지 않았던 폐창운동가들을 비판했다.¹⁶

2. 내용과 특징

자료집은 모두 3장으로 구성했다. 제 I 장의 주제는 ‘국제연맹 동양여성아동매매 실지조사단과 조선총독부’로 주로 한국 국가기록원의 소장 자료가 기초가 되었다. 1920년대, 그리고 1930년대 초에 실시한 국제연맹의 인신매매 실지조사는 주로 국제연맹, 구미 조사, 아시아 조사, 그중에 일본 조사의 순으로 학문적 관심을 받아왔다. 조선은 일본 식민지의 하나로 탐구되었으며, 이 때문에 조선, 타이완, 관동주 사례 등은 일본사에 첨부된 부록처럼 인식되는 경우도 있었다.¹⁷ 그러나 앞에서 밝힌 바와 같이 이 자료집 시리즈는 식민지 조선의 경험을 중심으로 제국주의 일본사, 나아가 국제관계사를 재구성하려는 의도에서 시도된 것이다. 따라서 우선 조선총독부에서 파악한 자료를 중심으로 자료들을 엮어놓고, 무엇이 빠지고 무엇이 추가되었으며, 무엇이 강조되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었다. 이 때문에 우선 한국 국가기록원이 확보하고 있는 자료부터 정리

16 鈴木裕子, 2006, 앞의 글, 709~718쪽.

17 小野澤あかね, 2010, 앞의 책 참조.

해본 것이다.

여기에 조선 관련 자료라고 판단된 일본 아시아역사자료센터의 소장 자료도 찾아서 추가했다. 조선 관련 자료가 생산된 배경으로서, 국제연맹 아시아 실지 조사가 시작되는 배경을 보여주는 문서(문서1)나 식민권력이 작성한 회답서의 전제가 된 조사위원회의 사전질문지(문서32), 일본 외무성이 파악하고 있는 조선을 포함한 ‘일본 제국’의 상황을 드러내는 문서(문서22, 23, 26, 31) 등이다.

문서의 공유는 주로 각 지역 영사관 → 외무성 → 척무성 → 조선총독부(정무총감 → 외사과장 → 경무국장 → 경무과장)의 순서로 이루어졌다. 관동청 등 식민기관이나 해외 영사관이 직접 조선총독부에 문서를 송부하는 경우도 있었다. 내용은 크게 조사위원회의 일정이나 각 지역 조사 내용에 대한 공유이다. 그 내용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조사 과정의 질의응답 내용을 일부 보고하기도 하고, 따로 응답록을 만들어 일어나 영어로 번역하여 서로 송부하기도 했다. 이 문서들을 통해 조사위원회의 조사방식과 내용, 그 성격에 대응하여 일본 정치세력권 각 기관 사이에서 문서를 주고받으며 회피 논리를 만드는 과정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일본 본토 및 그 식민지 지역 외에 베트남, 필리핀, 상하이, 샤먼 등 지역의 조사 상황도 파악할 수 있다. 여기에는 ‘방인(邦人)’으로 범주화된 일본인과 조선인, 타이완인의 이주 및 인신매매 상황, 여기에 연루된 브로커나 업자의 동정 등이 드러난다. 각각의 영역을 넘어 ‘제국 일본’, 더 나아가 영사관의 관할에 있는 일본 정치세력권을 중흥하는 인신매매 상황을 확인하면, 일본 본토나 식민지 조선 등의 영역에만 갇혀 일제의 성 관리 정책에나 (특정 민족에 속하는) 여성의 피해만 본다는 것이 얼마나 허무한 일인지 각성할 수 있을 것이다.

〈표 1〉은 제 I 장에 포함된 자료 목록과 그 내용을 간략히 제시한 것이다. 정무총감이라고 표기한 것은 조선총독부 정무총감을 말한다. 비고란에 일본 아시아역사자료센터에 소장된 자료라고 밝힌 외에는 모두 한국 국가기록원에 소장된 것이다. 물론 소장처 두 곳 모두에서 발견되는 자료들도 있었다.

〈표 1〉 제1장의 자료 목록과 그 내용 개요

	발신자(발신일)/수신자	내용	비고
1	재파리 국제연맹 일본사 무국장(1930.9.3) → 외 무대신 → 각지 영사	외무성 조약국 제3과가 작성(1930.9.3) 한 동양부인매매 조사전문위원회 보고 서. 동양 조사 결정을 둘러싼 국제연맹 내의 각국 반응 보고	일본 아시아역사자료센 터 소장
2	① 재사이공 영사대리 (1930.12.9) → 외무 대신 ② 척무차관(1931. 1. 20) → 정무총감	조사위원회의 사이공 조사 상황 보고	
3.	① 재홍콩 영사대리(1931. 1. 8) → 외무대신 ② 외무차관(1931.1.21) → 척무차관(1931.1.29) → 정무총감	조사위원회의 홍콩 조사 상황 보고	
4	① 척무차관(1931.2.20) → 정무총감 ② 외사과장(1931.2.25) → 경무국장	조사위원회의 사전질문서에 해당하는 조 사 요청 및 답변 지시	
5	① 척무차관(1931.3.3) → 정무총감 ② 외사과장(1931.3.4) → 경무국장	조사위원회의 일정 변경에 대한 회답	
6	경무국장(1931.3.5) → 외 사과장	지시대로 따르겠다는 회답	문서 4에 대한 회답
7	경무국장(1931.3.6) → 외 사과장	일정 변경을 받아들인다는 회답	문서 5에 대한 회답
8	정무총감(1931.3.11) → 척무차관	요청해온 조사 내용을 회신함	문서 4에 대한 회답 문서 6을 정무총감이 척 무차관에 보내는 문건
9	① 재상하이 총영사(1931. 3.25) → 외무대신 ② 재상하이 총영사(1931. 3.25) → 정무총감	조사위원회의 상하이 조사 동정과 조사 상황 보고, 주로 사전질문지에 대한 답변 내용	원문에는 정무총감이 정무장관으로 오기되어 있음
10	① 재상하이 총영사(1931. 3.31) → 외무대신 ② 재상하이 총영사(1931. 3.31) → 정무총감	상하이 영사관에서 조사위원회와 질의응 답했음. 응답을 위해 미리 준비한 내용을 첨부하니 참고하길 바랍	원문에는 정무총감이 정 무장관으로 오기되어 있 음. 응답지는 영문자료

11	척무차관(1931.3.31) → 정무총감	외무성에서 조사위원회의 여행 일정을 통지해왔으므로 이를 송부함	
12	척무성 조선부장(1931.4.6) → 정무총감	조사위원회의 사전질문지에 대한 조선(영문과 일문)과 타이완(일문), 관동(일문)의 회답서를 송부함	회답서 내용은 없고 알림 내용만 있음
13	외무차관(1931.3.25) → 척무차관(1931.4.7) → 정무총감	재사면 일본영사관에서 영사와 조사위원회가 나눈 문답서, 타이완과 사면 성매매 여성 사정에 관해 질의응답	
14	척무차관(1931.4.21) → 정무총감	조사위원회의 일정변동에 대한 외무대신이 통보해온 내용을 다시 척무성이 정무총감에게 통보함	
15	척무성 관리국장(1931.5.2) → 조선총독부 경무국장	타이완총독부 경무국장이 척무성에 송부해온 일제관리와 조사위원회의 타이완 인신매매에 대한 질의응답록	문서 13과 일부분 겹치는 내용임
16	① 재마닐라총영사(1931.3.31) → 외무대신 ② 척무차관(1931.5.7) → 정무총감	조사위원회의 필리핀 마닐라 조사상황 보고	
17	관동청 경무국장(1931.5.15) → 조선총독부 경무국장	조사위원회의 조사일정에 대한 조율 내용	동시에 척무차관, 외무성 정보부장, 내무성 정보국장에게 발신 일본 아시아역사자료센터 소장
18	관동청 경무국장(1931.5.18) → 조선총독부 경무국장	조사위원의 약력과 특성 보고	
19	관동청 경무국장(1931.5.22) → 조선총독부 경무국장	조사위원회의 평텐(奉天) 조사 상황 보고	
20	재하얼빈 척무사무관(1931.5.26) → 조선총독부 경무과장/경무국장	조사위원회의 하얼빈 조사 상황과 질의응답 내용 보고	동시에 척무성 관리국장, 내무성 경무과장에게 발신 일본 아시아역사자료센터 소장
21	관동청 경무국장(1931.5.29) → 조선총독부 경무국장	하얼빈 조사 후 다시 평텐으로 돌아온 조사위원회의 동정 보고	동시에 척무차관, 외무성 정보부장, 내무성 정보국장에게 발신 일본 아시아역사자료센터 소장

22	조선총독부 경무국장(1931.6.4) → 외무성 정보부장	조사위원회의 조선 조사 일정 계획 보고	일본 아시아역사자료센터 소장
23	조선총독부 경무국장(1931.6.26) → 외무성 정보부장	조사위원회의 조선에 대한 조사 내용과 조선총독부에서 진행한 질의응답 내용 보고	일본 아시아역사자료센터 소장
24	척무차관(1931.8.4) → 정무총감	일본 및 그 정치세력권 조사를 마치고 돌아간 조사위원회가 외무대신에게 보낸 감사 인사 공유	
25	척무차관(1931.8.26) → 정무총감	도쿄 내무대신 관저에서 진행한 조사위원회와 관계자의 질의응답 내용을 내무성에서 번역하여 공유함 6월 12일, 13일, 26일 3일간 실시	
26	외무성 촉탁(1931.8.27) → 외무대신	조사위원회가 만철부속지, 관동주, 조선에서 체재하던 시기의 일지 보고	일본 아시아역사자료센터 소장
27	척무차관(1931.9.29) → 정무총감 외사과장(1931.10.12) → 경무국장/내무국장	척무성이 송부해온 조선총독부 조사(6.5) 의사록 및 다렌민정서 조사(6.1) 의사록 번역문을 공유함	
28	조선총독부 외사과	외사과가 작성한 조사위원회 질문에 대한 회답서(조선 부분)와 여성매매 관련 법령(행정집행령, 경찰범처벌규칙, 예기 작부창기 관리규칙, 소개업단속 규칙 등) 및 통계들	
29		외사과가 소장하고 있는 조사위원회 질문에 대한 회답서(타이완 부분, 영문)와 관계 법령 및 통계들	문서 28의 별책문서
30		외사과가 소장하고 있는 조사위원회 질문에 대한 회답서(관동 부분, 영문)와 법령 및 통계들	문서 28의 별책문서
31	외무성	외무성이 작성한 조사위원회 질문에 대한 회답서(외무성 관계, 일문)	일본 아시아역사자료센터 소장
32	외무성 조약국 제3과(1930.11)	조사위원회 사전질문지 번역문	일본 아시아역사자료센터 소장

제Ⅱ장의 주제는 ‘동양여성아동매매 실지조사 보고서와 일본정부의 대응’이다. 조사위원회는 1932년 7월 제1차 보고서를 작성하여 해당국에 의견을 물

었다. 그 내용을 번역한 것이 Ⅱ-1. 동양여성아동매매 확장 실지조사: 일본에 관한 보고(1932.7.31)이다. 일본정부는 창기, 예기 등에 대한 일본의 성 관리 시스템이 인신매매 제도가 아니라고 해명하는 데 중점을 둔 의견서(Ⅱ-2. 동양여성아동매매 실지조사: 일본에 관한 보고에 대한 일본정부의 의견서)를 제출하였는데, 그 주장은 상당 부분 받아들여진다(Ⅱ-3. 동양 부녀매매 실지조사 보고 심사위원회 경과 보고 송부의 건).

조사위원회의 최종보고서는 1933년 1월에 제네바에서 국제연맹 의회에 제출되었다(Ⅱ-4. 동양 여성아동매매 조사위원회 보고서). 자료집에 실은 것은 오스트레일리아 국립도서관(National Library of Australia) 사이트에서 발견한 영문 보고서를 한글로 번역한 것이다. 일본 아시아역사자료센터에 일문 번역본이 소장되어 있었지만, 영어 원문을 최대한 직역에 가깝게 번역하는 것이 국제연맹의 조사성격을 더욱 잘 드러낼 것이라 판단했기 때문이다. 전체 557쪽에 달하는 방대한 분량이었는데, 이 자료집에 수록한 내용은 조사위원회의 조사에 관련된 개괄적인 내용과 일본 조사에 한정된 부분이다. 자료집의 발간 의도에 해당되지 않는 부분은 삭제한 셈이다.

그러나 국제연맹과 아시아 조사, 그리고 아시아에 식민지를 둔 구미 각국의 이해관계, 그 안에서 러시아나 중국, 일본의 위치와 경계를 넘나드는 여성매매

〈표 2〉 제Ⅲ장의 자료 목록과 그 내용 개요

	작성자	내용	비고
1	실지조사위원회 (1932.7.31)	조사위원회의 일본조사에 관한 중간 보고	
2	일본정부	조사위원회 중간보고에 대한 일본정부의 의견서	문서 1에 대한 의견서
3.	제파리 국제연맹 제국 사무국장(1933.1.5) → 외무대신	제네바 국제연맹 사무국에서 개최된 심사위원회(1932.12.5~12.10) 상황과 일본정부의 의견에 따라 보고서가 수정된 내용	
4	실지조사위원회 (1933.12.10)	조사위원회가 작성하여 국제연맹 의회에 보내는 최종 보고서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최종보고서 전체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대해서는 시간과 예산을 확보하여 또다른 자료집을 발간할 계획이다. 일본의 여성 아동매매에 관한 최종보고서 내용은 일본정부의 의견을 수렴하면서도 일본의 소개업 제도가 인신매매를 합법화하고 있다는 지적을 고수했다는 점에 가장 큰 특징이 있을 것이다. 동시에 일본 본토 외에 일본 식민지 상황에 대해서는 국제 연맹이 그다지 집요한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는 사실 또한 확인할 수 있다.

제Ⅲ장은 당대 신문, 잡지 등에 실린 관계 기사 모음이다. 조선 관련 신문잡지 기사는 필자가 직접 검색하여 수집하고 입력한 것이다. 일본과 영어권의 기사 내용은 당시 일본정부가 조사위원회의 동정과 조사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스 크랩해놓은 것들을 바탕으로 입력하였다. 이것은 일본 아시아역사자료센터의 관계 문서들 안에 삽입되어 있는 것들이다.

제Ⅲ장에 수록된 자료를 통해서는 1920~1930년대 조선 사회에 보도된 국제연맹의 여성아동매매 논의 과정과 협약 내용, 그리고 조사위원회 방문에 대한 언론의 보도와 인식을 살펴볼 수 있다. 일본정부의 공식 입장과 거리가 있는 일본 경찰의 인신매매 인식도 흥미롭다. 이를테면 일본 성 관리 정책하에서 창기를 둘러싼 인신매매에 대해 매우 비판적이었던 내무성 사무관 고스게 요시지(小管芳次)는 국제사회의 ‘일본 공창제 비판’을 방어하기 위해서 국제연맹 제네바 본부에 파견되기도 한다.¹⁸ 국제사회에 자신의 생각과 다른 주장을 설파하고자 했던 것이다. 언론 보도에서 발견할 수 있는 이러한 내용은, 공창제가 인신매매 제도가 아니라는 당대 일본정부의 주장이 실무자들과의 의견과 괴리된 채 강력한 국가주의적 입장으로 구성되었다는 사실을 엿보게 한다.

18 「제네바 무대에서 설명하는 우리 공창제도의 진상, 존슨 보고 정정을 위해 선발된 젊은 양(兩) 씨」, 『도쿄아사히신문』, 1933.2.28(자료집 671~672쪽).

IV. 역사적 이해에 기초한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이 자료집은 여성매매 및 국가 성 관리 정책을 둘러싸고 전개되었던 1930년 전후 국제사회의 논의와 도덕적 기준을 가늠하는 데 바탕이 된다. 또한 ‘제국의 체면’을 지키기 위해 이에 대응한 후발 제국주의 국가인 일본정부의 입장,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과는 거리를 두었던 실무자들의 인식과 실제 여성매매 실태, 그리고 국제적인 차원에서 논의가 되었던 식민지 문제를 탐구하는 기초서가 될 것이다. 이러한 논의들은 일본군‘위안부’제도가 식민지 여성 동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데도 배경이 된다.

1920년대 이후 일본의 ‘공창제’는 여성아동매매 억제에 관한 국제적인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일본 국내외에서 노예제도, 인신매매 제도라는 비난에 직면했다. 이에 대응하여 일본정부는 창기제도의 ‘자유폐업’ 조항, 예기 제도의 ‘예능인 양성 제도’로서의 측면, 일본의 정치세력권 영역 안으로 제한되는 조선인, 일본인 여성의 이동 상황을 강조하면서 ‘공창제’가 인신매매와는 관련이 없는 것처럼 설명하는 데 전력을 기울였다. 이를 위해 일제 권력자들의 사전 말맞춤, 실태와 다른 거짓말, 그리고 일본 상황을 영어로 번역하는 과정의 기만과 왜곡이 동원되었다. 이러한 모습이 배어 있는 자료들을 살펴보면, 현재 역사부정론자들이 ‘위안부는 공창이고, 여성이 자발적으로 선택한 것이어서 국가의 책임이 없다’고 강변하는 프레임의 역사가 매우 오래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국제연맹의 시선에 일본 ‘공창제’의 인신매매 성격이 포착되었다고 하여 당대 국제적 기준에 전적으로 의지하여 ‘공창제’나 ‘위안부제’ 문제를 볼 필요는 없다. 제국주의 국가 중심의 정부와 비정부 대표들이 모인 자문위원회는 기본적으로 제국주의, 인종주의, 엘리트주의, 순결주의 입장에 있었다. 자문위원회의 활동 과정에서 인신매매 피해자들은 이주할 권리, 노동할 권리를 보장받기보다 ‘순수한 피해자’나 범죄자로 치부되어 일방적인 구조와 추방, 그리고 처벌

대상이 되어야 했다.¹⁹ 또한 1921년 여성아동매매 억제를 위한 국제협약 과정에서 애초에 식민지 지역 등을 제외시킬 수 있는 권리를 두었던 것도 국제연맹 회원국들이었다. 따라서 이 자료집은 국제연맹과 아시아의 유일한 제국주의 국가였던 일본의 긴장 관계, 국제연맹 회원들이 자국의 식민지나 일본의 식민지를 다루는 태도의 차이점 등을 염두에 두면서 독해할 필요가 있다.

‘공창제’와 ‘위안부제’를 둘러싼 정쟁에서 벗어나서 일본군‘위안부’문제의 해결 방법을 찾기 위해서는 역시 역사에서 배울 수밖에 없다. 당대부터 이어지고 있는 폭력 구조, 그 구조를 유지시키는 정치 주체의 반복되는 레토릭, 피해자가 착취당하는 상황을 가리는 맥락의 거세와 명분의 민낯을 직시해야 한다. ‘위안부’ 관계 자료는 피해자가 생산한 것이나 그 입장에서 작성된 것이 거의 없어 자칫하면 드러난 표현 그 자체에 휘둘릴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내서널리즘과 가부장주의, 인종주의, 식민주의에 의해 오염된 언어를 해체하면서 피해자 중심 접근 방법론을 찾아내는 것부터가 큰 과제다. 식민지 조선과 일본군‘위안부’자료집 시리즈로 인해 여성을 상대화하면서 폭력의 시대를 정당화했던 시간들을 끌어내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된다면 더 이상 바랄 나위가 없겠다. 이 자료들은 ‘일본 제국의 지배망에 갇혀 살던 여성들이 과연 자신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었는가’를 질문하는 것들이다. 이에 대한 각자의 답변들이 일본군 ‘위안부’문제 해결을 위한 공론장에서 활발하게 토론되기를 바란다. 이 시리즈는 2023년에 제Ⅴ권 『일제 성관리 정책하의 식민지 경찰과 인신매매 문제』를, 2024년에는 제Ⅵ권 『일제의 성병 대책과 전장의 위안소』를 발간하고 일단 마무리될 예정이다.

19 Megan Ross, 2020, “Morality Police: Sexuality Governance at the League of Nations,” the degree of Doctor of Juridical Science Faculty of Law University of Toronto 참조.

참고문헌

단행본

- 동북아역사재단 편, 2020, 『식민지 조선과 일본군'위안부' 문제 자료집 I: 중일전쟁 이후 일제의 도향 통제(번역·해제 편)』, 동북아역사재단.
- 박정애, 2020, 『함께 쓰는 역사, 일본군'위안부'』, 동북아역사재단.
- 송연옥 외, 2012, 『군대와 성폭력: 한반도의 20세기』, 선인.
- 정진성, 2016, 『일본군 성노예제: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실상과 그 해결을 위한 운동』,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 캐롤라인 노마 지음, 유혜담 옮김, 2020, 『위안부는 여자다: 여성주의 관점으로 '위안부' 역사를 복원하다』, 열다북스.

- 船橋治 編, 2003, 『買売春問題資料集成』 19~21, 不二出版.
- 小野澤あかね, 2010, 『近代日本社會と公娼制度: 民衆史と國際關係史の視点から』, 吉川弘文館.
- 市川房枝 編, 1978, 『日本婦人問題資料集成 第一卷=人權』, ドメス出版.
- 鈴木裕子・山下英愛・外村大, 2006, 『日本軍「慰安婦」關係資料集成(下)』, 明石書店.
- 秦郁彦, 1999, 『慰安婦と戦場の性』, 新潮社.

논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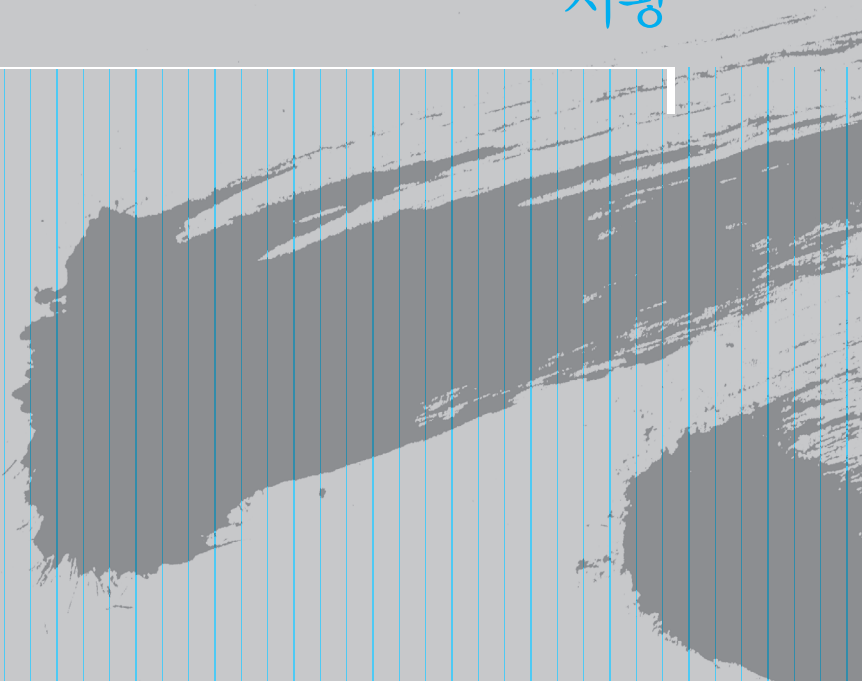
- 박정애, 2022, 「해제: 국제연맹 동양여성아동매매 실지조사단과 제국 일본의 인신매매」, 『식민지 조선과 일본군'위안부'문제 자료집Ⅳ: 국제연맹 동양여성아동매매 실지조사단과 일제의 인신매매 문제』, 동북아역사재단.
- 송경호, 2022, 「마리아 루스 호 사건을 통해 본 메이지 일본에서의 인권 개념 수용」, 『한국동양정치사상사연구』 21(1).
- 송연옥, 2017, 「일본에서의 위안부 문제 연구현황과 과제」, 『식민주의, 전쟁, 군'위안부』, 선인.
- 조시현, 2014a, 「인신매매에 관한 국제법의 발달과정」, 『법과사회』 46.

- _____, 2014b,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통해서 본 1904년 백인노예매매의 진압을 위한 협정」, 『법학논고』 47.
- _____, 2014c,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통해서 본 1910년 백인노예매매의 진압을 위한 국제협약」, 『법학연구』 42.
- _____, 2014d,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있어서 역사와 법」, 『법사학연구』 49.

- 鈴木裕子, 2006, 「東洋婦人児童売買実施調査団と国際連盟における婦人売買問題: 「婦女禁売」問題と日本政府の対応を中心に」, 『日本軍「慰安婦」関係資料集成(下)』, 明石書店.
- 早川紀代, 1997, 「公娼制とその週辺-東京都を中心に」, 『季刊 戦争責任研究』 17.
- 太田健一・桜武加奈子, 2005, 「アジアにおける女性・児童売買の歴史と実態: ジョenson委員会と日本政府の折衝」, 『山陽論叢』 12.

- Ramseyer, J. Mark, 2021, “Contracting for sex in the Pacific War,” *International Review of Law and Economics* 65.
- Ross, Megan, 2020, “Morality Police: Sexuality Governance at the League of Nations,” the degree of Doctor of Juridical Science Faculty of Law University of Toronto.

서평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고려시대 한중관계사 연구의 진전

— 『고려시대 외교문서 연구』(정동훈, 혜안, 2022)

권용철 | 단국대학교 북방문화연구소 연구원

- I. 머리말
- II. 본서의 구성과 내용
- III. 본서의 학술적 의의와 앞으로의 과제
- IV. 맺음말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I. 머리말

고려가 존재했던 10~14세기에 중국에서는 오대십국, 북송, 거란(요), 금, 남송, 원, 명 등 여러 왕조가 교체를 거듭했기 때문에 고려시대 한중관계사 연구는 고려가 중국의 어느 국가와 외교관계를 맺고 교류를 지속하는가에 따라 그 성격과 핵심 주제가 달라지는 경향을 보인다.¹ 따라서 고려시대 전체를 연구의 범주로 삼고, 하나의 소재와 주제로 연구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게다가 파트너가 주기적으로 변하는 고려시대 한중관계 및 외교사 연구는 중국에 들어섰던 각 왕조의 상이한 성격까지 함께 고찰해야 한다는 부담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또한 요, 금, 원 등 북방민족이 건립한 왕조가 지니고 있는 ‘유목 국가’로서의 독특함을 한중관계와 접목하여 설명해야 한다는 점은 또 다른 난제라고 할 수 있다.

이 서평에서 다루는 『고려시대 외교문서 연구』(이하 ‘본서’로 서술)는 고려시대 한중관계사 연구에 기본적으로 전제되어 있는 난제들을 최대한 극복하고자 한 역작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특히 고려와 오대, 북송, 거란(요), 금, 남송, 원, 명과의 외교문서와 외교관계의 특징을 시기별로 담아냈다는 점은 본서가 가진 높은 학술적 가치와 연결된다. 본서는 서울교육대학교 정동훈 교수(이하 ‘저자’로 서술)가 2016년에 서울대학교 대학원에 제출한 같은 제목의 박사학위논문을 보완하고 수정하여 출판한 것이다. 저자는 2009년에 제출한 석사학위논문에서부터 이미 고려와 명 사이의 외교문서 서식을 분석하고 문서의 왕래 방식을 살펴피면서 고려-명 관계사의 흐름을 밝힌 바 있다.² 저자의 석사학위논문은 특히

1 고려시대 한중관계사를 포함한 대외관계의 연구 흐름과 경향에 대해서는 동북아역사재단 한국외교사편찬위원회 편, 2018, 『한국의 대외관계와 외교사-고려 편』, 동북아역사재단을 참고.

2 정동훈, 2009, 『高麗-明 外交文書 書式과 왕래방식의 성립과 배경』, 서울대학교

『이문』이라고 하는 외교문서 모음집의 가치에 주목하고, 문서 구조를 파악하기 어려운 외교문서를 발신자, 수신자가 명확히 드러나도록 분석하는 방식을 제시하여 학계에 큰 도움을 준 성과이다. 그리고 『이문』의 한글 역주본이 출판되면서 본격적으로 외교문서 해석과 분석이라는 연구 분야가 더욱 주목을 받게 되었다.³

저자는 외교문서와 관련된 연구를 포함하여 고려 및 조선시대의 한중관계에 대한 다양한 주제의 논문을 다수 발표했다. 대략 40여 편에 달하는 저자의 연구 성과들은 ‘외교’에 수반되는 문서, 절차, 의례, 위계 등을 세밀하게 분석한 것이고 이는 저자가 여러 건의 외교문서를 분석하면서 얻어낸 문제의식과 관련되어 있다고 생각된다. 그러므로 본서는 고려시대 한중관계사 연구의 진전을 위한 건실한 토대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고, 이는 관련 연구자들의 후속 연구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여겨진다.

본서의 의미를 살펴보기 위해 Ⅱ장에서는 본서의 구성과 내용을 개략적으로 확인하고, Ⅲ장에서는 본서가 지닌 학술적 의미와 앞으로의 연구 방향에 대한 평자의 제언을 서술하고자 한다. 이 서평을 통해 본서가 고려시대사 더 나아가 한국사 및 동아시아 외교사 연구 분야에서 주목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⁴

대학원 국사학과 석사학위논문. 이 논문에 수정과 보완이 더해져 정동훈, 2010, 「高麗-明 外交文書 書式の 성립과 배경」, 『한국사론』 56으로 발표되었다.

- 3 구범진 역주, 2012, 『이문 역주』, 세창출판사. 역주자인 구범진 교수는 ‘감사의 글’에서 정동훈 선생이 공동 역자로서 이름을 나란히 해야 마땅하지만, 행정상의 문제로 그렇게 하지 못해 안타깝다는 소회를 피력한 바 있다.
- 4 일본학계에서는 일찍이 외교문서 등의 사료를 소재로 동아시아의 10~14세기 국제적 환경을 분석한 논문집이 출간되었는데(平田茂樹·遠藤隆俊 編, 2013, 『外交史料から十~十四世紀を探る』, 東京: 汲古書院), 이를 보면 외교문서가 지닌 사료로서의 가치와 이를 활용한 연구 방법이 다양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II. 본서의 구성과 내용

본서의 구성과 내용을 개략적으로 살피기 위해서 먼저 목차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목차의 장절은 아래와 같다.

서론

1절 연구 과제와 목적

2절 연구 방법 및 자료 소개

1장 고려-오대·북송·남송 외교문서: 군주 중심의 문서 교환

1절 고려-오대십국의 상호 승인을 둘러싼 외교문서 양식의 설정

2절 고려와 북송의 책봉 중심의 의례적 관계와 詔書-表文 양식의 확정

3절 고려-송 국교 재개와 詔書 양식의 조정

4절 고려-남송의 연합 모색과 단절

2장 고려-거란·금 외교문서: 다층위의 소통 구조

1절 고려-거란 관계 성립과 二元的 외교 의례

2절 고려-거란 관계에서의 의사소통 구조

3절 고려-금 외교관계의 설정과 誓表·책봉 문제

4절 고려-금 관계의 안정화와 사안에 따른 교섭 경로 설정

3장 고려-몽골 외교문서: 외교 주체의 확대와 다양한 서식 활용

1절 고려-몽골 초기 접촉기 講和를 둘러싼 이견과 조정

2절 고려-몽골 전쟁기 여러 주체 사이의 문서 교환

3절 원종 대 양국 관계 성립과 의사소통 경로의 단일화

4절 충렬왕 대 고려국왕 위상 정립과 관문서식의 사용

5절 충선왕~충정왕 대 군주권의 약화와 서한식 문서 활용의 확대

6절 공민왕 대 국제질서의 재편과 문서식의 계승·변용

4장 고려-명 외교문서: 관료제적 운영 원리의 확대 적용

1절 공민왕 대 명과의 관계 설정과 관문서식 문서의 확대

2절 우왕 대 이후 갈등과 교섭 경로의 경색

결론

부록 1 『東人之文四六』 및 『東文選』 소개 고려시대 외교문서 목록

부록 2 『東文選』 소개 고려시대 외교문서 목록

모든 연구서에서 서론은 본론을 어떻게 전개해나가고, 본론의 주된 요지와 필자의 관점은 어떠한 것인지를 설명하는 도입부이자 책의 구조를 언급하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본서의 서론 역시 그러한 성격을 지니고 있고, 본서가 다루는 시대적 범주가 넓고 언급할 국가가 다양하기 때문에 이를 체계적으로 구분해서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본서가 다룰 중심 사료는 외교문서이고, 전 근대 동아시아의 외교는 외교문서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드러난다는 점을 강조한다. 그리고 외교문서 내용의 해석은 물론이고, 외교문서의 서식이나 발신과 수신 주체, 호칭 등 외교문서의 형식을 통해서도 당시의 국제질서를 파악할 수 있다는 점을 부각하고 있다. 본서에서는 외교문서의 내용과 형식 양자를 모두 분석하여 고려시대 한중관계를 더욱 치밀하게 파악하겠다는 저자의 뜻이 담긴 것이다.

그리고 본서의 서론에서 중요한 내용은 외교문서의 다양한 서식에 대한 설명이다. 이는 본론에서 언급될 여러 서식의 문서들을 이해하기 위한 일종의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보면, 문서의 발신자와 수신자에 따라 문서의 명칭과 형식 자체가 달라지고 이는 양국의 소통 방식과 외교적 위상과도 긴밀하게 연결된다는 점을 파악할 수 있다. 조서-표문, 서한식 문서, 관문서식

문서의 의미와 그 문서들의 활용 배경을 통해서 고려와 중국 여러 왕조 사이의 관계가 드러나고 그 관계의 실태와 구현하고자 한 국제질서의 이념까지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 저자의 설명이다.

본서의 목차는 저자의 박사학위논문과 비교하면 약간 달라져 있다는 점이 눈에 띈다. 저자의 박사학위논문에서는 1장을 ‘고려-오대·북송·거란 외교문서: 군주 중심의 문서 교환’으로 설정했고, 2장을 ‘고려-남송·금 외교문서: 다층위의 소통 구조’로 배치했다. 그러나 본서는 앞에 제시한 목차에서도 보이듯 고려와 오대, 북송, 남송 외교문서를 군주 중심의 문서 교환으로 정의했고, 고려와 거란 및 금의 외교문서를 다층위의 소통 구조로 설명했다. 이는 저자가 박사학위 논문 발표 이후에도 고려와 중국 여러 국가들 간에 주고받은 외교문서의 성격과 그 외교관계를 어떻게 규정해야 하는가를 끊임없이 고민했다는 흔적이라고 생각한다. 즉, 박사학위논문에서는 오대·북송·거란을 1장에 배치하고 남송·금을 2장에 배치하여 시대 순으로 설명하고자 했던 것 같지만 외교문서의 성격과 그 의미는 시대 순으로 목차를 설정했을 때 들어맞지 않는 측면이 있었던 것이다.

이제 본론의 내용을 개략적으로 소개해볼 차례이다. 본서가 광범한 시기, 내용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자세한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지만 이는 차후의 여러 연구들을 통해서 조금씩 진행될 것이라 생각하고 본 서평에서는 각 장과 절의 주요 서술 내용만 언급하도록 하겠다.

우선 1장 1절에서는 고려와 오대십국 사이에 왕래되었던 외교문서를 다루고 있다. 고려와 오대 왕조의 본격적인 교섭은 후당(後唐) 시대부터 시작되는데, 후삼국 시대의 분열 속에서 고려는 중국 왕조의 인정을 받으면서 정당성을 확보하려 하였고 후당 역시 혼란한 정세에서 동아시아의 중심 국가로 자부하기 위해 주변 국가와의 외교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갈 필요가 있었다. 이에 고려는 표문(表文)을 후당에 보냈고, 후당은 이에 대한 답으로 조서(詔書)를 보냈다. 후당의 조서는 당 제국의 형식을 따르고 있었고, 이후 후당이 고려국왕을 책봉⁵하면

5 저자는 책봉을 위해서는 冊이라는 또 다른 형태의 문서가 전달되었음도 서술했고,

서 양국은 조공-책봉 관계, 의례적 군신관계를 맺게 되었다. 반면, 고려는 10국 중의 하나였던 남당(南唐)에는 표문이 아닌 전문(箋文)을 보내 후당만 황제로 인정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고려-오대십국의 관계를 상세하게 보여주는 자료가 많지는 않지만, 몇 건의 외교문서 내용과 형식만으로도 이 시기 다층적인 국제 질서 속에서 고려가 어떤 외교적 자세를 취했는지를 선명하게 파악할 수 있다.

1장의 2절과 3절에서는 고려와 북송 사이에 왕래했던 외교문서를 중심으로 양국의 관계 추이를 논하고 있다. 2절에서는 고려가 북송으로부터 책봉을 받은 시기부터 고려가 거란의 책봉을 완전히 받아들이면서 북송과의 관계가 끊어질 때까지를 범주로 삼아 고려와 북송 사이의 외교문서를 분석한다. 이때에도 고려에서는 표문을 보냈고, 북송은 조서를 보내면서 군신관계가 설정되었다. 그러다가 고려가 거란으로부터 책봉을 받았을 때에도 고려와 북송은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기 이전에는 여전히 표문과 조서를 교환했다. 북송이 고려국왕을 책봉하지 않았음에도 여전히 표문과 조서를 교환하면서 의례적인 군신관계를 설정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고려와 북송은 주로 군주 사이에서 교환되는 표문, 조서가 주로 외교문서로서 활용되었고 이 외에는 활발한 대외교류를 보여주는 다른 형태의 외교문서가 많이 보이지 않는 특징을 저자가 지적하고 있다. 또한 저자는 책봉이 없어도 표문과 조서가 교환되는 특징이 보인다는 점도 중요함을 확인하고 있다. 3절에서는 고려와 북송의 국교가 재개되는 과정과 재개 이후 양국 외교문서의 특징을 논한다. 국교 재개를 위해 첩(牒) 양식의 문서를 통한 물밑 협상이 진행된 이후, 양국은 표문과 조서를 보내 국교를 재개했지만 고려는 공식적으로 거란의 책봉을 받는 국가였으므로 이를 감안하여 문서에서 쓰이는 용어와 호칭 및 문서 양식에는 미묘한 변화가 보인다는 점을 저자는 강조한다. 그리고 거란의 쇠퇴와 여진의 성장으로 인한 국제정세의 변동 속에서 북송은 고

冊의 종류와 형식에 따라 상대국의 위상을 어떻게 설정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고 했다.

려를 더욱 중요한 상대로 여기게 되었고, 이에 문서의 양식과 표현에도 그에 맞는 변화가 생겼다. 이는 외교문서만 상세하게 살펴보아도 고려와 북송 사이 외교관계 전개의 특징을 파악할 수 있다는 점을 알려준다.

1장의 4절에서는 고려와 남송 사이의 외교관계를 다루고 있다. 남송은 금에 의해 압박을 받으면서 고려와 연합을 모색하며 초기에는 조서와 표문을 주고받았으나 고려 측이 미온적으로 대응하면서 공식 관계가 단절되기에 이르렀다. 이로 인해 고려와 남송 사이에 왕래된 외교문서는 양이 많지 않고, 관계 단절 이후에는 남송의 상인이나 하급 관료들을 통해서 소통이 이루어지거나 명주(明州)와 고려 예빈성 사이에서 첩(牒)을 주고받으며 간헐적으로 연락했다는 정도만 확인된다. 12세기에 금이 동아시아의 패권을 장악한 상황에서 고려와 남송의 국가 간 외교적 왕래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었음이 잘 드러난다.

2장의 1절과 2절에서는 고려와 거란 사이에 왕래된 외교문서를 중심으로 고려-거란 관계의 추이와 그 특징을 상세하게 분석하고 있다. 고려와 거란은 초기에는 관계가 맺어지지 않았으나 993년에 거란이 고려를 침입하면서 양국 사이의 관계가 설정되었다. 결국 오대, 북송과 맺었던 방식의 군주-신하 관계가 형성되어 고려에서는 표문을 보냈고 거란에서는 조서를 보냈다. 그러나 양국의 관계가 맺어지는 과정에서 거란의 동경유수 소손녕과 고려 군주 사이에 문서 왕래가 이루어진 절차는 기존과는 다른 특징을 보여준다고 저자는 지적한다. 또한 책봉을 위한 문서는 중국식이고, 책봉 의례는 거란식으로 이루어지는 특성도 언급했다. 그리고 거란의 2차, 3차 침입 이후 고려와 거란은 비교적 안정적으로 고려국왕이 거란의 책봉을 받게 되는데, 이러한 관계가 성립되기까지 거란의 동경이 중간 매개자로서의 역할을 했다. 이는 양국 관계에서 다층위의 소통 구조가 생기는 발판이 되는 것이라고 저자는 서술하고 있다. 고려 현종이 거란의 책봉을 받은 이후부터 양국은 정기적으로 사신을 파견하였고, 이때는 군주 사이의 표문과 조서가 왕래했다. 그러나 고려와 거란은 군주 사이의 의례적 문서 교환 이외에도 고려 조정과 거란 동경 사이의 실무 교섭을 위한 외교문서로서 서한식 문서와 첩(牒)을 상황에 따라 활용했다. 또한 양국의 국경 지대에 있는 고려 영

덕진과 거란 내원성 사이에서도 첩(牒)이 왕래하면서 양국의 현안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소통 루트도 존재했다. 이에 저자는 고려와 거란 사이에 세 층위의 소통 구조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2장의 3절과 4절에서는 고려-금 사이에 왕래된 외교문서를 중심으로 고려-금 관계의 전개와 그 성격을 도출하고 있다. 금이 고려에 처음으로 형제 관계를 요구할 때에는 서한식 문서를 보냈으나 이후 군신 관계를 요구하면서 금은 조서를 보냈다. 고려는 금에 대한 사대(事大)를 쉽사리 결정하지 못하다가 결국 금이 거란을 멸망시킨 이듬해인 1126년에 표문을 보내면서 금과의 군신 관계를 명확하게 설정했다. 이후 금의 고려에 대한 서표(誓表) 제출 요구와 고려국왕 책봉 지연 등 우여곡절을 거쳐 1142년에 금은 정식으로 고려국왕을 책봉했다. 고려국왕을 책봉하는 문서는 북송, 거란처럼 책(冊)을 사용하면서 관행을 유지했다. 고려-금 사이의 관계가 안정화되면서 고려-거란 관계에서 이루어졌던 정기적 혹은 비정기적 사신 왕래가 꾸준히 진행되었고, 군주 사이에서는 표문과 조서가 왕래했으나 고려와 금 동경 사이 및 고려 영덕성과 금 내원성 사이의 실무 교섭에서는 첩(牒) 등을 통해 현안이 처리되었다. 이는 고려-거란 사이에 존재했던 세 층위의 소통 구조와 매우 유사하다는 점을 저자는 지적하고 있다. 특히 『동인지문사록』에 실린 외교문서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고려-금 관계의 생생한 모습을 전달하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3장의 1절과 2절에서는 강동성 전투에서 고려와 몽골이 처음으로 접촉한 것을 시작으로 1259년에 쿠빌라이와 고려 태자(이후 원종) 사이에 강화가 맺어질 때까지의 고려-몽골 관계를 외교문서를 중심으로 서술한다. 몽골은 처음부터 위압적인 어조의 문서를 보냈는데, 이는 조서가 아니었고 이에 대한 답으로 고려도 서한식 문서를 보낸다. 이후 몽골과 고려 장군들 사이에 형제맹약이 맺어졌고, 그 후 몽골의 조서와 고려의 표문이 왕래되면서 일단 양국의 군신 관계가 설정되었다. 그러나 몽골의 과도한 공물 요구와 여러 주체가 고려에 사신을 파견하면서 갈등이 생기다가 몽골 사신 저고여의 피살로 양국 관계는 단절되었고, 1231년부터 전쟁이 시작되었다. 몽골 장군 살리타가 보낸 첩문에 고려는 표문

의 형식으로 답하는 전례 없는 상황이 전개되었고, 이후에는 원론적인 문제는 조서와 표문으로 다루어지고 전쟁 전개 등 급박한 문제는 고려 조정과 몽골 군사령부와의 서한식 문서 교환을 통해서 의사소통이 이루어졌다. 몽골 조정에서는 카안 이외에도 파견군의 지휘관이나 유력자 등이 독자적으로 고려와의 교섭에 나서고 있어 고려-몽골 관계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에 대한 단서를 미리 보여주는 것이라고 저자는 지적하고 있다. 3장의 부제가 보여주듯이 외교주체가 다양해지면서 당연히 외교문서의 서식도 이에 따라 각각 달라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3장의 3절과 4절에서는 고려와 몽골 사이의 전쟁이 끝나고 원종이 고려국왕이 된 이후부터 충렬왕 시기까지의 양국 관계를 문서 중심으로 서술한다. 또한 고려국왕의 권위가 변화하는 상황에 따라 양국에서 왕래하는 외교문서에도 변화가 보이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고려 원종이 즉위한 이후부터는 전쟁 시기에 다양화되었던 교섭 경로가 쿠빌라이-고려국왕으로 일원화되었고, 이에 따라 조서와 표문이 왕래되었다. 양국의 현안 처리를 위한 정기적 사신, 비정기적 사신의 왕래 역시 매우 활발해졌고 특히 원종 폐위 사건이 일어났던 1269년부터는 외교문서상에서 변화가 보이기 시작했다. 원종은 쿠빌라이의 도움으로 복위하였고, 강화도에서부터 나와 개경으로 돌아오면서 쿠빌라이와 원종의 관계는 훨씬 뚜렷한 상하관계로 변화하였으며 이에 조서-표문의 왕래를 통한 현안 해결이 어려워졌고 이에 몽골의 중서성과 고려국왕이 문서를 교환하는 모습이 보이게 되었다. 이때 중서성이 활용했던 외교문서의 양식은 기본적으로 첩(牒)이었다. 충렬왕 시기에는 일본 원정 준비 때문에 몽골의 여러 군대가 고려에 주둔했고, 이 주둔군이 몽골의 관료 기구와 직접 문서를 주고받으면서 고려의 사안을 보고하는 모습들이 보인다. 그러나 충렬왕은 이렇게 복잡해진 문서 왕래 루트를 정비해줄 것을 요구하였고, 결국 몽골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다시 황제와 국왕 사이의 조서-표문, 그리고 고려국왕과 중서성 사이의 실무 외교문서로 교섭 루트가 정리되었다. 그런데 1280년대 이후로 중서성에서 고려에 보내는 문서의 양식에 기존의 첩(牒) 이외에 자(咨)가 추

가되고 있는 큰 변화가 확인된다. 자(咨)는 2품 이상 고급 관부 사이의 평행문서로, 몽골제국 국내에서 사용되는 관문서의 일종이다. 관문서를 고려에 보냈다는 것은 충렬왕이 정동행성의 승상 지위를 획득한 것과 긴밀히 연결된다. 따라서 수신자가 고려국왕일 때는 중서성에서 첩(牒)을 보내고, 수신자를 정동행성 승상으로 할 경우에는 자(咨)를 보냈던 것이다. 이는 책봉문서 형식에도 반영되어 몽골은 고려국왕을 책봉할 때 책(冊)을 쓰지 않고 선명(宣命)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저자는 고려-몽골 관계에서 고려국왕의 지위에 관료제적 지위와 작제적 지위가 공존하였음을 적확하게 지적하고 있다. 또한 고려에서 몽골 조정으로 의사소통을 하는 경로가 고려국왕으로 일원화되었다는 특징도 확인하고 있다.

3장의 5절과 6절에서는 충선왕부터 공민왕 시기까지의 고려-몽골 관계의 특징과 외교문서를 연동시켜 설명하고 있다. 충선왕 시기부터 고려 정치에 대한 몽골의 개입이 강화되면서 고려국왕의 권위가 약화되었고, 이는 양국의 외교에도 변화를 가져올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충선왕, 충숙왕, 충혜왕 등이 원과의 정치적 관계 때문에 자의적 혹은 타의에 의해 고려에 부재하는 상황이 자주 발생했고 왕이 없는 상황에서는 도평의사사 명의로 표문을 보내야만 했다. 그리고 표문이라는 공식적 문서 이외에도 관료들이 중서성 혹은 중서성의 승상에게 서한식 문서를 직접 발송하는 사례도 생겼다. 그리고 정동행성이 양국 조정 사이의 외교문서 교환 등 의사소통에 이전보다 더욱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모습이 보인다. 이는 모두 고려국왕권이 약화되었던 모습에서 비롯된 것으로, 고려 국내의 상황과 양국 외교관계의 미묘한 변화가 외교문서를 통해서도 드러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수 있다. 한편, 공민왕이 즉위한 1350년대부터 고려와 원 양국의 정치적 상황에 변동이 일어나면서 그 외교 관계에도 변화가 발생하게 된다. 공민왕 초기에는 기황후와 황태자의 생일 때까지 정기적 사신을 파견한 것 이외에는 외교 방면에서 큰 변화가 없었으나, 1356년의 이른바 ‘반원개혁’ 이후에는 정동행성이 고려의 의사를 대변하는 교섭 창구가 되도록 만들었다. 1356년 이후에도 원과의 관계는 끊어지지 않았고, 공민왕이 다시 외교를 장악하고 국내에

서의 왕권을 회복하고자 했던 것이다. 그리고 홍건적의 난 이후 원 제국 내부에서 세력을 확대한 군웅들과는 서한식 문서를 통해 의사소통을 하였고, 원이 북쪽으로 물러난 이후 요동에 웅거하고 있었던 잔여 세력과도 마찬가지로 서한식 문서로 소통하였다. 서한식 문서의 통용은 국가 대 국가의 외교가 아닌 사적인 접촉이 이루어졌음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4장의 1절에서는 공민왕 시기 명 제국과의 관계가 어떻게 설정되었고, 이에 따라 어떤 외교문서가 사용되었는지를 분석한다. 명 제국 성립 초기에 주원장은 고려에 서한식 문서를 보내 고려와의 외교관계를 시작하고자 했다. 즉, 조서를 보내지 않고 고려를 대등한 국가로서 대우했던 것이었다. 그런데 공민왕은 곧바로 명에 표문을 보내고 신하를 자칭하면서 명과 고려의 관계는 점점 군신관계로 굳어지게 되었다. 홍무제 주원장 역시 고려에 조서를 보내면서 군신관계가 완전히 성립되었는데, 공민왕을 고려국왕으로 책봉할 때에 쓰인 문서가 책(冊)이 아니라 고명(誥命)이었다는 점은 명이 외국의 군주에게도 자신들의 관료제적 지위를 부여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이는 고려-원 관계에서 보이는 특징에서 큰 영향을 받은 것이었다. 또한 조서-표문의 왕래 이외에도 고려-원 사이의 외교문서에서도 보였던 관문서식이 별다른 저항 없이 계속 활용되었고, 홍무제의 개인적인 성향에서 비롯된 선유성지(宣諭聖旨)가 기록에 나타난다는 점도 저자는 고려-명 사이에 왕래한 외교문서의 특징으로 지적하고 있다.

4장의 2절에서는 고려 우왕부터 이성계의 조선국왕 칭호를 명이 인정하기까지를 시기적 범주로 삼아 고려-조선과 명의 외교관계를 문서를 통해 조명하고 있다. 공민왕이 시해된 이후, 홍무제 주원장은 우왕을 책봉해주지 않았고 이로 인해 안정적인 조서-표문의 왕래는 이루어질 수 없었다. 그나마 관문서식 외교문서가 오고 가면서 양국의 입장을 전달했는데, 1385년에 우왕이 겨우 명으로부터 책봉을 받은 이후부터는 조서-표문의 왕래가 시작되었다. 또한 고려국왕의 명의로 관문서식 외교문서가 발송되면서 고려국왕의 명의 관부와 직접 소통에 나서기도 했다. 그러나 1388년에 우왕이 폐위된 이후 창왕, 공양왕 모두 명으로부터 책봉을 받지 못했고 이러한 긴장은 조선이 건국된 초기에도 그대로

이어졌다. 명의 강압적인 정책 및 고려-원 관계의 계승으로 인해 고려국왕이 주체가 되는 서한식 외교문서는 사용이 금지되었고, 명의 관부와 오직 관문서식 외교문서만 교환하게 되었는데 이는 명 중심의 일원적인 국제질서가 자리를 잡게 됨을 의미한다.

Ⅲ. 본서의 학술적 의의와 앞으로의 과제

방대한 분량의 본서가 지니고 있는 학술적 의의는 너무 분명하기 때문에 상세히 재론하지 않아도 될 정도이지만, 그래도 몇 가지 점을 언급하면서 본서의 가치를 정리해보고자 한다. 또한 본서가 정리한 수많은 자료와 문서 그리고 고려시대의 한중관계를 바라보는 관점들을 차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를 생각해보면서 미래의 연구 과제를 어렵게나마 설정해보려 한다.

본서의 학술적 의의로서 가장 먼저 언급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방대함’이다. 그런데 여기에서의 방대함이란 단순히 책의 분량이 많다는 점만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즉, 고려시대 전체를 시기적 범주로 삼아 중국의 여러 왕조와의 외교문서를 검토하면서 외교관계의 다양한 특징을 도출했고 그 변화의 추이를 거시적으로 검토한 것에 충분한 가치를 부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고려시대 한중관계를 주제로 삼은 기존의 연구들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지만, 단행본으로 출간된 연구서들을 대략 살펴보면 고려-거란, 고려-원 관계를 심도 있게 다루고 있다.⁶ 그러나 본서는 외교문서라는 테마를 중심으로 고려시대 전체의 한중관계를 논하고 있어 고려-오대, 고려-북송, 고려-거란, 고려-금, 고려-남송,

6 고려와 거란의 관계를 분석한 대표적인 연구서로는 金在滿, 1999, 『契丹·高麗關係史研究』, 국학자료원; 이미지, 2018, 『태평한 변방: 고려의 對거란 외교와 그 소산』, 경인문화사 등이 있다. 고려와 원의 관계를 분석한 대표적인 연구서로는 이계석, 2013, 『고려-대원 관계 연구』, 지식산업사; 이명미, 2016, 『13~14세기 고려·몽골 관계 연구』, 해안; 고명수, 2019, 『몽골-고려 관계 연구』, 해안 등이 있다.

고려-원, 고려-명 관계의 핵심적인 특징들을 분석하고 있다. 물론, 본서는 고려시대 전체를 범주로 삼고 외교문서를 집중적으로 분석했기 때문에 기존 연구서들처럼 세세한 사건들이나 인물들까지 다룰 여유를 가지지 못했지만 그것은 본서의 학술적 가치를 낮추는 요인이 결코 되지 못한다.

동아시아에서 당이 멸망한 이후 원이 남송을 멸망시켜 중국 전체를 통일할 때까지 유지되었던 ‘다원적 국제질서’ 속에서 고려는 이를 잘 활용하여 이른바 ‘실리 외교’를 펼쳤고, 원-명으로 이어지는 ‘일원적 국제질서’ 속에서는 국체(國體)를 보존하는 외교를 시행했다는 점이 고려의 외교를 전반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라고 간략하게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본서는 이러한 고려의 외교 방침의 변화와 국제질서의 변동을 연동하여 서술하면서 고려를 중심으로 10~14세기 한중관계의 특성을 부각하고 있다. ‘실리 외교’ 등 고려의 외교에서 보이는 유연성을 의도적으로 강조하기보다는 외교문서상에서 확인할 수 있는 모습을 살펴 보면서 다원적 국제질서 시대의 외교문서 특징과 일원적인 국제질서 시대의 외교문서 특징의 차이점을 부각했고, 이는 고려를 중심 주제로 설정하면서도 10~14세기 동아시아 국제관계의 특성이 변화하는 모습을 충분히 밝혀낼 수 있음을 보여준 것이다.

본서의 학술적인 의의를 찾자면, 여러 가지를 논의할 수 있는데 그중에서 또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것은 바로 외교문서를 사료로서 정확히, 체계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소개하고, 이를 실제로 적용하여 방대한 연구를 수행했다는 점이다. 조서, 표문과 같은 의례적인 외교문서는 해석이 굉장히 어렵고, 해석을 한다고 하더라도 사안의 실질적인 처리 내용보다는 상대방에 대한 외교적 수사가 많다. 그러나 양국 군주들이 주고받는 조서와 표문이 나오기까지 그 밑에서 이루어지는 실무적인 처리를 위해 왕복했던 외교문서의 중요성을 재조명하고, 조서와 표문을 비롯하여 관부들끼리 주고받는 첩문(혹은 관문서식 외교문서)이나 서한식 문서 등까지 아울러 분석할 필요성을 보여주었다는 점이 본서의 가치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그러한 외교문서의 상세한 내용을 제외해도 문서의 형식과 종류만 가지고도 양국의 외교관계가 지닌 특성을 추출하고, 의사소통의 구조

를 확인할 수 있음을 증명했다는 것 역시 본서가 밝혀낸 귀중한 사실이다.

그런 의미에서 외교문서를 더욱 정확하게 판독하여 사료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당시 외교문서에 대한 구조적 이해가 필요하다. 그 이유는 특히 관문서식 외교문서 등의 경우에는 여러 관부에서 받거나 보낸 문서의 내용을 가져다 붙여 놓는 바람에 문서의 구조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수신자, 송신자를 파악할 수 없고 어디까지가 어느 관부에서 보내거나 받은 내용인지조차도 분간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외교문서 독법을 위한 공구서가 이미 출간된 바 있고,⁷ 본서에서 예시를 들면서 설명한 외교문서 구조까지 함께 고찰하면 대외관계사 연구에서 상세한 분석이 반드시 필요한 외교문서를 더욱 정확하면서도 면밀하게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본서는 차후 계속 이루어질 외교문서 연구의 본보기로서 그 학술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생각한다.

본서의 학술적 의미를 토대로 앞으로 이루어져야 할 연구 과제는 무엇일까? 우선 연구 영역의 확장이다. 본서는 고려를 중심으로 고려시대 한중관계를 논하면서 외교문서를 활용한 것인데, 이러한 방법론은 동아시아의 다른 국가들 사이의 외교관계 연구에도 비슷하게 적용할 수 있는 것이다. 10~12세기까지를 시기적 범주로 보면 거란-북송, 거란-서하, 북송-고지(현재 베트남 북부), 북송-서하, 금-남송, 금-서하, 남송-안남 등의 관계에서 왕래한 외교문서 역시 이 시기 동아시아의 국제관계를 분석하는 데 중요한 사료적 가치를 지니고 있고, 여러 사료의 곳곳에 산재되어 있는 외교문서를 정리하여 검토하는 것도 충분히 연구 주제로서의 가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를 통해 도출된 특징을 본서에서 분석한 고려의 대외관계 특성과 비교해보는 것도 흥미로운 연구 주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다원적 국제질서에서 일원적 국제질서로 변하게 되는 13~14세기에는 원, 명이 여러 국가를 상대로 왕래한 외교문서를 분석하여 그 특징을 살펴보면 10~12세기의 그것과는 분명한 차이가 발견될 것이고, 이는 본서에서 검토한 고려-원, 고려-명 관계에서 보이는 현상과도 긴밀하게

7 구범진, 2013, 『조선시대 외교문서』, 한국고전번역원.

연결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이러한 작업은 동아시아의 외교문서 분석이라는 틀에서 한국사 연구자와 동양사 연구자의 협업이 필요한 중요한 과제이다.

한 가지 더 주목해야 할 부분은 본서의 부록이다. 본서의 부록에서는 『동인지문사록』과 『동문선』에 기록되어 있는 고려시대 외교문서 목록을 정리하여 표로 제시했다. 이는 앞으로 연구자들이 외교문서 검색에서 편히 참고할 수 있는 자료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차후의 과제는 단순히 목록 검색에 그치지 않고 『동인지문사록』과 『동문선』 및 각종 문집에 있는 실제 외교문서를 외교문서의 독특한 구조에 맞추어 해석하고, 외교가 진행되는 절차를 파악하는 것이다. 그 점에서는 본서에서 1140년의 외교문서를 분석한 사례를 유심히 참고할 필요가 있다(본서의 306~314쪽).⁸ 『동인지문사록』, 『동문선』에는 여전히 연구자들의 관심과 분석을 기다리는 외교문서들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주목이 필요하고, 범위를 넓히자면 송, 거란, 금대의 자료들에 수록된 각종 외교문서에 대한 사례 연구도 차근차근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본서에서 보이는 애매한 점을 굳이 꼽으라고 한다면, 바로 고려와 남송의 외교관계가 가진 특징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에 관한 것이다. 사실 이 점은 저자 역시 고민거리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난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원래의 박사학위논문에서는 고려-남송을 다층위의 소통 구조의 범주에 넣고, 고려-거란을 군주 중심의 문서 교환의 범주에 넣었지만 본서에서는 이를 바꾸어 고려-거란을 다층위의 소통 구조로 설정하고 고려-남송을 군주 중심의 문서 교환 범주로 설정했기 때문이다. 고려-거란이 다층위의 소통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본서의 2장 2절에서 서술된 내용으로 입증되었다고 할 수 있지만, 고려-남송 관계를 과연 군주 중심의 문서 교환이라는 특징으로 포괄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남는다.

고려와 남송 사이에서 군주 중심의 조서-표문이 왕래한 것은 시기가 얼마 되지 않고, 고려와 남송 사이의 국가 간 공식 관계가 단절된 이후에는 상인 등을

8 정동훈, 2018, 「1140년 외교문서로 본 고려-금 의사소통의 구조」, 『동방학지』 182.

통해서 주로 첩(牋) 형식의 문서가 전달되고 있다. 또 본서에서 제시한 1259년의 사례는 고려의 예빈성이 남송의 명주(明州)에 보낸 첩이었기 때문에 사실 군주 중심의 문서 교환보다는 그 하위 관부 혹은 사적인 교류를 통한 외교적 왕래 사례가 더 많이 보이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이를 다층위의 소통 구조라고 하기도 모호한 것이 군주 사이의 외교문서 왕래가 끊어진 상황에서 그 하위의 주체들만 소통한 것이므로 다층위라고 정의를 내리기도 어렵다. 그렇다고 고려-남송의 관계에 따로 한 장을 할애할 정도로 많은 자료가 아직 발굴된 것도 아니어서 저자는 이를 어떻게 범주화할 것인지 크게 고민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래서 고려와 남송 사이 관계의 특징은 초기를 제외한 대부분의 시기에 군주 이외의 나머지 주체들이 간헐적인 소통을 했었다는 정도로 정리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차후 고려와 남송 관계를 보여주는 중국 측의 자료가 계속 발굴되고, 송상(宋商)의 외교적 역할이 더욱 구체적으로 밝혀질 수만 있다면, 이를 통해 고려-남송 외교의 실상이 재조명되어 새로운 관점의 연구를 촉진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한다.

그리고 거란 동경이 고려와 거란의 외교관계에서 수행한 독특한 역할에 주목한 부분은 본서의 강점 중의 하나인데, 저자는 “동경을 최종 행선지로 삼은 사신단이 많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다른 가능성으로는 고려 개경에서 거란 상경(上京)으로 가던 사신이 중간 기착지인 동경에 들러 문서와 예물을 전달하는 관행이 있었던 것은 아닐까 추측할 수 있다”(본서의 214쪽)라고 서술하기도 했다. 고려와 거란 사이에 의례적인 정기 사행이 이루어졌으니 저자의 말에 따르면, 당연히 고려와 동경 사이에서도 정기적인 왕래와 교섭이 행해졌음으로 볼 수 있다. 다만, 거란의 황제는 계절에 따라 주기적으로 궁정을 옮기면서 정무를 다스렸기 때문에 고려의 사신이 파견되는 시점이 언제인지에 따라 거란의 황제가 위치하는 곳은 달랐을 것이다. 그래서 고려 사신이 반드시 거란 상경으로만 가지는 않았을 것이고, 혹시 동경에서 거란 황제의 소재지를 정확하게 파악한 이후에 길을 나섰던 것은 아니었을까 하는 평자의 추측 한 가지를 덧붙여보고자 한다.

IV. 맺음말

평자는 몽골-원 제국 역사를 공부하면서 항상 고려-몽골 관계의 여러 특징과 그로 인해 등장했던 다양한 인물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고려-몽골 관계에 대한 관심들을 몇 편의 논문으로 풀어낸 바 있다. 그 과정에서 평자가 본서의 저자인 정동훈 교수께 학문적인 빛을 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평자는 대학원 석사과정 때부터 저자와 교류하면서 저자로부터 관문서의 구조와 그 해석 방법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을 수 있었고, 그때 배웠던 문서 구조, 용어, 해석 방법, 특징 등은 평자가 문서 사료를 구조적으로 해석하고 활용하는 것에 큰 발판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오래전부터 저자의 연구 주제와 활용 사료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평자에게 본서의 서평을 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한다.

본서의 거시적인 시야, 외교문서 사료에 대한 치밀하면서도 신중한 접근, 한국과 중국 측의 방대한 문헌에 대한 활용과 정리 등은 본서가 지닌 학술적·연구사적 가치를 충분히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본서 이외에도 저자는 고려시대, 조선시대 초기의 한중관계사에 대한 다양한 논문을 발표하고 있어서 그 성과들이 축적되어 차후 또 다른 대외관계사 담론이 형성될 수 있기를 바란다. 또한 본서와 저자의 많은 연구에 대해서 앞으로 여러 연구자의 논의, 평가, 후속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흩어진 퍼즐 조각을 모아 완성한 일본군 위안소의 실태

— 『진중일지로 본 일본군 위안소』(하종문, 휴머니스트,
2023)

이승희 | 부산대학교 사학과 조교수

- I. '위안부'에서 '위안소'로 패러다임 전환
- II. 책의 구성과 내용
- III. 논점과 의견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I. ‘위안부’에서 ‘위안소’로 패러다임 전환

지금으로부터 30여 년 전인 1992년 1월 11일 일본 주오대학(中央大學)의 요시미 요시아키(吉見義明) 교수가 ‘북지나방면군(北支那方面軍)’ 참모장 오카베 나오사부로(岡部直三朗)의 통첩 등을 『아사히신문(朝日新聞)』을 통해 발표하였다. 이를 통해 ‘위안부’의 모집과 관리, ‘위안소’의 건설과 운영 및 관리 등에 일본정부와 일본군이 관여한 증거가 일반에 널리 공개되었다. 일본정부도 정식 조사를 통해 이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후 방위청(성) 방위연구소 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던 일본군의 기록물을 중심으로 관련자의 인터뷰와 회고 등 다양한 자료를 활용한 다각적인 ‘위안부’ 연구가 한일 양국의 연구자들을 중심으로 진행되어왔고, 관련 자료집도 다수 출간되었다.

이 책의 저자인 하중문 교수도 1998년부터 ‘일본군성노예전범국제법정’(2000년 개최)의 한국 측 준비단의 일원으로 참가하게 된 것을 계기로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가해를 규명하는 작업을 시작하였으며, 면밀한 자료 조사와 수집을 거쳐 최근까지 이 책의 베이스가 되는 이하 4편의 논문을 발표하였다.

「일본군 위안소 체계에 대한 국가 관여의 역사적 고찰-위안소의 성격과 위안소 업자·‘위안부’의 신분을 중심으로」(하중문 외, 2009, 『한일간 역사현안의 국제법적 재조명』, 동북아역사재단)

「진중일지 속의 부대 운용과 일본군 위안소 제도」(하중문, 2019, 『동북아역사논총』 64, 동북아역사재단)

「진중일지로 본 싱가포르의 위안소 실태」(하중문·박정애 편, 2020,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과제 Ⅲ: 관점과 실태』, 동북아역사재단)

「오키다이트섬의 일본군 위안소」(하중문, 2022, 『역사문제연구』 48, 역사문제연구소)

저자가 ‘위안부’ 규명 작업을 시작한 지 25년, 첫 번째 ‘위안소’ 관련 연구를 발표한 지 15년에 이르는 장년의 결과물이 바로 총 7장, 727쪽의 방대한 분량에 달하는 이 책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책의 가장 큰 특징은 ‘위안소’에 주목하였다는 점이다. 기존의 연구는 ‘위안부’ 그 자체에 대한 규명에 집중했기 때문에 ‘위안부’ 피해자 및 관련자들의 증언에 크게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이는 한국 측이 쓸 수 있는 최대의 무기이기도 했지만 역사수정주의자들의 반론이 집중되는 곳이기도 하다.

저자는 ‘위안부’ 문제 해결 방법을 주도적으로 모색하고, 그 누구도 반박하고 부정할 수 없는 일본군 가해 시스템의 명백한 증거를 제시하고자 ‘위안부’에서 ‘위안소’로 연구 대상을 전환하였다. ‘위안소’가 “일본군의 조직 체계와 작전에 깊숙이 결부된 군사시설”이었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를 위해 주목한 자료가 바로 일본군의 『진중일지(陣中日誌)』이다. 『진중일지』는 이미 청일전쟁 때에도 작성되고 있었던 대본영 각 부를 비롯한 일본군 각 부대의 공식 기록물로 전사 편찬 및 각 개인의 근무와 공적을 평가하는 자료로 활용되었다. 그 내용은 편성, 교육, 보충, 휴양, 위생, 군기, 무기, 탄약, 기구, 재료, 피복, 장비 등 부대 전반에 관한 사항은 물론 전투, 숙영, 행리, 이동에 관한 사항까지 망라하고 있는 1급 사료라고 할 수 있다. 때문에 일본의 전사 연구는 물론 한국의 독립운동사 연구자들이 꾸준히 사용해온 자료이기도 하다. 앞에서 언급한 요시미 교수가 ‘위안부’에 대한 일본정부와 군의 가해책임을 밝히는 데 사용한 주요 자료의 하나이며, ‘위안부’와 ‘위안소’가 언급된 부분은 상당수 한국어로도 번역이 되어 자료집에 수록되었다. 하지만 기존의 연구와 자료집에서 다루고 있는 부분은 어디까지나 ‘위안부’와 ‘위안소’가 언급되어 있는 부분에 한정되어 있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이 책은 ‘위안부’와 ‘위안소’가 기재된 해당 부대 및 관련 부대의 『진중일지』 전체를 장기적이고 총체적으로 고찰하는 방법으로 기존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했다. 무려 만주사변부터 일본의 패망에 이르는 15년간의 일본군 각 부대의 『진

중일지』 속에 암호나 퍼즐처럼 파편화되어 흩어져 있는 가해의 증거를 찾아내고자 한 것이다. 일부이긴 하지만 과거 『진중일지』 관련 번역 용역과 연구의 경험에 있는 필자로서는 이것이 얼마나 정신이 아득해지는 고된 작업인지를 쉽게 추측할 수 있다. 이 책은 일본군에 의해 ‘위안소’가 운영된 시기와 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삼아 관련 부대의 『진중일지』를 총체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위안소’의 역사적 실태를 규명하고자 시도한 최초의 연구라고 할 수 있다.

II. 책의 구성과 내용

이 책은 일본군 ‘위안소’가 평시에 출입하던 민간의 성매매업소와는 질적으로 구분되어야 할, 해당 부대에 부속된 ‘군시설’이었음을 논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이 책의 구성은 다음과 같이 총 7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책을 펴내며

1장 위안소 제도의 전사

1. 육군의 관계 법령
2. 만주사변기의 성매매업소

2장 중일전쟁 발발과 위안소 설치

1. 개전 초기의 전황
2. 중지나방면군과 위안소
3. 성병의 실태와 콘돔 조달
4. 일본군의 급여와 군표

3장 위안소 설치와 이용의 실태

1. 야전중포병 제14연대와 위안소
2. 제3사단 보병 제68연대 제3대대와 위안소
3. 독립공성중포병 제2대대와 위안소
4. 제11사단과 타이완의 위안소

4장 위안소 체계의 안착

1. 대구모 전투와 위안소 개설
2. 쉬저우 전투와 위안소
3. 우한·광둥 전투와 위안소
4. 독립산포병 제3연대와 위안소

5장 보병 제9여단과 위안소 이용의 장기화

1. 중일전쟁 시기의 위안소
2. 아시아·태평양전쟁 시기의 위안소

6장 아시아·태평양전쟁 시기의 지역별 위안소 체계

1. 중국 상황
2.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의 상황
3. 버마의 상황
4. 필리핀의 상황
5. 인도네시아의 상황

7장 오키나와 결전과 위안소

1. 일본군의 배치와 그 변화
2. 이에섬의 위안소
3. 독립혼성 제44여단과 위안소

4. 제62사단의 위안소 체계

5. 제24사단과 위안소

6. 오키다이트섬의 위안소

맺음말

1장 ‘위안소 제도의 전사’에서는 먼저 ‘위안소’의 개설과 운용, 그리고 ‘위안소’ 이용으로 이어지는 부대원 외출의 근거를 찾기 위해 군의 관련 법령과 규정을 정리하여 제시하였다. 즉, ‘진중요무령(陣中要務令)’, ‘작전요무령(作戰要務令)’, ‘군대내무서(軍隊內務書)’, ‘위수근무령(衛戍勤務令)’과 같은 상위의 군령(軍令)과 함께 ‘내무규정(內務規定)’과 ‘야전주보규정(野戰酒保規程)’과 같은 하위의 규정 내용을 검토하였다. 저자는 1937년에 개정된 ‘야전주보규정’에서 ‘야전주보’에 ‘위안시설’을 둘 수 있다고 언급된 부분을 근거로 ‘위안소’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제도적 틀이 마련되었다고 평가하였다. 그리고 ‘주보’의 운영이 군령인 ‘군대내무서’에 입각해 이루어진 사실을 통해 중일전쟁 이후 일본군 각 부대는 군의 공식적인 법령과 규정을 토대로 ‘위안소’를 설치하고 운영해나갔다고 주장하였다. 아울러 만주사변기 현지에 파견된 혼성 제14여단, 보병 제27연대 제1보병포소대, 제7사단의 『진중일지』 분석을 통해 병사의 휴일과 외출이 성매매업소 출입으로 이어져 일본군 내 화류병, 즉 성병이 만연하게 된 문제에 대해 검토하였다. 이를 통해 성병 예방은 일본군 위생 업무의 중심으로 자리매김되었고, 만주사변에서의 성병 만연과 예방의 경험이 중일전쟁기 군이 주도하고 통제하는 ‘위안소’ 운용으로 이어지게 되었음을 정리하였다.

2장 ‘중일전쟁 발발과 위안소 설치’에서는 ‘중지나방면군(北支那方面軍)’의 참모부 제2과장인 조 이사무(長勇) 중좌의 움직임에 주목하여 중일전쟁기 ‘중지나방면군’은 사령부 차원에서 ‘위안소’ 설치를 주도했으며, 필요한 ‘위안부’의 모집에는 육군은 물론 외무성, 내무성과 같은 중앙 부처와 지방 당국이 깊숙이 관여하고 있었던 사실을 밝혔다. 일본 국내의 “모집방법이 유괴와 비슷하여 경

찰 당국에 검거되어 취조를 받는 자가 있는 등 주의를 요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보고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아울러 일본군에 점령된 상하이에 주둔한 제101사단 보병 제101연대 제2대대의 사례 분석을 통해 ‘주보’라 불린 ‘위안소’가 설치되었다는 사실도 증명하였다. 또한 육군 내 성병의 실태와 콘돔의 조달 실태에 대해서도 정리했으며, ‘위안소’ 경영자와 ‘위안부’가 야전우편국이라는 군대 조직을 통해 군사우편 저금 또는 송금을 한 사례를 들어 앞서 육군의 여러 규정 속에서 위안소와 그 구성원은 민간인이 아니라 군의 범주에 편입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밝혔다.

3장 ‘위안소 설치와 이용의 실태’에서는 중일전쟁 초기 야전중포병 14연대, 제3사단 보병 제68연대 제3대대, 독립공성중포병 제2대대, 제11사단의 현지 주둔 상황과 부대의 ‘위안소’ 설치와 운용, 그리고 이용 실태에 대해 상세하게 복기하였다. 특히 『진중일지』에 첨부된 ‘특종위안소가(假)규정’, ‘특종위안소취체규정’, ‘전장위안소규정’, ‘창저우주둔간내무규정’과 같은 ‘위안소’ 관련 규정을 치밀하게 검토하여 만주사변기와 차별화되는 중일전쟁기 ‘위안소’의 특징을 정리하였다. 즉, 첫째, ‘위안소’의 존재에 대한 사령관과 전임장교의 권한 절대화, 둘째, ‘위안소’ 개설 권한은 현지 영사관이 아니라 현지 부대장이 행사, 셋째, 성병 예방을 위한 검진의 정기적인 실시 명문화·의무화와 불합격자의 영업 금지, 넷째, 일본 국내 ‘창기취체규칙’의 틀을 준용하면서도 군의 관여를 전면에서 부각하지 않도록 노력했다는 점이다. 아울러 ‘위안소’의 목적은 “완화 위안의 길을 강구하여 군기 숙정(肅正)에 일조하는 데 있다”는 것이며, 따라서 이를 전담하는 헌병대가 ‘위안소’의 감시와 감독은 물론 ‘위안소’의 개설까지 책임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밝혔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저자는 병사가 ‘위안’을 얻기 위해 허가받은 ‘외출’은 개인적 행위가 아니라 일본군 성노예 시스템을 발생시키는 공식적·제도적 행위였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4장 ‘위안소 체계의 안착’에서는 중일전쟁의 전선이 확대되어가는 과정 속에서 중국 파견군이 ‘위안소’를 설치하는 데 육군성은 물론 현지 영사관, 외무성, 내무성, 타이완총독부 등 유관 기관의 협조를 얻고 있었음을 정리하였다. 아

올리 제114사단의 사례 분석을 통해 ‘위안소’ 설치의 명분으로 성병 예방과 함께 ‘방첩’도 추가되었다는 사실을 밝혔다. 또한 독립산포병 제3연대의 사례 분석을 통해 부대를 따라 종군하는 ‘전속위안소’의 운용 상황에 대해서도 정리하였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러한 ‘위안소’의 설치는 군대 내 성병 발생의 억제와 전시 성폭력 문제의 경감에도 아무런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다고 주장하였다.

5장 ‘보병 제9여단과 위안소 이용의 장기화’에서는 드문 사례로서 중일전쟁 초기부터 아시아·태평양전쟁 시기까지 대량의 『진중일지』를 남긴 보병 제9여단에 초점을 맞춰 예하 부대의 외출 체계와 ‘위안소’ 설치, 이용 상황을 검토하였다. 제9여단은 칭다오부터 시작하여 시기별로 우쑹, 말레이시아의 므라카와 스름반, 그리고 인도네시아의 자와섬의 말랑과 말루쿠제도의 암본 등 중국과 동남아의 다양한 지역에 주둔하였지만, 각 시대별·지역별 ‘위안소’의 특징이 뚜렷하게 드러나지는 않았다.

6장 ‘아시아·태평양전쟁 시기의 지역별 위안소 체계’에서는 중국의 상하이, 쑹닝 광저우, 카이펑, 후난성 사오양, 싱가포르, 말레이시아의 보르네오, 버마의 만달레이, 타야와디, 슈웨보, 필리핀의 파나이, 민다나오, 레이테, 루손, 마스바테, 네그로스, 마닐라, 인도네시아의 자카르타, 수라바야, 메단 등에 주둔한 일본군 부대의 외출과 ‘위안소’ 이용 상황을 검토하였다. 광범위한 지역을 대상으로 한 관계로 이 책에서 가장 많은 지면을 차지하지만 앞 장에서와 마찬가지로 지역별로 ‘위안소’ 상황에 약간의 차이점이 존재하는 것을 확인하는 한편, 일본군 주둔 체계와 위안소 운용의 불가분성을 반복적으로 지적하는 데 그치고 있다.

7장 ‘오키나와 결전과 위안소’에서는 아시아·태평양전쟁 말기 오키나와 각지 주둔 부대의 배치 상황과 ‘위안소’의 실태를 규명하며 마침내 패전 직전에 이르러 ‘군시설’로서의 ‘위안소’, ‘군의 요원’으로서의 ‘위안부’가 완성되었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흥미로운 것은 방첩과 군기 누설의 측면에서 주의를 요하는 미군의 상륙 직전까지 병사의 외출과 ‘위안소’ 출입이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이는 일본군에서 ‘위안소’의 존재가 얼마나 중요한지 부각시켜준다. 아

올려 『진중일지』의 기록과 증언을 면밀하게 비교하는 작업을 통해 ‘위안소’ 관련 증언의 오류를 밝혀낸 점도 주목할 만하다. 『진중일지』를 총체적으로 면밀히 분석한 이 책의 유용성을 잘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III. 논점과 의견

이 책은 일본군 『진중일지』와 관련자 증언을 포함한 다양한 1차 자료를 활용하여 일본군 ‘위안소’ 제도의 시작부터 끝까지 면밀히 분석한 최초의 연구서로 “위안소는 전쟁 수행을 위해 기획된 일본군의 제도이자 시스템으로 가동되었다”는 사실을 논증하였다. 이 책에 첨부되어 있는 다수의 『진중일지』 속 ‘위안소’ 관련 지도와 정리된 표는 당시의 상황을 독자들에게 생생하게 전달해준다. 다만 몇 가지 의문이 남거나 보완이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부분도 눈에 띈다.

먼저 성병과 ‘위안소’ 설치의 관련성에 대한 선행연구의 성과가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 책의 곳곳에서 언급하고 있듯이 일본군이 ‘위안소’를 설치한 중요한 목적 중의 하나가 바로 부대의 전투력을 유지하기 위한 위생상의 조치로서의 성병 예방이다. 저자는 기존 연구에서는 이를 등한시켰다고 평가했지만, 성병에 대한 육군의 대책, 그리고 ‘위안소’ 설치에 대해 치밀하게 분석한 후지타 마사오(藤田昌雄)의 대표적인 연구도 존재한다.¹ 각 장에서 성병과 ‘위안소’의 관계성에 대해 산발적으로 다루기보다 선행연구의 성과를 활용하여 전반부에서 집중적으로 고찰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아울러 이 책에서는 성병에 걸린 것을 외출과 제2종 순찰과 함께 ‘위안소’ 이용의 증거로 활용하고 있지만, 성병 감염률이 높은 사창과 같은 현지 성매매업소에 관한 기록이나 증언을 고려해볼 때, 성병 감염루트를 무조건 ‘위안소’로 특정할 수 있는지, 외출과 제2종 순찰은 반드시 ‘위안소’ 이용으로 연결할 수 있는지

1 藤田昌雄, 2015, 『陸軍と性病：花柳病対策と慰安所』, えにし書房.

그 가능성에 대해 좀 더 세심한 고찰이 필요하지 않았을까 하는 의문이 생긴다.

다음으로 장절 구성에 관한 것인데, 기본적으로는 시제열에 따라 검토해나가는 방식을 취하고 있지만, 『진중일지』의 특성상 부대별로 서술하다 보니 지역과 시기가 겹치는 부분이 존재한다. 게다가 부대의 개괄, 주둔 상황, 위안소 개설, 이용이라는 정형화된 방식의 서술이 전체적으로 반복되면서 필요 이상으로 지면만 늘어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위안부’와 ‘위안소’가 기재된 해당 부대 및 관련 부대의 『진중일지』 전체를 장기적이고 총체적으로 검토하는 방법은 이 책의 최대 장점인 동시에 최대의 단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이 책은 널리 알려진 일본군 ‘위안부’ 제도의 불법성 및 야만성, ‘위안부’ 인권과 생명 경시에 대해서는 초점을 맞추지 않았다. 이는 분석 대상인 『진중일지』 자료가 갖고 있는 한계라고 할 수 있지만, 일본군의 ‘위안부’ 취급 및 대우가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다는 ‘오해’를 유발할 위험성도 엿보인다.

마지막으로 사변 혹은 전시의 전선과 점령지에 설치된 ‘위안소’와 식민지인 타이완, 본토인 오키나와에 설치된 ‘위안소’를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찰이 불충분하다고 여겨진다. 3장과 7장에서 타이완과 오키나와의 사례에 대해서 일정 부분 다루고 있지만 본격적인 비교 분석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헌법 적용 여부, 전시와 평시, 군정과 민정 등에 따라 ‘위안소’ 제도가 어떠한 양상을 보였는지 궁금하다.

물론 이러한 의견은 부분적인 문제에 그치는 것으로 이 책의 전체적 의의와 가치를 떨어뜨리는 것은 아니라고 거듭 강조해두고 싶다. 일본군 헌병을 연구하고 있는 필자는 이 책을 통해 앞으로의 연구에 많은 시사점을 얻으며 흥미롭게 읽어나갈 수 있었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만주사변부터 일본의 패망에 이르는 15년간의 일본군 각 부대의 『진중일지』 속에 암호나 퍼즐처럼 파편화되어 흩어져 있는 가해의 증거를 망라해 실증적으로 분석한 연구서가 한국에서 나왔다는 사실은 보다 성숙해진 한국학계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책이 저자의 의도대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의 돌파구이자 새로운 무기가 되어줄 것으로 기대한다.

동북아역사논총 규정 및 규칙

-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윤리규칙
- 편집위원회 규정
- 논총 간행 및 논문 심사 규정
- 논문 심사 내규
- 투고 방법 및 원고 작성 요령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윤리규칙]

제정 2019. 11. 11. 규칙 제221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연구의 진실성을 확보하고, 연구부정행위를 체계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동북아역사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 연구윤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① 이 규칙은 재단 직원이 재직 중에 수행한 모든 연구 활동 및 연구결과물에 적용한다.

② 재단의 각종 연구사업에 참여한 외부 연구자의 연구윤리 확립과 연구진 실성 검증은 원칙적으로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이하 “교육부 훈령”이라 한다)에 따른다. 다만, 교육부 훈령만으로 연구부정행위가 검증되지 않을 때는 본 규칙에 따른다.

제3조(연구자의 역할과 책임) 연구자는 연구의 자유에 기초하여 자율적으로 연구를 수행하되, 다음 각 호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연구대상자의 인격 존중과 공정한 대우
2. 연구대상자의 개인정보와 사생활 보호
3. 사실에 기초한 정직하고 투명한 연구의 진행
4. 전문 지식을 사회에 환원할 경우 전문가로서 학문적 양심 견지
5. 새로운 학술적 결과를 공표하여 학문 발전에 기여
6. 자신과 타인의 저작물 활용 시 적절한 방법으로 출처를 밝히는 등 선행 연구자의 업적을 인정하고 존중
7. 연구계약 체결, 연구비 수령, 연구비 집행 과정에서 윤리적 책임 견지
8. 연구비 지원기관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지 않고, 연구결과물에 연구와 관련된 모든 이해관계 명시
9. 연구결과물을 발표할 경우, 연구자의 소속, 직위(저자 정보)를 정확하게 밝혀 연구의 신뢰성 제고

제4조(연구부정행위 범위와 용어의 정의) ① 연구부정행위라 함은 연구과제의 제안, 수행, 결과 보고 및 발표 과정에서 벌어진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위조”라 함은 존재하지 않는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거나 기록 또는 보고하는 행위
2. “변조”라 함은 연구재료 · 장비 · 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를 임의로 변형하거나 삭제하여 연구내용이나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3. “표절”이라 함은 다음 각 목과 같이 일반적 지식이 아닌 타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 또는 창작물을 적절한 출처 표시 없이 활용함으로써 제3자에게 자신의 창작물인 것처럼 인식하게 하는 행위
 - 가. 타인의 연구내용 전부 또는 일부를 출처를 표시하지 않고 그대로 활용하는 경우
 - 나. 타인의 저작물에서 단어나 문장구조를 일부 변형하여 사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
 - 다. 타인의 독창적인 생각 등을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 라. 타인의 저작물을 번역하여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4. “부당한 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공헌 또는 기여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공헌 또는 기여하지 않은 사람에게 감사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연구자가 지도하는 학생의 학위논문을 학술지 등에 연구자 단독 명의로 게재 · 발표하는 행위
5. “부당한 중복게재”는 연구자가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출처 표시 없이 게재한 후, 연구비를 수령하거나 별도의 연구업적으로 인정받는 등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
6.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방해 행위”는 본인 또는 타인의 연구부정행위

여부에 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7. 그 밖에 각 학문 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는 행위

② 기타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보자”라 함은 연구부정행위를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연구윤리위원회에 알린 자를 말한다. 다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관련 주장이나 증언에 반하는 사실을 간과한 자는 제보자로 간주하지 않는다.
2. “피조사자”라 함은 제보 또는 연구윤리위원회가 인지하여 연구부정행위에 관해 조사 대상이 된 자 또는 조사 수행 과정에서 연구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 대상이 된 자를 말한다.
3. “예비조사”라 함은 본조사 실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제보 받은 사실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예비적인 사실 확인 절차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4. “본조사”라 함은 연구부정행위 혐의가 사실인지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5. “판정”은 연구윤리위원장이 확정된 조사결과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 통보하는 것을 말한다.
6. “연구결과물”은 재단 자체 연구사업 또는 개인의 연구 활동을 통해 최종적으로 얻은 연구결과 보고서·논문·간행물·단행본 등 학술적 저작물과 지식재산을 말한다.

제5조(사전예방의무) 재단은 연구사업에서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연구윤리를 준수하도록 연구윤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연구윤리준수서약서(별첨 1) 요구, 연구윤리 관련 규칙 제공, 연구사업진행 과정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조(연구윤리위원회의 기능) ①연구윤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연구윤리 관련 제도 수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
2. 연구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에 관한 사항
3. 예비·본조사 착수와 조사결과 승인에 관한 사항
4. 예비조사위원회와 본조사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
5. 제보자 보호와 피조사자 명예회복 조치에 관한 사항
6. 조사결과 처리, 후속조치, 재심의 또는 재조사 처리에 관한 사항
7. 기타 연구윤리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7조(연구윤리위원회 구성) ① 연구윤리위원회는 재단의 사무총장, 연구정책 실장, 『동북아역사논총』편집위원장, 과『영토해양연구』편집위원장(이하 “당연직 위원”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7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사무총장이, 부위원장은 『동북아역사논총』편집위원장이 맡는다.

② 연구윤리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이하 “임명직 위원”이라 한다)은 재단 연구위원 중에서 이사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연구윤리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활동을 위하여 이사장은 임명직 위원 중에서 1인을 간사로 임명한다.

⑤ 연구윤리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연구윤리위원들의 의견을 들어 전문가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8조(검증 원칙) ① 재단 직원의 연구부정행위 여부를 입증하는 책임은 연구윤리위원회에 있다. 다만, 본조사위원회가 요구한 자료를 피조사자가 고의로 훼손하거나 제출을 거부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피조사자의 책임으로 한다.

② 이사장은 연구윤리위원회가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독립성과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공정한 검증을 위하여 접수한 제보 사안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해

당 사안을 검증 완료할 때까지 심의·의결·조사 등에 관여할 수 없다. 이 때, 이해관계자라 함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와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인척 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자
2.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와 사제관계에 있는 자
3. 제보된 연구결과물이 포함된 연구과제의 연구책임자 또는 공동연구자

제9조(검증시효) ① 제보 접수일 기준으로 이미 만 5년 이상 경과한 연구부정행위는 이를 접수하더라도 처리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만 5년 이상 경과하였다 하더라도 재단 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하거나, 재단의 위상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기타 연구윤리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연구윤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조사할 수 있다.

제10조(검증기한)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하여야 한다. 단, 재심의 또는 재조사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이 기간 내에 조사가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구윤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고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1조(회의) ① 연구윤리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주재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위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연구윤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위원이 아닌 자를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제보 사안의 조사·심의·의결 등을 위한 회의를 소집할 때는 원칙적으로 최소 3일 전에 위원들에게 안전과 함께 일정을 통보하여야 한다.

⑤ 연구윤리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들의 확인을 거쳐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들의 심의·의결에 따라 해당 회의록 전체 또

는 부분을 비공개할 수 있다.

제12조(제보와 증거보전) ① 제보자는 연구윤리위원회에 구술·서면·전화·전자우편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제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익명 제보라 하더라도 연구과제명, 논문명, 구체적인 부정행위 등이 포함된 증거를 서면이나 전자우편으로 제출한 경우 실명 제보에 준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② 연구윤리위원회는 제보 받은 내용을 증빙자료와 함께 이사장에게 보고하고 제보에 관한 증거보전을 위하여 해당 연구사업 기록, 연구결과물 등의 파손, 은닉 또는 변조 등을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3조(제보자와 피조사자의 권리보호) ① 연구윤리위원회는 제보자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연구부정행위 신고를 이유로 징계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 부당한 압력, 위해 등을 받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

② 제보자는 제보 후 진행되는 조사 절차와 일정에 관한 정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연구윤리위원회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③ 제보 내용이 허위인 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신고한 제보자는 보호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

④ 연구윤리위원회는 연구부정행위 여부를 검증 완료할 때까지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혐의는 판정 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지 외부에 공개하여서는 안 되고, 무혐의로 판명된 경우 피조사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예비조사) ① 연구윤리위원회는 제12조 제1항에 따라 제보를 접수한 경우 예비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간사를 포함하여 재단 연구윤리위원 3인 이내로 예비조사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예비조사위원회는 제보를 접수한 다음날부터 10일 이내에 예비조사에 착

수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제보내용이 제4조에서 정의한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제보내용이 구체성과 명확성을 갖춰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성과 실익이 있는지 여부

3. 제보 접수일 기준으로 이미 만 5년 이상 경과하였는지 여부

③ 예비조사위원회는 조사에 착수한 날부터 25일 이내에 다음 각 호 내용을 포함한 예비조사 결과보고서를 연구윤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제보의 구체적인 내용
2.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진술내용
3. 예비조사 결과와 판단 근거
4. 본조사 실시 여부

④ 연구윤리위원회가 예비조사 결과를 승인하면 10일 이내에 제보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제15조(본조사위원회 구성과 회의) ① 연구윤리위원회는 본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예비조사 승인 후 20일 이내에 본조사에 착수하며, 이를 위해 이사장의 승인을 얻어 본조사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본조사위원회는 재단 연구윤리위원 중 1인을 본조사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7인 이내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본조사위원장을 제외하고 조사 위원 중 외부인 비율이 50% 이상이어야 한다.

2. 본조사위원으로는 해당 연구 분야 전문가를 우선 선정하되, 재단이 아닌 외부의 해당분야 전문가가 1인 이상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③ 본조사위원회는 대면 회의를 원칙으로 하며, 외부 위원은 제3자를 대신 참석시킬 수 없다.

제16조(제척·기피·회피) ① 연구윤리위원회는 본조사 착수 전에 피조사자와 제보자에게 본조사위원 명단을 알려야 하며, 피조사자 또는 제보자가 정당한 사유로 본조사위원회에 대해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기피 신청을 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하고 새로 위촉하여야 한다.

② 제8조 제3항에 근거하여 본조사위원이 조사대상 과제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스스로 회피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 기피 또는 회피 신청이 타당한지를 심의하는 회의에 기피 신청된 위원이나 회피 신청한 위원은 참여할 수 없다.

제17조(본조사 착수와 조사기간) ① 본조사는 판정을 포함하여 조사 착수일 부터 9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조사위원회가 기간 내에 조사를 완료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연구윤리위원회에 그 사유를 설명하고 기간 연장을 요청하여야 하며, 연구윤리위원회는 최대 30일까지 한 차례 본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8조(본조사위원회의 권한과 책무) ① 본조사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제보자, 피조사자, 참고인에게 출석과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본조사위원회는 연구 기록이나 증거의 상실, 파손, 은닉 또는 변조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본조사위원회는 조사 과정에서 조사대상 연구와 연구자에게 부당한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제19조(진술 기회 보장) 본조사위원회는 혐의 사실에 관해 피조사자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해명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20조(연구부정행위의 판단) ① 연구부정행위는 다음 각 호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1. 연구자가 속한 학문 분야에서 윤리적 또는 법적으로 비난받을 만한 행위 인지를 고려

2. 해당 행위 당시 ‘교육부 훈령’과 해당 행위가 있었던 시점의 보편적인 기준을 고려
3. 행위자의 고의, 연구부정행위 결과물의 양과 질, 학계 관행과 특수성, 연구부정행위를 통해 얻은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 ② 제4조 제1항 제7호에서 정한 ‘그 밖에 각 학문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를 판단하고자 할 때에는 학계에서 부정행위라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는지 등을 고려한다.
 - ③ 본조사위원회는 연구부정행위 여부를 재적 위원 3분의 2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1조(본조사 결과보고서 제출과 승인) ① 본조사위원회는 조사 완료 후 10일 이내에 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연구윤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사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제보의 구체적인 내용
2. 해당 연구에서 피조사자의 역할
3.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의견 진술 내용
4. 연구부정행위 여부에 관한 최종 결론
5. 관련 증거와 증인, 참고인, 기타 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6. 본조사위원 명단

③ 연구윤리위원회는 본조사위원회가 최종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면 위원회를 소집하여 승인여부를 심의·의결한다.

제22조(조사결과에 따른 조치) ① 연구윤리위원회는 심의·의결한 결과를 재단 이사장에게 제출한다. 이때 제4조 각 호에 해당하는 연구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연구부정행위의 경중에 따라 다음 각 호 범위 내에서 제재 조치를 이사장에게 건의하고, 이사장은 필요한 제재를 명할 수 있다.

1. 해당 연구결과물 수정

2. 해당 연구결과물 발간, 학술지 게재, 배포 등 금지

3. 일정 기간 재단 연구 사업 참여 배제

4. 주의 또는 경고, 재단 징계규정에 따른 징계

② 외부 연구자의 연구진실성을 검증하여 연구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되면, 이사장은 다음 각 호 범위에서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재단에서 해당 연구결과물 발간, 학술지 게재, 배포 등 금지

2. 3년 이상 5년 이내 재단 연구사업 참여 배제

3. 소속 연구기관 및 한국연구재단에 연구윤리 위반 사실 통보

③ 연구윤리위원회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진실과 다른 제보를 하거나 연구윤리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한 자에 대해 이사장에게 징계 또는 상당한 제재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사장은 본조사결과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연구윤리위원회가 심의·의결한 결과보고서를 제출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연구윤리위원회에 재조사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재조사를 위한 본조사위원회 구성 및 결과보고서 제출 등에 관해서는 동 규칙 제15조와 제21조에 따르되, 재조사 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⑤ 이사장은 연구윤리위원회가 재조사를 통해 심의·의결한 결과를 제출받으면 지체 없이 이를 승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3조(결과 통지) 연구윤리위원장은 이사장이 조사결과를 승인하면 피조사자와 제보자에게 문서로 통지한다.

제24조(재심의) ① 피조사자 또는 제보자는 연구윤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재단의 서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사유를 기재하여 윤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재심의의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심의 개시 여부를 포함하여 그 절차와 방식에 관해서는 연구윤리위원회에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연구윤리위원회가 필요한 절차를 거쳐 동일 제보 건에 관하

여 재심의 · 의결하고 최종 결과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통보하였다면, 해당 제보 건에 관한 재단의 조치는 이것으로 완료한 것으로 본다.

제25조(비밀유지 의무) 연구윤리위원회 위원, 예비 · 본조사 위원, 그 밖에 조사에 직 · 간접적으로 참여한 자, 재단 이사장을 비롯하여 재단 임직원은 심의 · 의결 · 조사 등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그 직을 그만둔 후에도 같다.

제26조(경비) 연구윤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27조(운영지침) 기타 연구윤리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연구윤리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28조(조사기록과 정보 공개) ① 조사 과정에서 생산된 음성, 영상, 문서 등 모든 기록물은 판정한 날을 기준으로 최소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② 조사보고서는 판정이 끝난 후에 공개할 수 있다.

③ 증인, 참고인, 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등은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경우 연구윤리위원회의 심의 · 의결을 통해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부 칙<제정, 2019. 11. 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재단 이사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내규의 폐지)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윤리위원회 구성 · 운영 규칙』은 폐기한다.

제3조(경과규정) 제2조에 따라 폐기된 규칙에 근거하여 임명된 위원은 잔여 임기에도 불구하고 자동으로 위원직을 면한 것으로 본다.

【별첨 1】

연구윤리 준수 서약서

연구과제명 :

연구(책임)자 :

소 속 기관 :

(소속부서)

위 연구(책임)자는 학문적 양심에 기초하여 자율적으로 연구를 수행하며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윤리규칙」과 교육부 훈령「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이 명시하고 있는 연구자의 역할과 책임을 숙지하고, 이를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연구(책임)자 : _____ (인)

[편집위원회 규정]

1. 편집위원회는 동북아 관련 고대·중세·근현대 연구 영역의 전문연구자 중, 동북아역사재단의 연구소(한·중관계연구소, 한·일관계연구소, 독도연구소) 소장과 편집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동 재단 이사장이 위촉한 연구자로 편집위원을 구성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며 2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2. 편집위원회는 위원장, 편집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동북아역사재단(이하 재단)의 동북아역사논총 발간사업 담당부서장이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경우 이사장이 지명할 수 있다.
 - 1)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여 논총의 편집과 간행을 총괄하고, 재단소속 직원 중에서 논총의 편집과 간행 실무를 수행하는 편집간사 및 사무간사를 임명할 수 있다.
 - 2) 편집위원장은 논총에 게재된 연구논문의 저자 정보를 확인하고 관리하며, 교육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요청받을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3) 편집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여 투고논문의 접수 및 심사, 학회지의 편집, 출판에 관한 실무를 총괄한다.
 - 4) 사무간사는 투고논문의 접수 및 심사, 학회지의 편집, 출판 등에 필요한 행정업무를 수행한다.
3. 편집위원의 임기 만료 전 유고 시, [편집위원회 규정] 제1항의 편집위원 위촉 방법에 의해, 차기 호 논문 심사가 있기 전에 새로운 편집위원을 선정한다.
4. 편집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 1) 『동북아역사논총』(이하 논총)의 편찬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 2) 논총에 게재하기 위한 일체의 논문류에 대한 심사
 - 3) 논총 게재 기획논문, 자료소개, 서평, 설림 등에 대한 기획과 심사

- 4) 기타 논총 관련 사업에 대한 기획과 심의
 5. 편집위원회는 논총 발간 전에 개최하고, 편집위원회의 진행절차는 편집 및 토의사항을 중심으로 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해 논의한다. 편집간사 및 사무간사는 편집위원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참고자료 및 보고사항을 사전에 준비하고 회의록을 작성한다.
 6. 편집위원은 원칙적으로 논총에 논문을 투고할 수 없으나 논총 기획연구 등 편집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논문 투고가 가능하도록 한다.
- ※ 이 편집위원회 규정은 2004년 12월 24일 제정된 북방사논총 편집위원회 규정을 승계하여, 2006년 11월 22일 개최된 동북아역사논총 제1차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정되었고, 2013년 8월 30일, 2015년 2월 23일, 2016년 2월 24일, 2017년 5월 19일, 2018년 2월 23일, 2020년 2월 14일, 2021년 12월 10일 편집위원회에서 재개정되었음.

(논총 간행 및 논문 심사 규정)

1. 논총에는 다음과 관련된 특집, 논문, 설립, 자료소개, 서평 등의 글을 게재한다.
 - 1) 한국사(문화) 및 동아시아사(문화)와 관련된 문제
 - 2) 독도 및 영토 관련 문제
 - 3) 본 재단의 목적에 부합하는 논문
2. 논총은 3월 31일, 6월 30일, 9월 30일, 12월 31일 매년 4회 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원고를 다음과 같은 과정과 내용으로 심사한다.
 - 1)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모든 원고를 논문 제목, 형식요건, 원고분량의 적절성, 재단 목적에 대한 부합성 등을 기준으로 1차 심사하고, 참석 편집위원 과반수 통과 판정을 얻어 2차 심사에 회부한다.
 - 2) 편집위원회는 투고원고 중 논문류의 경우 편당 학계 전문가 3인의 심사자를 선정하여 2차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2차 심사 때에는 공정성을 위해 필자명을 반드시 지운 뒤 심사한다.
 - 3) 심사위원은 심사 의뢰된 논문을 편집위원회의 정해진 양식에 따라 “수정 없이 게재(A)”, “검토 또는 수정 후 게재(B)”, “수정 후 재심사(C)”, “게재 불가(D)”의 네 등급으로 판정한 후 편집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중 B·C등급의 경우 수정사항이, D등급의 경우에는 게재 불가 이유가 반드시 명시되어야 한다.
 - 4) 편집위원회는 심사 통과 논문 편수가 논총의 일반적인 분량을 초과할 경우 편집위원회의 기획과 심사 성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선 게재 순위를 정한다.
4.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과 심사과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일체를 대외비로

한다. 이외 투고자는 게재가 결정된 논문이라 할지라도 심사위원의 보완 요구가 있을 경우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5. 편집위원회는 심사 결과를 투고자에게 서면 등의 방법으로 통보한다. 논문은 아래와 같은 항목에 의하여 심사한다.

- 1) 논문 제목의 적절성
- 2) 형식요건 및 체제의 정연성
- 3) 논리성 및 독창성
- 4) 학술적 가치
- 5) 인용자료의 적절성
- 6) 분량의 적절성
- 7) 요약문의 적절성

6. 편집위원회는 논총에 투고된 일체의 원고에 대해 심사 종료 후 돌려주지 않는다.

※ 이 심사규정은 2004년 12월 24일 제정된 북방사논총 심사규정을 승계하여, 2006년 11월 22일 동북아역사재단에서 개최된 제1차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었고 2018년 2월 23일 편집위원회에서 재개정되었음.

(논문 심사 내규)

1. 편집위원회는 심사 결과를 다음의 다섯 가지로 처리한다.
 - 1) 게재 가 : 3인 모두 A로 판정하는 경우 예) (A, A, A)
 - 2) 검토 또는 수정 후 게재 : 모두 B 이상으로 판정한 경우 / 2인이 B 이상이고 나머지 1인이 C로 판정한 경우
예) (A, A, B) (A, B, B) (B, B, B) (A, A, C) (A, B, C) (B, B, C)
 - 3) 수정 후 재심사 : 1인이 A 또는 B로 판정하고 2인이 C로 판정한 경우
예) (A, C, C) (B, C, C)
 - 4) 심사위원 교체 재심사 : 2인이 B 이상으로 판정하였는데 1인이 D로 판정한 경우, D 판정 1건에 대해서만 심사위원을 교체하여 재심사함
예) (A, A, D) (A, B, D) (B, B, D)
 - 5) 게재 불가 : 2인 이상이 C나 D로 판정한 경우 / 1인이 D로 판정하였는데 A가 포함되지 않고 C를 포함한 경우
예) (A, C, D) (A, D, D) (B, C, D) (C, C, C) (C, C, D) (D, D, D), (B, D, D)
(C, D, D)
2. 편집위원회는 논문 편수가 논총의 수록 분량을 초과하거나 또는 편집위원회의 기획상 우선순위 등의 사정에 따라 심사 통과 원고 가운데 일부를 필자의 양해하에 차기 호 또는 차차기 호에 실을 수 있다. 이 가운데 단순히 논총 수록 분량 초과만이 원인일 때에는 심사 성적 순위로 해당 호 게재를 결정한다.
3. 심사 판정과 “검토 또는 수정 제의” 및 “게재 불가” 사유 등의 심사 결과 내용 통보는 심사위원이나 과정을 대외비로 한 상태에서 통보하며 공개하지 아니한다.
4. 투고 논문에 대한 심사결과, 게재불가로 판정받은 논문에 대해서는 수정 후

재투고하더라도 논총 게재대상 논문으로 접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논문심사 결과에 대한 논문투고자의 이의신청 내용에 대해, 편집위원회가 편파 또는 불공정 심사로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심사위원 교체에 의한 재심사를 시행할 수 있다.

※ 이 심사 내규는 2004년 12월 24일 제정된 북방사논총 심사 내규를 승계하여, 2006년 11월 22일 동북아역사재단에서 개최된 제1차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었고, 2011년 10월 7일, 2018년 2월 23일 편집위원회에서 재개정되었음.

(투고 방법 및 원고 작성 요령)

1. 동북아역사논총(이하 논총으로 약함)은 전문적인 학술지로서 논문, 설립, 서평, 자료소개 등을 게재한다. 투고하고자 하는 원고는, 투고자가 동북아역사재단 《동북아역사논총》 온라인투고시스템(<https://nahf.jams.or.kr>)에 접속하여 반드시 회원 가입을 한 후에 《동북아역사논총》 온라인투고시스템(<https://nahf.jams.or.kr>) 내의 논문 투고 절차에 따라 저작권 활용 동의서와 함께 동북아역사논총 편집위원회 앞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2. 원고는 반드시 컴퓨터 파일로 작성하여야 한다. 원고 제출방식은 동북아역사재단 《동북아역사논총》 온라인투고시스템(<https://nahf.jams.or.kr>)에 회원 가입 후 투고 원고를 제출하고 사진 등은 해상도 300dpi 이상으로 하여 별도 첨부한다.
3. 원고분량은 200자 원고지 150장 내외를 기준으로 하되 충분한 논지 전개를 위해 부득이한 경우 70장가량 초과할 수 있다. 그림과 사진의 수량은 논지 전개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으로 제한하며 초록도 국문 800자, 영문 400자 내외로 제한한다.
4. 원고는 제목, 필자(소속기관, 직위), 머리말, 본문, 맺음말, 참고문헌, 국문 초록, 국문 주제어, 영문초록, 영문 주제어의 순서로 구성한다.
5. 논문의 목차와 소제목은 머리말로부터 순서에 따라 I> 1> 1)> (1)로 번호 매김을 한다.
6. 본문은 까다로운 고유명사 또는 의미상의 혼돈이 예상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한글로 작성하되, 한자가 필요한 경우에는 맨 처음만 한글(한자)로 병기하고 이후부터는 한글로만 표기한다.

7. 인용문은 본문의 문장 가운데에 삽입되는 경우 “ ” 표시로 묶고, 인용문이 길어 문단을 나눌 경우에는 “ ” 표시 없이 글자크기를 작게 하여 서술하고 괄호 안에 출전을 밝힌다.

8. 각주에서 현대문헌을 인용할 때에는 “필자”, “연도”, “논문”, “서책(출판사)”, “쪽수”의 순서로 한다. 앞서 인용한 문헌을 재인용할 때에는, 바로 위의 문헌을 인용할 경우에는 “필자”, “연도”, “위의 글(책)”, “쪽수”의 순서로, 바로 위 이전의 문헌을 인용할 경우에는 “필자”, “연도”, “앞의 글(책)”, “쪽수”의 순서로 인용한다.

예) 동북인, 2006, 『동북아사와 동북문화에 대하여』, 『동북아역사논총』 1호, 1~10쪽.

동북인, 2006, 위(앞)의 글(책), 1~10쪽.

9. 각주에서 고중세 문헌을 인용할 때에는 “작자(필요 시)”, “서책”, “편목”, “인용대문”의 순서로 한다. 이중 고중세 문헌은 필요할 경우 판본명이나 영인본명을 밝힐 수 있고, 인용대문 중 전략, 중략, 후략 등은 “……”로 표기한다.

예) 東北人, 『東北集』(東北文化社影印本). “東北有高士, 東北公賢裔鶴擁, 是人也”.

10. 서양문헌을 인용할 때에는 책명은 이탤릭체, 논문은 큰따옴표로 표기하고 다음과 같은 순서와 방식으로 인용한다.

예) V. G. Childe, 1932, “Chronology of prehistoric Europe : a review,” *Antiquity* 6, pp. 206~212.

※ 이 투고 요령은 2004년 12월 24일 제정된 북방사논총 투고 요령을 승계하여, 2006년 11월 22일 동북아역사재단에서 개최된 제1차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었으며, 2015년 2월 23일, 2018년 2월 23일, 2018년 8월 19일, 2020년 8월 14일 편집위원회에서 개정되었음.

- 편집위원장

김현숙 동북아역사재단 수석연구위원

- 편집위원

김영숙 동북아역사재단 초빙연구위원

김재홍 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교수

박정민 전북대학교 사학과 교수

박정애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박한민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백종오 한국교통대학교 교양학부 교수

이유표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이정선 조선대학교 역사문화학과 교수

정병준 동국대학교 사학과 교수

정순일 고려대학교 역사교육과 교수

조영광 전남대학교 역사교육과 교수

홍성화 부산대학교 역사교육과 교수

- 편집간사

허 란 동북아역사재단 출판팀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前 北方史論叢

동북아역사논총 80호(2023. 6)

초판 1쇄 발행 2023년 6월 30일

펴낸이 이영호
펴낸곳 동북아역사재단

등록 제312-2004-050호(2004년 10월 18일)
주소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81
전화 02-2012-6065
홈페이지 www.nahf.or.kr

ISSN 1975-7840
비매품

이 책의 출판권 및 저작권은 동북아역사재단이 가지고 있습니다.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어떤 형태나 어떤 방법으로도
무단전재와 무단복제를 금합니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